

第9章 大邱의 建築

第1節 傳統建築

I. 序 言

대구는 慶尙道의 중앙부, 慶尙北道의 남부에 위치하고 동은 환성산, 서는 와룡산, 남은 비슬산, 북은 문암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형성된 도시이다. 대구는 해안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산지로 둘러싸인 내륙분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단되어 현저한 내륙성 기후를 가지게 되어 위도에 비하여 寒暑의 교차가 매우 심하고 여름의 더위는 유명하며 강우, 강설이 적은 편이다.

금호강과 그 지류인 신천의 범람으로 이루어진 기름진 평야는 일찍부터 농경에 적합하여 대구에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대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대략 3천년 부터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후 무문토기 문화인들이 농업을 가지고 등장하여 達城丘陵과 같은 주변 구릉지대에 취락을 형성하고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락들이 여러개 합쳐져서 부족을 이루게 되었고 뒷날 達句伐의 부족국가로 발전하였다.

달구벌 시대 대구는 가야 문화권에 속해 있었으며, 가야 諸國이 차례로 신라에 병합되면서 달구벌도 신라영토로 편입되었는데, 이때가 대체로 5세기말 내지 6세기 초로 추정된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약 20년 되는 해, 즉 신문왕 9년(689) 왕이 장산성 즉 경산의 압량에 行幸하고 서울을 달구벌에 옮기려고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神文王 九年 秋八月 王欲移都 達句伐 未果”란 기록이 그것인데, 이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 걸맞는 새 수도의 입지로 교통과 군사적 요충에 위치하는 대구의 자연 및 인문지리적 중요성이 고려된 때문이라 생각된다.

대구는 그 후로도 영천, 경주를 잇는 線과 부산, 서울을 잇는 線의 교통상의 요충으로 인근 각지의 물자가 集散하는 경제의 중심지가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군사상의 요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발전해 왔다. 특히 조선시대 선조조에는 경상감영이 대구에 설치되어 경상도지방의 군사 및 행정의 중심지로 기능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이 같은 대구는 가야와 신라의 고토로서 일찍부터 불교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조선시대에는 嶺南士林派를 형성한 儒敎文化의 요람지이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팔공산을 중심

으로 그 때 창건된 많은 가람들이 남아있으며, 특히 桐華寺·北地藏寺·把溪寺·夫人寺 등은 대개 신라 및 고려 때의 巨刹로 한국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람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현존 사찰들은 대부분 임진왜란 兵火에 불탄 것을 17세기 이후에 중건한 것들로, 조선 후기 불교건축의 양식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도 적지 않은 廢寺址와 문헌에 이름만 남아 있는 옛 가람들이 많아 당시 융성했던 불교문화와 그에 따른 불교건축의 규모와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는 불교세력을 몰리치고 스스로의 국교적 지위를 확립하게 되어, 국가 통치체제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널리 사회전반에 침투하여 국민생활을 규범하는 윤리 도덕으로 보급되었다. 특히 16세기 이후 강한 사회적 구속력을 지닌 유교적 실천 윤리와 규범에 의해 鄉村社會가 영도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의 공간구성과 배치에 유교적 형식논리가 많이 적용되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향촌에서 굴림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간의 연대가 깊어야만 가능하였다. 때문에 씨족마을 내 宗家は 물론 祠廟, 즉 家廟·祠宇·齋室를 경영하여 동족마을을 형성하는 共祖·同祖意識의 구심점이 되도록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대구에는 현재까지 이같은 祠廟建築이 많이 남아 있다. 이 밖에 관아 건축을 비롯 鄉校·書院·書堂 등의 유교건축과 樓·亭·堂 및 旌閭閣, 孝子閣 등도 많이 건축되었다. 이들 건축물들은 모두 전술한 유교적 형식논리에 따라 지어졌으며, 시기적으로는 특히 17세기 이후에 많이 건축되었다.

이처럼 대구는 통일신라 말까지 한국 불교문화의 중심지로서 많은 불교건축을 남겼으며,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성하여 많은 明賢들을 배출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學脈이 형성되어 곳곳에 이들과 관련된 씨족마을과 주택 및 鄉校·書院·書堂·齋室 등의 유교건축이 경영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역문화의 보수성이 매우 강해 지역적 특수성이 뚜렷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글은 대구지역의 전통건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城廓·官衙建築·儒敎建築·佛敎建築·마을 및 住居建築 그리고 기타 건축(樓·亭·堂·旌閭閣·壇 등)으로 나눠 살펴본 것으로 무엇보다 대구건축이 가지는 지역성과 보편성을 조명하고자 노력하였다.

II. 城 廓

1. 邑城

邑城은 지방의 官府와 民居를 둘러서 쌓은 城으로 邑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城으로 둘

러 싸인 취락을 의미하였으나, 그 가운데 宗廟와 王宮이 있는 都城과 구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제부터 邑城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三國時代에 있어서는 山城과 邑城이 따로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으나, 지방의 주요한 도시를 둘러싼 邑城이 山城과 같이 산을 의지한 위치에 있었던 흔적이 차츰 밝혀지고 있다.

통일신라 때에는 9州와 5小京이 지방의 큰 도회지였고, 여기에는 신문왕때 읍성이 축조되었던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주요 지방도시에 읍성이 축조되었고, 고려말기까지는 규모가 작은 土築의 읍성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들 고려시대 읍성들은 조선왕조에 이어졌으며, 차츰 石築으로 고쳐지거나 戶口의 증가에 의해서 넓게 고쳐 쌓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세종때 부터는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바다가 가까운 지역의 읍성들이 새로 축조되거나 개축되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읍성으로는 정조 때 축조된 수원읍성(華城)이 대표적인 것이며, 이밖에 동래읍성·해미읍성·낙안읍성·경주읍성 등이 있다. 읍성은 府·牧·郡·縣의 행정구역 단위의 등급에 따라 그 크기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읍성들은 조선왕조의 마지막까지 존속되었으나, 1910년 일본에 의하여 邑城 철거령이 내려져 대부분의 읍성들이 홀렸으며, 위 몇몇 읍성들에 당시의 유적이 일부 남아 있을 뿐이다.¹⁾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행정상 중요한 곳에 邑城을, 그리고 전략상 중요한 곳에는 山城을 쌓았다. 이는 폭동을 막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날 全州인 完山府나 淸州牧과 같은 성곽은 邑城의 대표적인 실례이고, 北漢山城 南漢山城 등은 전형적인 산성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읍성들은 全州나 尙州城처럼 외곽으로 쌓은 경우와 평양이나 개성처럼 外城과 內城의 겹으로 쌓는 경우가 있다. 또 성곽의 모양은 地勢를 따라 자유롭게 쌓는 경우와 全州城처럼 方形으로 축조한 것이 있다.

그리고 성곽 쌓는 수법은 커다란 돌들로 바른층 쌓기와 허튼층 쌓기로 축조하고, 위에는 女牆을 만든다. 동서남북 네 大門의 출입구에는 홍예를 틀고 그 위에 門樓를 건축한다. 또 城에는 甕城을 쌓고, 城廓 곳곳에 曲城(雉城)등을 쌓기도 하였다.

邑城의 계획은 평지나 山間 盆地 주위에 성곽을 쌓고, 그 중앙에 왕권을 상징하는 객사를 두고, 그 주위에 官衙建築과 鎭營을 건립한다. 또 향교가 한적한 곳에 자리잡게 된다.

客舍는 고려 때부터 건축되어 온 것으로, 조선시대에도 각 지방의 행정 중심지에 건축되었다. 客舍의 모습은 主館이 중앙에 자리를 잡고, 그 좌우로 兩翼舍가 달려 있는 형태이다. 主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1991, pp.493~494.

館은 殿牌를 모시고 의식을 행하는 공간이고, 兩翼軒은 서울서 내려온 使臣이 머무는 곳이다. 또 객사의 일을 돌보는 守直舍가 부속건물로 건축되고, 주위의 風光을 조망하며 사신을 접대 하던 樓가 건축되기도 한다.²⁾

대구 읍성은 1906년 당시 관찰사 서리로 있던 朴重陽이 일본 거류민단의 철거 건의를 받아 들여 성벽을 헐어버려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대구읍성 규모나 구조·형태·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大丘府邑誌》³⁾ 등의 각종 문헌과 ‘嶺營築城碑’⁴⁾나 ‘修城碑’⁵⁾ 등의 金石文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을 뿐이다.

1832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大丘府邑誌》에는 당시 읍성을 원형으로 표시하고 東西南北 방향에 있던 4大門과 관아들을 표시해 놓았다. 또 이 지도에는 읍성 뿐만 아니라 대구 주변지역에 있던 당시의 주요 건축물 및 행정구역도 함께 그려 넣어 19세기초 대구읍성 안팎의 모습을 개괄적이거나 짐작할 수 있다. 이 지도에 따르면 당시 대구읍성 안에 배치되었던 관아의 대부분은 東·西大門을 연결하는 東西도로 북쪽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西大門 가까운 곳에 ‘本官’을, 東大門 근처에 ‘中營’을 그리고 그 사이 중앙에 ‘客舍’와 ‘監營’을 각각 배치한 것이다. 또한 東西도로 아래 남서쪽에는 鎭營 하나만 있고, 鄉校는 읍성 東門을 벗어난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다른 읍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배치형식과 유사하다. 다만 다른 점은 당시 대구에는 慶尙監營이 있었기 때문에 本官 외에 監營이 함께 배치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官衙 중에서 ‘本官’은 ‘大丘都護府’를, ‘監營’은 ‘慶尙監營’을 각각 가리키는 것으로, 位階를 따져 서쪽보다 위계가 높은 東便에 ‘監營’을 그리고 그보다 位階가 낮은 西便(오른쪽)에 ‘本官’(大丘都護府 官衙)를 구분 배치하였다.

한편 조선왕조 선조 23년(1590)에 읍성이 새로 축성되기 전까지 官衙들이 입지했던 達城은 읍성 西門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16세기말에 이루어진 새로운 읍성 축성이 그전까지 읍성의 역할을 해온 達城을 포함시키지 않는 새로운 읍성계획에 따라 시행되었음을 보여준다.

2) 주남철, 〈조선시대건축〉, 《한국미술사》, 대한민국예술원, 1984, pp.516~517.

3) 한국학 문헌연구소편, 《邑誌 1》慶尙道①, 아세아 문화사, 1982, pp.1~8.

4) 1737년에 세워진 비로 현재 수성구 만촌동 산 83-5(망우공원)에 있다. 현재 대구시 유형문화재 4호로 지정되어 있다.

5) 1870년에 세운 비로 수성구 만촌동 산83-5(영남제일관내)에 있다. 현재 대구시 유형문화재 5호로 지정되어 있다.

1) 朝鮮時代 以前の 邑城 - 達城

대구는 신라 때의 地名을 達句火縣이라고 하였으며, 그후 경덕왕 때 이르러 大丘라 하였다. 達城이란 이름은 이 達句火 또는 達弗城에서 나온 것이다. 達城은 대구에 축성된 최초의 성으로 경주의 月城과 유사하게 자연적인 구릉을 이용하여 쌓은 土城이다. 이 성은 三韓 이래로 그 지방의 중심세력을 이루었던 집단들이 종래부터의 생활근거지에 축조한 자연발생적인 성곽이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달성은 우리나라 성곽 발달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 형식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달성의 축성시기를 두고 학자들 간에는 異見이 있는데, 김정학씨는 기원전 2세기 축조설을 그리고 윤용진씨는 기원후 3-4세기경 최초로 축성한후 수차례 증축하였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⁶⁾ 문헌에 나타난 달성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三國史記》 沾解尼斯今조에 보인다. “沾解尼斯今十五年 春三月 築達伐城 以奈麻克宗爲城主”⁷⁾라 한 기록이 그것이다. 즉 沾解尼斯今 15년(261) 봄에 달벌성을 쌓고 奈麻 克宗으로 城主를 삼았다는 것으로 여기에 나오는 達伐城과 達城이 같은 城을 지칭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볼때 달성은 빨리는 기원전 2세기 늦게는 기원후 4세기경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에 달성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보수되어 오면서 대구지방의 중요한 鎭城으로써 기능하였다.

1968년 현 달성공원 입구로부터 남쪽으로 150 여미터 지점에 있는 문화회관 남벽 바깥에서 성벽의 일부를 절단하였을 때 그 하부의 암반 위에서 패총과 金海式 토기가 사용되던 시기의 유물 포함층이 발견되었다. 그 상부에 있는 토성 구조의 기반이 되는 층에서 삼국시대의 토기들이 나오으로써 양자의 편년 관계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성벽은 주로 안쪽에 돌을 쌓고 밖은 흙으로 축조하였는데, 그 높이는 부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위에서 말한 절단부에서는 약 10미터에 달하고 있다. 한편 성 주위의 길이는 약 1천3백미터이다.



〈사진 9-1〉

공중에서 내려다 본 달성

6) 대구직할시, 《達句伐》, 1977, pp.184~185.

7) 대구직할시, 위의 책, p.185.에서 재인용

토성으로 축조되었던 達城은 나중에 石城으로 개축되었는데, 달성의 石築시기를 《慶尙道續撰地理志》에서는 고려 공양왕 2년(1390)으로 기록하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도 達城에 대해 “府의 서쪽 4리에 있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9백 44자, 높이 4자이고, 안에 우물 셋과 연못 둘이 있고, 軍倉이 있다”⁸⁾고 기록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달성은 처음 土城으로 축조 되었다가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石城으로 개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달성은 선사시대 이래 도시의 중앙부 구릉지에 위치하는 유리한 입지 조건으로 신라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초까지 官衙가 설치되었다. 그후 임진왜란 중이던 선조 29년(1596) 경상도 左道와 右道가 통합되고, 경상도 監營이 이곳에 설치되면서 또 다시 石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후 丁酉再亂 때 다시 대구로 쳐들어온 倭軍이 達城 監營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으므로 그 이후는 줄곧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폐허가 된 채 버려졌던 달성이 또 다시 日本人들에 의해 수난을 받기 시작한 것은 1894년 6월 발발한 청일전쟁 때부터로 東學革命軍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출병한 일본군이 달성을 진지로 사용한 것이다. 달성은 乙巳條約 다음해인 1906년 11월 3일 日人들이 이곳에 ‘皇大神宮 遙拜殿’을 건립함으로써 또다시 수난을 겪게 된다. 神社가 건립되면서 대구 주민들은 ‘神社參拜’라는 또 다른 고초를 겪어야 했다. 따라서 日帝 치하의 달성은 대구 시민들이 ‘亡國의 恨’을 되씹는 치욕의 공원이었다.

해방후 神社는 바로 철거되었고, 1965년 정부로부터 공원 관리권을 인수받은 대구시가 일대를 시민공원으로 새 단장을 하고부터 달성은 대구의 대표적 공원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⁹⁾

2) 朝鮮時代의 邑城

대구읍성은 본래 土城으로 조선왕조 선조 23년(1590) 대구 府民외 善山·軍威·仁同 등 3개 읍민을 징발해 축성하여 이듬해 완성하였다. 이때의 축성은 비단 대구 뿐만이 아니라 永川·清道·三嘉·星州·釜山·東來·晉州·安東·尙州·左·右兵營 등 경상도 일원에 걸친 大役事로 倭의 침입을 우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축성된 土城은 임진왜란 때 倭軍 가운데 제일 먼저 대구에 입성한 小西行長軍에 의해 파괴되어 더이상 구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다. 1596년 慶尙道 左·右道가 통합되면서 대구에 監營이 처음 이전되었을 때에도 감영만 설치되고, 그에 따른 축성은 없었다. 그후 여러번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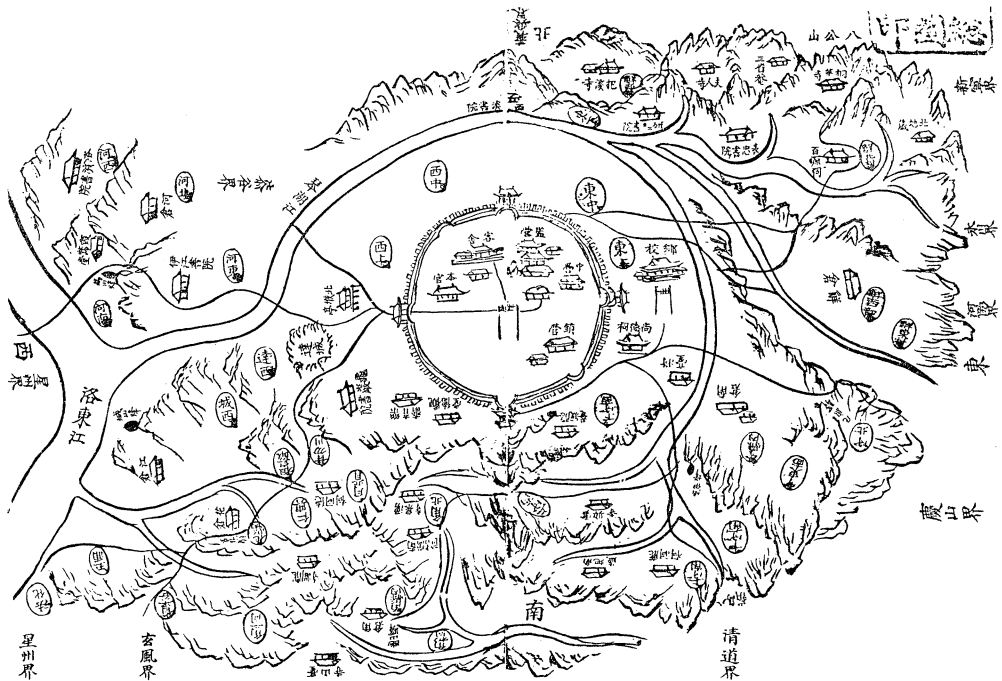
8) 민족문화추진회,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 3, 민문고, 1989, p.551.

9) 대구직할시, 《達句伐》, 1977, pp.184~189

찰사 등이 대구읍성의 축성에 대해 진언했으나 그때마다 시급한 山城의 축성에 밀려 대구읍성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고 조정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못 보는 바람에 140 여년간 城이 없는 監營만 있었던 것 같다.

대구읍성의 축조가 결실을 보게 된 것은 영조 12년(1736) 당시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도호부사였던 閔應守의 건의에 의해서였다. 이때 축성된 것은 石城으로 그 규모에 대해서는 ‘嶺營築城碑’의 기록과 《大邱府邑誌》 등의 기록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당시의 실제 기록인 ‘嶺營築城碑’의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겠다.

‘嶺營築城碑’(대구직할시 유형문화재 제4호) 碑文에 의하면, 대구에는 원래 土城만 있었는데 그나마 무너져 유지만 있던 것을 영조 11년(1735) 3월에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도호부사로 부임했던 민옹수가 조정에 건의하여 이듬해(1736) 정월 8일에 돌을 다듬기 시작하여 이달 12일에 城터를 닦고 영남감영의 石城을 쌓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해 4월 25일에 體城이 완성되고 6월 6일에 女堞¹⁰⁾이 완성되었는데, 네 성문은 두 개의 홍예문 위에 건축되었다.



(圖 9-1)

1982년 편찬된 《大邱府 邑誌》의 邑城圖

자료: 한국학 문헌연구소편, 《邑誌》1, 경상도①, 아세아 문화사, 1982, p.3

10)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으로 몸을 숨기고 적을 쏠수 있게 만든 것.

성의 둘레는 옛 土城보다 길어서 총 2천 1백 24步, 女堞이 8백 19尺, 성 높이가 西南쪽은 18尺, 東北쪽은 17尺, 후측 廣이 7보, 높이가 3級 이었다.

이 성의 東西南北에 네 城門이 있었는데, 東門을 鎮東門¹¹⁾, 西門을 達西門¹²⁾, 北門을 拱北門¹³⁾이라 했으며, 특히 남문은 嶺南第一關¹⁴⁾이라는 편액을 걸고 신임 관찰사이면 누구나 가까운 西門을 두고도 성을 빙 돌아서 도임 행렬도 당당하게 입성하던 곳이다. 이들 네 성문 외에도 巽方(東南間)과 乾方(西北間)에 暗門(야간 통행문을 말함)을 두고 東小門·西小門이라 하였다.

또 이 碑文에는 성이 완공된 그해(1736) 11월 辛丑일에 落成宴을 監營 宣化堂에서 개최한 사실과 축성 경위 및 인력 동원등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¹⁵⁾ 6개월에 걸친 축성 공사에 동원된 연인원은 7만 8천 584명인데, 이들은 대구 부근의 雜色軍을 위시하여 대구 칠곡의 烟軍(연군:봉수대를 관리하던 군인), 함경도 六鎭의 束伍軍, 산성의 牙兵, 경상도내의 僧軍 등이었다.

이때 축성한 대구읍성은 그후 130 여년간 별다른 보수를 하지 않다가 대원군 집정 시기인 1870년 3월 중수하였다. 丙寅洋擾 등으로 열강들과의 군사적 충돌이 잇달아 일어나자 대원군이 각처에 군량을 저축케 하고 성곽 수리를 명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의 대구읍성은 많이 퇴락하여 중수하는데 8~9개월이 소요되었다.

고종 6년(1869) 8월에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도호부사로 부임했던 김세호가 영남감영의 성을 수축한 후 修城의 사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修城碑(대구시 유형문화재 제5호)에는 읍성 수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공사는 관찰사 김세호가 부임한 이듬해인 고종 7년(1870) 3, 4월경에 착공하여 8, 9개월 만인 이해 11월에 준공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 修城 공사는 원래의 體城을 더 높이고 확장한 결과 新築이 97步, 改築이 118步, 補築이 1천 409步, 치첩 신축이 2천 680步였다. 그리고 門樓 및 公廨 건축이 72칸, 重建한 건물이 37칸, 重修한 건물이 517칸, 公廨 각처 補修가 256칸이었다. 이때 증설된 砲樓는 남쪽의 宣恩樓, 동쪽의 定海樓·서쪽의 籌勝樓·북쪽의 望京樓이며, 이때 4 砲樓 중간에 4개의 砲樓를 추가로 증설하고 石墩도 신축하였다. 또한 모든 樓는 단청을 올리고 치첩은 白灰로 분장하였으며, 총 경비는 7萬錢이 들었다.¹⁶⁾

11) 구 동성로 과출소 앞 네 거리로서 현재 한일극장 건너편 지하도 입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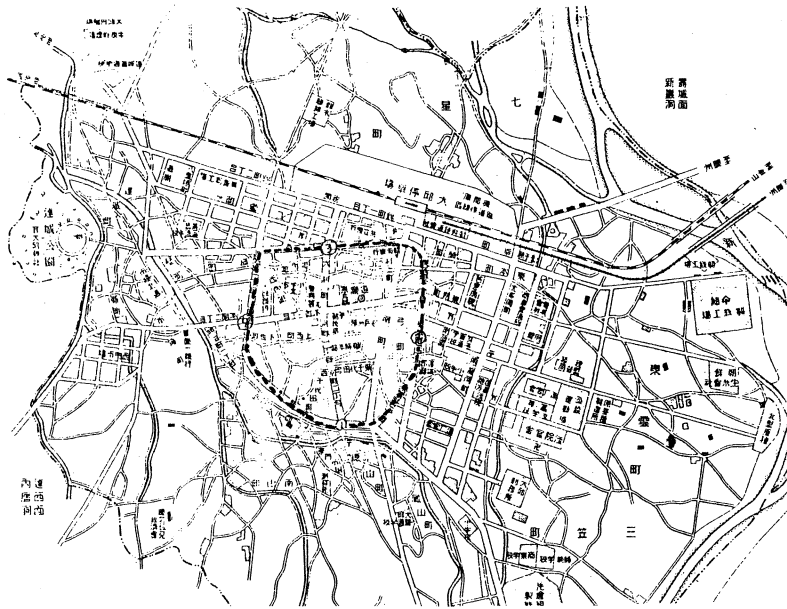
12) 구 대구경찰서 서쪽으로 뻗은 길과 서성로가 교차되는 네 거리 윗 지점으로 추정됨.

13) 구 대구경찰서에서 북쪽으로 뻗은 길과 북성로가 교차되는 현 중부보건소 앞 네 거리 지점으로 추정된다.

14) 구 대구경찰서에서 남쪽으로 뻗은 종로와 남성로가 교차되는 네 거리 지점으로 추정된다.

15) 대구직할시, 《향토문화유적》, 1988, pp.82~84.

16) 대구직할시, 위의 책, pp.88~90.



〈圖 9-2〉 조선시대 대구 邑城의 位置와 四大門

범례 : 1. 點線이 城廓址이다. 點線上의 ① 南門址 點線上의 ③ 北門址
2. 城門址 " ② 東門址 " ④ 西門址

자료 : 《영남제일관 고증조사서》, 정우건축설계사무소 간행, p.35

이같은 대구 읍성도 1906년 당시 관찰사 서리로 있던 朴重陽이 일본 거류민단의 철거 건의를 받아들여 성벽을 헐어 버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당시의 성벽 철거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는데, 즉 西將臺에서 西門까지는 이미 철거하여 도로로 되어 있었고, 西門에서 西小門을 거쳐 望京樓까지의 성벽은 개인에게 석재 등 일체를 무상으로 불하한다는 조건으로 1907년 3월 5일 착수하여 3주일 내에 성벽 철거 작업을 끝냈다. 그리고 望京樓에서 北門을 거쳐 東將臺까지는 이미 땅이 평탄하여 문제될 것이 없었고, 東將臺에서 東門과 東小門을 거쳐 南將臺까지는 대구 시민에게 자진 부역 형식으로 洞別 구역을 할당 철거하였다. 이렇게 하여 大丘邑城은 일본인들의 철거 건의에 따라 1907년 4월 완전히 헐리게 되었고 읍성이 있던 자리에는 오늘날의 東城路·西城路·南城路·北城路의 순환도로가 남아 옛 읍성지의 구역을 말해 주고 있다.

2. 山城

山城은 산에 쌓은 城 또는 山勢를 따라서 쌓은 城을 말하는 것으로, 木柵·土壘·石築을 포함

하여 산의 정상부나 斜面을 이용해 적으로 하여금 많은 힘을 기울여 공격하게 하고, 아군이 적을 내려다 보며 守城하려는 의도에서 축조되었다. 특히 삼국시대에 이르러 산성이 많이 축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산성은 평상시에 軍倉을 두고 여기에 곡식과 무기를 준비하여 두며, 적이 침입하여 오면 평지의 주민들을 모두 산성에 들어오게 하여 抗戰하는 것이다. 산성은 城壁이 어떻게 축조되었냐에 따라서 木柵·木杙·鹿角城·板築·削土·夾築·內托 혹은 山托의 축조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木柵·板築·夾築·內托의 방법이 가장 많다.

또 城이 위치한 지형 조건에 따라 栲栳峰形·蒜峰形·紗帽形·馬鞍形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방법은 실제 구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테피식과 包谷式的 둘로 구분한다. 테피식은 산의 정상부만 두른 것으로서 마치 사발을 엮어 놓은 듯하여 鉢圈式이라고도 하는 것이며 작은 규모의 성에 많다. 包谷式은 산의 정상에서부터 계곡의 아래쪽까지를 포용한 것으로 큰 규모의 산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는 위 두 형식을 절충한 형식으로 산의 정상부에서 7부 능선까지만 쌓은 山腹式 혹은 斜面式이 가장 많다. 이들 각 형식에서 발전방향은 테피식이 먼저이고 포곡식이 뒤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⁷⁾

산성은 일반적으로 성안에 우물이나 계곡의 물이 있어야 하고, 성안에 창고시설이 있었던 것이지만 지형의 유리함을 이용하므로 특별히 雉城¹⁸⁾을 갖추지 않아도 되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구에는 鳳舞洞 土城(3-4세기)·檢丹洞 土城(3-4세기)·龍岩山城(삼국시대)·魯谷洞 山城(4-5세기)·大德山城(羅末麗初)·龍頭山 山城(원삼국시대)·八莒山城(5-6세기)·城洞山城(삼국시대 초기)·旭水洞 山城(삼국시대)·公山城 등의 많은 山城이 있었다.

鳳舞洞 土城·檢丹洞 土城·龍頭山 山城·城洞 山城 등은 높지 않은 강변 구릉상에 축조한 성으로, 전투능력이 빈약했던 기원후 3~4세기 경에 일대의 세력 집단들이 쌓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土城이 존재하는 곳에는 꼭 대규모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어 토성과 고분군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龍岩 山城·魯谷洞 山城·大德 山城·八莒 山城 등도 이 지역에 있던 상당한 세력집단들이 축성한 것으로, 전술한 土城들에 비해 高地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전투능력이 제법 발달한 시기인 삼국시대의 城으로 보여진다. 공산성은 언제 축조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 1991, p.193.

18) 성의 외부로 돌출시켜 적을 효율적으로 사격할 수 있게 쌓은 성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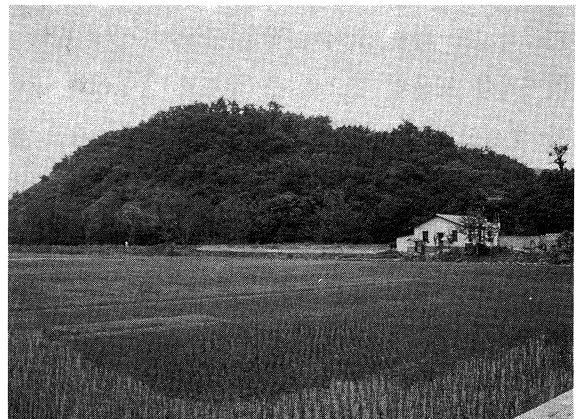
조선시대 초기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부분적으로 수축하여 사용하다가 그후 다시 방치하여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 성 중에서 龍岩山城·龍頭山山城·城洞山城 등은 테피식 城이고, 大德山山城·旭水洞山城은 包谷式 城에 속한다.

1) 鳳舞洞 土城

鳳舞洞 土城(대구직할시 기념물 제4호)은 금호강을 사이에 두고 檢丹洞 土城과 마주보고 있는 봉무동 사무소 바로 윗쪽 대구직할시 동구 봉무동 산1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금호강변에 돌출한 구릉을 이용하여 흙으로 쌓은 이 土城의 넓이는 약 3천 여평, 城의 주위 둘레 600여미터로 대구 일대의 성터 가운데 제일 규모가 작은 것이다.

土城내에서 金海式 토기와 無文土器에 서부터 삼국시대 토기에 이르는 토기 조각이 발견되고 있어 築城年代를 기원 3~4세기 경으로 보고 있다. 達城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천가에 돌출한 구릉을 이용하여 그 둘레에 土城을 쌓은 것이다. 이 성 역시 達城·檢丹土城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투능력이 빈약하던 시대의 축성 수법에 속한다.



그러나 비록 높이 70m 정도의 얇은 구 (사진 9-2) 봉무동 토성 원경
릉이라고 하지만 성의 남쪽 끝은 경사 60도가 넘는 단애를 이루고 있어 당시의 방어 진지로 사용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鳳舞洞 土城은 부근 봉무동 산 146번지에 불로동 산 17번지에 이르기까지 줄지어 늘어선 古墳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土城이 존재하는 곳에는 꼭 대규모 古墳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대구 지방 土城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사정에서 보면 檢丹洞 土城은 복현동 古墳群과, 봉무동 토성은 봉무·불로동 古墳群과 각각 인접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토성도 대구지방 초기 부족국가 형성 시기에 상당한 세력 집단이 축성한 것으로 보인다.¹⁹⁾

19)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八公山 史蹟地表面調査 報告書》, 1987, p.142.

현재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용되어 토성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다.

2) 檢丹洞 土城

북현동과 인접한 금호강변에 쌓은 檢丹洞·土城은 그 축성시기가 기원 3~4세기에 축성한 것으로 대구직할시 북구 검단동 산 9~1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順興安氏 宗中 소유로 되어 있는 이 土城의 둘레는 1,000 여미터, 높이는 최고 해발 134미터, 최저 100미터이다.

이곳은 伏賢洞·山格洞 일대를 연결하는 구릉이 뻗어 나와 금호강에서 맞닿게 되는 곳인데, 土城은 그 돌출 부분을 따라 쌓은 것 같다. 土城이 위치한 지형으로 보아 동쪽은 금호강에 의해서 단애를 이루고 있으므로 자연적인 성벽구실을 하고 있으며, 북쪽과 서북쪽 역시 감도는 금호강에 의해서 자연의 방어진지를 만들고 있다. 다만 남쪽만 북현동의 구릉과 연결되고 있으므로 土石으로 성벽을 쌓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한 것 같다.



〈사진 9-3〉

검단동 토성 원경

따라서 이 일대는 선사시대부터 가까운 금호강변을 무대로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구릉 자체가 높지 않은 데다가 경사도 심하지 않은 곳에 축성한 것으로 보아 용암산성과 마찬가지로 전투능력이 빈약한 시대에 쌓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대의 취락민들이 부족집단의 초기 세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체 방어를 위해 축성한 것 같다.

현재 土城내의 평지는 田畓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다가 주택까지 들어서 북쪽과 동쪽의 성벽은 자취를 찾기 어렵다. 다만 남쪽 구릉상의 성벽만 일부 남아 있다.²⁰⁾

3) 龍岩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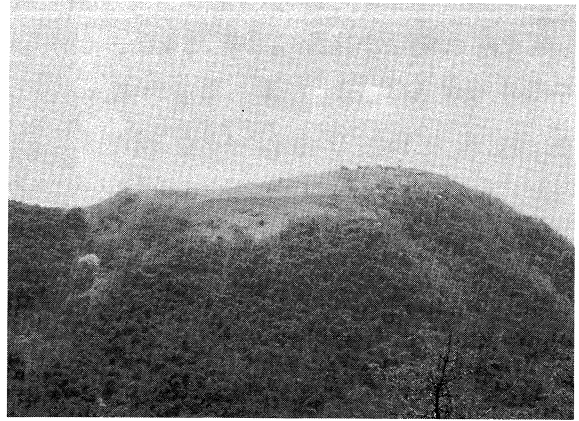
龍岩山城(대구직할시 기념물 제5호)은 대구직할시 동구 도동 산 35~36번지 일대에 걸쳐 있다. 이 성은 산의 정상을 중심으로 가파른 경사면을 이용하여 테피형으로 축성한 산성이다.

대구에서도 가장 오지인 평광동으로 들어가는 꼬불길 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오른쪽에 조

20)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앞의 책, p.141.

그마한 암자가 있고 암자 뒷편에 용암산으로 통하는 좁은 도로가 있다. 이곳은 깎아 놓은 듯이 단애를 이룬 산 북쪽으로 절벽과 바위 사이로 수목이 울창한 절경을 이루고 있다. 도동 입구에서 산을 바라보면 노곡동에 있는 함지산처럼 산 정상이 편편한데다가 동·서 양쪽이 45도 가량 경사를 이루고 있어 흡사 함지를 엮어 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자연적인 것이라기보다 인공적으로 축성하는 과정에서 힘들여 가파른 경사를 이루도록 한 것으로 추측된다.

축성시기에 대해서는 삼국시대 초기 신라토기 조각이 많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三國時代에 축성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비록 현재는 대구 시내에서 가장 오지로 되어 있지만 성이 위치한 지형상으로 보아 현재 동구 안심동과 하양읍으로 통하는 길목이며, 하양·불로·안심과의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에는 상당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시 되었던 것 같다.



(사진 9-4)

용암산성 원경

현재 산성의 동북쪽에는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싸웠다고 전해 오는 우물이 남아 있는데 직경 20여미터의 분화구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우물은 훗날 사람들이 다시 손질한 흔적이 보이며, 항상 옥같이 맑은 물이 솟아난다고 해서 玉泉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흙으로 쌓아 올린 이 土城의 성벽 둘레는 1,300여미터, 높이는 최고 해발 380미터에 최저 300미터이다.²¹⁾

4) 魯谷洞 山城

대구시내에 현존하는 山城 가운데 비교적 외형이 완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노곡동 산성으로 대구직할시 서구 노곡동 산 1~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노곡동 역시 도동과 마찬가지로 대구시의 가장 오지 가운데 하나인데 동네 앞을 동서로 가로 질러 흐르는 금호강 위를 두 개의 잠수교가 대구시내와 연결해 주고 있다.

침산쪽으로 山城을 쳐다보면 생김새가 함지를 엮어 둔 것과 흡사해서 사람들은 ‘함지산’ 또

21)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앞의 책, pp.138~140.

는 ‘방티산’으로 부르고 있으며,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이면 인근 주민들이 달맞이하는 산으로 알려져 왔다.

행정구역 상으로 이 함지산을 정점으로 칠곡군과 대구시가 경계를 이루고 있어 地番 역시 대구시 북구 노곡동 산 1의 1~2번지가 된다. 300m가 넘는 고지에 흙과 자연석을 섞어서 축성한 것을 보면 비교적 전투 능력이 발달했던 때의 산성으로 추측할 수 있다. 더욱이 산성의 서쪽 기슭 밑에 큰 古墳群이 산재하고 있어 당시 상당한 세력 집단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성내에는 지금도 古新羅期 및 新羅時代의 토기 조각이 대량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성의 축성 시기는 기원 4~5세기 경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이 조선시대에는 八莒縣에 속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八莒縣을 신라 경덕왕이 八里로 이름을 바꾸고 壽昌郡 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초에 들어 고쳐서 八居(후에 居가 莒로 바뀜)라 하고 현종 9년(1018)에 경산부 관내로 來屬하였으며, 별호는 七谷이었다. 따라서 이 일대는 당시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조 때만 하여도 서울로 통하는 유일한 步道가 성의 서쪽인 칠곡을 거쳐 尙州로 통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중요성은 인정된다.

산성이 위치한 山勢가 남서쪽인 노곡동 쪽만 비교적 계곡이 길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을 뿐 다른 곳은 모두 30度 이상의 급경사와 절벽을 이루고 있어 방어하기에 용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성내 북쪽 부분이 일제때 마을 공동묘지로 사용되는 바람에 주인 없는 분묘 10여기가 잡초더미 속에 무심히 자리잡고 있다.²²⁾

5) 大德山 山城

大德山 山城(대구직할시 기념물 제7호)은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동 산 225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이 성은 안지랭이 계곡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능선을 이용한 包谷形의 山城이다.

600m가 넘는 고지에 축성한 것을 보면 전투 능력이 발달된 시대에 조성했다고 하겠다. 또 경사가 심하고 岩塊가 노출되어 자연의 석벽으로 능선을 이루고 있으며, 올라올 수 있는 곳에 만 割石으로 성벽을 쌓았다. 이는 완전한 성벽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필요성에 의해 쌓은 성이라 하겠다.²³⁾

22)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앞의 책, pp.140~141.

23) 대구직할시, 《鄉土文化遺蹟》, 1988, pp.385~386.

《大丘府邑誌》에 “成佛山有古城 今無”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안지랭이 칠곡을 혼란기에 ‘산채’로 이용했다는 口傳과 더불어, 일시적 필요에 의해 축성했다는 추측을 통해 볼 때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축성했으리라 본다.

성은 해발 250~580m에 위치하며, 주위 둘레는 3천 여미터에 이른다. 현재 앞산공원으로 개발되어 능선상의 지형이 많이 파손되었다. 또 割石으로 축조한 城壁은 완전 붕괴되었다.

6) 龍頭山 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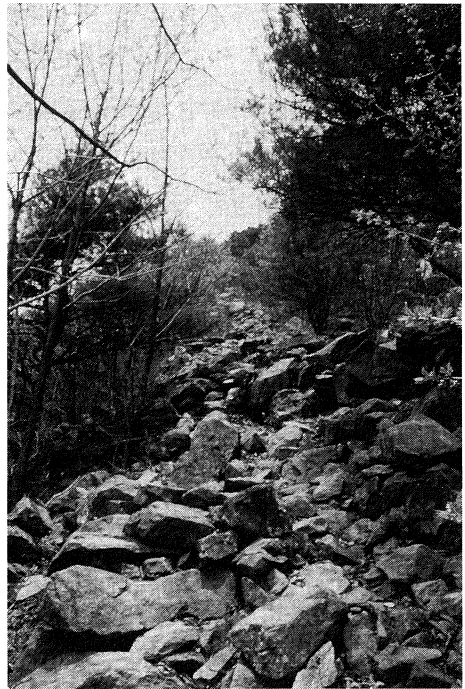
龍頭山 山城은 대구시 남구 봉덕동 산 32~1번지에 있는 城으로 新川과 접한 구릉 정상에 土·石壁으로 축조한 鉢形의 테괴型²⁴⁾ 城이다.

가파른 경사로 된 小丘陵에다 정상을 중심으로 허리에 둘러싼 소규모의 형태로 전투능력이 빈약한 상태에서만 방어가 가능한 점으로 보아 三韓시대(原三國時代)에 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 달구벌 小國 形成期에 신라 상류쪽에 정착했던 취락민들이 소집단을 위해 축성한 것으로 보인다.

성은 해발 120~180m에 위치하며, 둘레는 800 여미터이다. 外形의 흔적은 잘 보존되어 있으나, 土城內에 공공묘지가 형성되어 있어 경관이 좋지 않다. 게다가 등산로로 이용되어 南北쪽이 많이 허물어졌다.²⁵⁾

7) 八莒山城

八莒山城(대구시 기념물 제6호)은 북구 노곡동에 위치하는데, 성이 해발 200~280m의 高地에 구축된 것으로 보면, 전투 능력이 발달했던 때의 山城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진 9-5〉 대덕산 산성의 무너진 성벽

24) 산 정상을 둘러싼 성곽.

25) 대구직할시, 《鄉土文化遺蹟》, 1988, pp.386~388.

山城 서쪽 기슭 아래에는 大古墳群이 산재하고 있어 5~6세기경 상당한 세력 집단에 의해서 축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城內에 흩어진 토기편이 新羅 및 古新羅 期の 것임을 보아서도 삼국시대에 축조된 성이 분명하다 하겠다.²⁶⁾

8) 城洞 山城

城洞 山城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城洞에 있다. 이 城은 孤山 土城 또는 城洞 土城이라고도 불리워지며 慶山市 南川面



(사진 9-6)

팔거산성 원경

에서 북으로 흘러 금호강과 합류하는 南川의 東便 고립된 구릉에 위치한다. 土城內의 南便에는 모산池라는 조그만 못이 있으며, 이 못의 좌우에는 土城의 축조 흔적이 잘 남아 있다. 또 東便에 위치한 城洞 마을의 北便 즉 이 야산의 東北便에도 축조 흔적이 남아 있다.

전체적인 축조 형식은 구릉 둘레를 머리띠를 돌린 듯한 테괴식으로 板築法과 削土法을 지형에 따라 절충하였다. 한편 山頂에는 烽燧臺의 흔적으로 보이는 돌무더기가 흩어져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권 27 慶山縣 古蹟條에 “城山烽燧 在縣北八里, 北應河陽縣匙山, 西應大丘府壽城縣法伊山”(밑줄 필자)이라고 한 기록이 남아 있는 점등으로 보아 城山烽燧가 이곳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土城의 南便 모산지 주위에는 삼국시대 고분군이 남아 있으며, 城터 안에서도 삼국시대 토기편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또 성터 안에서는 有溝石斧가 발견되었으며, 이 구릉과 근접한 西南方의 포도밭 등에서는 벌써 자국이 있는 無文土器들이 채집되었고 半月形 石刀를 비롯한 石器들도 발견된 적이 있다.

또 이곳에서 서쪽 1km가량 떨어진 시지동·매호동·신매동에서는 磨製石劍이 발견된 적이 있으며, 남쪽 경산시 中山洞에서도 磨製石劍과 無文土器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東便으로 이 성을 감고 흐르는 南川 건너편 약 1.5km 지점에는 대향동 立石群이 남아 있고 임당동과 조영동의 무문토기 散布地와도 인접하고 있어 이곳이 중요한 先史遺蹟인 동시에 고대 城邑國家의 城터가 있었던 곳으로 확인된다.

26) 대구직할시, 앞의 책, 1988, p.407.

최근에 이루어진 이 일대 발굴 조사에서 무문토기 주거지에서,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기에 이르는 고분들과 住居遺蹟, 그리고 城터를 확인하였다.²⁷⁾

9) 旭水洞 山城

旭水洞 山城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옥수동에 있다. 이 城은 경산에서 서쪽으로 약 2km, 孤山 山城에서 남서쪽으로 약 4km 지점에 있는 紫陽山(해발 450m)에 위치하므로 紫陽 山城(또는 子山城)이라고도 불린다.

孤山 山城과는 넓은 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성 주변의 노변동·옥수동 등에 古墳群이 東北으로 분포되어 있고, 沙月洞 支石墓群을 비롯해서 북쪽 약 2km 지점에 펼쳐져 있다.

이 성은 둘레 약 2km 정도의 包谷式 山城으로서 北面은 자연적인 岩壁과 심한 경사면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南東面은 石築을, 南西面은 石土築을, 그리고 北面의 능선 일부에는 土築을 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권 27 慶山縣 古蹟條에는 “古浦城在縣西九里, 石築周三千一百七十尺, 今廢”(밑줄 필자)라는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이 옥수동 산성을 古浦城으로 추정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 경산시에서 西南 3km 지점에 이 山城이 위치하고 있어서 거리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山城 주변의 주민들은 이 산성을 모두 임진왜란시 경산지방의 의병장 朴應成이 쌓은 紫山山城으로 알고 있었으며, 古浦城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이 지역에서 城터가 관찰되는 곳이 이곳 뿐이므로 일단 古浦城을 紫山山城과 동일시해도 좋을 듯 하다.

이같은 사실들은 종합해 보면 이 城도 삼국시대에 이미 축조되었으나, 이후 버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城 일부를 再修築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⁸⁾

10) 公山城

公山城을 언제 축조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公山 桐藪戰’ 이후 甄萱이 공산성을 축조했다는 說과 혹은 고려 태조가 축성했다는 說이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 아마 태조 왕건과 견훤이 ‘公山 桐藪’에서 격돌한 일이 있으므로 해서 옛 성터를 본 후세 사람들이 붙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7) 대구직할시, 앞의 책, pp.514~517.

28) 대구직할시, 위의 책, pp.517~520.

공산성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高麗史》 고종 42年(1255)條에 있다. “三月丙午 諸道郡縣 入保山城海島者 悉令出陸 時公山城 合入郡縣 糧盡道遠者 飢死甚衆 老弱填壑 至有繫兒於樹而去者”(밀줄 필자)라 하여 몽고의 침구로 처참한 지경에 다달은 모습을 기록한 내용 중에 공산성에 관한 조선시대 이전의 최초의 유일한 기록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로 들어온 후의 관계기록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I. 《慶尙道地理志》道內 山城:公山城 在義興兼缶溪 并入新寧河陽大丘星州 任內八莒 周圍一千三百五十八步 內廣二十五結五卜 泉二小渠三.
- II. 《世宗實錄地理志》義興縣:公山石城 在缶溪縣南十里 踞本縣四十里 周圍一千三百五十三步高險 內有泉二小渠三 又有軍倉 新寧星州任內八莒 大丘任內解顏 軍倉并入置.
- III. 《新增東國輿地勝覽》大丘都護府 古蹟:公山城 在公散潼 踞府三十里 石築周一千五百六十尺 高四尺 內有泉二渠三 (밀줄 필자)

위 기록들을 살펴보면 먼저 朝鮮前期의 문헌자료인 I·II는 산성의 둘레에 대해 각각 ‘周圍一千三百五十八步’와 ‘一千三百五十三步’로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慶尙道續撰地理志》大丘都護府 山城條에서는 이 성의 둘레를 ‘周圍一千三百五十八尺’으로 기록하였는데, 이는 위 자료 I·II에 기록된 것보다 크게 작은 것이다. 1步는 6尺에 해당하므로 자료 I의 ‘周圍一千三百五十八步’는 8,148尺으로 《慶尙道續撰地理志》의 기록보다 월등히 큰 규모이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慶尙道續撰地理志》의 기록은 전술한 자료 I·II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步를 尺으로 단위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산성의 필수 조건의 하나인 水源에 관해서는 상기 기록이 모두 泉(井) 2, 渠 3으로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성벽의 높이에 관해서는 자료 I과 II에서는 언급된 바가 없고, 자료 III에서 ‘高四尺’이라 했다. 이밖에 《慶尙道續撰地理志》義興縣 山城條에서 ‘高十一尺’, 《新增東國輿地勝覽》義興縣 古蹟에서 ‘高十尺’이라고 기록하였다. 이같이 성벽의 높이는 4尺, 11尺, 10尺 등으로 일정치 않다.

공산성은 세종 16년(1434)에 혁파되고 그후 당분간 軍倉이 있었을 정도로 명맥이 유지되다가 《慶尙道續撰地理志》가 편찬된 예종 원년(1469)에 완전히 방치되고 말았다. 세종 16년(1434)에 공산성이 혁파된 후 약 100년이 지난 중종 25년(1530)경에는 산성은 거의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그후 다시 60여년이 지난 선조 25년(1592)에 왜란이 일어나자 공산성을 중심으로 한 의병 활동이 徐思遠을 중심으로 있었다. 대구를 비롯한 인근 儒生들이 公山城에

서 회동하여 지원병을 모집하고 倡義討賊을 외쳤으나 실제 행동에는 별 효력이 없었고 공산성도 수호되지 못했다.

그 후 선조 29년(1596) 1월에 體察使 李元翼은 星州 八莒縣(지금의 漆谷)에 설치된 막부에 서 인근 守令들과 산성 수축을 논의하였다. 이해 2월 공산성을 살펴보고 ‘大開터’라고 불리우는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미 선조 28년(1595) 겨울부터 승장이 옮겨와 막을 지어 주둔하였다. 3월에는 新寧縣監 孫起陽이 산성 東門 안에 糧倉을 지었다. 이 무렵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용순이 공산성 축성에 힘을 기울였고 유정 또한 이 성을 사수하겠다고 뜻을 가지고 합세하였다. 정유재란때(1597) 관찰사 이용순과 인근 군현의 수령들이 성을 지키다가 이용순이 떠나자 몇몇 수령들과 유정이 남아 군창을 지키다가 유정마저 9월 15일 성을 떠났다. 이때 倭將 加藤清正이 상주·선산을 거쳐 비인·군위를 함락시켰다. 이해 9월에 왜군에 의해 분탕된 후 공산성은 방치되었다.

그러다가 胡亂을 겪은 직후인 인조 16년(1638) 2월에 산성 수축에 관한 논의가 대두하여 경상도 내에서는 공산성도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조 17년(1639)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李命雄의 판단과 당시 사정에 의해 산성 수축 계획이 무산되고 대신 架山山城이 신축되었다.²⁹⁾

지금은 석재만이 흩어져 있을 뿐 지상의 유구는 없다.

III. 官衙建築

관아건축은 官員이 모여 나라일을 다스리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官署라고도 하며, 우리말로 는 “마울”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최고 통치기관으로 議政府를 두고, 백관을 통솔하는 門下府, 왕궁의 軍機 및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中樞院등과 吏·戶·禮·兵·刑·工의 六曹를 두었다. 지방에는 경기·충청 등 전국 8道와 이 밑에 府·牧·郡·縣을 두고, 이곳에 觀察使(또는 監祠), 府尹(府使), 牧使, 郡守, 縣令(縣監)등을 주재시켜 총괄케 하였다.

지방 관아의 東軒은 수령이 직접 公務를 보던 外衙(外東軒)와, 가족들이 살림을 하던 內衙(內東軒)의 두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 관아는 東軒이라 부르며, 안과 밖을 구분할 때에 만든 內衙와 外衙로 구분짓는 것이다.

29)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팔공산사적지표조사 보고서》, 1987, pp.136~138.

관아의 배치는 《尙州城圖》에 의하면 거의 원형으로 둘러쌓은 읍성 속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城의 정문인 弘治樓門을 들어서면 관아의 정문인 태평루에 이르게 된다. 태평루의 동측에는 軍寧廳과 作廳이 있고 서측에는 使令廳이 있으며, 태평루와 마주한 곳에 內三門이 있다. 이 내삼문을 들어서면 外衙 東軒인 聽猶堂에 이르고 이의 西側으로 內衙가 자리잡고 있다.

관아건축의 구조양식은 중앙의 관아건축에서는 익공식 건축이 주류를 이루고, 지방관아에서는 익공식과 민도리집 양식이 혼용되고 있다. 이들은 비교적 높은 기단 위에 건축되는데, 기둥은 두리기둥과 方柱가 쓰이고, 지붕은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것으로 관아건축은 모두 단청을 하고 있음이다.

1. 慶尙監營과 建築

조선 시대 지방행정 구역은 전국을 8道로 나누고 각도에 觀察使를 두었는데, 이들 관찰사가 政務를 보는 廳事를 監營이라고 한다. 감영의 일반적인 인원 구성은 觀察使 1명(종2품), 都事 1명(종6품), 審藥 1명(종9품), 檢律(종9품)과 하급관리 및 노비 등으로 되어 있었다.

선조 29년(1596) 경상 左·右道가 통합되면서 경상도 감영이 대구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大丘都護府條에 “...29년(조선 선조 29년, 1596)에 다시 합하여 달성에 營(경상 감영을 말함)을 설치하고 인해서 石築을 더하였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때부터 대구에 ‘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大邱都護府使’가 부임하여 경상도 지방의 兵權과 行政을 관장하였다.

경상도 감영은 대구에 옮겨진 이래 한일 합방(1910)이 될 때까지 3차례의 화재를 당했다. 맨처음 화재는 현종 11년(1607) 감영 부속 건물인 營吏廳에서 발화하여 각종 문서 및 기록이 모두 불타 버렸다. 두번째 화재는 영조 6년(1730)에서 8년(1732) 사이로 추정되는데, 이때 거의 모든 殿閣들이 불타 버려 모두 다시 新築해야 했다. 세번째는 조선 말기 순조 6년(1806) 12월 3일 冊室에서 발화하여 宣化堂 36칸, 澄清閣 23칸, 如水閣 12칸, 內衙 36칸, 燕超堂 13칸, 左右翼廊 36칸, 工庫 28칸 등 도합 184칸을 불태웠다. 이들 화재 기록으로 살펴볼 때 현존하는 선화당, 징청각 등 당시 경상 감영의 관아 건물들은 순조 6년(1806) 이후에 중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大丘府邑誌》에는 경상 감영내 達城館, 監營舍, 宣化堂, 澄清閣, 觀風樓, 燕超堂, 素履堂 등의 주요 건물과 부속 건물로 裨將廳, 審藥廳, 檢律廳, 兵房廳, 執事廳, 將官廳, 都訓導廳, 別武士廳, 營吏廳, 人吏廳, 小童廳, 官奴房, 教房, 使令房, 軍牢房, 巡令守房, 吹鼓手房, 別砲廳 등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 宣化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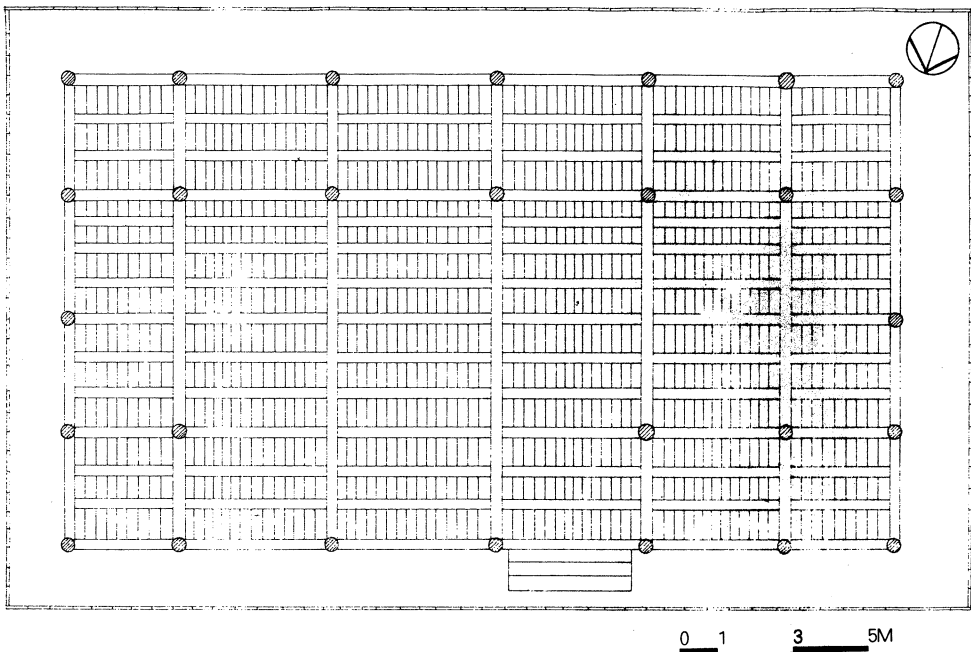
선화당은 선조 34년(1601) 안동에 있던 경상 감영을 대구로 옮겨오면서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을 관찰사가 공무를 보던 곳으로 1730년 두 차례의 화재를 입었고, 현존 건물은 순조 7년(1807) 재건된 것이다. 그 후 1969년까지 당시 경북 도청 구내에 있었으며, 1970년 이곳이 중앙공원으로 조성되면서 보수공사가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이 건물은 대구직할시 유형문화재 1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사진 9-7〉 선화당 배면 모습



〈사진 9-8〉 선화당 좌측면 모습



〈圖 9-3〉

선화당 평면도

선화당은 중앙공원 안에 있는 경상감영 때의 건물 澄清閣 앞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6칸, 측면 4칸으로 사면이 개방되어 있다. 겹처마³⁰⁾ 팔작지붕³¹⁾의 이 건물은 정면과 측면 모두 양 협칸쪽으로 갈수록 칸살이 좁다.

구조 양식은 네모의 화강석 정평 초석³²⁾ 위에 두리기둥³³⁾을 세우고 기둥 위를 柱頭³⁴⁾와 앙서³⁵⁾, 수서³⁶⁾로 장식한, 2 翼工³⁷⁾양식이다. 이 건물



〈사진 9-9〉

선화당 상부가구

의 상부 가구³⁸⁾는 2 高柱³⁹⁾ 7 樑⁴⁰⁾으로, 대들보⁴¹⁾ 위에 대접받침⁴²⁾을 놓고 그 위에 첨차⁴³⁾와 소로⁴⁴⁾를 겹쳐 놓아 뜯창방⁴⁵⁾과 二重보를 받게 하였다. 二重보 위에는 동자주⁴⁶⁾를 세워 뜯창방과 중보⁴⁷⁾를 받도록 했고, 중보 위에는 첨차와 소로를 둔 파련 대공⁴⁸⁾을 두어 중도리⁴⁹⁾와 장혀⁵⁰⁾를 받고 있다. 건물 천장은 일부에만 우물반자⁵¹⁾를 그리고 나머지는 연등천장으로 꾸몄다.

30) 처마끝의 서까래가 두 단으로 된 처마

31) 완각이 합각벽으로 된 지붕

32) 다듬은 초석.

33) 원형 단면으로 된 둥근 기둥.

34) 기둥머리를 장식하며 공포부재를 받는 뒷박처럼 네모지게 만든 부재.

35) 끝이 위로 뾰족하게 휘어오른 쇠서.

36) 포살미의 쇠서 끝이 아래로 뾰족하게 휘어내린 모양으로 된 것.

37) 창방과 직교하여 보를 받치며 쇠서모양을 내고 초각한 공포재.

38) 여러부재를 결합하여 만든 구조.

39) 보통 기둥보다 높게된 기둥.

40) 지붕 또는 상층에서 오는 하중을 받는 부재로서 기둥 또는 벽체 위에 수평으로 걸친 구조부재.

41) 맨 아래에 가운데로 얹힌 큰 들보.

42) 기둥머리를 장식하기 위하여 그 위에 얹은 대접처럼 넓적하고 네모진 나무.

43) 다포계 혹은 주심포계의 공포에서 주두 또는 소로에 얹히어 도리방향 또는 그에 직교하게 십자 맞춤되는 짚막한 공포재.

44) 장혀나 공포재의 밑에 받쳐 꺾 주두 모양의 부재.

45) 용마루나 중도리의 밑에 있는 대공, 또는 동자주에 가로지른 창방, 그 밑에 벽이나 평행 가로재 없이 떠서 있는 창방.

46) 지붕틀에서 대들보 위에 세우되 중도리와 중도리를 받는 짧은 기둥.

47) 지붕가구에 있어서 대들보 위에 동자기둥을 양쪽에 세우고 그위에 건너지른 보.

48) 꽃모양으로 새김질을 한 마루대공의 한 종류.

49) 지붕마루에 수평으로 걸어 좌우 지붕면의 동연의 위 끝을 받는 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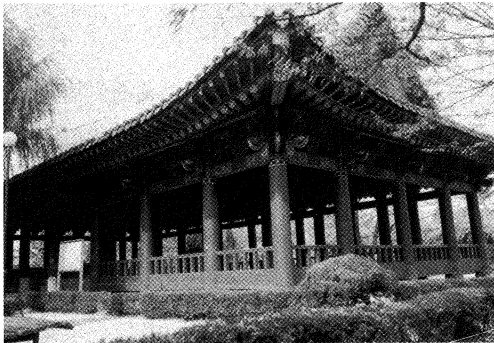
50) 도리를 바치는 긴 나무.

51) 반자들을 우물정(井)자로 짜고, 그 井자 칸에 넓은 널 등으로 덮어 꾸민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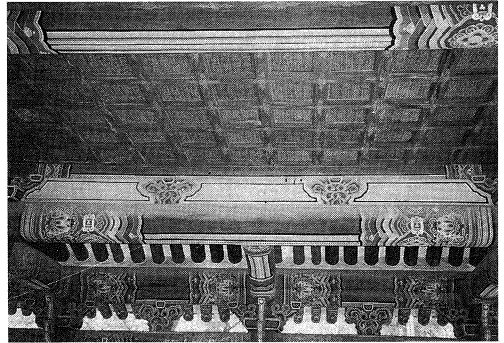
대구에 남아 있는 관아 건축의 유구로 매우 중요한 건물이다.

2) 澄清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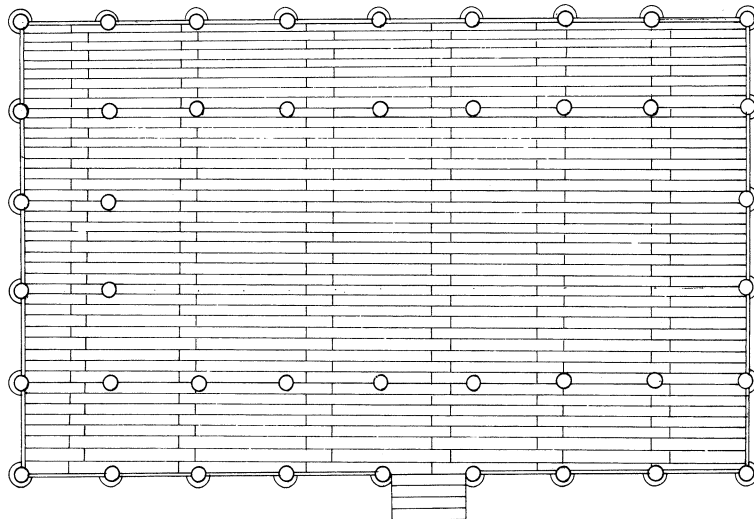
징청각은 대구직할시 중구 포정동 21번지 중앙공원 안에 있다. 현재 대구직할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선조 34년(1601) 경상 감영이 대구로 옮겨 올 때 선화당과 함께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관찰사의 관사라 할 수 있는 內衙로 1730년 두 차례의 화재를 입었으며, 지금의 건물은 정조 13년(1789)에 새로 지은 것이다. 그 후 1970년 옛 경상감영 자리가 현재의 중앙공원으로 조성되면서 보수공사가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진 9-10〉 징청각 정면 및 측면



〈사진 9-11〉 징청각 상부가구



〈圖 9-4〉

징청각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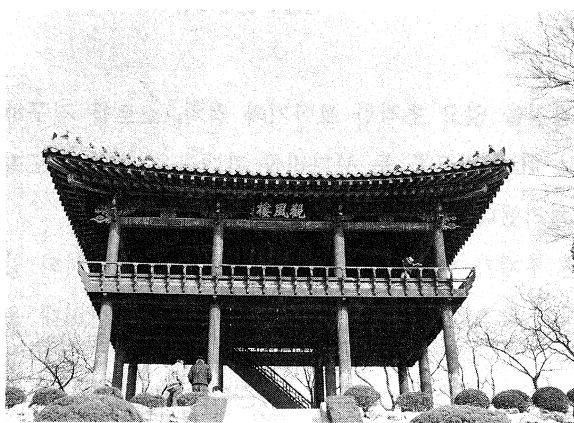
징청각은 宣化堂 뒤쪽 왼편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은 정면 8칸, 측면 4칸으로 정면과 측면 칸 모두 협칸으로 갈수록 칸살이 좁다. 바닥에는 장마루⁵²⁾를 깔고, 개방된 네 면에 난간을 돌려 누마루⁵³⁾처럼 꾸몄다. 건물 앞쪽 가운데 네 단의 화강석 계단을 두어 마루에 오르게 했다.

건물의 구조 양식은 겹처마 팔작지붕의 翼工系로 네모의 화강석 정평 초석 위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주두와 앙서, 수서로 장식한 2翼工 양식이다. 건물의 가구는 2高柱 7樑으로 선화당과 같은 구조이며, 천장은 內陣柱⁵⁴⁾로 둘러 쌓인 부분은 우물반자를 그리고 그 바깥은 연등천장으로 꾸몄다.

이 건물은 건축된 이후 많이 개조된 것으로 보이며, 선화당과 함께 대구에 남아 있는 官衙 건물로 건축적 가치가 매우 높다.

3) 觀風樓

관풍루는 선조 34년(1601) 대구로 옮겨온 경상감영의 정문이었다. 대구에 감영이 설치되면서 선화당의 정남쪽에 布政門을 세우고 그위에 문루를 만들어 관풍루라 했다. 관풍루는 閉門樓라고도 불린 것으로 주위에 큰 북, 종, 피리, 나팔 등 풍악기구를 준비해 놓고 매일밤 10시에 문 닫고, 새벽 5시에 문 여는 풍악을 올렸다고 한다. 이 풍악소리에 맞춰 동서남북 4개 城門을 열고 닫는 의식절차를 엄숙히 행하였다고 한다.



〈사진 9-12〉

관풍루 정면 모습

관풍루라는 이름은 ‘감사가 루상에서 세속을 살핀다(觀風世俗)’는 말에서 나왔다. 이 루에서 30보쯤 남쪽에는 “節度使以下皆下馬碑”가 있어 감사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면 말에서 내려 걸어 들어오도록 했다.

그후 1906년 대구읍성이 헐리면서 지금의 달성공원 안으로 옮겨졌으나, 건물이 남아 1970년 해체하여 1973년에 복원하였다. 관풍루는 달성공원의 최제우 동상

52) 긴 마루널을 깎 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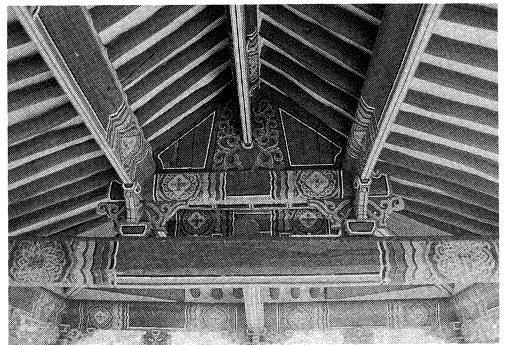
53) 다락 같이 한 층 높게 만든 마루.

54) 한 건물에 기둥 열이 내외 2중으로 둘러져 있을 때 그 안쪽에 있는 기둥.

뒷편 34단의 돌계단을 둔 높은 언덕 위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루각으로, 화강석 외벌대 기단을 조성한 후 바닥은 전을 깔았다. 건물의 아랫층은 어칸이 양 퇴칸보다 넓으며, 윗층은 우물마루 통칸으로 네 면에 한 자 가량의 쪽마루를 내밀고 거기에 계자난간⁵⁵⁾을 돌렸다. 아랫층에는 뒷쪽 어칸 바로 앞에 한 칸 길이로 반칸폭의 나무계단을 설치하여 윗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게 하였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내림마루⁵⁶⁾에는 잡상⁵⁷⁾을 두어 장식하였다. 전체 구조양식은 화강석 정평초석 위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연꽃을 투각한 앙서와 초각한 쇠서, 봉두 등을 주두와 결구한 2익공 양식이다.



〈사진 9-13〉 관풍루 우측면 모습



〈사진 9-14〉 관풍루 상부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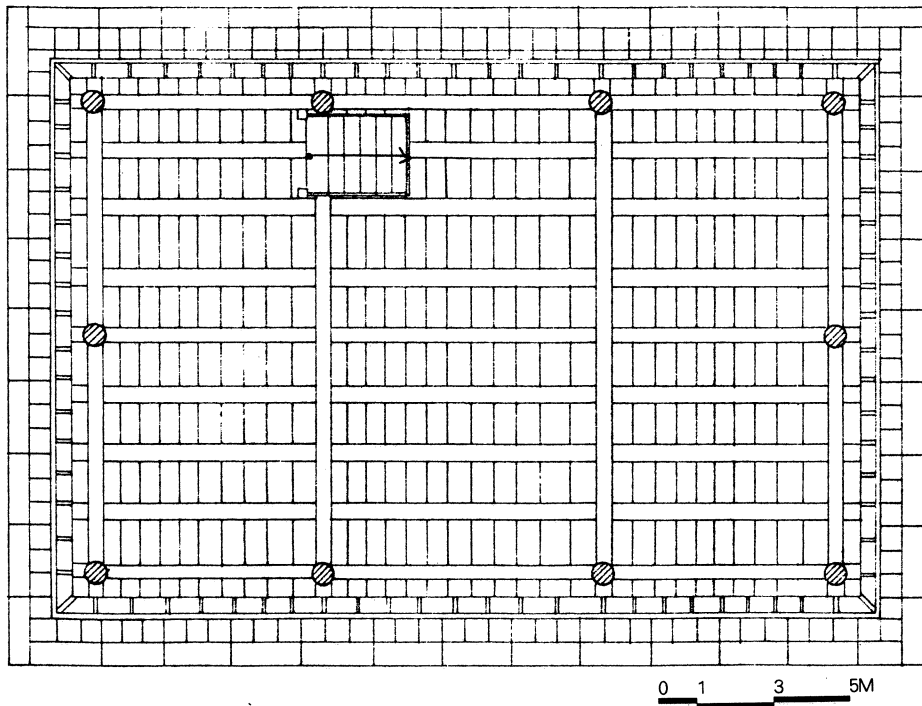
윗층의 구조는 5樑架로 대들보 위에 대접받침을 얹고 초각한 보아지와 침차, 소로를 결구하여 종보와 중도리, 장혀를 받도록 했다. 종보 위에 소로를 둔 사다리꼴 판대공을 세워 중도리와 장혀를 받게 하고,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처리했다.

이 건물은 현재의 자리로 옮겨지면서 많은 부재가 새 것으로 교체되었으나 건축 당시의 양식을 좇아 크게 변형되지 않았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2층 루각 형식의 조선시대 읍성 門樓라는 점에 建築史的 가치가 있다.

55) 계자각을 세운 난간.

56) 지붕면에 따라 경사져 내린 지붕마루의 총칭.

57) 궁전건물 등의 귀마루에 얹은 여러가지 신상을 새긴 장식기와.



〈圖 9-5〉

관풍루 윗층 평면도

4) 望京樓

망경루는 조선조 고종 7년(1870) 경상도 관찰사겸 대구도호부사로 있던 金世鎬가 대원군의 군사정책에 따라 허물어진 대구읍성을 보수하면서 세운 것이다. 관찰사 김세호는 이때 망경루를 비롯해 성 위 4개소에 루각을 세웠는데, 東을 定海樓, 西를 籌勝樓, 南을 宣恩樓, 北을 望京樓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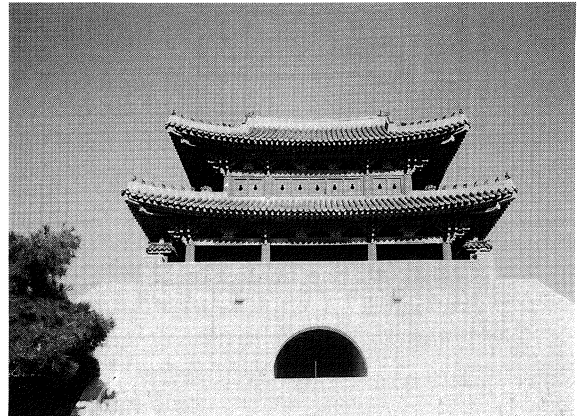
대구읍성이 1906년 헐리면서 이들 4개의 루각도 자연 헐리게 되었는데, 이 중 망경루 만은 관풍루와 함께 원형대로 현재의 달성공원 안으로 옮겨 졌다.

그 후 건물이 너무 오래 되어 1969년 대구가 달성공원을 정화하면서 다시 복원 하는 것을 전제로 원형 설계도를 만든 뒤 해체하였다. 단층의 망경루는 벽체 없이 사면이 개방된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로, 넓은 통칸의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기둥은 모두 두리기둥을 사용했고, 지붕은 팔작지붕이었다.

5) 嶺南第一關

한국에서는 고래로 구릉과 山城을 방수의 요충으로 중시하고 평지에 있는 취락에 성을 축조하는 예가 드물었다. 대구의 평지에 읍성을 축성한 것은 조선 선조 24년(1591)으로 이 때의 土城은 1년 뒤인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란으로 파괴되고 그후 140 여년이 지난 영조 12년(1736)에 石城이 새로 축조되었다. 이때의 축성 사실을 기록한 ‘축성비’에 따르면 읍성의 동서남북 네 정문위에 각각 門樓를 세웠다고 한다. 이 들 네 정문은 東門을 鎮東門, 西門을 達西門, 北門을 拱北門이라 불렀으며, 특히 이 중 南門을 ‘嶺南第一關’이라 편액하였다.

그러나 읍성이 光武 10년(1906)과 隆熙 1년(1907) 사이에 완전히 헐리면서 영남제일관도 제 모습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지금 남아 있는 당시의 남문 사진을 보면 성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石築 基臺의 중앙에 홍예문을 내고, 그 위에 정면과 측면이 각 세 칸인 2층 門樓 영남제일관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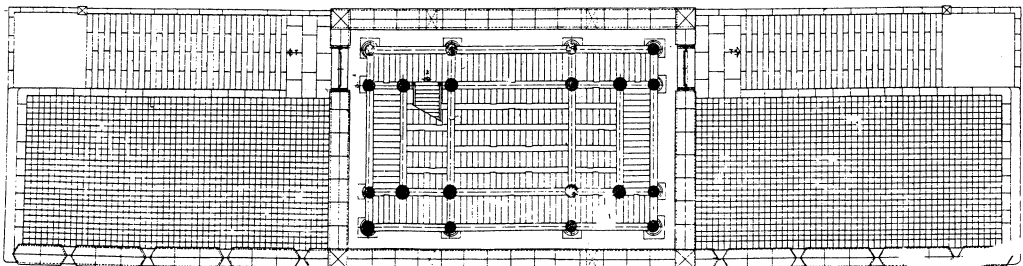
〈사진 9-15〉

영남 제일관 정면

南門을 처음 축조한 사람은 관찰사 민응수이며, 그는 경상도 관찰사로 취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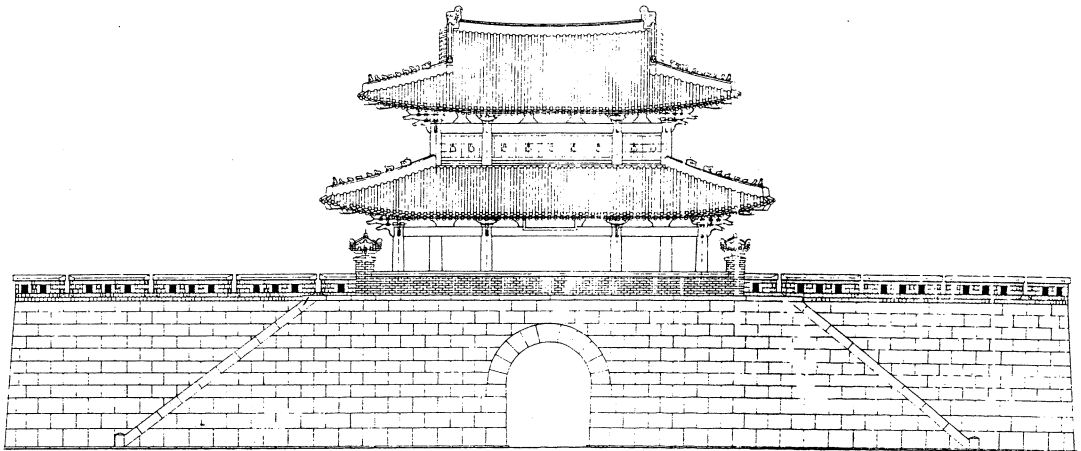
기 전에 전라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전주 豐南門을 세웠다. 사진에 남아 있는 南門이 전주 풍남문과 같은 형식임은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구직할시에서는 1980년에 없어진 대구읍성의 南門인 영남제일관을 수성구 만촌동 산 83-5번지 망우공원내 금호강변에 옛모습을 찾아 중건하였다.



〈圖 9-6〉

영남 제일관 1층 평면도



〈圖 9-7〉

영남 제일관 정면도

Ⅳ. 儒敎建築

1. 鄕校

고려 중기에 창설되어 조선 초기에 ‘1읍 1校’로 확충 정비된 鄕校는 서울의 成均館과 함께 국가의 2大 中外 官學으로서 현재에도 각지에 많이 남아 있다. 儒敎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왕조는 이러한 교육제도를 매우 중시하였다. 따라서 향교를 비롯한 학교는 風化의 근원인 동시에 人材가 이곳으로부터 배출되며, 나라의 治亂은 결국 人材의 성쇠에 달려 있고, 人材의 성쇠는 오로지 학교의 흥폐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성균관과 향교에 文廟를 세워 先代의 聖賢을 奉祀하고, 학교를 세워 1國 또는 1邑의 子弟를 교육하는 것이 敎學의 기본이라 생각하였다.

文廟는 유학적 이념의 계승과 확산을 위한 儀禮的인 건축물로서 유학의 正統에 기여한 先賢들을 享祀하는 곳으로,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조에 있어서 유학적 이념의 확산을 위하여 文廟 享祀는 향교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 文廟의 중심 건축인 大成殿에는 正位에 ‘大成至聖文宣王’을 봉안하고 顔子·曾子·子思子·子孟子 등 4聖을 配享하였으며, 10哲과 周敦頤·程灝·程頤·邵雍·張載·朱熹 등 諸賢을 殿內에 從享하였다. 東·西廡에는 70子를 비롯한 역대 儒賢 110位를 從祀하였는데, 그 중 우리나라 18賢 중 鄭夢周 이하 15賢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儒林의 상소에 의해 東西廡에 從享되었다.

郷校에는 孔子 이하 儒賢들을 모시는 文廟와 諸生을 모아 講習하는 학교가 併設되어 있었다. 文廟는 本殿인 大成殿을 중심으로 좌우에 東廡와 西廡를 두어 각 위의 神位를 모셨으며, 학교는 강당인 明倫堂을 중심으로 東·西로 齋를 설치하여 諸生이 거처하게 하고, 그밖에 門樓와 庖廚(庫直舍) 등의 부속건물이 주위에 배치되었다. 이밖에도 祭祀에 필요한 기물을 보관하는 祭器庫, 서적과 板刻을 보관하는 尊經閣 등의 건물이 있다. 이는 개성과 서울의 成均館 체제와 형식을 축소한 것이다.

향교의 배치형식은 大成殿과 明倫堂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크게 ‘前廟後學’형과 ‘前學後廟’형의 둘로 구분된다. ‘前廟後學’형은 입구 쪽에서 볼 때 大成殿이 明倫堂 앞쪽에 위치하는 배치형식이며, ‘前學後廟’형은 이와 반대로 大成殿이 明倫堂 뒤쪽에 자리하는 배치형식이다. 두 배치형식 중에서 ‘前學後廟’형이 보다 일반적인 것이다. 대개 郷校가 위치하는 곳이 平地 일때에는 ‘前廟後學’형으로 많이 지어지고, 경사지일 경우에는 ‘前學後廟’형을 많이 취한다. 이는 향교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공간인 대성전을 평지에는 앞쪽에 그리고 경사지에는 가장 높은 곳에 두어 공간의 위계성을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평면 형식을 살펴보면 大成殿은 정면 3칸인 것이 일반적으로, 前面에 퇴칸을 둔 형식과 두지 않은 두 형식이 있다. 전자는 大成殿 前面 벽체를 한 칸 또는 반칸 물려 설치하므로써 殿內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사이에 半外部空間을 형성하고 여기에서 의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祠廟建築에서 많이 사용되는 평면형식이다.

明倫堂의 평면형식은 다양하지만 대개 중앙에 마루를 두고 좌우 양쪽에 온돌방을 두는 ‘中堂挾室’형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좌우 한 쪽에만 온돌방을 두기도 한다. 명륜당은 정면이 5칸인 경우가 가장 많다.

현재 대구에는 大邱郷校와 漆谷郷校의 두 郷校가 남아 있는데, 이는 칠곡향교가 있는 칠곡군 동명면 일부 지역이 대구시의 市域 확대로 대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1) 大邱郷校

대구향교 연혁의 대강은 《郷校誌》와 《大丘府邑誌》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郷校誌》 대구향교의 연혁에 대해 “대구향교는 태조 7년(1398) 大成殿과 明倫堂을 창건하였으나 정종 2년(1400)에 燒失되었다. 이후 선조 34년(1601)에 大成殿, 선조 39년(1606)에 明倫堂을 중건하였고 1932년 (공자 탄강 3842년 壬申)에 현재의 남산동으로 옮겨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大丘府邑誌》는 대구향교의 연혁에 대해 “향교는 府의 동쪽 2리에 있다. 처음에는

東門 밖 古城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곳을 옛 향교터라고 한다. 이후 선조 32년(1599)에 달성으로 옮겼다가 선조 38년(1605)에 달성으로부터 지금 있는 곳으로 개축하였다. 明倫堂과 東西齋는 모두 成均館 제도대로 했으며, 이들 건물은 聖廟(文廟) 뒤에 있다.”라고 했다.⁵⁸⁾

이상의 기록과 전하는 바에 의하면, 대구향교는 태조 7년(1398) 府東 2리(지금의 동성로 校洞으로 추정)에 건립되었으나, 선조 25년(1592) 壬辰倭亂의 병화에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선조 32년(1599)에 觀察使 韓俊謙·府使 金九鼎이 달성공원 南角에 건립하였으나, 관찰사(兼 府使) 柳永詢이 ‘蛇蝎不祥之兆’로 장계를 올려 윤희를 받아 옛터인 校洞에 다시 옮겼지만 明倫堂은 역부족으로 건립하지 못하였다. 인조 2년(1624) 대구 士林이 明倫堂 건립안을 府使 韓明勗에게 건의하여 즉시 착공하게 되었으며, 이듬해에 준공하였다.



〈사진 9-16〉

대구향교 대성전 정면

그 후 大邱鄉校는 3백여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주변이 시가지로 변해 복잡하므로 1932년에 知使 金瑞圭·郡守 朴濟輪 直員 全柄坤이 상의하여 현 소재지에 옮겨 지었다.

1932년 4월 8일에 開基하여 6월 25일 上樑하였으며, 9월 25일에 준공하였다. 이해 10월 3일에 위패를 봉안하고, 10월 8일에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그 후 1973년과 1990년 두 차례 보수 정화공사를 실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⁵⁹⁾

향교의 배치는 大成殿 앞에 東·西廡가 있고 明倫堂 앞에는 東·西齋가 있어야 하지만 대구향교가 지금의 남산동 735~4번지로 이전할 당시 대구 儒林단체에서 抗日運動이 심하였으므로 東·西齋가 있으면 儒生들이 독립운동 할 장소로 사용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짓지 못하게 했다. 최근 1990년에 들어와 市費 1억 5천만원과 자체 부담 5천만원으로 樂育齋 32평, 東·西齋 각 16평씩을 重建하였다.⁶⁰⁾

대구향교는 도로에 인접한 구릉 위에 대지를 2단으로 정지하고 ‘左學後廟’의 배치형식으로

58) 아세아문화사, 〈大丘府〉, 《邑誌》1, 慶尙道①, 1982, p.12.

59) 대구직할시, 《達句伐》, 1977, pp.197~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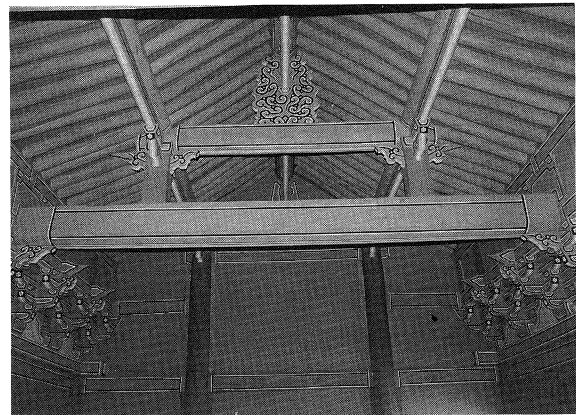
60) 경상북도·영남대학교, 《慶北鄉校誌》, 1991, p.803.

왼편에 大成殿 오른쪽에 明倫堂을 배치했다. 大成殿·東廡와 같은 祭享 건물만 목조이고 나머지는 모두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복원하였다. 《大丘府邑誌》의 기록을 살펴볼 때, 이곳으로 옮겨 짓기 전의 향교 배치는 文廟 뒤에 明倫堂이 있는 ‘前廟後學’의 배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大成殿은 대구시 문화재 자료 1호로 평탄한 대지에 3단의 장대석 기단을 축조하고 윗면은 塼⁶¹⁾을 깔아 마감하였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덩벙주초⁶²⁾ 위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앞쪽 벽체 각 칸에는 쌍여닫이 울거미 널문⁶³⁾을 달았는데, 어칸은 중앙에, 좌우 협칸은 안쪽 기둥에 붙여 문얼굴⁶⁴⁾을 구성하였다. 또한 좌우 협칸에는 문설주⁶⁵⁾와 컷기둥⁶⁶⁾사이에서 격자살로 된 광창을 만들어 놓았다. 바닥은 塼을 깔아 마감하였다. 건물은 기둥 머리에 창방⁶⁷⁾을 결구하고 그 위에 평방⁶⁸⁾을 올려 공포⁶⁹⁾



〈사진 9-17〉 대구향교 명륜당 정면



〈사진 9-18〉 대구향교 대성전 상부가구

를 구성하면서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둘 씩 둔 内外 2出目の 多包樣式이다. 이렇게 大成殿을 多包系 건물로 건축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그리 흔한게 아니며 경북에선 星州鄉校와 대구향교

61) 옛 검정벽돌.

62) 둥굴넓적한 자연석을 그대로 놓은 주춧돌.

63) 울거미를 짜고 그 안에 널을 끼운 문.

64) 문짝이 달린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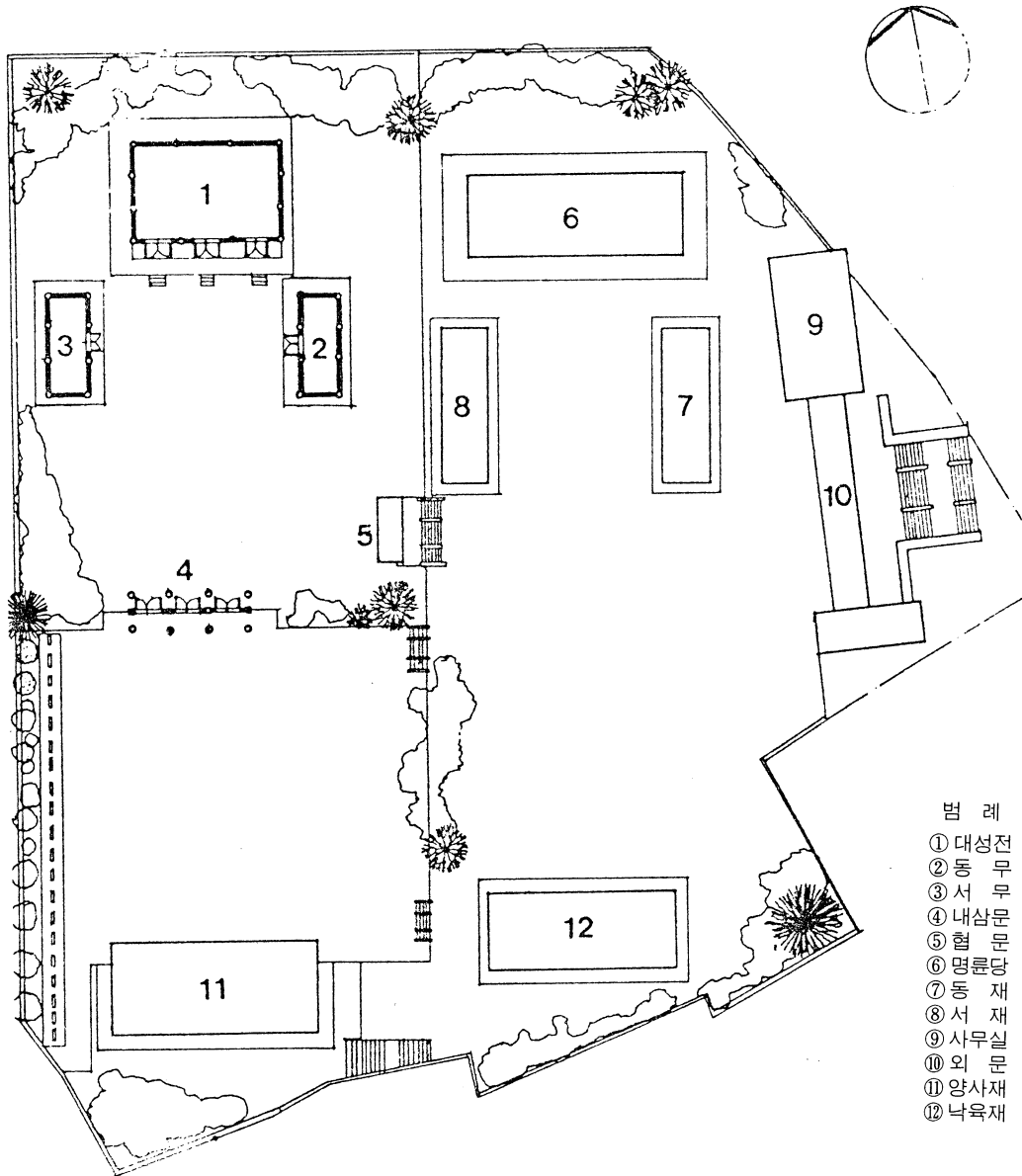
65) 문의 양쪽에 세워 문짝을 끼워 달게 된 기둥.

66) 우주. 건물의 모퉁이에 세운 기둥.

67) 목조건물의 기둥 위에 가로 건너질러 연결하고 평방 또는 화반, 소로 등을 받는 가로재.

68) 공포 따위를 받치려고 평주 위에 건너 지르고 창방 위에 얹히는 넓적한 나무 부재.

69) 주두 소로 첨차 쇠서 등을 짜 맞추어 장식을 겸하여 처마 하중을 받게 한것.



〈圖 9-8〉

대구향교 배치 평면도

두 곳 밖에 없다. 제공⁷⁰⁾ 살미⁷¹⁾의 모양은 초제공⁷²⁾과 이제공⁷³⁾만 끝부분을 비스듬히 절단한 양서로 처리하고, 3제공은 촛가지⁷⁴⁾를 派形으로 길게 뽑아 내고 끝부분을 날카롭게 했다. 대들보를 3제공 위에 걸치게 하여 외목도리⁷⁵⁾를 올려 놓고 보머리는 外目道里 밖까지 빼내어 삼분두로 깎고, 첨차는 모두 교두형⁷⁶⁾으로 다듬었다.

架構는 2고주 5량으로, 두 개의 대들보를 사용하여 앞뒤 평방 위의 삼제공에 걸친 후 동자주를 세워 柱頭를 올리고 첨차와 보아지⁷⁷⁾를 끼운 후 종보⁷⁸⁾를 올려 놓았다. 종보 위에는 파련대공을 두고, 장혀 하부에는 뜬창방을 결구하였다. 대들보 양 볼을 깎아 직재로 반듯하게 치목을 하였으며, 동자주에 꽃힌 보아지를 삼제공 살미와 같은 형상으로 한 것이 재미있다. 또한 첨차는 하부를 쌍 S자로 초각한 것을 사용하였다. 천장은 多包建物임에도 불구하고 반자⁷⁹⁾를 설치하지 않고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장으로 하였는데, 이는 星州鄉校 大成殿과 같은 수법이다. 건물내부는 바닥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였으며 어칸 뒷벽 가까이에 孔子의 위패를 그리고 그 좌우에 先賢들의 위패를 모셨다.

東·西廡는 장대석 외별대 기단에 두리 기둥을 세운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내부는 3칸 통칸으로 어칸에만 문얼굴 내어 쌍여닫이 울거미 널문을 달고, 좌우 퇴칸에는 중방⁸⁰⁾ 위에 격자살의 광창을 1개씩 내었다. 건물 바닥은 塼을 깔아 마감했다.

內三門⁸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홀처마⁸²⁾ 맞배지붕⁸³⁾ 건물로 앞쪽 3칸에 모두 쌍여닫이 띠

70) 공포에 있어서 첨차와 살미가 층층이 짜여진 것.

71) 주심에서 보 밑을 받치거나 좌우 기둥 중간에 도리 장여에 직교하여 받쳐 권 쇠서모양으로 내민 공포부재의 짜임새의 총칭.

72) 제공 중 제일 밑에 짜여진 첨차와 살미의 한 층.

73) 2단째의 첨차와 살미층.

74) 초새김한 익공 쇠서의 띠이름

75) 공포의 바깥쪽에 가로 얹힌 도리

76) 살미나 첨차의 밑면 끝을 활형 또는 원호형으로 깎아낸 모양.

77) 기둥머리 또는 주두에 끼워 보의 짜임새를 보강하는 짧은 부재.

78) 지붕가구에 있어서 대들보 위에 동자기둥을 양쪽에 세우고 그 위에 건너지른 보.

79) 지붕 밑 또는 윗층의 바닥 밑을 가리어 치장으로 꾸민 각 실의 상부 구조물.

80) 기둥과 기둥사이에 끼우는 인방으로 기둥의 가운데 쪽에 세운 것.

81) 바깥채 안쪽에 3칸으로 세운 대문.

82) 처마끝의 서까래가 한 단으로 된 처마.

83) 지붕의 완각이 막 잘라진 지붕.

장 널문⁸⁴⁾을 달고 홍살⁸⁵⁾을 꽃았다. 구조는 3량가의 초익공으로 창방은 없고, 살미는 東·西廡의 그것과 동일하며 첨차는 밑면을 쌍 S자로 초각하였다.⁸⁶⁾

2) 漆谷鄉校

칠곡향교는 현재 칠곡중학교 교내인 대구직할시 북구 읍내동 600번지에 위치하며, 칠곡향교 大成殿은 지금 대구직할시 문화재 자료 6호로 지정되어 있다.

칠곡은 본래 신라 八居里縣(일명 比恥長里 또는 仁里)이었으나 경덕왕때 八里로 이름을 고쳐 壽昌郡의 領縣으로 삼았다. 고려초에 八居로 고쳤으나 뒤에 ‘居’의 음이 ‘衿’로 轉移 되었고, 현종 9년(1018) 星州縣에 소속되었다. 칠곡은 조선 인조 18년(1640) 架山에 성을 쌓았으나山城이 州治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드디어 漆谷都護府를 두게 되었다.

이같은 연혁을 지닌 칠곡의 향교는 관계자료의 일실로 말미암아 그 설치연대 및 그후의 증수, 개수를 거의 알 수 없다. 다만 《鄉校謄錄》을 통해 1642년 4월 10일의 향교 건립과 1722년 2월 30일(음력)의 香祝사실을 엿볼 수 있다.⁸⁷⁾

칠곡향교는 明倫堂이 앞쪽에 놓이고 그 뒤에 大成殿이 위치하는 ‘前學後廟’의 배치형식으로 배치축의 구성은 明倫堂이 大成殿의 동서 축에서 서쪽으로 약간 벗어나 있는 병렬축을 형성하고 있다. 大成殿은 東西 와 함께 內三門과 담장으로 둘러 쌓인 네모진 일곽안에 배치되어 있고, 明倫堂은 칠곡중학교의 운동장 확장으로 그 한쪽 구석에 담장도 없이 놓여 있다가 최근



〈사진 9-19〉 칠곡향교 대성전 정면



〈사진 9-20〉 칠곡향교 명륜당 정면

84) 띠장을 대고 널을 박아대어 만든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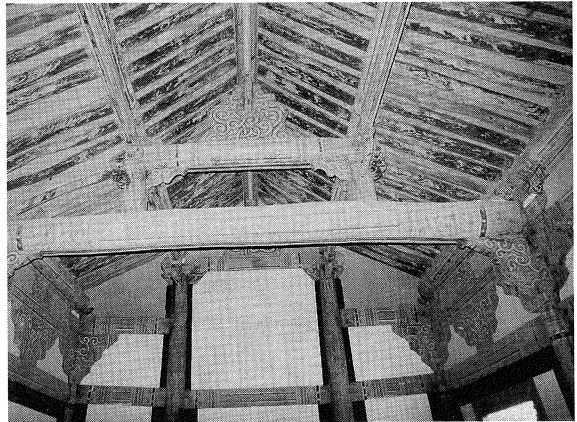
85) 대문의 위쪽에 창살 모양으로 공간을 막아 세워 댄 살.

86) 경상북도·영남대학교, 《慶北鄉校誌》, 1991, pp.808~809.

87) 경상북도·영남대학교, 위의 책, p.815.

에 外三門⁸⁸⁾과 담장을 설치하였다.

大成殿은 明倫堂 보다 한 단 높은 대지에 잡석으로 기단을 높게 쌓고 그 위에 덩벙주초를 놓아 두리기둥을 받게 했다. 이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기단 앞쪽 두 곳에 계단을 두어 오르내리게 했으며 바닥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했다. 건물의 정면 3칸에는 각각 쌍여닫이 울거미 널문을 달아 출입하게 했다.



〈사진 9-21〉 칠곡향교 대성전 상부가구

大成殿의 구조는 기둥 윗몸에 창방을 짜고 주두 위에만 공포를 둔 주심포식⁸⁹⁾의 외 2출목이다. 창방 위 기둥 사이에는 소로를 끼워 받친 소첨⁹⁰⁾과 대첨⁹¹⁾을 중첩시켜 화반⁹²⁾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심첨차⁹³⁾와 꼭 같은 모양으로 출목은 없지만 다포계의 공간포⁹⁴⁾와 같은 분위기를 보여준다. 살미의 모습은 2제공의 양서와 삼분두로 3제공의 형식을 취하고 보아지 장식은 운공⁹⁵⁾으로 처리하였다. 살미의 길이는 짧으나 치켜 오른 형상이 힘있고 하부는 쌍 S자로 선각하였다.

이 건물은 前退없이 3칸으로 구성한 관례로 양 측면에 高柱를 세운 후 퇴보⁹⁶⁾로 高柱 몸에 결구시키고 종보를 高柱 위에 놓이게 한 2高柱 5樑의 구조수법을 구사하였고, 어칸 양쪽 기둥 위에 대들보를 걸친 관례로 구조수법이 측면과는 다르다.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세우고 접시 받침하여 종보를 지지하게 하였다. 종보 상부는 보아지와 첨차로 보강하고 첨차를 끼운 파련 대공으로 장혀와 마룟도리를 받게 했다. 大成殿은 부분적으로 변형되었으나 조선 중·후기의

88) 바깥담이나 경역의 바깥쪽에 3칸으로 지은 대문.

89) 기둥위에만 공포를 짜 올리는 형식

90) 주두위에 또는 출목처서 위에 가로대는 짧은 첨차.

91) 소첨차보다 조금 길게 하여 그 위에 얹어 짠 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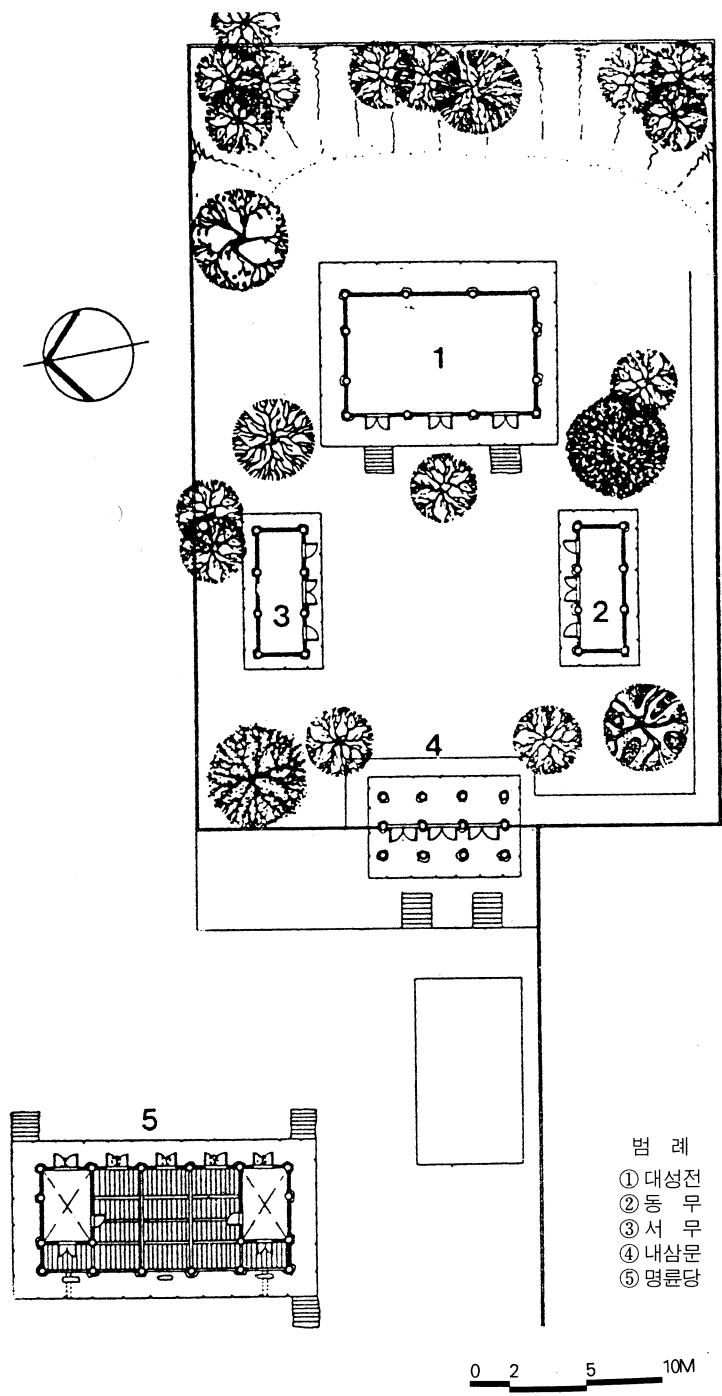
92) 주심에서 이익공으로 짜고 창방위 중간에 얹어서 주심도리 밑 장여를 받는 초새김한 받침.

93) 주심도리 장여 밑에 짜인 대소첨차의 총칭.

94) 기둥과 기둥사이에 짜 넣은 공포.

95) 이익공 공포에 있어서 상하 첨차사이 또는 초익공의 장여와 창방사이에 끼워 막아대는 널쪽이나 나무.

96) 퇴칸에 건 보.



〈圖 9-9〉

칠곡향교 배치평면도

건축수법이 잘 간직된 중요한 건물이다.

東·西廡는 정면 3칸·측면 1칸의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낮은 기단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구조는 굴도리⁹⁷⁾를 사용한 3樑架이며, 어칸에 쌍여닫이 울거미 널문을, 양 협칸에는 외여닫이 울거미 널문을 설치하였다.

大成殿과 東·西廡로 통하는 출입구에 놓인 內三門은 정면 3칸·측면 2칸의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두리기둥을 세우고 3樑으로 결구한 初翼工 樣式으로, 창방 없이 첨차만 두었는데, 대구향교 內三門과 같은 수법이다. 살미는 촛가지를 물걸 무늬로 조각하고 그 끝을 날카롭게 했다. 건물 평면은 가운데 기둥 열 3개소에 문을 달고 문 위에는 홍살을 두었다.

明倫堂은 막돌 허튼충쌓기⁹⁸⁾한 기단 위에 덩벙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건물 규모는 정면 5칸·측면 3칸으로 평면은 어칸 3칸에 우물마루를, 그 좌우에 온돌방을, 앞쪽에 퇴칸을 두었다. 온돌방 앞에는 두 짝 궁널⁹⁹⁾ 띠살문을, 대청부분에는 뒷벽에 매칸마다 쌍여닫이 판장문을 달아 놓았다. 대청 앞은 본래 개방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네 분합문¹⁰⁰⁾을 새로 시설하였다. 기둥 위에는 창방을 결구하고 소로를 올렸으며, 건축 양식은 촛가지를 조각하지 않은 勿翼工¹⁰¹⁾형태의 初翼工이다. 架構는 2高柱 5樑으로 內陣柱는 平柱를 사용하였다. 대들보는 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합보로 되어 있다. 대들보 위는 짧은 동자주만을 올리고 종보 장혀 및 중도리를 받고 있다. 종보 위에는 사다리꼴 판대공¹⁰²⁾을 세워 마룟도리¹⁰³⁾를 받고 있는 매우 간결한 구조로 되어 있다. 온돌방의 윗쪽은 다락으로 꾸미고 방 앞쪽으로 개구부를 내었는데, 계단은 설치하지 않았다. 지붕은 홀처마의 맞배지붕으로 채택하고 양 박공부에는 풍판¹⁰⁴⁾을 설치하였다.¹⁰⁵⁾

2. 書院

書院은 儒學의 교육 및 연구 그리고 先賢에 대한 祭享의식을 담당해온 조선시대 私學으로

97) 단면이 둥근 형태로 된 도리.

98) 막돌을 불규칙적으로 쌓는 방식.

99) 문의 하부에 낮게 끼워 댄 널.

100) 붙였다가 또 떼어서 위로 들어올리는 문.

101) 같이 두리몽실하게 조각된 익공의 꾸밈새.

102) 두꺼운 널판으로 만든 대공의 충칭.

103) 지붕틀에서 지붕마루에 수평으로 걸어 좌우 지붕면의 서까래 위 끝을 받는 도리.

104) 풍우를 막기 위해 박공벽 합각벽을 가리어 박공널 밑 바로 안쪽에 널판장처럼 댄 널.

105) 경상북도·영남대학교, 《慶北鄕校誌》, 1991, p.817.

官學인 成均館·鄉校와 함께 조선시대 교육 및 유학연구의 요람이었다. 조선시대 私學으로는 書院 외에 書堂이 있었다.

서원은 先賢의 祭祀를 지내는 祠堂, 선현의 뜻을 받들어 교육을 실시하는 강당 그리고 院生들이 숙식하는 東·西齋 등의 건물로 이루어진다. 서원에는 이밖에도 文集 등의 板刻을 보관하는 藏板庫, 書冊을 보관하는 書庫, 祭器를 관리하는 祭器庫, 서원의 관리와 원생들의 숙식을 맡아보는 사람이 거처하는 庫直舍 등의 건물이 있다.

서원의 배치형식은 제향의식의 중심공간인 祠堂과 講學空間인 講堂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前學後廟·前廟後學·左廟右學·左學右廟 등으로 구분되는 바 기본적인 배치형식은 鄉校와 거의 같다. 다만 향교의 경우 大成殿, 東·西廡가 하나의 건물군으로 祭享空間을 이루나 서원의 경우 사당 단독으로 祭享空間을 이루는 점이 다르다.

조선시대 서원의 효시는 1542년 풍기군수 周世鵬이 安珦을 配享하기 위해 祠廟를 짓고, 다음해에 學舍를 건립하여 설립된 白雲洞書院이다. 백운동서원은 1550년 ‘紹修書院’이란 御筆扁額을 하사 받으면서 최초의 賜額書院이 되었다. 소수서원이 설립된 이후 수많은 서원이 건립되었는데, 특히 숙종때 남설되면서 전국에 총 909개소(書院 417, 祠 492)가 있었다. 16세기 중반 이후 서원이 급격히 보급되면서 官學인 향교의 기능과 위상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이렇게 남설된 서원이 많은 폐단을 낳자 영조 17년(1741)에 300여개소의 書院과 祠를 철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이 계속 사회에 역기능적인 폐단을 낳고 있다 하여 고종 8년(1871) 전국에 47개소의 書院과 祠만 남기고 모두 훼철하였다. 현재 한국에는 남한에만 300개소가 넘는 많은 서원건축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대구지역에도 23개소에 달하는 많은 書院과 祠廟가 있었다. 그중 가장 먼저 건립된 것은 명종 18년(1563)에 세워진 研經書院이고, 맨 나중의 것은 순조 24년(1824)에 세워진 西山書院이다. 研經書院은 현종 원년(1660) 국가로 부터 賜額을 받음으로서 대구 최초의 書院이자 동시에 賜額도 최초로 된 書院이었다. 대구의 書院·祠 가운데 賜額된 곳은 研經書院·表忠祠·洛濱書院 세 곳 뿐이었다. 賜額이란 국왕이 書院이나 祠의 板額을 下賜한다는 뜻이 되므로 그러한 書院은 국가적 보호를 받고 권위가 높아서 그 기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었다. 한편 《慶尙道 邑誌》의 〈大丘府〉學校條에는 研經書院·表忠祠·洛濱書院·伊江書院·龜巖書院·南崗書院·靑湖書院·百源書院·尙德祠·德洞書院 등의 많은 서원과 祠가 건립되었음을 기록해 놓았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대구의 중요한 서원의 연혁과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研經書院

이 서원은 지금의 북구 연경동에 소재한다. 명종 18년(1563)에 창건된 서원으로 退溪 李滉을 主享으로 봉안하고, 寒岡 鄭述·愚伏 鄭經世를 配享했다. 현종 원년(1660) 3월에 경상도 儒生들이 상소하여 書院의 賜額을 받았다.

연경서원의 창건 유래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退溪 門人 李叔樸이 研經洞 畫巖 아래에 書堂을 짓고 生徒들을 모아 글을 가르키다가 대구 유생들의 열망에 따라 명종 19년(1564) 3월에 대구부사 朴應川의 원조를 얻어 서원 건축에 착수하여 이듬해 10월 준공했다. 당시 書院은 총 40여 칸의 규모로 正堂은 중앙에 仁智堂을 두고 왼쪽에 收放齋, 오른쪽에 警愾齋를 두었다. 正堂 외에 東齋인 輔仁齋, 西齋인 時習齋, 招縣門, 龍蒙齋, 養正軒, 幼學齋 등의 건물이 있었다.

명종 22년(1567) 李叔樸은 〈研經書院記〉에서 서원 건립과정을 밝혔고, 이 記文에는 李退溪의 拔文이 있다. 그후 퇴계가 돌아가시자 대구 유생들이 廟宇를 짓고 春秋에 俎豆를 올렸다. 寒岡 鄭述는 퇴계의 수제자로 研經書院에 配享되었고, 愚伏 鄭經世는 대구부사로 있을때 학교를 일으키고 儒風을 진작시킨 공로로 경상도 유생들이 의논하여 追享했다. 이렇게 해서 祠廟를 건립하고 인조 3년(1625)에는 全慶昌을 配享하고, 숙종 33년(1707)에는 李叔樸을 配享했다.

그러나 영조 20년(1744) 6월 큰 폭풍우로 서원이 전부 물에 잠기는 災害를 당해 원래 터에서 동쪽으로 40步되는 자리로 移建하여 이듬해 7월 낙성했다고 한다.¹⁰⁶⁾

2) 洛濱書院

端宗朝의 六臣을 모신 書院으로 달성군 하빈면 묘동에 있다. 단종 3년(1455) 왕의 숙부 首陽大君은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여 즉위했는데, 그가 바로 조선왕조 제7대 왕 世祖였다. 세조의 왕위 찬탈에 맞서 朴彭年·成三問·河緯地·李塏·柳誠源·俞應孚 등 六臣은 신하로서의 절의를 지키다가 같이 誅戮의禍를 입었다.

六臣 중 朴彭年의 자손은 外家가 있던 河濱에 世居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박팽년 자손이 거주하고 있으며, 玄孫 繼昌의 대에 이르러 비로소 祠宇를 짓고 그의 先祖 박팽년과 五臣을 모셨다. 이 祠宇의 건축연대는 선조 말년, 광해군 초년 경이었다고 전해진다.

그후 숙종 즉위년(1674) 대구 유생들이 六臣 祠宇 인근 땅에 書院을 창립하고 春秋로 俎豆

106) 大邱府, 《大邱府史》 1, 1943, pp.125 ~ 126.

을 올렸는데, 이것이 바로 洛濱書院이었다. 숙종 20년(1694) 御筆 扁額을 하사 받았다.¹⁰⁷⁾

서원내 건축물 배치나 규모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3) 伊江書院

伊江書院은 달서구 다사면 이천리에 있는 서원으로, 인조 17년(1639)에 창건되어 樂齋 徐思遠을 享祠했다. 徐思遠은 本貫이 達城, 字는 行甫, 號가 樂齋로 寒岡 鄭述의 문하에서 공부했으며, 旅軒 張顯光·愚伏 鄭經世 등과 道學을 교류했다. 일찌기 伊川洞에 있는 仙槎菴 옛터에 집을 짓고 이름을 玩樂堂·東敬齋·西義齋라 했다. 매일 학생들과 더불어 주자 성리학을 강론했다. 선조 17년(1584) 잠시 관직에 나가 있었고,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여 활약했다.

壬辰倭亂 중 淸安縣監을 제수받아 文教를 일으키고 龜峯書院을 창건했다. 樂齋가 세상을 떠나자 인조 14년(1636) 서원 건립을 의논하여 17년(1639)에 이르러 樂齋 그가 講學하던 터에 書院을 짓고 伊江書院이라 했다고 한다.¹⁰⁸⁾

4) 龜巖書院

龜巖書院은 중구 동산동 229번지에 있다. 그러나 맨처음 龜巖書院을 세운 현종 6년(1665)에는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連龜山(현 대구국교 서남쪽 언덕)에 있었다. 이후 숙종 1년(1675) 3월 29일 儒林에서 龜溪 徐沈선생을 봉안하고 매년 제사를 지내다가 숙종 43년(1717)에 현재의 동산동(府西 2里 南山下)으로 移建하였는데, 移建 공사는 이듬해인 숙종 44년(1718) 3월 6일 완공되었다. 현재 龜巖書院은 徐沈·徐居正·徐嶸·徐渚 4인을 配享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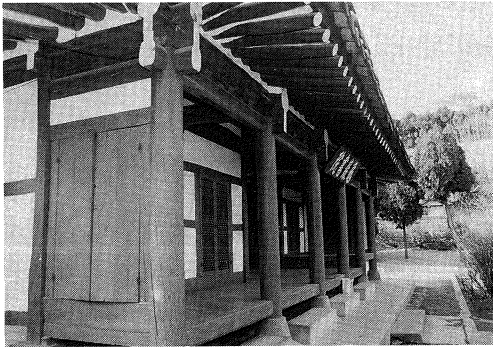
〈사진 9-22〉 구암서원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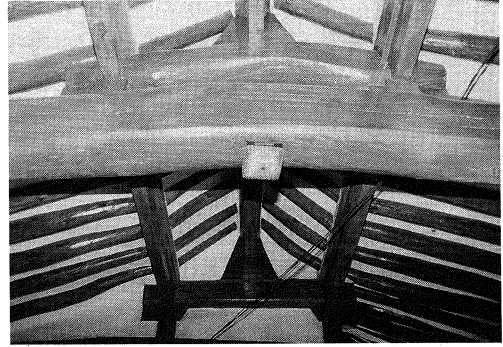
〈사진 9-23〉 구암서원 송현사 정면

107) 大邱府, 《大邱府史》1, 1943, pp.127~128.

108) 大邱府, 위의 책, pp.128~130.



〈사진 9-24〉 구암서원 강당 정면



〈사진 9-25〉 구암서원 강당 상부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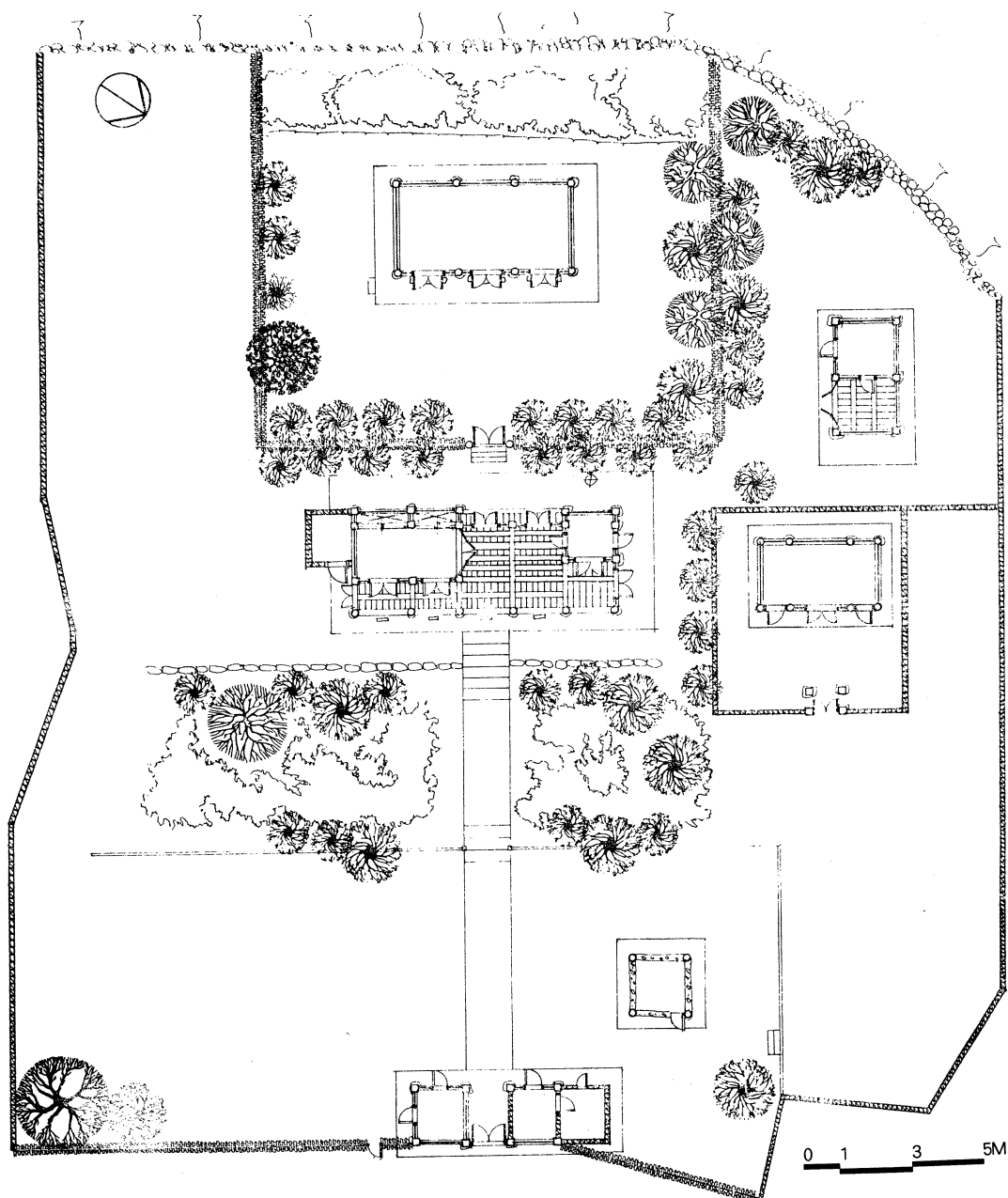
徐沈은 字가 聖默이며 達城사람으로서 號를 龜溪라 했다. 관작은 制處使에 이르렀으며, 圃隱 鄭夢周에게 師事하고 성리학 연구에 몰두했다. 徐沈은 세종이 달성 徐氏 세거지인 달성의 地形이 斗形과 같고 주위가 천연적으로 성벽을 이루어 명승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南山古驛基’(前 남산병원 일대)와 바꾸도록 하는 대신 대대로 世祿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는 이에 “나라의 모든 것이 국왕의 땅이거늘 어찌 댓가를 바라겠습니까”하고 사양하였다. 徐沈의 뜻을 전해 들은 세종은 이를 가상히 여겨 달리 소원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침은 일가가 사사로운 은혜를 받기보다 만민이 골고루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대구지방 일대에 거둬들이던 環穀 이자를 감해 달라고 청했다. 세종은 서침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여 이후 대구지방의 環穀에 한해서는 쌀 1섬에 1말 5되씩 받던 환곡의 이자를 5되씩 감해 주었다.

이에 은덕을 입은 대구 주민들이 徐沈의 頌德을 기리기 위하여 龜巖書院을 세운 것이다. 龜巖書院을 連龜山에서 지금의 동산동으로 이건하면서 서침의 후손인 四佳 徐居正을 合享하였다. 서거정은 세종때의 유명한 학자로서 세종 26년(1444) 문과에 급제 관직이 좌찬성에 이르렀고 達城君에 봉군된 명신이다.

이후 영조 17년(1741) 2월 20일에 역시 후손인 忠肅公 藥峯 徐渚이 追享되었다. 서성은 선조 19년(1586) 문과에 급제, 壬辰倭亂때 咸北에서 土民 鞠景仁이 피난 중이던 왕자 臨海君과 順和君을 포박하여 加藤清正에게 넘겨주어 끌려 간다는 소식을 듣고 용감하게 왕자와 재상을 구출한 충신이다.¹⁰⁹⁾

또한 영조 33년(1757) 8월 26에는 영의정을 지낸 涵齋 徐嶸의 追享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109) 대구직할시, 《達句伐》, 1977, pp.199~201.



〈圖 9-10〉

구암서원 배치 평면도

徐沈·徐居正·徐嶸·徐渚 4인을 配享하게 된 것이다.

龜巖書院은 1868년 대원군의 書院 철폐령에 따라 없어졌다가 1924년 儒林에서 復設하였고, 1943년 崇賢祠와 講堂을 중수하였다. 그후 崇賢祠 등 건물을 1974년 국비 150만원·시비 50만원·자체부담 100만원으로 대대적인 보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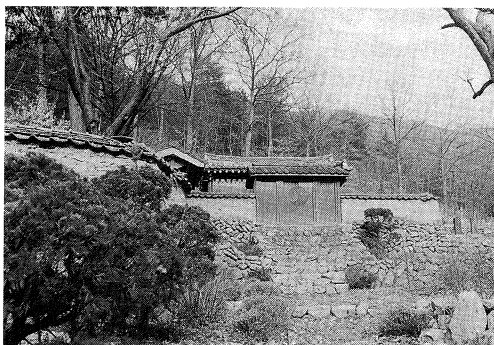
경내에는 講堂·崇賢祠·碑閣·樂齋 祠堂·祭需廳 등이 있다. 대문과 講堂·崇賢祠가 東西 축선 상에 위치하고 강당 우측에 樂齋 祠堂이 있고, 樂齋 祠堂 뒤쪽에 祭需廳이 南東向하여 배치되고, 대문 우측에 碑閣이 자리한다. 講堂은 정면 3칸·측면 1칸반의 5樑架로 圓柱形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와 중보를 차례로 결구하고, 중보 위에 제형 판대공을 놓아 마루도리를 받게 하였다. 지붕은 홑처마에 팔작지붕이다.

崇賢祠는 정면 3칸·측면 1칸의 맞배지붕이며, 碑閣은 각 1칸씩의 맞배지붕이다. 祭需廳은 정면 2칸·측면 1칸의 맞배지붕이고, 樂齋 祠堂은 정면 3칸·측면 1칸의 맞배지붕이다. 이 서원은 대구에 남아 있는 조선후기 서원으로 형식과 내용면에서 비교적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예에 속한다.

또한 崇賢祠에는 達城徐氏 門中の 사람을 봉사하는 사유를 적은 ‘龜岩書院 廟庭碑’와 ‘達城徐氏 族會事蹟碑’가 남아 있다.

5) 梧川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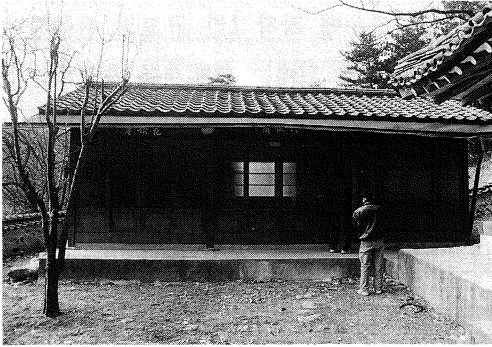
대구지방에 서원이 생기게 된 것은 조선조 명종 18년(1563) 儒林에서 李滉·鄭述·鄭經世 세 분을 모시기 위해 研經書院을 세우면서 부터이다. 오천서원은 대구지방의 21개 서원 중 4번째로 영조 20년(1744)에 건립된 것이다. 현재 오천서원은 가창 수원지를 지나 달성군과의 경계 지역 동쪽 계곡인 대구직할시 수성구 파동 432번지에 있다.



〈사진 9-26〉 오천서원 내 양희지 사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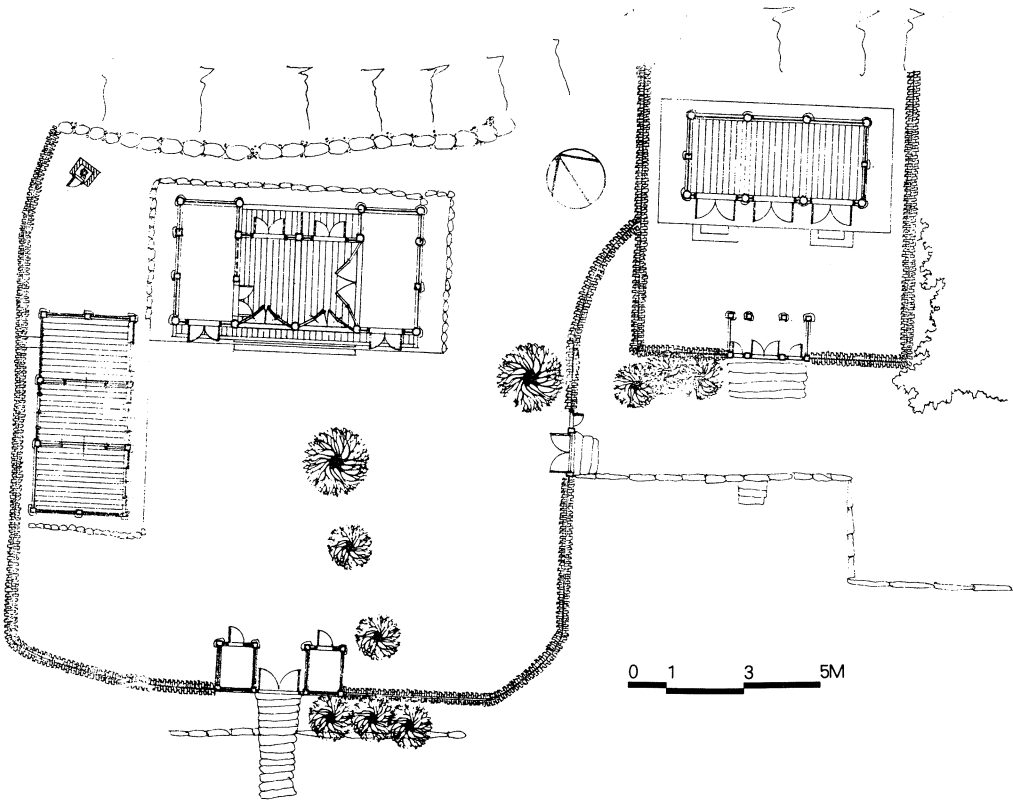
〈사진 9-27〉 오천서원 강당 정면



〈사진 9-28〉 오천서원 서재

이 서원은 조선조 成宗 때 大司憲을 지낸 大峰 楊熙止 선생을 추모하고 그가 남긴 청렴 결백한 인품을 널리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士林에서 세운 것이다. 양희지는 평안도 중화 출신으로 1439년에 태어나 성종 5년(1474) 문과에 급제한 수재였다.

오천서원이 있던 원래 자리는 지금의 북쪽 2km 지점인 과령골이었으나 서원 철폐령으로 헐리게 되어 儒林에서 1905년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면서 堂號를 무릉재로 고쳤다. 1971년 儒林총회의 결의로 祠堂을 신축하고 당호도 오천서원으로 다시 바꾸었다.



〈圖 9-11〉

오천서원 배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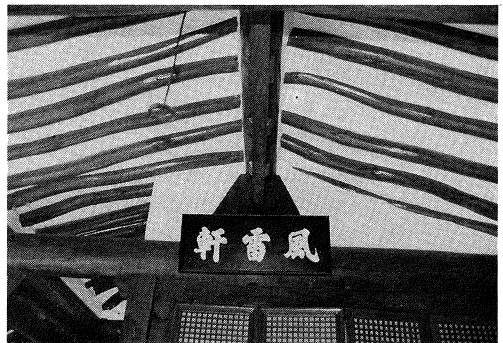
건물은 정면 3칸·측면 2칸으로, 가운데 대청을 두고 그 좌우에 각각 1칸 규모의 온돌방이 있다.¹¹⁰⁾ 구조는 5樑架에 팔작지붕이며, 처마는 홀처마이다. 祠堂 뒤에는 楊熙止를 추모하는 5기의 碑가 있다.

6) 靑湖書院

청호서원은 조선조 학자인 慕堂 孫處訥, 沙月堂 柳時藩, 格齋 孫肇瑞, 暘溪 鄭好仁 네 분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대구직할시 동구 황청동 27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孫處訥은 조선조 명종 8년(1553)에 태어나서 인조 12년(1634)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줄곧 향리에서 후진 양성에 힘쓴 학자로 壬辰倭亂과 丁酉再亂 때는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무찌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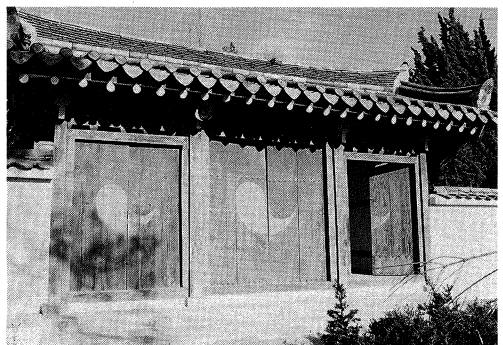


〈사진 9-29〉 청호서원 강당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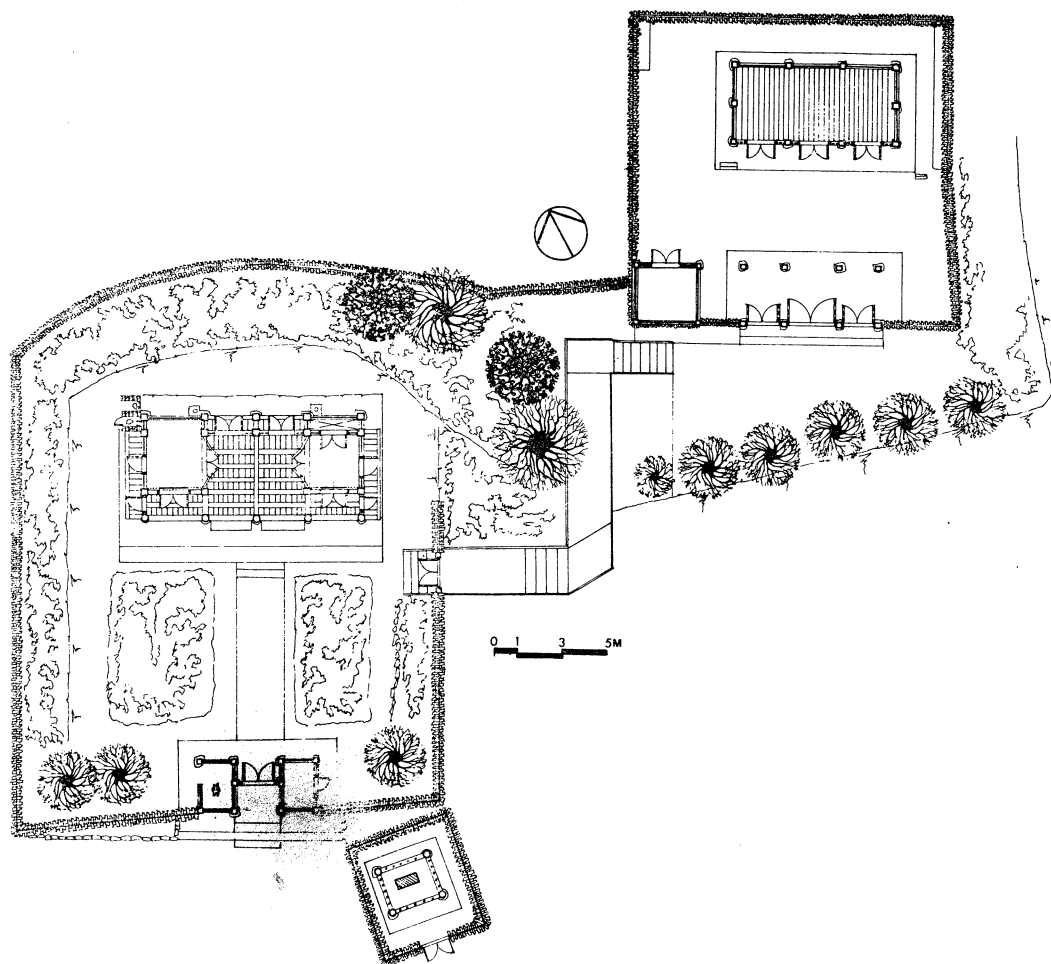
〈사진 9-30〉 청호서원 강당 대청 상부가구

壬辰倭亂이 끝나고 나서 손처눌은 그의 처소인 永慕堂에서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는데, 그의 處所 永慕堂엔 많은 선비들이 모여 들었다. 그래서 처소 옆에 망사암·분암·풍뢰헌·산탁재 등을 지어 선비들을 분산 교육하였다. 《永慕堂通講諸子錄》에는 문인 202명의 명단이 적혀 있어 그 규모를 짐작케한다. 또 그는 마을 앞에 靑湖池란 못을 만들어 천수답을 수리 안전답으로 바꾸는 등 영농방법 개선에도 힘썼고 壬辰倭亂이 끝난후 조정에서 논공행상을 할때도 끝까지 상을 사양하였다.



〈사진 9-31〉 청호서원 사당과 내삼문

110) 대구직할시, 《대구의 향기》, 1982, pp.451 ~ 452.



〈圖 9-12〉

淸源書院 배치 평면도

그가 세상을 떠난 60년 뒤인 숙종 20년(1694) 儒林에서 황청동에 청호서원을 건립하고 그의 위패를 모셨다. 이후 62년뒤인 영조 31년(1755) 그의 문인인 柳時藩을 配享하였고, 그뒤 40여년이 지난 정조 11년(1795) 역시 그의 문인인 鄭好仁과 그의 6대조인 孫肇瑞를 追享하였다.¹¹¹⁾

111) 대구직할시, 《鄉土文化遺蹟》, 1988, pp.629~630.

현재의 건물은 1968년 불에 타는 바람에 이듬해 講堂과 위패를 모신 尙仁祠를 중건한 것이다.¹¹²⁾ 서원 입구 왼쪽에는 1947년에 건립한 ‘慕堂先生遺墟碑’가 있는데, 碑文은 일제 때 의병장인 金道和가 지은 것이라 한다.

3. 書堂

書堂은 書院·精舍類와 함께 高麗末에서 朝鮮朝를 통해 주된 私學 教育施設이었다. 서당이 최초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로 추정되나 국가적으로 육성 장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료가 없어 그 교육적 상황을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서당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이며, 특히 교육적 기능면이나 그 수에 있어서 보편화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조선중기 이후의 일이다.

그런데 서당이 전국적으로 보급 확대되는 裏面에는 서원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물론 서원이 형성되기 이전에도 서당교육은 영위되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서의 교육내용은 初學的인 내용보다는 과거시험 준비교육에 치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당교육은 16세기 중엽 이후로는 서원에 흡수되어 점차 初等 教育施設로서 지위를 낮춰가고 마침내 17세기 이후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초등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굳힌다.

서원을 중심으로 서당교육이 전개되는 과정에는 대개 두 개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서당이 먼저 설치되고 그를 중심으로 서원이 형성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서원이 교육의 운영상 예비학교의 필요를 절감하고 그 옆에 다시 서당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前者의 경우는 退溪의 陶山書堂, 趙穆의 月川書堂과 같은 경우로 여기에서의 교육과정은 書院의 것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것이었다. 後者인 경우는 伊山書院의 養正堂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伊山書院記》를 보면 서원 옆에 養正堂을 세워 童蒙教育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이 後者의 서당은 다분히 초등교육시설로 보이며 나중에 서원에서 分化하여 鄉村書堂으로서 독립적인 교육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書院 부속서당이 독립된 초등 교육시설로 전국적인 발전을 보게 된 것은 17세기에 이르러 서원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祠廟의 기능만이 강화되어 또 士林의 독점적 소굴이 되어 가자 地方民들은 여기에서 벗어나 새로이 독립적인 서당을 세우게 되어 서당의 서원에 서의 분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점차 의식의 확대와 생활의 여유를 보인 조선후기의 농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한 독립

112) 대구직할시, 《대구의 향기》, 1982, pp.465~466.

적인 교육시설을 바라게 되어 서원 체제하에서 부설되던 서당은 이제 완전히 독립된 鄉村 書堂으로서 위치를 확립하게 된다.

서당건축의 일반적인 배치유형은 書堂 單獨形, 서원 부속형, 祭享空間 첨가형 등으로 대별된다. 이 중 서당과 庫舍의 별도의 부속건물이 없는 서당 단독형이 주류를 이루며 다음으로 祭享空間 첨가형이 많다. 배치계획에 있어서 祭享空間 첨가형은 당초 서당이 단독으로 세워진 후 祠堂이 부속되어진 경우가 많은데, 盛期の 서원 배치에 비해 상당히 간단하다.

서당건축의 가장 보편적인 평면유형은 중앙에 대청을 두고 그 좌우에 온돌방을 놓은 평면으로 시기의 先後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다. 공간 구성상 담장은 지형의 여건에 따라 적절히 설치하였으며, 서원에서 보이는 장판각·전사청 등 부속건물은 일부 서당에서만 나타난다.¹¹³⁾

조선시대 대구에도 서당건축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에는 盛才書堂, 獨巖書堂, 孤山書堂, 東湖書堂, 龔淵書堂, 畫岩書堂, 伊洛書堂, 屏岩書堂 등이 남아 있으며, 이중 서당건축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 서당으로는 盛才書堂과 獨巖書堂·孤山書堂을 들 수 있다. 위 서당들은 대부분 18세에서 19세기 말경에 걸쳐 건립된 것으로, 이는 영남지방에서 서당건축이 가장 활발하던 시기에 해당한다.

대구 서당은 대개 정면 4칸·측면 2칸의 규모로, 평면은 가운데 대청을 두고 그 좌우에 온돌방을 둔 형식이 많다. 이러한 평면구성은 조선시대 서당건축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형식이다.

1) 盛才書堂

盛才書堂은 仁川蔡氏 盛才宗中の 書堂으로 대구직할시 동구 미대동 16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시 유형문화재 9호로 지정·보존되고 있다.

이 서당은 조선시대 인조 때 선비 蔡明甫(1574~1644)가 건립한 것이다. 그는 本貫이 仁川으로 諱는 先見이며 號는 兩傳軒이다. 어려서 鄭寒岡과 曹芝山의 門下에서 수학하였고, 광해군 9년(1617) 生員試에 합격하였다.

蔡明甫는 인조 4년(1626) 禧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곧 사퇴하고 귀향하여 이곳에 盛才亭을 짓고 鄉內 명사인 慕堂 孫處訥, 止巖 都愼修, 雙峰 鄭克俊, 台巖 崔東集 등과 학문을 강론하면서 만년을 보냈다. 盛才亭은 1627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보이며 후일 盛才書堂의 모체가 되었다.

113) 金銀重·朱南哲, 〈書堂·精舍類 건축의 配置 및 平面類型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8-1, 대한건축학회, pp.5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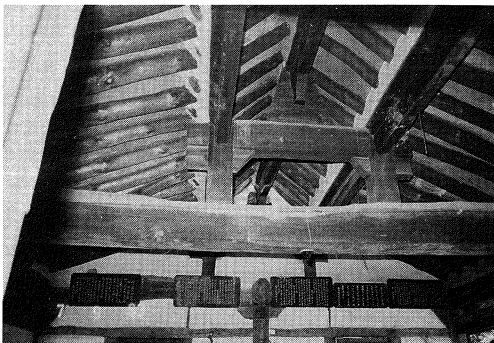
세월이 흘러 亭子가 퇴락함에 曾孫 尙鼎(1703~1782)이 1770년경에 중건하여 講學所로 사용하였으며, 이것이 후일 盛才書堂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손인 鎭國(1750~1827), 榮國(1789~1827)대에 이르러 지붕을 다시 잇고 堂號를 盛才書堂이라 바꾸었다.



〈사진 9-32〉 성재서당 원경



〈사진 9-33〉 성재서당 정면



〈사진 9-34〉 성재서당 대청 상부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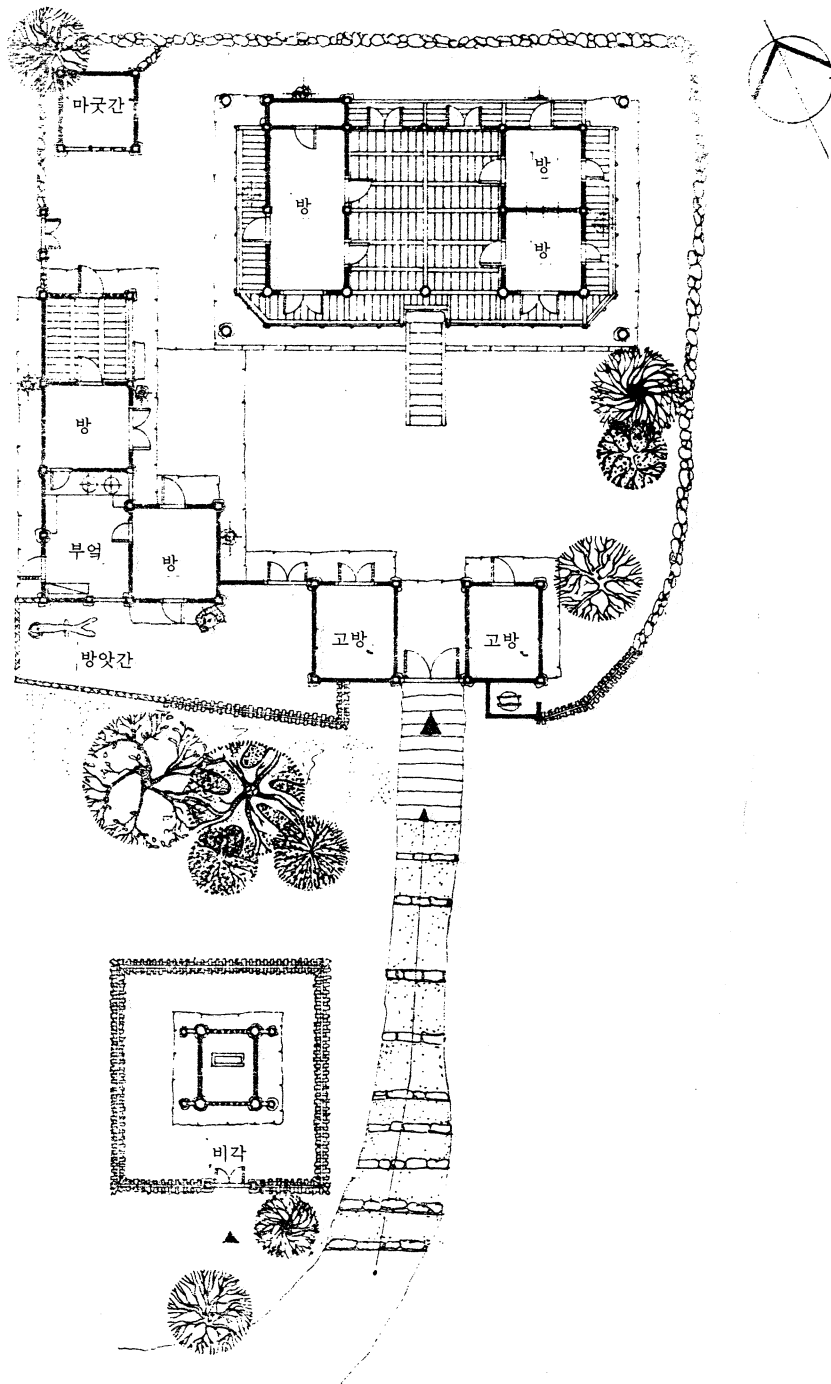
성재서당은 파군재에서 동화사로 가는 길의 좌측에 있는 미대동에서 북쪽의 팔공산 지맥에 솟아 있는 三麻山을 향하여 1.5km가량 올라간 사방이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쌓인 곳에 남서향으로 書堂과 부속건물이 배치되어 있고, 동측에는 맑은 谷澗水가 굽이굽이 땀돌아 흐르고 있다.

서당으로 들어가는 길은 비교적 경사가 급해서 20 여단의 계단길을 내었는데, 계단이 시작되는 좌측의 네모진 一廓의 토담¹¹⁴⁾ 안에 兩傳軒의 遺墟碑閣이 있다. 3칸 대문채의 어칸에 나 있는 平大門을 들어서면 마당을 건너서 서당이 높은 축대 위에 서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마당의 서쪽에 廚舍가 있다. 서당의 좌우와 뒷쪽에는 돌담을 쌓아 경계를 지웠다.

書堂은 높은 화강석 바른층 쌓기 2重 기단 위에 정면 4칸·측면 2칸 규모의 홀처마 박공지붕 건물이다. 서당은 자연석 초석 위에 앞쪽에만 두리기둥을 세운 민도리집¹¹⁵⁾이다. 대청 상

114) 흙으로 쌓아 만든 담장.

115) 도리와 장혀로써만 된 집.



〈圖 9-13〉

성재서당 배치 평면도

부가구는 5樑架로 梯形 板臺工¹¹⁶⁾으로 중도리를 받게 했으며 건물 네 모서리에 활주¹¹⁷⁾를 세워 추녀¹¹⁸⁾를 지지하였다.¹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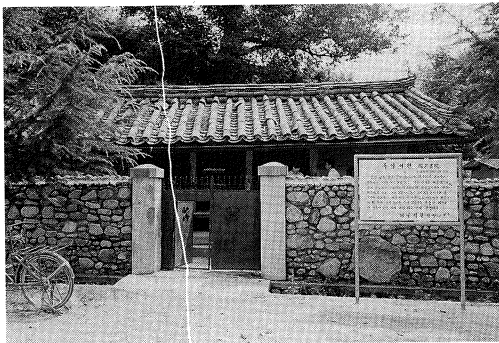
서당건물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2) 獨巖書堂

독암서당은 대구직할시 동구 봉무동 223~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시 문화재 자료 1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서당은 봉무동 일대에 世居해온 慶州崔氏 門中에서 고종 2년(1865) 書堂으로 건립하여 문중 자손들은 물론 인근 마을의 선비들이 講學하던 곳으로 충청도 관찰사를 지낸 최연덕도 어릴때 여기에서 글을 배웠으며, 鳳舞亭을 세운 최상룡도 이곳에서 글을 읽었다고 한다.

서당 이름을 獨巖이라 붙인 것은 서당 서쪽에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과의 公山싸움에서 패해 혼자 피신해 앉아 있었다는 유명한 獨坐岩이 있어 거기서 따온 것이라 한다.

서당은 동화사와 파계사로 들어가는 갈림길 못미처 오른쪽으로 나있는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길에 면하여 산기슭에 北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원래 독암서당은 현재의 위치에서 10여미터 앞쪽에 있었으나 1973년 길이 새로 나면서 뒷편으로 옮겼다.



〈사진 9-35〉 독암서당 전경

書堂 주위는 네모진 一廓의 돌담을 쌓고 도로에 면한 북쪽 담장 중앙에 철제 대문을 내었다. 서당 뒷쪽에는 수령 200여년이 넘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서 있다.

서당의 규모는 정면 4칸·측면 1칸으로 앞면에 온통 좁은 빗마루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붕은 홀처마 박공지붕이다. 평면구성은 중앙 2칸에 앞쪽이 개방된 대청이 놓이고 양 협칸에 온돌방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대청 2칸 중 오른쪽 칸은 반 칸 크기로 左右칸 앞쪽의 기둥 간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좌측칸의 중앙에

116) 마름모꼴의 판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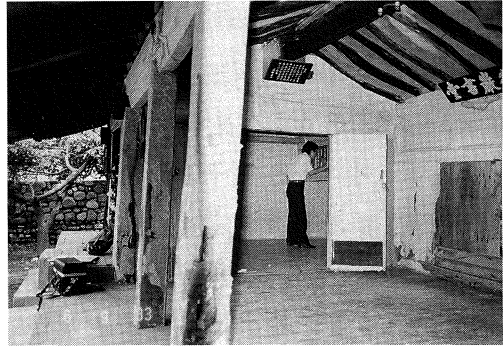
117) 길게 나온 추녀나 사래의 끝을 바치는 기둥.

118) 귀마루를 받는 큰 서까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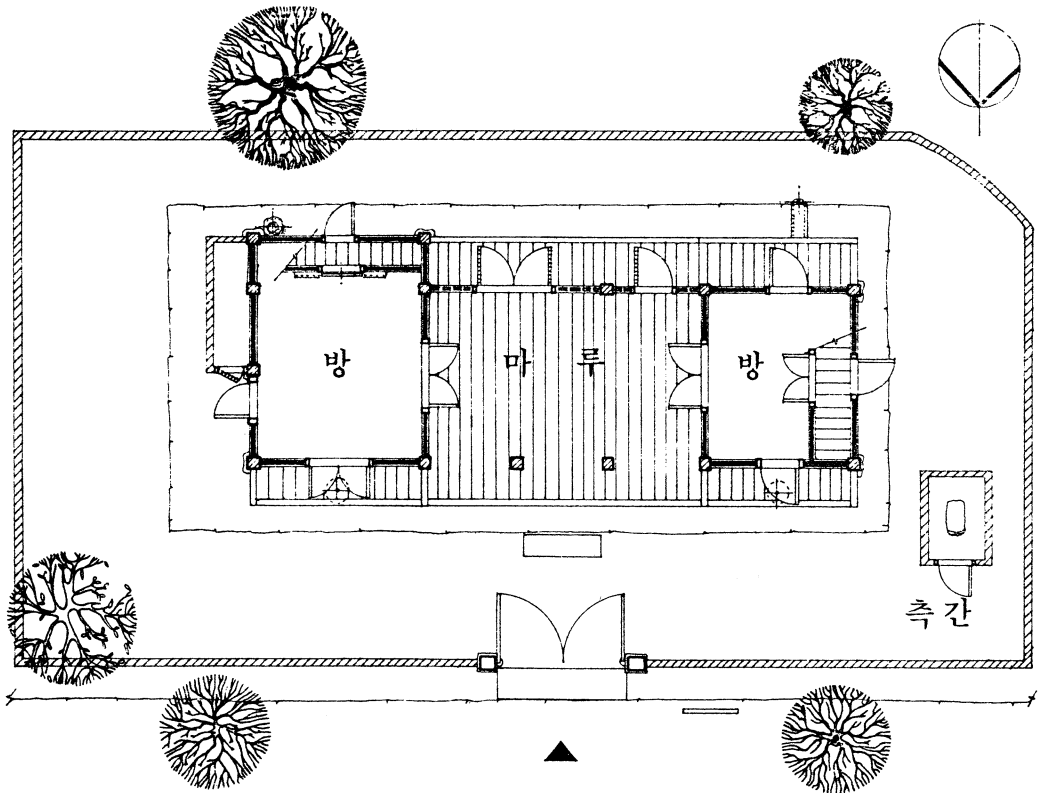
119) 대구직할시, 《鄉土文化遺蹟》, 1988, pp.256~258.

기둥을 하나 더 세워 외관을 조정하여 놓았다. 좌측 온돌방의 뒷벽 위에는 壁龕을 설치하고, 우측 온돌방의 측벽 위에는 벽장을 두었다.¹²⁰⁾

서당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운 민도리집으로, 대청 위 架構는 童子柱 臺工을 세운 검박한 3樑架로 되어 있다. 특히 대청 바닥이 장마루로 바뀌어 있고, 礎石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단을 두껍게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한 것 등은 그 뒤 많은 손질을 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사진 9-36〉 독암서당 정면 세부



〈圖 9-14〉

독암서당 배치 평면도

120) 대구직할시, 앞의 책, pp.256 ~ 258.

3) 孤山書堂

孤山書堂은 언제 세워졌는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退溪 李滉(1501~1570)과 愚伏 鄭經世(1563~1633)선생이 이곳에서 講學한 바 있다 하므로 1500년대에는 이미 건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서원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성동 163번지에 있으며, 현재 대구직할시 문화재 자료 제 15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즉 조선 명종조에 鄉儒들과 尹希廉이 齋室을 짓고 퇴계선생에게 齋號를 청하여 齋는 孤山으로, 門은 求道로 한 퇴계의 手筆을 받았으며, 求道라는 편액은 지금도 남아 있다. 祠堂은 壬辰倭亂때 소실되어 선조 38년(1605)에 중건하였으며, 선조 40년(1607)년에 愚伏 鄭經世가 大丘府使로 있으면서 講會를 열었는데, 이때 唐의 都督 李省三도 參講하였다고 한다.

숙종 16년(1690)년에 서원을 창건하여 孤山이라는 院號로서 退溪와 愚伏 두 선생을 配享하였고, 영조 10년(1734)년에 講堂 및 東·西齋를 건축하였으며, 영조 22년(1746)에 院宇를 중수하였다. 정조 13년(1789)에는 門樓를 세우고 延安人 金載久가 記文을 撰하였다. 순조 22년(1822)에는 위패를 잃어 개조 봉안한 바 있으며, 고종 5년(1868) 대원군의 서원 철폐시 훼손되었다.

그 후 고종 16년(1879)년에 이르러 鄉儒들을 중심으로 講學契를 修契하여 서원의 옛터에 講堂만 다시 중건하여 孤山書堂이라 편액하였고, 1964년에 중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¹²¹⁾

孤山書堂은 城洞의 書院골 야산 중턱에 北向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앞쪽에 南川이 굽이 흐르고 넓은 고산들판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뒷편의 옛 사당터에 退溪와 愚伏선생의 講學遺墟碑가 세워져 있다.

이 서당은 모르타르 마감한 기단 위에 세운 정면 4칸·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홀처마 팔작 지붕집이다. 건물의 구조는 3樑架로 막돌 덩벙주초 위에 정면 가운데 1柱만 두리기둥으로 하고, 나머지는 네모기둥을 세운 간결한 민도리집 형식으로 되어 있다.

고산서당은 작은 규모의 소박한 교육공간으로 재건 당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4) 東湖書堂

東湖書堂은 대구직할시 동구 東內 2洞에 있으며, 勉窩 黃慶霖이 후진의 講學을 위하여 건립한 것이다.

121) 대구직할시, 앞의 책, pp.552~553.

건물은 정면 4칸·측면 1칸으로, 우측에 2칸 크기의 대청마루가 있다. 《東湖書堂重建記》에 崔臺巖, 孫慕堂 등이 이곳에서 수학하였다고 전한다.¹²²⁾

5) 龔淵書堂

龔淵書堂은 대구직할시 동구 용수동 570번지에 있다. 이 書堂의 건립연대는 미상으로 옛부터 ‘拾溪名地’라 하여 10개 폭포의 맑은 물소리로 인해 잡음이 들리지 않아 선비들이 獨學하던 곳이라 하며, 홍수로 말미암아 파손된 것을 1929년에 重建하였다.

이 서당은 대지 87평에 南向으로 건축한 2칸(12평) 규모의 木造 瓦家로, 큰 대청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온돌방이 배치되어 있다. 담장은 돌담이다.¹²³⁾

6) 畫岩書堂

畫岩書堂은 대구직할시 동구 지묘동 798번지에 위치하며, 지금으로부터 약 150 여년前 硯經書院이 隄철된 후 士林들의 유적을 추모하여 重建하였다고 한다.

이 서당은 대지 51평에 2칸(8평) 규모의 木造 瓦家로, 담장은 土石으로 쌓았다.¹²⁴⁾

7) 伊洛書堂

伊洛書堂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파호동 46-1번지에 있다. 이 書堂은 조선조 정조때에 大丘·達城·漆谷 등 인근 아홉 門中の 先賢들이 금호강과 낙동강의 合水地인 속칭 ‘江倉’을 택하여 지은 것으로 도덕심의 함양과 교육을 위한 私塾으로 사용되어 왔다. 현재는 ‘伊洛書堂保存會’가 구성되어 보존 관리하고 있다.¹²⁵⁾

8) 屏岩書堂

屏岩書堂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용산동 456번지에 있다. 이 서당은 星州都氏의 都應俞, 都慶俞(進士) 형제를 祭享하기 위해 인조 7년(1629)에 건립한 祠堂으로, 노후화되어 1925년에 改築하였다.

이 서당은 대지 249평에 東南向한 팔작지붕의 木造 瓦家로서, 書堂이 5칸(20평), 大門間이 4칸(8평)이다. 또 이 書堂에는 文集 木板 300여 점이 보존되어 있다. 담장은 시멘트 블록 담이다.¹²⁶⁾

122) 대구직할시, 앞의 책, pp.252~253.

123) 대구직할시, 위의 책, pp.258~259.

124) 대구직할시, 위의 책, p.259.

125) 대구직할시, 위의 책, p.630.

126) 대구직할시, 위의 책, pp.629~630.

4. 齋室建築

儒敎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은 祖上崇拜 思想으로, 이는 조상을 섬기는 행위와 孝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 崇祖思想의 건축적 표현이 祠堂이라는 단순한 형태에서 크게는 齋室과 같은 규모가 비교적 큰 건축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齋室 건축에 대한 가장 오랜 기록은 《三國史記》에서 찾아볼 수 있다. 新羅本記 南解次次雄 3年(6) 春 三月條에 “立始祖廟”라 했고, 같은 新羅本記 阿達羅 尼師今 17年(170) 春 二月條에 “重修始祖廟”라 한 것으로 보아 재실건축과 유사한 기능의 건축이 신라 때부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²⁷⁾

조선 시대에 들어와 특히 17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어진 齋室은 좁은 의미로 始祖나 顯祖의 墓祭를 지내기 위해 祭需를 장만하고 祭官들의 宿食을 위해서 지은 건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齋室은 墓祭와 관련 없이 단지 顯祖를 追慕하는 건물로서의 기능만을 갖기도 하였다.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는 당시 儒生들이 공부하기 위한 書齋와 民村에 서는 마을의 공동 사랑방으로서 외부 손님의 접객 기능을 가진 건물도 통칭 齋室 또는 齋舍라고 불리웠다.

齋室建築이 많이 지어지던 17세기 이후의 사회는 黨爭이 격화된 시기로 名分에 치우친 정치 이념 논쟁을 벌였다. 이러한 名分에 치우친 黨派間의 대립이 계속되자 士林에서는 ‘淸華要職’을 지냈거나 道學이 높은 조상을 내세워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兩班들은 鄉村에 군림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 간의 유대 관계가 깊어야만 가능하였다. 이런 까닭에 齋室·書院·祠宇를 중심으로 族內의 위세를 과시함과 동시에 一族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宗族들간의 친목과 공동체 의식을 다짐으로써 상호 결속과 유대를 꾀하였다.

同時代 같은 사회적·역사적 환경 아래 놓였던 대구 지역에도 조선중 후기 이후 재실 건축이 성행하였을 것이다. 이는 현재에도 많은 재실 건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입증된다. 대구에 남아 있는 재실 건축은 거의가 19세기와 그 이전 및 20세기에 들어와 건축된 것으로 특히 20세기 이후에 건축된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19세기 이전에 건축된 재실로는 尋樂齋·龍潭齋·獨茂齋 등 15개소가 남아 있으며, 이들 재실들은 거의가 1800년대 중·후반에 건축된 것으로 건축연대가 150년을 넘지 않는다. 이같이 건축된지 크게 오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도시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원형을

127) 李王基·朴明德·金蘭基, 〈安東地方 齋舍建築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1, 대한건축학회, pp.147~149.

제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 보존 상태도 나쁜 편이다. 그리고 同時期 다른 지방의 재실 건축에 비해 큰 건축적 특징을 보이지도 않는다. 이 시기 대구의 재실 건축은 一자형과 ㄱ자형 평면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평면은 가운데 대청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두는 ‘中堂夾室形’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ㄱ자형 평면일 경우 앞쪽에 누마루를 돌출시켜 평면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식이었다고 보여진다.

1900년 이후 건축된 재실은 表忠齋·慕明齋 등 30 여개소에 달하는데, 대부분 日帝下에 건축(重建 또는 新築)되었으며 일부가 1945년 이후에 지어졌다. 이들도 전술한 20세기 이전의 재실 건축과 마찬가지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존 관리 상태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원형조차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日帝下의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고 氏族의 지위 상승과 유대 강화를 공고히하기 위해 여러 씨족들이 顯祖의 재실을 경쟁적으로 세우면서 법식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한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 뿐만 아니라 6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대구의 도시화와 산업화 따른 移建 및 철거 그리고 관리 소홀도 부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다음은 대구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재실 건축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1) 20세기 以前의 齋室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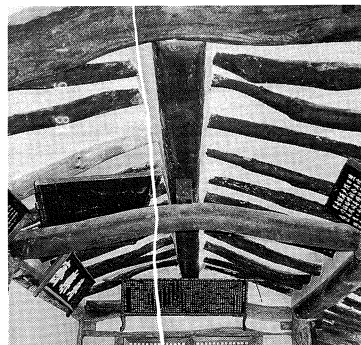
(1) 尋樂齋

尋樂齋는 대구직할시 동구 내곡동 80번지에 있다. 이 건물은 達城人 洗心軒 徐道珩을 奉祀키 위한 齋室으로서 1660년 건립되었다. 재실은 정면 3칸·측면 3칸의 ㄱ자형 목조 와가로, 정면 좌측에 2칸 마루를 두고 우측 끝에 1칸 온돌방을 두었다. 그리고 좌측 마루에서 꺾어 온돌방 2칸을 시설하고, 건물 앞쪽에는 툇마루를 두었다.



〈사진 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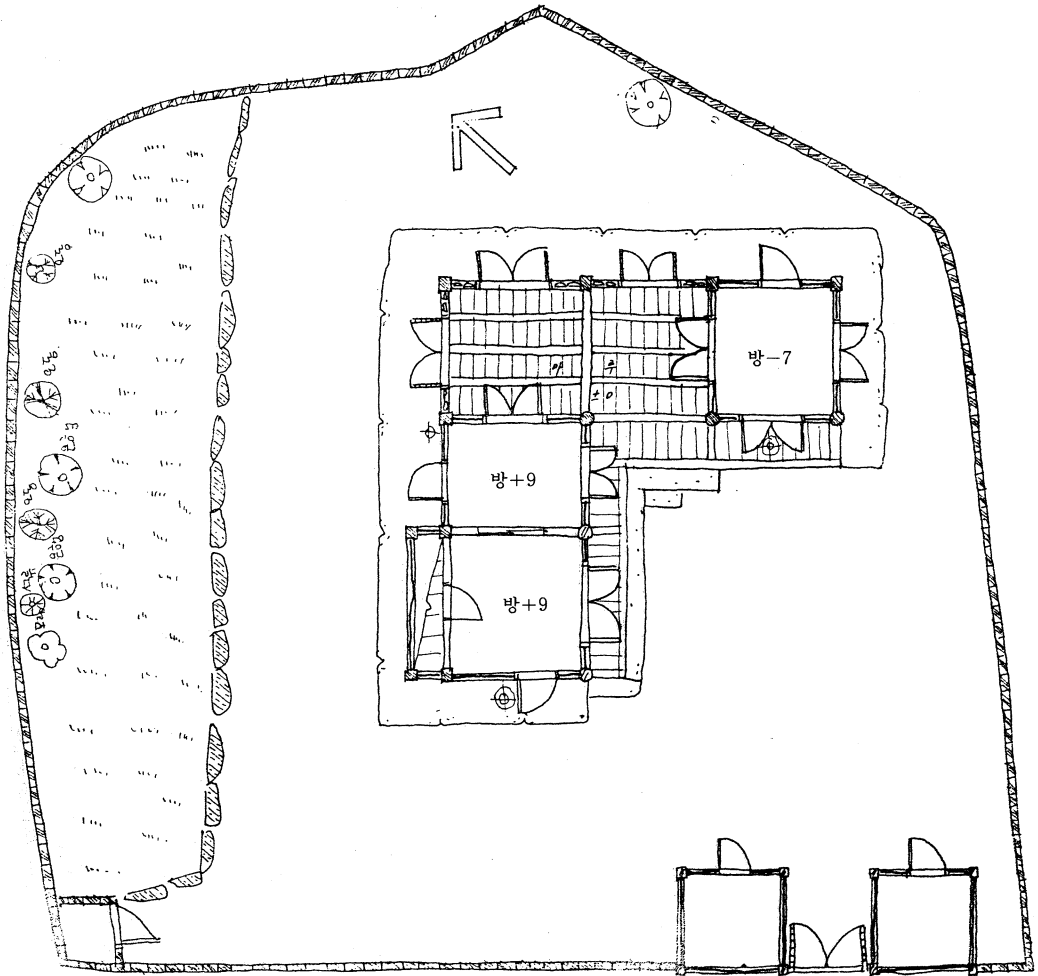
심락재 정면



〈사진 9-38〉

심락재 대청 상부가구

건물 구조는 막돌 허튼층 쌓기¹²⁸⁾기단 위에 막돌 덩벙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워 대들보¹²⁹⁾를 걸치고 마루 도리를 받는 간단한 3樑架의 민도리 집¹³⁰⁾으로, 지붕은 홑처마에 박공지붕이다. 기둥은 정면에만 두리기둥을 쓰고, 뒷면에는 모두 네모기둥을 사용했다. 채실 대문은 정면 3칸·측면 1칸으로 중앙 칸에 대문을 달았다.



〈圖 9-15〉

심락재 배치평면도

128) 불규칙적으로 쌓는 방식.

129) 맨 아래에 가운데로 얹힌 큰 들보.

130) 도리와 장혀로만 된 집.

마루 정면에 尋樂齋라는 편액이 있고, 편액의 좌측에는 ‘尋樂齋 上樑文’, 우측에는 ‘尋樂齋記’와 韻 9수가 있다.

(2) 遠慕齋

遠慕齋는 대구직할시 동구 숙천동 78번지에 있는 齋室로, 조선 시대 순조때 참봉이었던 東阜 徐思選을 추모하기 위하여 후손들이 건립하였다. 현재 達成 徐氏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3) 勝芳齋

勝芳齋는 대구직할시 동구 동내동 4번지에 있다. 이 건물은 임진왜란때 의병 대장 黃慶霖이 軍士 교련한 뜻을 기려 논공 행상을 한 결과 昌義功臣의 휘호를 받아 350 여년 前에 지은 齋室이다.

이 재실은 남향 木造 瓦家로서 201평의 대지에 正寢·祠堂·大門間 3棟이 배치되어 있다. 각 건물의 규모는 정침¹³¹⁾이 3칸(8.5평), 사당이 3칸(8평), 대문간이 1칸 (0.3평) 정도이다. 담장은 돌로 쌓았다.

현재는 퇴락하여 폐가가 되다시피 하였으며, 1948년 새로이 문중에서 永思齋를 마을 내에 건립하여 勝芳齋의 현판도 보관하고 있다.

(4) 誠永齋

誠永齋는 대구직할시 동구 범물동 285번지에 위치한 碧珍 李氏 齋室로 1897년에 건립한 건물이다. 관리자의 말에 의하면 현소유자 李春達씨가 우측으로 방 1칸을 달아 내었다고 한다.

건물은 낮은 막돌 기단 위에 건축되었으며, 내부 마루는 우물 마루로 되어 있다. 구조는 모두 角柱¹³²⁾를 사용한 3樑架로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¹³³⁾으로 되어 있다. 대청 상부 천정은 제고물반자¹³⁴⁾이다.

(5) 追慕齋

追慕齋는 대구직할시 동구 둔산동 13-1번지에 있는 재실로 약 100 여년 전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 재실은 150평의 대지 위에 3棟의 瓦家が 西向으로 배치되어 있다.

각 건물의 규모는 안채 4칸 (6.5평), 사당 4칸 (8평), 대문간 3칸 (3평)의 정도이다. 대문은 맞배형 지붕이며, 담장은 흙돌담에 기와를 이어 놓았다.

131) 집안에서 가장 주가 되고 중심이 되는 집 또는 방.

132) 단면 형태가 네모인 기둥.

133) 지붕의 완각이 막 잘라진 지붕.

134) 반자를 꾸미지 않고 서까래, 고미혀 또는 장선 위에 산자를 얹고 흙칠한 반자.

(6) 日新齋

日新齋는 북구 산격동 1004-3번지에 있는 1890년경에 건립된 20평 규모의 木造 瓦家 이다. 達城 徐氏 司果公派의 門中에서 약 400여년 전의 ‘秉節校尉龍驤衛副司果 徐思道’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현재도 1년에 한 두번씩 재실에서 祭享하고 있다.

(7) 道山齋

道山齋는 북구 동호동 373번지에 있는 재실로 4칸 (16평) 규모의 木造 瓦家이다. 이 건물은 1852년에 昌寧曹氏 曹鳳夏氏가 건립하였다고 한다. 肅宗朝에 老論·少論의 당파싸움이 격화되었을 때 李道岩 先生이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당파 싸움의 회유를 위해 지은 齋室이다. 每年 1회 小滿時 뜻있는 선비들이 모여 글짓기 대회를 열었다 한다.

(8) 遠墓齋

遠墓齋는 북구 국우동 654번지에 있는 건물로, 淸州 楊氏의 칠곡 入鄉祖를 비롯한 先代 祭墓閣으로 1800년대 건립한 것이다. 이 재실은 國優洞 뒷산 老巨樹 옆에 건립된 3칸 (15평) 규모의 木造瓦家이다. 애초에는 芝岩齋라 했으나 後代에 遠墓齋라 개칭하고, 50 여년 전에 중수하였다 한다.

(9) 具氏 齋室

具氏 齋室은 북구 서변동 1271번지에 있다. 이 具氏 齋室은 1883년에 건립한 청포 재실로서 木造瓦家이다. 원래는 書堂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일반 주택으로 쓰이고 있다.

(10) 龍潭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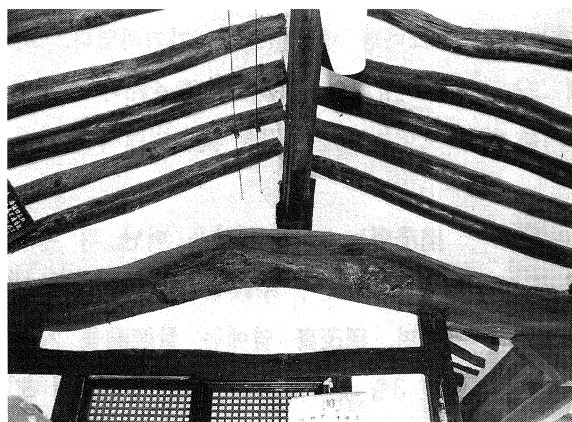
龍潭齋는 북구 산격 1동 878번지에 위치하는 19세기 말의 재실이다. 이 재실은 壬辰倭亂 때 義兵將으로 활약한 怡齋 徐思進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達城 徐氏 門中에서 효종 1년 (1650)경에 세운 것이다. 현재의 건물 대지는 그 당시 徐思進이 講學所를 만들어 교육에 전념하던 곳이라 한다.

上樑文에 보이는 ‘崇禎紀元後五戊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高宗 25년(1888)에 중수한 연대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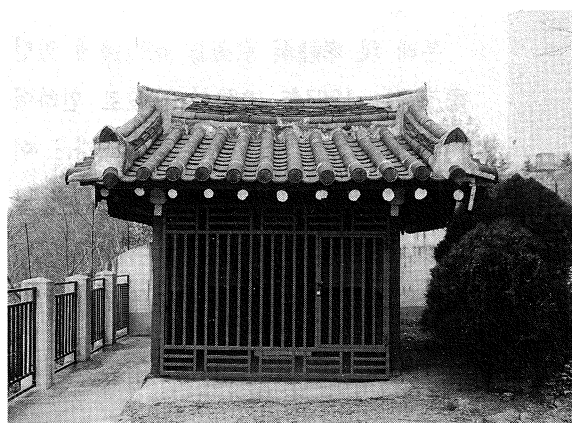
모르타르로 마감한 기단 위에 막돌 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건물 전면에는 두리기둥을 사용하였다. 건물은 정면 4칸·측면 1칸반 규모로, 평면은 좌측에 2칸의 우물마루를 두고 우측에 2칸통의 온돌방을 두었다. 이 온돌방의 앞쪽에는 반칸 규모의 퇴간을 설치하였다. 가구는 대들보 위에 梯形 판대공 세워 마루도리를 받는 3樑架로, 기둥 위는 소로로 수장하였다. 처마는 홀처마이며 팔작지붕에 기와를 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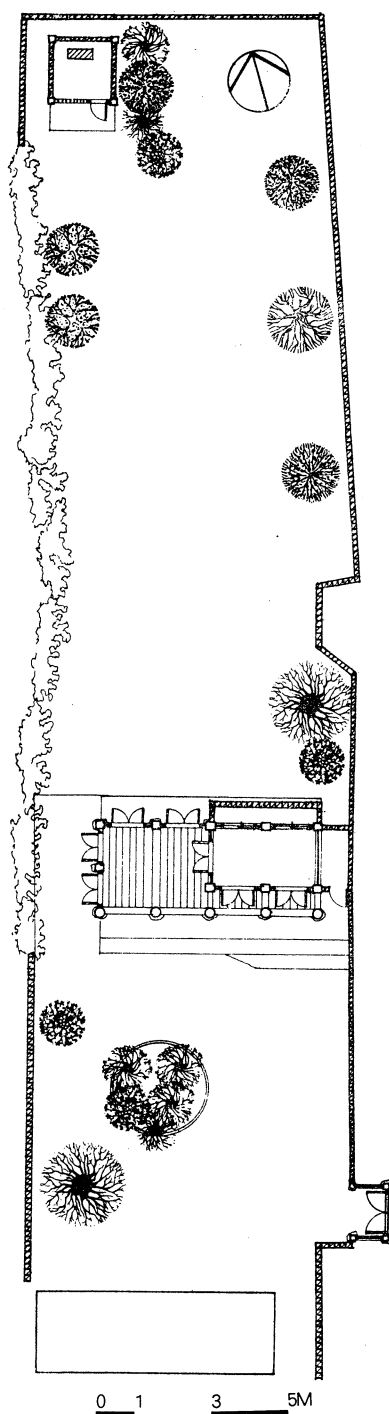
〈사진 9-39〉 용담재 정면



〈사진 9-40〉 용담재 대청 상부가구



〈사진 9-41〉 용담재 안에 있는 서명보 효자각



〈圖 9-16〉 용담재 배치 평면도

용담재는 전체적으로 부재가 견실할 뿐만 아니라 보존 상태도 대체로 양호하다. 부분적으로 변형된 것이 눈에 띈 하지만 대구에 있는 조선 후기의 재실 중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건물의 하나이다.

현재의 건물은 原位置가 팔리는 바람에 1976년 1km 북쪽 宗中山에 그대로 옮긴 것이다.

(11) 獨茂齋

獨茂齋는 수성구 만촌동 183번지에 있는 19세기 중엽의 재실로, 벼슬을 마다하고 鄉里에 隱居하여 후진 양성에만 전념한 夏時贊先生을 추모하기 위하여 그의 제자들과 儒林들이 건립한 것이다.

夏時贊 先生은 영조 26년(1750) 2월 6일 現 壽城區 晩村洞에서 태어나 순조 28년(1828)에 別世하였는데, 그는 특히 禮學에 밝아 《八禮節要》2卷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원래 先生은 현재의 獨茂齋가 있는 西쪽으로 50m 지점에 ‘獨茂岩樓’란 조그마한 재실을 짓고 기거하였다. 이때가 선생이 39세 되던 정조 13년(1789)인데 그는 일찍이 당대의 碩學이던 李景祐와 송성담에게서 수학하였으며, 그의 명성을 듣고 배우기를 청해 모이는 젊은이들로 獨茂岩에서는 언제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9-42〉

독무재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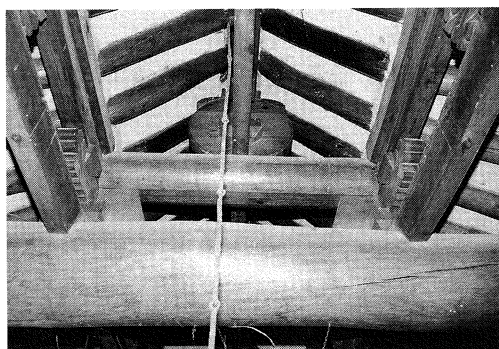
獨茂齋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들과 儒林에서 學祀를 만들어 건립한 것이며, 獨茂齋 옆에는 景德祠를 지어 매년 3월 上丁日에 각지의 유림들이 모여 春享을 지내던 것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본래 現 孝睦洞 京釜線 鐵路邊에 있던 獨茂齋는 1967年 道路의 改設로 인하여 1968년 4월 現 位置로 移建하였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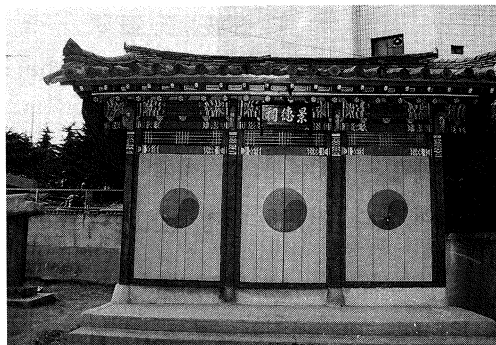
건 하면서 獨茂齋의 서쪽에 景德祠와 藏板閣을 신축하였으며, 藏板閣에는 지금도 《八禮節要》와 《悅菴文集》의 板刻이 保管되어 있다.

獨茂齋 내에는 장방형 대지에 祠堂인 景德祠와 재실인 獨茂齋가 남동향하여 병렬로 배치되어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獨茂齋가 있고 그 좌측 뒤로 별도의 담장안에 景德祠가 자리잡고 있다. 독무재는 정면 3칸·측면 1.5칸의 규모로 중앙에 마루를 두고, 그 좌우에 2칸 통칸의 온돌방을 대칭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건물 앞쪽에는 반칸 폭의 前退를 시설하였다.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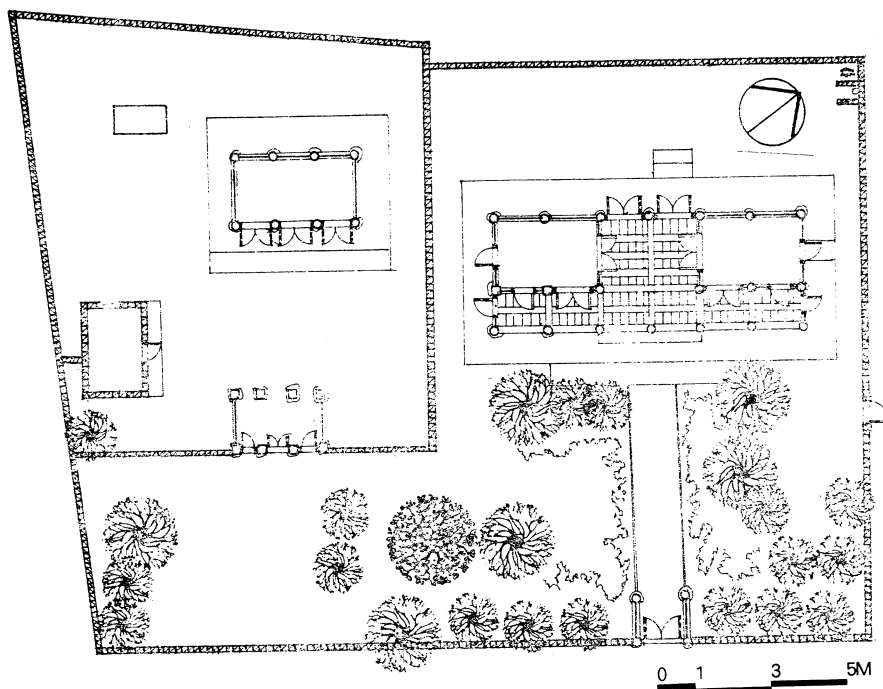
무재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낮은 기단 위에 원형기둥을 세운 간략한 3樑架의 2익공집으로, 대들보 위에 제형 판대공을 놓고 마루 도리를 받게 했다. 기둥 위에 짜 맞춘 익공은 매우 장식적인 촛가지 모습을 하고 있다. 독무재 지붕은 흘처마의 맞배지붕으로 좌우에 風板을 달았다.



〈사진 9-43〉 독무재 대청 상부가구



〈사진 9-44〉 독무재 안의 경덕사 모습



〈圖 9-17〉

독무재 배치 평면도

景德祠는 3칸 규모의 內三門을 통해 출입하며, 경덕사 좌측에는 祭器庫가 배치되어 있다. 경덕사는 丹青한 정면 3칸·측면 1칸의 2익공 건물로, 매칸마다 노란색 바탕에 太極 문양의 두 짝 판문을 달았다. 기둥 위의 익공은 鳳頭形¹³⁵⁾으로 되어 있다. 지붕은 홑처마에 맞배지붕이다.

(12) 達城徐氏 齋室

達城徐氏 齋室은 달서구 파산동 259번지에 위치하며, 達城 徐氏 樂齋公 徐思遠의 墓所 관리를 위해 1860년 경에 지은 것이다.

이 재실은 100여평의 대지에 4칸(12평) 규모로 지은 南向한 기와집으로,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건물은 대청 1칸, 방 2칸, 부엌 1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13) 月岩齋室

月岩 齋室은 달서구 월암동 681번지에 있는 조선 후기의 재실로 參奉 崔聖禧, 林川郡守 趙得道, 參奉 李彥祥 등이 순조 30년(1830)에 건립한 것이다. 齋室內에 遺墟碑가 존재한다.

이 재실은 192평 규모의 대지에 정침과 사당의 木造 瓦家 2棟이 南向으로 배치되어 있다. 재실내 두 건물의 규모는 정침 4칸(9평), 사당 1칸(2평)이다. 담장은 흙과 돌을 섞어 쌓았다.

(14) 德山齋

德山齋는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牙山人 德峯 蔣自元을 위한 寓墓所이다. 蔣自元은 監察 芋의 子로서, 朝鮮 成宗朝에 司馬에 올라 萬城參軍에 이르렀다. 일찍이 德行과 孝行으로 士林들의 推仰을 받았으며, 佔畢齋 金宗直과 道義의 교류가 있었다.

재실 重修記에 의하면 德山齋는 영조 17년(1740)에 海鵬公이 宗族의 書堂으로 曲溪精舍라 편액 하였다가 그후 內串洞 俗稱 ‘서당골’로 이건 하여 부모 없이는 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孝心을 가지고 학문에 정진하여 가문의 전통을 세우라는 뜻에서 履露齋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지금의 德山齋라 편액한 것은 고종 7년(1870) 灝復公이 內串으로 移建하고 나서부터 라고 한다. 1917년에 현 위치로 다시 이건 하였으며, 1978년 한 차례의 중수가 있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이다.

(15) 臥龍菴

臥龍菴은 조선 후기 영조 元年(1725)에 초창되고, 同王 27년(1751)에 중건된 건물로 동구

135) 한식 나무구조의 기둥머리에 짜여지는 것으로 봉의 머리 모양을 새긴 부재.

평광동 1525번지의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이 건물은 解顔縣(현재의 동촌) 입석리에 누대로 세거해온 영양인 南命新(1698~1772)이 창건했다.

南命新은 인재 양성에 힘써 김청정·권정침·조선유·장위방 등 많은 문인들을 배출하였다. 그는 또한 뛰어난 효자로 생존시나 돌아가신 뒤에도 극진한 효성을 다하여 향토 사람들 및 상국 이성중과 御使 한광휘로부터 ‘出天之孝’라 하여 포상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동구 둔산동 186번지에 旌孝閣을 세워 보존해 오고 있다.



(사진 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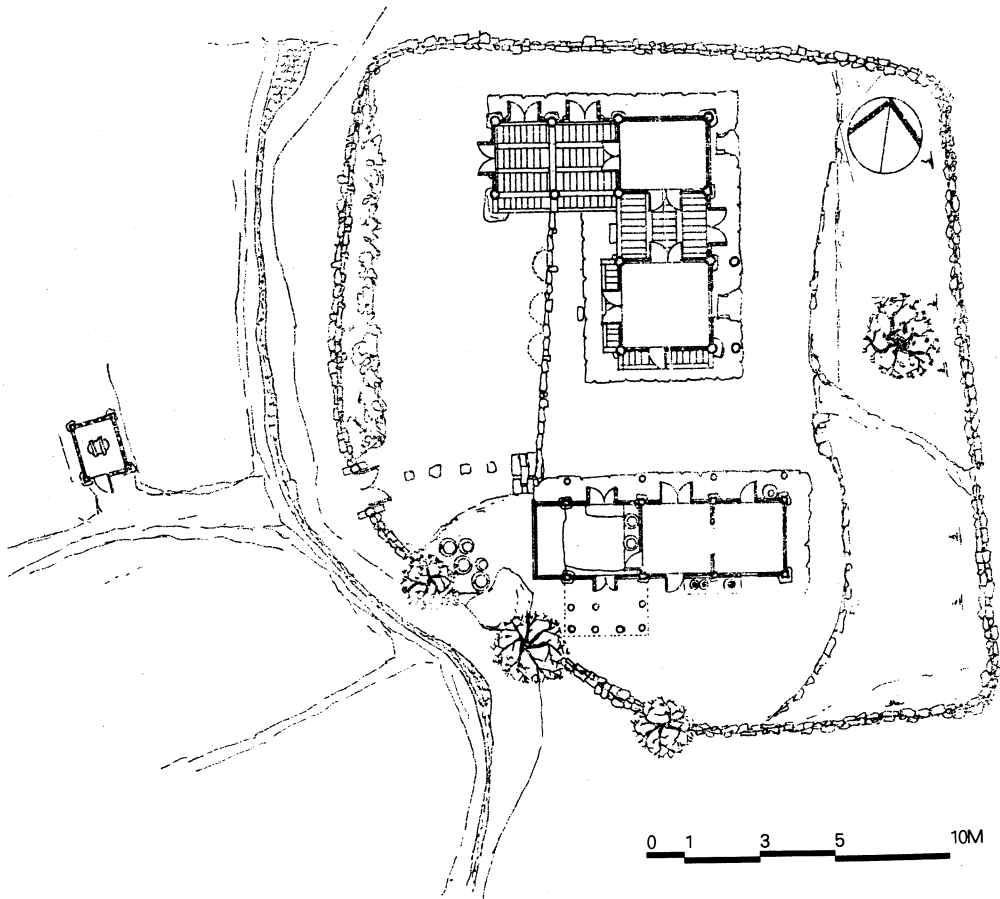
와룡암 전경

한편 그의 長子 남석노는 白弗巖 崔興遠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그는 영조 29년(1753) 대과에 급제하여 예조좌랑 겸 춘추관 서기관 및 만경현령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臥龍巖은 書室 및 齋室로 사용되었는데, 주로 書室은 강습의 공간이었으며 齋室은 사방에서 온 文士들이 기거하는 공간이었다. 이 건물은 중건된후 南命新의 曾孫 衡駟 등에 의해 중수되었으며, 지금은 와룡암과 부속 건물 1동만 보존되고 있다. 원래 와룡암 주변에는 민가 2동과 사찰 1동이 있었으나 개발 제한구역 정화 사업으로 모두 철거되었다.

와룡암은 산 경사지를 정지한 대지에 ㄱ字形의 亭子와 一字形의 관리사를 지어 ㄱ자형을 이룬다. 와룡암의 정자는 정면 3칸·측면 3칸의 ㄱ자형으로, 온돌방·마루·온돌방으로 구성된 몸채부분의 맨 좌측에서 누마루 2칸이 앞쪽으로 달려나와 ㄱ자형을 이룬다. 익사 부분에 누마루가 배치된 것이다. 누마루 하부는 창고 등의 수장 공간으로 쓰도록 하였다. 구조는 먼저 막돌 허튼층 쌓기한 축대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기단을 만들었다.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원주를 세워 3樑架의 架構를 꾸몄다. 지붕은 홀처마에 팔작지붕이다.

전반적으로 별다른 건축적 특징이 없으며, 보존 및 관리 상태도 좋은 편이 아니다. 관리사는 정면 3칸·측면 1칸의 스테이트 건물로 매우 조잡하다. 이 건물은 본래 木造 瓦家였던 것을 근년에 지금과 같이 고친 것으로 보인다.



〈圖 9-18〉

와룡암 배치 평면도

2) 20세기 以後의 齋室建築

(1) 表忠齋(申崇謙 將軍 遺蹟)

후삼국 시대 왕건과 견훤이 공산 숲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인 公山戰鬪는 대구지역을 무대로 한 큰 전투의 하나였다. 이 전투에서 장렬하게 숨진 고려 명장 申崇謙의 충절은 갖가지 뒷 얘기를 남기면서 주민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었으며, 특히 忠과 孝를 최고의 가치로 삼기던 당시 사람들에게 그는 忠의 귀감처럼 보였다.

동구 지묘동 526번지에 있는 表忠齋·表忠壇·忠烈碑·‘高麗太師壯節申公影閣遺墟碑’는 공산 전투의 주인공이라 할 신승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들로 지금 지방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 신승겸의 戰死地인 이곳에 지묘사를 세워 그의 靈을 모셔 왔으나 고

려말 나라가 어수선 해지자 開國功臣을 모셨던 지묘사나 미리사는 관심이 줄어 廢寺가 되고 말았다.



〈사진 9-46〉 표충재 정면

고 그 좌우에 東·西齋가 마주 보고 배치되어 튼 口字形을 이룬다. 그리고 표충재 우측에는 별도의 담장을 쌓은 方正한 일곽에는 ‘忠烈碑’ 碑閣이 자리잡고 있다.

표충재는 남향한 정면 4칸·측면 1칸반의 건물로, 평면은 중앙에 2×1.5칸의 대청을 두고, 좌우에 각 1칸의 온돌방을 꾸민 ‘中堂夾室形’이다. 건물 前後面에는 반칸 폭의 퇴칸을 두고 마루와 벽장을 시설하였다. 구조는 막돌 네 벌대 기단 위에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전

면 기둥 5柱만 두리기둥이고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둥이다. 지붕틀은 대들보 위에 짧은 동자주를 놓아 종보를 받고, 그 위는 제형 판대공으로 마루도리를 받는 일반적인 수법이다. 지붕은 흘처마에 맞배지붕으로 좌우 양끝에 풍판¹³⁶⁾을 달았다.

東齋는 정면 3칸·측면 1칸반으로 각 1칸과 2칸의 온돌방을 두었으며, 방 앞에 전퇴를 두고 마루를 깔았다. 西齋는 정면 5칸·측면 1칸으로, 중앙에 온돌방 2칸을 두고 좌우에 각각 부엌과 祭器庫가 연결된다. 그리고 온돌방 앞에만 툇마루를 시설하여 출입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후 경상도 관찰사로 신승겸의 후손인 申耆가 취임하게 되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되고 순조 32년(1832) 승정원 도승지로 있던 申正緯가 碑文을 撰하여 ‘影閣遺墟碑’를 세우게 하고 헌종 14년(1848) 12월 儒林에서 碑를 보존하기 위하여 碑閣을 세운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경역 남쪽 담장 중앙에 난 外三門 정면에 표충재가 자리잡고, 표충재 앞 중정을 사이에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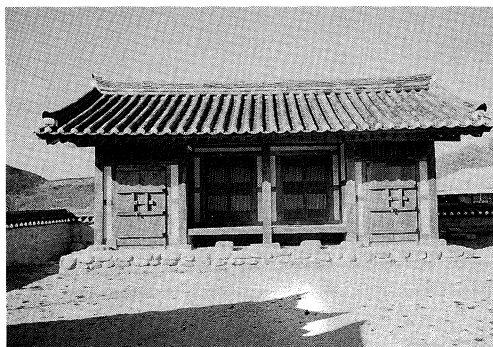


〈사진 9-47〉 표충재 대청 상부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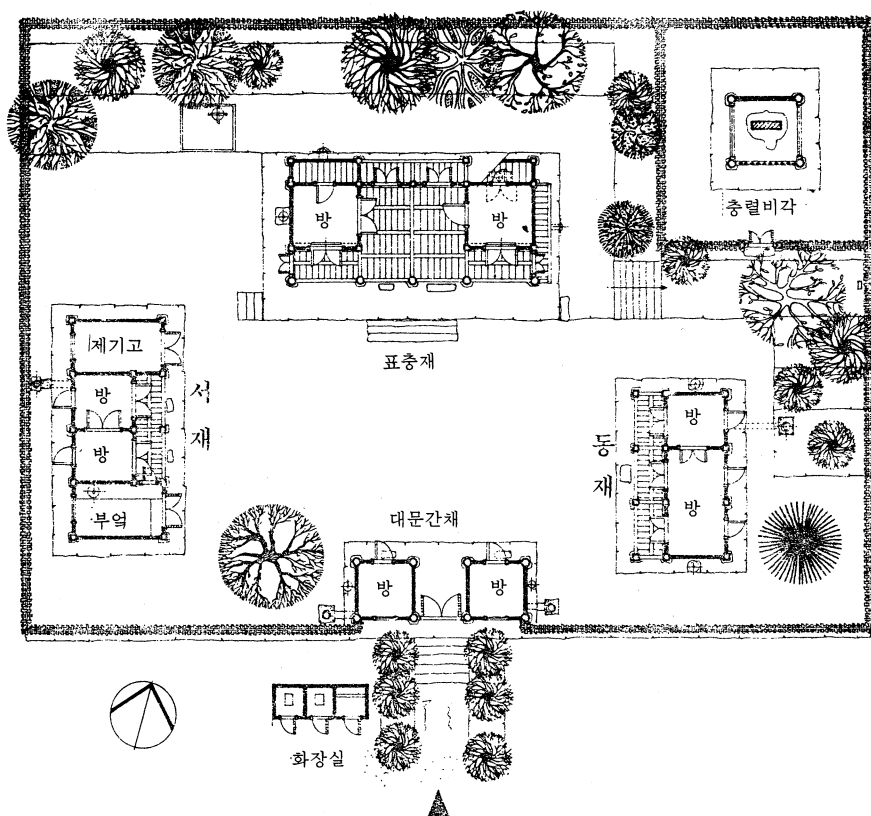
136) 풍우를 막기위해 박공벽 합각벽을 가리어 박공널 밑 바로 안쪽에 널판장처럼 댄 널.

이 건물의 부엌과 祭器庫에는 관문을 달아 놓았다. 두 건물 모두 간단한 3樑架로 낮은 막돌 기단 위에 초석을 놓고 네모 기둥을 세워 대들보를 받았다. 대들보 위에는 키 큰 동자주를 놓아 마루도리를 받게하였다. 지붕은 흘처마에 맞배지붕이다.

外三門¹³⁷⁾은 정면 3칸·측면 1칸의 소슬삼문으로, 중앙칸에 대문을 내고 좌우에 각각 문간방을 두었다. 구조는 일반적인 수법의 간단한 3樑架의 맞배지붕이다.



〈사진 9-48〉 표충재 서재 정면



〈圖 9-19〉

표충재 배치 평면도

137) 바깥담이나 경역의 바깥쪽에 3칸으로 지은 대문.

표충재는 근년에 시행된 대대적인 보수 정화 공사로 깨끗하게 새로 단장되면서 古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각 건축물의 建築史的 가치는 별로 없다. 전반적으로 새로 중건한 느낌이 강하다.

(2) 慕明齋

慕明齋는 수성구 만촌동 716번지에 있는 재실로 壬辰倭亂 때 우리 나라에 援兵을 왔던 明나라 將帥 杜師忠이 歸化한 후 그의 후손들이 1912년에 세운 것이다.

杜師忠의 號는 慕明으로 중국의 杜陵이 고향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12월 명나라 提督이던 李如松 등과 함께 援兵을 와서, 주위의 지형을 살펴서 진지에 적합한 장소를 만들도록 터를 잡아 주는 임무인 水陸地劃 主事를 맡았다. 따라서 그는 李如松의 一級 참모로서 항상 軍陣을 펴는데 조언을 했고, 조선과의 합동작전을 할 때는 조선군과도 戰略 戰術上의 긴밀한 협의를 가져왔다. 丁酉再亂 때 두 아들과 함께 원병을 와서 공을 세웠는데 亂이 평정되고 난 후, 조선에 歸化하였다.

조선에 歸化한 杜師忠은 대구에 정착하면서 현재의 中央公園 一帶를 하사 받았는데, 慶尙道 監營을 대구로 옮기자 그 땅을 내어놓고 현재의 桂山洞 일대로 杜氏들의 世居地로 옮겼다.

그러나 중국에 두고 온 부인과 형제들이 생각나 最頂山(現 大德山) 밑으로 주거지를 옮겨 明나라를 생각한다는 뜻에서 동네 이름을 大明洞이라 붙이고 壇을 쌓아 매일 초하루가 되면 관복을 입고 故國의 天子를 향해 拜禮를 올렸다고 한다. 그의 死後 자손들은 杜師忠의 유언에 따라 兄弟峰 기슭에다 묘소를 쓰게 되었다.



〈사진 9-49〉

모명재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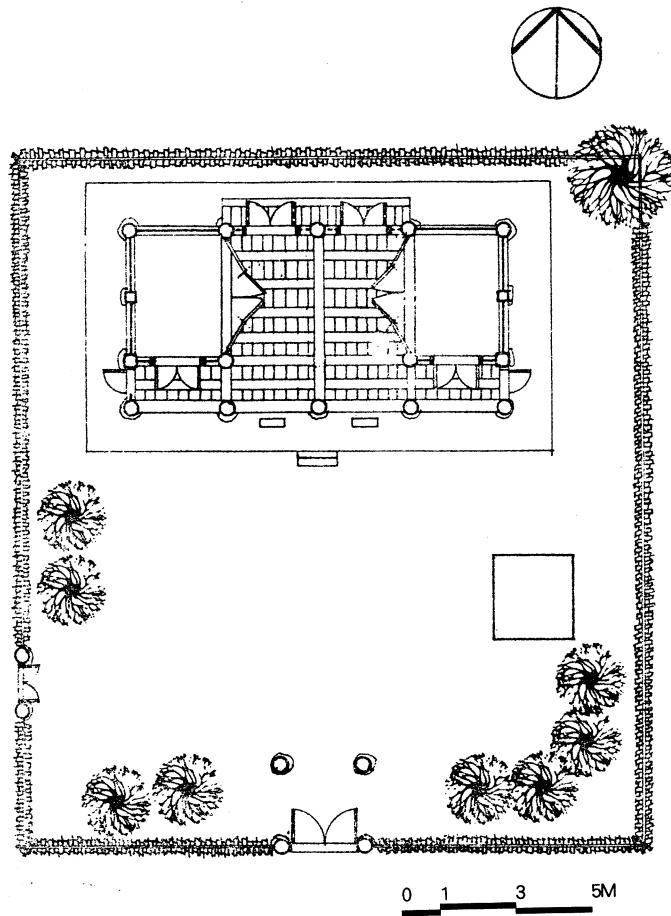


〈사진 9-50〉

모명재 정면

현재의 慕明齋는 1912년 慶山 客舍가 헐리자 그 材木을 사와 杜師忠의 묘소 앞에 지은 것인데 1966년 2월 건물이 너무 낡아 중수하였다. 慕明齋라고 한 것은 고국인 明나라를 思慕한다는 뜻이고 대문에 달려 있는 萬東門 역시 ‘百川流水必之東’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인데, 이

것 또한 그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杜師忠의 묘소 앞에 있는 비문을 별도로 다시 새겨 慕明齋 앞뜰에 神道碑를 세웠다. 이 碑文은 李舜臣 將軍의 7代孫인 三南 水軍統制使 李仁秀가 지었는데, 壬亂 당시 李舜臣과 杜師忠의 친밀한 관계가 후손들에게 까지 접촉을 갖게 했음을 알 수 있다.



〈圖 9-20〉

모명재 배치 평면도

慕明齋는 네모 반듯한 대지에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대문을 통해 들어가면 앞쪽에 모명재가 위치하는데, 정면 4칸·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 기와집이다. 평면은 어칸의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들였으며, 앞쪽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다. 건물 정면의 여모

중방¹³⁸⁾ 밑은 붉은 벽돌을 쌓아 막았다. 架構는 5樑架의 견실한 구조로 종보 위에는 圓形 板臺工을 세웠으며 앞쪽의 창방¹³⁹⁾과 장혀¹⁴⁰⁾사이에는 화반¹⁴¹⁾을 끼워 장식하였다. 20세기초 대구 지역 재실 건축의 형식을 잘 보여준다

(3) 達城 徐氏 齋室

이 재실은 수성구 개천동 406에 자리잡고 있는 達城 徐氏 재실로 1900년에 건립된 것이다.

재실에는 대지 270평에 木造瓦家 2棟, 草家 1棟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건물은 몸채가 4.5칸(12평), 행랑이 4칸(8평) 규모의 瓦家이며, 헛간은 草家로서 2칸(4평)이다. 담장은 토담으로 축조되었다.

(4) 淸州 鄭氏 齋室

淸州鄭氏 齋室은 수성구 노변동 184번지에 있는 재실로 1900년에 건립된 것이다. 그후 1973년 4월 16일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이 재실은 대지 230평으로 그 안에 木造 瓦家 4棟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재실내 각 건물은 정침 4칸(10평), 사당 2칸(4평), 대문간 1칸(2평) 규모이다. 담장은 시멘트 블록으로 쌓았다.

(5) 遠慕齋

遠慕齋는 동구 숙천 2동 123번지에 있는 齋室로 達城 徐氏 東阜 徐思選의 墓所 관리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지은 것이다. 이 齋室은 80 여평의 대지에 방 2칸, 대청 2칸으로 되어 있고, 담장은 토담으로 축조하였다.

(6) 烏山齋와 影幀閣

烏山齋와 影幀閣은 대구직할시 동구 숙천동 24번지에 있다. 安東 金拓庵의 門人이었던 裴鳳祥이 고종 황제가 승하했을 때 排日精神을 드높이며 슬피운 뜻을 기려 그 후손이 건립하였다. 또 齋室의 우측 옆에는 米軒先生의 位牌를 모신 影幀閣이 있다.

이 齋室은 1919년에 건립한 東南向의 木造 瓦家로서, 대지 내에는 정침·사당·헛간·대문간 등 4동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각 건물 규모는 정침 5칸(10평), 사당 3칸 (10평), 헛간 1칸 (2평), 대문간 1칸 규모이다. 현재의 재실 담장은 시멘트 블록으로 축조되어 있다.

138) 대청앞 마룻바닥에 가로지른 인방.

139) 목조건물의 기둥 위에 가로 건너질러 연결하고 평방 또는 화반, 소로 등을 받는 가로재.

140) 도리를 바치는 긴 나무.

141) 창방 위 중간에 엮어서 주심도리 밑 장여를 받는 초새김한 받침.

(7) 瞻慕齋

瞻慕齋는 대구직할시 동구 지묘동 산 7번지에 있으며, 이 건물은 1917년에 慶州 崔氏 門中에서 생원 茶川公을 奉享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이 재실은 대지 80평에 南向으로 지은 팔작지붕의 목조 와가이다. 건물은 3칸(8.5평) 규모로 대청과 2개의 방이 있으며, 담장은 시멘트 블록으로 쌓았다.

(8) 永安齋

永安齋는 대구직할시 동구 백안동 183번지에 있다. 이 건물은 1937년 金在烈, 金鳳國, 金善佑 등 3인이 건립한 門中 齋室이다.

이 재실은 대지 152평에 정침과 사랑채로 사용되는 2동의 木造 瓦家가 배치되어 있다. 각 건물은 정침이 3칸(6평), 사랑채가 3칸(5평)의 규모이다. 담장은 土石으로 쌓았다.

(9) 遠慕齋

遠慕齋는 대구직할시 동구 봉무동 114-2번지에 있는 재실이다. 獨坐부락에 언제 세워졌는지 알 수 없는 ‘南某遺愛閣’이라는 碑閣이 있었는데, 약 60年前 동화사로 가는 길이 나면서 험리게 되자, 현 재목을 아깝게 생각한 慶州 崔氏 門中에서 현존하는 위치로 옮기면서 방을 넣는 등 구조를 바꾸고 “멀리 생각한다”고 하여 遠慕亭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한다. 현판은 안동 부사를 지낸 金嘉鎭의 글씨이다.

(10) 永慕齋

永慕齋는 대구직할시 동구 범물동 688번지에 있는 密陽 朴氏 齋室로서 朴宗永, 魯永, 獻永, 裕永씨 등이 약 70~80년 전에 건립하였으며, 약 30년전에 朴秀異씨 등이 중수하였다. 1년에 한 번씩 모여 비용을 염출하여 유지해 오고 있으며, 수년 전에도 부분적으로 보수하였다고 한다.

건물은 두 단의 기단 위에 건축되었는데, 前面 기둥은 두리기둥이긴 하나 비교적 가는편(15cm)이다. 지붕은 홑처마에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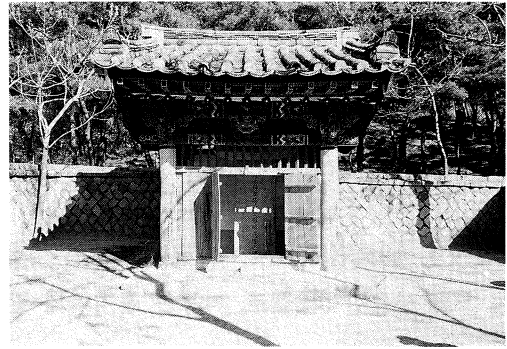
(11) 慕影齋(申崇謙 遺墟碑閣)

이 遺墟碑는 고려 태조 10년(927) 후백제 견훤과의 公山 전투에서 戰死한 고려의 명장 申崇謙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遺墟碑로서 동구 평광동 108번지에 있다. 원래 碑는 없어지고 순조 32년(1832) 후손 申正緯가 세운 ‘影閣 遺墟碑’가 남아 있다. 그후 현종 14년(1848) 儒林에서 이 碑를 보존하기 위해 碑閣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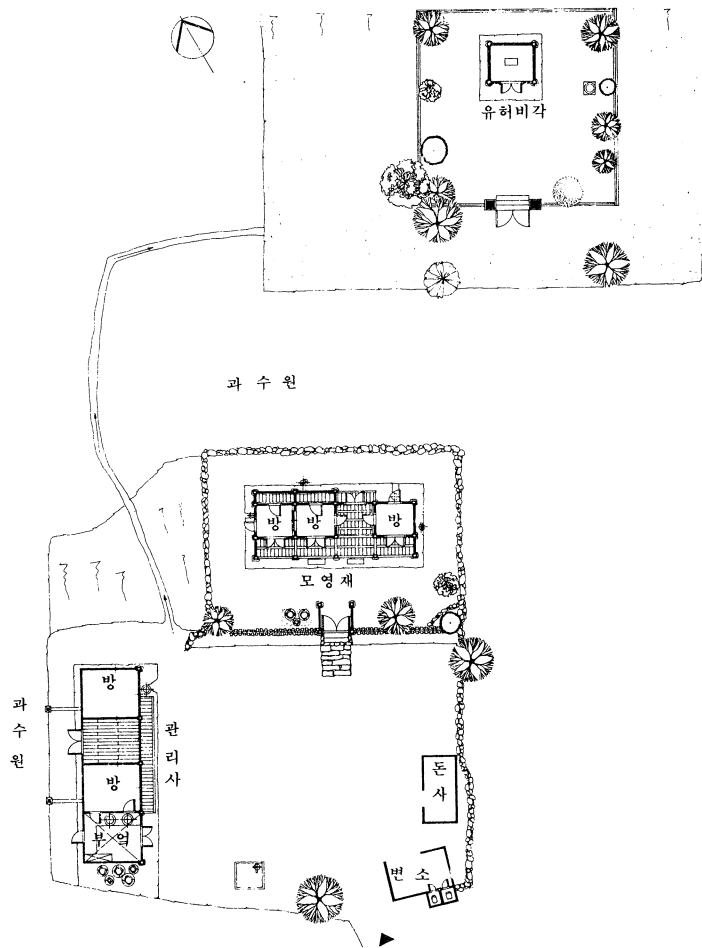
매년 음력 9월 9일 重陽節에 申氏 門中에서 합동으로 享祀를 지내고 있으며, 碑閣 밑에 慕影齋가 있다.



〈사진 9-51〉 모영재 전경



〈사진 9-52〉 모영재 내 유허비각



〈圖 9-21〉

모영재 배치 평면도

(12) 追報齋

追報齋는 대구직할시 동구 도동 400번지에 있는 齋室이다. 一直 孫氏 19세손 洪胃氏의 묘를 비롯하여 누대에 걸쳐서 墓를 써 오고 있으나 손자들이 묘 밑에 살면서도 제사를 지내지 않다가, 정성이 미흡하다 하여 孫丙坤등의 후손들이 힘을 합하여 1932년경에 건립한 것이라고 한다.

記文은 1934년에 썼으며, ‘追遠報本’의 뜻을 받아 追報齋라 하였다. 건물의 구조는 전부 角柱¹⁴²⁾를 사용한 5樑架로, 지붕은 흘처마의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13) 慕源齋

慕源齋는 대구직할시 동구 둔산동 663번지에 있는 齋室로 南陽 洪氏 松隱 國溫과 그의子 晚休堂 纘元을 祭享하기 위하여 1929년에 건립한 것이다.

松隱公의 관직은 ‘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에 이르렀고, 그의 아들 晚休堂은 司憲府 持平이었다 한다.

재실은 막돌 쌓기한 0.5미터 높이의 기단 위에 막돌로 된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받았다. 마루는 우물 마루로 되어 있으며, 방 앞에는 마루보다 한 단 높은 툇마루가 놓여 있다.

건물 구조는 3樑架로 네모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걸친 위에 梯形 판대공으로 마루 도리를 받게 했으며, 지붕은 흘처마 맞배지붕이다.

(14) 月泉齋

月泉齋는 대구직할시 동구 부동 482번지에 위치한다. 이 재실은 약 70 여년 전에 건립한 것으로, 소유자 柳炳台씨의 宗中 齋室이다. 月泉齋는 대지 173평으로 그 안에 재실 4칸(8평), 대문간 1칸(0.5평) 규모의 瓦家가 동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문은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15) 瞻松齋

瞻松齋는 대구직할시 동구 둔산동 2번지에 있다. 전해 오는 얘기에 의하면, 杜門洞 72賢 中の 한 사람인 多義堂 蔡貞義公이 아들 少監公에게 고향에 돌아가서 조상을 받들게 한 후 累代에 걸쳐 靑臣 碩德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그들의 墓가 대구 동쪽 松台山 밑에 놓여져 있어 始祖 仁川君을 비롯하여 이들 조상을 추모하고 제사지내기 위하여 齋室을 지었으나, 그 건립 연대는 불분명하고 현존 건물은 1927년에 증건한 것이다.

건물의 구조는 3樑架에 흘처마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142) 단면 형태가 네모인 기둥.

(16) 遠感齋

遠感齋는 義政府 參贊을 지낸 李山明을 모신 慶州 李氏의 齋室로 1915년에 건립하였다. 이 건물은 현재 대구직할시 동구 송정동 628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이 齋室에는 대지 150평에 2동의 木造 瓦家가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각 건물은 정침 2칸(6.3평), 대문간 1칸(3평)의 규모이다. 대지내 後園이 갖추어져 있고, 담장은 土石을 섞어 축조하였다.

(17) 永慕齋

永慕齋는 북구 노곡동 376번지에 있는 재실로 高麗末 益齋先生의 9世孫 慶州 李氏 默窩公 李厚楠을 위하여 그의 8世孫 李吉이 주동이 되어 건립하였다 하나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淸石洞에 있는 墓의 비석은 약 300年 前에 세웠다고 한다. 현존하는 건물은 1917년에 증건한 것이다.

재실의 구조는 팔작지붕에 홀처마이고, 건물 前面에는 두리기둥을 사용하였으며, 마루는 우물마루이다. 기단은 0.5미터 높이로 쌓고 모르타르로 마감했다.

(18) 瞻慕齋

瞻慕齋는 수성구 황금동 258번지에 있는 재실로 朝鮮 初期의 文臣으로 절개를 지켰던 南隱 徐涉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이다.

徐涉은 達城 徐氏 判書公派의 派祖로 世宗때 大科에 及第, 文宗을 거쳐 端宗때에 이르러 資憲大夫 吏曹判書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는 端宗에게 상소를 올려 간신을 멀리하고 집현전 학자들을 가까이할 것을 권유하고 國政 전반의 개혁을 주장하다가 오히려 유배를 당하기도 했다. 그후 首陽大君이 端宗의 왕위를 篡奪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號를 南涯에서 南隱으로 바꾸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은둔 생활을 했다.

영조 22년(1746) 12월 金宗瑞 등과 死六臣에 대한 復官이 허용될 때 빠져버리게 되어 그의 行蹟에 대해서는 후손들이 모르고 있었다. 60여년 전 그가 살던 남은 가옥을 헐다가 천장에서 밀봉된 硃帙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그의 行狀을 적은 記錄과 遺稿가 대량으로 들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늦게나마 徐涉의 충절을 알게 된 손자들과 儒林에서 1926년 3월 그의 묘소가 있는 黃金洞에 瞻慕齋를 건립하게 되었으며, 1954년 8월 重修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지의 儒林에서 서원을 세워 享祀를 하고 있는데, 全北 茂朱의 汾陽書院에서는 秋享을, 慶北 迎日의 中陽書院에서는 春享을 지내고 있다.

(19) 瞻慕齋

瞻慕齋는 수성구 삼덕 2동에 있는 재실로 慶州人 李華玉·李炳鎬 父子를 추모하기 위하여 1934년 10월에 후손들이 건립하였다. 이 재실은 三岡精舍의 바로 옆에 있는 정면 4칸·측면 1칸의 건물이다. 정면의 편액은 晦山 朴基敦이 썼다.

(20) 城山齋

城山齋는 수성구 성동에 있는 재실이다. 이 城山齋는 仁川人 達西齋 蔡先修를 위한 寓墓所로 약 60년 전에 지은 건물로 현재 편액은 남아 있다. 재실은 정면 4칸·측면 2칸의 홀처마 팔작지붕의 건물이다.

(21) 龍康齋

龍康齋는 수성구 범물동 688번지에 있는 재실로 1905년경 密陽 朴氏 門中에서 건축하였으며, 현재 宗親會 재실로 사용하고 있다.

재실은 대지 80평에 몸채와 헛간을 東向으로 배치하여 구성하였다. 몸채는 3칸(9평) 규모의 瓦家이며, 헛간은 2칸(3평)의 草家이다. 이 재실은 흔히 볼 수 있는 근세(20세기 초) 가옥의 형태이다.

(22) 慶州 崔氏 齋室

이 재실은 1920년에 慶州 崔氏 梅永公 崔孝烈을 모시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현재 달서구 대곡동 54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그 후 1969년에 재실 뒤에 大谷影閣을 짓고 崔致遠의 影幀을 봉안하였다.

재실은 238평의 대지에 24.4평 규모의 木造 瓦家を 西向으로 배치하였다. 각 건물의 규모는 정침 6칸(12.4평), 곳간 3칸(6평), 대문간 2칸(6평)이다. 담장은 막돌로 축조하였다.

(23) 蘇谷齋(陟瞻齋)

蘇谷齋는 대구직할시 동구 둔산동 2번지에 있는 재실로 약 40여년전 仁川 李氏들이 건립하였다.

몇해전에 지금의 소유자인 金氏에게 매각하였으며, 그 후 蘇谷齋라고 이름을 바꾸었지만 지금도 현판은 陟瞻齋라고 붙어 있다.

건물은 높이 2미터 정도의 견치석¹⁴³⁾ 기단 위에 자리잡고 있는데, 기둥은 전부 角柱¹⁴⁴⁾만 사용했다. 구조는 간략한 3樑架의 홀처마 팔작지붕으로 대청 여모중방¹⁴⁵⁾ 밑은 붉은 벽돌로 쌓아

143) 채석장에서 네모뿔형으로 만든 석축에 쓰이는 돌.

144) 단면형태가 네모인 기둥.

145) 대청앞 마룻바닥에 가로지른 인방.

막았다. 정면 퇴칸 및 대청에는 亞字窓을 달았다.

(24) 永思齋

永思齋는 대구직할시 동구 동내동 101번지에 위치하며, 1948년 長水 黃氏 一門에서 先祖 勉窩 黃慶霖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것이다.

勉窩公은 彪村 喜의 후손이며, 判尹 赫禎의 증손이다. 임진왜란때 의병을 일으켜 花山 權應銖를 도와 永川城을 회복하고, 忘憂堂 郭再佑를 따라 火旺山城을 지키다가 임진왜란 후 勝芳谷에 은거하였다. 그 뒤 순조때 東湖祠에 奉祀되었다.

이 齋室의 正門 편액은 履露門이라 되어 있으며, 재실은 정면 5칸·측면 2칸의 홑처마 맞배 지붕 건물로 가운데 2칸 규모의 대청이 있다.

齋室內에는 《勉窩實記》의 木板 板刻 10本이 보관되어 있다.

(25) 素岩齋

素岩齋는 수성구 旭水洞에 위치하는 재실로 碧珍人 春瑞 李延域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건립한 墓所齋이다.

(26) 率一齋

率一齋는 수성구 시지동 102번지에 위치하는 재실이다. 현재 壽城區 시지동의 한우 로얄 아파트 바로 뒤편에 있는 率一齋는 정면 3칸·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서 密陽人 大司憲 朴咳의 寓墓所이다.

朴咳는 密直府院君 中美의 次子로서, 高麗朝에 文科에 올라 司憲府 大司憲을 역임하고 國事가 소란하여 淸州에 은거하였다가 孤山面 新梅洞(現 壽城區 新梅洞)에 移居하였다고 한다.

(27) 敬慕齋

敬慕齋는 대구직할시 동구 매여동 鷹容에 있다. 이 齋室은 星州人 默翁 裴爾仁을 위한 寓慕所이다. 裴爾仁의 字는 始孝이고 號는 默翁이다. 書岩 德文의 5세손으로서 효성이 지극하여 나라에서 旌閭가 내려졌으며, 예조판서에 贈職되었다.

(28) 神峰齋

神峰齋는 동구 사북동에 위치한 齋室로 慶州人 悅齋 李飛漢을 추모키 위해 건립한 것이다. 李飛漢의 字는 翼成, 號는 悅齋로서 영조때 진사에 올랐으며, 文名이 높았다. 현재 遺稿가 전한다.

(29) 慕先齋

慕先齋는 대구직할시 동구 상매동의 綾泉山에 있다. 文化人 主簿 柳泳湖의 墓祭를 위한 齋

室이다. 유영호의 자는 元瑞, 호는 浦上으로 호조판서 英繼의 8세손으로 主簿에 이르렀다.

(30) 履露齋

履露齋는 대구시 동구 내곡동 如佛谷에 있는 齋室로 星州人 槐庵 裴尙藻의 墓祭를 위한 齋室이다.

裴尙藻는 禮賓寺와 宰仁川의 관직을 역임하고 이조판서에 贈職되었다. 처음 성주로부터 河陽에 우거하였고 다시 安心面 大林洞에 移居한 후 자손이 世居하였다

(31) 陟降齋

陟降齋는 대구시 동구 용계동 88에 있는 木造 瓦家 齋室로 현 소유자 李宇烈의 4대조인 李永浩의 묘소 관리를 위해 지은 것이다.

재실은 대지 342평에 동남향으로 지어진 4동의 건물로 이루어졌다. 각 건물의 규모는 정침이 6칸(12평), 창고가 1칸 (7평), 사당이 4칸 (10평), 대문간이 1칸 (09.4평)의 규모이다.

담장은 토담으로 되어 있다.

V. 佛教建築

우리 나라에 불교가 최초로 전래된 것은 삼국 시대인 4세기말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이었다. 그후 三國은 高句麗·百濟·新羅 순으로 불교를 받아 들였으며, 불교의 전래와 수용 이후 불교 건축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5년(373)으로, 이때 肖門寺와 伊弗蘭寺가 세워졌다. 뒤이어 백제와 신라도 불교를 받아 들이고 수많은 사찰을 조영하였으며,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오면 불교 건축은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통일신라시대의 佛寺伽藍은 신라 초기의 平地 單塔式 伽藍에서 차츰 구릉 2塔式과 山地伽藍으로 위치를 바꾸게 되는데, 이는 당시 성행하였던 禪宗의 영향에 다른 것이었다.

고려왕조에서는 개국 이래로 수도인 개성을 중심으로 많은 사찰을 건립하였다. 고려 시대에 건립된 사찰은 백제의 전형적인 가람 배치인 一塔式 伽藍과 통일신라 시대에 나타나는 雙塔式 伽藍配置로 된 가람을 중심으로 삼고, 그 좌우에 또 다른 伽藍을 배치하는 복합적인 伽藍配置로 된 사찰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寺刹建築은 개국과 더불어 崇儒抑佛정책을 국시로 한 만큼 불교를 國敎로 하였던 고려 시대보다는 상당히 위축되었다. 조선 초기인 태종 6년(1406)에는 고려 중기 이후 五敎兩宗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12宗, 다음해에는 7宗, 다시 세종 6년(1424)에는 禪宗과 敎宗의

2宗으로 축소시켰고, 漢城내의 寺刹은 철거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사찰건축이 전혀 조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太祖는 康妃 승하로 興天寺를 창건하였고, 태종 때에는 聞慶寺, 衍慶寺를 그리고 세조 때에는 龍門寺가 창건되기도 하였다. 또 僧科의 폐지 등 出家 금지로 인하여 佛教의 탄압이 심하면서도 기존 사찰 내의 많은 殿閣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重創, 重修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시대의 伽藍配置는 고려시대까지 성행하였던 1金堂 1塔式 伽藍, 1金堂 雙塔式伽藍, 平地 伽藍과 山地 伽藍의 제 양식들이 계승되었으며, 특히 불교의 탄압으로 山地 伽藍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조선 시대에 중창된 鳳恩寺, 淸平寺 등을 보아 조선 시대 가람은 대개 어떤 중심축을 설정하여, 좌우 대칭되는 배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地勢에 따라 자유롭게 대웅전 마당 멀리 一柱門을 세우고, 다음 天王門을 세운다.

天王門을 지나 얼마간 올라가면 樓門이 나오고, 樓門 밑의 계단을 통해 축대 위의 大雄殿 마당에 이른다. 大雄殿의 양쪽에는 僧房과 尋劍堂이 건축되고, 大雄殿과 조금 떨어진 곳에 山神閣·七星閣등이 건축된다.

조선시대 기존 사찰에 있어, 重創된 전각 또는 새로이 지은 전각들은 전국 사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들은 크게 柱心包建築·多包建築·翼工建築으로 지어졌다.

대구지역은 옛부터 팔공산을 중심으로 많은 사찰이 분포하였으며, 현존 중요 사찰로는 桐華寺·北地藏寺·把溪寺·夫人寺 및 큰 사찰에 속한 암자들이 있다. 이들 사찰 중에서 동화사·북지장사·파계사·부인사는 신라 또는 통일신라 때 그리고 속암들은 대개 임진왜란 이후에 창건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찰이 여러 시대에 걸쳐 중창되면서 창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현재의 전각들은 대부분 임진왜란 병화에 불탄 것을 17세기 이후에 중건한 것들로, 조선 후기 불교 건축의 양식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 사찰은 대부분 樓下 진입 방식의 山地 中庭形 배치를 취하고 있으나, 건립 연대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 때 중창되지 못한 사찰들은 일정한 배치 형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佛殿의 건축 양식은 上壇의 大雄殿·極樂殿 등의 중심 佛殿이 주로 다포건축으로, 中壇의 山神閣·三聖閣·天王門 등이 익공건축 또는 다포건축으로 많이 지어졌다.

1. 현존 전통사찰

1) 桐華寺

동화사는 대구시에서 東北 22km 거리에 있는 팔공산의 남쪽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신라 때

의 古刹로 과거에는 31 大本山의 하나였으며, 지금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 9교구 본寺이다. 이 절이 자리잡고 있는 팔공산은 신라 시대 五岳信仰의 중심지로 中岳·北岳·靈岳 등으로 불리워졌으며, 산의 여러 곳에 佛寺가 세워져 佛國土를 이루었다.

李重煥은 《擇里志》에서 동화사의 창건 緣起와 규모에 대해 “동화사는 신라때 중 眞弘이 지팡이를 공중에 날렸더니, 지팡이가 여기에 떨어지므로 드디어 절을 세워 거주하였다. 지형이 둘러 겹쳤고, 집들이 빙강하며 예로부터 유명한 중과 戒行을 닦는 자가 많았다”라고 했다. 이 같이 동화사는 신라와 고려시대를 통하여 큰 伽藍이었으며, 瑜伽宗에 소속된 사찰로써 瑜伽宗(法相宗) 3대 사찰의 하나로 彌勒佛을 本尊으로 숭봉하였다. 유가종은 중국 13宗과 신라 5教 중의 하나였다. 근본 도량은 金山寺이며 開祖는 경덕왕때 眞表이다. 후에 圓測이 크게 일으켰다.

眞表는 金山寺에 丈六 彌勒佛像을 조성하여 이 宗의 근본도량으로 삼고 그의 제자 永深이 속리산 法住寺에서 그리고 영심의 제자 心地는 팔공산 동화사에서 교법을 홍화하니 이것이 소위 瑜伽宗의 3대 사찰이라 한다.

寺續銘에는 신라 炤知王 15년(493) 極達화상이 창건하여 瑜伽寺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창건 년대가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동화사라고 寺名을 고쳐 부른 것은 신라 흥덕왕 7년(832) 심지왕사가 중건할 때 겨울철인데도 절 주위에 오동나무꽃이 상서롭게 피었다는데서 유래하며 그 후 八創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의 가람 배치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 선조 40년(1606) 松雲대사 四溟堂이 임진왜란으로 불탄 절을 중건한 것이 바탕이 되었고, 그후 숙종 3년(1677)에 7창, 영조 8년(1732)에 冠虛·雲岩·洛濱·晴月 등이 8창 했다고 한다.

이 사찰은 1천 5백년을 자랑하는 古刹이기 때문에 경내에 보물 제 243호인 마애불 좌상, 보물 제248호인 금당 삼층석탑, 보물 제 254호인 당간지주와 대구시 지정 문화재인 大雄殿·極樂殿·須摩提殿 등 문화재가 많다.

동화사에 있었던 전각과 房舍들에 대해 《慶尙道邑誌》〈大丘府〉佛宇條에는 “尋劔堂 仁法堂 降生殿 慈悲堂 明月寮 花雨堂 枕溪寮 等房 古有今無 僧堂上室 藥師殿 觀音殿 斗月寮 水月堂 灌谷堂 西別堂”이라 기록되어 있다.¹⁴⁶⁾ 이 기록을 살펴볼 때 《慶尙道邑誌》가 편찬되던 1832년 당시의 동화사에는 尋劔堂·仁法堂·降生殿·慈悲堂·明月寮·花雨堂·枕溪寮 등의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僧堂上室·藥師殿·觀音殿·斗月寮·水月堂·灌谷堂·西別堂 등의 건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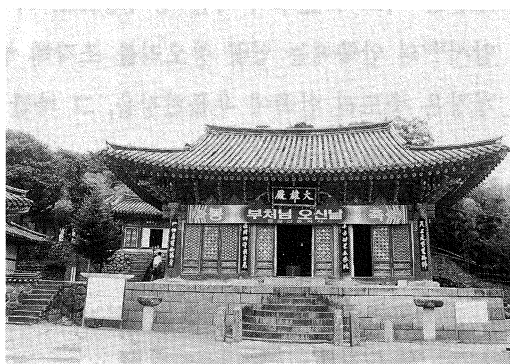
146) 《慶尙道邑誌》，大丘，아세아문화사，1982，pp.22～23.

그 以前에 있었을 뿐 당시에는 이미 남아 있지 않았다.

현재 동화사에는 一柱門인 鳳凰門과 四天王像이 있는 擁護門을 비롯 大雄殿을 중심 殿閣으로 한 구역에 大雄殿·鳳棲樓·尋劍堂·降生院·七星閣·山神閣·天台閣·祖師堂·西別堂·圓音閣·靈山殿·靈山殿 客舍 등이 배치되어 있다. 대웅전 영역에서 조금 떨어진 극락전을 중심으로 한 金堂庵 구역에는 極樂殿·須摩提殿·金堂禪院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 전각들은 전술한 1832년 당시의 동화사에는 없었던 전각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동화사에 속한 주위의 庵子로는 念佛庵·養眞庵·內院庵·浮屠庵·毘盧庵·藥水庵 등이 유명하다.

동화사는 ‘八公山 桐華寺 鳳凰門’이라 편액한 一柱門을 지나 擁護門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있고, 그 앞쪽에 鳳棲樓가 자리잡고 있다. 봉서루 밑의 계단을 오르면 대웅전 앞마당에 이르며, 대웅전 앞마당을 중심으로 좌측에 尋劍堂, 우측에 降生院이 있고, 대웅전 뒷쪽 좌우에는 靈山殿·山神閣·祖師堂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봉서루의 우측으로 난 길을 따라 가면 토담으로 둘러진 또 하나의 건물군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極樂殿·須摩提殿·金堂禪院 등이 자리잡고 있다.

동화사의 가람배치는 중심영역인 大雄殿 일곽과 金堂庵으로 분리워지는 極樂殿 일곽의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창건 당시에는 金堂 영역이 사찰의 중심영역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대웅전 일곽의 배치구조는 山地 中庭式 가람 배치에서 주로 나타나는 두 개의 軸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軸은 옹호문 — 봉서루 —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主軸과 이에 직교하는 副軸으로 구분된다. 대웅전은 主軸上 최종의 殿閣으로 그 뒤에는 다른 전각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주축과 직교하는 부축을 경계로 그 위쪽 좌우에 산신각·조사당·칠성각 등의 예배용 전각들을 배치하였다.



〈사진 9-53〉

동화사 대웅전 정면

극락전 영역은 옹호문 앞마당 우측 길을 따라 극락교를 따라 건너 돌아간 곳에 극락전을 중심전각으로 일곽을 형성하고 있다. 극락전 일곽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쪽으로 난 작은 문으로 진입하여 우측 계단을 오르면 극락전이 있고, 그 동서에 금당 3층 석탑이 있으며 그 윗단에는 수마제전과 스님들이 거처하는 요사채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수마제전 앞

쪽에는 최근에 신축된 금당선원, 그 좌측에는 최근 신축된 요사채가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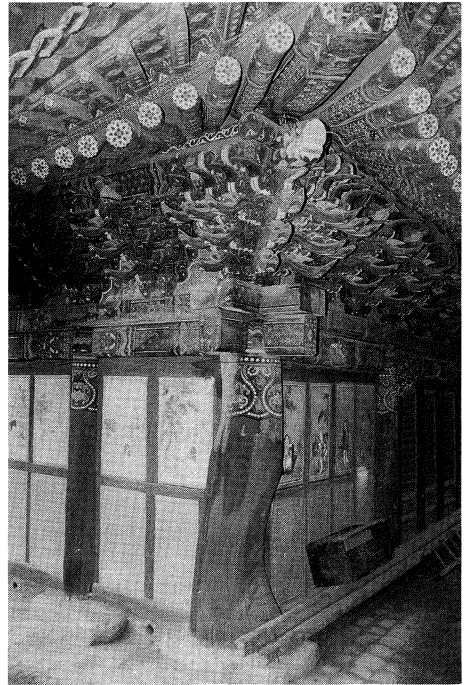
대웅전은 1727년경 중건한 건물로 대구직할시 유형문화재 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건물은 장대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배흘림¹⁴⁷⁾이 있는 두리기둥을 세웠는데, 평면은 정면 3칸·측면 3칸으로 어칸이 헐칸보다 4尺 가량 넓다.

上部架構는 佛壇이 설치된 뒷열 內陣 高柱에 대들보를 결구한 1高柱 5樑으로 高柱에 의지하여 벽을 치고 佛壇을 설치하였다. 측면칸 부분은 대들보 위에 층여를 결구하고 중도리와 장혀를 받도록 하였다. 불단의 佛像是 釋迦·藥師·아미타불의 坐像이며, 後佛壁에는 여러 폭의 탕화가 걸려 있다.

이 건물은 外 3出目·內 5出目の 다포계이며, 지붕은 겹처마¹⁴⁸⁾에 팔작지붕¹⁴⁹⁾이다. 구조 양식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의 평방¹⁵⁰⁾위에 柱頭¹⁵¹⁾또는 坐頭를 얹고 외 3출목·내 5출목의 공포를 구성한 다포계이다. 공포의 구성에서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3계공은 비교적 曲率이 작은 양서형으로 되어 있고, 양서¹⁵²⁾의 안쪽에는 연꽃 봉오리를 조각해 놓았다.

천장은 중도리 안쪽에 우물천장을, 그 바깥 외벽쪽에 빗천장을 꾸몄다. 건물 바닥은 우물마루로 처리하였다.

대웅전에서 주목되는 것은 문짝의 문양인데 소슬 빗살에 활짝 핀 꽃잎 윤곽을 표현한 조직적인 문짝과 동심원으로 활짝핀 꽃을 색색으로 세기고 그 바탕에 네 잎을 소슬 빗살로 배열시킨 분합문짝 등은 흔히 볼 수 없는 우수한 것이다.



〈사진 9-54〉

동화사 대웅전 우측면과 배면

147) 기둥이 아래로 부터 1/3쯤까지는 점차로 굵어졌다가 다시 그 위로는 점차 가늘어 지는 것.

148) 처마끝의 서까래가 두 단으로 된 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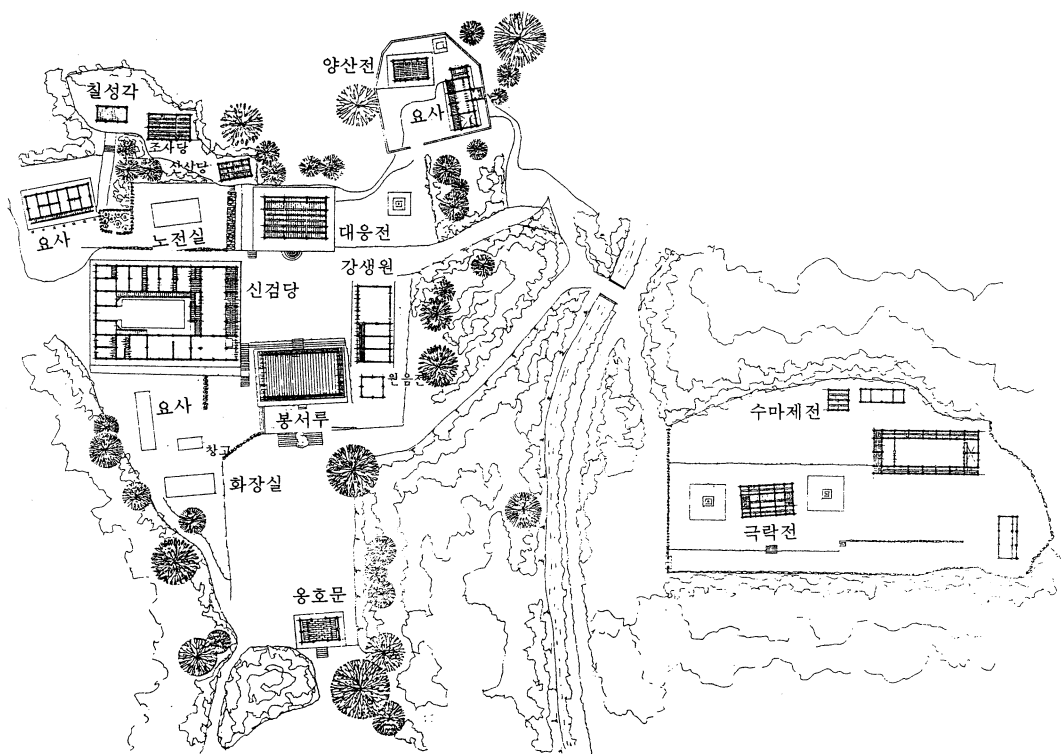
149) 완각이 합각벽으로 된 지붕

150) 공포 따위를 받치려고 평주 위에 건너 지르고 창방 위에 얹히는 넓적한 나무 부재.

151) 기둥머리를 장식하며 공포부재를 받는 뒷박처럼 네모지게 만든 부재.

152) 끝이 위로 뾰족하게 휘어오른 쇠서.

극락전의 창건 및 중건 기록은 거의 없는데, 다만 《桐華寺事蹟記》에 古金堂이 1465년(明 현종 원년) 창건되어 숙종 28년(1702) 중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극락전이 위치하고 있는 영역을 금당암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곳에 고금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만약 고금당이 어느 시기엔가 극락전으로 바뀌어 사용되었다면 지금의 극락전이 바로 고금당이므로, 고금당의 연혁이 곧 극락전의 연혁이 될 것이다. 현재 극락전은 대구시 유형문화재 11호로 지정되어 있다.



〈圖 9-22〉

동화사 배치 평면도

극락전 기단은 신라 때 것으로 보이는 석재 架構式 기단이다. 현재 일부 甲石은 없어졌으나 地臺石¹⁵³⁾·面石¹⁵⁴⁾·甲石¹⁵⁵⁾이 많이 남아 있으며, 특히 甲石의 모서리를 ‘ㄱ’자형으로 만들고 회침

153) 기단의 기초부에 까는 대석.

154) 석재 가구식 기단의 대석과 갑석 사이를 막아낸 넓은 돌.

155) 위에 두껍처럼 덮어 놓은 돌.

부분에는 물매를 주었다. 또한 지금도 네모 초석과 고맥이돌¹⁵⁶⁾, 信枋石¹⁵⁷⁾등이 제자리에 놓여 제 구실을 하고 있다. 평면은 정면 5칸·측면 3칸인데, 어칸이 가장 넓고 협칸과 측칸은 2尺씩 좁아졌다.

극락전의 架構는 內陣 高柱 8本을 세운 2高柱 5樑架로, 고주의 좌우는 퇴칸 쪽으로 퇴보¹⁵⁸⁾를 걸어 평주와 연결하였다. 고주¹⁵⁹⁾가 대들보¹⁶⁰⁾와 중도리를 바로 받고 있으며, 그 위는 우물반자¹⁶¹⁾를 시설하였다. 대들보는 돌을 사용했으며, 그 단면형상이 직사각형의 하부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 놓은 것과 같아 18세기 이후의 수법으로 보여진다.



〈사진 9-55〉

동화사 극락전 정면

이 건물 내부는 중앙 3칸에 앞뒤로 內陣 高柱 8本을 세웠다. 內陣 高柱에 면해 後佛壁을 5칸 모두에 설치했다. 그 중 후불벽 중앙 3칸은 벽체를 고주 上端까지 설치하고 좌우 뒀칸의 벽체는 外陣柱¹⁶²⁾높이 정도로 하여 높이가 낮았는데, 이는 나중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 바닥은 우물마루를 사용하였으나 이것도 역시 나중에 새로 시설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마루 밑에는 지금도 바닥塼이 깔려 있어 이것이 본래의 바닥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後佛壁 뒤에도 우물마루가 깔려 있으나 그 수법이 앞부분과 다르며 마루의 높이도 앞부분보다 약간 낮다. 후불벽 앞에는 각각 3개의 불단을 두어 三尊佛을 안치하였다.

기둥은 모두 두리기둥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외진주들은 모두 약한 배흘림¹⁶³⁾을 두고 있다.

그리고 기둥 위는 지붕의 후림¹⁶⁴⁾과 같은 수법으로 꺾기둥¹⁶⁵⁾보다 平柱를 건물 안쪽으로 더

156) 벽 하부 밀인방 또는 문지방과 지면 사이에 막아 놓은 돌.

157) 일각문 등의 지대 위에 기둥 용지판이나 신방목을 받친 돌.

158) 퇴칸에 건 보.

159) 보통 기둥보다 높게된 기둥.

160) 맨 아래에 가운데로 얹힌 큰 들보.

161) 반자틀을 우물정(井)자로 짜고, 그 井칸에 넓은 널 등으로 덮어 꾸민 천장.

162) 건물의 외부 변두리에 둘러 세운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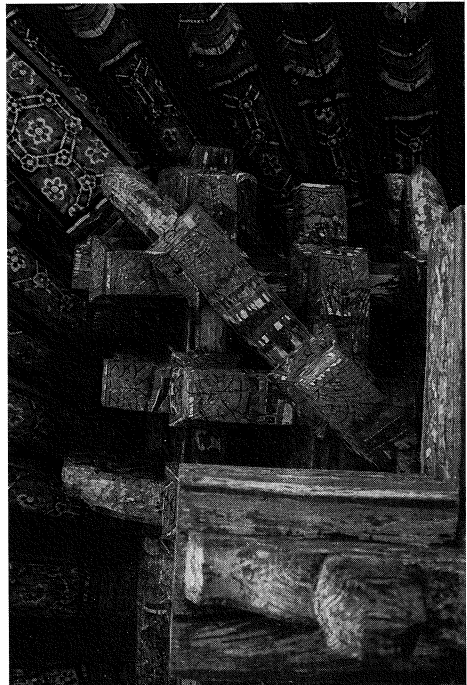
163) 기둥이 아래로 부터 1/3쯤까지는 점차로 굵어 졌다가 다시 그 위로는 점차 가늘어 지는 것.

164) 곡선적으로 점차 내어밀거나 들어간 상태.

165) 우주. 건물의 모퉁이에 세운 기둥.

쫄리게 했는데 이 건물의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朝鮮古蹟圖譜》의 사진에는 추녀 하부에 活柱¹⁶⁶⁾를 둔 것이 나타나나 현재는 없다.

극락전의 공포는 다포계로 그 구성은 内外 2出目 5包作으로 먼저 기둥 위에 창방¹⁶⁷⁾과 평방을 차례로 결구하고 있다. 기둥 사이에 놓인 공간포¹⁶⁸⁾는 어칸에 2구, 좌우 협칸과 퇴칸에 1구씩 모두 36구를 배설하였다. 공포의 살미¹⁶⁹⁾형태는 内外가 약간 다른데, 외부 살미는 초제공¹⁷⁰⁾과 2제공¹⁷¹⁾을 첨차와 같은 형태이며 3제공은 삼분두 형상으로 끝을 날카롭게 깎아 놓았다. 4제공 살미 형상은 공간포와 주심포가 다른데 공간포는 雲宮형으로, 주심포는 퇴보를 그대로 외목도리¹⁷²⁾ 밖으로 빼낸 형태로 외목도리를 받고 있다. 또한 전체 공포에서 쇠서가 생략되어 강직한 맛을 풍기고 첨차의 하부가 직선에 가까운 곡선으로 마무리되는 것 등은 조선중기 건축양식으로 생각된다.



(사진 9-56) 동화사 극락전 깃포

수마제전은 대구직할시 문화재자료 16호로 1702년경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며, 극락전 뒤편에 약간 떨어져 위치한다.

이 건물은 두 벌대의 장대석 기단 위에 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정면 1칸·측면 2칸의 규모로 정사각형에 가까운 평면이다. 지붕은 겹처마 박공지붕이다. 구조양식은 5량가로 기둥 위에 평방을 결구하고 그 위에 주두 또는 좌두를 얹고 첨차¹⁷³⁾와 소로를 층놓아 짜 맞춘 内外 2出目の 다포계이다. 내부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뒷벽 앞에 연화대좌를 배설하고 그

166) 길게 나온 추녀 나 사례의 끝을 바치는 기둥.

167) 목조건물의 기둥 위에 가로 건너질러 연결하고 평방 또는 화반, 소로 등을 받는 가로재.

168) 기둥과 기둥사이에 짜 넣은 공포.

169) 주심에서 보 밑을 받치거나 좌우기둥 중간에 도리 장여에 직교하여 받쳐 권 쇠서모양으로 내민 공포부재의 짜임새의 총칭.

170) 제공 중 제일 밑에 짜여진 첨차와 살미의 한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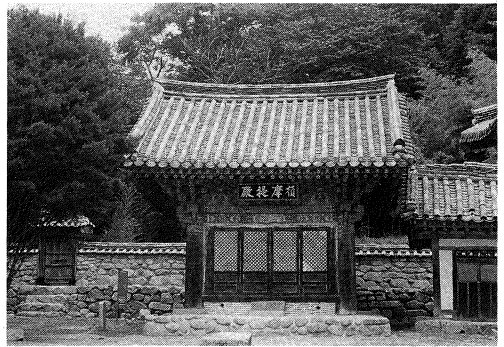
171) 2단계의 첨차와 살미층.

172) 공포의 바깥쪽에 가로 얹힌 도리

173) 다포계 혹은 주심포계의 공포에서 주두 또는 소로에 얹히어 도리방향 또는 그에 직교하게 십자 맞춤되는 짝맞은 공포재.



〈사진 9-57〉 동화사 수마제전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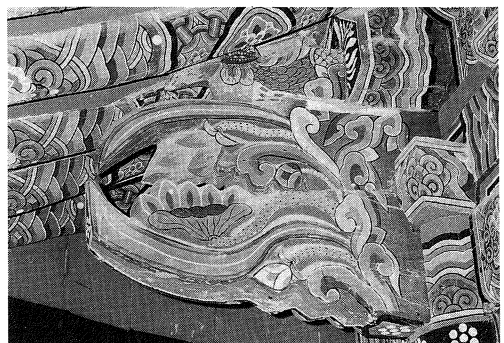
〈사진 9-58〉 동화사 수마제전 공포

위에 불상을 봉안하였다. 佛壇 상부는 운각¹⁷⁴⁾으로 장식한 보개천장¹⁷⁵⁾을 시설하고, 나머지 천장은 우물반자¹⁷⁶⁾로 구성하였다. 수마제전은 비록 작은 규모의 전각이지만 조선시대 다포계 건축의 소박한 기법과 짜임새를 잘 간직하고 있다.

동화사 영산전은 현종 10년(1669년) 창건되었으나, 지금으로부터 92년 전인 1902년 대홍수로 유실되었던 것을 증건하였다. 건물은 정면 3칸·측면 1칸으로 지붕은 맞배지붕¹⁷⁷⁾으로 되어 있다. 구조는 간략한 3樑架로써 대들보의 결합부 밑에 초각이 간략화 된 보아지¹⁷⁸⁾를 두었다. 어칸의 상부는 우물천장으로 처리하였으나 협칸부분은 평반자로 마감하였다.



〈사진 9-59〉 동화사 영산전 정면



〈사진 9-60〉 동화사 영산전 공포

174) 궁전 등의 보개천장의 갓돌레에 장식으로 낙양처럼 구름무늬를 조각하여 꾸민 장식.

175) 궁전이나 절 따위에서 가운데를 높게하여 보개처럼 된 천장

176) 반자들을 우물정(井)자로 짜고, 그 井간에 넓은 널 등으로 덮어 꾸민 천장.

177) 지붕의 완각이 막 잘라진 지붕.

178) 기둥머리 또는 주두에 끼워 보의 짜임새를 보강하는 짧은 부재.

2) 桐華寺에 소속된 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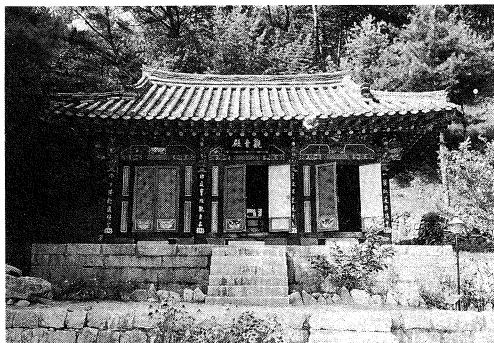
(1) 內院庵

내원암은 동구 도학동 35번지에 위치하는 동화사의 屬庵이다. 이 절은 《朝鮮寺刹史料》와 《桐華寺事蹟記》에 따르면 1626년(天啓 6년, 인조 4년) 僧 惟贊이 始創하였으며, 그후 순조 27년(1827)에 霽月化主가 재건하였다고 한다. 1960년경 長一 比丘尼가 가야산 國一庵에서 이곳에 와서 비구니의 禪院을 열어 1966년에 중창하고 觀音殿·因法堂·無住軒을 세웠다.¹⁷⁹⁾

내원암은 本寺인 동화사에서 북으로 800m 가량 산길을 따라간 올라온 좌청룡 우백호를 갖춘 아늑한 吉地에 자리잡고 있다. 이 절은 ㄱ자형의 禪院인 因法堂을 가운데 두고, 그 동쪽에 寮舍 無住軒, 서쪽에 작은 규모의 寮舍 그리고 因法堂 서측 뒤쪽에 觀音殿을 배치하였다.



〈사진 9-61〉 내원암 선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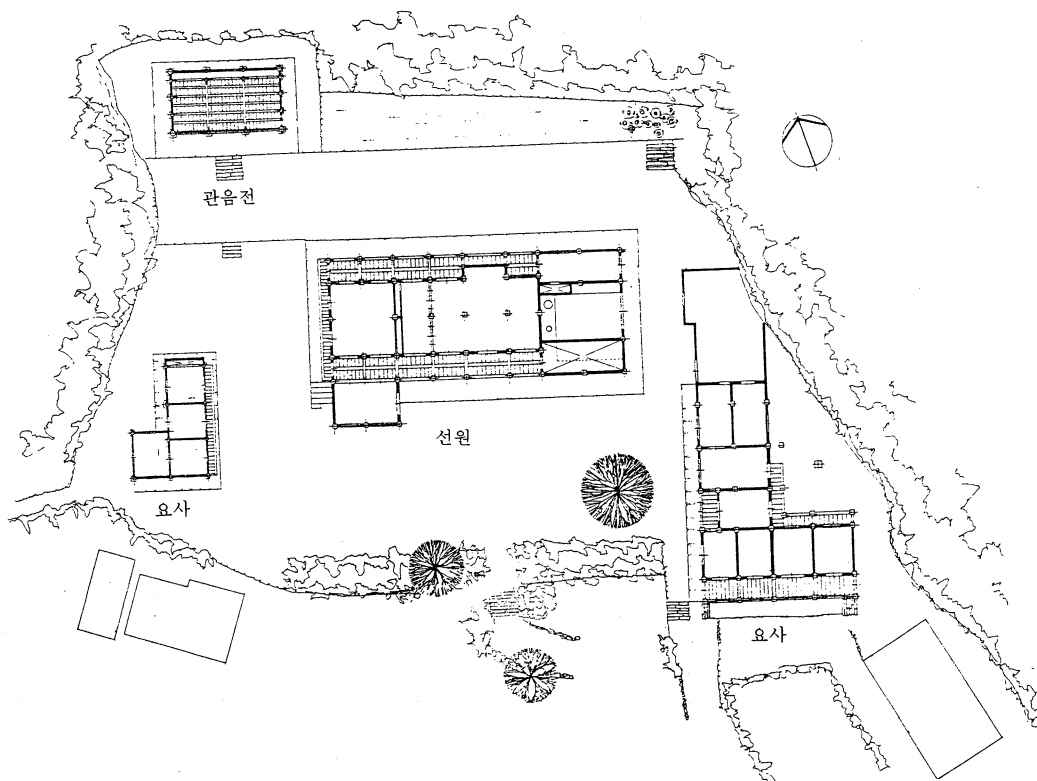
〈사진 9-62〉 내원암 관음전 전경

관음전은 장대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건물은 2翼工으로, 쇄서의 끝부분을 비스듬히 절단하고 蓮花·鳳頭 등으로 장식하였다. 평면은 정면 3칸·측면 3칸인데 佛壇을 설치하기 위해 後陣柱 뒤로 50cm 가량을 더 달아 내어 공간을 확장했으며, 후진주 사이에는 유리창을 끼웠다. 건물의 架構는 5樑인데 대들보 위에 衝樑을 걸고 마구리에는 네모 모양의 판자를 붙여 동자주를 대신하였다. 천장은 중앙에만 우물반자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연등천장¹⁸⁰⁾을 그대로 노출시켰다.¹⁸¹⁾

179)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八公山史蹟 地表調査報告書》, 1987, pp.265~266.

180) 서까래 사이의 개판 또는 양토 밑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도록 치장된 천장.

181)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앞의 책, p.350.



〈圖 9-23〉

내원암 배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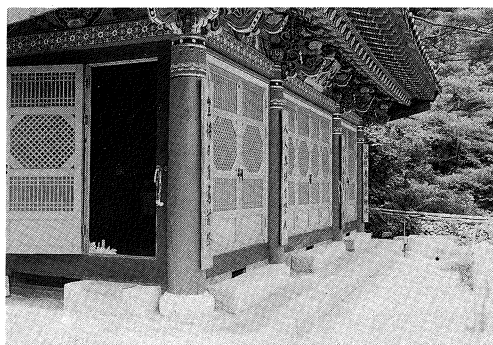
(2) 養眞庵

동화사의 屬庵으로 동구 도학동 3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동화사 사적비에 의하면 영조 19년(1743)에 無住禪師가 창건하고 光武 2년(1898) 雲坡化主가 중수했다고 한다. 1952년 한국



〈사진 9-63〉

양진암 선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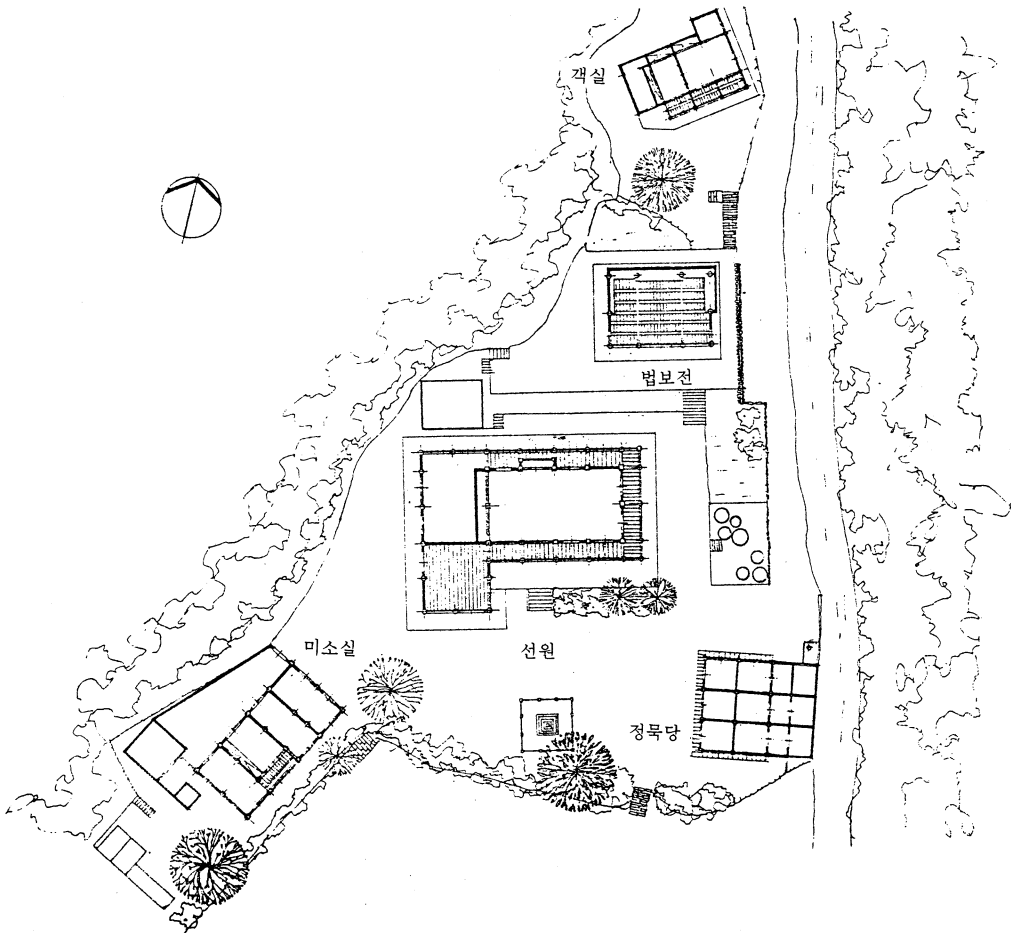


〈사진 9-64〉

양진암 법보전

전쟁 이후 裴性蓮 비구니가 법주사 水晶庵으로 부터 이곳에 와서 禪院을 열어 비구니의 선원으로 면모를 바꾸어 1980년 중창하여 因法堂·靜默堂·微笑堂의 당우를 건립했다.¹⁸²⁾

寺域을 들어서면 양진암이라 편액한 ‘ㄱ’자형의 인법당(선원)을 가운데 두고 서측에 요사인 미소실, 동측에 참선후 몸과 마음을 조용히 쉬는 적묵당 그리고 인법당 바로 뒤희에는 석축 위에 법보전을 각각 배치하였다. 법보전 뒤를 돌아가면 객실이 나온다. 인법당 앞마당 중앙 3층 석탑을 조성하였다.



〈圖 9-24〉

양진암 배치 평면도

182)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앞의 책, p.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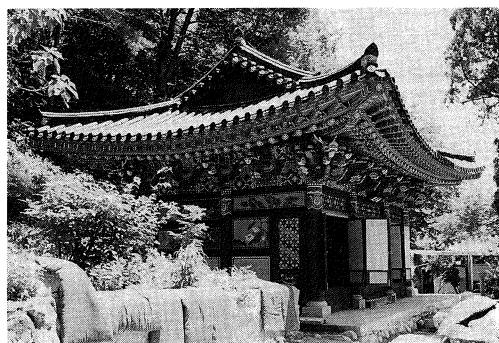
因法堂은 1980년에 개축한 정면 6칸·측면 4칸의 건물이다. 양진암의 핵심 건물인 이 건물은 장대석 외벌대 기단 위에 앞쪽에는 鼓腹형 주초를, 측면과 뒤쪽에는 네모난 주초를 사용한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천장은 중앙부만 우물반자로 하였고 나머지는 빗반자를 설치하였다. 佛壇은 뒷면을 2尺 가량 더 달아내어 설치하였으며, 기둥 사이에는 유리문을 달았다. 전체적으로 현대적인 요소가 많이 채택되어 전통적인 건축양식과는 거리가 있다.¹⁸³⁾

(3) 浮屠庵

부도암은 동구 도학동 35번지에 위치하는 동화사의 속암으로 조선 효종 9년(1658) 道悟化主가 창건하였고 정조 14년(1790) 春坡化主가 중수하였다. 헌종 7년(1841)에 쓴 念佛庵《樸間錄》과 그 문서에는 부도암에 72명의 스님이 있었다 하니 동화사 부속 암자중 최대규모였다. 지금은 비구니 절로 화했다.¹⁸⁴⁾

본래 부도암은 개울 건너 서쪽 산기슭에 12기의 浮屠가 있는 곳에 있었으나 뒤에 현 위치로 이전 하였다고 전하며, 부도가 있는 곳에 절을 지었다 하여 부도암이라 하였다. 이 절은 1960년 크게 개축하였다.



〈사진 9-65〉 부도암 관음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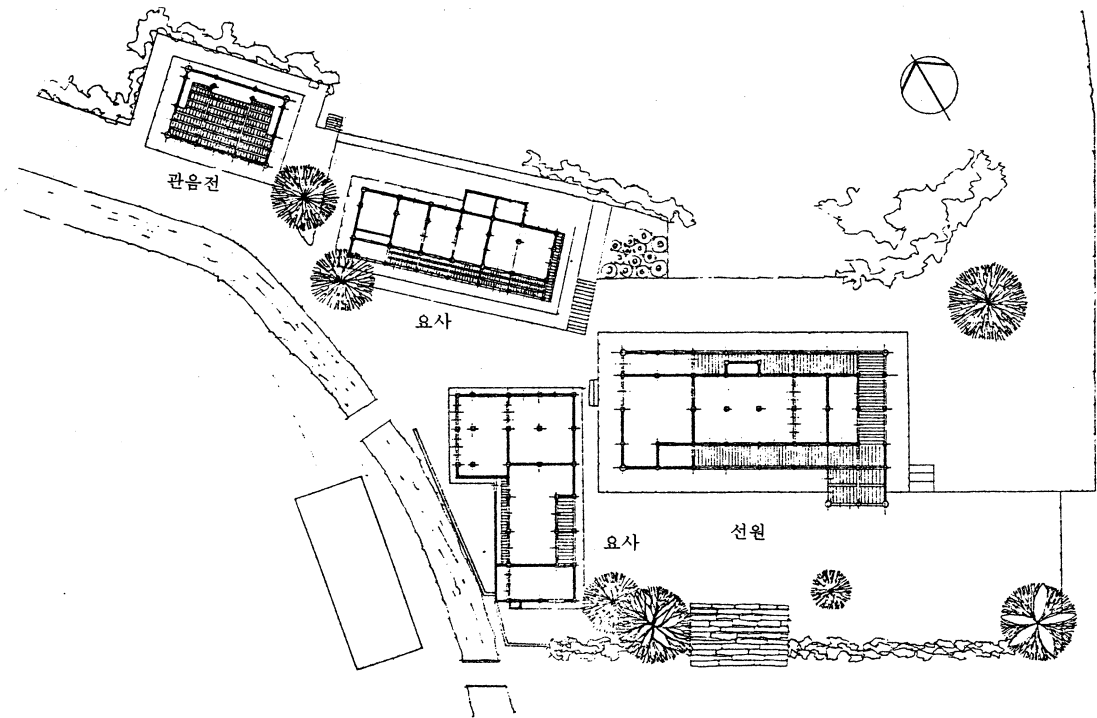


〈사진 9-66〉 부도암 관음전 깃기둥 상부공포

동화사로부터 북으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부도암은 石築을 높게 쌓고 寺域을 조성하였다. 절 입구에서 10여 단의 돌계단을 오르면 넓은 마당이 나오고 마당 바로 앞쪽에는 부도암이라 편액한 因法堂이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인법당 좌측에 2동의 寮舍 그리고 寮舍 좌측 끝부분에 觀音殿을 배치했다.

183)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앞의 책, p.344.

184)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위의 책, p.266.



〈圖 9-25〉

부도암 배치 평면도

관음전은 다듬돌 초석 위에 두리기둥을 세운 팔작지붕 건물이다. 구조양식은 익공계의 건물로서 외1출목을 두었다. 처서는 갖은 장식을 하고 겹포의 상부와 층량¹⁸⁵⁾의 단부는 용머리로 장식하였다. 천장은 내진을 우물반지로, 외진을 빗천장으로 마감하였다.¹⁸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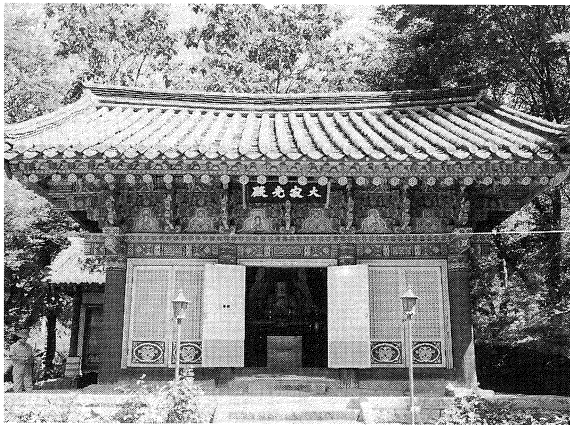
(4) 毘盧庵

비로암은 동구 도학동 35번지에 위치하는 동화사의 屬庵으로 《桐華寺事蹟碑》에는 毘盧殿이라 하여 선조 25년(1591) 瑞一化主가 창건했다고 한다. 大寂光殿에는 신라 흥덕왕 때 心地王師가 조성한 보물 제 244호 석조 비로자나불을 봉안하고 있으며 大寂光殿 앞에는 역시 보물 제 247호 삼층 석탑이 있다. 이 탑은 신라 景文王 3년(863)에 敏哀大王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건립한 것이며, 이 절이 유명한 ‘桐藪願堂’이었다. 당시는 桐藪(桐華寺의 옛이름)경내의 대

185) 한 끝은 기둥에 짜이고 다른 끝은 들보에 걸치게 된 측면의 보.

186) 대구시·경북대학교, 《八公山 史蹟 地表調査報告書》, 1987, p.356.

적광전이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이 절의 창건은 바로 동화사의 창건과 같다.¹⁸⁷⁾



〈사진 9-67〉 비로암 대적광전 정면

비로암은 동화사 옹호문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東쪽으로 난 입구를 들어서면 우측에 大寂光殿이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고 대적광전 앞에는 삼층 석탑 1기가 서 있다. 대적광전 좌측 아래에는 요사가 東向하여 있고 대적광전 뒤에는 山神閣이 배치되어 있다.

비로암의 중심건물인 大寂光殿은 다포계 맞배집으로 건물 앞뒤면에만 공포를

두고 기둥 사이에 공간포를 1조씩 짜 넣은 외 2出目·내 3出目 형식이다.

최서의 끝은 비스듬히 자르고 그 위에 蓮棒으로 장식하였다. 천장은 내진만 우물천장으로 하고 외진은 빗천장으로 처리하였다. 法堂의 중앙에는 팔각 연화 대좌 위에 석조 비로자나불을 봉안하였다.¹⁸⁸⁾

大寂光殿 앞에 있는 삼층 석탑은 보물 제 247호로 지정되어 있는 통일신라말기의 우수한 석탑이다. 地臺石과 中石을 한 돌로 하여 각 面 1石으로 下層 基壇을 구성하고 各 面은 탕주 1柱로 양분하였다. 甲石은 4장이며 윗면에는 괴임이 있는데, 아랫단이 甲石 윗면에 바로 붙지 않고 잘록하게 안으로 파여져 別石처럼 보인다. 上層 기단 中石은 각 面 1石에 탕주 1柱이다. 갑석은 2장의 板石이고 밑에는 부연이 있고, 위의 屋身 괴임은 下層 기단 甲石 괴임과 같은 형식이다. 塔身部는 屋身石¹⁸⁹⁾과 屋蓋石¹⁹⁰⁾이 각각 1石씩이고, 屋身¹⁹¹⁾에는 隅柱形¹⁹²⁾이 있다. 옥개석 괴임¹⁹³⁾은 각 층 4段에 落水口가 있으며, 위에 옥신석 괴임이 마련되어 있다.¹⁹⁴⁾

187)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앞의 책, p.266.

188)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위의 책, p.363.

189) 석탑의 몸체를 이루는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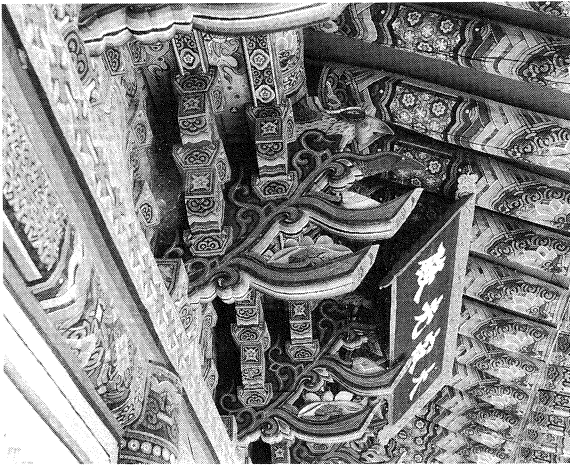
190) 탑신석 위에 놓인 지붕같이 생긴 돌

191) 옥개석을 받는 네모난 돌로 옥신석과 옥개석이 결합하여 탑신부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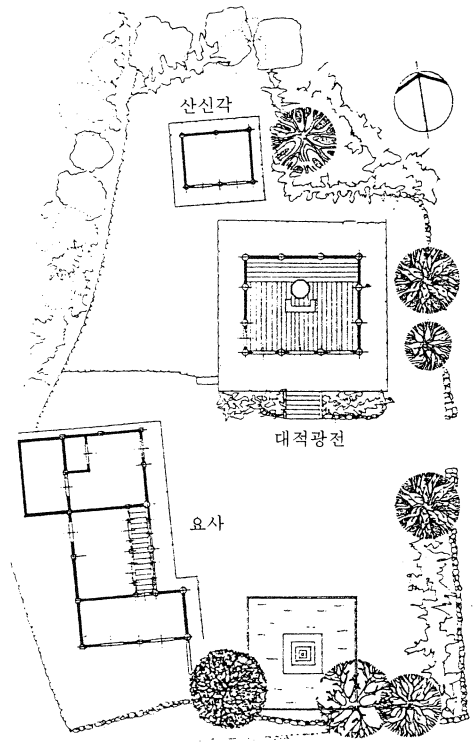
192) 석탑의 옥신석 모서리에 기둥처럼 생긴 것.

193) 옥개석을 괴어 받치는 층단이 있는 돌

194) 대구직할시, 《문화재도록》, 1987, p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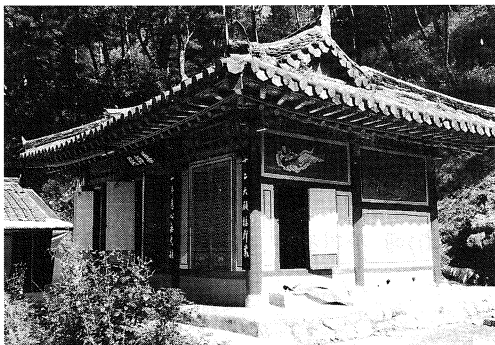
〈사진 9-68〉 비로암 대적광전 정면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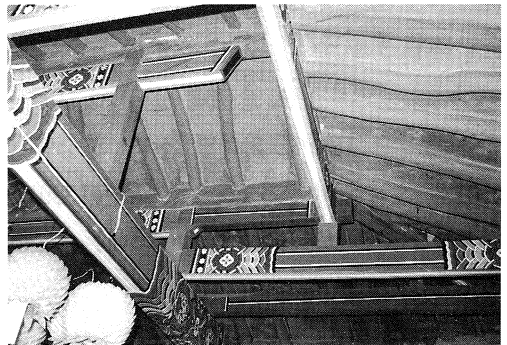
〈圖 9-26〉 비로암 배치 평면도

(5) 藥水庵

대구직할시 동구 도학동 산 124번지에 있는 동화사의 屬庵으로, 1970년 藥師殿의 터에 새로 지은 것이다. 藥水庵이란 寺名은 인근의 ‘救世藥水’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藥師殿과 3棟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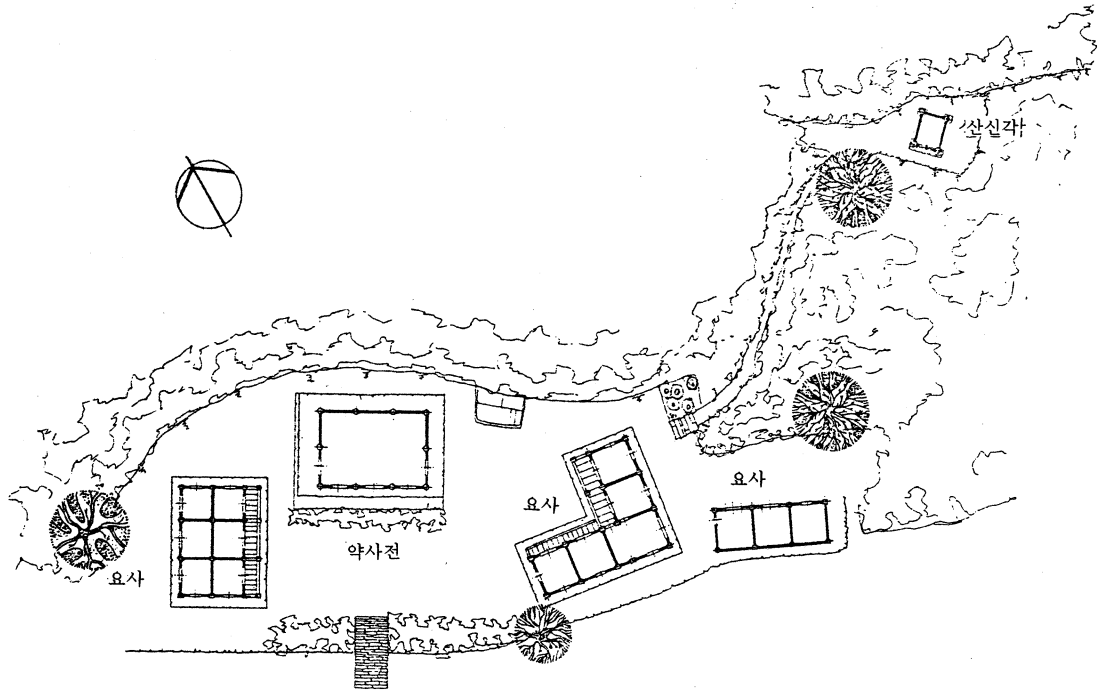


〈사진 9-69〉 약수암 약사전 전경



〈사진 9-70〉 약수암 약사전 상부가구

寮舍 및 山神閣이 있다. 요사이 寮舍에 약수암이라 편액했다. 동화사 입구 해탈교에서 오른 쪽으로 700m가량을 오르면 ‘救世藥水’가 있고, 약수암은 여기서 다시 50m 떨어진 왼쪽 산허리 에 위치하고 있다. 20 여단의 돌계단을 오르면 앞쪽에 南西向한 약사전이 좌우에 寮舍를 거 느리고 나타난다. 산신각은 약사전 오른쪽 숲속에 떨어져 있다.



(圖 9-27)

약수암 배치 평면도

약사전은 5량가의 건물로 종보를 두지 않아 대들보 위의 긴 동자주가 마루도리를 받고 있 다. 천장은 연등천장이며, 바닥에는 다다미를 깔았다. 건물 앞쪽은 익공 쇄서 없이 소로 장 식만으로 꾸몄다.¹⁹⁵⁾

(6) 念佛庵

《桐華寺事蹟碑》에 의하면 신라 경순왕 2년(928) 靈照禪師가 창건하였고, 조선 광해 5년 (1613) 惟贊이 중창하고, 숙종 25년(1699) 勝下이 중수하고, 순조 3년(1803) 義庵이 중수했 다고 한다. 그러나 《朝鮮寺刹史料》에는 1612년(明, 萬曆 40)에 창건하여 숙종 25년(1699)에 중 창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5) 대구시·경북대학교, 《八公山 史蹟 地表調査報告書》, 1987, p.369.

그리고 1962년 院主스님 慧運이 중수할 때 발견된 《樑間錄》에는 1438년(明, 正統 3)과, 1768년(淸, 乾隆 33), 1841년(淸, 道光 21)의 중수 사실만 적혀 있다.

고려 고종 8년(1220)에 公山 念佛寺에서 駐錫하다가 여기서 열반하여 이 절에서 다비한 圓眞國師가 고종 2년에 公山 念佛蘭若에 住하여 동봉에서 차를 다려 兩 三道의 고승대덕을 향응하고 기우제를 지낸 것을 볼 때 고려 때에는 유명한 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⁹⁶⁾

이 절은 팔공산 主峯인 東峯의 밑 산 중턱에 있는 팔공산 南麓에서 가장 높은데 자리잡고 있다. 동화사를 오른쪽에 두고 서쪽으로 난 길을 따라 북쪽으로 1.8km 가량을 오르면 뒤에 커다란 石屏을 두르고 東西로 청룡과 백호가 다소곳하게 감싸고 있는 곳에 염불암이 있다.



〈사진 9-71〉 염불암 극락전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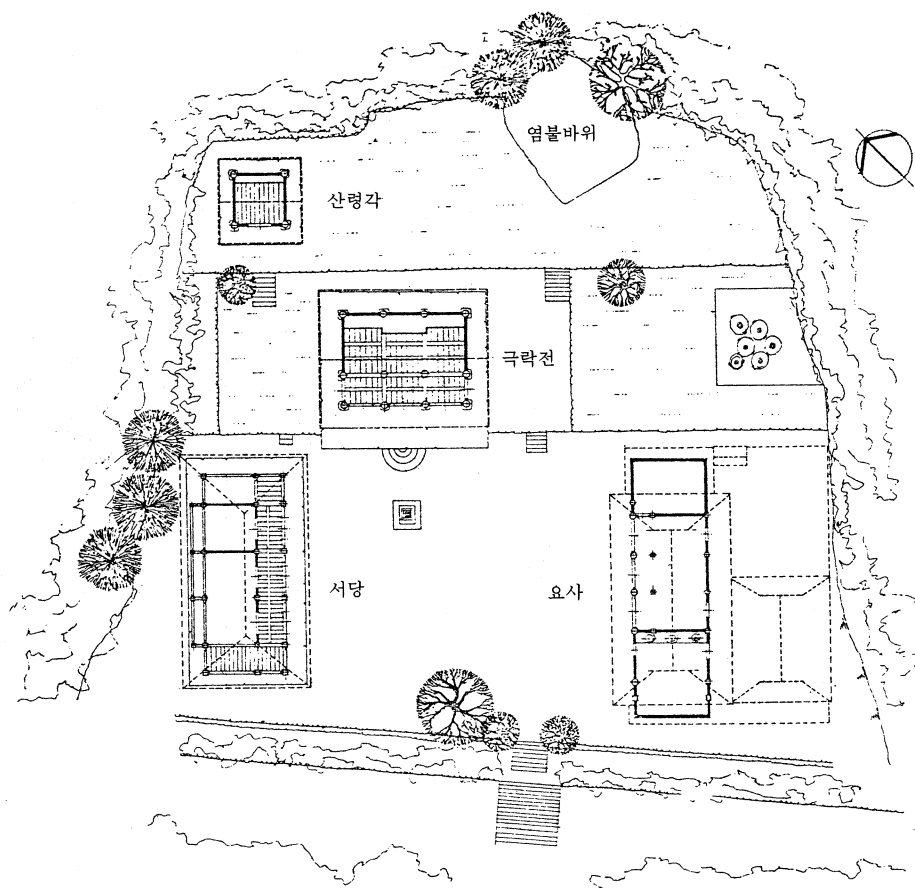
〈사진 9-72〉 염불암 극락전 공포와 처마

이 절은 석축을 높이 쌓고 寺域을 조성하였다. 배치는 極樂殿을 중심으로 왼쪽에 西堂, 오른쪽에 寮舍를 그리고 극락전 왼쪽 뒤편에 山靈閣을 각각 두었다. 극락전 오른쪽 뒤편에는 염불바위가 자리잡고 있다. 이 바위의 南面에는 문수보살, 西面에는 아미타불이 각각 양각되어 있다.

극락전은 1841년경 중건되었으며, 본래 염불바위 앞 석등이 있는 자리에 있었으나 1962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 지었다고 한다.

건물은 정면 3칸·측면 1칸半 규모이었으나 改築시 앞쪽으로 3尺 가량 넓혔다. 장대석으로 기단을 쌓고, 기단 앞쪽 중앙에는 화강석을 半圓으로 다듬어 계단을 만들었다. 기단 위는 모르타르로 마감하였다.

196)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앞의 책, p.265.



〈圖 9-28〉

염불암 배치 평면도

극락전은 막돌 주초 위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주초 사이에는 화강석을 팔각형으로 다듬어 받쳤다. 건물은 주심포계로 건물 앞면을 2출목, 뒷면을 1출목으로 처리했으며 천장은 우물반자로 꾸몄다. 佛壇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을 각각 모셨으며, 佛壇 위에는 寶蓋를 시설하였다.¹⁹⁷⁾

197)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앞의 책, pp.374~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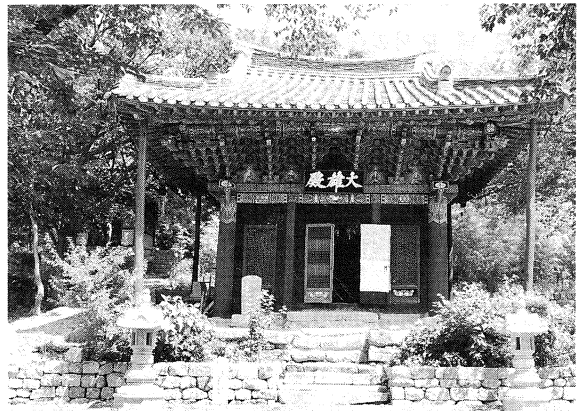
3) 北地藏寺

北地藏寺는 동구 도학동 620번지에 위치한 古刹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本寺인 桐華寺의 末寺이다. 북지장사가 위치한 팔공산은 신라 때 五岳信仰의 중심지로 中岳·父岳·靈岳으로 불리워져 왔다. 또한 팔공산의 최고봉을 毘盧峯이라 이름 짓고 그 좌우 봉우리를 念佛峯·三聖峯이라 하여 팔공산 전체를 三尊의 부처로 생각하고 산 곳곳에 절을 지어 佛國土를 이루게 했다. 북지장사 역시 이러한 염원 속에서 이루어진 사찰의 하나이다.

《佛敎事典》에는 고려 명종 22년(1192) 普照國師가 창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웅전 정면 기단 우측에 세워져 있는 〈北地藏寺有功人永世不忘碑〉의 내용 중 “...新羅古刹...”이라는 기록과 舊大雄殿址 앞에 있는 3층 석탑 등을 미루어 보아 신라 古刹임은 확실하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기 어렵다.

이처럼 重建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 있지 않으나, 대웅전 지붕에서 발견된 암막새에 보이는 1623년(明, 天啓 3)과 1665년(淸, 康熙 4)의 銘文과 지금의 대웅전 오른쪽에 남아 있는 옛 대웅전 基壇과 그 앞의 3층 석탑 2기 등을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17세기경 화재 등으로 대웅전 등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따라서 당시의 地藏殿을 중수하여 지금까지 대웅전으로 轉用해 온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에는 1975년과 1982년에 중수하였다.¹⁹⁸⁾

북지장사는 백안에서 동화사쪽으로 1.5km가량을 올라오다 오른쪽으로 난 마을 안 길을 따라 다시 2.5km 들어간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寺域은 높은 석축 위에 조성되어 있는데, 입구의 ‘ㄱ’자형 계단을 오르면 대웅전이 옹호문과 마주하면서 남북 주축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 대웅전 동쪽에는 中庭보다 대지를 한 단 높게 조성하여 三聖閣을 남향으로 배치하고, 그 서쪽에는 山神閣을 두었다. 산신각은 1982년 신축한 것이다. 대웅전 앞 중정 동쪽에는 寮舍 3동이 배치되어 있으며 寮舍와 마주보고 있는 동쪽에는 옛 건물지(옛 대웅전 터로 추정됨)로 보이는 곳에 장대석 基



〈사진 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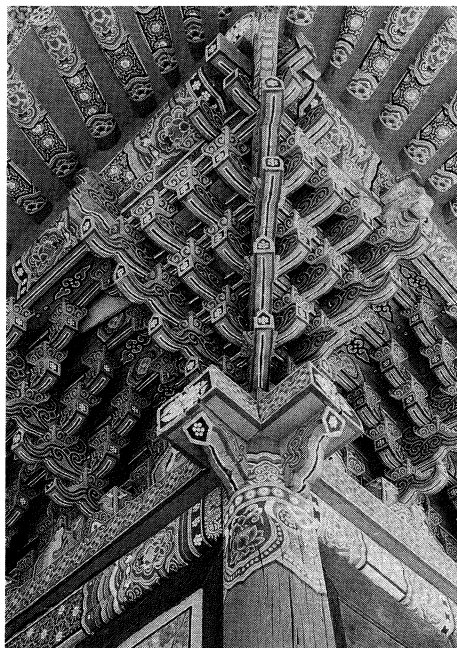
북지장사 대웅전 정면

198) 대구직할시·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북지장사 실측조사보고서》, 1990, p.18.

壇의 일부가 남아 있다. 요사의 오른쪽에는 대구시 지방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신라시대 3층 석탑 2기가 있다.

대웅전은 보물 805호로 막돌 바른층 쌓기 기단 위에 네모의 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정면 3칸·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건물 정면 御間에 쌍여닫이 굽넬 띠살문, 좌우 퇴칸에 光窓으로 사용되는 불박이 굽넬 소슬 빗살문을 달아 놓았다. 문틀은 연귀 맞춤¹⁹⁹⁾으로 되어 있고 정교하게 석시리 하였다.

대웅전은 多包系 건축으로 막돌 덩벙 주초 위에 배흘림과 안솔림²⁰⁰⁾을 둔 두리기둥을 세우고 包作을 하였다. 이 건물은 4제공의 양서와 龍頭를 꾸미고 柱心道里²⁰¹⁾와 外目道里를 받도록 한 内外 4出目으로 정면과 배면에 4組씩, 좌우 측면에 3組씩의 空間包를 두고 있다. 그리고 内外의 出目수를 같게 한 것은 내부 가구와 천장 구성을 고려한 것이다. 內目 4출목 위에서 장혀 위로 화반²⁰²⁾과 토벽을 높게 두고 여기에 다시 장혀²⁰³⁾를 걸어 내목 도리를 얹었으며, 이 도리가 맞닿는 井字形 筐이 가구의 기본 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지붕이 팔작이므로 네 모서리에서 추녀²⁰⁴⁾가 빠져 나와야 하나 추녀 뒷뿌리의 고정이가 어려우므로 안쪽에 다시 筐井을 짜고 도리²⁰⁵⁾를 얹어 추녀 뒷뿌리를 받게 하였다. 천장은 우물반자로 마감하였다.²⁰⁶⁾



〈사진 9-74〉
북지장사 대웅전 깃기둥 상부공포

199) 직교되거나 경사 교차되는 나무의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45도 또는 맞닿는 경사각의 반으로 빗질라 대는 맞춤

200) 기둥을 세울때 위가 건물의 안쪽으로 조금 기울게 세운것.

201) 기둥 위에 놓인 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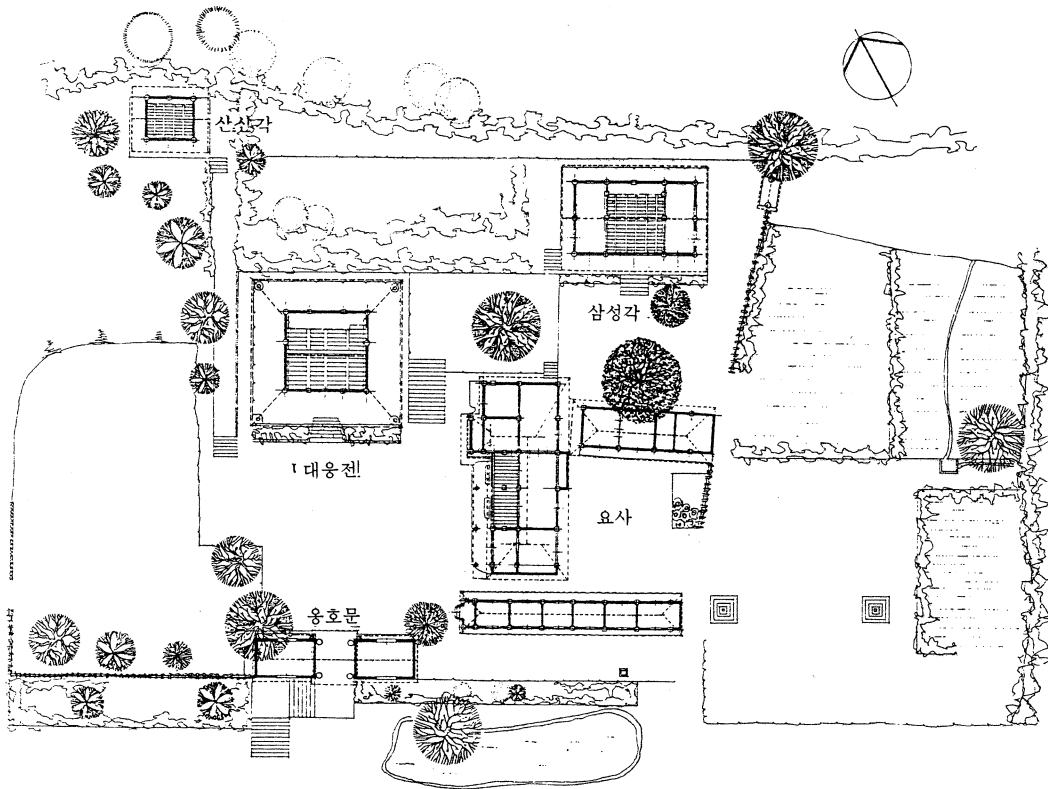
202) 창방위 중간에 얹어서 주심도리 밑 장여를 받는 초새김한 받침.

203) 도리를 바치는 긴 나무.

204) 귀마루를 받드는 큰 서까래.

205) 서까래를 걸러고 얹은 가로 놓인 부재

206) 대구직할시, 《문화재도록》, 1987, p.40.



〈圖 9-29〉

북지장사 배치 평면도

4) 把溪寺

把溪寺는 팔공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는 古刹로 대구시 동구 중대동 7번지에 있다. 지금은 대한 불교 조계종 제 9교구 本寺 동화사의 末寺이다. 파계사의 창건연대에 관하여 그 연혁을 《朝鮮寺刹史料》에는 “寺之初創在新羅哀莊大王時 心地國師所建 其後重創與否 無可考”라 했다. 신라 고려시대에 있어서 이 절의 연혁을 알 수 있는 文籍은 거의 없다.

그러나 《把溪寺事蹟記》에 의하면 신라 애장왕 5년(804) 心地國師가 창건하였고, 선조 38년(1605) 戒寬이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진 잣더미에서 圓通殿을 중건하고, 광해군 14년(1621) 窮玄堂을 건립하고, 인조 1년(1623)에 說禪堂을 지었고, 인조 4년(1626)에 彌陀殿을 짓고, 인조 24년(1646)에 說禪堂을 중수했다. 이처럼 戒寬은 創建祖師와 같은 大功德 重創祖였다. 현종 6년(1667)에 靈現道人이 白花樓를 중건했다.

파계사 三創의 祖師 玄應대사는 파계사를 크게 증창한 고승이었다. 숙종 19년(1693) 현웅

이 숙종의 부탁에 따라 元子の 잉태를 기원하며 水洛山 聖殿에서 지성껏 백일기도를 드린 결과 후일 영조대왕이 되는 원자가 태어났다고 한다. 이에 숙종은 현응의 功을 높이 사서 內帑金 三千을 내려주어 七佛殿·大法堂·白花樓를 짓게하고 해마다 元子の 壽福을 빌게 했다. 숙종 22년(1696)에 親製한 祝冊을 내려주어 願堂으로 삼았다.

이런 연유로 숙종 30년(1704) 영조가 11살 때 “玄應殿”이란 편액을 써 내려 주었으며 願畚을 하사하여 불공의 需로 삼게 했다. 또 영조가 종친부 堂上時에 完文을 내려 주어 파계사를 宗親府에 속하게 하고, 官府의 잡역에 승려를 동원치 못하게 하고 양반 官衙의 침탈로부터 보호되게 했다. 영조가 등극하고 난 후에는 貞聖王后(英祖妃)의 願堂으로 삼았다.

영조 39년(1763) 需費와 完文을 내려 절을 짓게하고 御衣와 圖署 完文을 내렸다. 이를 받드는 祈永閣과 萬歲門을 지었다. 영조 27년(1751)에 우의정 李宜顯을 파견하여 祈永閣을 세워 영조의 生前 死後의 祝壽福과 冥福을 기원하는 祝願堂으로 삼았다. 여기에 영조·貞聖王后 徐氏·순조의 위패를 봉안했다.

파계사의 중수 사실을 보면 숙종 46년(1720)에 雪元과 覺賢師가 白花樓를 중건했으며, 순조 31년(1831)에 왕궁에서 내려준 돈과 회사로 彌陀庵을 세웠다. 이때 순찰사 朴岐壽가 成造都監을 맡았다. 이처럼 이 절이 國恩을 입은 것은 玄應의 道願力 때문이었다.

철종 8년(1857) 戒正上人이 聖殿庵을 修補하고 慈應殿과 觀音殿을 修補하고 祝聖樓를 창건했다. 철종 11년(1860)에 白花樓를 중수할 때 왕비가 내탕금을 내려 주시고 按使 洪祐吉에 특별히 유시하여 자재를 공급케 하고 앞서 철종 4년(1853)에 純元王后가 내려주신 내탕전一千흔을 합쳐서 비용으로 사용하고 敬運 스님이 그 役事를 맡아서 철종 12년(1861)에 준공했다. 고종 14년(1877) 순찰사 朴齊寅이 祈永閣을 수리하고, 고종 27년(1890)에 白花樓를 중건했다. 광무 4년(1900)에 彌陀殿을 改建하고, 광무 7년(1903) 겨울에 金堂庵이 화재로 타 버렸다. 광무 9년(1905) 月洲上人이 祝聖樓를 중수했다. 1914년 聖殿庵이 산적으로 인하여 화재가 나서 이듬해 主持 張保寧과 崔寬海 화상이 중건했다. 1918년 裴龍譚 주지가 窮玄堂을 중건하고, 1922년 說禪堂을 중건했다. 1924년에 聖殿庵 院主 潘公山이 慈應殿을 중수했다.

또한 1977년 6월 改金 佛事때 圓通殿 관음보살 복장에서 영조의 御衣가 나와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파계사 입구에는 ‘大小人皆下馬’라 쓴 비가 서 있다. 이는 王室 願堂에 감히 말을 타고 못 들어오게 한 것이다. 조선후기 寺院이 官衙, 양반의 부역, 紙墨의 供出 등 경제적 침탈과 使役에서 모면하기 위하여 왕실 원당으로 명맥을 유지하여온 좋은 예다.²⁰⁷⁾

207)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八公山史蹟 地表調査報告書》, 1987, pp.267~269.

현존하는 堂宇으로는 100 여평에 이르는 2층 누각인 鎮洞樓와 법당인 圓通殿 그 동쪽에 중무소로 사용되는 寂默堂, 서쪽에 說禪堂이 ‘口’자형을 이루고 있다. 원통전 뒤편에는 祈永閣과 山靈閣 그리고 應香閣이 있고, 옹향각 동북쪽에는 彌陀殿이 자리잡고 있다. 應香閣 오른쪽에 있는 계곡을 건너 오르면 별도의 공간에 極樂殿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전각 중 圓通殿이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說禪堂이 문화재 자료 7호, 山靈閣이 문화재 자료 8호, 寂默堂이 문화재 자료 9호, 鎮洞樓가 문화재 자료 10호, 祈永閣이 문화재 자료 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사진 9-75〉

파계사 원통전 정면

부속 암자로는 彌陀庵과 聖殿庵이 있는데, 彌陀庵에는 冥府殿·金堂庵·七聖殿이 있고 聖殿庵에는 慈應殿이 있다. 성전암에는 조선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현웅의 영정과 벽화가 있다.

圓通殿은 가구식 기단 위에 막돌 주초를 놓고 두리 기둥²⁰⁸⁾을 세운 정면 3칸·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건축이다. 이 건물은 기둥 위에 평방을 두고 거기에 주두와 좌두를 놓고 그 위에 첨차와 소로로 공포를 짜고 2제공의 양서를 둔 내외 2출목으로 쇠서의 모양은 만곡이 다소 강한 조선후기 양식이다. 공포를 정면과 배면에만 두고, 좌우 측면에는 두지 않았다. 컷기둥에는 귀솟음²⁰⁹⁾을 두었고, 架構²¹⁰⁾는 1高柱 5樑架로 內陣 高柱 사이에 토벽을 치고 그 앞에 佛壇을 설치하였다. 佛壇은 영천 은혜사 백홍암의 수미단과 같은 형태로 정교하게 조각된 것으로 그 위에 관세음보살상을 모셨으며, 불단 상부에는 寶蓋²¹¹⁾를 두었다. 천장은 우물반자로 마감하였다.

원통전 정면 3칸에는 각각 4분합 여단이 곱널 띠살문을, 좌우 측면의 첫째 칸에는 공히 3분합 여단이 곱널 띠살문을 달았다. 그리고 건물 배면에는 어칸에만 외여단이 곱널 띠살문을 시설하였다. 원통전은 다포계 법식에 주심포계의 구조법이 절충된 건축물로 송림사 대웅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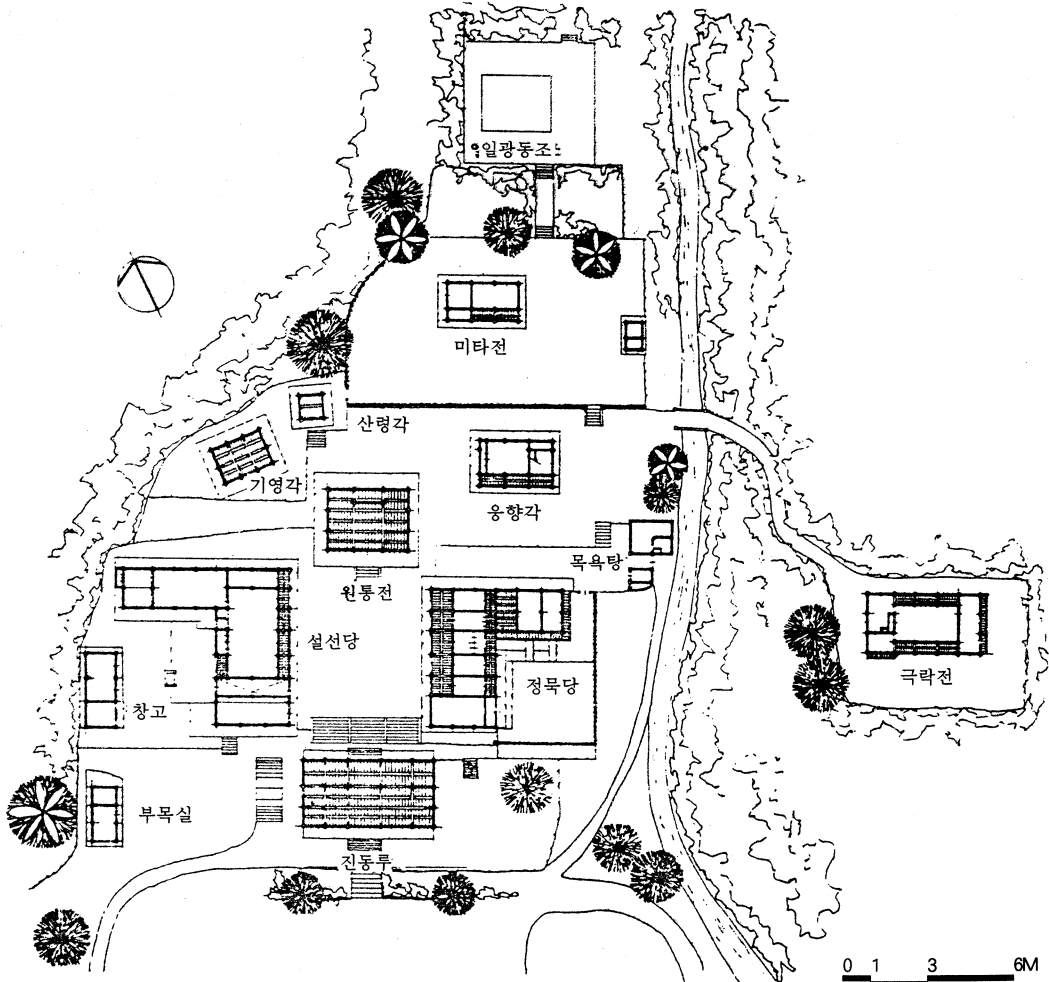
208) 원형 단면으로 된 기둥. 둥근 기둥.

209) 건물의 컷기둥을 중간의 기둥보다 조금 높게 꾸미는 것.

210) 여러부재를 결합하여 만든 구조.

211) 궁전의 옥좌 위에 씌운 천장.

함께 조선후기 절충양식 건물의 중요한 실례이다.²¹²⁾



〈圖 9-30〉

파계사 배치 평면도

祈永閣은 영조 39년(1763) 왕궁에서 需費와 完文을 내려 창건하고 고종 14년(1877) 순찰사 朴齊寅이 수리했다. 최근 1974년과 1983년 두번에 걸쳐 보수공사가 실시되었다. 이 건물은 화강석 바른층 쌓기 기단 위에 정면 3칸·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집이다. 柱心包系 건물에 翼工식이 부가된 절충형의 건물로, 막돌 덩벙주초 위에 배흘림²¹³⁾이 있는 두리기둥을

212) 대구직할시, 《문화재도록》, 1987, p.72.

213) 기둥이 아래로 부터 1/3쯤까지는 점차로 굵어 졌다가 다시 그 위로는 점차 가늘어 지는 것.

세우고 기둥 상부에는 蓮棒과 鳳頭 등을 조각한 만곡이 심한 쇠서를 두었다. 이 건물의 구조는 주심도리²¹⁴⁾와 장혀를 주두의 첨차와 소로 및 주간에 놓인 화반²¹⁵⁾과 소로가 받고, 외목도리와 장혀를 익공쇠서 위에 놓인 소로와 첨차가 받게 했다.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 양식을 잘 보여준다. 건물 바닥은 우물마루를 천장에는 우물반자를 시설했다. 건물 안 뒷벽 앞에 불단을 두고 불상을 모셨으며 뒷벽 위에는 탕화가 걸려 있다.²¹⁶⁾

說禪堂은 戒寬이 인조 1년(1623)에 짓고, 인조 24년(1646)에 중수했고, 그후 裴龍譚 주지가 1922년 중건했다. 1922년과 1973년에 부분적인 보수공사가 있었으며, 1976년 중창에 가까운 대수선 공사를 했다.

설선당은 ‘ㄱ’자형 평면의 정면 7칸·측면 7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정면 좌측부터 부엌 2칸, 대 중방 4칸, 지대방 1칸이 차례로 배치되고 지대방에서 ‘ㄱ’자로 꺾이어 부엌, 식당 3칸과 온돌방 1칸이 길게 돌출 되어 있다.

이 건물은 민도리집으로 화강석 바른층 쌓기 기단 위에 고복초석²¹⁷⁾을 놓고, 정면의 일곱개 기둥은 두리기둥으로 나머지는 네모기둥으로 처리하였다. 상부 가구는 5樑架이며, 툇마루와 방의 천장은 각기 우물반자와 종이반자로 꾸몄다. 단청은 모로단청²¹⁸⁾을 했다. 설선당은 대중



〈사진 9-76〉

파계사 기영각 정면



〈사진 9-77〉

파계사 설선당 정면

214) 기둥 위에 놓인 도리

215) 주심에서 이익공으로 짜고 창방위 중간에 얹어서 주심도리 밑 장여를 받는 초새김한 받침.

216) 대구직할시, 《문화재도록》, 1987, pp.124.

217) 북 모양으로 생긴 주춧돌.

218) 머리초만 그린 단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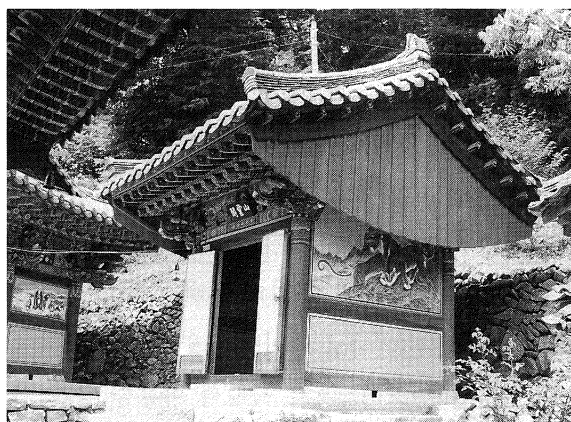
식당과 강습소로 사용되며, 구조양식과 가구수법 등이 간결하면서도 견실하다.²¹⁹⁾

적묵당은 언제 창건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현재의 건물은 肅宗 21년(1695)과 1920년에 중창된 것이다. 그후 1976년 翻瓦工事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寂默堂은 正面 6間·側面 6間 규모의 ‘ㄱ’자형 건물로, 正面에만 부연을 구성한 겹처마 팔작지붕집이다. 평면은 정면 우측부터 부엌 1칸, 객실 4칸, 사무실 1칸이 배치되고, 사무실에서 ‘ㄱ’자로 꺾이어 보칸 2칸, 도리칸 1.5칸의 마루와 2칸 온돌방이 달려 있다.



〈사진 9-78〉 파계사 적묵당 정면

이 건물의 기둥은 화강석 바른층 쌓기 기단 위에 정면 7주만 화강암 정평 초석 위에 두리기둥을, 그리고 나머지는 막돌 덩벙 주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사용했다. 구조는 기둥 위에 주두를 놓고 원형의 도리²²⁰⁾ 및 장혀²²¹⁾를 받치는 굴도리집으로, 정면에만 기둥 사이의 창방 위에 소로를 놓아 건물의 격을 높였으며, 상부가구는 5樑架이다. 이 건물은 중무소와 객실로 사용되는 소박한 조선 후기의 건축이다.²²²⁾



〈사진 9-79〉 파계사 산령각 정면 및 측면

山靈閣이 언제 건축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잘 알 수 없다. 최근 1976년 중창되고 1979년 보수공사가 실시되었다. 산령각은 파계사의 主殿인 圓通殿 뒤에 석축으로 별도의 대지를 조성하고 건축되었다. 이 건물은 정면 1칸·측면 1칸 규모의 겹처마 박공지붕집이다.

219) 대구직할시, 《문화재도록》, 1987, p.116.

220) 서까래를 걸려고 엮은 가로 놓인 부재.

221) 도리를 받치는 긴 나무.

222) 대구직할시, 앞의 책, p.120.

산령각의 구조는 화강석 정평 초석 위에 배흘림²²³⁾이 있는 두리기둥을 세운 건물로 기둥 위는 주두와 앙서, 봉두로 구성되며, 도리와 장혀를 기둥 사이에 놓인 5개의 소로가 받는 초익공 양식이다. 정면의 벽 중앙에만 쌍여닫이 곱널 띠살문을 달았다. 바닥은 우물마루를 시설하고 뒷벽에 장방형의 佛壇을 배설하고 불상을 모셨다. 가구는 간략한 3樑架이며, 천장은 우물반자로 마감했다. 건물 내·외부에는 금단청을 올렸다. 조선후기의 번잡한 장식수법이 보이는 익공계 건물이다.²²⁴⁾

鎮洞樓는 숙종 41년(1715)에 창건된 건물로, 1970년에 단청하고, 1976년에 번와하였다. 이 건물은 정면 5칸·측면 3칸 규모의 이층 루각으로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건물은 하층의 어간에 樓下 진입의 통로를 내고, 좌우 측면칸의 뒷쪽에 각각 2칸씩의 창고를 배설하였다. 윗층은 통칸을 우물마루로 꾸몄다. 진동루는 이 익공 양식의 건물로 기둥 위에는 주두를 두고 쇠서와 결구된 첨차, 소로 및 화반이 상부하중을 받도록 했다. 가구는 5樑架의 간결한 구조이나, 건물의 규모에 비해 부재가 다소 약한 감이 있다. 창호는 모두 미단이 유리문으로 개체되었으며, 천장은 연등천장²²⁵⁾이다.²²⁶⁾



〈사진 9-80〉

파계사 진동루 정면

5) 把溪寺에 소속된 암자 — 聖殿庵

把溪寺의 屬庵으로 玄應대사가 창건했다고 하나 확실치 않으며, 철종 8년(1857) 戒正上人이 修補하고, 1915년경에 중건하였다.

파계사에서 좌측으로 100m 가량을 가면 현웅대사의 암자가 있고, 성전암은 여기서 다시 북으로 1km 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 산허리에 석축을 높게 쌓아 寺域을 조성하였는데, 절 입구에 들어서면 좌측에 4칸 규모의 寮舍가 東北向으로 앉아 있고, 이 요사 우측에는

223) 기둥이 아래로 부터 1/3쯤까지는 점차로 굵어 졌다가 다시 그 위로는 점차 가늘어 지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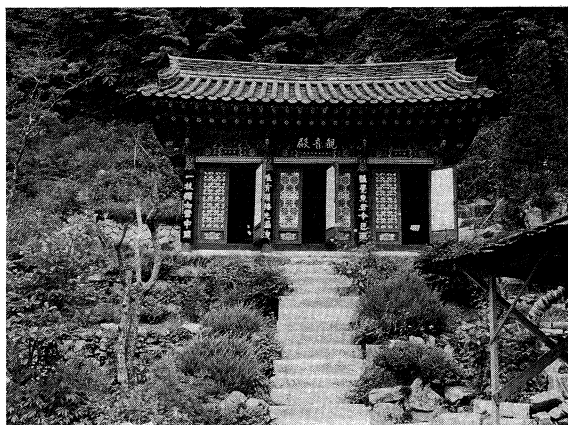
224) 대구직할시, 앞의 책, pp.118.

225) 서까래 사이의 개판 또는 앙토 밑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도록 치장된 천장.

226) 대구직할시, 앞의 책, pp.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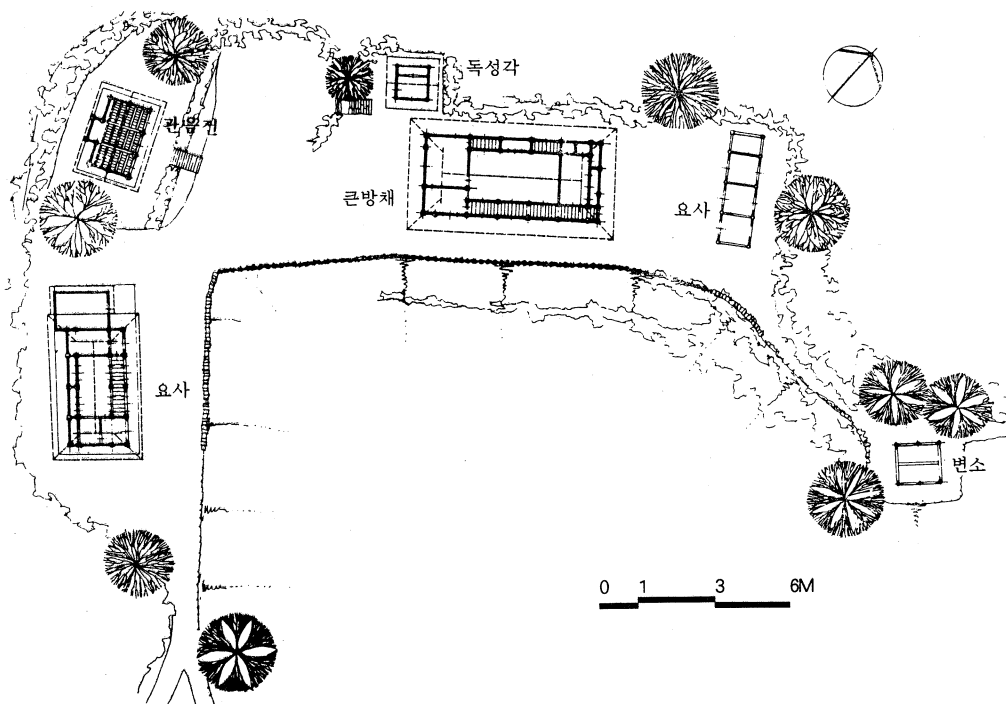
관음전이 동향하고 있다. 관음전의 동쪽에 정면 5칸·측면 2칸의 큰방채가 남동향하고 있고, 큰방채 왼편 뒤에 1칸 규모의 독성각이, 오른쪽에 정면 4칸의 요사가 배치되어 있다. 전각 배치가 정연하지 않고 질서가 없다.

주요 건물인 觀音殿은 다듬은 돌 초석 위에 두리기둥을 세운 겹처마의 팔작지붕집이다. 架構는 3樑架의 간결한 구조로 대들보 위에는 층량을 걸어 상부 하중을 받게 하고, 천장은 연등천장을 그대로 노출시켰다.²²⁷⁾



〈사진 9-81〉

성전암 관음전 정면



〈圖 9-31〉

성전암 배치 평면도

227) 대구시·경북대학교, 《八公山史蹟 地表調査報告書》, 1987, p.399.

6) 夫人寺

부인사는 동구 신무동 팔공산 남쪽 중턱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本寺인 동화사의 末寺이다. ‘符仁寺’ 또는 ‘夫人寺’라고도 일컬어진다. 현재의 부인사는 옛 부인사 경역의 뒷쪽 산밑에 자리잡고 있는 작은 절이지만 한때는 ‘고려 초조대장경’을 보관했던 호국사찰로서 매우 중요한 사찰이었다.

그러나 부인사에 관한 개창 시기나 연혁은 잘 알려지지 않아 부인사의 창건 연대와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편이다. 단지 7세기 초 창건으로 전해오고 있는 현 부인사에는 신라 선덕여왕 御眞을 모시고 매년 음력 3월 보름에 신무동 주민과 사찰측 및 慶州 金氏 宗中에서 선덕여왕 崇慕祭를 지내는 것에서 부인사의 내력을 짐작할 만 하다.

옛 절터가 지금은 포도밭으로 변해 있지만 현 사찰에서 200m 남쪽에 당간지주가 남아 있고 팔공산 순환도로 남쪽으로 추정 金堂址가 연결하고 있어 옛날 번창기의 寺域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현 부인사는 6·25동란 때 불탄 것을 1959년에 중건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僧市場이 부인사에 개설될 정도로 아주 번창했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인사의 寺名은 시대에 따라 符仁寺, 夫人寺, 夫仁寺 등으로 각기 다르게 기록되고 있어 異字同音의 별개 사찰인지 同字異音의 동일 사찰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부인사 寺名에 대한 기록으로는 《高麗史節要》에 “慶州別抄軍與永州素有隙 是月乃引雲門賊及符仁桐華兩寺僧徒攻永州”(밀줄 필자)라 한 것이 있다. 이 기록은 오늘의 영천(옛 永州)지방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자 부인사와 동화사의 僧軍이 동원되었다는 것으로 부인사가 지금의 팔공산 부근의 절임을 알 수 있게 한다.²²⁸⁾ 鄭道傳의 ‘送華嚴宗師友雲詩序’의 기록 중에도 “…住于大公山之符仁寺, 實巨刹也…”(밀줄 필자)라 하여 符仁寺가 팔공산에 위치한 거찰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²²⁹⁾ 李奎報도 ‘大藏經刻板君臣祈告文’에서 “…於是 符仁寺之所藏大藏經板本…”(밀줄 필자)이라 하여 符仁寺에 소장한 大藏經이 소실되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²³⁰⁾

한편 부인사는 고려 초조대장경의 판각처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현종 3, 4년(1013)경부터 조각되기 시작하여 숙종 4년(1099)에 완성된 총 1만 여권의 초조대장경은 처음 興王寺, 開國寺, 歸法寺 등에 봉안하였다가 그후 어느 시기에 이곳 부인사에 봉안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여

228) 《高麗史節要》, 14, 神宗 5년 12월조.

229) 鄭道傳, 《三峯集》, 3, 送華嚴宗師友雲詩序.

230)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25, 大藏經刻板君臣祈告文.

러번의 印刊이 있었다. 그후 고종 19년(1232) 몽고의 제 2차 침입시 元軍이 부인사 대장경과 황룡사 9층 목탑을 불태워버렸다.

이상의 자료들을 통해서도 符仁寺의 창건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사찰의 위치가 지금의 永川(당시 永州) 근방으로, 팔공산 동화사와 인접해 있었고 巨刹로서 고려 초조대장경을 보관하여 외침을 극복하려 했던 호국사찰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의 기록으로 夫人寺의 寺名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新增東國輿地勝覽》大邱都護府 佛宇條이다. “…夫人寺 慈華寺 把溪寺 菩提寺 俱在公山”(밑줄 필자)이라 하여 把溪寺와 같이 夫人寺란 절이 공산(팔공산)에 있었다고 하였다.²³¹⁾ 또 고종때 편찬된 大邱府邑誌 佛宇條에도 “夫人寺 在府北五十里公山 新羅善德王創建 一名大伽藍今革爲庵”(밑줄 필자)이라 하여 공산에 있는 夫人寺가 신라 선덕왕때 창건되었으며, 한때 큰 사찰이었으나 지금은 암자라고 하였다.

그후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자료에는 ‘符仁寺’ 또는 ‘夫人寺’란 寺名은 찾아볼 수 없고 동화사의 末寺로서 ‘夫人寺’란 寺名이 등장하는데, 그 소재지를 달성군이라고 하였으나 그 위치가 오늘날의 팔공산 夫人寺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9-82〉

부인사 대웅전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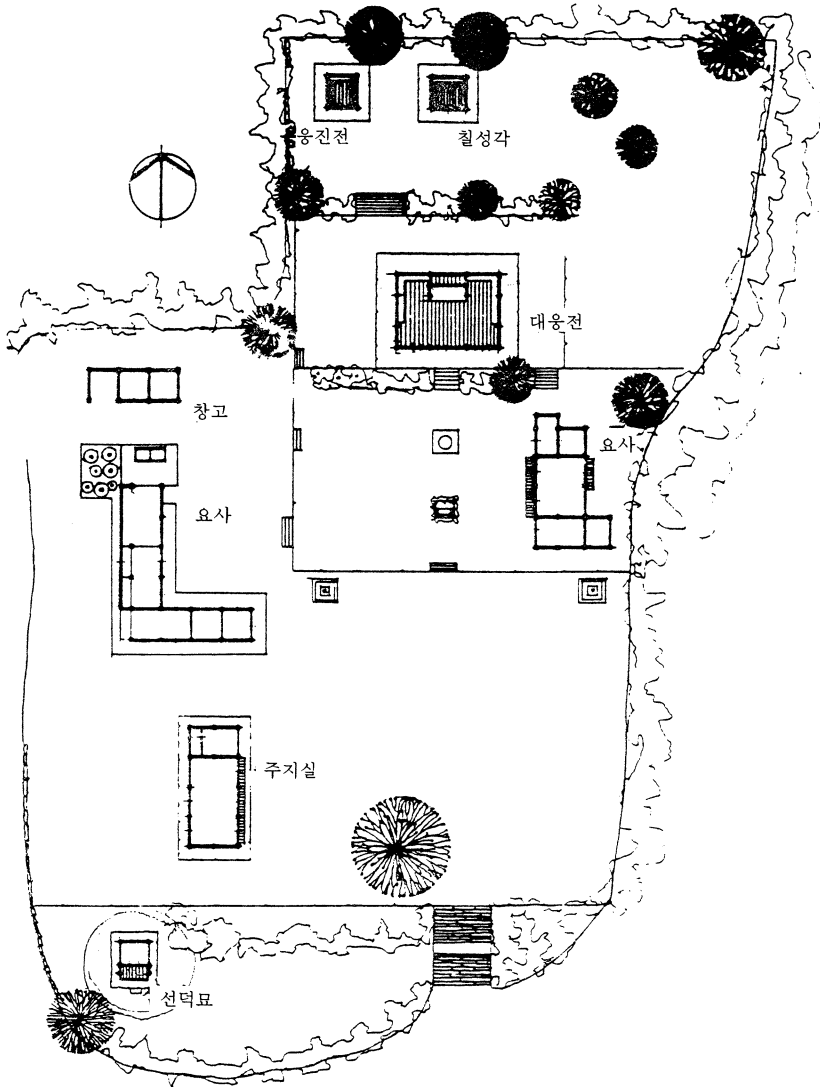
이상의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符仁寺’, ‘夫人寺’, ‘夫仁寺’란 시대를 달리하여 寺名이 바뀌었으나 팔공산에 위치한 동일 사찰임을 암시하고 있다. 지금의 夫人寺는 경작에 의해 원형이 많이 훼손되고 寺域도 많이 축소되었지만 문헌에서 살필 수 있는 부인사의 사역이 틀림없으며, 더구나 지표상에 노출된 초석과 주위에 산재하고 있는 석조물들로 보아 거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89년 7월 대구대 박물관의 1차 발굴조사시 ‘나’지구에서 정면 5칸·측면 4칸의 대규모 건물지가 조사되었는데, ‘나’지구의 주 건물지 주변의 부속건물과 함께 대규모의 건물을 세운 이유는 초조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經板庫址로 판단되었다.²³²⁾

231) 《新增東國輿地勝覽》, 26, 大邱都護府 佛宇條.

232) 대구대학교박물관, 《符仁寺址 2차 발굴조사 보고서》, 1991, pp.1~3.

현재의 부인사에는 석가모니불상과 아미타불상 및 관세음보살상을 모신 대웅전, 신라 선덕여왕의 御眞을 모신 善德廟와 2棟의 요사채가 있으며, 이중 선덕묘는 임진왜란때 불타고 일부 남았던 것을 1930년대 초에 중건한 것이다. 현존하는 문화재로는 쌍탑을 비롯하여 석등²³³⁾



〈圖 9-32〉

부인사 배치 평면도

233) 불을 밝힐 수 있게 돌로 만든 등. 일명 장명등.

당간지주²³⁴⁾ 석등대석²³⁵⁾ 배례석²³⁶⁾ 마애여래좌상등이 있다. 쌍탑 중 무너진채로 있었던 서탑은 1966년에 복원하였으며, 신라말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을 보이고 있다.²³⁷⁾

현재의 부인사는 경사진 대지에 寺域을 조성하였다. 절 입구를 들어서면 좌측에 선덕여왕의 御眞을 모신 善德廟가 있고, 계단을 오르면 넓은 마당 앞쪽에 大雄殿이 그리고 마당 서쪽에 주지실과 요사채가 자리잡고 있다. 대웅전의 뒤에는 應眞殿과 七星閣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대웅전 앞마당 동쪽에 또 한棟의 요사채가 있다.

大雄殿은 장대석 기단 위에 方形 자연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구조는 1 高柱 5 樑架이며, 대들보 위에 衝樑²³⁸⁾과 退樑을 걸쳐 좌우측 중앙의 기둥머리에 결구시켰다. 衝樑의 머리는 龍首로 장식하였으며, 退樑 위에는 동자주²³⁹⁾를 놓아 뜬창방²⁴⁰⁾을 받고 뜬창방은 중도리와 장혀를 받도록 했다. 바닥은 장마루²⁴¹⁾를 깔았으며, 천장은 중도리 사이에만 우물반자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빗반자로 마감하였다.²⁴²⁾

7) 般若寺

반야사는 대구직할시 동구 연경동 336번지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로 원래 林寶寺란 이름으로 창건하였다가 般若寺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의 절은 1950년에 지은 것이다.

把溪寺에서 좌측으로 약 2km를 간 오른쪽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般若寺는 이익공 팔작 지붕의 極樂殿과 初翼工 맞배지붕의 山神閣의 2棟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든 벽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조잡한 건물이다.²⁴³⁾

8) 冠岩寺

이 절은 대구직할시 동구 眞仁洞 산 1번지에 위치한 대한불교 태고종 사찰로 신라때 절터에 1967년 창건하였다. 冠峰 ‘石造如來坐像’ 아래에 위치한다 하여 冠岩寺라 부른다.

234) 당간을 세워 대는 기둥. 대개 좌우 두 개의 기둥을 세움.

235) 석등의 맨 위에 씌운 지붕돌.

236) 불을 켜거나 향을 피우고 또는 음식을 차려 놓은 판돌. 그 앞에서 배례 함.

23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0, 1991. p.318.

238) 한 끝은 기둥에 짜이고 다른 끝은 들보에 걸치게 된 측면의 보.

239) 지붕틀에서 대들보 위에 세우되 중도리와 중도리를 받는 짧은 기둥.

240) 용마루나 중도리의 밑에 있는 대공 또는 동자주에 가로지른 창방 그 밑에 벽이나 평행 가로재 없이 떠서 있는 창방.

241) 긴 마루널을 깎 마루.

242)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八公山史蹟 地表調査報告書》, 1987, pp.405~406.

243)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위의 책, p.411.

갯바위 주차장에서 갯바위로 가는 길의 중간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계곡의 우측에 석축을 쌓고 寺域을 조성하였다. 입구를 들어서면 넓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우측으로는 鐘閣과 宗務所가, 좌측으로 식당건물이 있다. 중앙으로 난 계단을 오르면 다시 넓은 마당이 나오고 좌우에 主持室과 寮舍가 각각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다시 반원형으로 만든 계단을 오르면 중앙에 대웅전이 자리잡고 있다.

대웅전은 장대석 기단 위에 원형 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翼工系 건물로 架構는 5樑架로 되어있다. 대들보 위에는 마구리에 龍首로 장식한 衝樑을 얹었으며, 쇠서의 모양은 뿔목과 유사한 형태로 끝부분만 연봉 등으로 조각하였다. 佛壇은 內陣柱²⁴⁴⁾에 의지하여 설치하였으며, 불단의 상부에는 寶蓋²⁴⁵⁾없이 瑞鳥만 매달았다.²⁴⁶⁾

9) 報恩寺

보은사는 대구직할시 동구 진인동 산 1번지에 있으며, 1970년에 창건된 사찰로 갯바위 입구 주차장 우측에 자리잡고 있다.

입구를 들어서면 양측에 슬레이트 지붕의 벽돌조 寮舍가 있고, 정면에는 石築을 쌓아 정면 3칸의 大雄殿을 건축했다. 대웅전의 좌측에는 冠峰 ‘石造如來坐像’을 모방한 소규모의 佛像이 있고 그 오른쪽 뒤에는 블록으로 지은 山神閣이 있다.²⁴⁷⁾

10) 隱跡寺

隱跡寺는 대구직할시 남구 봉덕 3동 산 1572번지에 있다. 이 절은 大德山 케이블카 타는 곳에서 東南向으로 280m, 大成寺에서 산길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통일신라말기 고려태조 왕건이 고려의 창업을 도모하던 중 현재의 은적사 자리에 은신하여 난을 피하였으므로 태조 18년(936)에 이를 기념하여 영조스님이 창건하였다. 重創은 인조 4년(1627)에 취감스님에 의해서 엮으며, 三創은 1947년 해웅스님이 하였다.

이 사찰내에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대웅전과 그 좌우측에 요사채가 배치되어 있으며, 창건 당시의 유물은 남아 있지 않다.²⁴⁸⁾

244) 한 건물에 기둥 열이 안쪽 2층으로 둘러져 있을 때 그 안쪽에 있는 기둥.

245) 궁전의 왕좌위에 씌운 천장.

246)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八公山史蹟 地表調查報告書》, 1987, pp.415~421.

247)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위의 책, p.422.

248) 대구직할시, 《鄕土文化遺蹟》, 1988, p.388.

11) 安逸庵

安逸庵은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동 속칭 안지랑골에 위치한다. 이 庵子는 1915년부터 尹相泰, 徐相日, 李始榮, 朴永謨, 洪宙一, 李永局, 徐丙龍, 金圭, 鄭舜永, 黃炳基, 安廓, 李亨宰, 金璣成 등이 독립운동을 계획하던 곳이다. 이들은 1915년 1월 15일 安逸寺에서 檀君聖祖를 奉祀하고 신명을 다하여 國權회복 운동에 몸 바칠 것을 서약하고, 비밀결사인 ‘朝鮮國權回復團 中央總部’를 이곳에서 조직하였다.

1919년 3월 독립만세운동이 발발하자 중앙총부에서 윤상태 등을 명하여 경남 창녕군 진동 주재소를 습격하게 하는 등 많은 救國活動을 전개했다. 윤상태는 창원에서 洞民 수백명을 모아 주재소 습격에 나섰으나 도중에 헌병대와 접전하여 많은 희생자를 내기도 하였다.

이 단체는 3 1운동 이후 여러 독립운동사건과 관련이 많았으며, 이 단체와 관련되어 구속된 사람도 徐相日의 35명이나 된다.²⁴⁹⁾

12) 天乙山 證心寺

證心寺는 대구직할시 수성구 시지동 산15번지에 있는 사찰로, 1950년 正悟和尚이 창건한 법화종계의 사찰이다. 一柱門을 들어서서 우측에 五層 石塔과 四天王像이 있는 天王門이 있으며 좌측에는 요사채가 있다. 그리고 계단 위 정면에 정면 3칸·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의 대웅전이 있으며, 우측에는 地藏菩薩과 十大天王이 모셔진 冥府殿이, 그리고 좌측에는 極樂殿이 있다. 극락전 위에는 山靈閣과 天台閣이 있다.

이 사찰은 창건연대가 오래지 않고 건물 역시 현대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나 명부전에 높이 12m, 폭 6m의 대구·경산 지방에서 가장 큰 掛佛이 보존되고 있어 주목된다.²⁵⁰⁾

2. 寺址

1) 角山洞 寺址

角山洞 寺址는 대구직할시 동구 각산동에 있다. 이 寺址는 ‘부처지 골’이라는 신라 시대 절터로서 각산 1동 뒷산에 어렴풋이 남아 있다.

현재 新羅紡織에서 운영하는 ‘신라 여자종합고등학교’의 터가 寺畚이었다고 한다. 村老들의 얘기에 따르면 절이 있던 자리에 돌이 묻혀 있는 것을 파내다가 독을 쌓기도 했다고 한다.

249) 대구직할시, 《鄕土文化遺蹟》, 1988, p.388.

250) 대구직할시, 위의 책, pp.521~522.

2) 新武洞 逸名寺址

팔공산 순환도로를 사이에 두고 夫人寺에서 약 250m 거리에 無名の 廢寺址가 방치되어 있다. 본 폐사지와 부인사와의 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래 부인사에 속한 암자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속칭 金堂址로도 불리고 있다. 현재 이 일대에는 統一新羅末期의 柱礎石, 佛坐臺, 石塔材 등이 산재하고 있으나, 오래전에 밟으로 개간되어 파괴가 심하다.

폐사지의 현상을 살펴보면 동쪽으로 낮은 구릉이 있고, 그 서남쪽으로는 金堂址로 추정되는 建物址가 있으며, 그 남쪽에는 石塔材 일부가 놓여 있다. 《考古美術》에 수록된 新羅 五岳調查團의 보고에 의하면, 1964년에 이 폐사지를 조사하면서 석탑재와 석등재를 상세히 기록하였고, 破佛頭 1軀를 수습하여 제자리에 모아 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石燈 址臺石과 일부는 최근에 隱通堂銘 浮屠와 함께 분실되었다가 다시 수습되어 부인사에 운반해 두었다.

폐사지의 가람 배치는 통일신라기의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금당의 규모는 정면 3칸·측면 2칸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²⁵¹⁾

3) 鳩岩洞 寺址

대구직할시 북구 구암동 산 52번지에 있는 鳩岩洞 寺址는 신라 시대에 雲岩寺가 있던 자리라고 전해 온다. 冠如山 岩壁 아래에는 彌勒佛像이 있으며, 옛 寺址의 축대가 아직도 남아 있다.²⁵²⁾

4) 없어진 사찰

대구 팔공산에는 옛부터 수백을 헤아리는 廢寺址가 있었다. 팔공산 남쪽 기슭 일대에도 많으며 북쪽 기슭에도 많다. 북쪽 기슭에는 예전에 팔공산에 팔만구 암자가 있었다고 전한다. 옛문헌에 나타난 없어진 사찰은 아래와 같다.

慈華寺 : 《新增東國輿地勝覽》大丘都護府 佛宇條

菩提寺 : 《新增東國輿地勝覽》大丘都護府 佛宇條

美理寺 : 《三國史記》, 《三國遺事》

清凉寺 : 《弘眞國師語錄》

悟道庵 : 《弘眞國師語錄》

悟道庵 : 《旅庵全書》伽藍考

三聖庵 : 《旅庵全書》

251)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八公山史蹟 地表調査報告書》, 1987, pp.283~283.

252) 대구직할시, 《향토문화유적》, 1988, pp.409~410.

三省庵：《大丘府邑誌》

忠孝庵：《朝鮮寺刹史料》

彌陀庵：《朝鮮寺刹史料》²⁵³⁾

VI. 傳統마을과 住居建築

1. 옷골마을

1) 옷골마을의 成立背景

大邱市 東區 屯山洞에 있는 옷골마을은 17세기초에 형성된 慶州 崔氏 集姓村이다. 마을은 대구의 동쪽에 위치하는 영남지방의 班村으로 뒤로는 八公山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마을의 앞으로는 멀리 琴湖江이 흐르고 있다. 이 마을을 옷골이라 함은 마을 주위 산에 옷나무가 많아 붙여졌으며, 한자로는 漆溪로 쓴다. 조선시대에는 解顔縣 漆溪였으며, 일제때에는 達城郡 解顔面에 속했다가 해방후 대구시에 편입되어 屯山洞이 되었다. 屯山이라 불리워진 것은 이곳에 있던 屯田에서 연유한 것이다.

최씨들이 入鄉하기 前 이 마을에는 文化 柳氏들이 거주했다고 전하나 現在는 한 집도 살고 있지 않다. 경주최씨의 옷골 入鄉祖는 임진왜란 당시 대구 義兵將으로서 전공을 세워 功臣이 된 臺洞 崔誠의 둘째아들인 臺巖 崔東集으로 이곳에 入鄉할 때가 그의 나이 40세 전후인 1625년경이라 한다.

원래 文化 柳氏들이 살고 있던 옷골에 들어온 臺巖公이 晩年에 現 達城郡 公山面 龍水洞인 當時 夫仁洞에 隱居하기도 했으나, 그 자손들은 계속 옷골에 정착 繁盛하여 先住한 文化 柳氏들을 압도 慶州 崔氏 單一 集姓村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臺巖公의 5代孫인 百弗庵 崔興遠(1706~1780)은 옷골 崔氏들이 지금도 자랑스럽게 받드는 先祖로 그가 夫仁洞에 들어가서 ‘呂氏藍田鄉約’과 朱子 ‘白鹿洞規’를 본떠 만든 ‘夫仁洞約’은 마을 洞民을 위해 만든 것으로 지금도 後孫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名文이다.

現在 이 마을은 入鄉祖의 13代孫인 崔秉瓚의 百弗古宅을 비롯한 百弗庵 先生의 不遷位 祠堂인 家廟와 入鄉祖의 別廟인 報本堂 등이 있는 宗家와 東溪亭·旌閭閣 등의 한옥들이 모여 있는 조그만 마을에 불과하다. 그러나 번성기때는 100 여戶 정도가 살았으며, 日帝 때에는

253)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팔공산 사적지표조사보고서》, 1987, p.284.

慶州 崔氏 25戶 188人, 他姓 11戶 58人 등 모두 246명이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금은 他姓은 한 집도 없이 오직 慶州 崔氏 20여戶만 남아있는 同族마을이다.

2) 옷골마을의 地理環境

옷골마을은 北으로는 八公山을 來龍으로 옥고개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동쪽으로는 儉德山 서쪽으로는 土谷嶺이 남쪽에는 琴湖江이 抱回 流下하는 마을로 3面이 산으로 둘러싸인 盆地형 마을이다. 특히 마을을 감싸고 둘러져 있는 뒷산의 정상에는 臺巖이라는 큰 바위가 있다. 臺巖 崔東集이 마을에 入鄉하기 前 당시 이곳에 거주하던 文化 柳氏들은 이 바위의 생긴 모습을 따서 生龜巖이라 불렀으며, 이쪽을 향하는 北向으로 마을의 坐向을 정했다고 전해진다.

경주 최씨들이 마을에 入鄉한 以後에는 入鄉祖의 號를 따서 바위 이름을 ‘臺巖’으로 바꾸고, 이 마을을 지키는 정신적 지주로 바위를 섬겼다. 집의 坐向등 모든 공간적 질서는 이 臺巖을 배경으로 子坐午向의 配置를 하고 있다. 당시 地官의 조언에 따라 거북(生龜巖)은 물이 있어야 생존한다고 하여 마을 입구에 물을 가두어 못을 만들었는데, 그못은 지금도 남아 있다.

마을의 동쪽에는 儉德山·儉德 藥泉·東溪 瀑布 등이 있는 언덕들이 병풍처럼 늘어서 마을을 감싸고 있고, 그 아래 東西에 각각 東溪와 西溪가 흘러 마을 入口 왼쪽에서 합류한다. 마을 뒤의 臺巖 바위에서 흘러내린 산줄기는 마을을 東西로 에워싸 내리고 양쪽 개울을 지형적인 경계로 해서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 마을 宗家인 百弗古宅은 이 마을 제일 뒷쪽 高地에 위치해 있는데, 당시 이곳을 대지로 선정할 때 地官이 종가 뒤에는 집을 짓지 말라고 했다고 전해온다. 이에 따라 종가 뒤의 넓은 평지는 과수원으로 남아 있다. 또한 地官이 “동쪽은 틔우고 서쪽을 막아라”라고 한 말을 지금까지 믿어 이 마을 진입도로의 동편은 아무 植栽없이 밭에 접하여 틔여두었다. 반면 서편에는 나무를 심어 경계목으로 하였다. 이것은 陰陽論에 근거하여 마을의 안녕과 번성을 염원한 地官의 의도였다. 즉 東을 튼다고 할 때, 東이 하루의 시작이고 陽明·帝王·出世·富貴·男자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있는 큰 소나무는 百弗庵의 祖父(現 宗孫의 10代祖)때 심은 300여년 된 큰 고목으로 M.Eliade가 주장한 중심 상징(Symbolism of Center)의 天上 또는 地下 神界를 교통하는 具體的 표현물로 볼 수 있다. 이 고목이 갖고 있는 중심성은 ‘聖的 中心’과 ‘俗的 中心’이 일치하는 ‘人間的 中心’으로 부정한 것이 마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裨補의 기능과 랜드마크(Landmark)적인 기능 및 마을 경계표시 기능의 복합적 의미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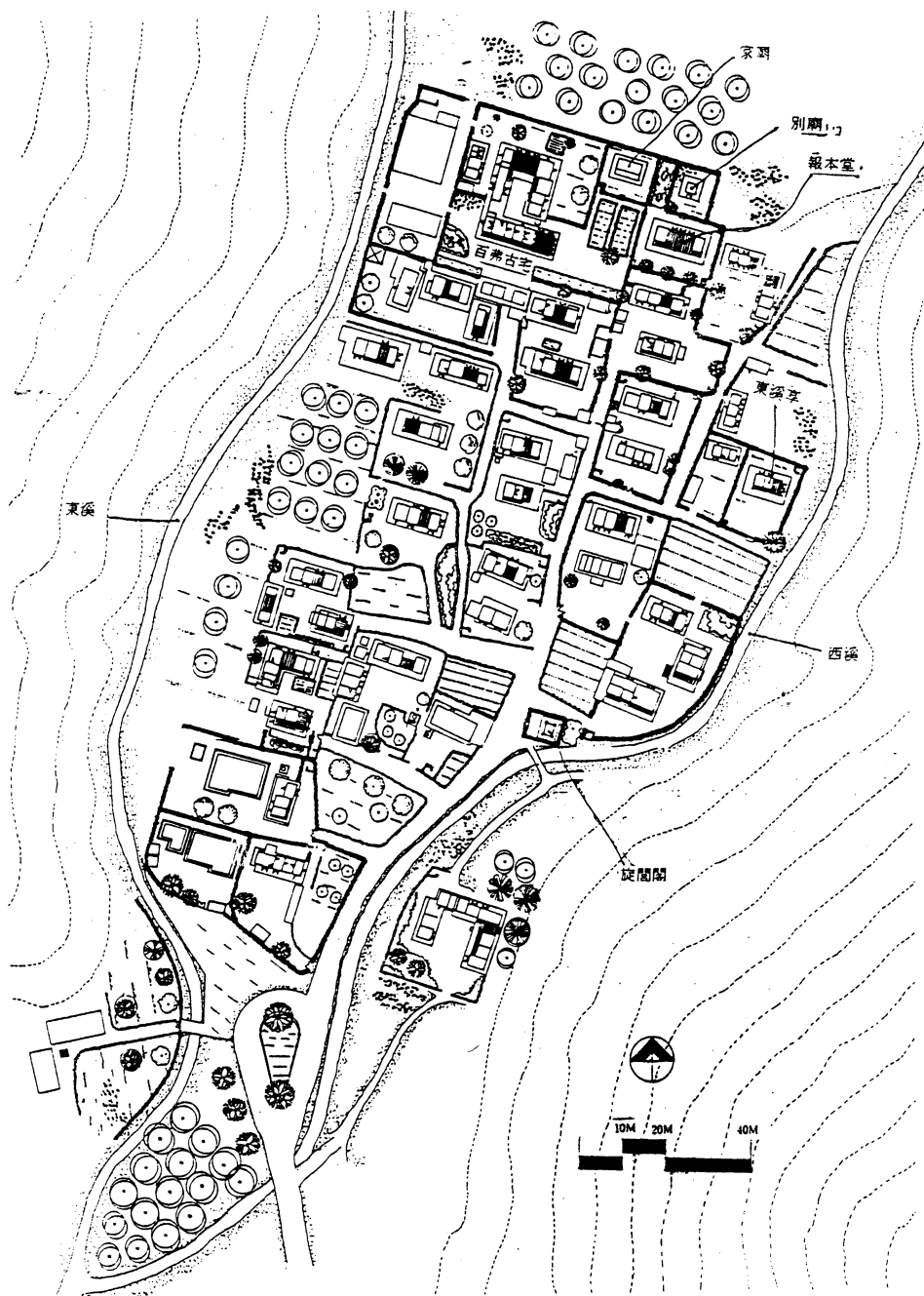
3) 옷골마을의 배치

옷골마을은 뒷산의 臺巖을 중심으로 마을 입구에 있는 古木이 마을 守護 機能과 함께 領域 性을 상징하고 있으며, 양 옆의 산들에 의해 둘러싸여 경작지인 外明堂을 포함한 3次 領域을 형성하고 있다. 東溪와 西溪가 합류한 곳을 지나 입구 고목지점에서 마을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곳까지가 2次 領域이지만 여기서는 마을의 일부 밖에 지각할 수 없다. 여기서 개울을 따라 약간 우회한 곳인 旌閭閣이 있는 데서 비로소 마을의 전체를 지각할 수 있다. 정려각 밑에 위치한 몇 채의 집이 있는 곳은 옛날에 대개 가람집이 자리하던 장소로 근년에 거의 개축한 상태이다.

마을 입구에 있는 인공 못은 전술한 바와 같이 뒷산에 있는 臺巖 바위와의 상관관계에서 축조되었다. 이는 또한 조선시대의 실학자 洪萬選이 《山林經濟》에서 말한 北의 玄武에 대응하는 朱雀의 汚池로 볼 수 있어 陽基風水의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玄武와 朱雀의 관계가 주인과 손님, 남편과 아내,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인식되는 ‘陽來陰水’ 또는 ‘陰來陽水’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옷골마을은 위로 뻗은 주진입 도로와 어귀 길로 구성된 밀집형 마을(cluster village)의 형태를 보이며 기존 마을들은 거의 남향하고 있는데 비해 旌閭閣 전면 위에 있는 崔勳永씨 집만이 약간 西向하고 있다. 이는 건축 당시 地官의 말에 따른 것이다. 처음 최씨들이 入鄕이후 얼마동안은 子孫이 귀하여 宗家와 百弗庵 先生을 奉享한 東川書院 그리고 몇채의 가람집들만이 마을에 있었다고 한다. 당시는 次子들은 분가시 마을 밖에 나가 살았는데, 百弗庵 선생의 4代孫이 되는 命德·命愚 형제 때 비로소 6형제를 두어 종가 앞에 집을 지어 分家시켰다. 이때 지은 宗家 주위의 집들은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된 一字形의 협소한 배치를 보인다. 이는 의도적으로 宗家 보다 규모가 작은 주거를 건립한데 기인하며, 또한 마을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폐쇄성에 대응하여 각 채의 개방성을 고려한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나중에 지어진 마을 앞쪽에 위치한 주택들은 一字 형태 또는 각 채가 분리된 ㄱ字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각 주택마다 菜田과 넓은 마당의 완충공간이 있어 宗家 주위의 집들에 비해 비교적 여유있는 배치를 하고 있다.

지금의 옷골마을은 입구 古木에서부터 마을이 형성되고 있으나, 실제 최씨들은 旌閭閣을 경계로 그 위쪽의 宗家 주위에 모여 살고 있다. 이것으로 한 마을 안에서도 시간을 통한 변화와 확장 및 영속적인 영역의 존재 그리고 신분에 따른 마을공간 배치상의 位階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圖 9-33〉

웃골마을 전체 배치 평면도

웃골마을의 宗家인 百弗古宅은 마을 제일 위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대개의 동족마을 경우와 같다. 宗家로부터 3~4代 아랫 세대의 주거지는 마을 아래의 平地를 향해 확장 이동하였다. 그곳은 耕地 分布地로 주택을 밀착시켜 농업경작의 利點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니나 宗家の 지위보다 지형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함으로써 崇祖와 保宗의 상징인 宗家에 敬畏心의 발로로 해석된다.

이 마을 종가 진입은 主道路에서 좁은 골목으로 격인 고살을 지나 대문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宗家 앞쪽의 동편에 百弗庵의 長子 東溪 崔周鎭을 기리기 위해 마을에서 契를 모아 지은 정면 3칸·측면 2칸의 東溪亭이 있는데, 이곳은 정자 옆의 수려한 풍광과 어울려 마을 동쪽 界面部의 節點을 이룬다.

이처럼 웃골마을은 주위의 자연적 환경에 의한 限界 및 開基 當時 地官의 독특한 입지해석 그리고 한국 古來의 風水地理說에 입각한 상징적 의미 등이 내포된 특색있는 배치구조를 보이고 있다.²⁵⁴⁾

2. 住居建築

대구지역도 다른 주변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전인 先史時代부터 사람이 살아왔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 이후 청동기와 초기철기시대 수혈주거지들만 해도 70여개소가 넘는다.

대구에서도 선사시대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1988년 3월 달서구 월성동 지역에서 선사시대 수혈주거지 2기가 경북대 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것이다. 발굴된 1호 수혈주거지의 규모는 남북 길이가 6.1미터, 동서 폭이 1.5미터, 깊이 0.3~0.5미터 정도였다. 구조는 지표면에서 0.3~0.5미터 정도를 판 말각 장방형의 수혈 주거로 출입문은 남쪽에 내었다. 2호 주거지는 대체로 동서길이 8.6미터, 남북 최대 폭이 3.7미터, 수혈 깊이가 0.4미터 정도였다. 이 주거지의 구조는 바닥 모양이 네모꼴로 추측되며 지하벽은 판자를 세워 돌렸고, 그 안쪽 둘레에 수구를 파서 배수시설을 마련했음이 확인되었다.²⁵⁵⁾

뿐만 아니라 문헌에는 원삼국시대 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後漢書》東夷傳韓條에는 이 지역에 있었던 韓의 주거형식에 대해 “성곽이 없고 土室을 만들어 거처하며 그 모

254) 李王基·朴明德, 〈同族部落 웃골마을과 白弗古宅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 5-3, 대한건축학회, 1989, pp.107~110.

255) 대구직할시, 《향토문화유적》, 1988, pp.653~655.

양이 무덤과 같고 문이 위로 나있다”(無城郭 作土室形如 開戶在上)라고 하여 수혈주거에 거처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 이와 다른 주거형식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三國志》東夷傳 弁辰條 註에 “그 나라는 옆으로 나무를 쌓아 만든 것이 있어 마치 감옥과 같았다”(魏畧曰 其國作屋橫累木 爲之有似牢獄也)라고 하여 소위 말하는 귀틀집²⁵⁶⁾이 이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전 대구지역에는 수혈주거²⁵⁷⁾와 귀틀집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先史時代 이후 古新羅·統一新羅·高麗로 이어오면서 대구지역의 주거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을 것이지만 당시의 유구들이 전혀 발굴되지 않아 자세한 모습을 살필 수가 없다. 다만 조선시대 주택들이 다소 남아 있어 이를 통해 대구지역의 전통주거 모습을 살필 수 밖에 없다.

조선시대의 주택 건축은 前時代인 고려시대까지 형성되어온 평면형식과 구조를 계승하면서 발달되어 갔다. 따라서 주택구조의 근간은 목조 가구식의 민도리집계 양식이며, 온돌과 마루라는 두 가지의 큰 바닥 요소로 특징지어 졌다.

그러나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통치 이데올로기이자 사회윤리였던 성리학이 인문 사회환경으로 기본 구조의 바탕 위에서 서서히 변화를 보게 되었다. 우선 조선시대는 家產國家로서 엄격한 신분제를 형성하여, 이것이 주택건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즉, 東·西班牙의 兩班계급, 中人계급, 庶人계급, 賤人계급으로 나누어짐으로서 이에 따라 한양 천도와 더불어 집터(家垔)의 분배에서 집 크기의 규제에 까지 여러모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집터의 크기는 태조때 보다 《經國大典》이 편찬된 때가 적어졌고, 또 집의 크기는 大君이 60칸으로 제일 컸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넘어서는 사례가 빈번하여, 종국에는 민간에서의 집 크기는 99칸을 넘지 못하고, 공포를 짜지 못하게 하였으며, 단청을 금하였었다. 그러나 이것도 권세있는 집에서는 지키지를 않아 다듬은 돌 초석들을 쓰고 또 익공을 짜, 민도리집²⁵⁸⁾이 아닌 包作집을 지었던 것이다.

다음 崇儒정책에 따른 家父長的인 대가족제도의 형성으로 한 주거내에서 家長을 중심으로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또 長子の 위치가 조선 중기 이후에는 확고하게 되어 士大夫家에서는 家長의 공간(큰사랑)과 長子の 공간(작은사랑)이 별개 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했다. 또 대가족제와 조상숭배 사상은 주택내에 家廟를 건축케 함으로서 동일 주거내에

256) 통나무 또는 죽죽재를 가로 포개어 쌓아 올려서 벽체를 꾸민 집.

257) 수직으로 땅을 파서 위를 가리고 살던 움막집.

258) 소로나 도리 밑 장여를 쓰지 아니하고 네모 도리로 꾸민 집.

生者の 공간과 死者의 공간(祠堂)이 생기게 되었다.

儒學이 사회구조의 기반이 됨에 따라 남녀 구별이 엄격하게 됨으로서 소위 內外法이 생겨 같은 주거 내에서도 남성을 위한 공간과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분화되었다. 즉 서민주택에서는 사랑방과 안방으로, 중상류 주택(중인과 양반계급)에서는 사랑채와 안채로 크게 나누어졌으며, 더욱이 변소마저도 外厠과 內厠으로 나누어 지게 되었다. 특히 태종 때에는 ‘夫婦別寢’을 명할 만큼 사랑채에 寢房을 두어 주인은 이곳에서 평상시 취침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일찌기 삼국시대부터 민간에 뿌리를 내렸던 ‘陰陽五行論’과 ‘風水 圖讖思想’이 더 한층 삼화되어 집터를 고른다든가, 집을 지을 때 풍수도참설을 따르게 되었다. 風水 圖讖은 風水地理說과 圖讖이 합치된 것으로 집터와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한 陽宅論과 장래에 일어날 일을 상징 암시해 주는 圖讖思想이 결합해 나온 것이다. 따라서 좋은 집터를 잡거나, 좋은 묘지를 선택함으로써 좋은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언해 주는 것이다.²⁵⁹⁾

조선시대 주택평면은 한반도가 다양한 기후지역을 이루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서로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안방·대청·부엌의 세 가지 특징있는 공간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평면모양이 달라지게 된다. 대구의 주택은 경상도·전라도 일대에 분포된 남부지방형에 속하며 부엌, 방, 대청, 방의 순의 一字形으로 배열된다. 같은一字形 주택인 평안도 지방형과 다른 점은 대청이 있음인데, 이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있고 신분이 높은 班家は ㅍ口字형으로 짓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주택은 부엌·방·마루·방의 一字形 주택으로 지어졌다.

조선시대 대구지방에도 상당수 주택이 건축되었던 바 이중 대표적인 실례를 골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세기 以前の 住居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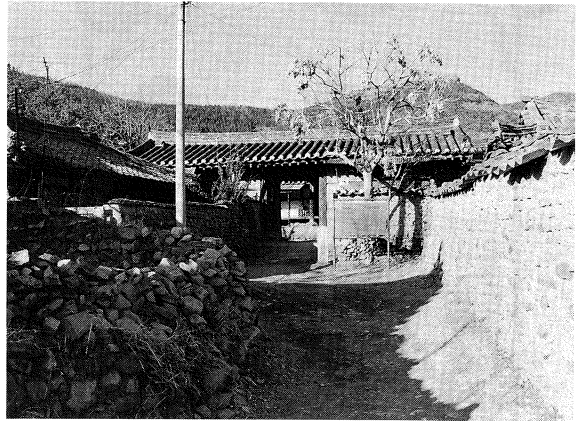
(1) 白弗古宅(慶州 崔氏 宗家)

白弗古宅은 대구직할시 동구 둔산동 386번지에 소재하는 조선시대 전형적인 士大夫家로, 현재 대구시 민속자료 1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이 집은 대구지방에 현존하는 조선시대 士大夫家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경주 최씨 匡靖公派의 시조인 崔鄴의 후손인 인조 때 학자 臺巖 崔東集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지은 주택이다. 崔東集은 인조때 文臣으로 당시 大君을 맡아 가르치던 大君師傅을 지낸 분으로 그의 나이 30세되던 광해군 8년(1616)에 이곳 옷골(漆溪)에 정착하여 살았다. 옷골마을은 경주 최씨들이 동족마을을 이루며 살아오고 있는 대구지방의 이름난 班村으로 전술한 바와 같다.

259) 대한민국예술원, 《한국미술사》, 1984, pp.522~524.

이 집의 정침은 최동집의 아들이 숙종 20년(1694)에 지은 것이며, 사랑채는 고종 42년(1905)에 증건한 것이다. 정침 동쪽에는 臺巖 崔東集을 추모하는 報本堂이 있는데, 이는 영조 18년(1742)에 지은 것이다. 報本堂 뒷편에는 朝廷에서 不遷位로 지정한 崔東集과 崔興遠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고종 33년(1896)에 건립한 家廟와 別廟가 있다. 특히 百弗庵 崔興遠은 이름난 효자였을 뿐만 아니라 빈민구제와 洞約을 통한 주민의 교화와 상부상조 정신 고취에 힘쓰신 분으로 유명하다.

이 집의 正寢은 臺庵의 손자인 慶涵(1663~1699)公이 肅宗 20年(1694)에 創建하여 150년 전에 重修하고, 76년 전에 再建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文化財指定事業으로 補修하였다. 白弗古宅의 사랑채는 대원군 당시의 書院 철폐령에 의해 東川書院이 훼손되면서 東川書院의 일부 舊材를 이용하여 高宗 42年(1905)에 사랑채를 증건하였다.



〈사진 9-83〉 백불고택으로 통하는 고샅과 대문채

이 밖에 정침 동쪽에 있는 報本堂과 別廟는 최동집(1586~1661)을 추모하기 위하여 영조 18년(1742)에 崔興遠(1705~1786)이 건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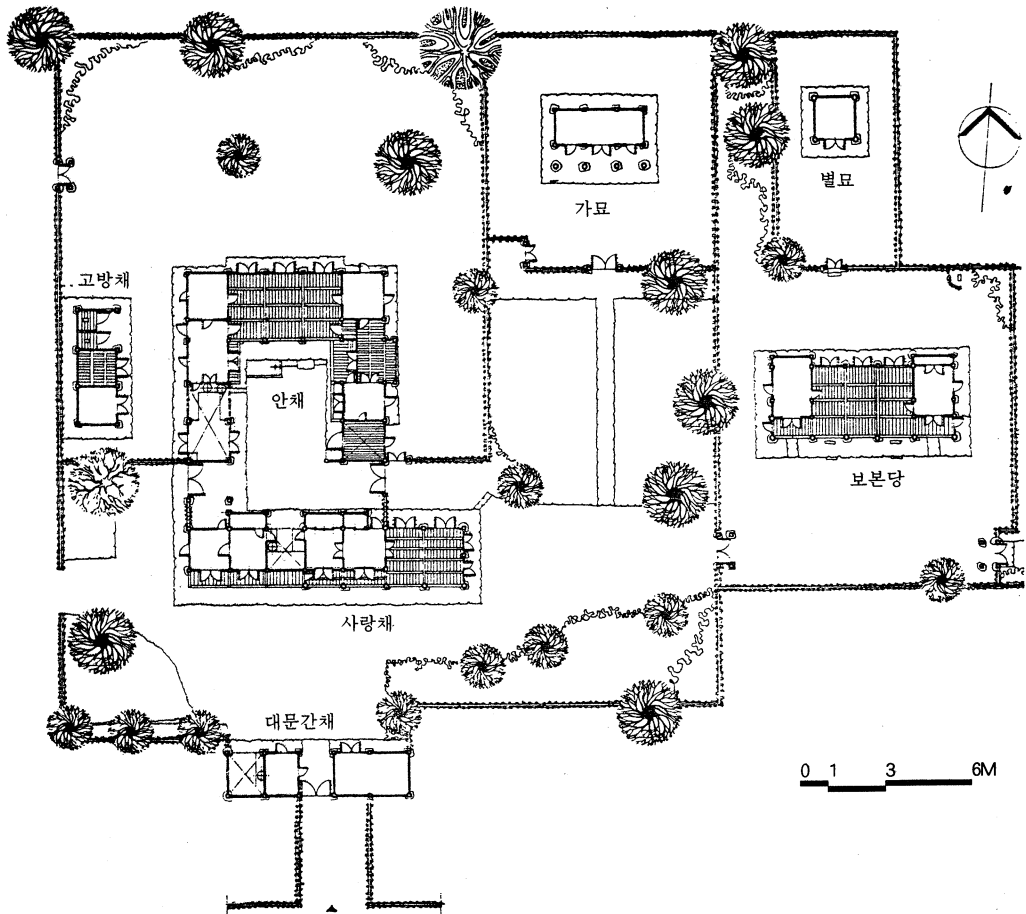
정침은 가운데 넓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로 방과 부엌, 곳간 등이 쪽마루로 연이어져 있는 ‘ㄷ’ 형태로 一字形의 사랑채와 합해튼 口字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옷골 마을에선 宗家만이 유일하게 口字 배치를 하고 있다. 口字形의 집은 협소한 대지에 최대한 복합적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 중부지방 및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연한 영남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大農形式의 住居形이다.



〈사진 9-84〉 백불고택 정침모습

이 집은 나중에 사랑채를 증축하면서 橫的으로 확장 가능한 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縱的인 배치를 하였다. 이같은 주거배치는 宗家로써 공간이 깊어짐에 따라서 느끼는

경건함과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채를 외부로 개방하고 안채는 口字 폐쇄공간에 배치하여 남녀 생활공간을 분리한 内外法에 의한 결과라 하겠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배경, 엄격한 도덕성, 山으로 둘러싸인 공격적 외부환경 등에 대한 對應 및 順應에 따른 形態的 표현으로 볼 수 있다.



〈圖 9-34〉

백불고택 배치 평면도

정침은 사랑채와 붙은 東西 두 中門만을 통해 出入하도록 하여 개방적인 사랑채와는 일단 絶緣을 시도하고 있다. 정침은 門형으로 중앙에 안마당 폭 가득히 3칸 대청이 놓이고 그 좌우에 접하여 兩翼舍가 돌출되어 있다. 기단은 막돌로 쌓았고 막돌 초석 위에 네모 기둥을 세웠으며, 대청 상부 架構는 3樑架로 사다리꼴 板臺工을 세우고 마루도리를 받았다.

사랑채는 정면 2칸·측면 2칸으로 우측 4칸通에 온돌방 2칸과 대청 2칸이 연이어 있다. 그

리고 좌측 3칸은 76年前 重修時 헛간을 改造하여 중사랑채로 쓰고 있는데, 큰사랑채와는 前退로 통하게 되어 있다. 구조는 모르타르 마감한 막돌 허튼층 쌓기 기단 위에 기둥을 세운 팔모 도리집으로 대청 상부는 3樑架로 구성되었다.²⁶⁰⁾ 무엇보다 사랑채는 圓柱와 角柱를 혼용한 것이 특색이다. 대청과 방이 접합되는 前退 기둥은 8角柱를, 대청 우측의 앞쪽에는 圓柱를, 중간에는 8角柱를, 뒷면에는 4角柱를 각각 사용한 것이다. 즉 마루에는 圓柱를 온돌방에는 角柱를 쓰고 있는데, 즉 동일 건물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다른 모양의 기둥을 쓴 것은 ‘天圓地方’의 철학적 개념을 조영물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사랑마루 전면에는 ‘百弗古宅’이란 扁額이 걸려 있고 뒷벽에는 ‘數咎堂’이란 편액이 걸려 있다.



〈사진 9-85〉

백불고택 사랑채 모습

사랑채 東便 옆으로는 마당을 사이에 두고 ‘報本堂’이 있는데 250年前 別廟와 함께 건립되었으며, 정면 5칸·측면 2칸의 無高柱 5樑집이다. 중앙의 3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방 1칸씩을 두었다. 대청 좌우의 방 상부에는 대청쪽에 개구부를 둔 庫物을 두고 있다. 庫物은 집의 귀중품을 놓아두는 곳으로 필요시 사다리를 이용하여 출입토록 되어 있다. 報本堂은 入鄉祖 제사와 門中 宗會시 주로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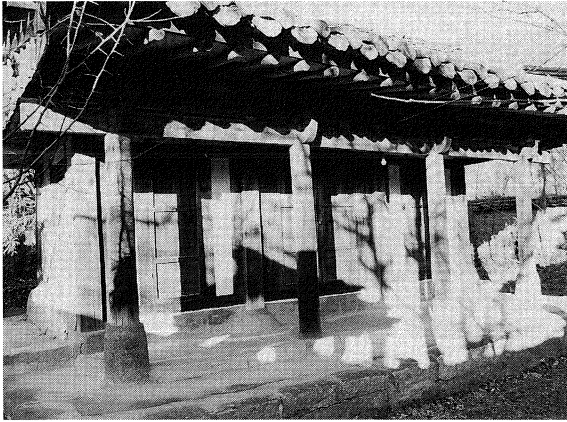
〈사진 9-86〉

백불고택 보본당

報本堂은 약 1尺半 높이의 막돌 허튼층 쌓기 기단 위에 절단된 원추형 초석을 놓고 사랑채처럼 圓柱와 角柱를 혼용하였다. 대청 앞에는 들어열개 창을 달았고 柱頭에는 초각된 보아지와 花斗牙를 만들어 옆의 정침과 비교해서 장식적으로 꾸몄다. 지붕 4隅의 추녀에는 活柱를 세웠다. 活柱 초석은 높이 1.5尺에 팔각으로 되어 있어 方(땅=

260) 대구직할시, 《文化財 圖錄》, 1987, p.92.

基壇)과 圓(하늘=기둥)의 순응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당 우측 구석에는 2尺 정도 높이의 香燭台 둘이 있다.



〈사진 9-87〉

백불고택 가묘

報本堂 뒤에는 入鄉祖인 臺巖先生을 모시는 정면 1칸·측면 1칸의 別廟가 있는데 출입문 위에는 태극 모양의 花盤이 있는 3樑架의 2翼工집이다. 살림채와 報本堂 중간 뒤에는 百弗庵의 不遷位 祠堂인 家廟가 있다. 家廟는 안채와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물로 정면 3칸·측면 1칸 반이다.

百弗古宅의 造營에서 나타난 특성은 다른 班家보다도 특히 儒學思想과 陰陽思

想이 공간구성에 잘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즉 배치에 있어서 家廟와 別廟 報本堂으로 이루어지는 일곽의 敬空間은 陽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東쪽에, 이에 대비되는 俗的인 생활공간은 陰의 상징적 장소인 西쪽에 각각 布置한 것이다.

한편 敬의 공간은 白弗古宅 뒷산에 위치한 臺巖을 정점으로 報本堂과 직선 상에 別廟를 배치하여 유학적 교훈이 공간적 질서로 나타나도록 했다. 이것은 報本堂이라고 하는 儒敎的 실천공간에서 비롯된 경외심이 別廟를 매개로 하여 臺巖까지 연결되므로서 ‘內世 空間(先祖)’과 ‘現世 空間(後孫)’이 서로 관념적으로 상통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²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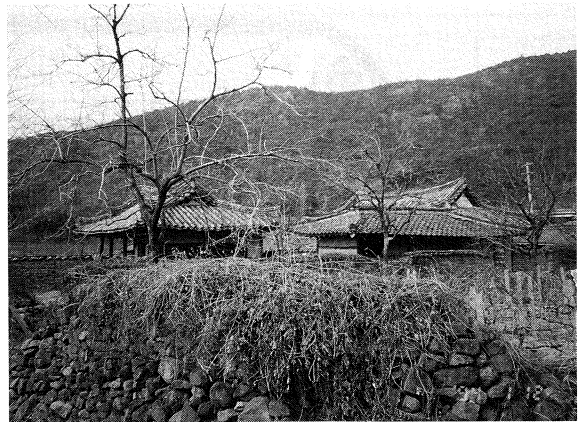
(2) 蔡鍾瑞 주택

대구직할시 동구 지묘동 1146에 있는 민가로 120여 년 전 蔡炳祖씨가 건립한 것이다. 사랑채에 걸려있는 九岡堂이란 堂號는 소유자의 부친인 채만기씨의 글씨이다.

이 집은 세로로 긴 장방형의 대지(372평)에 사랑채·안채·아래채·고방채를 튼 口자형으로 배치하였다. 원래 사랑채 앞쪽에 四柱門이 있었으나 근년에 헐려 버렸다. 사랑채와 안채가 앞뒤로 배치되고, 안채 좌우측에 각각 고방채와 아랫채가 모로 배치되어 반듯한 안마당을 형성하였다.

261) 李王基·朴明德, 〈同族部落 옷골마을과 白弗古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5-3, 대한건축학회, 1989, pp.110~112.

사랑채는 정면 4칸·측면 2칸 규모의 와가이다. 평면은 전면 퇴칸을 마루로 개방하고 뒷쪽에 각각 서고와 2칸 온돌방 및 대청을 두었으며, 맨 좌측에는 툇마루 보다 단을 한 단 높여 누마루를 만들고 觀水軒이라 편액하였다. 가구는 막돌 허튼층쌓기²⁶²⁾ 한 세 벌대 기단 위에 네모기둥을 세운 5樑架로, 충량²⁶³⁾ 위에 外機를 짜고 우물반자를 설치하였다. 지붕은 흘쳐마에 팔작지붕²⁶⁴⁾이다. 전체적으로 19세기말 양반가의 사랑채 모습을 잘 보여준다.



〈사진 9-88〉

채종서 주택 전경

안채는 정면 5칸·측면 1칸반 규모의 瓦家로, 좌측으로부터 부엌·온돌방·대청·윗방이 병렬로 연결되었다. 앞쪽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에 개방된 마루를 시설하였다. 이 집은 부엌이 전면 에 위치하지 않고 툇마루 뒤에 놓이며 따라서 부엌 출입을 위한 부엌문도 측면에 위치하는데, 이는 19세기말 한옥에서 더러 산견되는 예이다. 가구는 막돌 허튼층 쌓기한 세 벌대 기단 위에 네모기둥을 세운 5량가로, 종보 위에 높은 제형 판대공²⁶⁵⁾을 세우고 마루도리를 받게했으



〈사진 9-89〉

채종서 주택 사랑채



〈사진 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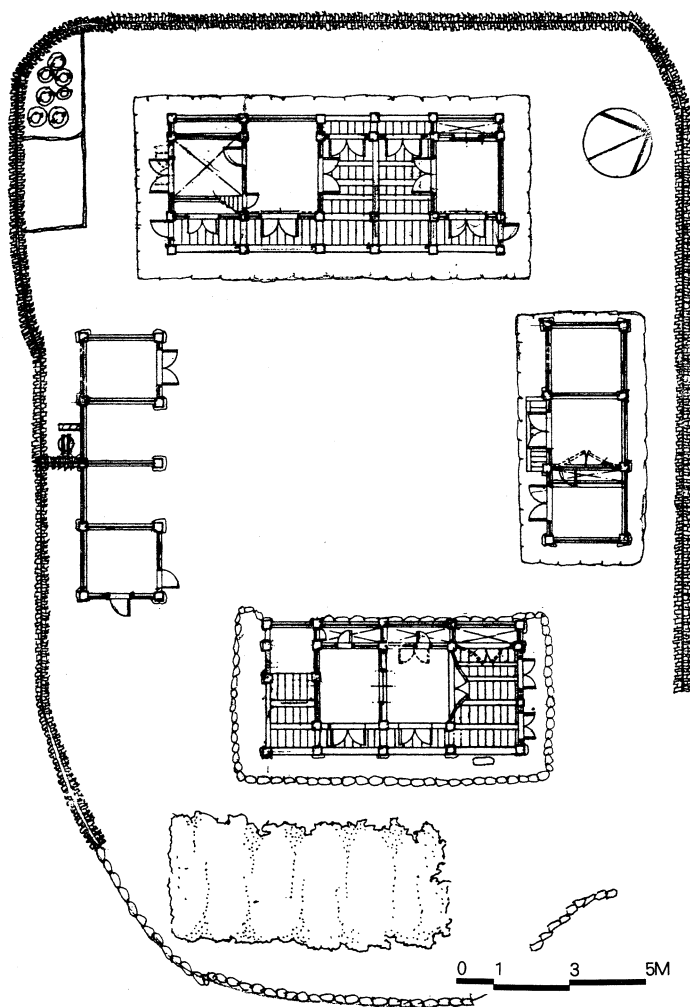
채종서 주택 안채

262) 불규칙적으로 쌓는 방식.

263) 한 끝은 기둥에 짜이고 다른 끝은 들보에 걸치게 된 측면의 보.

264) 완각이 합각벽으로 된 지붕.

265) 마름모꼴의 판대공.



〈圖 9-35〉

崔鍾寺 주택 배치 평면도

며, 전반적으로 부재가 넉넉하고 결구가 견실하다.

마주보고 배치된 아랫채와 고방채 중 아랫채는 정면 3칸·측면 1칸으로 가운데 온돌방을 좌우에 각각 뒤주와 부엌을 두었고, 고방채는 정면 4칸·측면 1칸으로 가운데 2칸 헛간을 두고 좌우에 방과 고방을 배설했다.

(3) 崔德敎 주택

대구직할시 동구 지묘동 768번지에 소재 하는 이 가옥은 100여년 전 현재의 소유자 崔德敎

씨의 4代祖가 건립한 것이다. 그 당시 白米 千石을 생산하여 巨富의 집이라 불렀다고 한다.



〈사진 9-91〉 최덕교 주택 안채



〈사진 9-92〉 최덕교 주택 대청 상부

대지 246평에 안채 1동과 스테이트 건물 1동이 남아 있다. 본래 대문채와 이어진 사랑채가 앞쪽에 있었으나, 45여년 전 家勢가 기울어 매각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南向한 안채와 東向



〈사진 9-93〉 최덕교 주택 아랫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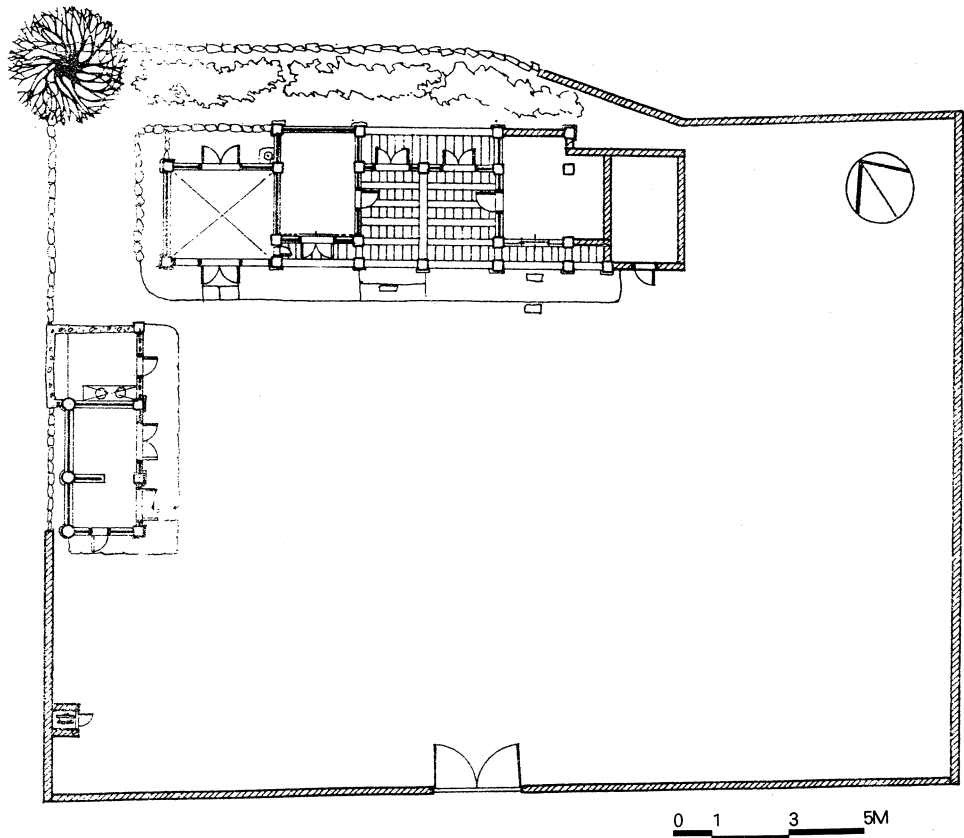
한 아랫채가 튼 ㄱ字形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정면 5칸·측면 1칸 반 규모이다. 평면은 가운데 2칸 대청을 두고 좌측에 부엌 안방을, 우측에 상방을 각각 배설하였으며, 상방 우측의 고방은 시멘트 블록으로 근년에 증축한 것이다. 전면에는 전퇴를 두고 마루를 시설하였다.

이 집의 구조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기단 위에 네모 기둥을 세운 간단한 3樑架로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세우고 마루도리를 받게

했다. 지붕은 흙처마에 맞배지붕²⁶⁶⁾으로 물매가 완만하다.

아랫채는 정면 3칸·측면 1칸으로, 좌측에 2칸통의 온돌방을 두고 우측에 1칸 크기의 부엌을 배설하였다. 본래 草家였던 것을 근년에 스테이트 지붕으로 바꾸었다.

266) 지붕의 완각이 막갈라진 지붕.



〈圖 9-36〉

최덕교 주택 배치 평면도

(4) 金斗福 주택

대구직할시 동구 도동 673번지에 소재하는 이 가옥은 현 소유자 김두복씨의 祖父가 경주에서 移住하여 현 위치에 건립한 草家이다. 이 집은 80여년 된 남향 집으로 3棟의 건물로 이루어졌다.

대지 29평에 건평 12평으로 안채 3칸(6평), 사랑채 2칸(4평), 헛간 1칸(2평)의 규모이다. 울타리는 돌담이다.

(5) 崔在哲 주택

대구직할시 달서구 대곡동 541번지에 있다. 이 가옥은 1840년경에 건립한 것으로 현 소유자의 祖父가 매입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垓地 116평에 草家 1棟, 木造 瓦家 2棟, 기타 1棟의 건물이 있다. 정침은 4칸(8평)규모의 南向한 草家, 사랑채는 4칸(6평) 규모의 瓦家 그리고 大門間이 1칸(2평)이다. 담장은 맞담이다.

(6) 최세돈 주택

대구직할시 동구 둔산동 384번지에 소재하는 이 가옥은 현 소유자인 최세돈씨의 6代祖인 崔命愚가 지은 건물이다. 200 여년 前에 건축한 南向 집인데, 40여년 前 행랑채와 사랑채가 畵절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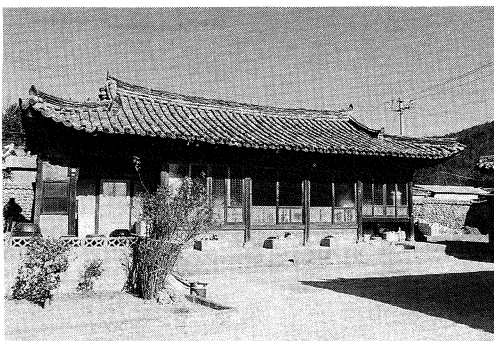
현재 집은 2棟으로서 건평 18평 규모의 瓦家가 200평 대지 위에 세워져 있다. 안채는 5칸 (10평), 사랑채는 4칸(8평) 규모이다. 담장은 石築담이고,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2) 20세기 以後의 住居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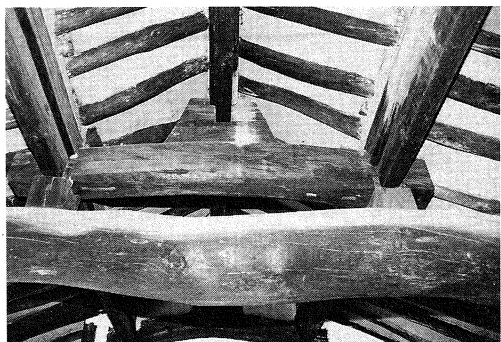
(1) 金和燁 주택

대구직할시 북구 조야동 127번지에 있다. 이 가옥은 소유자 金和燁씨의 3代祖가 건립한 20 세기초의 상류주택이다. 이 집은 대지 350평에 대문채 안채 중사랑채가 튼 口자형을 이루고, 그 앞에 좀 떨어져 사랑채가 배치되어 있는 瓦家이다. 서쪽에 있는 대문간을 들어서면 정면 안마당 맞은편에 ㄱ자형 중사랑채가 있고,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와 사랑채가 남향하여 나란히 배치되었다.

안채는 정면 5칸·측면 1칸반의 규모로 가운데 2×1.5칸의 큰 대청을 두고 그 좌우에 온돌방을 대청으로 배설하였다. 前退에는 길게 개방된 툇마루를 시설하고 유리창을 달았다. 좌측 온돌방에 붙여 부엌을 배치하고 그 상부에 다락을 두었다. 구조는 장대석 외벌대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운 5樑架로, 종보 위에 원형 판대공을 놓고 마루도리를 받게 했다. 지붕은 홑처마에 물매가 약한 팔작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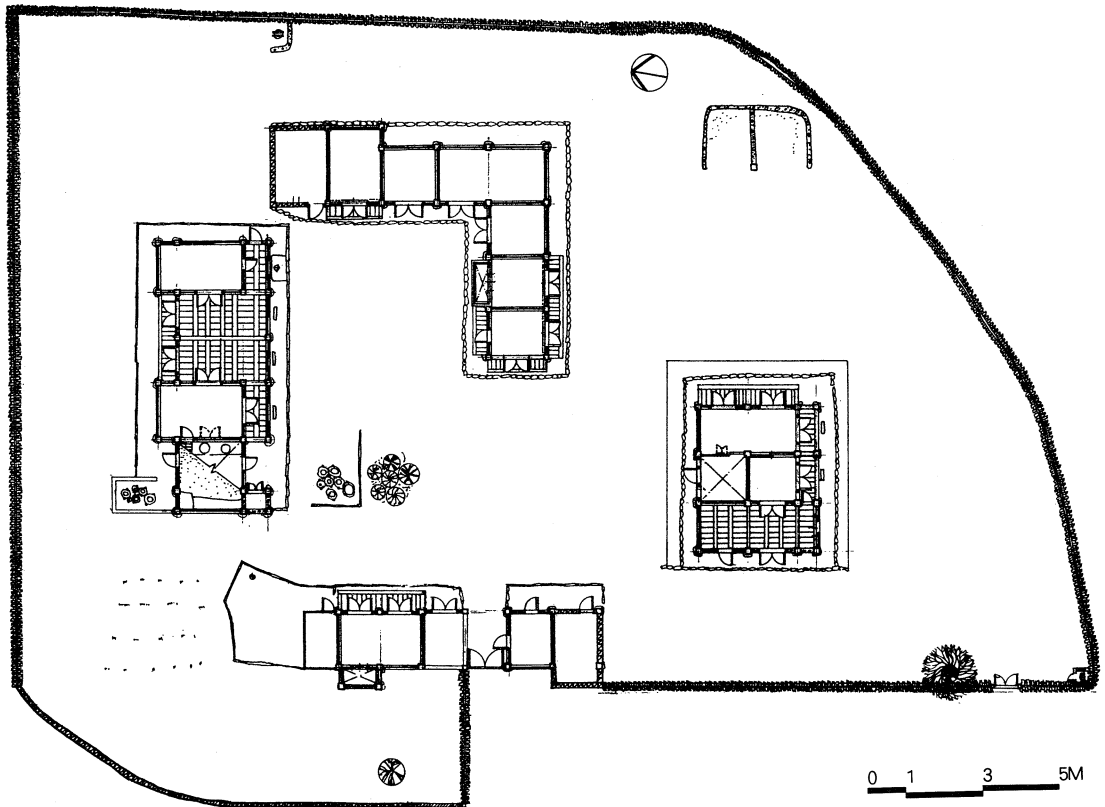
〈사진 9-94〉 김화엽 주택 안채 정면



〈사진 9-95〉 김화엽 주택 안채 대청 상부가구

사랑채는 정면 3칸·측면 2칸반의 겹집으로 좌측에 2칸통의 누마루 형식의 마루방을 두고,

우측에 사랑부엌과 사랑방을 배설했다. 사랑방 앞과 우측에는 반칸 폭의 개방된 툇마루를 두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구조는 장대석 외벌대 기단 위에 네모기둥을 세운 5樑架로 치목과 결구에 짜임새가 있다.



〈圖 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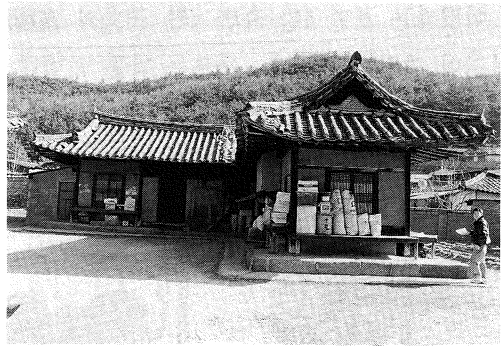
김화염 주택 배치 평면도

중사랑채는 정면 4칸·측면 4칸의 ㄱ자형 건물로 서측 끝에 각 1칸의 온돌방 2칸과 부엌을 두고, 부엌에서 꺾어 북측으로 고방 2칸과 부엌·온돌방·창고를 배설하였다. 창고는 지붕 밑에 시멘트 블록으로 달아내어 만들었다. 온돌방 앞에는 출입을 위해 작은 툇마루를 두었다.

大門채는 정면 6칸·측면 1칸의 비교적 규모가 큰 瓦家로 東向하고 있다. 평면은 좌측부터 창고·방·대문간·고방·방을 병렬로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단아하고 짜임새가 있다. 담장은 맞담 위에 기와를 덮은 형태이며, 집 안에는 100년 된 오동나무 1그루가 서 있다.



〈사진 9-96〉 김화엽 주택 사랑채 정면



〈사진 9-97〉 김화엽 주택 중사랑채

이 집은 대구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20세기초 한옥 중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평면 및 입면 구성 등에서 시대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수작으로 평가된다.

(2) 李景雨 주택

대구직할시 동구 송정동 600번지에 소재 하는 이 가옥은 1905년에 현 소유자 李景雨씨의 2代祖 李奎哲씨가 건립한 것이다. 지은 후 3차례 重修했으며, 百石君의 집이었다고 한다.

垆地 150평에 안채·아랫채·고방채 3棟이 ‘門’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안마당 너머 안채가 南西向하여 앉아 있고, 그 앞에 아랫채와 고방채가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안채는 정면 4칸·측면 1칸의 규모의 평기와를 올린 와가이다. 평면은 좌로부터 부엌·안방·마루·건넌방이 차례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남부지방형 평면과 같다. 구조는 제법 큰 막돌 외벌대 기단 위에 초석을 놓고 네모 기둥을 세운 간단한 3樑架이다. 재목이 가늘고 치목수법이 건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건축적 특징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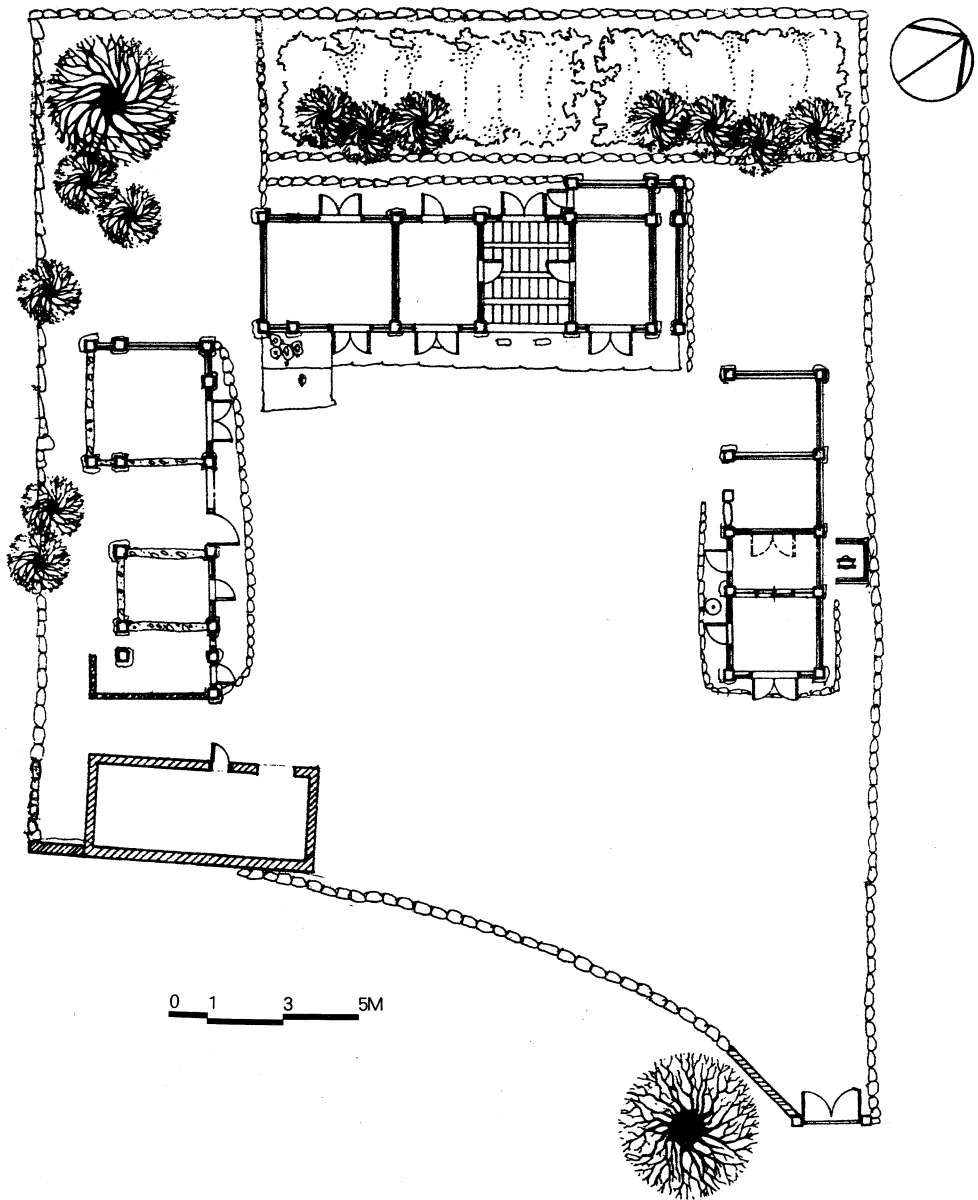
〈사진 9-98〉 이경우 주택 안채 정면



〈사진 9-99〉 이경우 주택 안채 부엌 상부구조

아랫채는 정면 4칸·측면 1칸 규모의 南西向 건물로, 오른쪽으로부터 온돌방 2칸·외양간·방아간이 연결되어 있다. 구조는 막돌 외벌대 기단 위에 네모 기둥을 세운 간략한 3樑架이다.

고방채는 정면 4칸반·측면 1칸으로 왼쪽부터 온돌방·헛간·고방이 연결되어 평면을 구성하였고, 왼쪽 온돌방에 붙여 鷄舍를 두었다. 구조는 간단한 3樑架이며, 담장은 돌담이다.



〈圖 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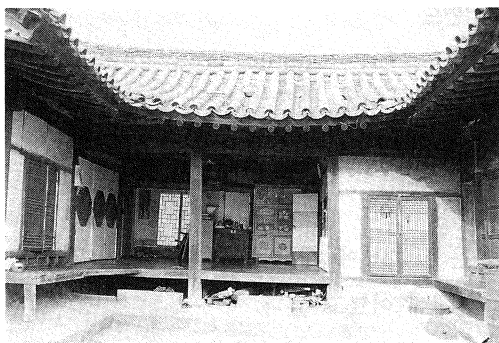
이경우 주택 배치 평면도

(3) 蔡孝基 주택

대구직할시 동구 미대동 236번지에 있는 이 가옥은 1904년에 대구 富豪 鄭在學이 건축한 것이다. 1940년에 채효기씨의 조부가 買入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지 139평에 門자형 木造 瓦家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정면 5칸·측면 4칸의 건물로 가운데 2×1.5칸의 넓은 대청을 두고 왼쪽에 큰방과 작은방을, 오른쪽에 사랑방과 두지·뒤주 등을 대청으로 배설하였다. 양쪽 翼舍 중 좌측에는 큰방과 부엌을, 우측에는 각 1칸씩 사랑마루와 누마루를 꾸몄으며, 부엌 위에는 큼직하게 다락을 만들어 수장공간으로 쓰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때 단일 건물내 대청을 중심으로 왼편을 여성들의 안 공간으로, 오른편을 남성들의 사랑 공간으로 구성한 것이다. 조선시대 內外法에 따른 男女 생활공간의 격리를 지키면서 공간구성을 기능적이고 짜임새 있게 처리한 좋은 예라 하겠다. 또한 사랑방과 침방 뒤편에 두지와 뒤주를 둔 것이라든가 큰방과 사랑방 가운데 4짝 미서기를 시설하여 공간의 전용성과 기능성을 도모한 것도 돋보인다. 사랑 침방과 큰방이 대청과 접하는 경계에는 4짝 분합문을 달면서도 불발기 모양을 다르게 했다. 즉 사랑침방쪽에는 정사각형 불발기를, 큰방쪽에는 팔각형의 불발기를 만든 것도 재미있다.



〈사진 9-100〉 채효기 주택 안채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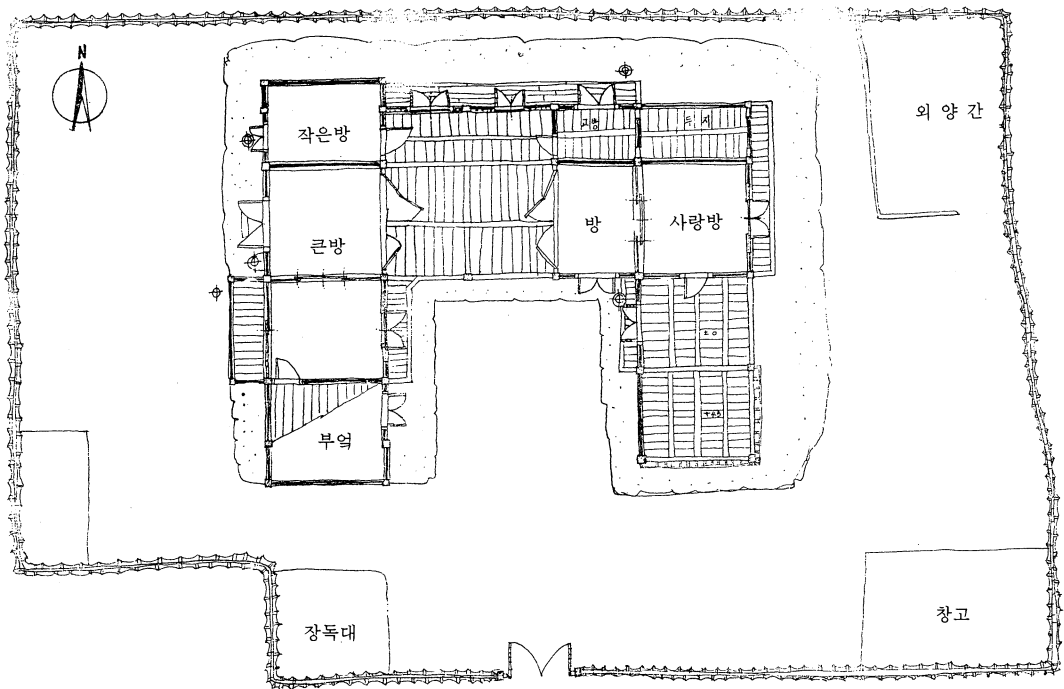
〈사진 9-101〉 채효기 주택 사랑채

이 집의 架構²⁶⁷⁾는 몸채와 翼舍가 다르다. 몸채는 5樑架로 대들보 위에 낮은 동자주를 세워 중보²⁶⁸⁾를 올려 놓고 제형 판대공으로 마루도리를 받게 하였다. 좌우 翼舍는 3樑架로 대들

267) 여러부재를 결합하여 만든 구조.

268) 지붕가구에 있어서 대들보 위에 동자기둥을 양쪽에 세우고 그 위에 건너지른 보.

보 위에 키 큰 동자주²⁶⁹⁾를 세워 마루도리를 받는다.



〈圖 9-39〉

채효기 주택 배치 평면도

이 집은 평면형이 대구지역에서 보기 드문 ㄱ자형으로 독특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조방식이 견실하고 짜임새가 있어 20세기초의 한옥 모습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4) 蔡慶基 주택

대구직할시 동구 미대동 236번지에 있다. 이 가옥은 1902년에 대구 富豪 鄭在學이 건립한 것이다. 1940년 경 현 소유자 채경기씨가 매입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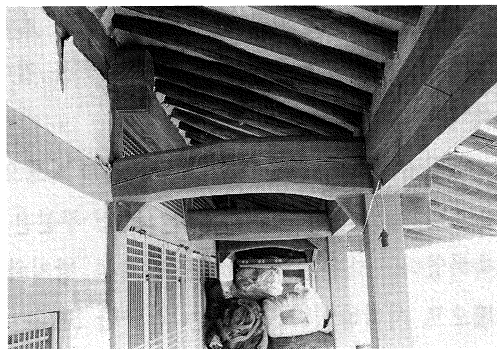
대지 107평에 ㄱ자형 행랑채와 一자형의 정침이 튼 ㄷ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정침²⁷⁰⁾은 대지 중앙에 남동향한 정면 6칸반·측면 1칸반 규모의 건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2칸 대청을 두고 좌우에 각각 부엌 1칸반·안방 2칸과 건넌방 1.5칸을 배설하였다. 정침 좌·우 끝과 전후에는 각각 퇴칸을 두었는데, 좌·우측은 부엌과 벽장으로 각각 사용하고 전후 퇴칸은 마루와 벽장으로 꾸몄다.

269) 마름모꼴의 판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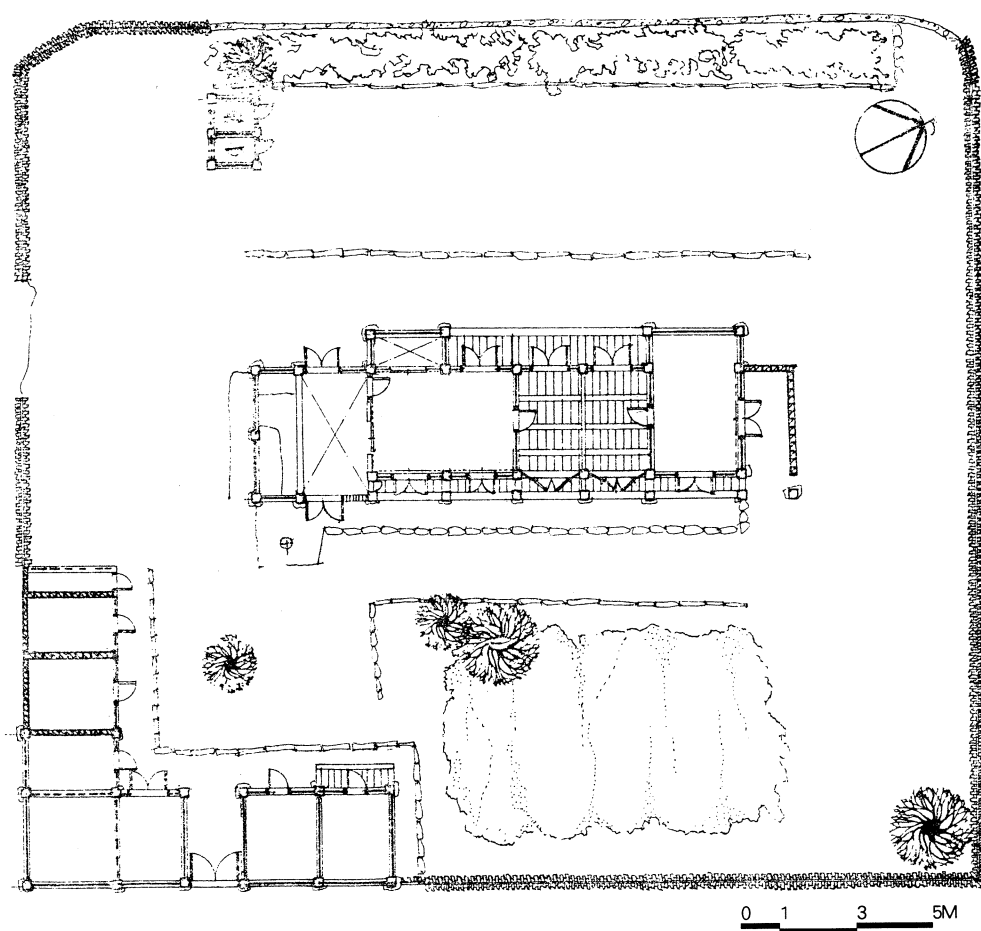
270) 집 안에서 가장 주가 되고 중심이 되는 집 또는 방.



〈사진 9-102〉 채경기 주택 안채 정면



〈사진 9-103〉 채경기 주택 안채 정면 퇴칸



〈圖 9-40〉

채경기 주택 배치 평면도

이것은 20세기초 한옥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내부공간의 확장과 室 分化의 한 모습이다. 架構는 5樑架의 납도리집으로 퇴보²⁷¹⁾를 걸어 퇴칸과 연결하였으며, 지붕은 홀처마에 팔작지붕이다.

행랑채는 정면 5칸·측면 2칸의 ‘ㄱ’자형으로 정면 좌측부터 방·부엌·대문·고방 등이 연접하였으며, 庫房에서 깎여져 나온 翼舍 부분은 근년에 시멘트 블록으로 방과 부엌 2칸 정도를 증축하였다. 대문간의 뒷벽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上枋 아래의 기둥과 下枋·中枋 등을 防火牆으로 처리하였다. 架構는 간략한 3樑架이며, 지붕은 正寢과 같은 홀처마 팔작지붕이다. 담장은 맞담으로 축조하였다.

이 집은 전반적으로 20세기초 한옥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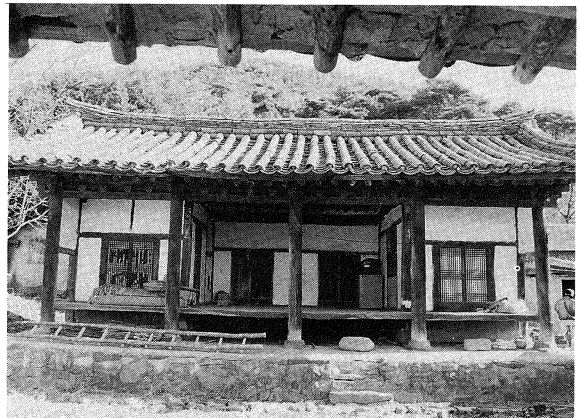
(5) 具京會 주택

대구직할시 동구 용수동 631번지에 있는 이 가옥은 1921년 현 소유자의 조부가 건립한 것이다. 대지 125평에 正寢과 行廊의 木造 瓦家 2棟이 건립되었다. 정침 2칸(15.6평), 행랑 2칸(11.3평) 규모로 지어진 南向 주택이며, 정침과 사랑채는 二字形으로 배치되어 있고, 담장은 돌담이다. 현재 대청 앞쪽의 문은 전면적으로 개량한 것이며, 보존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6) 李寅述 주택

대구직할시 북구 구암동 307번지에 있는 이 가옥은 1905년 芝崗 李昇淵씨가 건립한 木造 瓦家이다. 廣州人 李昇淵은 대구시 북구 國優洞에 기거하다가 鳩岩洞에 와서 학문에 뜻을 두고 제자 양성에 힘을 기울였으며, 특히 周易에 통달하였다고 전한다.

이 집은 方形의 대지에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평면은 정면 3칸·측면 1칸 반으로, 가운데 2칸 마루를 두고 좌우 양쪽에 각 1칸씩의 온돌방을 대청으로 배설하였다. 방과 마루 前面에는 반칸 폭의 전퇴를 두고 마루를 시설했다. 전체 평면이 ‘中堂夾室形’으로 부엌이 없는 형태인 것으로 보아 본래 齋室 등의 다른 용도로 지은 것을 나중에 주택으로 전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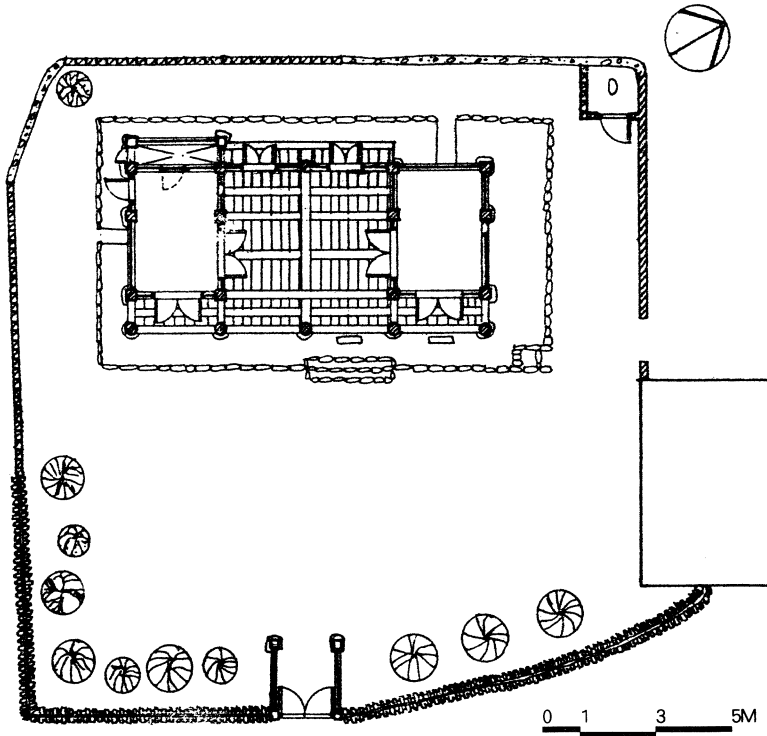


〈사진 9-104〉

이인술 주택 안채 정면

271) 퇴칸에 전 보.

구조는 막돌 허튼층 쌓기 기단 위에 등근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운 5樑架로, 지붕은 흘처마에 맞배지붕이다. 종보 위에 제형 판대공을 놓아 마루도리를 받게하고 창방과 장여 사이는 소로로 수장하였다. 기둥은 전면에만 두리기둥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둥을 사용했다.



〈圖 9-41〉

이인술 주택 배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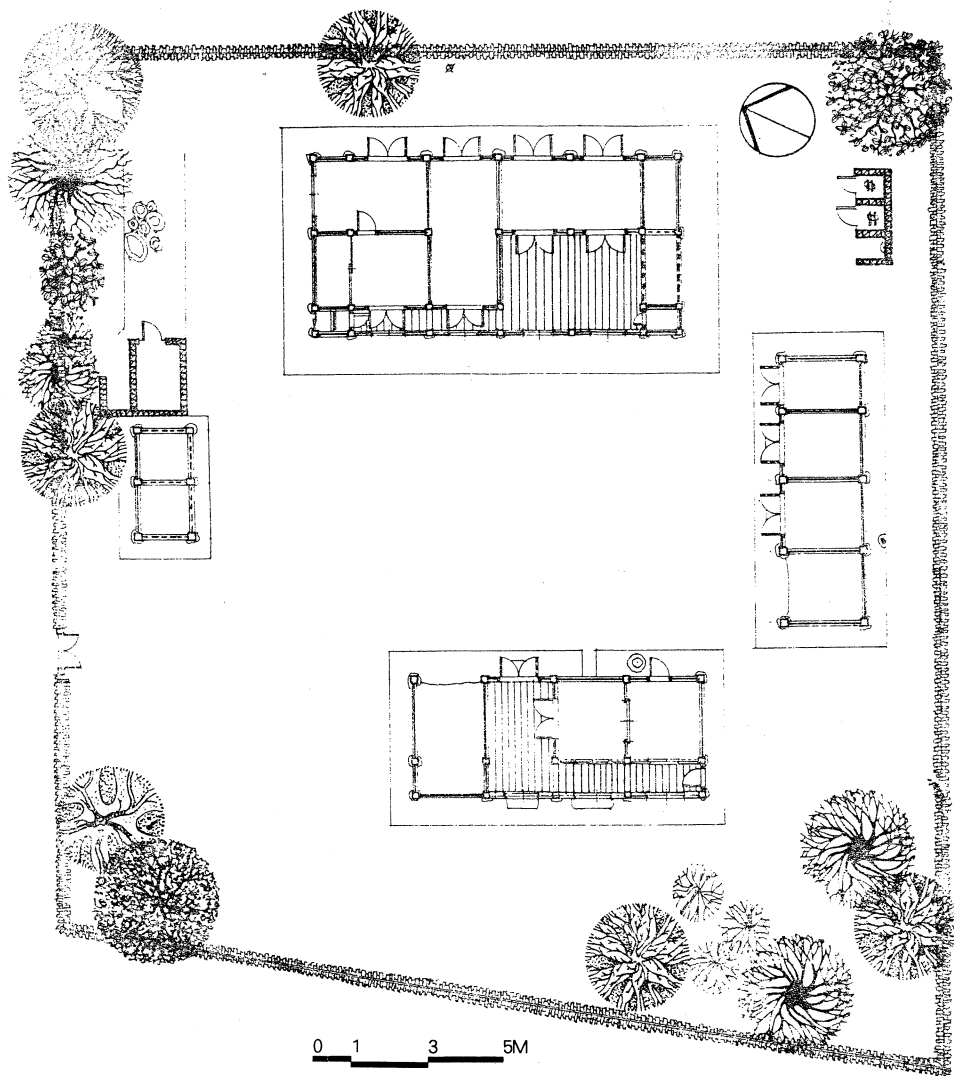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부재가 넉넉하고 구조가 견실한 이 집은 20세기초 건축양식을 잘 보여준다.

(7) 丹陽 禹氏 宗家

대구직할시 달서구 상인동 877번지에 있는 丹陽 禹氏 宗宅으로 1953년에 경북 고령을 현문동 崔雲守씨 집을 매입하여 移建한 것이다. 대지 386평에 안채와 사랑채가 남서향하여 앞뒤로 배치되고, 안마당 우측에 아랫채가 북서향하여 배치되었다. 그밖에 대문 가까이 알곡식을 갈무리하는 단칸 뒤주가 있고, 변소 등은 근년에 시멘트 블록으로 안채 좌우 증축한 것이다.

안채는 정면 4칸·측면 2칸으로 좌측에 방과 부엌을, 우측에 마루와 방을 앞뒤로 배설한 겹집이다. 그리고 전면과 좌우 양쪽에 반칸 폭의 퇴를 돌리고 거기에 수장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반침을 만들어 놓았다. 마루에는 장마루²⁷²⁾를 시설했고, 전면 4칸에는 매칸마다 4짝의 유리문을 달았다. 지붕은 홀처마에 팔작지붕으로 평기와를 덮었다. 내부공간의 구성에서 부엌이 배면쪽에 구성되고 방의 형태가 정형에서 벗어났다. 천정에도 미장목으로 반자를 돌렸다. 전반적으로 20세기에 들어와 한옥이 외래 住文化의 영향으로 변모되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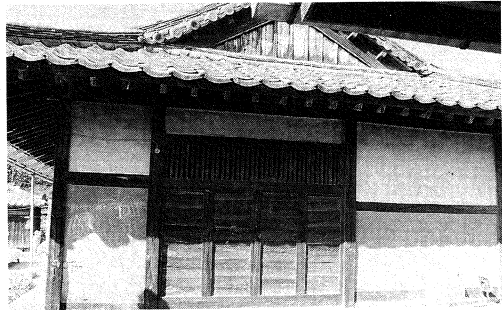
〈圖 9-42〉

단양 우씨 종가 배치 평면도

272) 긴 마루널을 깎 마루.



〈사진 9-105〉 단양 우씨 종가 안채 정면



〈사진 9-106〉 단양 우씨 종가 안채 우측면

사랑채는 정면 4칸·측면 1칸반 규모인데, 평면은 좌로부터 헛간·마루·사랑방 2칸이 연결되어 있다. 온돌방의 전면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두고 유리창을 달아 놓았다. 사랑방 사이에는 미서기문을 달아 공간을 구분했다. 좌측의 헛간은 전면에만 벽으로 막았다. 架構²⁷³⁾는 5樑架로 부재가 가늘고 결구가 견실하지 못하다. 지붕은 홑처마에 팔작지붕으로 평기와를 이었다.

(8) 尹國炳 주택

대구직할시 달서구 상인동 909번지에 소재 하는 이 가옥은 玄風郡守를 지낸 尹義淳이 1917년에 건립하였다. 巨濟郡守를 역임한 그의 아들 尹相泰에 이어 현 소유자에 이르기까지 3대째 거주하고 있다.

253평의 대지에 建坪은 22평이다. 정침은 5칸(12평), 사랑채는 3칸(7평), 대문간은 1칸(3평)이다. 집의 坐向은 南向이고, 전체적으로 ‘ㄷ’字의 배열을 이루고 있다.

현재 이 집에는 白絲帽·黑絲帽·홍배·각대·도포끈 등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다.

(9) 崔斗福 주택

대구직할시 동구 율하동 16번지에 위치하는 주택으로 檢校大將軍 崔湖의 18世孫 崔應洙가 이곳에서 탄생하였다. 그는 임진왜란때 出征하여 慶山大將으로서 蓮花峯 전투에 이어 大軍을 일으켜 訓練院 副正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癸巳年에 陣中에 전사하였다. 그후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이 집을 지었다고 한다.

107평의 대지에 건평 27.5평의 木造 瓦家이다. 건물은 東南向이며, 正寢·祠堂·大門間으로 이루어졌다. 정침은 4칸(12평)·사당은 4칸(15평)·大門間은 1칸(0.5평)이다. 담장은 시멘트 블록으로 쌓았다.

273) 여러 부재를 결합하여 만든 구조.

(10) 徐鎭永 주택

대구직할시 동구 대림동 51번지에 위치하는 이 가옥은 100 여年前 達城 徐氏의 門中 林野에 徐炳九씨가 건축한 木造 瓦家이다. 당시 先祖의 묘소 관리를 위한 齋室로 지은 것이라 한다.

이 집은 대지 354평에 건평 48평으로 정침·사랑채·헛간·대문간이 東南向으로 배치되어 있다. 정침은 5칸(18평), 사랑채는 6칸(19평), 헛간은 2칸(6평), 대문간은 2칸(3평)이다.

담장은 시멘트 블록으로 쌓았다.

VII. 其他 建築(樓亭·堂·祠廟·壇)

1. 樓亭

1) 鳳舞亭

봉무정은 동구 봉무동 939번지에 있는 정자로 현재 대구직할시 유형문화재 8호로 지정되어 있다. 봉무정은 조상의 위업을 기리고 추모할 목적으로 세우는 일반적인 정자와 달리 마을 행정을 원활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뜻있는 지역 인사들이 1875년에 건립한 대구지방 유일의 옛 공공건물이었다. 현재의 봉무정 자리에는 본래 달성군 공산면 강동·독좌·위남·단산동 등 4개 洞에서 쓰던 초가 동사무소가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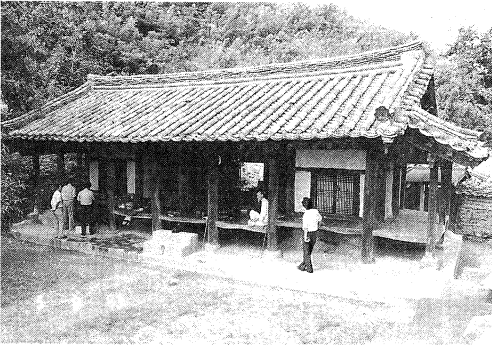
봉무정은 그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이들 4개 동이 모두 봉무동에 합병되자 당시 이 지역 토호이던 鳳村 崔象龍이 초가를 헐고, 그 자리에 어느집 사랑채를 뜯어다가 동사무소로 새로 지은 것이다. 이때가 ‘崇禎五週乙亥年’인 1875년이었다.

봉무정을 지은 최상용은 鄭立齋 문하에서 수학하여 순조 22년(1822) 進士가 되었고, 향약을 만들어 권선징악의 미풍양속을 권장한 인물로 주민들의 존경을 받았다. 다른 정자가 선조의 유덕을 기리기 위하여 지은 것과는 달리 봉무정은 마을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지은 것으로 대구에서 유일한 옛 공공건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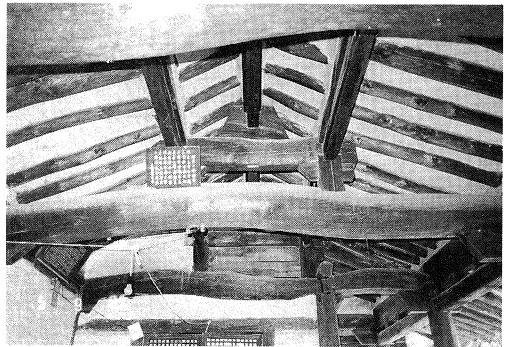
봉무정은 정면 7칸·측면 2칸의 홀처마 맞배지붕 집으로, 정면의 중앙 3칸은 전면이 개방된 대청을 우물마루로 깔았고 양 협칸에는 앞쪽에 반칸 툇마루를 설치하고 그 뒷쪽으로 온돌방을 대청으로 배설하였다. 지붕은 박공지붕으로 되었고, 양측 온돌방의 측면에는 박공면 하부에서 내림지붕을 달아 내었다. 시멘트 모르타르로 축조한 기단위에 화강석 정평초석²⁷⁴⁾을 놓았

274) 다듬은 초석.

는데, 정면 중앙의 6柱만 두리기둥²⁷⁵⁾이고 나머지는 角柱²⁷⁶⁾이다. 건물 구조는 민도리집²⁷⁷⁾이고 대청상부 가구는 5樑架이다. 건축양식은 5樑에 부연이 없는 홀처마로 맞배지붕이며, 양쪽의 박공면에 내림지붕이 붙어 있다. 최근에 시멘트로 기단을 만들어 높이가 20cm 가량 되는데, 화강석으로 된 원형 주춧돌 위에 앞부분은 4개의 두리기둥이 받치고 있으며 기둥 머리에는 촛가지²⁷⁸⁾가 나와 있다. 또 동자기둥이 종보²⁷⁹⁾를 받고, 종보 위에 판대공²⁸⁰⁾이 놓여 마룟대²⁸¹⁾를 받치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 건축양식의 일반형이다.



〈사진 9-107〉 봉무정 정면



〈사진 9-108〉 봉무정 대청 상부가구

대청의 상부 천장은 흙을 바르고 회반죽으로 마감한 제고물반자로 되어 있다. 대청은 짧은 판자를 세로로 길게 가로 놓아 깐 우물마루로 마루바닥은 기단 보다 85cm 정도 높다. 동쪽과 북쪽에 대문이 있으며, 건물의 규모는 정면 13.2m, 측면 4.8m, 높이 5m이다.²⁸²⁾

275) 원형 단면으로 된 기둥. 둥근 기둥.

276) 단면형태가 네모인 기둥.

277) 도리와 장혀로서만 된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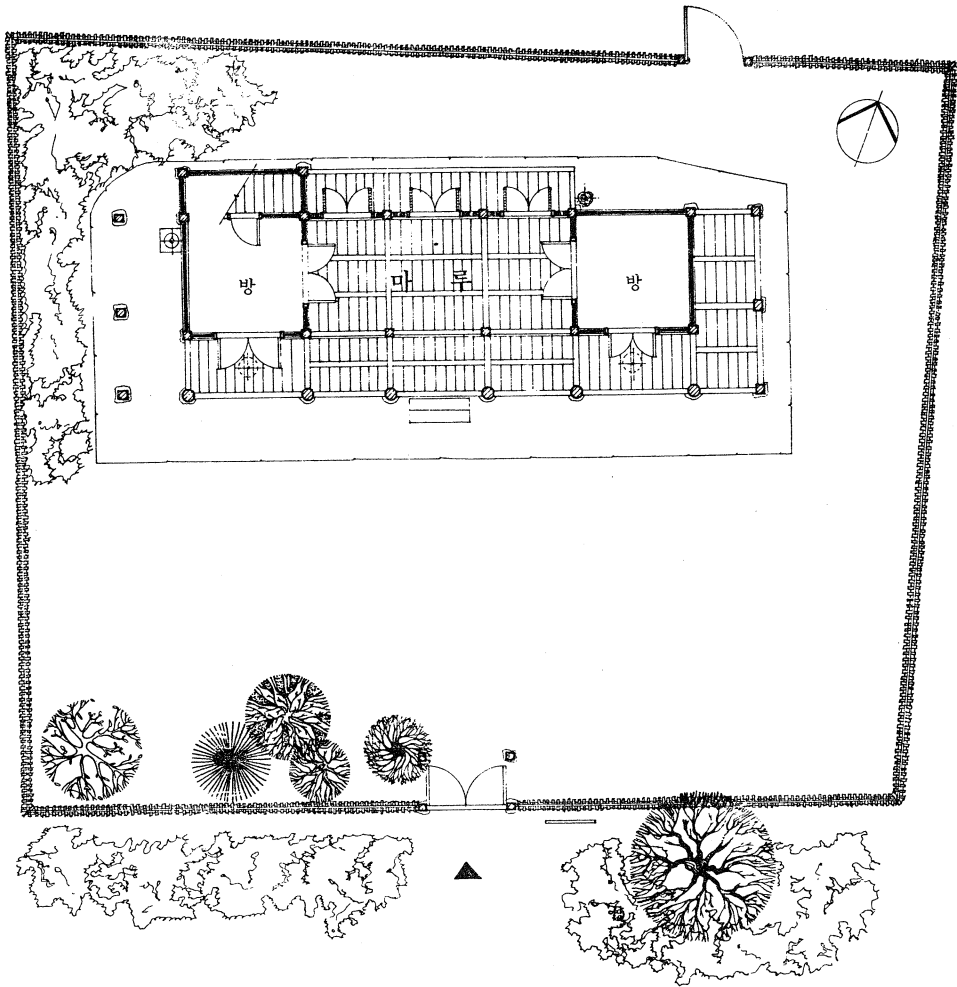
278) 초새김한 익공 쇠서의 띠 이름.

279) 지붕가구에 있어서 대들보 위에 동자기둥을 양쪽에 세우고 그 위에 건너지른 보.

280) 두꺼운 널판으로 만든 대공의 총칭.

281) 마루의 등.

282) 대구직할시, 《대구의 향기》, 1982, pp.450~451.



〈圖 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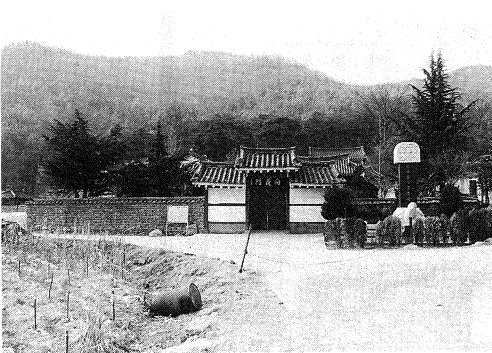
봉무정 배치 평면도

2) 喚惺亭

환성정은 북구 서변동 881번지에 있는 정자이다. 이 건물은 임진왜란 때 대구에서 의병장으로 苔巖 李軻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仁川 李氏 후손들이 세운 정자이다. 苔巖 李軻는 조선훈 명신으로 대제학과 예조판서를 지낸 烏川 이문화의 8대손으로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학문 연구에만 몰두한 선비였다. 그는 鄭寒岡·張旅軒·徐思遠 등과 교류하면서 학문에 전념하던 중 임진왜란으로 대구가 초토화 되자 徐思遠과 분연히 일어서 의병을 모집하여 公山城을 거점으로 왜군을 무찌르는데 앞장섰다. 그 가운데 八菡(현 漆谷 일대) 전투와 解顔

(현 東村 일대)전투는 유명하다.

임진왜란 후 조정에서 그의 공을 기려 陵參奉을 내렸으나 끝내 사양하고 사림에 문혀 학문에만 전념하는 한편 불타 버린 研經書院의 再建에 앞장섰다. 환성정은 이때에 지은 건물로서 儒生들이 공부하던 곳인데, 원래 위치는 남쪽 1km지점인 금호강변에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건물이 낡아 170여년 전에 현재의 위치로 移建하였다. 1971년 국고 110만원을 보조 받아 대대적으로 중수하였다.



〈사진 9-109〉 환성정 전경



〈사진 9-110〉 환성정 우측면

환성정은 장방형의 경내에 화수정·사당·대문 등과 함께 배치되어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정면 5칸·측면 1칸반의 화수정이 남동향하고, 그 우측에 환성정이 남서향으로 앉아 있다. 그리고 화수정 뒷쪽에는 좀 떨어진 곳에 정면 3칸·측면 1칸 규모의 사당 승덕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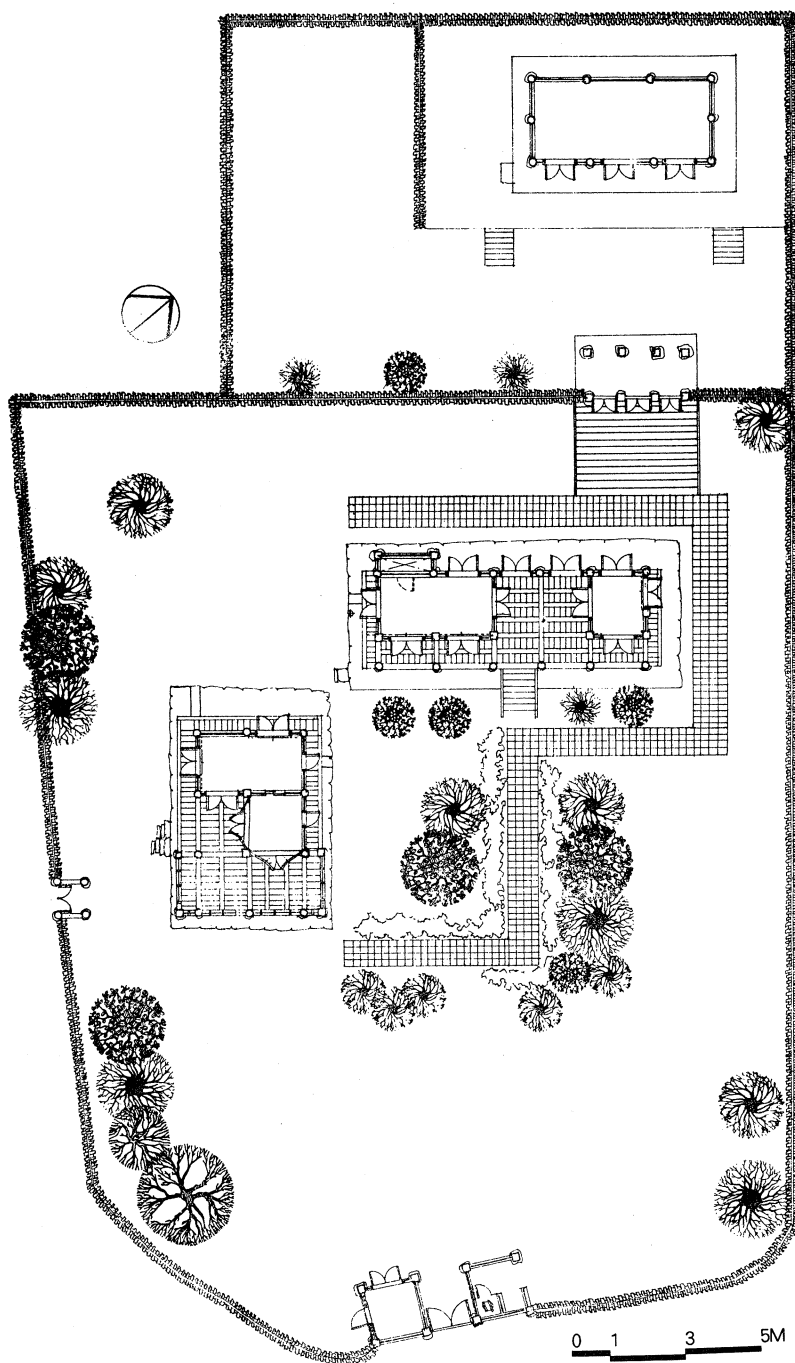


〈사진 9-111〉 환성정 내 서계세원 정면



〈사진 9-112〉 환성정 내 승덕사 정면

환성정은 정면 3칸·측면 2칸의 소로수장집으로, 중앙칸에 온돌방 1칸을 두고 그 좌우측에 각각 2칸통의 온돌방과 누마루를 배설하였다. 구조는 둥근 주초 위에 두리기둥과 네모기둥을 세운 5량가로 대들보 위에서 양 측면 중앙 기둥 상부로 층량을 걸어 결구하였으며, 지붕은



〈圖 9-44〉

환성정 배치 평면도

홀처마에 팔작지붕이다. 특히 기둥은 누마루에 두리기둥을, 온돌방에 네모기둥을 사용했다. 마루 상부의 천정은 외기틀로 결구되고, 마루도리는 제형 판대공으로 지지되고 있다. 이 건물은 조선후기 정자 모습을 잘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구와 부재가 견실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喚惺亭의 편액은 大院君의 친필이고, 花樹亭 편액은 조선말기의 명필 尹用求의 글씨이다.²⁸³⁾

3) 慕義亭

慕義亭은 동구 내곡동에 있는 정자로 金海人 兵曹參議 金達을 위한 寓慕所이다. 건물은 정면 2칸·측면 2칸의 규모로, 최근에 현대식으로 완전 중건하여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건축 당시의 건축양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4) 九老亭

九老亭은 동구 도동 671-1번지에 있는 정자로 儒林의 각 姓을 가진 9인이 詩會를 하기 위하여 1903년 側柏樹林이 우거진 경치 좋은 이곳 언덕에 건립하였다고 한다.

이 정자는 10평 규모의 대지 위에 北向하여 자리잡고 있다. 건물 규모는 2칸이며, 구조는 3樑架의 홀처마 맞배지붕이다.

5) 臥龍亭

臥龍亭은 동구 평광동 1011번지에 있는 조선후기의 정자로, 丹陽 禹氏의 선조인 龍齋公을 奉享하기 위해 고종 16년(1879)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원래의 위치는 현재의 위치 건너편 산속 후미진 곳이었다. 후대에 와서 정자가 너무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 관리하기 불편하다 하여 1966년 현위치로 移建하였는데, 현재의 건물은 원형이 많이 변형된 것이다. 臥龍亭이라 하게 된 연유는 동네 어귀 냇가에 ‘臥龍之處’가 있다고 하여 골안 이름과 아울러 臥龍亭이라 하였다고 한다.

건물은 화강석으로 바른층 쌓기한 0.5미터 높이의 기단 위에 둥근 화강석 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워 가구하였다. 건물의 架構는 종보 위에 판대공을 세우고 마루도리를 받는 5樑架이며, 지붕은 홀처마 팔작지붕이다.

283) 대구직할시, 《達句伐》, 1977, pp.281~283.

6) 凝水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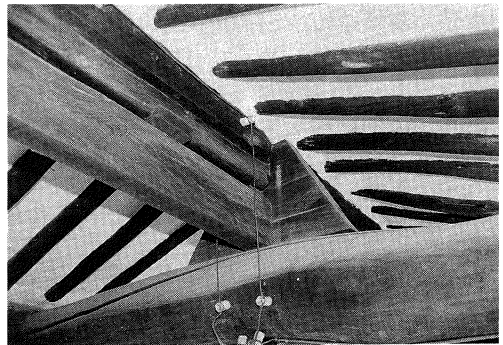
凝水亭은 동구 공산 2동(옛 미대동) 산 80번지에 있다. 조선 명종조에 蔡松潭이란 선비가 育林을 위하여 이곳에 정자를 짓고 거처하면서 평생을 門岩山의 육림 보호에 진력하였으므로 그 후손들이 이 정자를 凝水亭이라 칭하고 그 유덕을 기렸다고 전해 진다.

7) 綾城具氏 花樹亭

綾城具氏 花樹亭은 북구 동변동 234번지에 위치하는 건물로 杜門洞 72賢의 한 사람이었던 具鴻을 派祖로 하고 있는 左政承派의 齋室이다.



〈사진 9-113〉 능성구씨 화수정 정면



〈사진 9-114〉 능성구씨 화수정 대청 상부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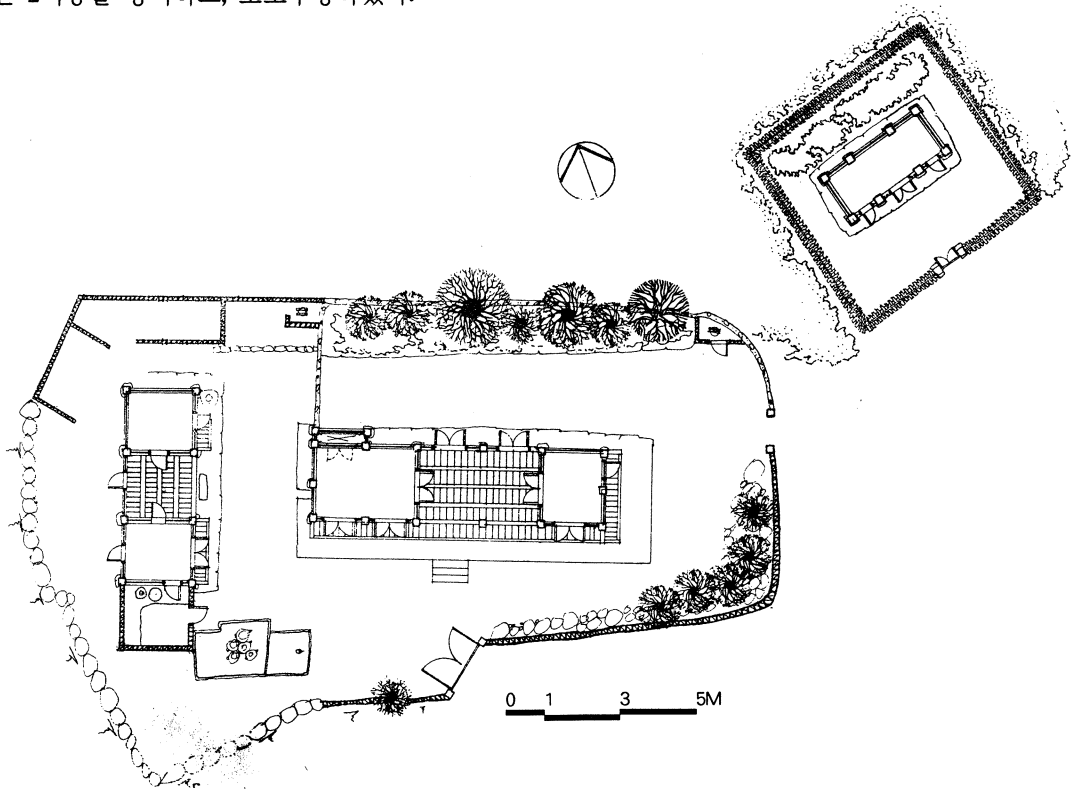
이들은 임진왜란때 의병을 일으킨 具懷愼 때부터 동변동(속칭 무태)에 살았는데, 花樹亭은 1828년 선조의 위패를 모신 祠堂을 지으면서 문중에서 詩會도 열고 또 자손들에게 漢學을 가르치는 장소로 쓰기 위하여 함께 지은 것이다.

이 齋室은 南向한 花樹亭과 좌측에 東向한 아랫채로 구성되며, 화수정의 우측으로 난 협문으로 나가면 3칸 규모의 祠堂이 별도의 공간을 구성하며 자리잡고 있다. 화수청은 정면 5칸·측면 2칸 규모의 팔작기와집이다. 평면은 좌측으로부터 2칸 온돌방과 2칸 우물마루 그리고 1칸은 온돌방이 연결되어 있으며, 앞쪽에는 前退를 두었다.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높이 3尺 가량의 기단 위에 막돌



〈사진 9-115〉 능성구씨 화수정 사당 정면

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중앙의 前面柱 셋만 두리기둥이고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둥이다. 구조는 대들보 위에 키가 작은 梯形 판대공을 세워 마루도리를 받는 3樑架이다. 기둥 위에는 2익공을 장식하고, 소로수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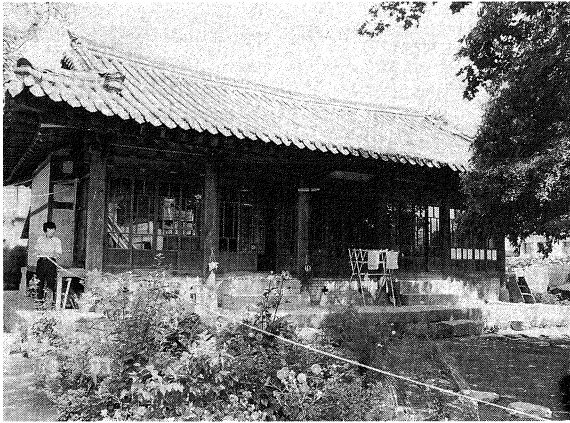
〈圖 9-45〉

능성구씨 화수정 배치 평면도

8) 爺叟亭

爺叟亭은 수성구 상동 139-1번지에 있는 秦氏 門中の 齋室로 1900년경 창건된 것이다. 현재 이 건물은 문화재 자료 14호로 지정되어 있다. 건립 당시 爺叟亭은 정면 5칸·측면 1칸반 규모이었으나, 나중에 背面 부분 전체가 반칸씩 증축되어 겹집처럼 되었다. 평면은 중앙부의 2칸 마루방을 중심으로 좌측에 1칸반의 온돌방이, 우측에 온돌방 1칸과 마루방 1칸이 있으며 그 뒤에는 좌에서 右로 2칸통과 1칸 및 반칸 크기의 온돌방이 차례로 연결되었다. 前面에는 반칸 폭의 전퇴가 있고, 집 뒤에는 시멘트 블록으로 벽을 1칸폭 이상 물려 쌓아 헛간과 부엌을 증축하였다.

이 건물은 소로수장의 민도리집으로 화강석 기단 위에 圓柱形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前面 6柱는 두리기둥을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둥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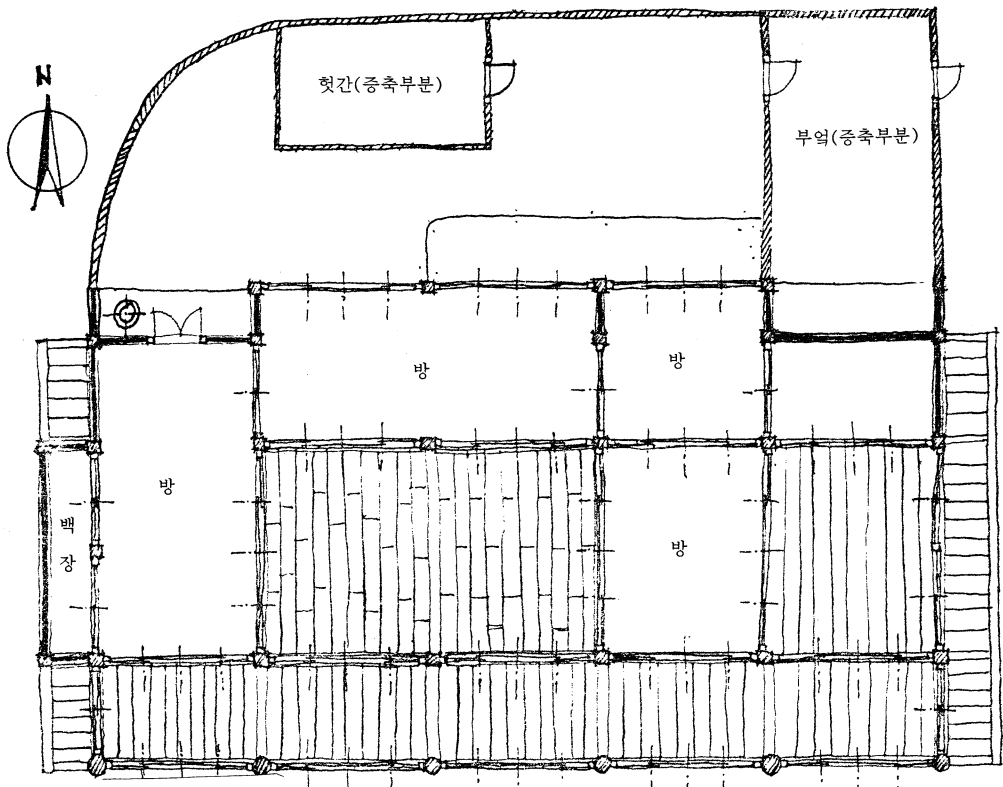


〈사진 9-116〉

아수정 정면

건물의 마루 밑에 붉은 벽돌을 쌓고 마루에 장마루를 깔고, 유리창문을 사용하였으며 日式 천장에 가까운 우물반자로 꾸며져 있다.

爺叟亭은 20세기초 건축양식의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건물로, 전통 건축양식이 日式建築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특히 장마루와 日式 우물반자, 높은 천정고, 日式 미서기 창 등의 형식은 매우 주목된다.



〈圖 9-46〉

아수정 평면도

9) 松石亭

松石亭은 달서구 상인동 909번지에 있는 정자로 후술할 會輔堂과 마찬가지로 舊韓末의 애국지사였던 尹相泰가 후진 교육을 위하여 1920년 건립한 ‘ㄱ’자형의 목조 瓦家로 한 때 독립운동가들의 밀회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2. 堂

1) 瞻栢堂

대구시의 제일 오지에 속하는 동구 평광동 979번지에 있는 瞻栢堂은 효자로 이름났던 禹孝重의 효행과 조선말 벼슬도 버린채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안타까워하며 향리에 숨어 살던 선비 禹命植의 절개를 기리기 위하여 고종 33년(1896)에 후손들이 세운 건물이다.

우효중은 부친이 병환으로 생명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흐르는 선혈을 부친의 입속으로 넣어 희생하도록 하였고, 나중에 상을 당하자 묘소곁에 여막을 지어 3년을 지켰다고 한다. 이 같은 효행이 알려져 그가 죽은 후에 조정에서는 敎官으로 증직하였다. 堂號를 ‘瞻栢堂’이라고 붙인 것은 우명식의 묘소가 있는 ‘栢田谷을 우러러 보는 집’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²⁸⁴⁾

첨백당은 백발굴 어귀의 높은 대지 위에 첨백당과 대문채가 東向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주위 150평 정도의 넓은 마당은 土石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첨백당의 넓은 바깥마당에는 1896년 집을 지을 때 같이 심었다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있고, 많은 고목들이 잘 가꾸어져 있다. 마당의 오른쪽 앞쪽에는 근년에 조경한 연못이 아름답게 배치되고, 바깥마당 앞에는 남에서 북으로 谷澗水가 흐르고 첨백당의 뒷동산에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사철 푸르게 자라고 있어 운치를 더해주고 있다.

첨백당은 정면 7칸·측면 2칸 규모로, 정면의 중앙부 5칸은 앞뒤로 물매진 박공지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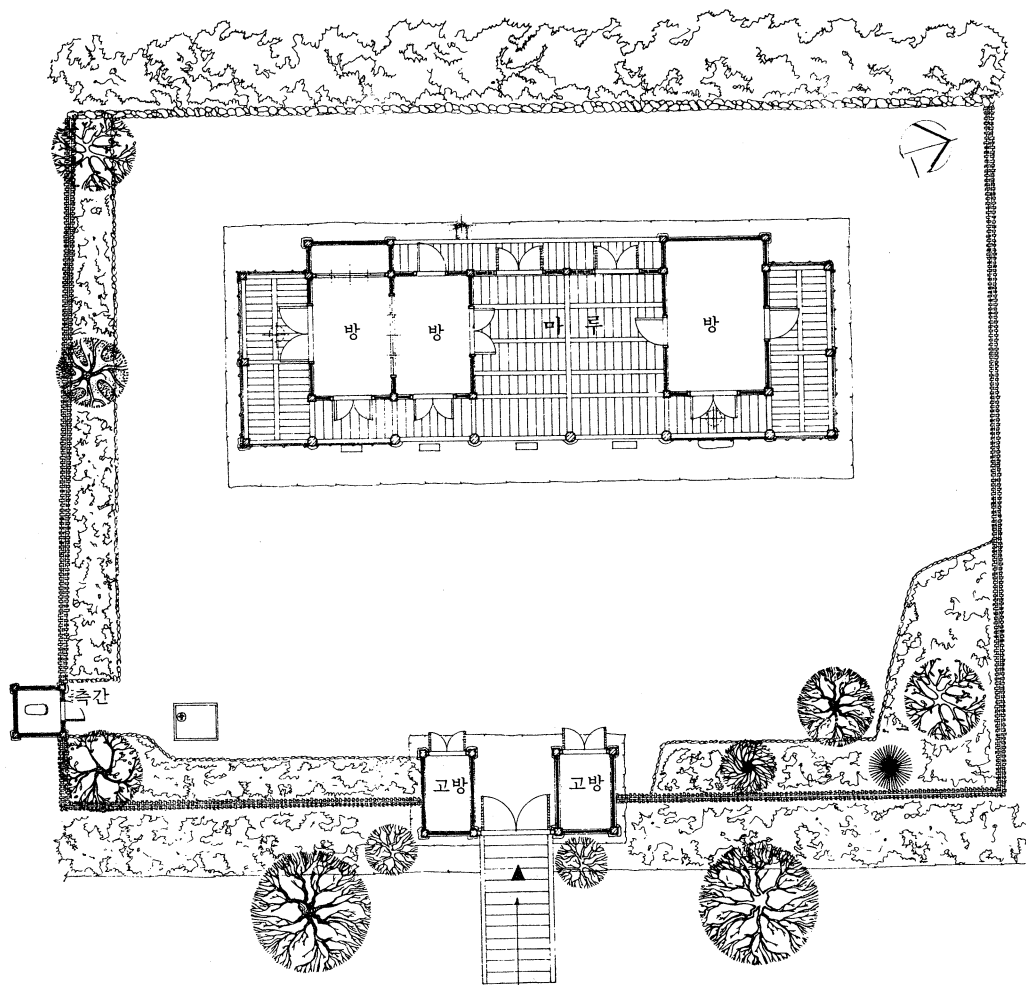


〈사진 9-117〉

첨백당 정면

284) 대구직할시, 앞의 책, p.289.

구성하였고 그 좌우 양 협칸은 각각 측면의 박공면에 내림지붕을 달아 지붕을 형성하였다. 평면 구성은 중앙부 박공지붕 아래에는 2×1.5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온돌방 1칸, 좌측에 온돌방 2칸을 두었다. 양 협칸에는 측면쪽으로 뒗마루를 한 단 높이고 鷄子脚 난간을 돌려 누마루 처럼 구성하였다.



〈圖 9-47〉

첨백당 배치 평면도

구조는 화강암 장대석을 2단으로 쌓은 기단 위에 화강석 초석을 놓고 전면 중앙부만 두리 기둥을 세운 민도리집으로, 대청 상부는 간략한 5樑架이다.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전반적으로 건물구조가 견실할 뿐만아니라 평면구성과 구조가 짜임새 있는 19세기말의 전통건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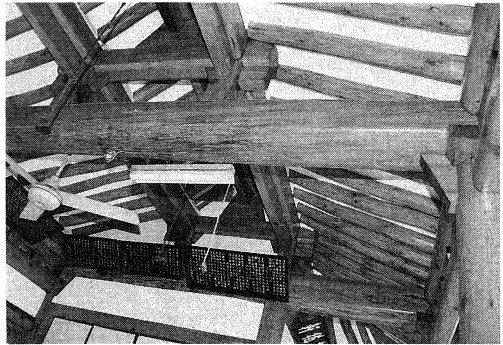
2) 棣華堂

棣華堂은 북구 산격동 913번지에 있는 건물이다. 서진조씨의 9대조 城隱公 諱愼, 南溪公 諱慄, 農圃公 濮諱의 삼형제 중 城隱公의 宗堂과 南溪公의 精舍가 약 300 여년 전에 건립되어 유지되다가 1959년 宗堂과 南溪精舍의 당호를 통합하여 南溪精舍 자리에 새 재목으로 집을 짓고 당호를 棣華堂이라 하였다.



〈사진 9-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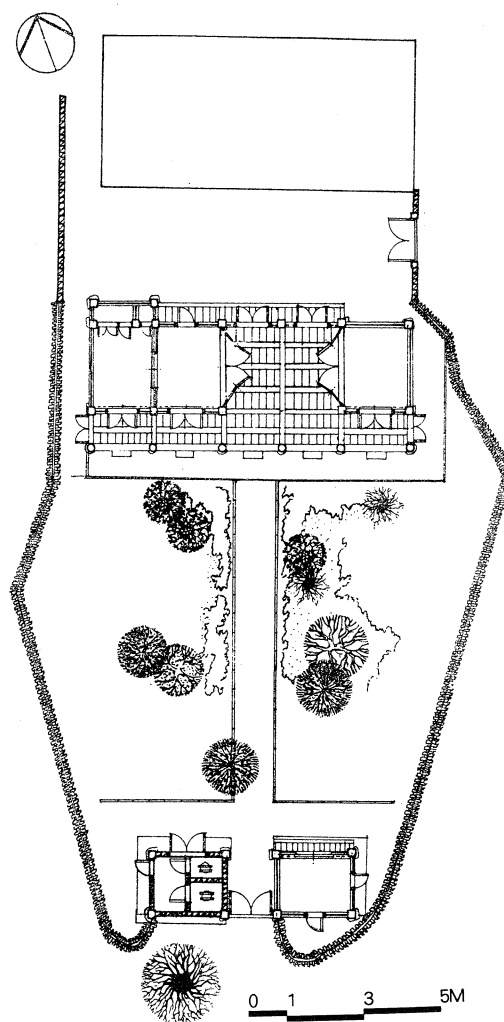
체화당 정면



〈사진 9-119〉

체화당 대청 상부가구

從으로 긴 장방형의 垜地에 대문과 棣華堂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山形 대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정면 5칸·측면 1칸반 규모의 棣華堂이 자리잡고 있다. 棣華堂의 평면은 2칸 우물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각각 2칸과 1칸 규모의 온돌방을 두었으며, 前面에는 반 칸 규모의 前退를 두었다. 구조는 5樑架의 굴도리집으로 기둥 위에는 소로수장하였으며, 지붕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이다. 대문은 정면 3칸·측면 1칸으로 중앙칸에 출입을 위한 대문을 내고 좌측칸에 변소, 우측칸에 온돌방을 두었다.



〈圖 9-48〉 체화당 배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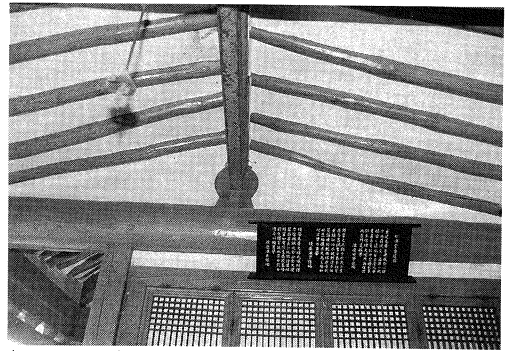
3) 松溪堂

松溪堂은 북구 서변동 1111번지에 있는 건물로 고려말 충신이었던 杜門洞 72賢 중 한 사람인 松隱 具鴻과 조선조 임진왜란 때 대구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具鴻의 8세손 溪岩 具懷愼의 절개와 위업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효종 10년(1659)에 세운 齋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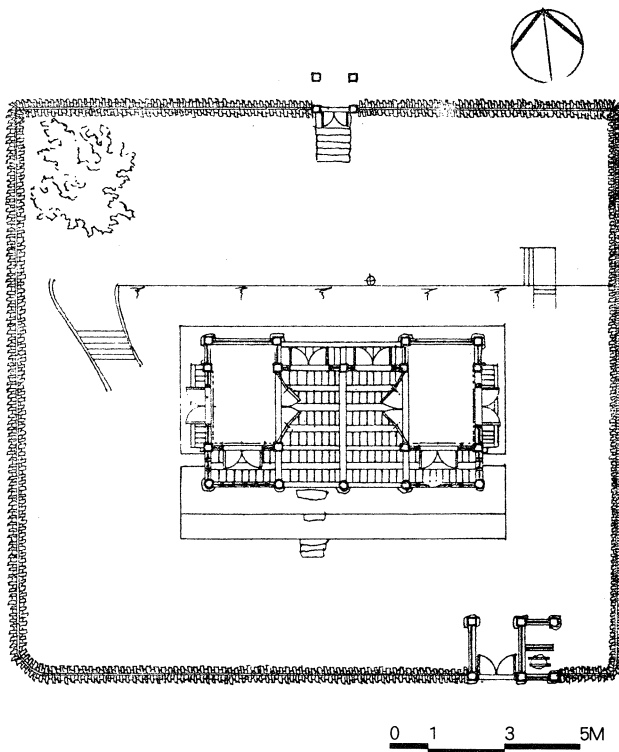
〈사진 9-120〉

송계당 전경



〈사진 9-121〉

송계당 대청 상부가구



〈圖 9-49〉

송계당 배치 평면도

동쪽으로 치우친 대문을 들어서면 남향하여 정면 4칸·측면 2칸 규모의 松溪堂이 자리잡고 있다. 송계당은 어칸의 2칸 우물마루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온돌방을 둔 ‘中堂夾室形’으로 앞쪽에는 반 칸 규모의 前退를 두었는데, 좌우측 온돌방 앞쪽의 前退는 어칸보다 壇을 높여 설치하였다. 架構는 3樑架로 대들보 위에 원형 판대공을 세우고 마루도리를 받았는데, 물매가 매우 완만하다. 건물은 견치석 2重 기단 위에 원형의 다듬돌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앞쪽 기둥만 원주를 사용하였다. 架構는 3樑架로 대들보 위에 圓形 판대공을 세우고 마루도리를 받았는데, 지붕 물매가 매우 완만하다.

이 건물은 1960년에 중건하고, 근년에 道費의 보조를 받아 보수한 바 있어 보존이 잘 되어 있다.

4) 三斯堂

三斯堂은 동구 율하동 17번지에 건립한 건물이다. 임진왜란시에 省峴·蓮花峯·永川城 戰鬪 등에서 力戰하여 승리를 거두고 訓練院 副正에 拜命되었다가 후에 陣中 戰死한 崔應淡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은 것으로 遺墟碑閣과 아울러 건립되었다.

5) 五友堂

五友堂은 동구 사복동 75번지에 있다. 건물은 이 곳에 세거하던 慶州 李氏 문중의 정자로서 향토사회에 유덕을 남긴 五從班을 추모하기 위해 1932년 후손들이 건립하였다. 五從班은 李殷榮·原榮·文榮·祚榮·煥榮으로서 특히 原榮은 호가 藥中으로서 흥년에 私財를 기울여 빈민을 구제한 공덕이 전한다.

6) 敬止堂

敬止堂은 동구 봉무동 195번지에 있으며, 1939년 경주 최씨 문중에서 건립하여 宗堂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다. 敬止堂은 50평의 대지 위에 瓦家 2동(건평 16평)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본채인 敬止堂 외에 대문간이 소슬대문으로 세워져 있다. 담장은 토담으로 그 위에 기와를 이었다.

현재도 奉祭와 門中の 대사를 논의하기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7) 晚翠堂

晚翠堂은 동구 송정동 352번지에 있는 건물이다. 이 건물은 1890년 淸州 韓氏 문중에서 건립한 木造 瓦家로서 문중회의 장소나 講學所로 이용되었다.

晩翠堂은 대지 75평에 4칸(8평) 규모의 우진각 지붕의 건물로, 후원을 갖추고 있다. 담장은 돌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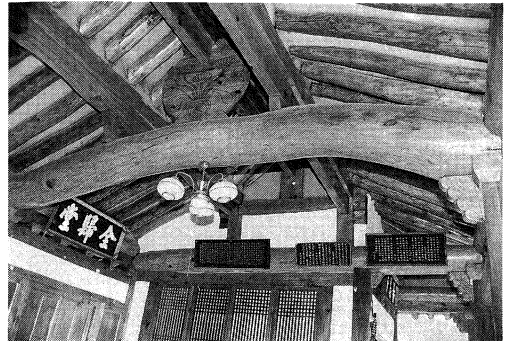
8) 全歸堂

全歸堂은 동구 도동 487번지에 있다. 이 건물은 선조 12년(1578)에 태어나 현종 6년(1665)에 세상을 떠난 효자 徐時立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그의 호를 따서 全歸堂이라 하였다. 全歸堂은 1600년경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며, 全歸堂은 왕자의 胎室을 감독하러 왔던 정승 李五峯이 지어준 號라고 한다.

그가 죽자 조정에서 旌閭가 내려오고 숙종 18년(1692)에는 전귀당 오른쪽에 百源書院을 세우고 그를 향사했으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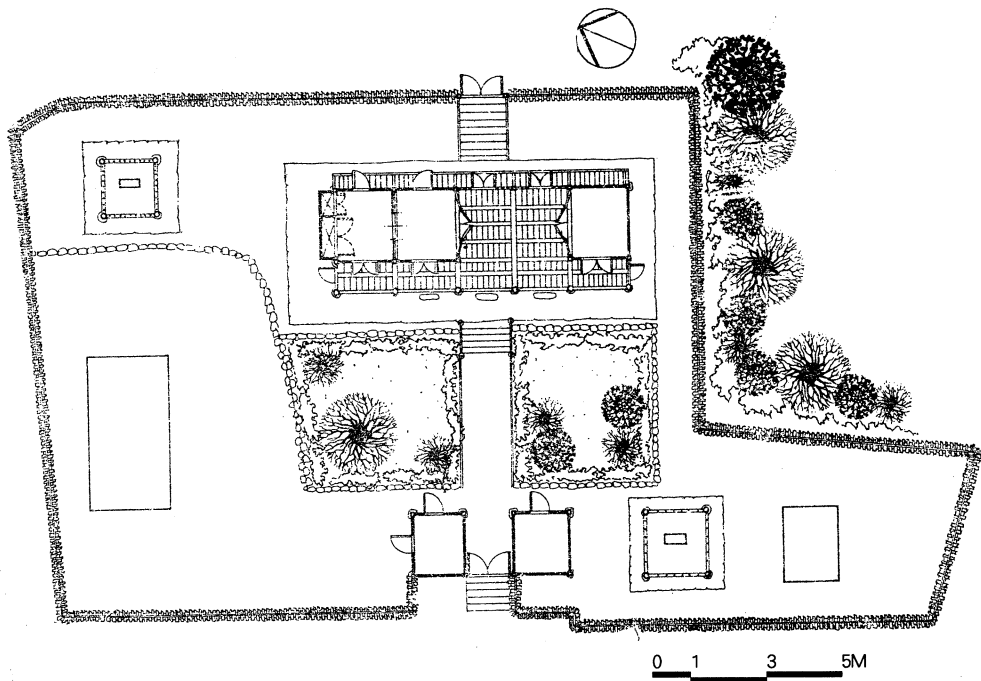
〈사진 9-122〉 전귀당 정면



〈사진 9-123〉 전귀당 대청 상부가구

지금의 全歸堂은 1964년에 화재를 당하여 목재와 기와만 남은 것을 1974년에 중건한 것으로, 경내에는 全歸堂과 碑閣 2棟 및 大門間이 南西向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문간을 들어서면 정면에 전귀당이 있고, 대문간 우측과 전귀당 좌측에 각각 碑閣 1棟이 자리잡고 있다.

전귀당은 화강암 板石으로 쌓은 기단 위에 막돌 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은 앞쪽에만 두리기둥을 사용하였다. 평면은 2칸 우물마루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2통칸 온돌방을 두고 우측에는 1칸의 온돌방을 두었다. 架構는 만곡된 대들보 위에 草刻한 원형 판대공을 세우고 마루도리를 받게 한 5樑架로 기둥 위는 翼工을 꾸미고, 기둥사이는 소로로 수장하였다. 지붕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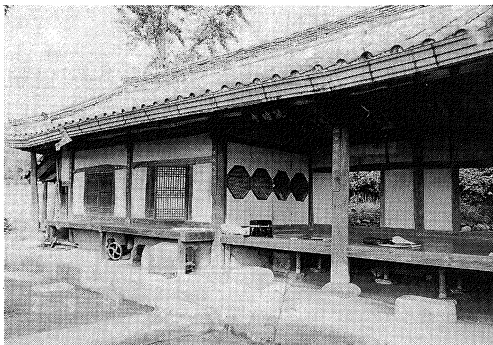
〈圖 9-50〉

전귀당 배치 평면도

9) 親睦堂

親睦堂은 동구 부동 58번지에 위치하는 이 건물은 1888년에 건립한 星山 呂氏의 宗中 齋室이다. 이 재실은 80평의 대지에 西向한 3棟의 瓦家로 이루어져 있다.

親睦堂은 方形의 대지 안에 대문채·행랑채·정침 등 3棟의 건물이 튼 ㄷ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문채와 친목당 사이에는 담장을 치고 일각문을 내어 거기를 통해 친목당 정침으로



〈사진 9-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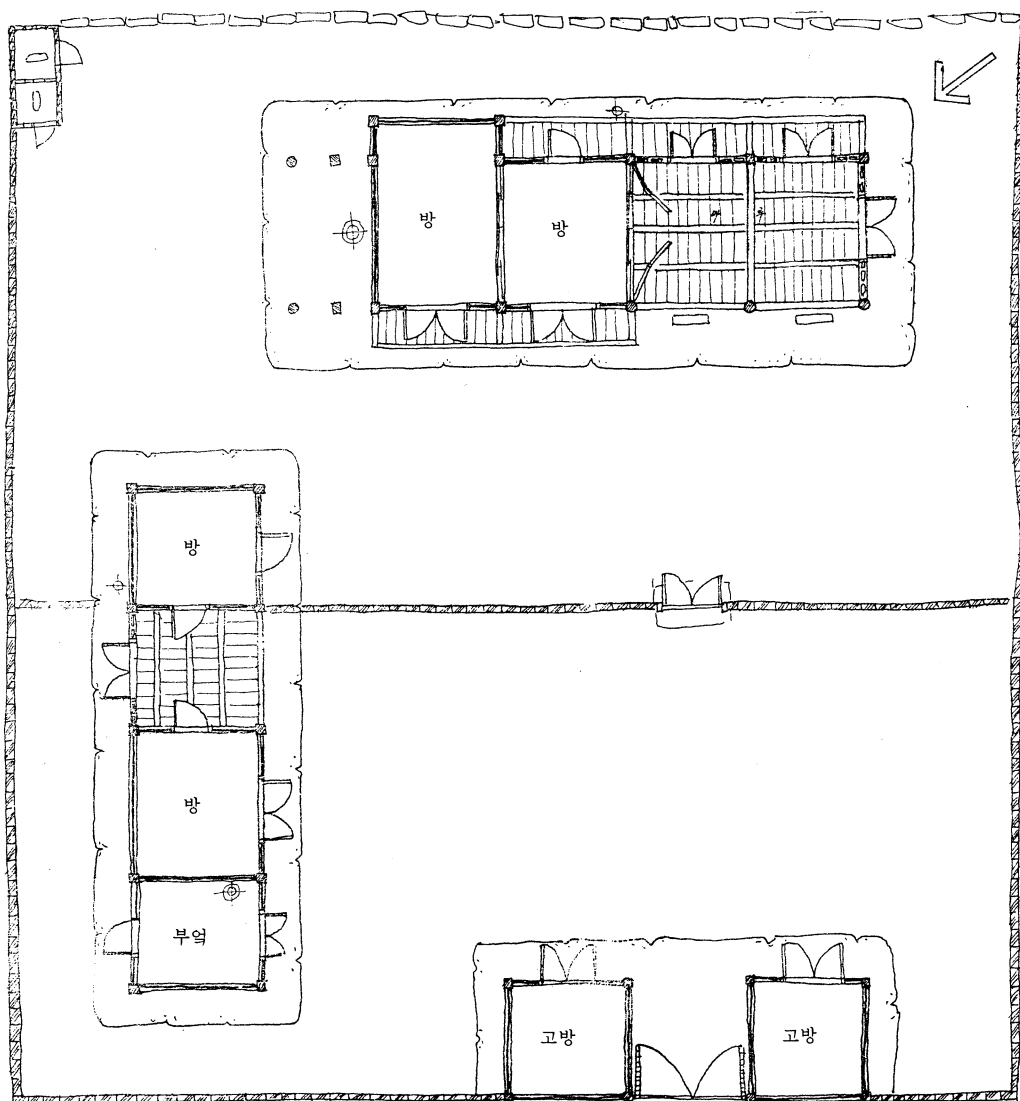
친목당 정면



〈사진 9-125〉

친목당 대청 상부가구

통하도록 했다. 친목당 정침은 4칸·측면 1칸으로 우측에 2칸 대청을 두고 좌측으로 각 1칸의 온돌방 둘을 연결하여 평면을 구성하였다. 또한 온돌방 정면과 대청 배면에는 좁은 쪽마루를 두어 출입에 편리하도록 했다.



〈圖 9-51〉

친목당 배치 평면도

친목당의 기둥은 대청 전면에만 두리기둥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둥을 사용하였다. 구조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운 간략한 3樑

架로 활처럼 휘어오른 대들보 위에 낮은 제형 판대공을 두어 마루도리를 받게 했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 기와지붕이다. 전체적으로 구조가 건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짜임새가 없고 별다른 건축적 특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부재가 가늘어지고 창호의 크기가 증대되는 등 입면구성에서 19세기말의 건축적 특성이 나타난다.

행랑채는 정면 4칸·측면 1칸의 건물로, 좌측부터 부엌·온돌방 1칸·마루 1칸·온돌방의 순으로 연결되어 평면이 구성되었다. 대문채는 정면 3칸·측면 1칸의 건물로 중앙칸에 대문을 내고 좌우 양쪽에 庫房을 두었다.

10) 慕雲堂

慕雲堂은 수성구 노변동에 소재하는 건물로 淸州人 鄭弼錫이 蘆庵, 勉庵 등의 선조를 奉享하기 위하여 건립한 寓墓所로 정면 4칸·측면 1칸으로 된 건물이다.

3. 祠廟

1) 表忠祠

表忠祠는 후백제 견훤과 고려 태조 왕건이 맞붙은 公山 桐藪戰에서 戰歿한 高麗太師 莊節公 申崇謙을 모신 祠宇로 달성군 공산면 지묘동에 있다.

처음에는 고려 태조 왕건이 신승겸 순절 장소에 智妙寺를 건립하고 冥福을 빌었는데, 나중에 이곳이 폐허화되자 조선 선조 40년(1607) 신승겸의 外孫 後裔 柳永詢이 경상도에 거주하는 신승겸의 자손들로부터 寄附를 모아 智妙寺터에 表忠祠를 창건하고, 春秋로 俎豆를 官에서 올렸다. 그로부터 60 여년 뒤 현종 11년(1670) 2월에 이르러 祠宇가 많이 퇴락해지자 儒生들이 의논하여 신승겸이 殉節한 곳에 祠宇를 重建했으며, 현종 13년(1672) 왕이 表忠寺의 편액을 내렸다.

숙종 2년(1676)에는 신승겸과 같이 公山 桐藪戰에서 순절한 高麗 左相 金樂을 配享하고, 영조 2년에는 신승겸의 後裔인 聞慶縣監 贈承旨 申吉元을 追享했다. 신길원은 임진왜란때 문경현감으로서 尙州에서 순절한 인물이다.²⁸⁵⁾

2) 尙德祠

尙德祠는 李翻·金義淳·兪拓基·李存秀 4人을 享祠하는 祠宇로 대구시 중구 동문동에 있다.

285) 大邱府, 《大邱府史》, 1, 1943, pp.126~127.

이들 4인은 모두 慶尙道 觀察使로 대구에 와서 善政을 베푼 인물들이었다. 逸休亭 李翻은 牛峯 李氏로 參議를 지낸 有謙의 아들이었다. 인조 26년(1648) 進士가 되었고, 효종 6년(1655) 乙未文科에 합격한 후 승진을 계속하여 議政府 右議政이 되었으며 숙종 16년(1690)에 세상을 떠났다.

현종 12년(1671) 慶尙道에 大饑饉이 들어 백성들이 마을 떠나 流離하는 등 사회가 불안하였는데, 이에 현종은 특별히 李翻을 경상도 관찰사로 임명했다. 그는 부임하자 어려운 백성들을 구출하는데 힘썼고, 세금을 감면하여 流離者를 정착시키기도 했다. 또 학교 진흥에도 힘써 선비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文友觀’을 지어 주는 한편 文友觀의 운영을 위해 學田까지 마련해 주었다. 前 고려 예식장 일대는 당시만 해도 넓은 들판이었는데, 文友觀은 그 들판 가운데 세워져 있었다.

그가 떠난 뒤 뜻있는 선비들이 그의 덕을 칭송하며 서로 의논하여 숙종 8년(1667) 그가 生存 하는데도 불구하고 生祠를 건립했다. 그후 숙종 19년(1693)에 儒林의 의견을 모아 東門밖(현 대구시청 부근)에 書院을 건축하고 享祠를 지내온 것이 尙德祠의 기원이다. 尙德祠란 이름은 尤庵 宋時烈이 지어 준 것이며, 매년 음력 9월 9일 秋享을 드렸다. 이러한 尙德祠 건립 배경을 새긴 ‘尙德祠碑’가 대구시 남구 남산2동 文友觀 境內에 있다.²⁸⁶⁾

知守齋 俞拓基는 杞溪 俞氏로 大司憲을 지낸 楸의 孫이며, 牧使 命岳의 아들이었다. 숙종때 24세로 文科에 급제 翰苑 三司를 역임하며 승진하여 領議政에 이르렀으며, 死後 文翼이란 시호를 받았다. 영조 3년(1727)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마침 饑饉의 시기를 당하여 稅調를 감해 流民을 구출하는 등 구제에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학문을 장려하고 儒風을 진작시켰다. 이에 따라 영조 15년(1739)에는 生祠가 건립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인 정조 원년(1777)에는 儒林에 의해 尙德祠에 합享되었다.

山木 金義淳은 安東金氏 仙源 尙容의 후손이자 郡守 履仁의 아들이었다. 그는 33세에 문과 급제하여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순조 21년(1821) 65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文簡이란 시호를 받았다. 순조 5년(1805)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賢者를 존경하고 유교를 장려하고 租稅를 가볍게 하는 등 善政을 베풀어 백성들이 頌德碑를 세웠으며, 나중에 尙德祠에 합享되었다.

金石齋 李存秀는 延安 李氏로 吏曹判書 文源의 세째 아들이었다. 영조 48년(1772)에 태어났으며 弘文館 正字를 거쳐 左議政에 이르렀다. 순조 28년(1828) 58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文翼이란 시호를 받았다. 그가 순조 14년(1814)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였을 때 道內에는 大

286) 대구직할시, 《達句伐》, 1977, pp.199~1201.

饑饉에 쪼들린 백성들이 하나 둘씩 流離하자 함경도의 粟을 가져와 백성을 구제했다. 이로써 道內 백성들이 안심하고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후에 도내 儒林들이 尙德祠에 合享하였다.²⁸⁷⁾

3) 龍岡祠

龍岡祠는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6번지에 위치하는 許尙武軒公(曾 兵曹判書)과 許洛菴公(兵曹參判) 두 분을 모신 건물이다. 1630년경에 龍岡書院으로 건축하였으나, 대원군의 서원 철폐시 燬絶되었다. 1920년에 중창하여 龍岡祠라고 부르고 있다.

이 건물은 정면 3칸 규모의 木造 瓦家로 대지 80평에 동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뜰 안에는 큰 향나무가 두 그루 서 있으며, 담은 막돌담장이다.

4) 三忠祠

三忠祠는 대구시 동구 지묘동 776-4번지에 있다. 三忠祠는 임진왜란 당시의 義兵將이었던 崔誠가 忘憂堂 郭再祐와 합세하여 역전한 후 이곳에 거주하였는데, 그 후손들이 崔誠와 崔認, 崔東甫 三叔姪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약 170년 전에 碑를 세우고 三忠祠를 건립하였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移築 補修하였다. 현재 三忠祠 碑閣과 廟室이 있으며, 113평의 대지에 2칸 규모의 건물이다. 담장은 시멘트 블록으로 축조하였다.

5) 全州 崔氏 祠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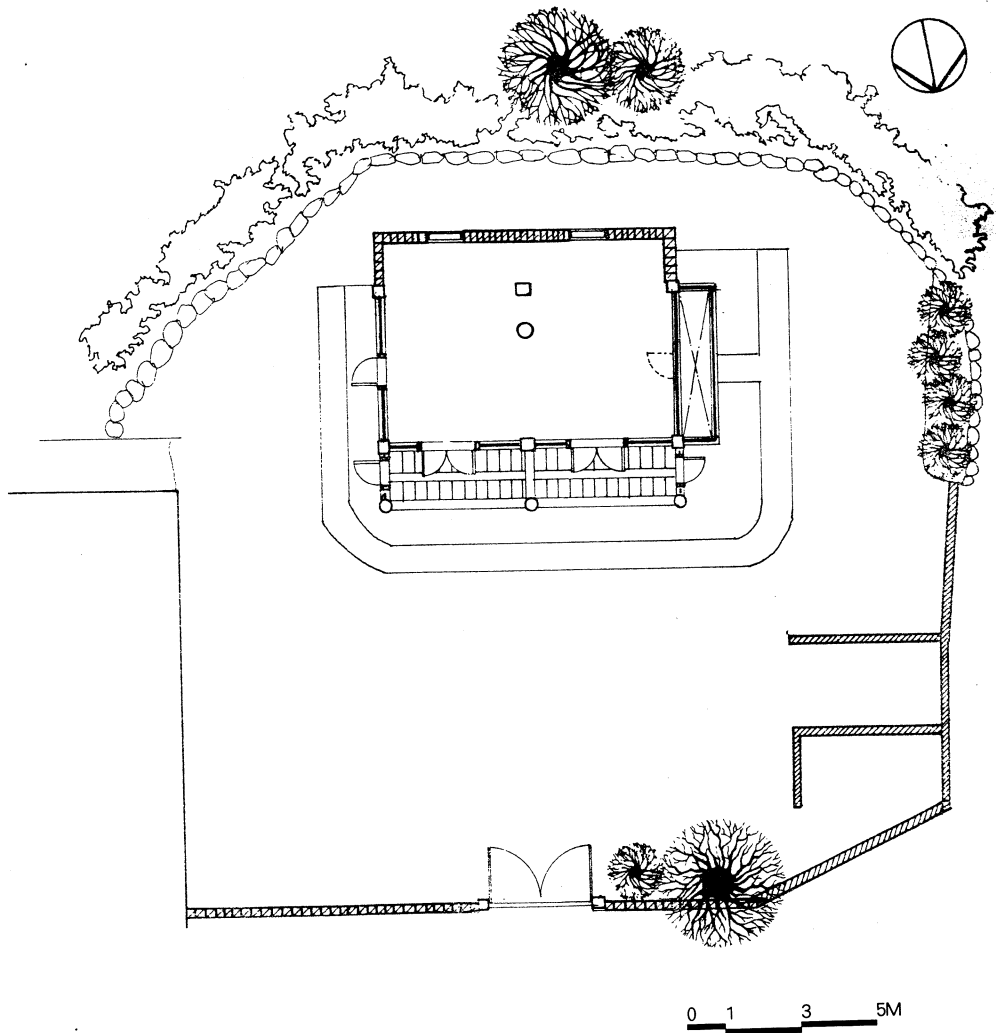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708에 있는 건물로 1900년 경에 건립한 全州 崔氏의 祠堂이다. 이 건물은 北向한 1동의 瓦家로 이루어져 있다. 대지 70평 내에 修心齋라 편액한 정면 2칸·측면 1칸반 규모의 사당 건물은 남아있으나, 지금은 사당이 아닌 살림채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 전면에는 前退를 두었으며, 내부 2칸은 통칸으로 되어 있다. 정면 각 칸에는 키가 큰 두 짝 여닫이 문이 달렸다. 대문은 철제이며, 담장은 시멘트 블록으로 쌓았다.



(사진 9-126)

전주 최씨 사당 정면

287)大邱府, 앞의 책, pp.130~132.



〈圖 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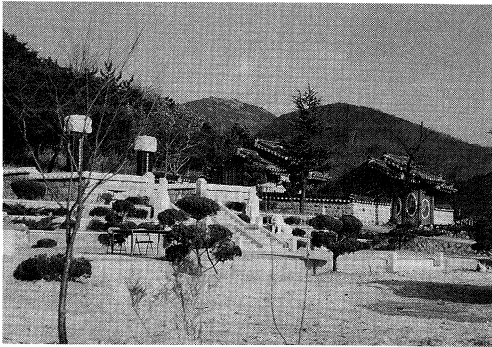
전주 최씨 사당 배치 평면도

6) 崔致遠 影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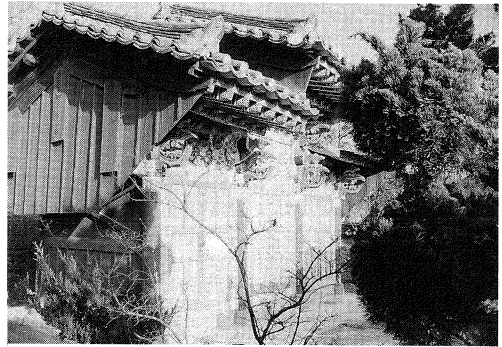
崔致遠 影堂은 대구직할시 동구 도동 776번지에 있는 건물로 최치원의 영정을 모시기 위하여 경주 최씨 종손인 崔敬敎가 1912년에 세운 影堂이다.

신라때의 문장가인 최치원은 고려때에 文昌侯란 諡號가 내려졌고, 鄉校에도 從享되었다. 韓日 합방이 된지 2년 후(1912년경)에 이 영당을 지은 것은 조상의 위업을 기리는 목적 외

에도 민족 정기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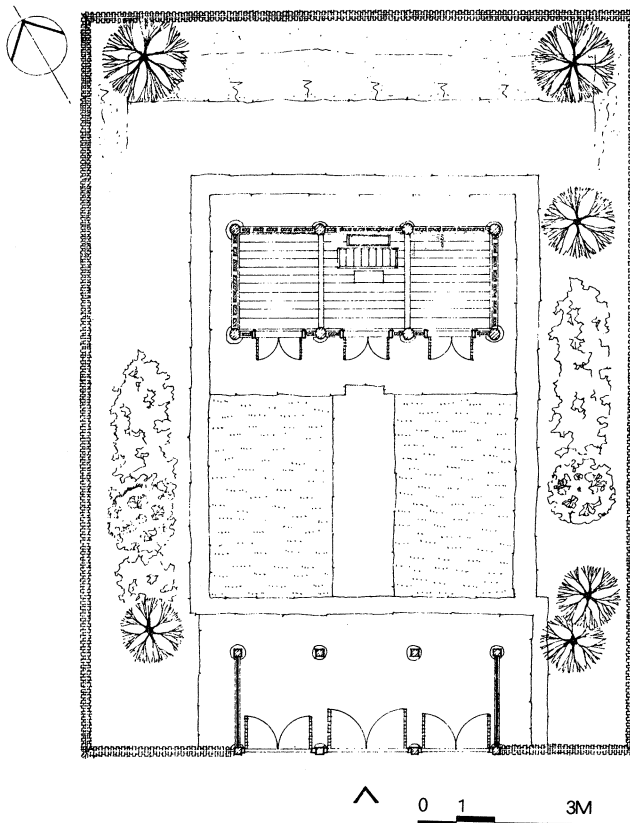


〈사진 9-127〉 최치원 영당과 유허비 전경



〈사진 9-128〉 최치원 영당

이 건물은 장방형의 일곽 안에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정면 3칸·측면 1칸 규모의 影堂은 겹처마에 박공지붕으로 중앙칸의 박공이 좌우 양쪽보다 한 단 높다. 구조는 3樑架로 낮은



〈圖 9-53〉

최치원 영당 배치 평면도

기단 위에 圓柱形의 높은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2익공계로, 익공의 촛가지는 꽃새김과 봉두 등이 조각된 매우 장식적인 형태이다. 건물 전면에는 각 칸마다 두 짝의 여닫이 골판문이 달려있으며, 건물은 전체가 단청되어 있다.

影堂 앞에는 출입을 위한 정면 3칸의 소슬 외삼문²⁸⁸⁾이 있다. 이 외삼문의 각 칸에는 두 짝의 대문을 달고 거기에 태극문양을 그려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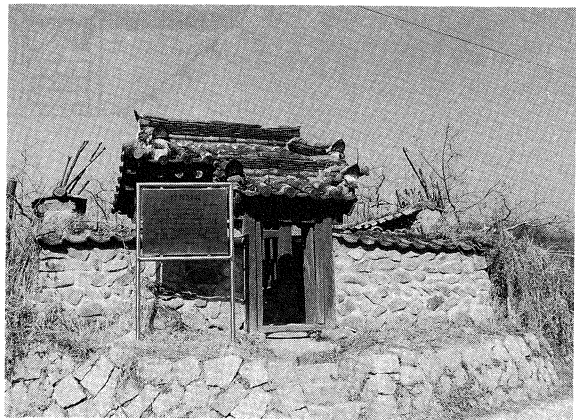
崔致遠 影堂은 20세기초 祠廟建築의 형식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라 하겠다.

4. 旌閭閣·孝行閣 및 기타

1) 旌閭閣

(1) 姜順恒 旌閭閣

이 건물은 동구 평광동 1183번지에 있다. 조선후기 헌종 1년(1835)에 姜順恒의 孝行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旌閭閣이다. 姜順恒은 영조 21년(1745)에 태어나 순조 30년(1830)에 죽은 사람으로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다 한다. 그가 죽은 해인 순조 30년(1830)에 旌閭를 내리고 ‘崇禎大夫行同知中樞府使’를 贈職하였고, 그후 헌종대에 儒林이 주동이 되어 이 旌閭閣을 건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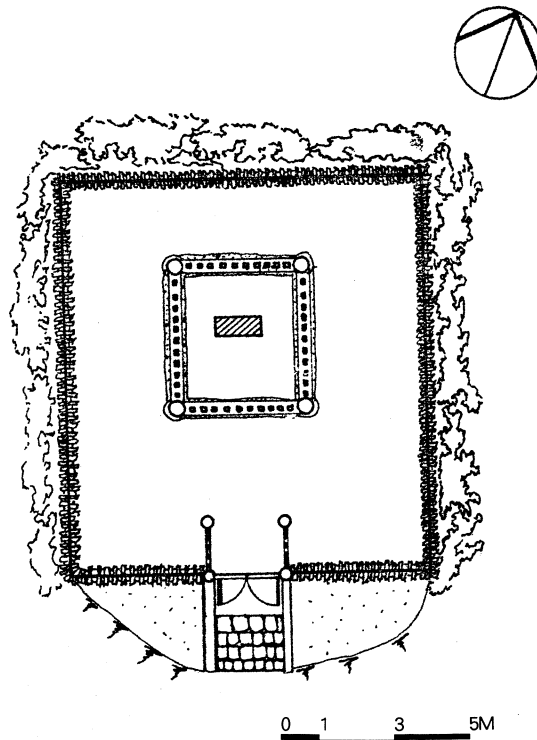


〈사진 9-129〉

강순항 정려각 전경

이 旌閭閣은 3樑架의 홀처마 맞배지붕을 한 평범한 모습의 건물로, 기둥 위는 初翼工으로 결구되어 있으며 단청하여 장식했다. 정려각의 정면에는 一脚門을 세웠으며, 주위는 方形의 土石 담장을 둘러 구획하였다.

288) 좌우칸의 지붕보다 중앙칸의 지붕을 한 단 높게 꾸민 바깥쪽에 세운 3칸 대문.



〈圖 9-54〉 강순향 정려각 배치 평면도

(2) 有華堂 및 旌孝閣

위 두 건물은 북구 도남동 362번지에 있다. 이중 有華堂은 仁川 李氏의 祭墓閣으로 현 소유자 李鍾商의 5대조 海準이 1744년에 건립한 목조 瓦家이다. 이들은 임진왜란 때 소유자의 10代祖가 광재우 장군과 더불어 왜적과 싸우다 순사한 후 그의 유언에 따라 이 마을에 피난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旌孝閣은 宗孫 李鍾相의 曾祖父가 先代의 祭墓閣을 보존하고 대대로 忠孝思想을 보전케 하기 위해 세웠다 한다.

두 건물은 모두 木造 瓦家로 규모는 有華堂이 3칸(15평), 旌孝閣이 3칸(4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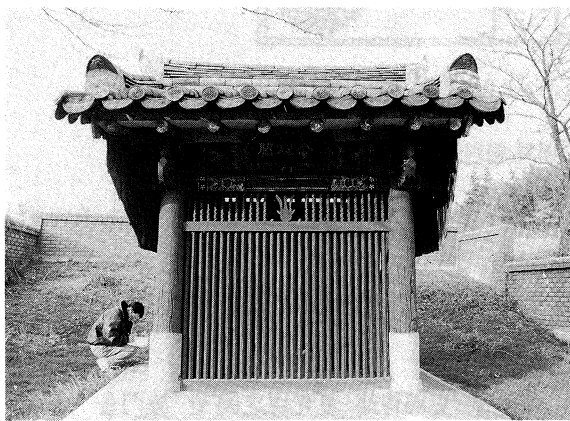
(3) 旌孝閣 및 旌忠閣

이 두 건물은 수성구 노변동 149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그중 旌孝閣은 淸州人 勉庵 鄭之彥의 孝行을 기려 세워진 것이다. 鄭之彥은 蘆庵 東範의 子로서 효성이 지극하여 祖父喪에 부친을 모시고 廬幕하여 3년을 지냈으며, 부친의 병중에는 호랑이가 개를 물어다가 약에 쓰도록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선 고종조에 나라에서 旌閭를 내리고 아울러 이조 參議로 추증하였다.

旌忠閣은 鄭之彥의 父인 蘆庵 鄭東範의 忠義를 기려 세운 것이다. 鄭東範은 壽職副護軍에 올랐는데, 영조조의 李麟佐의 亂때 의병을 모아 성주 牧祠 李普赫과 더불어 합천의 적을 격파하고 공훈을 받지 않은 채 귀향하여 親喪에 廬幕하였다고 한다.

(4) 命旌閣

命旌閣은 수성구 만촌 2동 715번지에 있는 건물로 명나라에서 귀화한 杜師忠의 7대손인 杜漢弼의 효행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杜漢弼은 순조 23년(1823)에 태어나 고종 30년(1893)년에 죽었는데, 부모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였다 한다. 그의 死後에 조정에서 旌閭가 내려오고 從二品 관직인 ‘通訓大夫 奎章閣 直閣’을 증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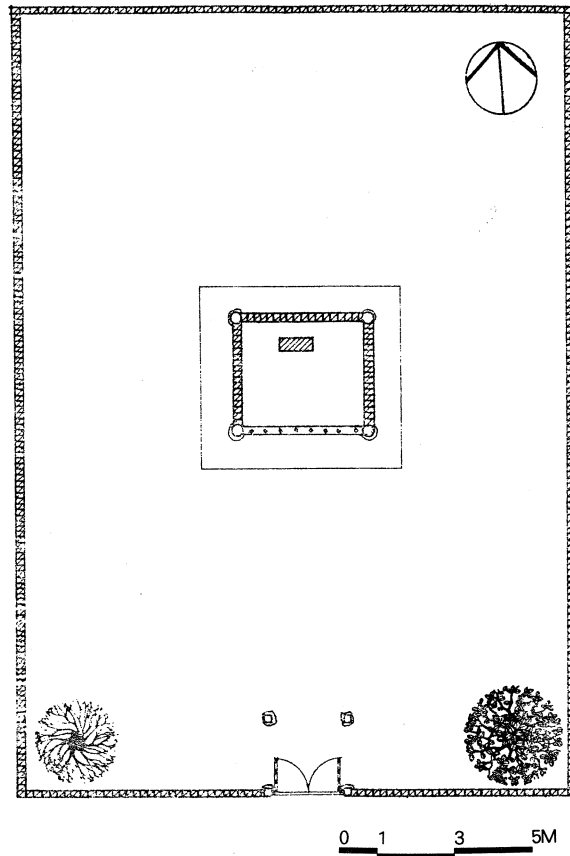
〈사진 9-130〉

명정각 정면

命旌閣은 1912년 杜師忠을 모신 慕明齋를 지을 때 함께 건립한 것으로, 1966년에 보수하였다. 이 건물 동북쪽 100여 미터 지점에 杜漢弼의 묘소가 있다.

이 건물은 단칸 규모의 맞배 기와집이다.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낮은 기단 위에 원형의 가공 주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주두 위에는 2익공으로 장식하였다. 架構는 대들보 위에 제형 판대공을 세운 3樑架로, 처마는 부

연을 둔 겹처마이다. 건물은 전면만 살창을 두고, 나머지 삼면의 중방 하부는 붉은 벽돌로 쌓았다. 기둥 상부는 모로단청을 하였으며, 뒷벽 중방 위에는 흰색 바탕에 별화를 그렸다.



〈圖 9-55〉

명정각 배치 평면도

(5) 夏光臣 旌閭閣

이 건물은 수성구 만촌동 339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고려 때 吏部侍郎을 지낸 夏光臣의 孝行을 기리기 위해 조정에서 세운 旌閭閣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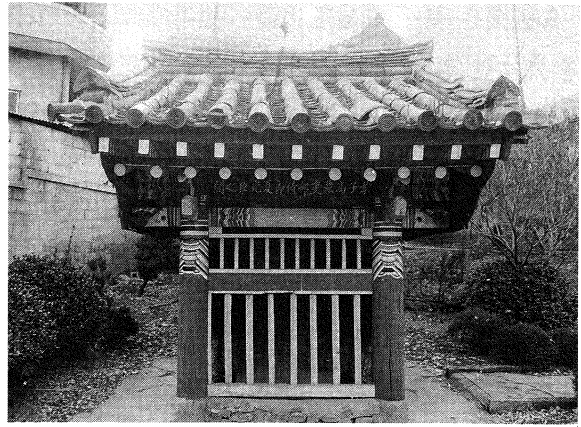
고려 충숙왕 14년(1327)에 夏光臣이 살던 마을에 ‘吏部侍郎 夏光臣之閭’란 旌門을 세우게 하였다. 현재의 旌閭는 정조 5년(1781)에 만촌동 형제봉 기슭에 세웠던 것을 일제 때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현 위치로 다시 옮긴 것이다. 碑文은 吏曹判書兼弘文館 大堤學 黃景源이 지었고 頭篆과 비문의 글씨는 李若榮가 썼다.

夏光臣은 원래 중국 송나라의 大都督으로 고려시대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達城郡으로 奉君된 夏欽의 아들 하용의 손자로 어릴때 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 치

는 겨울에 복숭아를 구해다 준 전설적인 얘기가 술하게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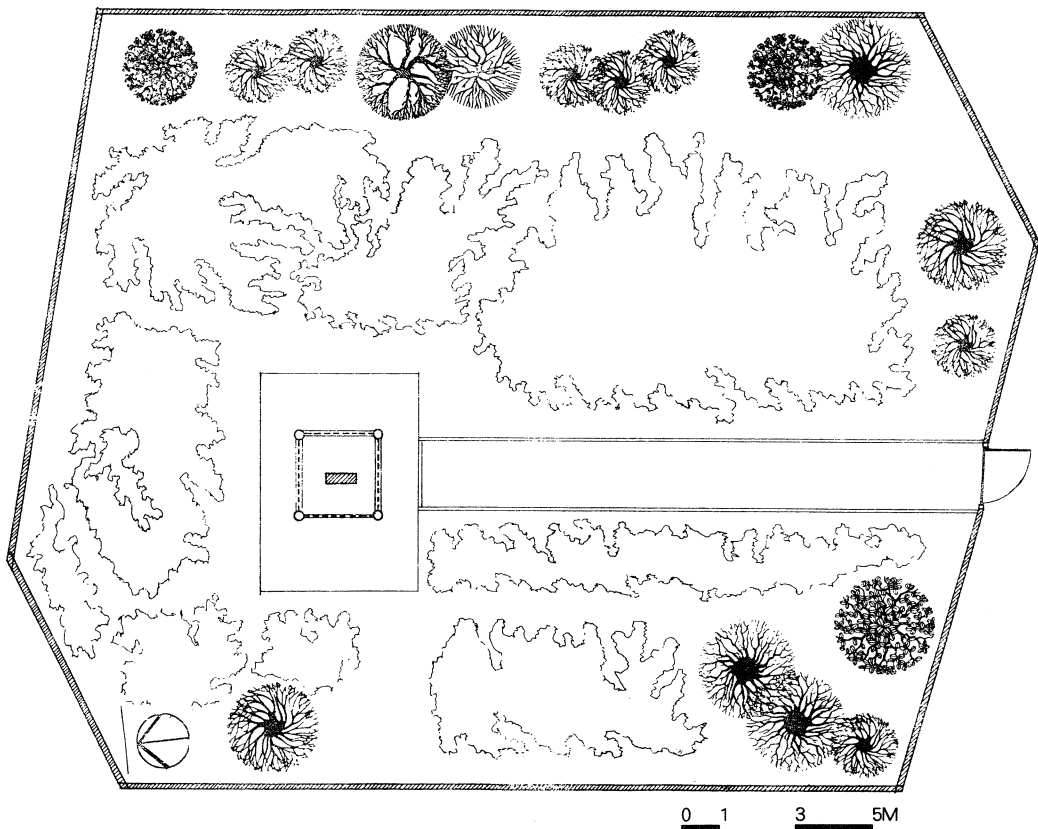
이 旌閭閣은 정면 1칸·측면 1칸의 단칸 건물로 중앙에 정려비가 있다. 건물의 구조는 간략한 3樑架로 낮은 기단 위에 원형의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2익공계 건물이다. 대들보 위에 제형 판대공을 놓아 마루도리를 받고 있으며, 지붕은 겹처마에 박공지붕이다. 건물에는 모로 단청을 하였다.

이 건물은 조선후기 정려각의 형식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사진 9-131〉

하광신 정려각 정면



〈圖 9-56〉

하광신 정려각 배치 평면도

(6) 彰烈閣

彰烈閣은 북구 도남동 623-3번지에 있는 烈女閣이다. 仁川 李氏 完在氏의 伯父가 별세한 후 烈女인 그 伯母를 기려 칠곡군수 沈浣鎭의 표창에 의하여 宗中에서 1932년에 건립하였다. 이 烈女閣은 10평 정도의 대지에 지은 2평 규모의 木造 瓦家이다.

2) 孝行閣 및 기타

(1) 孝行閣

孝行閣은 동구 덕곡동 706번지에 있는 건물로 사헌부 감찰을 지낸 禹元度의 공적과 효행을 기려 고종 31년(1894)에 건립한 것이다.

이 건물은 정면 2칸 규모로 대지 내에 東向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대지 주위는 시멘트 블록으로 담장을 쌓아 공간을 구획하였다.

(2) 孝忠閣

孝忠閣은 동구 지묘동 798번지에 있는 건물로 약 100여 년전 達城 裴氏 門中에서 건립한 것이다. 이 건물은 조선조 철종 때 사람인 배상옥의 지극한 효행을 기려 세운 것이다. 철종은 효행이 지극한 배상옥을 영릉 참봉에 봉했고, 문중에서는 碑와 함께 碑閣을 세우고 그를 추모하였다.

단칸 규모의 碑閣으로 3樑架의 홀처마 맛배지붕이다. 碑閣은 南向으로 서 있으며 주위에는 돌담을 둘러 공간을 구획하였다.

(3) 忠孝閣

忠孝閣은 동구 동내동 450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건물로 조선조 숙종시에 효행이 지극했던 裴爾仁의 旌閭閣으로 왕이 賜額한 것으로 전해온다. 조선시대에는 春秋의 祭需를 경상도 감영에서 전담하였다고 한다. 旌閭閣 내에는 裴爾仁의 효행을 기록한 板刻이 보관되어 있다.

裴爾仁의 號는 默翁으로 星州人인데 아버지 병환에 까마귀를 靈藥으로 드리고, 못가에 잉어가 뛰어 나온 기적과 아울러 어머니 병환에 斷指 注血로 연명하게 한 사실, 또는 兩親喪의 6년 廬幕에 호랑이가 와서 호위한 사실, 그리고 숙종·경종의 두 國喪 때 6년 동안 素食으로 슬퍼하였다는 사실 등이 전해진다. 순종 때 예조판서에 追贈되었다.

(4) 徐命普 孝子閣

이 孝子閣은 북구 산격동 878번지에 있는 건물로 조선 숙종대의 효자였던 徐命普의 孝行을 알리기 위해 순조 2년(1802)에 건립한 것이다. 孝子閣은 건립 이후에 몇 차례 移建하였으며, 1976년에 이곳 宗中 산으로 移建하였다.

徐命普는 부친의 병 간호를 극진히 한 효자로써, 그가 죽은 뒤 21년이 지난 후 24년 동안 부친을 위해 쓴 侍湯錄을 보고 조정에서 工曹左郎에 贈職하였다. 순조 2년(1802)에 ‘左郎公命普孝子碑’를 세웠으며, 헌종 7년(1841)에는 조정에서 旌閭가 내려왔다.

龍潭齋 뒤쪽 모퉁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孝子閣은 單間 규모의 맛배집으로 架構는 3樑架이다. 건물 전면에 철계 살창을 설치하는 등 부분적으로 변형되었다.

(5) 孝子閣

孝子閣은 북구 산격동 1012번지에 순조 2년(1802) 壬戌 暮春에 ‘丞政大夫行吏曹判書判義禁府使知經延春秋館事弘文館提學禮文館提學童子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官世子佐賓客金義純’이 佐郎公 徐命普의 효성을 추모하여 현 산격동 사무소 옆자리에 건립하였다가 60년 전에 동남쪽으로 약 100m 옮겼다가 또 다시 약 40년 전에 현위치로 옮겼다.

단칸 규모의 맛배집으로 보편적인 효자각의 모습을 하고 있다.

(6) 三岡精舍

三岡精舍는 수성구 삼덕 2동 7번지에 있으며, 조선후기 고종 때 義禁府 都事와 中樞院 議官을 지낸 順興人 安永模를 추모하는 건물로 많이 퇴락하였다.

이 건물은 정면 4칸·측면 1칸의 규모로,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정면의 4칸에는 각 칸마다 편액이 있는데, 제일 좌측으로 부터 雲林兵舍, 妙見齋, 著尊堂, 必有齋라 되어 있다.

(7) 仁山精舍

仁山精舍는 달서구 상인동 1023-2번지에 위치한 20세기초 건물로 조선조 철종 때 8郡의 郡守를 지낸 景齋 禹成圭를 추모하여 제자들이 1905년에 건립한 것이다.

이 정사는 123평의 대지에 정침과 대문간이 西向으로 배치되어 있다. 정침은 4칸 (10평) 규모의 팔작지붕 瓦家이며, 대문간은 1칸(2평) 규모의 瓦家이다. 담장은 시멘트 블록으로 쌓았다.

(8) 洛陽精舍

洛陽精舍는 달서구 용산동 456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건물로 洛陰 都慶俞(1596~1637)가 인조 3년(1625)에 性理學의 講論과 修身·德行을 위해 건립한 것이다. 洛陰先生은 그의 伯兄이 되는 翠의 都應俞와 더불어 寒岡 鄭述와 慕堂 孫處訥의 門人으로서 性理學에 밝고 덕행과 효성이 지극하였다. 兄인 翠의는 丁卯·丙子胡亂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하였고, 동생인 洛陰은 丁卯胡亂때에 南原으로 東宮을 扈從한 이후 관직에서 善政 治績이 많았다.

臥龍山 屏巖을 등진 현 위치에 洛陰精舍를 건립하자 이곳은 後進 선비들이 수학하는 건물로 사용되었다. 그후 정조 5년(1781)에 鄉土 士林이 두 분의 유덕을 받들어 書院을 건립하여

配享할 것을 결정하였다. 정조 10년(1786)에 이르러 비로소 書院에 위패를 모시고 봉안 향사하였다.

屏巖書院은 그 후 향토문화와 인재 배출의 중심이었으나 대원군의 書院 철폐시 자연 쇠퇴하였다. 廟宇는 근래 개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유물로 3백여년 전 자체 제작한 기와 500여장과 陽刻된 洛陰文集 木板 100여장이 보존되고 있다.

(9) 講舍堂 御賜閣

講舍堂 御賜閣은 동구 신무동 698번지에 있다. 이 마을에는 崔氏·裴氏·吳氏·具氏·金氏의 5姓이 모여 살았는데, 吳福龍 先生에게 漢學을 배우기 위해 洞民이 書堂을 짓고 講舍堂이라 하였다. 또 漢學을 배우고 基金을 모아 畓 3만평을 小作하여 春窮期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寄附米를 주었다. 이 사실을 들은 조정에서는 御筆로 讚揚書를 下賜함으로 御賜閣을 세웠으나 日帝 때 소실되었다.

현재의 御賜閣은 南向하여 자리잡고 있는데, 평면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둔 ‘中堂夾室形’이다. 주위에는 돌담을 둘러 공간을 구획했다.

(10) 泰忠閣

泰忠閣은 북구 노곡동 204번지에 있는 조선 후기 碑閣이다. 이 碑閣은 조선조 단종때 忠臣인 金文起의 忠節을 기리기 위해 ‘忠毅公 金白村 遺蹟碑’를 세우면서 碑의 보호를 위해 고종 37년(1900)에 건립한 것이다. 대구에 泰忠閣이 세워지게 된 것은 그의 9世孫인 金應守가 壬辰倭亂 당시 영동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으로 그는 의병을 일으켜 功을 세우기도 했다. 이 곳에 비를 세운 것은 金文起가 경상도사로 있을 때 이곳 뚝을 소요하며 즐겼다는 이야기에 따른 것이다.

碑閣 건물은 맞배지붕이며, 유적비의 碑文도 잘 보존되어 있다.

5. 壇(社稷壇·城隍壇·厲祭壇·祭天壇)

1) 社稷壇

삼국시대부터 이미 건축되어 왔던 社稷壇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한양 천도 다음 해인 太祖 4年(1395) 正月에 始役하여 완공을 보았다. 이처럼 社稷을 중히 여기는 것은 《周禮》에 의한 것으로, “왕궁의 路門 밖 왼쪽은 祖廟이고, 오른쪽은 社稷이며, 왕궁의 前面은 朝廷이고, 後面은 시장이었는데……”라는 기록에 의하여, 宗廟는 경복궁의 왼쪽인 동남측에, 社稷은 오른쪽

인 서남측에 세웠던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각 지방에도 官衙의 서쪽에 社稷壇을 세우고 치제하여 國泰民安과 풍년을 빌게 했던 것이다.

社稷壇은 宗廟와 함께 나라의 神과 穀食을 맡은 神에게 祭祀 지내는 곳이다. 보통 都城의 서쪽에 설치하며 서울에는 漢城府 儀仁達坊에 있는데 지금의 사직공원 자리이다. 조선시대 大邱에도 당시의 大丘府 西쪽 7里되는 坪山에 있었다.

대구 사직단은 현재 유적이 남아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기록이 없어 당시의 모습을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서울에 남아 있는 사직단의 형태와 구조를 통해 대구 사직단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서울에 있는 社稷壇의 규모는 壇을 두 개로 만들어 社壇은 동쪽에, 稷壇은 서쪽에 배치하여 사방이 각각 2丈 5寸으로 북쪽에서 남으로 향하게 하였고, 각 단의 높이는 3자인데 사방을 장대석으로 3층 쌓았다. 壇上에는 각각 2자 5치 정도의 石柱가 있다. 祠壇에는 國社의 神位를 남쪽에서 북을 향하여 봉안하고 后土神을 배향시켰으며, 稷壇에는 國稷의 神位를 봉안하고 后稷의 神을 배향시켰다. 부속 건물로는 典祀廳·執事廳·部長直所가 있었고, 祭禮는 文廟와 宗廟의 禮에 따르게 하고 2월과 8월 및 동지와 除夕에 행하였다고 한다.²⁸⁹⁾

대구 社稷壇에 관한 기록은 《慶尙道邑誌》와 《輿地圖書》,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 보인다. 이중 순조 32년(1832)에 편찬된 《慶尙道邑誌》의 〈大丘府〉 기록이 가장 상세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在府西七里坪山，設齋舍使僧守護，神室壬子創建”이라 하여 社稷壇은 大丘府에서 서쪽 7리 되는 坪山에 있으며 거기에 齋舍를 짓고 佛僧으로 하여금 수호토록 했고, 壬子年에는 神室을 창건했다는 것이다.²⁹⁰⁾

위 내용을 분석해 볼 때 社稷壇에는 社稷壇 외에 齋舍와 神室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다. 齋舍는 社稷壇에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제 기능 즉 祭需마련 陣設·飮福·參祭人의 留宿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건물이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이 건물의 관리는 佛僧들이 맡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神室은 神體를 모시는 건물로 보이며, 壬子年에 창건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慶尙道邑誌》가 편찬된 순조 32년(1832) 이전에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순조 32년(1832)의 바로 앞 壬子年인 정조 16년(1792)에 건축

2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 1991, p.22.

290) 《慶尙道邑誌》, 大丘府, 아세아문화사, 1982, p.22.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輿地圖書》에는 “在府西七里坪山”이라 하여 社稷壇이 大丘府 서쪽 7리에 위치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위 《慶尙道邑誌》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이다.

2) 城隍壇

마을 수호신을 지칭하는 말로 城隍 또는 서낭이라 한다. 서낭신의 내력은 고려 문종 때 新成鎭의 城隍神祠를 설치하여 위엄있게 숭배하였다는데서 찾을 수 있으며, 당시에는 각 州·府·縣마다 서낭을 두고 이를 극진히 섬겼다. 또한 고려 고종은 침입한 몽고병을 물리치게 된 것이 서낭신의 도움 때문이라 하여 서낭신에게 神號를 가봉했던 일도 있다.

서낭은 조선시대에도 널리 신앙되었다. 조선시대의 서낭은 國行 서낭과 민간에서의 서낭으로 나누어졌으며 國行 서낭은 護國이라는 두 글자를 붙였다.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여러 山川에 서낭을 제사하였으며, 太宗은 白岳서낭과 松岳서낭을 新都서낭으로 모셔 오기도 했다.

《東國文獻備考》에도 조선시대에 서낭신을 섬긴일이 기록되어 있다. 李瀾의 《星湖僊說》에 보면 “우리 나라 풍속이 귀신을 신봉하기 좋아하여 혹은 禾竿을 만들고 紙錢을 달아 村巫들이 서낭신이라 칭하여 섬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서낭에 대한 기록은 《東國輿地勝覽》과 邑誌 등에도 보인다. 이러한 서낭에서는 정기적인 제사뿐만 아니라 國亂이나 가뭄이 있을 때 서낭제를 거행하여 國泰민안을 기하려 하였다. 이같은 서낭은 우리의 고유 신앙으로 마을 수호신·풍요신·조상숭배 신앙을 함께 다루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신앙 형태이다.²⁹¹⁾

대구 城隍壇에 관한 기록은 《慶尙道邑誌》와 《輿地圖書》,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이 소략하여 다만 그 위치만 알 수 있을 뿐이다. 《慶尙道邑誌》에는 “在府南二里連龜山”이라 하여 당시의 大丘府 남쪽 2리에 있는 連龜山에 城隍壇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⁹²⁾

위 기록으로 볼 때 조선시대 大丘府에서는 連龜山에 城隍壇을 두고 대구를 수호하는 신과 풍요신 등에게 서낭제를 거행하여 國泰민안을 빌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3) 厲祭壇

厲祭는 厲鬼에게 지내는 祭祀이며, 厲祭壇은 厲祭를 지내는 壇이었다. 厲鬼란 여러 가지 사

2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1991, p.690.

292) 아세아문화사, 大丘府, 《慶尙道邑誌》, 1982, p.22.

정으로 인하여 제사를 받을 수 없는 無祀鬼神 또는 無籍鬼神을 말한다. 이들 無祀鬼神은 사람에게 붙어 탈이나기 때문에 이를 祭祀지념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조선시대에는 禮曹에서 祀官을 파견하여 매년 2회(7월 15일, 10월 15일) 서울 北郊에 있는 厲壇에서 城隍 1位와 無祀鬼神 15位를 제사지냈다. 이때 祭官은 한성부윤이 하였다. 각 지방에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厲祭壇을 두고 厲祭를 모셨던 기록이 보인다.²⁹³⁾

대구 厲祭壇에 관한 기록은 《慶尙道邑誌》와 《輿地圖書》,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 보인다. 그중 《慶尙道邑誌》의 〈大丘府〉 기록이 가장 상세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在府北八里砧山, 設齋舍使僧守護, 神室壬子創建”라 하여 厲祭壇이 大丘府 7리에 있는 砧山에 있었고, 祭祀를 모시기 위해 齋舍를 짓고 佛僧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했으며, 壬子年에 神室을 처음 지었다는 것이다.²⁹⁴⁾ 이 내용이 전술한 사직단의 “……設齋舍使僧守護, 神室壬子創建……”라는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厲祭壇도 社稷壇과 같은 시기인 정조 16년(1792)에 건축되어 佛僧들에 의해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기록을 살펴볼 때 厲祭壇에도 앞서 살펴본 사직단처럼 齋舍와 神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八公山 祭天壇

八公山 祭天壇은 대구시 동구 중대동에 있다. 팔공산은 신라시대에 하늘에 제사지내고 山神에 제사지내는 聖山靈岳으로 유명했다. 신라시대의 祭祀는 大祀·中祀·小祀로 나누어 지냈는데, 中祀 五岳은 가장 중요한 산이었다. 동쪽의 토함산(현 月城), 서쪽의 계룡산(현 公主), 남쪽의 智異山(현 晉州 山靑), 북의 태백산(현 榮州) 중의 父岳 일명 公山이 바로 그것이었다.

中祀五岳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악이요 중심에 위치한 산이 中岳 公山이다. 中岳의 제사는 중악의 山神에게 지내는 祭와 여기 山頂의 祭天壇에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제사를 겸하였다.

이와 같은 山神祭는 신라, 고려, 조선에 걸쳐 사뭇 행해졌다. 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의 卷 38 「道場齋西蕉疏祭」에 그가 쓴 ‘祭公山大王文 獻馬公山大王文 公山大王謝祭文’(밑줄 필자)이 수록되어 있다.²⁹⁵⁾

2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5, 1991, p.183.

294) 註 292)와 같음

295) 대구직할시, 《향토문화유적》, 1988, pp.109~111.

第2節 近代建築

I. 序 言

근대건축은 西歐文明의 產物이다. 즉 르네상스 이후 인간정신의 새로운 인식과 산업자본주의로 특징지워진 근대사회의 생성과정에서 나타난 대중적건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²⁹⁶⁾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형성과정은 開港이후 他律에 의한 근대화의 길을 추구하다가 자체 역량의 부족으로 일본 자본주의의 식민지로 전락되는 과정과 식민조선에서의 광범위한 식민지 반봉건체제의 확립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²⁹⁷⁾ 따라서 開港이후 우리의 건축은 사회, 문화, 기술적 배경뿐만 아니라 근대정신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식건축이 他律적으로 수용됨으로써 전통건축과의 단절을 초래하게 되고²⁹⁸⁾ 그 유입과정의 복잡성, 재료, 기술의 빈약, 非專門家에 의한 유입등으로 일관된 樣式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국 근대건축은 해방과 함께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대건축과 맥이 이어지는 시발점이고, 현재도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조형물로서 韓國建築 發達史上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한국 근대건축은 前時代의 전통적인 建築樣式과 재료, 시공방법등이 완전히 구분되는 西歐樣式의 건축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 근대건축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876년 강화도조약에 의해 부산, 원산, 인천 등이 開港되고 뒤이어 歐美諸國과의 조약이 체결되면서 부터였다. 그러나 대구는 國都인 서울이나 각 開港場들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內陸에 위치해 있고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의 열세와 주민의 보수성등으로 말미암아 189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歐美人 선교사들과 일본인들이 대구에 들어옴으로써 外風에 접할수 있었으며 뒤따라 근대건축의 유입이 이루어졌다. 대구에 근대건축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인데, 그 유입경로는 대체로 다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1) 선교사를 통해 들어온 歐美人의 종교건축 및 산하 공공시설과 주거건축

296) V. Scully, 《근대건축》, 산업도서편찬회, 1988, p.3.

297) 정기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 한국근대의 건축에 대한 시대구분론〉 《학술발표논문집》 7-2, 대한건축학회, 1987, p.10.

298) 김일진,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조사보고서》, 대구직할시, 1988, p.13.

(2) 일본인에 의한 관청 및 공공건축과 상업건축

(3) 미약하기는 하나 한국인, 중국인들에 의한 주거 및 상업건축과 문화시설이 그것이다.

II. 都市의 變遷

대구는 한반도의 동남부 영남내륙의 중심에 위치하며 四面이 山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도시이다. 대구분지는 서쪽의 낙동강 중류로 합류하는 금호강과 그 지류인 신천유역의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서쪽으로는 낙동강의 충적평야와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조선중기부터 대구는 지방의 행정, 군사 중심도시로서 定期市場이 개설되는 조선 굴지의 대도시로 발전하였고, 開港期 이후에는 日帝의 조선 경제침략을 위한 據點都市가 되었다.²⁹⁹⁾

조선후기부터 영남의 관문 역할을 했던 대구는 1895년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감영이 폐지되고 大邱府가 되었다. 당시 大邱府의 城內에는 대부분 吏族들이 거주하였고, 城壁을 따라 서부와 남부지역에는 일반백성들이 그들의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대구에 일본인이 최초로 이주해온 것은 1893년 부터였으나³⁰⁰⁾ 이들이 본격적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한것은 대구가 상업상의 입지로 최적지라는 정보가 전해지고, 1903년 경부선 철도부설공사가 착공되면서부터였다. 그후 1905년 경부선철도가 개통되고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계기로 대구의 일본인 居留民 數는 급증하여 1904년 6월에 1,000여인 이었던 것이 1906년 말에는 2,152인, 1910년 말에는 7,392인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일본인들은 당시 大邱城의 南門밖 도로변(염매시장 南便一달성공원)과 北城밖의 大邱驛 근처에 商店街를 형성하였으며³⁰¹⁾ 城壁이 철거된 1909년이후부터는 한국인들의 거주 중심지인 城內로 밀고들어와 점거하기 시작하였다.

〈表 9-1〉

대구의 일본인 戶口

구 분	1906	1910	1934	1936	1942	비 고
호 수	1,068	1,978	3,487	5,955	4,638	
인 구	2,152	7,392	12,603	26,769	20,682	

資料：大邱府，《大邱府史》，1943

299) 田村一久, 《郷土地理의 實例》, 大邱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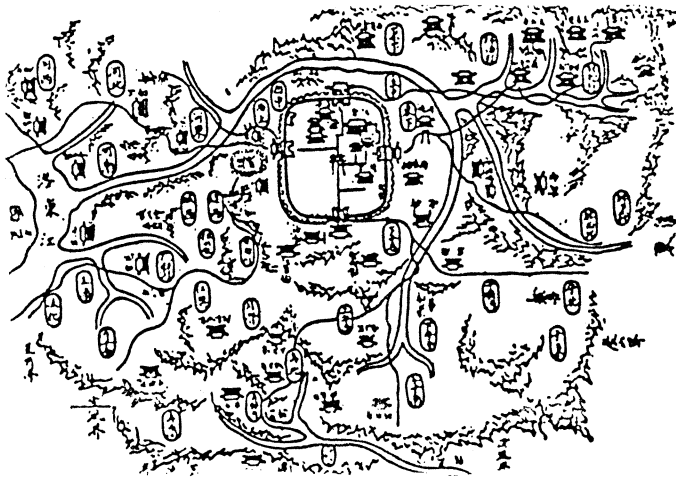
300) 대구에 최초로 이주해온 일본인은 藤付, 室 등 2인으로 이들은 대구의 南城밖에서 의학 및 잡화점을 경영하였다.

301) 대구직할시, 《대구시사》 2, 1973. p.337

이 기간에 있어서 대구 도심의 공간변화는 ①대구역의 위치결정 ②城壁철거 ③시구개정의 세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를 중심으로 도심공간의 변화과정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부선철도가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北門밖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南門밖은 쇠퇴하고 北門 주변이 발전되었다.

둘째, 1909년 12월 統監府 理事廳과 대구 日本居留民團의 城壁 철거로 城壁蹟地가 街路化하고 대구역전(대구역 - 중앙파출소), 도심부 십자로(東西, 시청 - 西門, 南北路, 鐘路)등이 개설됨에 따라 일본인들의 城內점거가 시작되었다. 당시 城壁의 철거는 韓,日人間의 거주지역을 구분하던 장벽의 제거를 의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城內·外의 地價差가 줄어들고, 양쪽 모두의 地價가 약 10배이상 상승하게 됨으로써 城壁의 철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일본인들에게 一大致富의 기회가 되었다. 셋째, 대구 일본거류민단은 1911년 11월 시구개정안을 작성하여 주요 시가지 간선도로의 건설사업(1913-1920)을 시행하였다.³⁰²⁾

1910년 대구는 韓日合邦에 따라 大邱府가 되었는데 그후 인구성장을 거듭하여 1910년에 31,949인이었던 것이 1940년에는 200,772인으로 약 6배가 증가되어 무질서한 시가지가 형성되었다.³⁰³⁾ 1914년에는 府의 행정구역을 市街地로만 국한하여 7.6Km로 축소 조정하였다. 그러



〈圖 9-57〉 大邱府圖(조선후기)

資料 : 大邱市史 編纂委員會, 《大邱市史》 1, p.268

302) 김철수, 《한국 성곽도시의 형성 발전과정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1984, p.95.

303) 홍경희, 《대구시 - 도시지리학적 연구》, 대구시, 1966, p.135.

나 1915년 이전에는 城內에 국한되었던 시가지가 1915년부터는 칠성동·달성동·덕산동·남산동 등 외부로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近代市場이 개설되었다.



〈圖 9-58〉

日帝時代의 大邱(1937)

資料：金哲洙, 《韓國城廓都市의 形成 發展過程과 空間構成에 關한 研究》,
弘益大 博士學位論文, 1984, p.98

1920년대에는 대구역에서 중앙과출소를 연결하는 南北間의 중심도로인 중앙로(1924)를 비롯하여 1920—1930년사이에 市街地內와 외곽도로가 축조되었으며,³⁰⁴⁾ 문화동·동인동·달성동에는 50호의 府營住宅이 건설되었고, 이어 동인동에 경마장(1926)과 대구공설운동장(1931)이 설치되는등³⁰⁵⁾ 주로 지형이 평탄한 舊 邑城의 東南側地域의 市街가 형성되었으나, 칠성동을 제외한 철도북편은 市街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37년 3월에는 서울에 이어 시가지계획령이 고시됨에 따라 가로정비사업을 비롯하여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주택지조성사업³⁰⁶⁾등 新市街地 조성사업이 조성되어 市街地의 평면적 확산이 조장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중기 이후 城廓都市로 발전해온 대구는 19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경부선철도의 개설에 따른 대구역 건설과 城壁 철거에 따른 市街地 街路의 정비와 더불어 행정, 금융기관, 상점등 각종 근대적시설들이 舊 邑城의 중심부에 입지하게 됨에 따라 도심형성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도로들은 현재 小路에 불과하지만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도심의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였다.

304) 장재윤, 《대구 간선도로망 형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2, pp.106~108.

305) 홍경희, 앞의 논문, p.123.

306) 대구직할시, 《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 1982, p.7.

III. 公共建築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日帝는 “統監 및 理事廳 官制를 公布(1905, 12)하고, 朝鮮 總督府 理事廳에 度支部 建築所를 설립(1906)하여 건축부문에서도 그들의 조직적인 계획을 실현시켜 나갔다.³⁰⁷⁾ 그 결과 1905년이후 度支部 建築所 및 總督府 營繕課에서 대구지역에 건축한 공공건물은 일본 식민지를 위한 전초 혹은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건축이었다.

1. 근대 공공건축의 태동기(1886-1909)

대구의 일본인 數는 경부선 철도부설공사의 착공 (1903)에 이어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계기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日帝는 대구에 그들의 거류지 보호와 식민지 전초기지의 확보를 위해 대구에 警察署와 理事廳을 설치하였다. 이에따라 대구의 일본인들은 日本人 居留民會를 日本人 居留民團으로 확대 개편하고 大邱 理事廳의 정치적 보호와 풍부한 자금지원하에 商工 및 기타 영리사업을 활발히 일으키면서 그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대구에 일본인들이 들어와 식민지 전초기지를 확보하는 이 시기의 건축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나 현존 건물이 없기때문에 현재까지 전해오는 당시의 건물 사진과 약간의 문헌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수 밖에 없다. 주요 건물로는 大邱 日本理事廳(1909), 大邱警察署(1909)등이 있다.

1) 大邱警察署

大邱警察署는 1909년 日帝가 중구 서문로 1가 1번지 현 중부 경찰서 자리에 건축했던 건물로 1929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은 르네상스風の 木造 2층, 日·洋折衷式(擬洋風)³⁰⁸⁾ 건물로 정면의 현관 포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이며, 벽면은 비늘판 마감이었다.



〈사진 9-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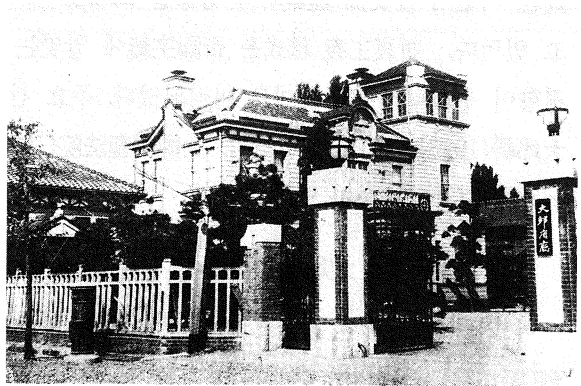
대구 경찰서

307) 윤재웅, 《大邱地域 近代建築에 관한 研究》,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91, p.67.

308) 木造로 石造나 벽돌조의 西洋建築을 모방하여 지은 건물로, 외관은 주로 르네상스風이다. 이러한 건물은 開港場이나 서울에서는 1890-1900년초까지, 대구에는 1905-1915년경까지 일본의 관청건물로 많이 건축되었다.

2) 大邱 日本理事廳

大邱 日本理事廳은 1909년 度支部 建築所의 日本人 기술자들이 중구 동인동의 현 대구시청 자리에 지었던 건물이다.³⁰⁹⁾ 이 건물은 당시 부산, 元山 等地에 세워진 것과 매우 흡사한 르네상스풍의 木造 2층, 日·洋折衷式(擬洋風) 건물로서 벽면은 비늘판 마감이다. 韓日合邦後 大邱府廳으로 사용되었다.



〈사진 9-133〉

대구 일본이사청

2. 근대 공공건축의 형성기(1910-1929)

1910년 8월 29일 朝鮮을 強壓하여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한 日帝는 모든 행정, 사법기관을 식민지 통치에 편리하게 재편성하고, 지방에까지 행정력의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대구에도 관청을 비롯한 교통, 통신시설등의 건축수요가 많아지게 되었다. 당시 대구의 일본인들은 大邱府內의 幹線道路를 그들의 계획대로 정리한 후 한국인들의 거주 중심지인 舊 城內部로 밀고 들어와 관청, 학교, 통신시설, 상점, 주택등을 건축해 나가면서 대구를 그들의 생활 중심도시로 형성해가기 시작하였다.³¹⁰⁾ 헌병경찰제에 의한 日帝의 식민정책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전환되었다.

1920년대에 들어와 日帝는 韓民族 上層部의 회유와 민족분열정책을 강화하고, 아울러 경제적 수탈을 강행하면서 문화의 발달과 民力의 충실이라는 일종의 식민통치의 타협형태로써 소위 기만적인 문화정치를 가장한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변화는 대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대구에서는 당시 일본인 인구가 약1만(한국인 인구 약3만)에 달하고 대구의 거의 모든 산업을 그들이 장악하게 되자 日帝는 公私間의 집회나 사회활동 뿐만아니라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 사상을 한국인들에게 선전, 교화하기위한 문화시설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의 일본인들이 지은 건축물들을 보면 1910년대에는 주로 르네상스風의 木造 日·洋折衷形(擬洋風)이었으나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벽돌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建築樣

309) 三輪如鐵, 《大邱一斑》, 1911, p.18.

310) 윤재웅, 앞의 논문, p.67.

식은 여전히 度支部 建築所의 영향을 그대로 이어 받은 일본 자체의 折衷主義 樣式을 채택하고 있었다. 折衷主義 樣式은 帝國主義에 알맞는 樣式으로 당시 일본에서 유행했으며 이러한 경향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이식되었다. 주요 건물로는 大邱郵便局(1912), 大邱公訴院(1910), 大邱驛(1913), 朝陽會館(1922), 大邱覆審法院(1923), 武德會館(1923), 府立圖書館(1924), 道立大邱醫院(1928) 등이 있다.

1) 大邱公訴院

이 건물은 1910년 度支部 建築所에서 현 중구 공평동에 건축되었던 木造 2층의 日·洋折衷形(擬洋風) 건물이다. 건물의 설계는 엄정한 클래식(Classic)을 따랐다고³¹¹⁾하며, 당시 평양공소원청사와 같이 사용토록 준비하였으나 대구에서 먼저 실현되었다.

평면구성은 ㄷ字形으로 정면 중앙부에 2개의 탑을 설치하였고, 주 출입구를 중앙에 설치하여, 포치(Porch)로 장식하였다.

외관은 정면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이고, 層사이에 코니스(Cornice)³¹²⁾를 설치하였으며, 건물의 양쪽 날개부는 페디먼트(Pediment)³¹³⁾로 장식하였다. 合邦後 覆審法院으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다가 1923년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하였다.



〈사진 9-134〉

대구공소원

2) 大邱驛

大邱驛은 1913년 12월 일본인 기술자들에 의해 건축된 木造 2층의 르네상스 洋式에 준하는 日·洋折衷形(擬洋風) 건물이다. 이 건물은 당시 地方 鐵道驛으로서는 부산, 신의주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驛舍로서 日帝의 조선 경제 침략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해방후에



〈사진 9-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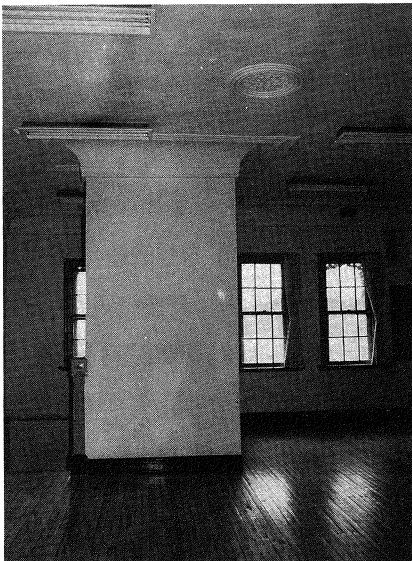
대구역

311) 度支部 建築所編, 《建築所 事業概要》, 1909, pp.65~98.

312) 벽체上部 또는 층사이에 장식을 위해 만든 수평돌림띠.

313) 그리스, 로마건축에서 前面 上部에 만든 3각형의 박공벽.

돌공장을 하던 백남채의 책임하에 중국인 기술자들이 담당하였다고 한다.³¹⁵⁾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붉은벽돌쌓기 구조로 각종 장식수법과 형태적 구성에서 르네상스적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건물 내부에는 약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비롯하여 회의실, 사무실, 인쇄실, 오락실까지 갖춘 최신시설에 대구구락부, 대구운동협회, 대구여자청년회, 동아일보 지국 등을 두었고, 이곳에서 시국강연, 국산품애용, 상공업진흥 등에 대한 강연회를 자주 개최하였으며 야학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가르치고 “農村”이라는 잡지도 발행하였다.



〈사진 9-137〉 조양회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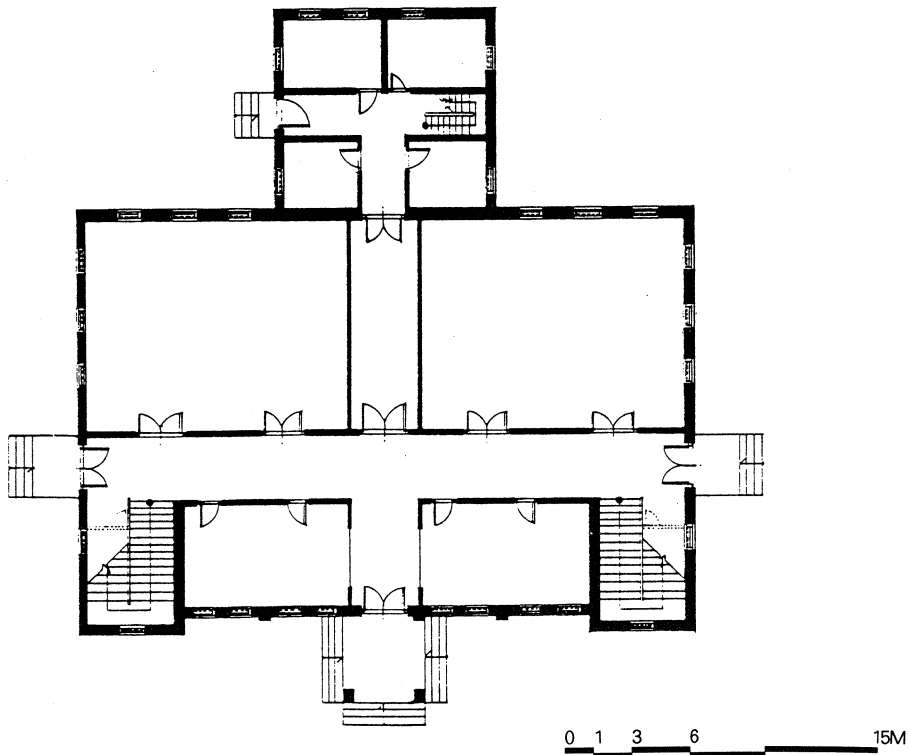
이 건물의 평면구성은 長方形이며 정면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十字形의 중복도를 두고, 그 좌우에 같은 모양의 창을 배치하여 대칭형으로 구성하였다. 주현관은 정면 중앙에 위치하며, 반원 아치(Arch)와 페디먼트(Pediment)로 구성하였다. 외부 벽체는 화강석 기초위에 붉은벽돌을 쌓아 구성하고, 벽면에는 목재 오르내리창을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였으며, 창문의 아래위에는 화강석의 평인방을 설치하여 대칭성과 수평성을 강조하였다. 내부 각 室의 마감은, 바닥은 긴 마루판이고 벽면은 회반죽 마감이며, 지붕구조는 목조 트러스로 구성하였는데 특히 마루판, 지붕가구, 창문틀 등의 목재는 압록강 근처에서 생산된 낙엽송으로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형없이 잘 보존되어 있다.³¹⁶⁾

이 건물은 1930년대 후반부터 大邱府立圖書館, 일본보급부대, 한민당사무실, 유격대병영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오다가 1950년 원화여중이 설립되면서부터 서상일의 뜻을 이어 다시 朝陽會館이라 명명하고, 이 학교에서 교무실, 도서실, 양호실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후 1980년에는 원화여중고가 외곽지로 이전해감에 따라 월성산업(주)에서 인수, 1984년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망우공원에 원형 그대로 이전하여 대구직할시에 기부하였으며, 현재 光復會館 大邱支部로 사용하고 있다.

315) 대구직할시, 앞의 책, pp.114~115.

316) 김일진, 앞의 책, p.144.



〈圖 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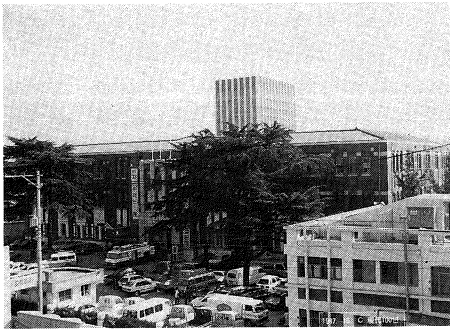
조양회관 1층 평면도

4) 大邱覆審法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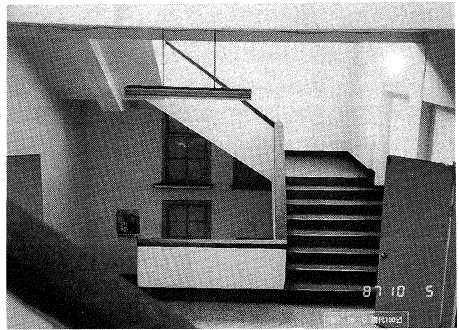
이 건물은 1923년에 日帝가 중구 공평동 58-1번지에 있던 木造 2층의 大邱公訴院(1910) 건물을 헐고, 그자리에 새로 지은 벽돌조 3층건물로 정면 중앙의 현관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평면구성은 日字形으로 중앙의 현관홀 양쪽에 같은 모양의 中庭을 두고, 건물의 안쪽 둘레에는 口字形으로 복도를 설치하였다. 주현관은 건물의 중앙에 위치하며 포치(Porch)³¹⁷⁾로 장식되어 있고, 윗부분은 4각형의 탑(Turret)을 세웠다.

외부 벽체는 붉은벽돌을 쌓아 구성하고, 건물의 주 현관부에는 포치(Porch)를 두었으며, 그 위의 탑부는 4개의 화강석 기둥을 붙임기둥(Buttress)처럼 세워 정면성을 강조하였다. 내부 벽체는 회반죽 마감이고,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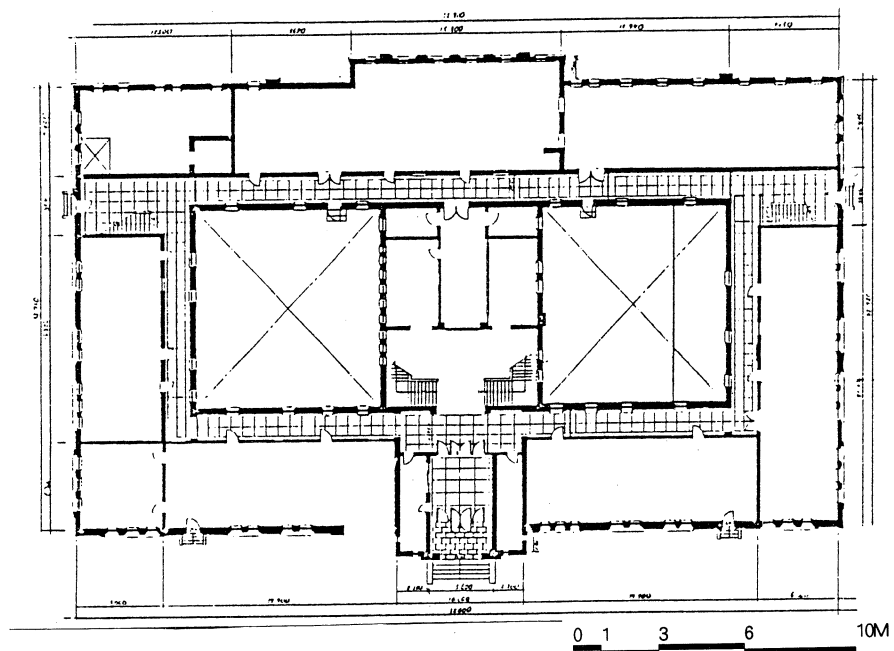
317) 건물의 출입구 上部를 벽면으로부터 조금 튀어나오게 한 부분.



〈사진 9-138〉 대구 복심법원 전경



〈사진 9-139〉 대구 복심법원 내부 계단실



〈圖 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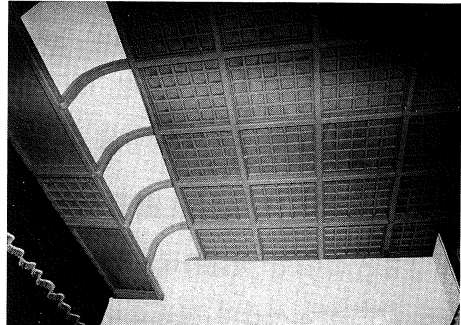
대구 복심법원 1층 평면도

5) 武德會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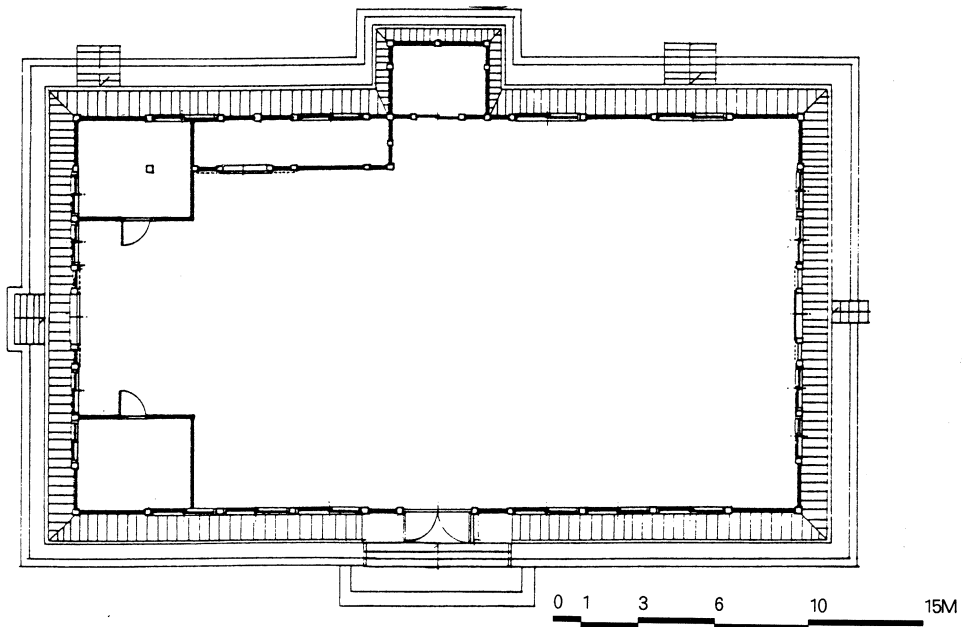
1920년대에 들어와 日帝는 韓民族 上層部の 회유와 민족분열정책을 강화하고 아울러 경제적 수탈을 강행하면서 문화의 발달과 民力의 충실이라는 일종의 식민통치의 타협형태로서 소위 기만적인 문화정치를 그 기본으로 내걸었다. 문화정치를 가장한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변



〈사진 9-140〉 무덕회관 정면



〈사진 9-141〉 무덕회관 내부 천정



〈圖 9-61〉 무덕회관 평면도

화는 대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大邱府에서는 일본인 인구가 약 1만에 달하고(한국인 인구 약 3만) 대구의 거의 모든 산업을 그들이 장악하게 되자 公私間의 집회나 사회활동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 사상을 한국인들에게 선전, 교화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설립을 서둘렀다.

武德會館은 1923년 慶北 武德會가 慶尙北道民의 성금으로 중구 동인동1가 1번지에 건립한 건물이다.³¹⁸⁾ 이 건물은 팔작지붕에 日式기와를 이은 木造 단층집으로 각종 장식수법과 형태적구성에서 日本風을 느끼게 하며, 건물구성에 있어서는 정면 중앙 처마부의 唐破風樣式, 건물 4면의 툇마루 설치, 내부 천정의 반자구성에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건물은 해방후 조선무술회, 경상북도 기동대무술장, 대구시청 회의실 등으로 사용³¹⁹⁾ 해 오다가 1991년 10월 대구시에서 새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철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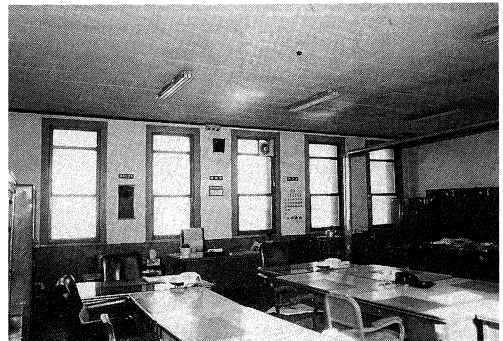
6) 大邱府立圖書館

이 건물은 1924년 大邱府에서 중구 동인동 2가 2번지에 건립한 府立圖書館이다.

당시 日帝는 도서관이 사회교육에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을 인식하고, 일본인에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상을 한국인들에게 선전, 교화하는 역할까지 기대하였다. 이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수는 1936년 12월말 현재 1만 3천84책 이었는데, 이들 장서는 우리말로 된 책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두 일어판이나 기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같이 일본인들은 이 도서관에 일어로 된 서적을 대량 비치하여 식민통치에 이용하려 하였던 것이다.³²⁰⁾



〈사진 9-142〉 대구부립도서관 전경



〈사진 9-143〉 대구부립도서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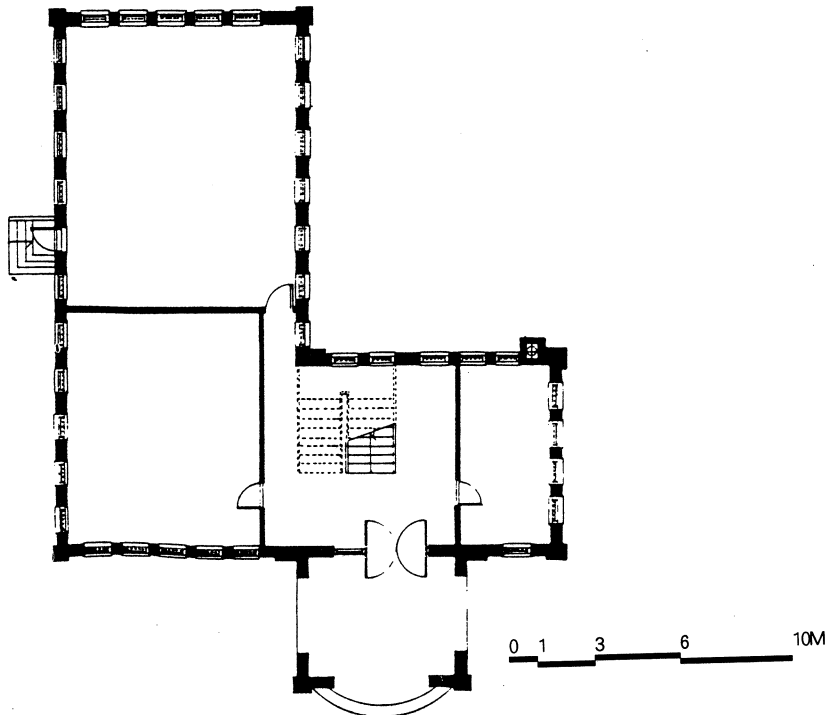
이 건물은 붉은벽돌로 지은 2층 집으로, 지붕은 변형 맨사드형에 마름모꼴의 슬레이트를 이었다. 외벽은 화강석 기초위에 벽돌을 쌓아 구성하고 벽의 각 모서리는 인조석 깎아내기로 마

318) 김일진, 앞의 책, p.126.

319) 김일진, 위의 책, pp.126~127.

320) 김일진, 위의 책, p.129.

감하여 기둥처럼 표현하였으며, 나머지 벽면은 수직돌출벽, 코니스, 화강석 머릿돌(Key Stone) 등으로 다양하게 장식하였다. 또한 정면 주 출입구부의 벽 모서리부와 창 아래부분의 작은 벽은 인조석 씻어내기로 장식하였으며, 특히 정면 모서리벽의 상부와 창 아래 작은 벽에는 “勉學”을 상징하는 듯한 반딧불 모양을 양각하였다.



〈圖 9-62〉

대구부립도서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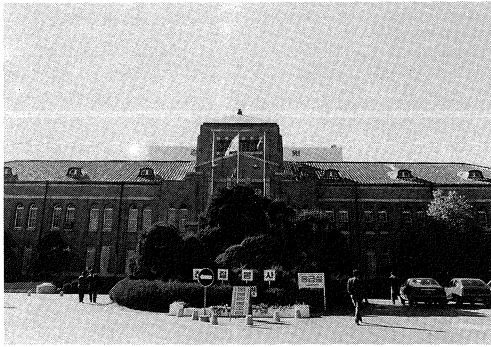
해방후 이 건물은 대구시에서 임시청사, 시립도서관, 대구시 중구청, 대구시 보건사회국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3년 철거하였다.

7) 道立 大邱醫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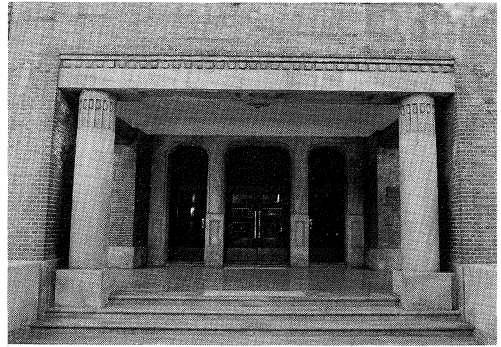
道立大邱醫院은 1910년 9월 韓國 統監部 고시 제208호에 의하여 官立 大邱慈惠醫院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大邱府 東門町(現 東門洞)에 창립되었다. 大邱 慈惠醫院은 1925년 4월 1일 朝鮮道立醫院 官制에 의하여 경상북도로 이관되어 道立 大邱醫院으로 개칭되었으며, 1926년 3월 불의의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1928년에 현재의 위치인 삼덕동에 새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第9章 大邱의 建築

해방후 道立 大邱醫院은 大邱醫學專門學校가 大邱醫科大學으로 개편됨에 따라 大邱醫科大學 附屬病院으로 이관되었고, 1952년 4월에는 慶北大學校의 창립에 따라 慶北大學校 醫科大學 附屬病院으로 개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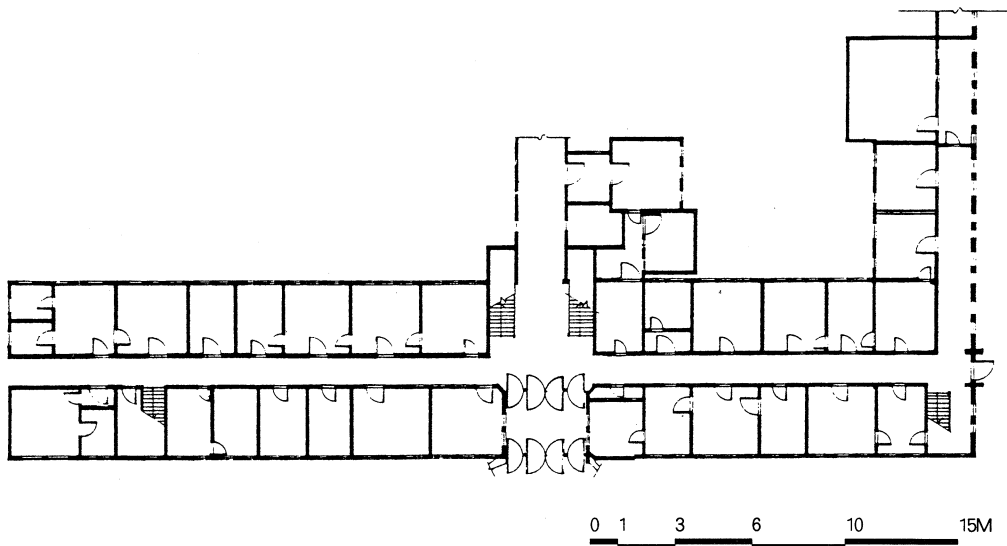


〈사진 9-144〉 도립 대구의원 정면



〈사진 9-145〉 도립 대구의원 현관

이 건물은 정면 중앙부의 포치(Porch)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창인방과 처마부를 화강석 돌림띠로 장식하여 수평선을 강조한 르네상스風의 벽돌조 2층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ㄱ字形이며, 중북도의 양쪽에 室을 배치하였고, 정면의 우측 각인부분은 편복도식으로 구성하였다. 주현관은 정면 중앙에 위치하며 평아치(Arch)로 구성한 포치(Porch)로 장식되어있고, 윗부분



〈圖 9-63〉

도립 대구의원 1층 평면도

은 페디먼트(Pediment)와 사각탑으로 구성하였다. 외부 벽체는 화강석 기초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구성하였으며, 벽면은 창문 한쌍을 단위로 붙임기둥(Buttress)을 세워 수직 분할하고, 1층의 밀인방과 처마부에는 화강석 다듬돌을 돌출 연결시켜 수평돌림띠처럼 구성하였다. 내벽은 회반죽 마감이고,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로 하였으며, 천정은 헌치(Haunch)가 있는 보를 격자형으로 구성하였다.

3. 근대 공공건축의 발전기(1929~1945)

192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는 朝鮮會社令 撤廢(1920)이후 침투해오기시작한 일본 大資本의 영향으로 미국식 빌딩개념과 더불어 일본 分離派建築運動의 여파가 전래됨으로서 서구의 合理主義建築이 생겨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대구에는 빌딩개념의 도입과 함께 철근 콘크리트조의 근대적 건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1939년 태평양전쟁 발발이후에는 모든 국력이 전쟁에 모아짐으로써 건축활동은 거의 중단되었다.³²¹⁾ 이 시기 대구에 건립된 주요 공공건물은 東山病院(1931), 大邱公會堂(1933), 大邱測候所(1936), 키네마劇場(1938) 등이 있다.

1) 東山病院

東山病院은 1898년 존슨(W.B.Johnson)선교사가 南城教會(현, 제일교회)構内の 草家に 세운 대구 최초의 西洋 醫學病院인 濟衆院으로 발족하였다.³²²⁾

濟衆院은 1899년 10월 1일 東山洞의 草家로 옮겨오면서 東山病院으로 개칭되었다.³²³⁾

現 東山病院 舊館 건물은 1931년 프렛처(Fletcher)선교사가 동산동 194번지에 3만5천 달러의 자금을 들여 지은³²⁴⁾ 一字形의 붉은벽돌쌓기 3층 건물이다.

건물의 평면은 남북방향인 긴 長方形의 중복도식으로 정면 중앙부에 현관홀을 두고, 중복도 양쪽에 室들을 균등하게 배치함으로써 외관과 함께 대칭을 이루게 하였다.

외관은 콘크리트 줄기초위에 붉은벽돌을 英式쌓기하여, 지붕을 슬라브로 구성하였으며, 정면의 주 출입구에는 벽면에서 돌출된 현관 포치를 설치하였다. 현관 포치는 붉은벽돌의 角形

321) 김일진·윤재웅, 〈대구지역 근대상업건축의 유입과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6-2, 대한건축학회, 1990, p.125.

322) H.A.Rhodes, A.M.D.D.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1984, p.95.

323) 김일진, 앞의 책, p.165.

324) Harry A.Rhodes, A.M.D.D.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1984. p.94.



〈사진 9-146〉

동산병원 전경



〈사진 9-147〉

동산병원 내부 복도

기둥을 세우고, 그위를 슬라브지붕으로 하여, 파라펫(Parapet)부를 여러 단의 몰딩으로 장식하였다.

창문은 평아치형에 목재오르내리창을 달았으며, 창인방은 평아치형으로 벽면에서 돌출된 인방을 수평으로 상호연결하여 돌림띠처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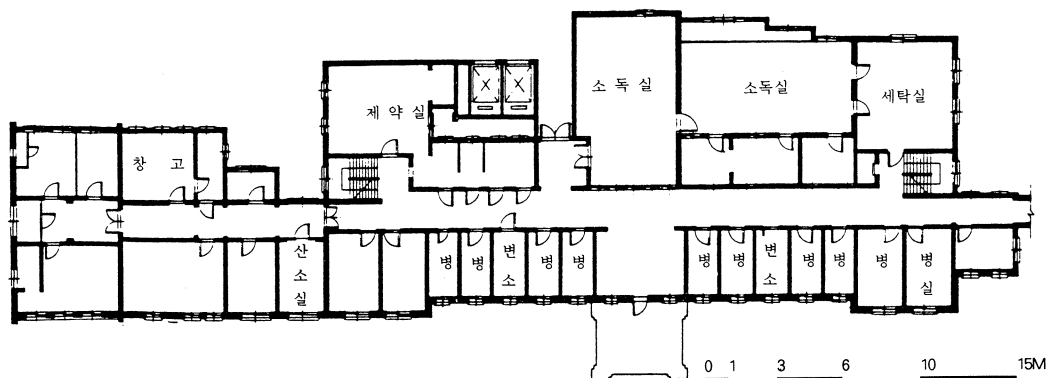
벽면의 上部는 벽돌을 내쌓기하여 처마를 구성하고 그 위에 붉은벽돌을 쌓아 파라펫을 구성하였다.

내부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로, 벽은 회반죽으로 마감하였으며, 문은 목재 쌍여닫이문을 달았다. 천장은 슬라브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보와 천정의 갓돌레는 정교한 몰딩으로 장식하였다.

이 건물은 1941년 태평양전쟁 중에는 日本軍에 징발되어 경찰병원으로 사용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 중에는 軍部隊에 징발되어 國立 警察病院 대구분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³²⁵⁾

1953년이후 동산병원은 소아과병동에 이어, 외래진료소, 입원실등이 현대식으로 증축되었으나 舊館 建物の 외관은 지금까지 당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325) 김일진, 앞의 책, p.166.



〈圖 9-64〉

동산병원 1층 평면도

2) 大邱測候所

韓半島에서 러시아와 세력다툼을 해오던 일본은 러일전쟁(1905)후 한반도에 대한 기상관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산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기상관측소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대구에 기상관측소가 설립된 것은 1907년 3월이었다. 대구관측소는 처음 현, 중구 포정동의 중앙공원 근처에 있었으나 1916년 덕산동의 현 덕산빌딩 자리로 이전하였고³²⁶⁾, 1937년에 현재의 자리인 동구 신암동 716-4번지로 옮겨왔으며, 해방후 (1948) 중앙관상대가 설립되면서 대구측후소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에 이른다.³²⁷⁾ 대구측후소는 대륙침략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을 획책하던 日帝가 1936년이 지역의 기상관측을 위해 지은 건물이다. 건물의 설계는 일본인 白井이 하고 건축공사는 당시 대구에서 盛業하던 屋代組에서 맡았다.³²⁸⁾ 이 건물은 연면적 554.7㎡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5층건물로 평면 및 외관구성에서 표현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띄고있다. 이러한 표현주의적 색채는 건물의 여러 부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과 사진에서 보는



〈사진 9-148〉 대구측후소 정면

326) 김일진, 앞의 책, p.184.

327) 김일진, 위의 책, p.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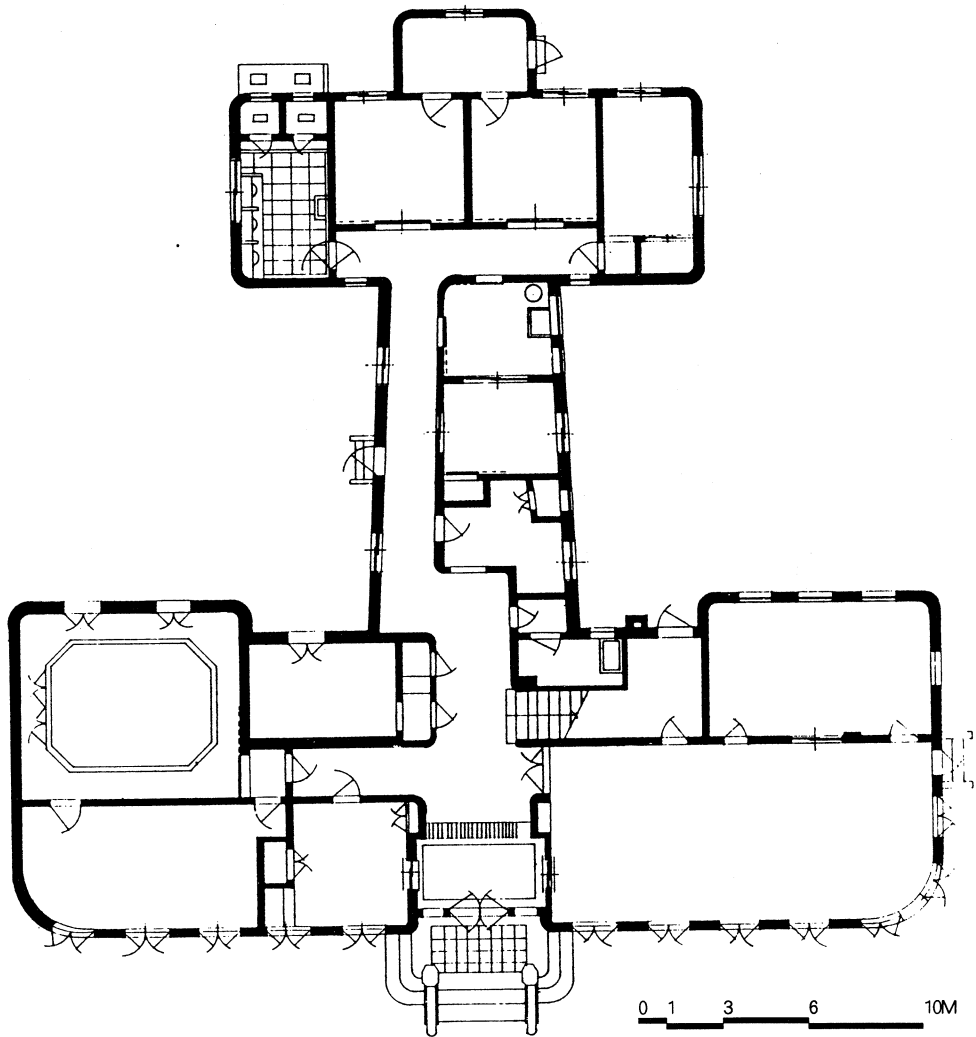
328) 김일진, 위의 책, p.184.

바와 같이 평면형은 당시 쌍엽기로 불리워졌던 전투용 비행기의 모양과 흡사하고, 건물의 외관구성에서는 2층의 가운데 부분이 비행기의 머리부분을, 이를 떠받치고 있는 듯한 현관포치의 양측 기둥과 계단부의 둥근 난간은 몸체의 다리와 바퀴를, 2층 옥상부의 넓은 슬라브지붕은 날개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건물 내부 계단실에 있는 원형창은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게 설치되어 마치 비행기 안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이러한 표현주의적 경향외에 이 건물에서 보이는 특징은 창 아랫 부분의 수평 돌림띠와 슬라브지붕에 의해 강조된 수평선, 모서리벽의 폴딩수법, 정면부의 타일마감등과 계단실 圓形窓의 아르누보적 장식수법, 특히 남쪽을 향해 날아 가려는 듯한 건물의 형상 그리고 2층 내부의 모서리기둥을 유리벽으로 감싸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한 점 등이 특이하다. 이러한 새로운 공간 구성수법은 독일의 건축가 월터 그로피우스(W.Gropius)가 1911년에 최초로 “알프레드(Alfred)구두공장 건축”에 시도했던 것으로 20여년이 지난 1936년에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에서 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건물이 지어진 1930년대 중반, 일본은 미국과 유럽 여러나라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던 서구의 근대건축을 학습하던 시기였다. 그리하여 당시 일본의 건축가들은 서구건축을 모방한 건축의 모험적 실험작품을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과감히 시도한 것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이와같이 대구측후소는 1930년대에 건축된 건물로서는 보기 드물게 서구 근대건축의 이념과 당시 日帝의 의지를 잘 대변해 주는 건축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건물은 1936년 건축된 이후 지금까지 대구 시민들의 랜드마크(Land Mark)적 역할뿐만 아니라 이 지방 기상정보 제공처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온 역사적 건물로 볼 수 있다.



〈사진 9-149〉

대구측후소 내부



〈圖 9-65〉

대구축후소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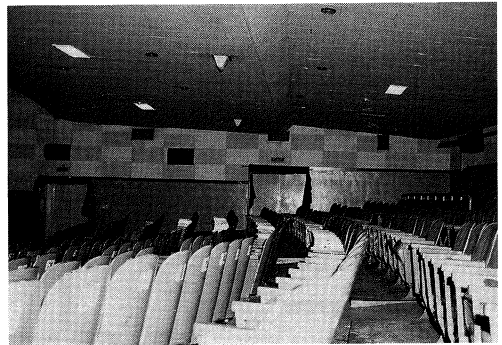
3) 키네마劇場

키네마劇場은 1938년에 일본인 경영의 조선흥업주식회사에서 東城路(동성로) 거리에 건축한 영화관으로 現 韓一劇場의 옛이름이다. 韓一劇場은 당시 最新의 構造와 工法을 사용하여 건축한 대구 최초의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外觀과 함께 내부공간이 웅장하고, 형태면에서는 西歐의 表現主義 樣式을 나타냄으로써 상영되는 영화만큼이나 구경거리 였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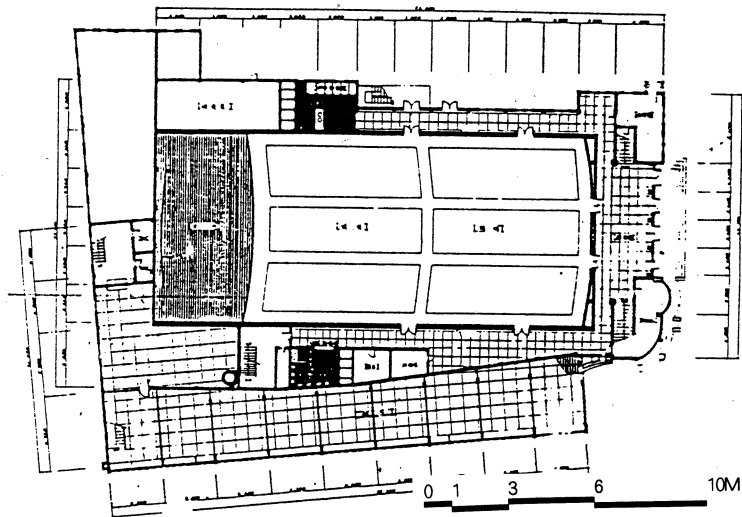
한다.³²⁹⁾ 건물의 설계는 일본에 있던 玉團건축사무소에서 했고, 건축공사는 대구에 근거를 둔 屋代組에서 맡았으며, 재료는 대부분 일본에서 가져온 최신의 것이었다고 한다. 이 건물은 정면의 좌측부를 드럼(Drum)형 탑으로 구성하고, 외벽에 曲面窓, 圓形窓등의 형태요소들을附加하여 표현주의적 색채를 느끼게 한다. 평면구성은 영화관의 일반적 형태인 사다리형이며, 출입구와 연결하여 홀을 두고 가운데 객석을 중심으로 양쪽에 복도를 배치하였다. 외관은 비대칭형이며, 벽면에는 코니스(Cornice)가 없어지고, 옥상 파라펫트(Parapet)가 처마로 변형되는 등 장식이 사라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사진 9-150〉 키네마극장 전경



〈사진 9-151〉 키네마극장 내부



〈圖 9-66〉 키네마극장 평면도

329) 김일진, 앞의 책, p.225.

IV. 天主教建築

대구에 기독교가 전래되기 시작한 것은 1827년경부터 서울, 충청도, 강원도 等地에서 박해를 피하여 이주해온 천주교 信者들에 의해서였다. 당시 천주교 신자들은 대구를 포함한 영남 사회가 유교적 전통과 의식을 중시하는 地方色을 강하게 띄고 있는데다가 국가로부터의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地下信仰을 유지하면서 비밀리에 포교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880년경부터 대구의 천주교 신자들은 煙靈會(가난한 이웃에게 천주교식 장례식을 해주는 모임)와 聖嬰會(고아들을 보호, 양육하는 모임)를 조직하여 열성적으로 복음전파의 일선에 나섰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천주교 신앙은 새로운 신앙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대구 천주교회는 창설될 수 있었다. 대구 천주교회는 韓佛修好條約이 체결된 1886년 천주교 본당이 설정되어 초대 주임사제로 프랑스인 로버트(A.P.Robert)신부가 부임해 오으로써 시작되었다.

1. 근대 천주교건축의 태동기(1886-1909)

1886년 대구에는 프랑스인 로버트(A.P.Robert)신부가 천주교 본당 주임사제로 임명되어왔다. 그러나 그는 당시 慶尙道 觀察使 閔正植의 布教禁壓으로 신나무골(현 왜관 연화동)에서 3년, 대구 근교의 새방골(현 대구직할시 상리동)에서 3년을 보낸후, 1891년에서야 은거생활에서 벗어나 大邱府內 待御伐(현 대구직할시 수창동)에 있던 信徒 鄭圭鉦의 집에서 포교하기 시작하였다.³³⁰⁾ 그는 이곳에서 포교활동을 하면서 1899년 봄 한국인 傳統木手들과 信徒들의 도움을 받아 大邱府 앞밖길(현,계산동)에 韓屋聖堂(聖母聖堂)과 신부 사제관을 건축하여 선교거점을 확보하였다.³³¹⁾

그후 로버트(Robert)신부는 韓屋聖堂이 화재로 소실(1900)되자 당시 서울에 와있던 중국인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천주교의 선교이념과 건축적 사고에 따라 고딕(Gothic)부흥식(類似 Gothic Style)의 主教佐聖堂(현, 대구 계산동성당 1902)을 건축하였다.

1) 聖母聖堂

聖母聖堂은 1899년 봄, 프랑스인 로버트(Robert)신부가 徐相燾등 평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330)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대구본당 백년사》, 1987, p.138.

331) 위의 책, p.138.

계산동에 건축했던 대구 최초의 서구식 종교건물이다.

이 건물은 그리스 십자형(Greek Cross) 평면에 팔작기와지붕을 이은 韓屋으로 사방 날개의 길이와 폭이 9자 9칸 규모이고, 縱橫의 길이가 모두 9자 9칸씩 총 45칸의 큰 건물이었으나 완공 된지 채 1년이 못되는 1900년 2월 화재로 소실³³²⁾되어 건물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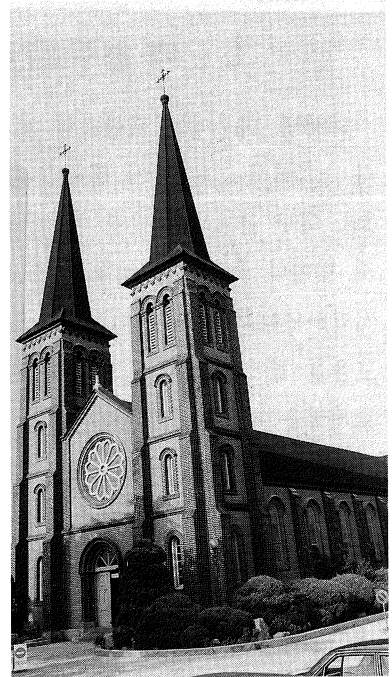


〈사진 9-152〉

성모성당

2) 桂山聖堂

聖母聖堂이 소실되자 로버트신부는 곧 바로 교회내의 중진이었던 서상돈, 김종학, 정규옥 등의 신자들과 함께 성당 재건에 착수하여 1902년 5월 영남 최초의 서구식 건물인 현재의 계산성당을 건축하였다. 로버트신부는 당시 이 건물을 짓기 위하여 전주 전동성당의 설계도를 입수하고, 서울 명동성당을 건축했던 중국인 기술자들을 요청하는 한편 유리, 창호철물, 위생도기등의 건축재료를 프랑스, 홍콩 등지에 주문하였다.³³³⁾ 당시 로버트신부의 요청으로 대구에 온 중국인은 벽돌공 9명, 석공 14명, 목수 3명, 요리사 2명등이었으며, 이들은 계산성당 건축에 필요한 벽돌을 옛 대건학교 자리에서 직접 구워 사용하였다. 계산성당은 로마네스크양식에 가까운 구조와 고딕(Gothic)식평면과 디테일을 가진 벽돌조 건물로 가톨릭적 선교이념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건물의 구조는 사력암의 기초위에 붉은벽돌과 회색벽돌을 英式쌓기 했는데 부축벽, 출입구 아치부, 처마부 코니스, 층사이 돌림띠, 内部 列柱와 천장의 리브(Rib)등은 회색 벽돌로, 나머지는 붉은벽돌로 쌓아 장식한 것이 특이하며



〈사진 9-153〉 계산성당 전경

332) 대구대 교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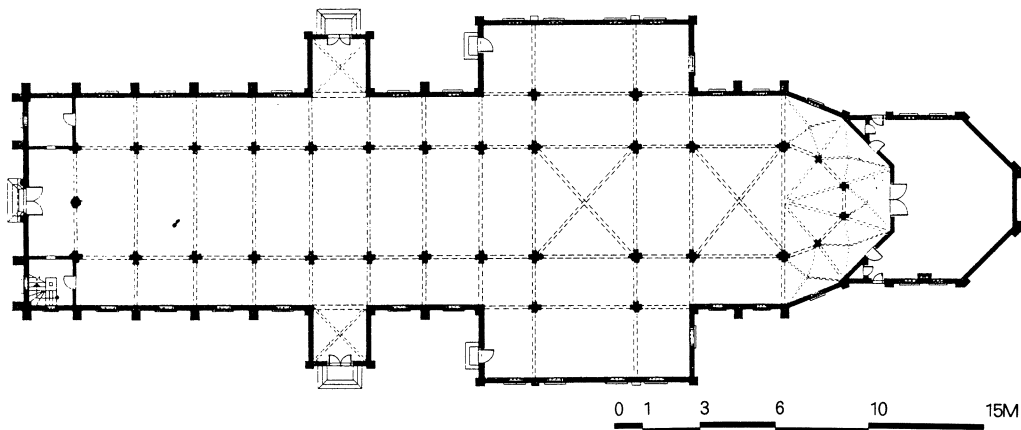
333) 김일진, 앞의 책, p.38.

지붕은 아연죽이다. 건물 외관은 서쪽 정면 중앙부에 회색 벽돌로 조각적 표현을 한 주 출입구와 대형 장미창(Rose Window)을 두고, 좌우측에는 8각형의 첨탑을 세운 종탑을 배치하였다. 측면은 부축벽(Buttress)과 반원아치창을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고, 6번째 배이(Bay)에 반원 아치형의 부출입구를 두었는데 양측 부축벽(Buttress)위에는 작은 첨탑을 설치하여 고딕(Gothic) 건축의 세부적 특징을 나타내었다. 평면구성은 라틴 크로스(Latin Cross)형 三廊式³³⁴⁾이며, 列柱의 아케이드(Arcade)와 천장에 의해 네이브(Nave,身廊)와 아일(Aisle,側廊)의 구별이 뚜렷하다. 내부 천장은 베릴볼트(Barrel Vault)³³⁵⁾로 네이브(Nave)부는 뾰족아치형, 아일(Aisle)부는 반



〈사진 9-154〉 계산성당 내부

원형이다. 이 건물은 1902년에 준공된 후 1912년, 1913년, 1918년 3차에 걸쳐 설교단 및 제단 설치, 종탑과 南北으로의 翼廊 증축등을 거쳐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현재 종탑 및 지붕은 건물의 길이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며, 내부공간도 긴 형태로 변화되어 수직성보다 수평 방향성이 강한 느낌을 주고있다. 현재 이 건물은 大邱 天主敎會史를 담고있는 敎會史的 의미뿐만 아니라 建築史的 가치가 인정되어 1981년 9월25일 문화재 사적 제2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圖 9-67〉

계산성당 평면도

334) 身廊의 양쪽에 각각 일열의 側廊이 있는 평면형.

335) 아치로 구성된 半圓筒形的 曲面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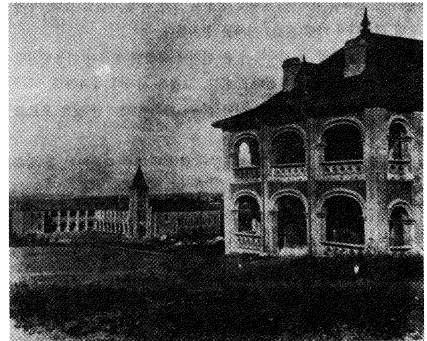
2. 근대 천주교건축의 형성기(1910-1929)

1911년 朝鮮敎區가 京城, 大邱 兩 敎區로 분리됨으로써 대구교구가 설립되어 초대 敎區長으로 프랑스인 드망즈(F, Demange-安世華)주교가 부임해왔다. 드망즈(Demange)주교는 桂山聖堂 構內의 임시 敎區廳에 거처하면서 1913년 信徒 徐相燾으로부터 남산동의 花園 1만평을 기증받아 주교관, 신학교 및 성당, 수녀원등을 건립하여 선교기반을 확립하였다.³³⁶⁾ 이 시기 대구 천주교에서 지은 종교건물들은 대부분 中世의 神學思想과 신념체계를 잘 반영한 범세계적인 고딕(Gothic)양식이다.

주요 건물로는 敎區廳 主教館(1913), 聖母窟(1918), 修女院聖堂(1926) 등이 있다.

1) 敎區廳 主教館

이 건물은 드망즈(F, Demange)주교의 허원으로 1913년 중구 남산 3동 225번지에 건축된 조지안(Georgian)양식의 벽돌조 3층 건물이다. 외관은 정면 중앙의 현관포치(Porch)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벽면에는 결원아치형의 창문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지붕은 모임지붕형으로 지붕면에는 페디먼트(Pediment), 도머(Dormer)창, 굴뚝등이 돌출되어 있었다.



〈사진 9-155〉 교구청 주교관

2) 聖母窟

聖母窟은 대구 천주교회의 초대 敎區長이었던 드망즈(Florian Demange)주교가 1918년 남산동 敎區廳 構內에 건립한 건물이다. 드망즈주교는 1911년 6월 26일 大邱敎區에 부임하여 주교좌성당(현 계산성당) 임시 교구청에 거처하면서 주교관, 신학교, 수녀원 등의 건립방안으로, 1911년 7월2일 프랑스 루르드 성모 발현을 기려 루르드 성모를 대구교구의 주보로 모시고, 성모께서 주교관과 신학교의 건축 및 주교좌 성당의 증축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主教館內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루르드의 聖母窟과 비슷한 성모당을 세워 信者들로 하여금 순례토록 순

336) 김일진·윤재웅, 〈대구지역 근대기독교건축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5-1, 대한건축학회, 1989, p.33.

력을 다하겠다고 허원하였다.³³⁷⁾ 그후 드망즈주교의 허원으로 주교관에 이어 성 유스티노신학교가 1915년에 건축되었으나 주교좌성당의 증축은 연기될 상황에 있었다. 그러던 중 교구내의 소세(Saucet)신부가 중병을 앓아 눕게되자 드망즈주교는 형제신부를 회복시켜 주시면 주교좌성당 증축이전에 성모당을 먼저 건축하겠다고 약속, 소세신부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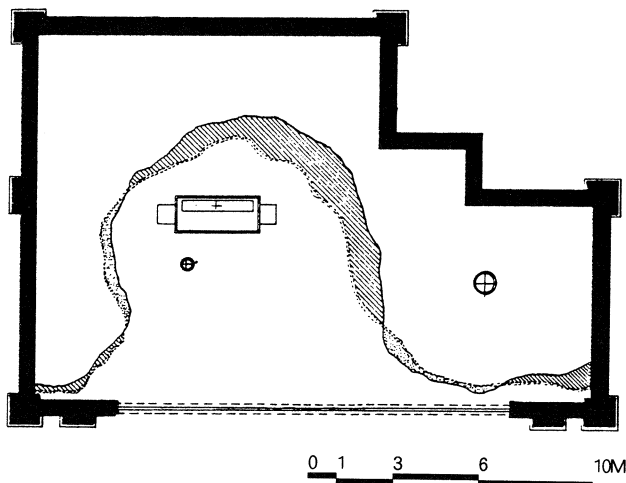


〈사진 9-156〉 성모굴 전경



〈사진 9-157〉 성모굴 벽상세

그리하여 드망즈주교는 1917년 7월 성모당 건축을 위한 정지작업에 착수하여 1918년 8월15일에 완공하였다. 이 건물의 설계와 모형은 『루르드』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가능한한 루르드 성모굴의 크기와 바위의 세부적인면까지 흡사하게 하였으며, 건축공사는 당시 중국 北京管區



〈圖 9-68〉

성모굴 평면도

337) 김일진, 앞의 책, p.74.

에서 파견한 중국인 건축기술자들이 담당하였다고 한다. 성모당은 교구청내의 가장 높은 위치에 앞쪽으로 넓은 마당을 두고 북향으로 배치된 붉은벽돌쌓기 건물로, 지붕은 경사지붕형에 합석을 이었으며 앞쪽부분을 파라펫으로 구성하였다.

평면구성은 우측 뒷부분이 두단 꺾여 들어간 長方形으로 정면 중앙에 大形 반원아치를 두어 내부와 직접 연결하였으며, 내부는 암굴처럼 꾸미고, 암굴의 우측상단에 마리아상을 봉안하였다. 외관구성은 화강석 다듬돌위에 흑색 벽돌로 부축벽(Buttress)과 아치, 수평돌림띠등을 구성하고, 그 사이를 붉은벽돌로 쌓아 벽체를 구성하였는데, 건물의 장식은 주로 정면에 집중되어 있다. 정면은 흑색벽돌로 양끝에 각각 한쌍의 부축벽을 세우고, 그 사이에 大形 반원아치를 설치하여 좌우대칭을 이루게 하였으며, 이 아치의 윗부분은 3단의 수평돌림띠로 장식하여 그 사이벽을 文字와 작은 연속아치등으로 꾸몄다.

이 건물에서 보이는 건축적 특징은 정면 중앙부 大形 반원아치의 이맞돌(Key Stone)을 중심으로 좌우측 끝부분에 한쌍의 부축벽을 배치하고, 벽면 상부에 3단의 수평대와 파라펫을 구성하여 정면성과 대칭성을 강조하면서 수직, 수평적 요소를 잘 조화시키고 있는 점, 그리고 벽면 각 부분의 아름다운 비례구성, 벽돌 조적의 정교함 등이다.

성모당은 바티칸의 정원에 있는 루르드 성모기념굴을 모방하여 건축한 전국 유일의 것으로 南方教會의 母教會인 대구교구의 상징일뿐만 아니라 대구 天主教會史를 담고 있는 역사적 건물이다. 이 건물은 현재 대구직할시 유형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되어 있다.

V. 改新教建築

1. 근대 개신교건축의 태동기(1886-1909)

1893년 경북지역이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구역으로 정해지자 그해 4월 22일 미국인 베어드(W.M. Baird)선교사가 대구에 들어와 鐘路에 기숙하면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1897년 봄에는 베어드(W.M. Baird)선교사의 후임으로 아담스(J.E. Adams)선교사가 부임하여 信徒 鄭完植의 私家에 경북 최초의 교회인 南城教會를 설립하였다.³³⁸⁾ 1899년에는 존슨(D.B. Johnson)선교사가 들어와 南城教會 構內에 서양식 병원인 濟衆院(현 동산병원 전신)을 세워 의료사업에 착수하였다. 그후 개신교에서는 동산 일대(현 동산동)를 매입하여 그곳을 선교본부로 정하고, 1901년부터는 이곳에 아담스(J.E. Adams), 존슨(D.B. Johnson)등의 선교사주택을 세워

338) 대구제일교회, 《대구제일교회90년사》, 1983, p.63.

종교, 의료, 교육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선교 초기인 이 시기에 지어진 개신교 건물은 東山病院(1905), 南城教會(1908)등이 있다. 이들 건축물의 설계는 대부분 선교사 자신들이 하고, 공사는 중국인 벽돌공과 일본인 목수들이 담당하였다.

1) 南城教會

南城教會는 1908년 대구의 개신교 신자들이 큰 예배당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국인木手들을 동원하여 지은 교회당으로 중구 남성로50번지(현 제일교회 자리)에 있었으나 1932년 철거하고 현재의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은 한국 재래양식과 그동안 유입된 서구의 建築樣式을 본뜬 韓·洋折衷式으로 主構造體인 기둥은 木造로 하고, 기둥사이에는 土壁으로 하여 회로 마감하였으며, 지붕은 韓式 합각지붕형에 함석을 이었다.



(사진 9-158)

남성 교회

외관은 정면 중앙의 주 출입구를 겸한 종탑을 중심으로 대칭형이며, 벽면은 반원아치, 평아치, 돌림띠등으로 꾸몄다. 따라서 이 건물은

지붕형태에서는 土着的인 요소가 강하게 느껴지나 벽면구성은 西歐的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근대 개신교건축의 형성기(1910~1929)

대구의 개신교는 1910년 韓日合邦 이후부터 教勢가 급격히 확장되어 나갔다. 그리하여 많은 교회가 南城教會(제1거점지)에서 여러지역으로 분리해나가는 한편 제 2의 거점지인 東山一帶에는 선교를 위한 학교, 병원등이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개신교에서 건축한 건물들은 대부분 韓·洋折衷式으로서 그들의 선교 이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주요 건물로는 옛 南山教會(1915)가 있다.

1) 옛 南山教會

조선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에서는 1914년 7월1일 南城教會의 教勢 확장에 따라 교회의 분립을 논의하고, 그해 12월30일 남교회의 분립을 결정하였다.³³⁹⁾ 그리하여 블루엔(H.M. Bruen)

339) 남산교회, 《남산교회 70년사》, 1987, p.11.

선교사는 1915년에 선교회의 보조금 1천원과 교인들의 연보금등 약 2천원의 자금으로 덕산동 30번지의 3필지의 교회 부지를 구입하여 그해 7월18일 165㎡의 단층 木造 教會堂을 신축 신축하여 南山教會라 하였다. 교회당 신축 초기의 敎人은 200명 정도였으나 1921년에는 敎勢의 확장으로 敎人이 증가되어 공간의 협소함을 느끼고 교회당 동편으로 증축하였다. 그후 계속되는 敎勢의 확장으로 1927년 11월 교회당 신축을 위한 기성회를 조직하고 3년안에 새 교회당을 짓기로 의결하였다. 이 건물은 南城教會와 같이 主 構造體인 기둥은 木造로, 기둥사이는 土壁으로 하여 회로 마감하고, 지붕은 모임지붕에 골합석을 이은 韓·洋折衷式 이었다. 종탑은 大門 間에 4개의 나무기둥을 세워 종루를 만들고, 지붕은 골합석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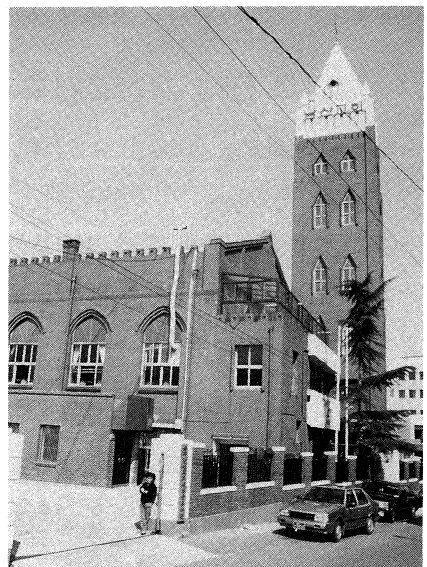
〈사진 9-159〉 옛 남산교회

3. 근대 개신교건축의 발전기(1930~1945)

1920년대 후반부터 대구의 개신교에서는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전개해오던 교육, 의료분야의 시설확충과 함께 계속 증가하는 敎人들을 수용할 큰 예배당을 西歐式으로 건축하는등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에 와서부터는 일제의 종교탄압이 극심해 지면서 건축활동은 거의 중단되었다. 대표적인 건물로는 南山教會(1932), 第一教會(1933) 등이 있다.

1) 南山教會

현 남산교회는 1932년에 옛 남산교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지은 고딕풍(Gothic)의 벽돌조 2층 건물이다. 이 건물의 기본설계는 북경 유학시에 배운 기술로 벽돌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백남채가 했고, 이 건물에 사용된 벽돌도 그의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라 한다. 평면구성은 長方形으로 1층에는 정면 주 출입구 양쪽에 2층으로 연결되는 2개의 계단실과 사무실, 예배실 등을 두고, 2층에는 大禮拜室을 두었으나



〈사진 9-160〉 현 남산교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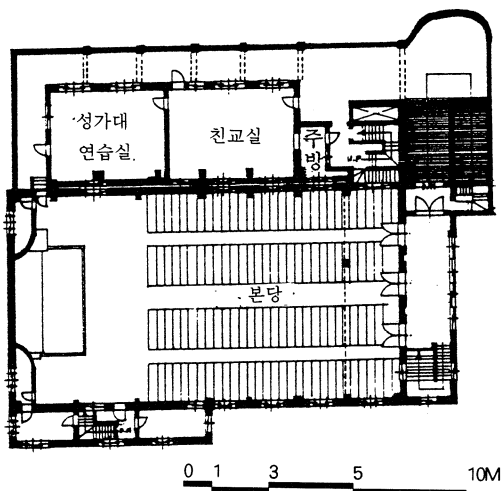
현재 우측의 계단은 철거하고 경사로와 중탑을 설치하였다. 외관은 정면 중앙의 포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좌우에 란셋트(Lancet)형 아치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1972년 개축 당시 우측에는 4각형의 중탑을 세우고, 좌측부로는 슬라브를 돌출시켜 온실로 개조함으로써 원래의 모양과 다르게 변화하였다. 2층 박공면의 중앙에는 圓形의 장식창을 두고, 벽면 외쪽에는 벽돌을 2단 내쌓기하여 돌림띠처럼 구성하였으며, 정면 좌우측부와 측면벽의 외쪽에는 女牆(서양 중세의 성곽모양)을 설치하였다. 창문은 란셋트(Lancet) 아치창으로 벽면에서 돌출된 인방을 만들고, 트레서리(Tracery)로 장식한 高窓을 두었다. 중탑부에는 1층과 2층은 평아치, 3층-5층은 뽕족아치창이며, 탑 위의 네 모서리에는 첨탑을 설치하였다.



〈사진 9-161〉

현 남산교회 좌측면

내부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이었으나 인조석으로 개조되었고, 벽은 몰탈위 페인트 마감이며, 천장은 판재였으나 현재 아스칼보드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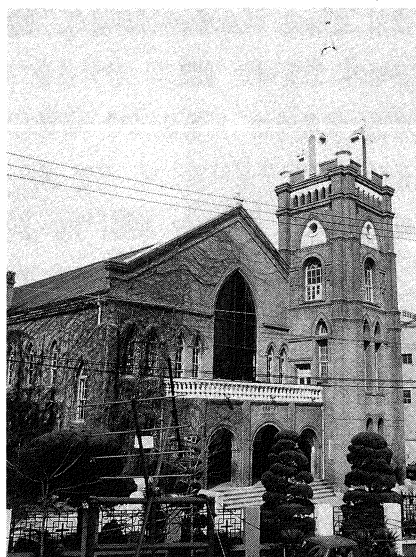


〈圖 9-69〉

현 남산교회 2층 평면도

2) 大邱第一教會

南城教會는 1918년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자치과동으로 창립 이래 최대의 시련을 겪게 되었다. 자치과동의 종식기인 1931년 4월20일 남성교회에 부임한 崔載華목사는 피폐된 교회를 재건하고, 교회의 정신을 쇄신하기 위하여 당회원과 재직원 연석회의에서 새 예배당 건축을 결의, 信徒들의 헌금과 지방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으로 1933년 9월 고딕(Gothic)식의 벽돌조2층 교회당을 신축하고, 제일교회로 개명하였다.³⁴⁰⁾ 이 건물은 옛 남성교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축한것으로 한개의 종탑을 가진 고딕(Gothic)식 벽돌조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長方形의 一廊式이며, 남쪽 정면에 나텍스(Narthex)³⁴¹⁾를 두고 좌측에 종탑을 설치하였다. 주 현관은 남쪽 정면의 나텍스(Narthex)에 위치하며 아키볼트(Archivault)³⁴²⁾로 장식되어 있다. 종탑은 5층으로 구성하여 각 층사이에 6가지 형의 창을 배치하였으며, 上部에는 8각형의 첨탑을 세웠다. 건물의 외관 측면벽에는 부축벽(Buttress)를 설치하고, 벽면에는 반원아치창, 뿔족아치창, 처마돌림띠등으로 장식하였다.



〈사진 9-162〉 제일교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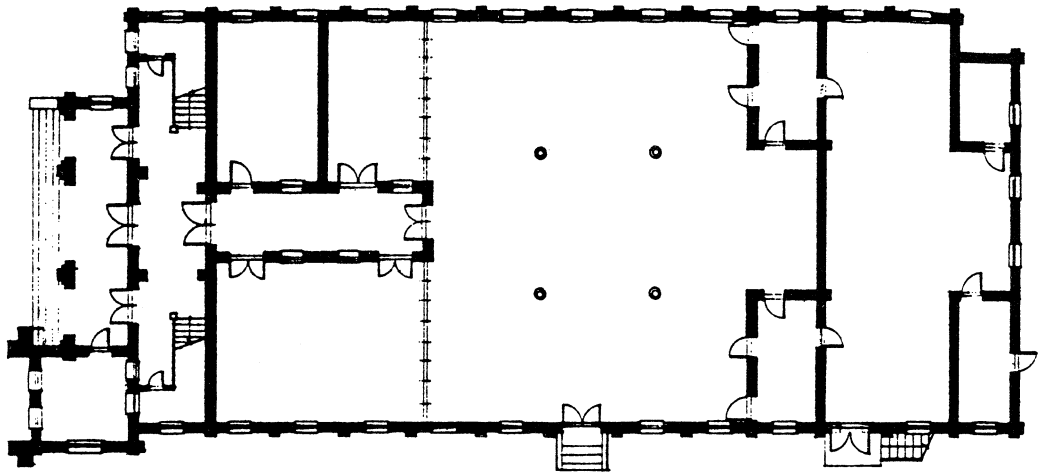


〈사진 9-163〉 제일교회 내부

340) 대구제일교회, 앞의 책, pp.106~107.

341) 교회당 입구에 뻗어나온 홀.

342) 아치로 구성된 半圓筒形의 曲面 천장.



〈圖 9-70〉

제일교회 1층 평면도

0 1 3 6 10M

VI. 學校建築

甲午更張(1894)이후 신교육이 시작될 무렵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중앙의 성균관, 四學과 지방의 향교, 서원 및 書堂(글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漢學과 儒學 중심의 교육제도는 서구의 신 문화를 섭취하려는 신교육에 대한 열망에 의해 점차 쇠퇴하고, 신교육을 하는 近代學校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구에는 선교사들의 미션학교, 관립학교, 민간사학등 많은 근대적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나갔다.

1. 근대 학교건축의 태동기(1886~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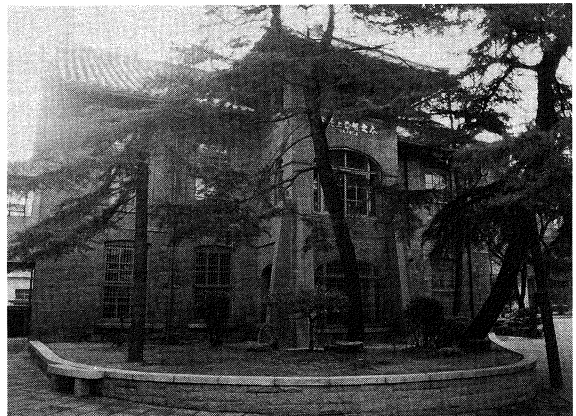
1900년대 초 大邱府民들에게 직접적인 신교육과의 접촉기회를 제공해 준 것은 미션학교였다. 대구의 선교사학은 존슨(D.B. Johnson)이 西洋式 病院인 濟衆院(1899)을 세운후, 1902년 아담스(S.E. Adams)선교사가 南城教會 構內에 대남남자소학교를 개교한 것이 효시다. 선교사들이 복음전도이외의 사업에 주력한 것은 당시 대구사회가 전통적인 관습과 유교적 이념에 깊이 젖어 있는데다가 時局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교육과 의료사업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선교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부터는 日帝가 식민지 교육체제의 확립을 위해 私立學校令(1900)을 공포하여 민간사학의

설립을 억제함에 따라 官學을 중심으로 한 보통학교가 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日帝의 교육 정책으로 이 시기에 건립된 주요 학교건물로는 啓聖學校 아담스관(1908) 등 몇 몇이 있으나 대부분 철거되어 건물에 대한 기록이나 사진이 남아있지 않고, 현재 계성학교 아담스관만이 남아있다.

1) 啓聖學校 아담스(Adams)館

계성학교는 1906년 10월 미국인 선교사 아담스(S.E. Adams)가 설립한 대구 최초의 근대 중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대구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濟衆院과 南城教會, 대남소학교, 信明學校 등이 있던 信徒 鄭完植의 집(현, 제일교회 자리)에서 학생 27명으로 개교하여 1908년에 아담스가 매입한 대신동의 현 계성학교 부지로 이전하였다.³⁴³⁾

계성학교 아담스관은 아담스선교사가 미국 선교부로부터 5천불의 자금을 지원 받아 1908년 가을에 신축한 영남 최초의 洋屋校舎다. 건물의 설계는 평소 학교 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아담스가 직접 하였고, 건축공사는 아담스의 감독하에 중국인 벽돌공과 日本人 木手들이 담당하였다. 이 공사에 사용된 창호재료, 유리, 위생설비, 난방설비등은 미국에서 가져왔고, 건물의 기초부, 지하실, 외벽일부에 사용된 석재는 大邱城廓을 철거할때 버려진 城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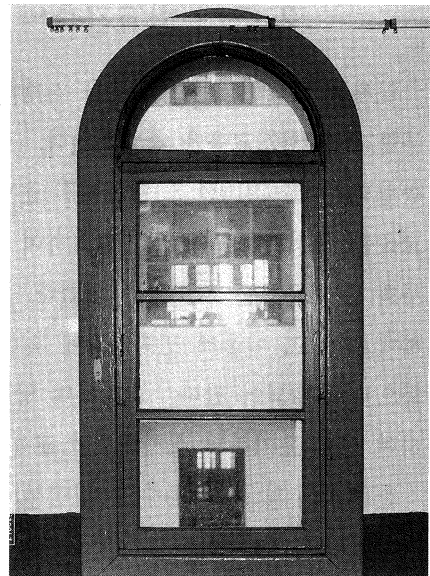


〈사진 9-164〉 계성학교 아담스관 전경

이 건물은 연면적 약 330㎡ 규모의 벽돌조 2층, 지하 1층집으로 지붕에 韓式기와를 이은 韓·洋折衷形이다. 따라서 이 건물의 외관에 나타난 특징은 지붕형태에서는 한국적인 요소가 느껴지나 벽면 구성은 서구적 특징 즉 고딕(Gothic)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韓·洋折衷式의 건물은 당시 미국인 선교사들이 지은 주택, 교회, 학교등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건물의 외관이 서구식 건물에 낯선 민중들에게 저항감을 주지않도록 하기위한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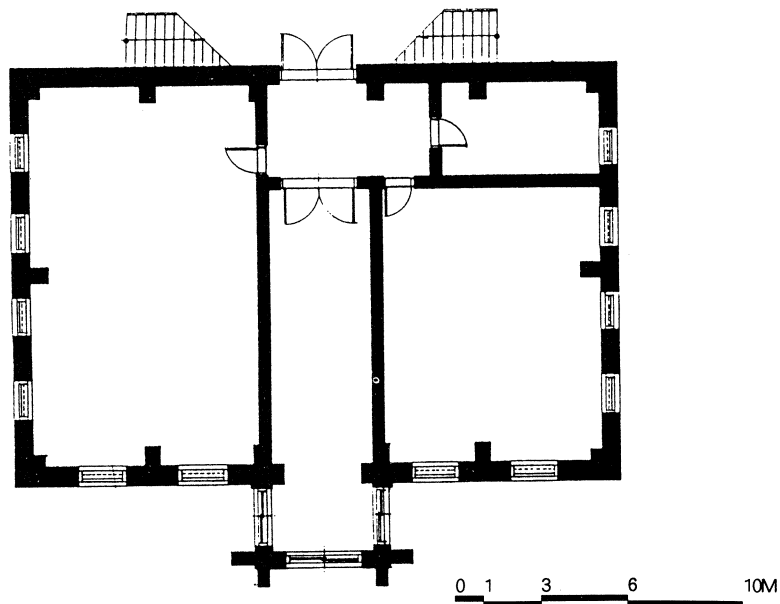
343) 김일진, 앞의 책, p.60.

아담스관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정면 중앙에 종탑을 설치하여 대칭성과 정면성을 강조하고, 1층의 벽면 일부를 붉은벽돌과 함께 석재로 조적한 점과 종탑부의 부축벽(Buttress), 박공부의 圓形窓등 고딕(Gothic)적 형태요소를 채용하여 교회당의 이미지를 느끼게 한 점 등이다. 건물의 평면은 長方形으로 1층에는 4개의 室을 두고, 2층은 通間으로 구성하여 예배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지하는 보일러실로 사용하였다. 室內에는 난방설비뿐만 아니라 양변기, 세면기등의 위생설비까지 설치하였으며, 바닥은 장마루판, 천정은 판재, 벽면은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사진 9-165〉

계성학교 아담스관 창문상세



〈圖 9-71〉

계성학교 아담스관 1층 평면도

2. 근대 학교건축의 형성기(1910~1929)

일제는 1911년 朝鮮敎育令을 시행하여 중등학교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설립을 억제하고, 보통학교(小學校)敎育을 확대하였다. 이 령에 따라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전문학교의 學制가 확립되었다. 1919년 3.1운동이후 문민정책의 일환으로 1922년에 개정敎育령을 마련하여 차별敎育을 수정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운동은 3.1운동을 계기로 언론 및 敎育을 통한 사회, 문화운동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문화운동은 필연적으로 신敎育운동을 초래하게 되었고, 아울러 민족자각에 의한 敎育열이 급격히 고조되어 당시 敎育은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갔다. 그리하여 당시 대구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선교 초기부터 실시해오던 敎育, 의료, 자선사업등의 간접 선교활동에 주력하게 되었다.

한편 대구의 유지 홍주일, 김영서, 정운기등은 민족의 인재양성을 위한 私學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벽돌의 생산력이 증대되어 대부분의 학교 건물들이 벽돌조로 건설되었고, 종교단체에서는 선교사학의 확장이 주된 사업이었다. 또 總督府는 駐韓 일본인의 敎育을 위하여 몇개의 官立 學校를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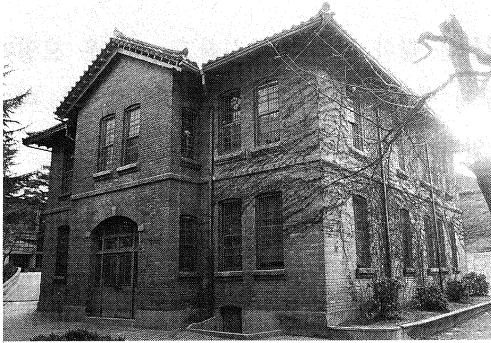
이 시기는 總督府에 의해 어느정도 재정이 장악된 시기였기 때문에 官學이외의 경우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회적으로는 일단 안정된 시기로 학교건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類型이 마련된 시기였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이 시기의 건물로는 信明學校 本館(1913), 啓聖學校 맥퍼슨(Mcpherson)館, 東山聖經學校 本館(1913), 聖 유스티노神學校(1914), 慶北公立中學校(1918), 大邱公立普通學校 本館(1921), 大邱公立中學校(1921), 大邱農林學校(1923), 大邱商業學校 本館(1927), 大邱師範學校 本館(1923), 大邱商業學校 講堂(1924), 嶠南學校(1924), 大邱師範學校 講堂(1925)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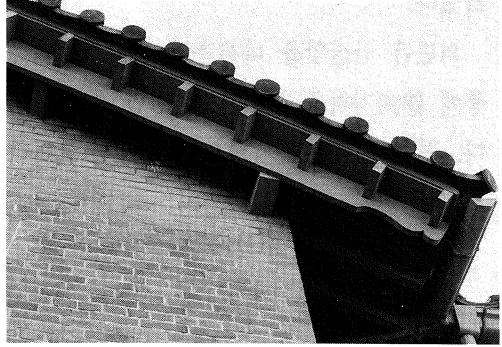
1) 啓聖學校 맥퍼슨(Mcpherson)館

계성학교를 설립한 아담스(S.E.Adams)는 1911년 10월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귀국하고, 라이너(Reiner)선교사가 계성학교 제2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라이너선교사는 1912년 5월 17일 朝鮮總督府로부터 사립 계성학교 인가를 받고, 미국에 가있는 아담스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여 제2교사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아담스는 부친인 맥퍼슨(Mcpherson)에게 당시 계성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제 2교사의 건립 기금 6천불을 기부받아 돌아왔다. 라이너 교장은 이 기금으로 1913년 9월 계성학교 아담스관의 북쪽편에 연면적 455.4㎡ 규모의 벽돌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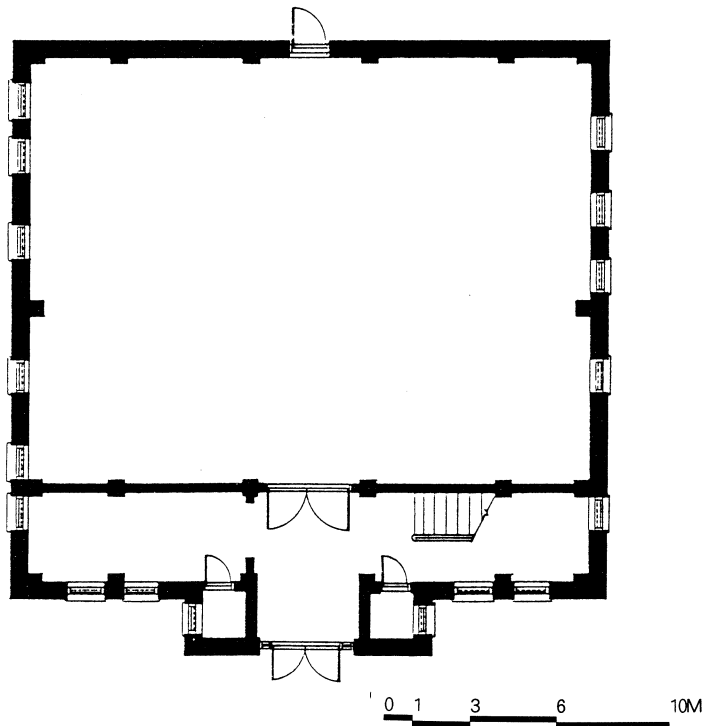
2층 洋屋校舍를 신축하고 “맥퍼슨관”이라 하였다. 이 건물의 설계와 감독은 아담스와 라이너가 했고, 공사는 중국인 조적공과 일본인 목수들이 담당하였다.³⁴⁴⁾ 건물에 사용된 유리와 각종



〈사진 9-166〉 계성학교 맥퍼슨관



〈사진 9-167〉 계성학교 맥퍼슨관 처마부



〈圖 9-72〉

계성학교 맥퍼슨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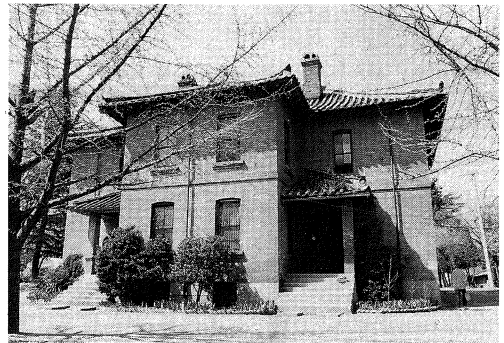
344) 김일진, 앞의 책, p.76.

설비류는 미국에서 직접 가져왔으며, 기초와 지하실의 석재는 대구 城廓을 철거한 城돌이었다. 건물의 평면구성은 正方形의 동측 정면에 현관홀을 두고, 1층과 2층에 각각 교실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안산암을 바른층쌓기한 기초위에 붉은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지붕은 모임지붕에 韓式기와를 이었으며, 정면 중앙의 주 출입구에 설치된 탑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룬다. 창문은 결원아치형으로 木材 오르내리창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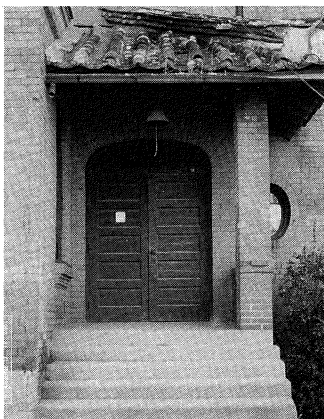
2) 東山聖經學校 本館

동산성경학교는 1913년에 아담스 선교사가 敎人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이다. 동산 마루위에 우뚝 솟아 대구 시가지를 내려다 보고 있는 이 학교에서는 敎人들을 대상으로 1년에 2개월씩 短期로 聖經授業을 실시하는 한편 출판, 청원, 여론환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항일 민족운동을 실시해 오다가 1940년 5월 일제에 의해 폐교되었다. 당시 성경학교의 창문을 폐쇄했던 판자는 大邱府民들에게 無言의 抗日精神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사진 9-168〉 동산 성경학교 본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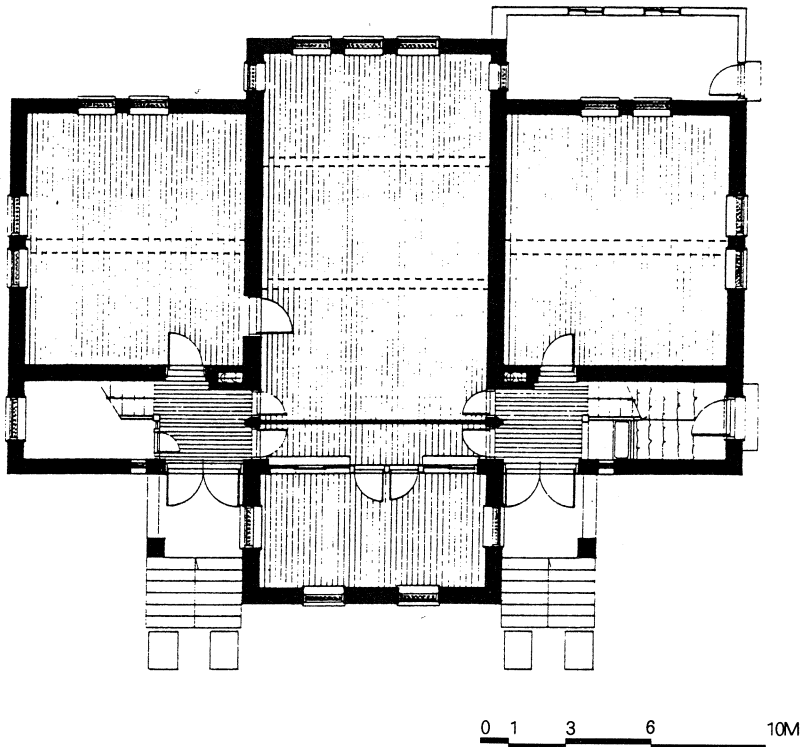
이 건물은 붉은벽돌조 2층의 韓·洋折衷形으로 東山의 가장 높은 곳에 동향하여 계산성당



〈사진 9-169〉

동산 성경학교 본관 현관

과 일직선상에 마주 보고 배치되어 있다. 평면은 十字形으로 主 軸線의 좌우에 각 실을 균등하게 배치함으로써 외관과 함께 대칭을 이루게 하였다. 외관은 화강석 다듬돌 위에 붉은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축하고, 벽면은 반원 아치창과 층사이 코니스(cornice)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붕은 韓式기와를 이었다. 내부의 바닥은 木材 장마루판이고, 벽은 회로 마감하였다.



〈圖 9-73〉

동산 성경학교 1층 평면도

3) 聖 유스티노神學校

聖 유스티노신학교는 드망즈(Florian Demange)주교의 허원으로 1914년 南山洞에 건축된 로마네스크樣式에 고딕(Gothic)적 디테일을 가진 벽돌조 2층 건물이다. 드망즈주교는 신학교의 건립을 위해 1912년 7월 서울 명동성당의 건축에 참여했던 프와넬(Poisnel)신부를 초청하여 건립 계획을 세우고, 세계 각 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1913년 9월 드망즈주교는 信徒 徐相燾으로 부터 남산동의 花園 1만여평을 기증 받고, 중국 상해에서 익명의 신자가 신학교의 주부로 성 유스티노를 모시는 조건으로 거액의 현금을 보내옴으로써 신학교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 당시 공사는 중국 북경 관구에서 파견한 중국인 건축기술자들(姜義寬, 慕文錦등)과 프랑스 영사관 건축에 참여했던 목수들이 담당하였다.

이 건물은 연면적 2,492㎡ 규모의 ㄷ字形 벽돌조 2층 집으로 정면 중앙에 위치한 성당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평면구성은 ㄷ자형으로 1층 前面部에는 로마네스크 건축에

서 많이 사용되었던 블라인드 아케이드(Blind Arcade)로 구성된 통로를 두고, 1층 아케이드(Arcade)의 뒷면과 2층에는 각각 사무실, 교실 등을 배치하였다. 외관구성은 화강석 컛돌(Quoin)위에 회색벽돌로 블라인드 아케이드(Blind Arcade)의 필라스터(Pilaster)³⁴⁵⁾와 아치를 만들고, 그 사이에는 붉은벽돌을 쌓았으며, 층 사이에는 회색벽돌로 코니스(Cornice)를 장식하였다.



〈사진 9-170〉

성 유스티노신학교 중앙부

창문은 오르내리창과 미서기창 두가지를 설치하였는데, 창인방은 회색벽돌로 쌓은 결원아치형



〈사진 9-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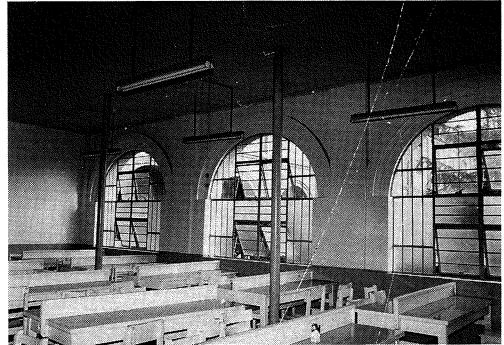
성 유스티노신학교 성당 종탑부

으로, 창선대는 리아스식(齒形)쌓기로 했으며, 건물 양쪽 날개부의 창문은 필라스터(Pilaster)에 붙여 柱頭가 있는 창선대로 장식하였다. 지붕은 모임지붕에 아연즙이며, 지붕 각 면에는 도머(Domer)창을 설치하였다. 건물의 중앙에 위치한 성당부는 一廊式 평면형으로 주 현관이 서쪽 정면의 종탑부에 위치해 있다. 종탑은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은 반원아치형, 2층은 쌍아치형, 3층은 圓形窓, 4층은 쌍아치창에 갤러리를 설치하였으며, 종각부 위에는 계산성당의 종탑과 같이 8각형의 높은 첨탑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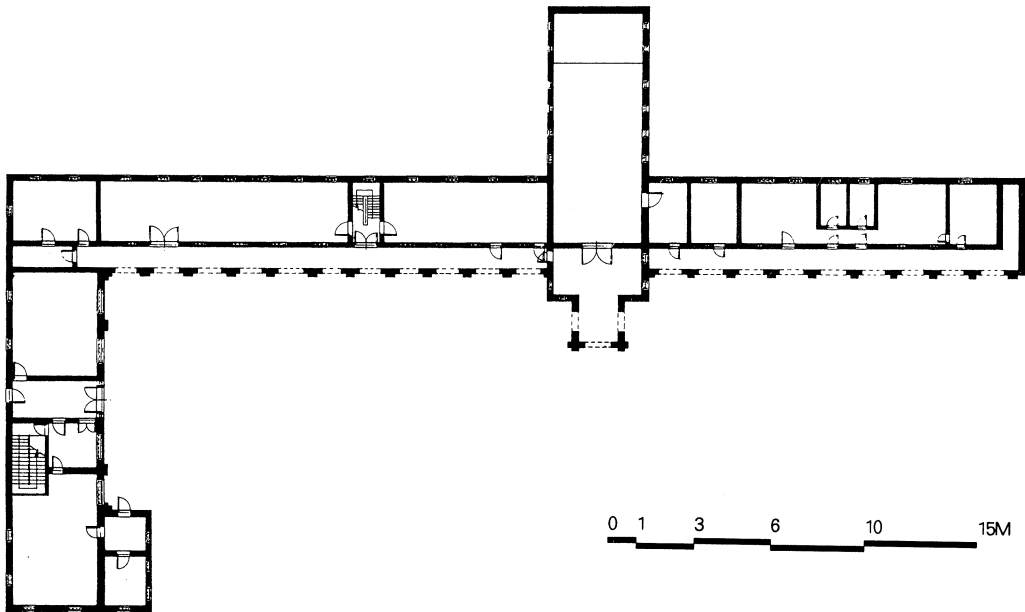
이 건물은 1914년 성 유스티노신학교로 개교하여 사재양성의 요람으로 큰 몫을 담당해 오다가 1945년 4월 日帝의 간섭으로 서울 용산신학교와 합병되었다.

345) 벽면에서 조금 튀어나온 方形의 기둥.

그후 1946년부터는 대건학교 교사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1년 가톨릭 신학대학교에서 인수하여 성당을 포함한 건물의 중앙 일부만 남기고 철거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대구직할시 문화재 자료 제23호로 지정되어 있다.



〈사진 9-172〉 성 유스티노신학교 내부



〈圖 9-74〉

성 유스티노신학교 1층 평면도

4) 大邱 公立普通學校 本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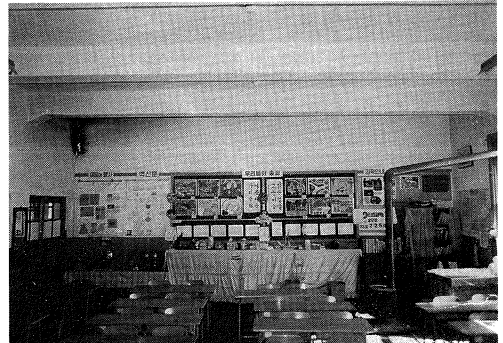
대구공립보통학교는 日帝가 식민지 교육체제의 확립을 위해 1906년 12월 私立 達城學校(대구 근대학교의 효시) 심상파를 인계받아 설립한 대구 최초의 관립 보통학교다. 이 학교는 처음 대구군 서상면 남일동(전 상서여상 자리)에서 대구공립심상소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하였으나 1911년 대구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었고, 1921년에 현재의 자리인 중구 봉산동으로 옮겨왔으며, 1946년 대구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대구공립보통학교 본관은 1921년에 日帝가 대구의 식민지 교육을 위해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남쪽 前面에 마련한 넓은 운동장을 향하여 동서로 길게 배치된 一字形의 벽돌쌓기



〈사진 9-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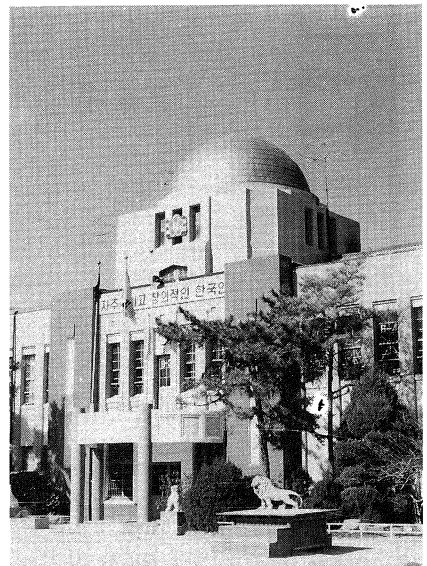
대구 공립보통학교 본관 정면



〈사진 9-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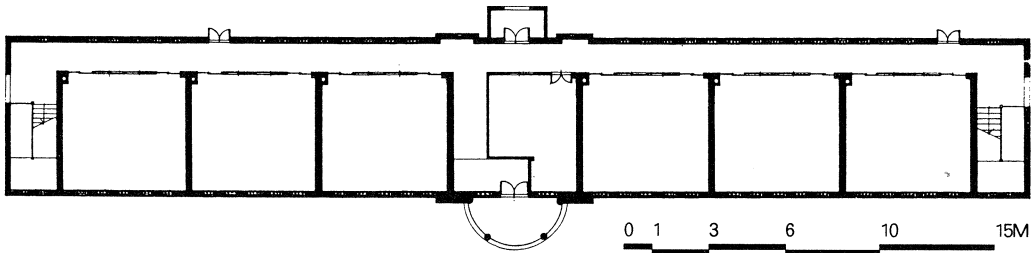
대구 공립보통학교 본관 내부

2층 건물로 정면 중앙에 위치한 현관 포치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건물 구성에서 권위적인 색채를 강하게 띄고 있다. 이러한 권위적 색채는 건물의 여러 부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도면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면은 一字形으로 건물 뒷편에 편복도를 두고 남향하여 교실의 한 단위를 일차원적으로 반복시키고 있으며, 외관구성에서는 정면 중앙부의 반원형으로 장식된 현관 포치와 동판을 이은 大形 돔(Dome)은 대칭성을, 벽면의 세로로 긴 창과 불임벽, 굴뚝등은 수직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주 출입구가 위치하는 중앙부는 다른 부분보다 수직적이거나 장식적인 처리를 하여 식민지 통치이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내부 각 실의 마감상태는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 벽은 회반죽, 천장은 널판재 마감이다. 실내 난방은 굴뚝이 각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난로를 설치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건물은 1921년에 건축된 후 한국전쟁 중 한때 육군병참실로 사용된 적이 있었으나 대구국민학교에서 낡은 지붕과 내부 바닥 및 천장 등을 수리하여 사용해 오다가 1989년 6월 새 교사를 짓기 위해 철거하였다.



〈사진 9-175〉

대구 공립보통학교 본관 돔(dome)



〈圖 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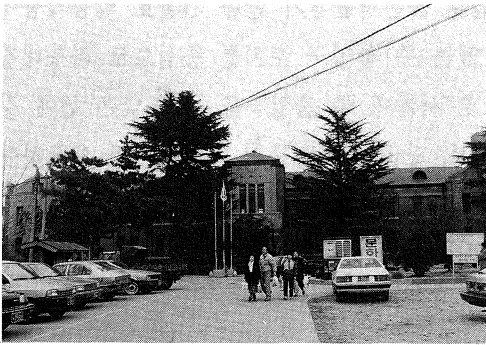
대구 공립보통학교 본관 1층 평면도

5) 大邱商業學校 本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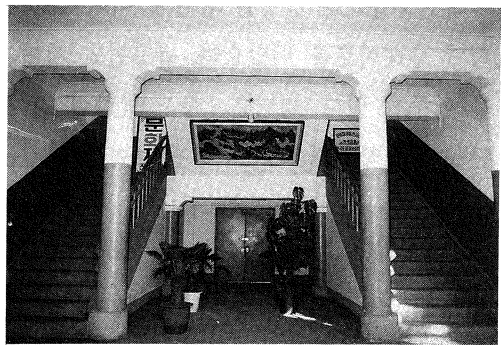
대구상업학교는 日帝가 대구지역의 實業人 양성을 위해 1923년 3월에 설립한 학교다. 이 학교는 처음 봉덕동에 있는 대구공립중학교 교사 일부를 빌려 대구공립상업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하였으나 그해 8월 대봉동에 교사를 신축하여 옮겨왔으며, 해방후에는 대구상업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³⁴⁶⁾

1985년 1월 대구상업고등학교가 외곽지로 이전해감에 따라 현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사무실, 창고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서쪽의 교문과 마주하여 남북으로 길게 배치된 一字形의 붉은벽돌조 2층 건물로 지붕은 모임지붕형에 日式기와를 이었고, 정면 중앙의 현관 포치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



〈사진 9-176〉 대구상업학교 본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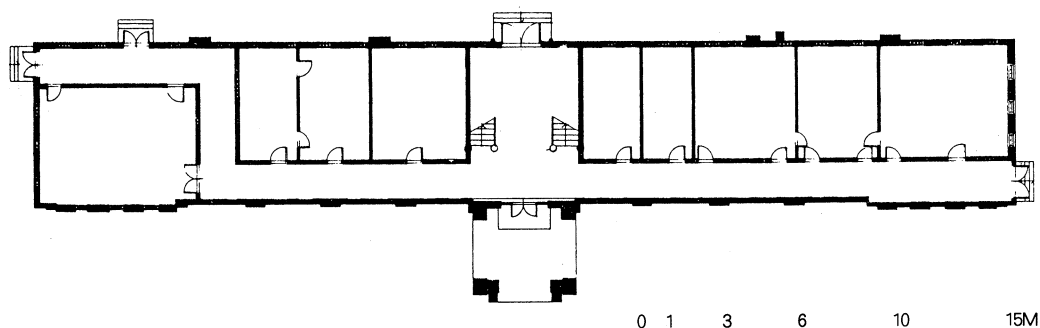


〈사진 9-177〉 대구상업학교 본관 내부

고 있으며, 당시의 일반적인 학교들과는 달리 운동장을 건물 뒷편에 배치하고 있다. 이 건물의 형태구성에서 보이는 특징은 一字形 평면의 정면쪽에 편복도를 두고, 뒷편으로 동향하여 교실

346) 김일진, 앞의 책, p.95.

을 배치한 것과 方形 지붕을 이은 사각탑, 반원형 도머창, 페디먼트(Pediment), 수평돌림띠, 수직벽, 굴뚝 등의 형태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건물의 정면성과 대칭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내부구성은 현관홀의 계단 입구에 로마네스크양식의 기둥을 단순화 시킨 4개의 원기둥으로 복도와 계단실을 구분하고,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 벽은 몰탈위에 수성페인트를, 천장은 콘크리트 슬라브에 수성페인트를 발라 마감하였는데, 천장에 돌출된 작은 보의 양끝 부분은 헌치(Haunch)형으로 꾸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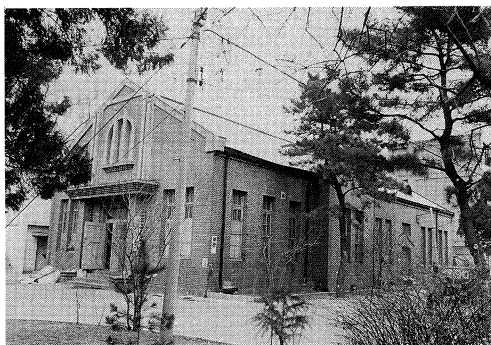


〈圖 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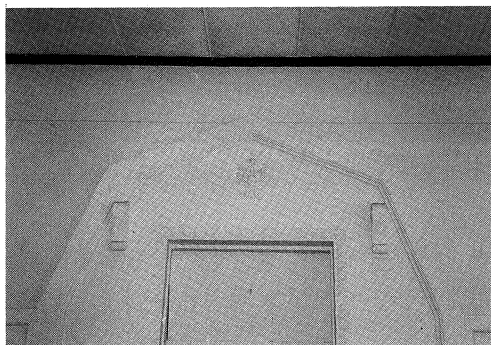
대구 상업학교 본관 평면도

6) 大邱商業學校 講堂

대구상업학교 강당은 본관에 이어 1924년에 건립된 붉은벽돌쌓기 단층 건물로 박공지붕에 석면 슬레이트를 이었으며, 박공면의 정면 중앙에 있는 주 출입구 포치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평면은 동서 방향이 긴 長方形으로 서쪽에 주 출입구를 두고 맞은 편에 강단을 설치하였다. 외관구성에 보이는 특징은 모임지붕, 말굽형 高窓등의 형태요소를 채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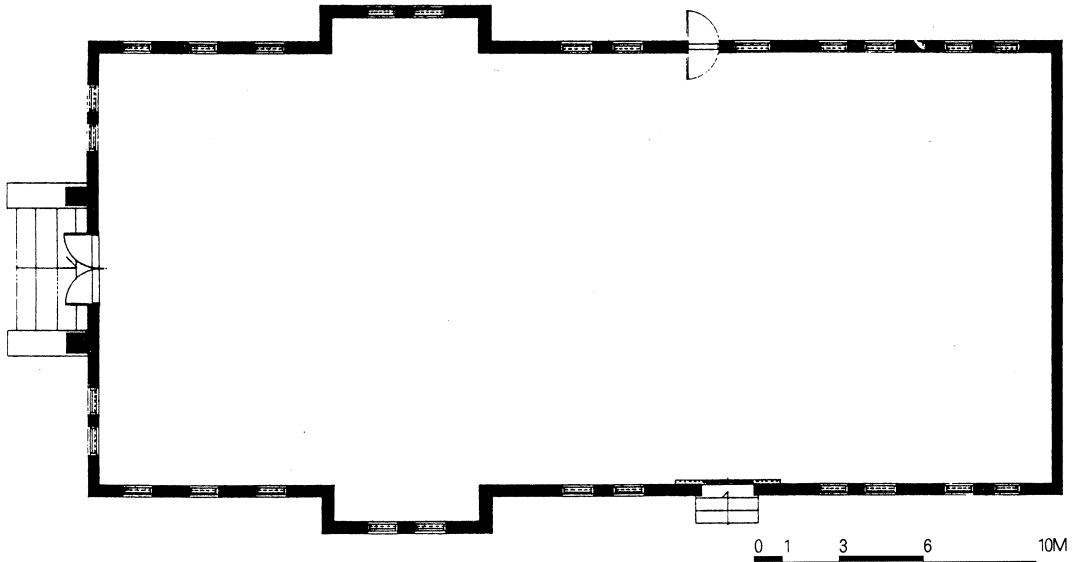
〈사진 9-178〉 대구상업학교 강당 전경



〈사진 9-179〉 대구상업학교 강당 내부

정면성과 대칭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내부 바닥은 장마루판, 벽은 판재와 수성페인트, 천장은 널판재로 마감하였으며, 천장 갯돌레에는 반자돌림띠를 돌렸다.

현재 이 건물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상품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圖 9-77〉

대구상업학교 강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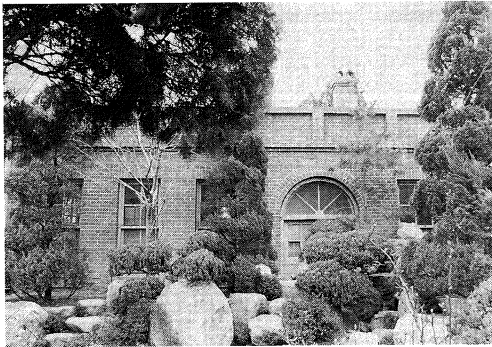
7) 嶠南學校

교남학교는 1924년 대구의 유지 서만달·홍주일·김영서·정운기등이 민족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고등보통학교다. 1929년 김도균교장이 이 학교에 부임하면서 부터 이상화, 김상열, 서동진, 이효상 등이 해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무보수로 후진양성에 힘쓰기도 하였다.³⁴⁷⁾ 이 학교는 처음 大邱府 팔운정(현 북성로)에 있던 友弦書樓에서 대구교남학원으로 개교하였으나, 1924년 교남학교로 승격되면서 남산동 신 교사로 옮겨왔으며, 1942년 다시 대륜중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수성동으로 이전하였다. 남산동의 교남학교 교사는 당시 서만달씨가 학원설립을 위해 지은 一字形의 단층 목조건물 한棟만 있었으나 교남학교에서 인수하여 1924년에 口字形으로 증축하였다. 이 건물의 형태구성에 보이는 특징은 교장실과 교무실로 사용하던 동쪽 一字形 부분은 붉은벽돌조에 아치형 창과 문, 파라пет 등의 형태요소를 채용하여 서구적 외관을 구성하고, 일반교실로 사용한 나머지 ㄷ字形 부분은 막돌쌓기 기반위에 角形 기둥을 세워 기둥사이를

347) 김일진, 앞의 책, p.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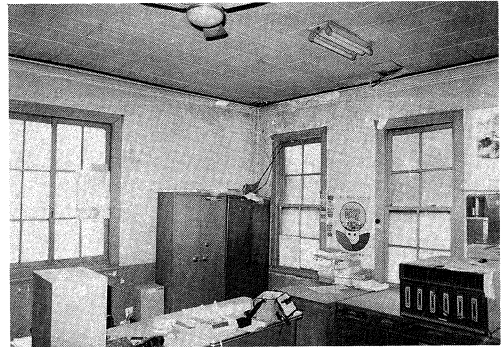
第9章 大邱의 建築

흙벽치기 하여 그위에 나무판재를 가로로 설치한 점 등이다. 내부는 교무실 부분이 목재 장마루판에 벽과 천정을 회반죽으로 마감하였고, 교실은 흙다짐 바닥에 아랫부분 벽을 세로판벽으로, 벽 윗부분을 회반죽으로 마감했으며, 천정의 지붕 架構는 그대로 노출시켰다.



〈사진 9-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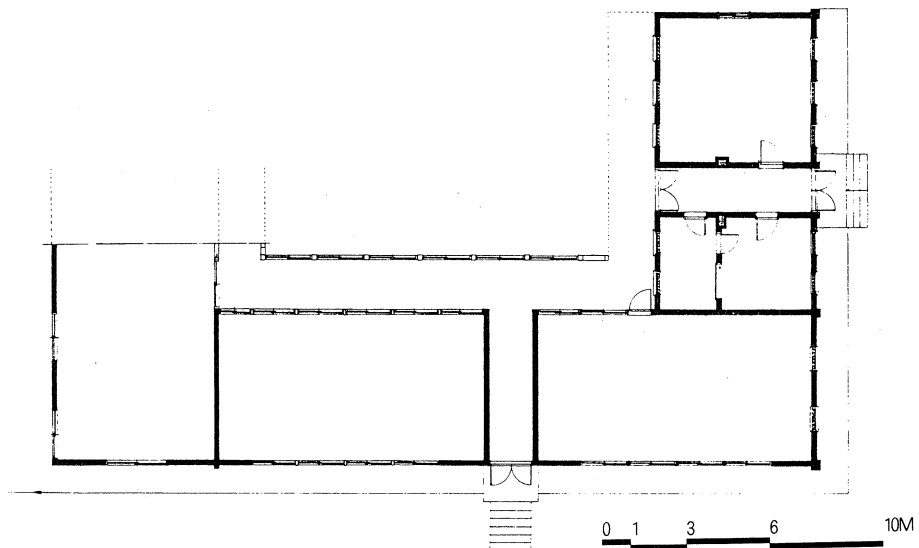
교남학교



〈사진 9-181〉

교남학교 교무실

해방후 이 건물은 능인학교, 차완용씨의 공장과 사무실, 주택 등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1년 차완용씨가 건물의 북쪽과 서쪽 부분을 철거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나머지 ㄴ字部分은 현재 셋집,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 소홀로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



〈圖 9-78〉

교남학교 평면도

8) 大邱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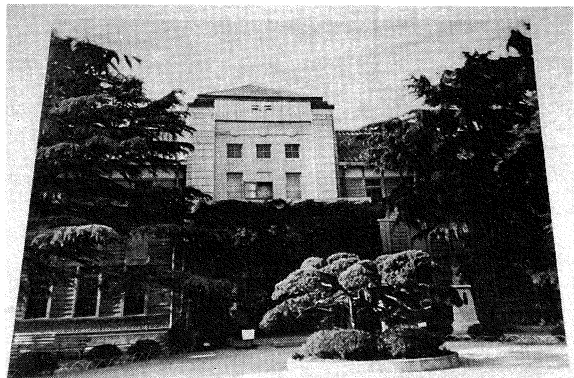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는 1925년 3월 27일 설립인가를 받아 그해 4월 25일 대구교남학교의 여학생을 인수하여 西千代田町(현, 장관동)의 가교사에서 개교하였다.

1927년 11월 26일 현재의 위치인 남산동 710번지에 본관을 준공하여 이전하고, 1928년에는 남관을 신축하였으며, 강당은 1929년 11월 28일에 건축되었다. 1938년 4월 1일에는 교육령이 개정됨으로써 교명이 경북공립고등여학교로 변경되고, 1951년 8월 20일에는 경북여자고등학교로 개칭되었다.³⁴⁸⁾

9) 大邱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講堂

학교 설립 초기의 건물인 강당은 1968년 9월 舊 本館 서쪽에서 운동장의 북서쪽으로 移建되었다가 1993년 4월 철거하였다. 대구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강당은 운동장의 北西쪽에 東西로 길게 배치된 목조건물이다. 지붕은 반박공형으로 기와를 이었으며, 동쪽 박공면의 중앙에 현관 포치를 두고 그 위에 2개의 겹러리창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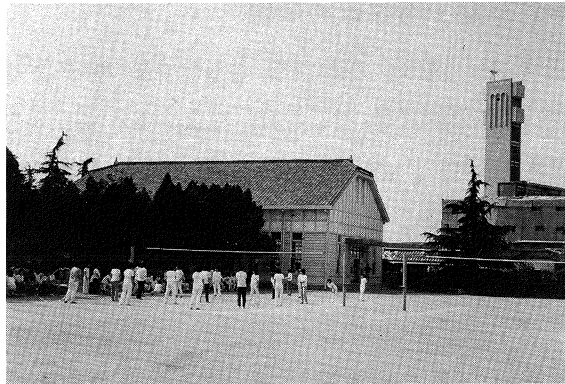
평면은 동서방향이 긴 長方形으로 동쪽에 주 출입구를 두고, 그 맞은편(서쪽)에 강단을 설치하였다. 외관은 콘크리트 줄기초위에 角材 기둥을 세우고, 아랫벽은 세로판벽, 중간벽은 비늘판벽으로 하였으며, 윗벽은 기둥과 횡가재를 井字形으로 구성하여 그 사이를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창문은 양측면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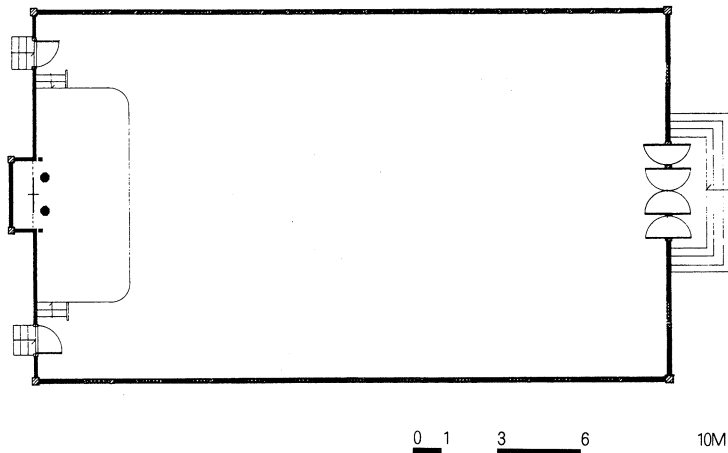
〈사진 9-182〉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설치하였는데, 바깥쪽에는 목재의 여닫이창을, 안쪽에는 오르내리창을 달아 2중으로 구성하였다. 출입문은 정면과 배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정면은 4짝 징두리양판문을, 강단쪽은 좌우측에 외여닫이 양판문을 달았다. 내부 바닥은 목재 장마루판, 벽은 징두리벽을 세로판벽으로 하고 윗벽은 회반죽으로 마감하였으며, 벽과 천정의 연결부는 오목하게 몰딩(Moulding)하였다. 천정은 목재 줄대를 井字形으로 구성하고, 그 사이에 함석을 붙였으며, 갓돌레는 木材 돌림띠를 돌렸다.

348) 김일진, 앞의 책, p.189.



〈사진 9-183〉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강당



〈圖 9-79〉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강당 평면도

3. 근대 학교건축의 발전기(1930~1945)

1927년에 발표된 “교사에 적당한 설비표준”에 의하여 운동장의 규모, 교실의 면적, 창의 크기 등에 대한 제한이 가해졌고, 1938년, 1939년에 제 3, 4차 개정교육령으로 교육도 戰時 敎育 體制로 바뀌게 되었다.

이 시기의 건물 유형은 官學의 경우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장식이 배제된 근대적 외관의 건물이 나타난다. 주요 건물로는 啓聖學校 헨더슨(Henderson)館(1931), 大邱南明普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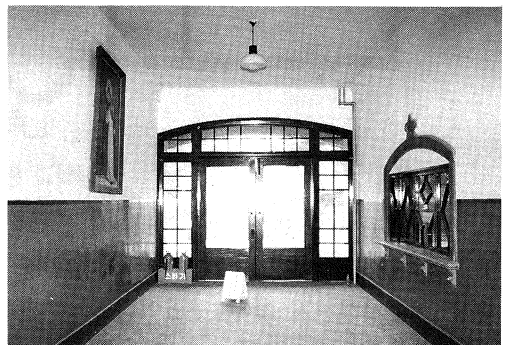
學校(1933), 大邱醫學專門學校(1933), 大邱女子中學校(1934), 南山國民學校(1936), 三德國民學校(1939) 등이 있다.

1) 啓聖學校 헨더슨(Henderson)館

중구 대신동 277번지 계성학교내에 동향하여 우뚝 서 있는 헨더슨관은 1931년 11월 헨더슨(H. H. Henderson) 교장이 블레어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건립한 고딕풍의 서구식 건물이다. 1920년 10월30일 계성학교 제4대 교장으로 취임한 헨더슨은 취임 직후부터 학교내 제반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당시 미국에 있는 학교건물들과 꼭 같은 새 교사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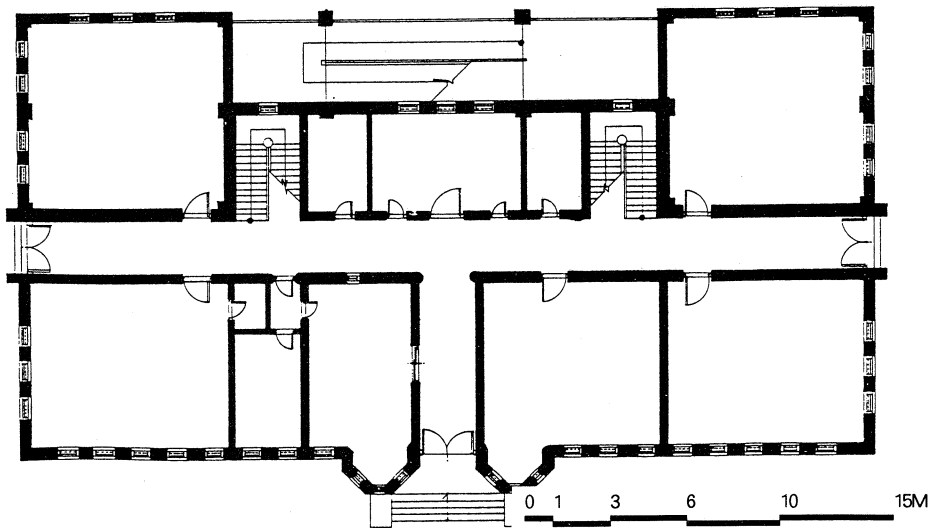
〈사진 9-184〉 계성학교 헨더슨관



〈사진 9-185〉 계성학교 헨더슨관 내부

그러던 중 1928년 10월 블레어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블레어는 귀국의 기회에 헨더슨교장이 소원하는 학교계획을 성취시켜 주기 위하여 친지들로부터 새 교사의 건립기금 5백원을 모금하였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헨더슨교장은 1931년 3월 오랜동안 마음 속에 그리며 꿈꾸어 오던 설계 중에서 고전미가 풍기는 학교건축 계획안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그해 11월에 벽돌조 2층의 신 교사를 건립하였다. 이 건물은 처음 3층으로 계획되었으나 공사중 당시 본교 양태승선생의 건의를 받아들여 2층으로 변경하고 남은 건축비로 내부시설을 충실히 하였다.

건축공사는 헨더슨교장의 감독하에 학생들이 기초공사를 했고, 上部工事は 중국인 조적공과 일본인 목수들이 맡았다. 이 건물의 외관구성에서 보이는 특징은 정면 중앙에 있는 포치의 상부 좌우에 2개의 탑을 두고, 옥상 파라펫과 탑의 상부에 면류관을 상징하는 女牆(서양 중세의 성곽모양)을 설치하여 벽면의 수직창과 함께 고딕적 요소인 수직선을 강조한 점과 벽면의 층 사이 수평띠로 수평적 요소를 표출함으로써 르네상스적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점이다. 내



〈圖 9-80〉

계성학교 핸더슨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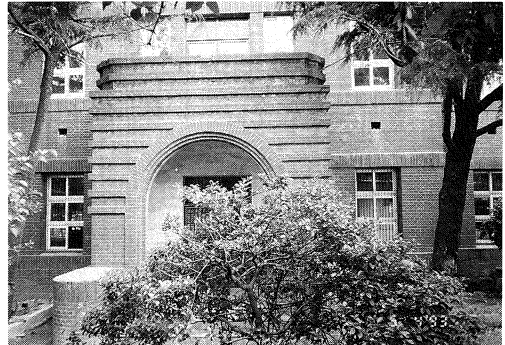
부구성은 長方形의 중복도식으로 벽 모서리가 둥글게 몰딩되어 있고, 실내에는 온풍난방에 수세식 변소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 건물은 1964년 4월 3층으로 증축되면서 건물 내부에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세워 바닥을 슬라브로 변경하였으나, 외관의 기본 형태는 그대로 살리고 있으며, 현재 계성학교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2) 南明普通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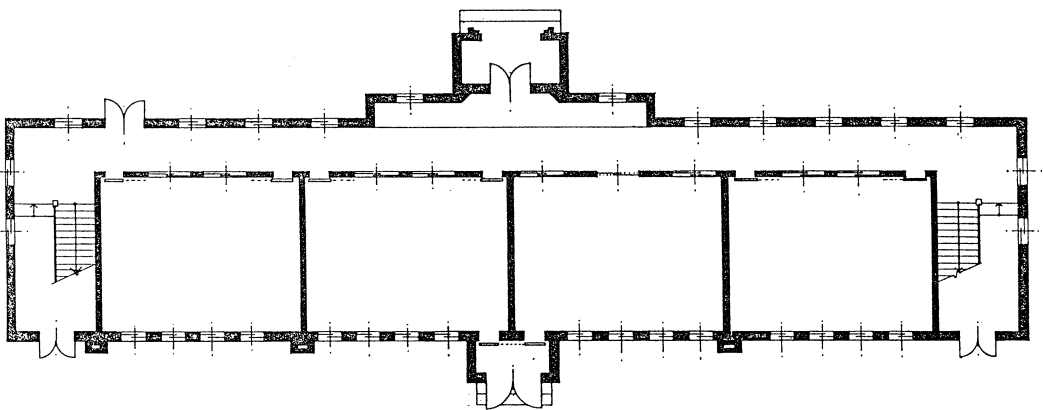
이 학교는 현 위치인 서구 비산동에 사립 남명보통학교로 개교하였으나 1939년 4월 사립 남명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고, 해방후(1946) 공립 대구대성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에 이른다. 이 학교는 북향하여 동서로 길게 배치된 一字形의 붉은벽돌조 2층으로 지붕은 모임 지붕에 기와를 이었고, 정면 중앙의 현관 포치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당시의 일반적인 학교 유형들과는 달리 운동장을 뒷편에 배치하고 있다. 이 학교의 형태구성에 보이는 특징은 一字形 평면의 정면쪽에 편복도를 두고 뒷편으로 남향하여 교실을 배치한것과 정면 중앙의 현관 포치구성, 건물의 정면과 배면 중앙 상부에 구성한 페디먼트(Pediment)), 포치부와 페디먼트의 수평띠 장식수법, 창문 인방부의 수평돌림띠등의 형태요소들을 사용하여 수평선과 정면성을 강조한 점 등이다. 내부 바닥은 장마루판, 벽은 회벽, 천장은 널판재로 마감하였다.



〈사진 9-186〉 남명보통학교



〈사진 9-187〉 남명보통학교 현관부



〈圖 9-81〉 남명보통학교 1층 평면도

3) 大邱醫學專門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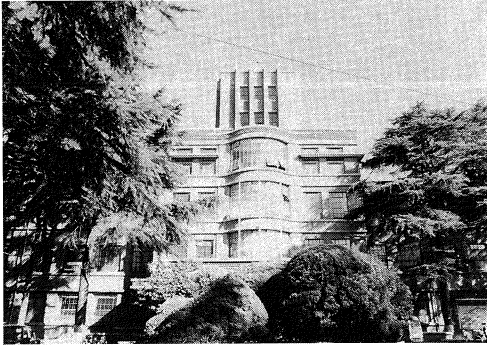
대구 최초의 醫生 養成기관은 1923년 7월 官立 大邱慈惠醫院內에 설립되었던 사립 의학강습소이다. 이 학교는 이듬해 3월 경상북도로 이관되면서 도립 대구의학강습소로 개칭되었고, 1927년에는 동문동에 있던 대구자혜의원이 화재로 소실(1926)되자 1927년 현 위치인 동인동으로 옮겨 왔으며, 1932년 2월 조선공립학교 관제 개정에 따라 폐교되었다.

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인 대구의학전문학교는 1932년 3월 폐교된 대구의학강습소를 인계받아 개교한 대구 최초의 공립 전문학교다. 이 학교는 해방후 도립 대구의과대학으로 승격되었고, 1951년 10월에 다시 국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관 개편되어 현재에 이른다.

경북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맞은 편에 남향하여 우뚝 서있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관은 1933년에 日帝가 대구지역의 의료인 양성을 위해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의 설계는 대구축후소

를 설계한 일본인 건축가 白井이 하고, 건축공사는 당시 대구에 있던 민간 건설업체에서 하였다.

이 건물은 남향하여 동서로 길게 배치된 ㄷ字形의 붉은벽돌조 3층으로 정면 중앙부 현관 포치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당시 일반적인 학교 유형들과는 달리 평면 및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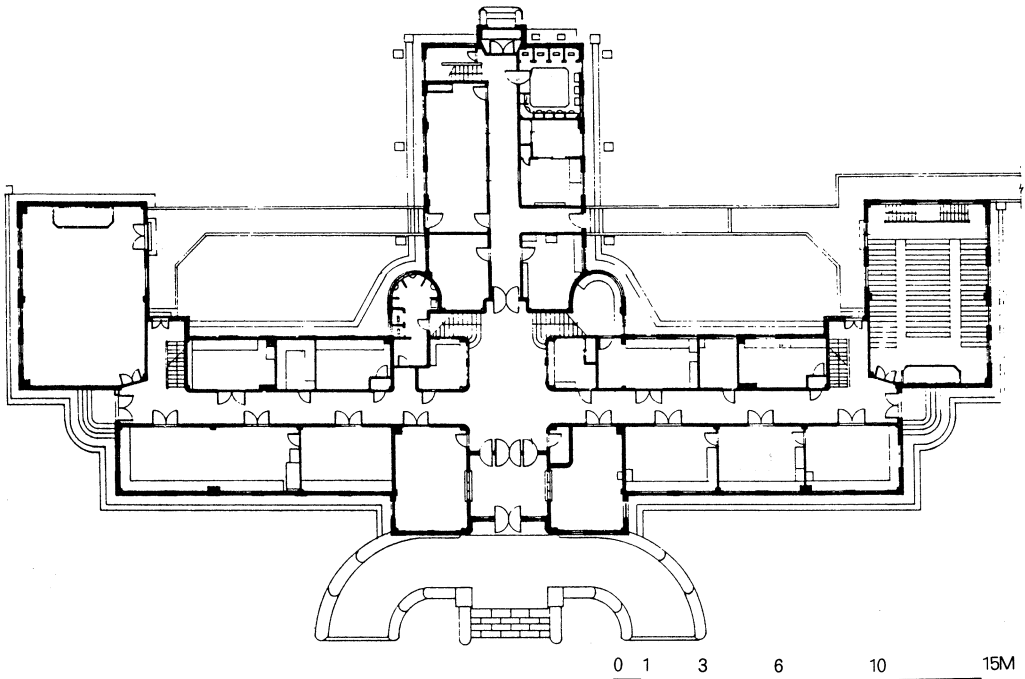


〈사진 9-188〉 대구의학전문학교



〈사진 9-189〉 대구의학전문학교 내부 계단실

관구성에서 表現主義의 색채를 띄고 있다. 이 건물의 형태구성에서 보이는 특징은 예시한 도면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면을 ㄷ字形의 중복도식으로 구성하여 정면 중앙돌출부에



〈圖 9-82〉

대구의학전문학교 1층 평면도

학장실, 교무실, 서무실 등의 관리부를 두고, 평면의 양측 날개부에는 매 층마다 大形 강의실을 배치한 점과 외관구성에서 정면 중앙부 현관 포치의 슬라브지붕, 돌출벽의 곡면처리, 창 사이벽과 옥상 파라펫(Parapet)부의 수평띠 그리고 창인방부를 상호 연결한 돌림띠 등은 정면성과 대칭성을, 옥상부의 사각탑(Pavillion), 창사이의 수직벽등은 수직성을 강조하여 안정감과 웅장함을 느끼게 하고 있는 점 등이다. 내부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이고, 벽과 천정은 수성페인트 마감이며, 벽 모서리부는 둥글게 물딩하였다.

4) 南山公立普通學校

중구 남산동 2-122번지에 위치해 있는 이 학교는 1935년 6월 14일 개교하여 그해 9월에 본관을 건축하고 1936년 6월 중관과 강당을 건축하였다.

(1) 本 館

본관은 남쪽에 운동장을 두고 一字形으로 길게 배치된 붉은벽돌쌓기 2층 건물로 양쪽끝에 1개의 特別教室을 單層으로 배치하였고 지붕은 모임지붕에 기와를 이었다.

평면은 정면에 편복도를 두고 일반교실을 남향하여 배치하였으며 주 출입구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외관은 콘크리트 줄기초위에 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교실 1칸을 단위로 붙임기둥을 설치하여 벽면을 수직분할하였으며, 창문은 평아치형으로 밑인방에 물흘림 경사를 두고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다. 1층 창의 밑인방은 몰탈 마감으로 돌출 연결시켜 수평띠를 형성하였고, 벽 上部의 코니스는 5段 내쌓기하였으며, 벽 아랫부분은 몰탈로 마감하였다. 내부의 바닥은 장마루판, 벽은 세로판벽위 회반죽마감으로 되어 있다. 이 건물은 1989년 새 건물을 짓기위해 철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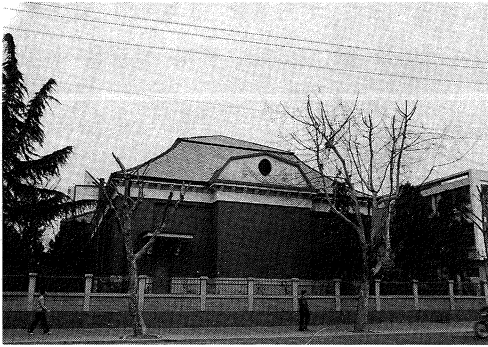


〈사진 9-190〉 남산공립보통학교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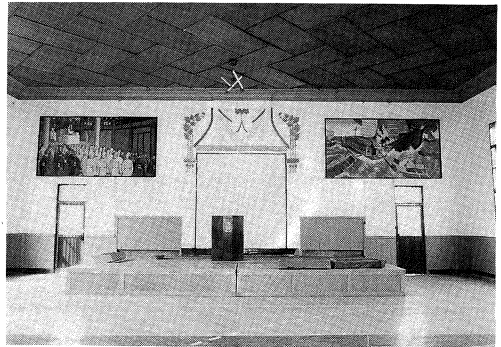
(2) 講 堂

남산공립보통학교 강당은 日帝가 1936년 6월에 건립한 붉은벽돌쌓기 單層 건물로 맨사드지붕에 석면슬레이트를 이었으며, 남쪽 정면 중앙에 있는 주 출입구 포치를 중심으로 좌우대칭

을 이루고 있다. 평면은 동서가 약간 긴 長方形으로 정면과 좌우측에 각각 출입구를 두었다. 외관구성에서 보이는 이 건물의 특징은 맨사드지붕, 출입구 상부의 페디먼트(Pediment), 창 사이벽의 분할, 수평돌림띠, 벽 上部의 몰딩 및 齒形장식수법 등이다. 내부 마감은, 바닥은 장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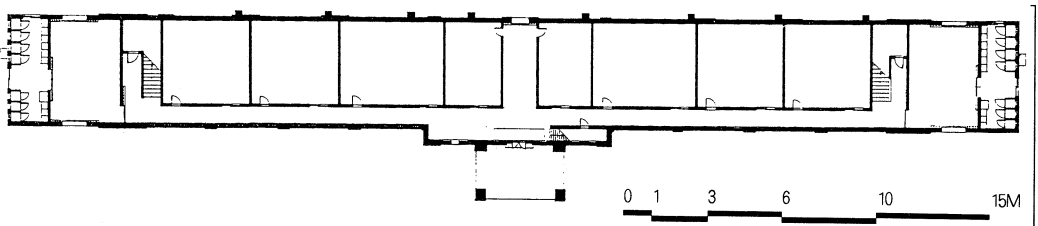


〈사진 9-191〉 남산공립보통학교 강당



〈사진 9-192〉 남산공립보통학교 강당 내부

루판, 벽은 긴 널판재와 회반죽이고, 천정은 角形 판재를 모자이크형으로 붙였으며, 천정 갯돌레는 몰딩하여 반자돌림띠를 돌렸다.



〈圖 9-83〉

남산공립보통학교 본관 1층 평면도

VII. 商業建築

대구는 조선시대 군사, 교통의 요지로 觀察使가 駐在하던 城廓都市였다. 그러나 開化期이 후 대구가 日帝의 조선경제침략을 위한 경부철도상의 거점이 되면서 커다란 도시적 변모를 가져왔다. 1910년 韓日合邦後 日帝는 대구를 상품유통의 거점으로 정하고, 일본에서 생산된 소비상품의 유통기지로써 뿐만아니라 背後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산시키는 상업도시로 지배하였다. 그 결과로 대구는 오늘날 많은 근대 상업건축의 유산을 갖게 되었다.

1. 근대 상업건축의 태동기(1886~1909)

이 시기는 경부선 철도부설공사를 계기로 일본 상인들이 대구에 들어와 철도역 부근과 舊城廓의 南門밖 도로변을 따라 상점을 개설하고, 일본인 居留民團을 조직하여 정착사업을 시작하는 시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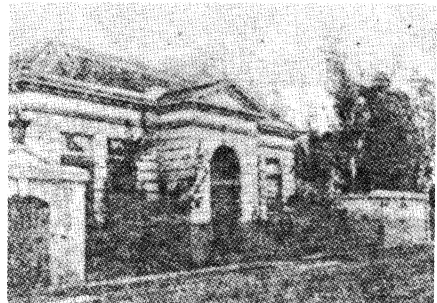
이 시기 대구의 상업건축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나 현존하는 건물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현재까지 전해오는 당시의 건물 사진과 약간의 문헌자료³⁴⁹⁾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일본인들의 상점은 板壁에 합석을 이은 정도의 것이었고 본격적으로 근대 상업건물로서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05년에 건축된 日本系 第一銀行 大邱支店과 農工銀行 大邱支店(1906)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 日本系 第一銀行 大邱支店

이 건물은 日帝가 대구지역에 일본화폐를 유통시키고, 일본 상인들에게 상업자본을 지원해주는 등의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1906년에 건축한 건물이다.

구조는 당시의 관청건물들(大邱理事廳, 大邱郵便局, 大邱警察署등)과 같은 擬洋風の 木造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물의 외관은 정면 중앙이 페디먼트(Pediment)로 장식된 현관 포치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어 엄격함을 나타내고 있다. 벽면에는 평아치의 수직으로 긴창을 내고 처마부를 2단의 코니스(Cornice)로 장식하였으며, 지붕은 모임지붕형에 기와를 이었다.(사진 9-193 자료:大邱府, 大邱民團史)



〈사진 9-193〉

일본계 제일은행 대구지점

2. 근대 상업건축의 형성기(1910~1929)

이 시기는 韓日合邦과 함께 日帝가 행정, 사법기구를 재조직하여 경제수탈을 강화하는 시기로써, 대구의 일본인들은 舊城廓의 철거에 이어 府內 간선도로를 그들의 계획대로 정리한후 한국인들의 거주 중심지인 舊城廓 內部로 밀고 들어와 商圈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中央通(中央路)과 本町(西門路) 東城町(東城路)에 자리잡았고, 府民과 지방상인들에게 일

349) 河井朝雄, 《大邱の物語》, 1931, p.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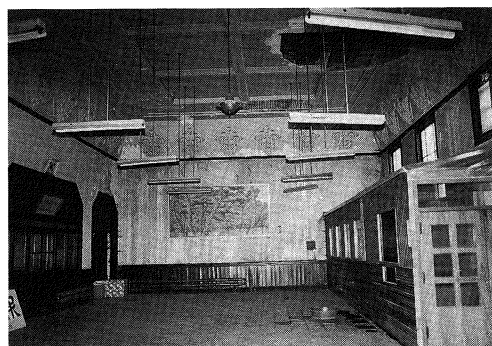
용품을 도매하는 일반 常設店鋪들은 대구역과 재래시장(西門市場)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변에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1) 漢城銀行 大邱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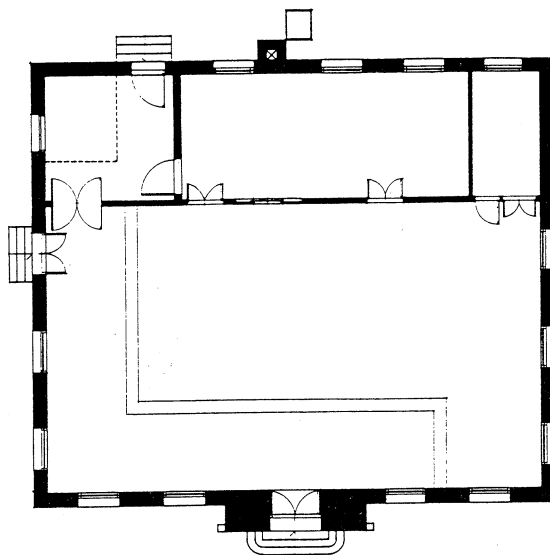
서문로에 면하여 북향 배치된 漢城銀行 大邱支店은 1920년 日帝가 건립한 벽돌쌓기 單層 건물로 정면 중앙의 현관 포치를 중심으로 좌우대칭형이다. 이 건물은 中村與資平이 설계했고, 건축공사는 당시 대구에 근거를 두고 있던 일본인 건설회사 屋代組에서 맡았다. 평면구성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단순한 형으로 영업실, 금고실 등을 간막이 벽으로 구획하였다. 주 현



〈사진 9-194〉 한성은행 대구지점 전경



〈사진 9-195〉 한성은행 대구지점 내부



〈圖 9-84〉 한성은행 대구지점 평면도

관은 북쪽 정면 중앙에 위치하며, 양쪽 2개의 탑으로 구성되어 있고, 上部에는 클로이스트 볼트(Cloister Vault)³⁵⁰형의 지붕을 덮었다. 외벽은 화강석 기초위에 벽돌을 쌓아 몰탈로 마감했으며, 벽면에는 수직으로 긴 큰창을 내고, 창 의 웃인방에는 원형 장식을 붙였다. 지붕은 맨사드지붕에 천연 슬레이트를 이었다. 이 건물은 해방후(1947년 8월) 영남일보 사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최근(1992년)에 들어 상가로 조성하였다.

2) 朝鮮銀行 大邱支店

1920년 日帝가 건립한 조선은행 대구지점은 중앙로에 면하여 동향 배치된 벽돌쌓기 2층 건물로 변형 맨사드형 지붕에 동판을 이었다.

평면은 동서로 약간 긴 長方形으로 1층은 취발형(Void)으로 구성하여 영업장, 금고실, 사무실 등을 두었고, 2층에는 회의실과 사무실 등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정면 중앙의 현관 포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외벽은 문양을 넣은 화강석 다듬돌쌓기로 벽 아랫부분을 구성하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타일을 붙였으며, 벽면 모서리와 창 사이벽은 기둥 모양으로 꾸몄다. 창문은 평아치형에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고, 기둥보다 들어 쌓은 층 사이벽에는 3단으로 몰딩된 오목한 면을 만들고 그 윗쪽에 양각 장식을 붙였다. 처마부에는 銅板으로 2단 몰딩을 하여 코니스(Cornice)를 구성하였고, 정면 중



〈사진 9-196〉 조선은행 대구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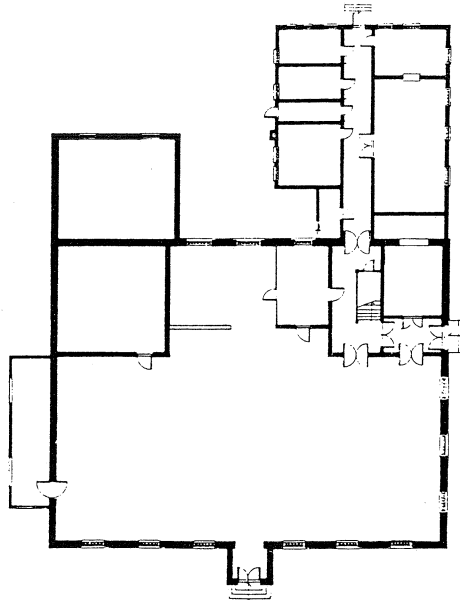


〈사진 9-197〉 조선은행 대구지점

양부의 지붕에는 도머(Domer)창을 설치하고 銅板으로 코니스(Cornice)처럼 장식하였다. 내부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 벽은 회벽 마감인데 계단실은 몰탈위에 수성페인트를 발라 마감하였다.

350) 돔(dome)모양의 曲面 천장.

이 건물은 해방후 한국신탁은행에 이어 1976년 8월부터는 서울신탁은행에서 사용해 오다가 1990년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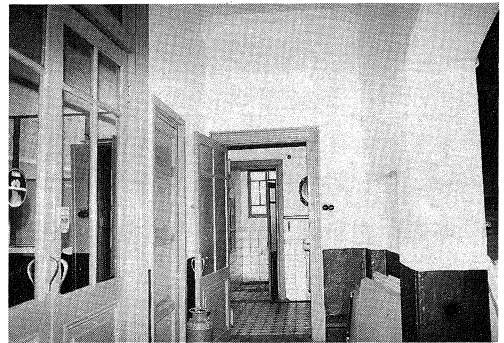
〈圖 9-85〉 조선은행 대구지점 1층 평면도

3) 朝一湯

朝一湯은 1924년에 일본인이 북성로 1가 30번지에 건축한 공중 목욕탕으로 현재 벽산대구(주)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설계는 隅川이 하고, 건축공사는 屋代組에서 맡았다. 이 건물은 북성로변에 남서향으로 배치된 벽돌조 2층 집으로 정면의 우측부를 약간 돌출시켜 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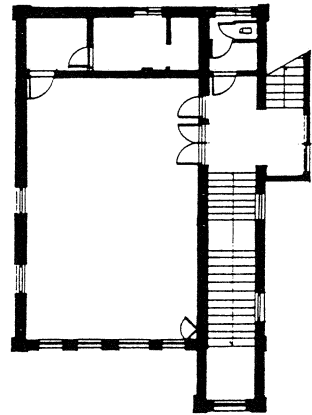


〈사진 9-198〉 조일탕 전경



〈사진 9-199〉 조일탕 내부

(TURRET)처럼 구성하였다. 평면 구성은 長方形이고, 출입구는 건물의 중앙부(1층 목욕탕)와 우측 돌출부(2층 주택)에 위치하며, 지붕은 난간벽으로 구성하였다. 벽체는 붉은벽돌로 구성하고, 창 사이벽을 1단 들여쌓기하여 벽면을 수직분할 하였으며, 창의 아래위 인방을 인조석 씻어내기로 마감하여 수직선을 강조하였다. 내부 바닥은 1층의 경우, 목욕탕은 타일, 탈의실은 장마루판이고, 2층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였으며, 벽은 타일(1층 욕실)과 회반죽(2층)으로 마감하였다.



〈圖 9-86〉
조일탕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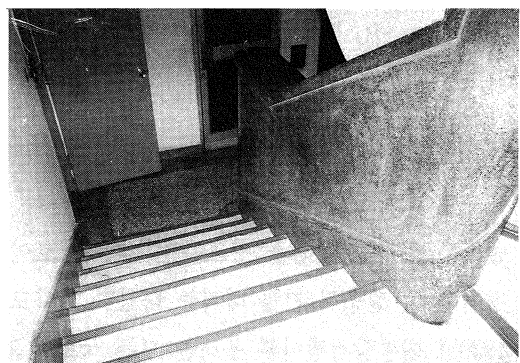
4) 大邱金融組合

이 건물은 1925년에 日帝가 중구 포정동 5번지에 건립한 붉은벽돌조 2층 건물로 설계는 掛塚八次郎이 했고, 공사는 屋代組에서 맡았다. 외관은 정면의 좌측부(계단실)을 약간 후퇴시켜 비대칭형으로 구성하고, 지붕을 슬라브로 처리하여 처마부의 장식을 단순화 하였다.

평면 구성은 동서로 약간 긴 長方形이고, 주 출입구는 남쪽 정면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포치로 장식되어 있다. 외부 벽체는 화강석 다듬돌로 쌓은 下部壁위에 붉은벽돌을 쌓아 타일을 붙이고, 벽 모서리와 창 사이벽은 기둥처럼 구성하여 기둥 머리를 장식하였으며, 창아래 작은 벽에는 십자형 윤곽에 花板이 양각된 석고판을 붙였다. 내부벽은 모두 회반죽 마감이나 계단실의 징두리벽은 타일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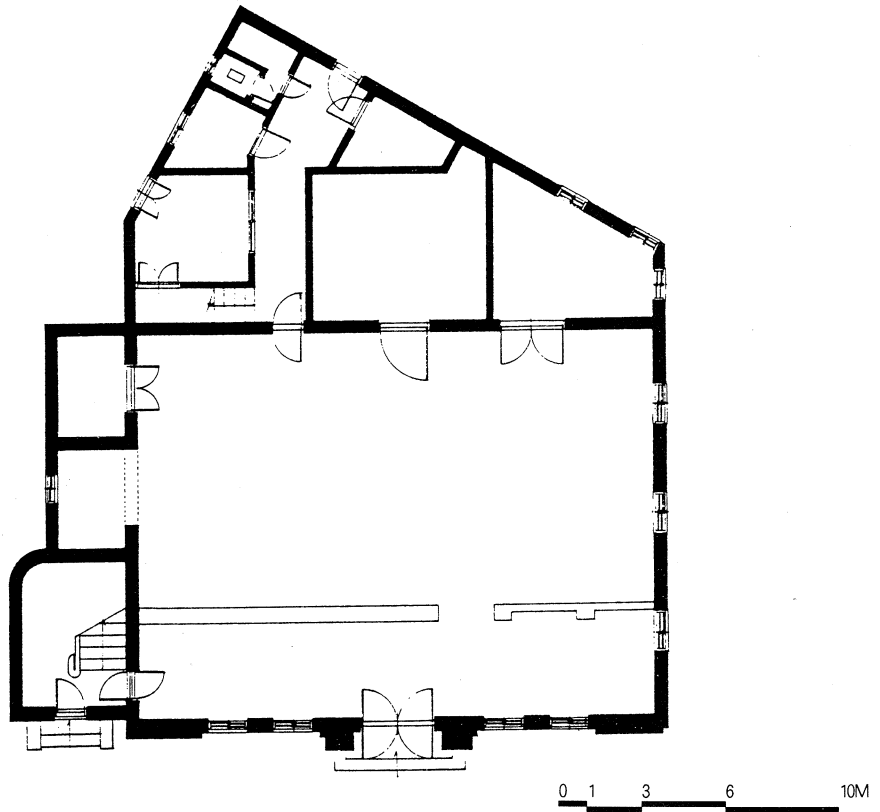


〈사진 9-200〉 대구금융조합



〈사진 9-201〉 대구금융조합 내부 계단실

해방후 이 건물은 중소기업은행에 이어 1981년 10월부터 장기신용은행 대구지점에서 사용하고 있다.



(圖 9-87)

대구금융조합 1층 평면도

3. 근대 상업건축의 발전기(1930~1945)

이 시기의 상업건축은 1939년 태평양전쟁을 前後하여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38년까지 대구에는 일본 大資本의 유입과 日帝의 한반도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각종 금융기관과 대규모 백화점을 비롯한 중소 常設店鋪들이 많이 건축되었다. 이 시기에 건축된 금융기관 건물들은 주로 정면성을 강조하는 외관을 보이고, 일반 상점건물들은 규모가 커지면서 권위적인 성격을 띤 절충적 건물 내지는 다양한 파사드(Facade)를 구사하는 근대적 건물들 이다. 그러나 1939년 태평양전쟁이후 부터는 모든 국력이 전쟁에 모아짐으로써 건축활동은 침체되었다.³⁵¹⁾

이 시기의 주요 상업건축으로는 朝鮮殖産銀行 大邱支店(1931), 朝鮮信託銀行 大邱支店

351) 김일진·윤재웅, 앞의 논문, p.125.

(1932), 이비시아 백화점(1932), 三井百貨점(1934), 茂英堂(1937), 三國商會(1938) 등이 있다.

1) 朝鮮殖産銀行 大邱支店

서문로 대구우체국 맞은편에 있는 한국산업은행은 1931년경 日帝가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으로 지은 건물로 지금까지 건축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 건물은 연면적 1,980㎡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前 時期의 은행건물들과는 달리 정면부의 장식이 단순해지고 지붕을 슬라브지붕으로 처리하여 수평선을 강조함으로써 르네상스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사진 9-202〉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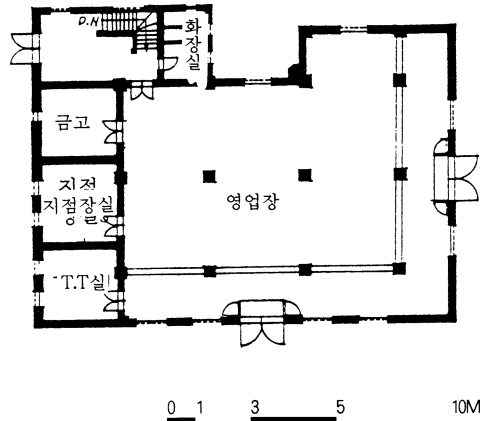


〈사진 9-203〉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창상세

있다. 또한 이 건물의 외관구성에서 보이는 특징은 평지붕의 난간벽과 처마부의 수평돌림띠(cornice), 창 인방부 등을 장식타일로 섬세하게 장식한 것과 창 사이벽을 기둥처럼 약간 돌출시켜 벽면을 수직으로 분할하고 이 창 사이벽 上部와 2층 창문 아래벽에 각각 사각형 석고 장식판을 붙여 외관을 다양하게 장식하고 있는 점인데, 이와같은 외관 구성 방법은 이 시기의 다른 은행건물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물의 평면구성은 남북 방향으로 약간 긴 長方形으로 남측과 서측 중앙에 각각 출입구를 두고 1층에는 영업장과 지점장실, 금고실등을 두었으며, 2층에는 계단실과 연결되는 ㄱ字形의 복도를 따라 창고, 도서실 등을 배치하였다.

내부 각 실의 마감상태는 바닥은 타일이고, 벽과 천장은 회반죽마감이며, 실내난방은 중앙 집중식 증기난방이었다.



〈圖 9-88〉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1층 평면도

2) 朝鮮信託會社 大邱支店

중앙로 미도백화점 옆에 있던 옛 한일은행 대구지점 건물은 1932년 日帝가 조선신탁회사 대구지점으로 지은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연면적 806.42㎡ 규모의 벽돌조 2층 건물로 정면의 현관 포치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이었다.

평면은 남북으로 긴 長方形으로 1층을 취발형(Void형)으로 구성하여 영업장, 금고 등을 두



〈사진 9-204〉

조선신탁회사 대구지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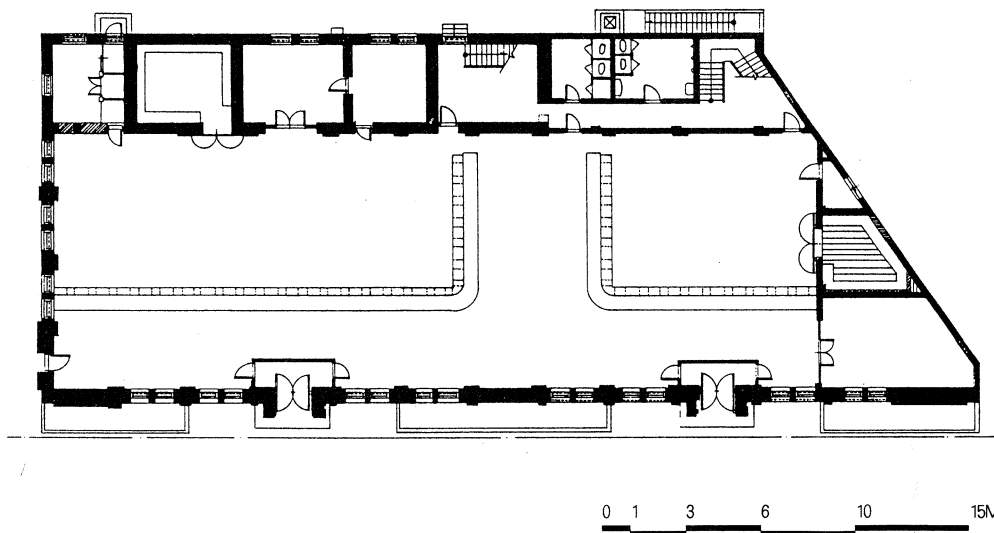


〈사진 9-205〉

조선신탁회사 대구지점 내부

었고, 2층에는 회의실, 서고 등을 배치하였다.

건물 외관은 화강석 다듬돌위에 붉은벽돌을 쌓아 인조석으로 마감하였고, 창사이벽은 벽돌



〈圖 9-89〉

조선신탁회사 대구지점 1층 평면도

을 들여쌓기하여 기둥처럼 구성하였으며, 창문은 평아치형에 오르내리창을 달았다. 벽면보다 들여쌓기 한 층사이벽에는 돌림띠를 돌려 수평으로 긴 사각형의 장식판을 붙였으며, 2층의 창문 위에는 圓形의 장식품을 규칙적으로 배치하였는데, 이것은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내부 바닥은 원래 목재 장마루판이었으나 인조석물갈기로 개조되었고, 벽면은 몰탈위 수성페인트 마감이며, 천장은 줄대반자였으나 角材로 井字살을 짜고 그 사이에 석고보드를 끼워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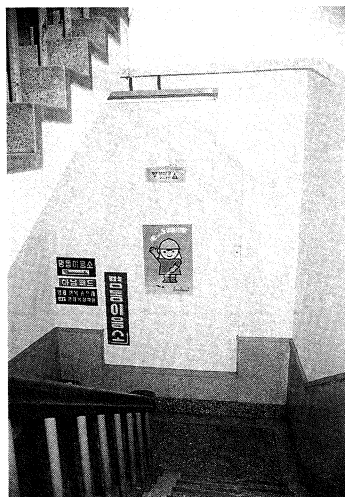
이 건물은 해방후 조선신탁회사 대구지점, 조선은행 대구지점, 한일은행 대구지점 등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2년 1월, 한일은행 대구지점에서 새 건물을 짓기위해 철거하였다.

3) 이비시아百貨店

대구역앞에서 동성로를 따라 한일극장쪽을 향해 가다가 중앙로에서 동아백화점쪽으로 이어지는 東西間 도로의 교차점에 대구 최초의 백화점이었던 대구빌딩이 서있다. 이 건물은 1932년에 대구의 일본인 상업자본가가 大邱府民과 지방 상인들에게 일용품을 공급하기 위해 건립한 이비시아 백화점이었다. 이비시아 백화점은 대구역과 가까운 東城路에 面하여 동남향으로 배치된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로 당시 대구에서는 최고층의 근대적 건물이었다.



〈사진 9-206〉 이비시아 백화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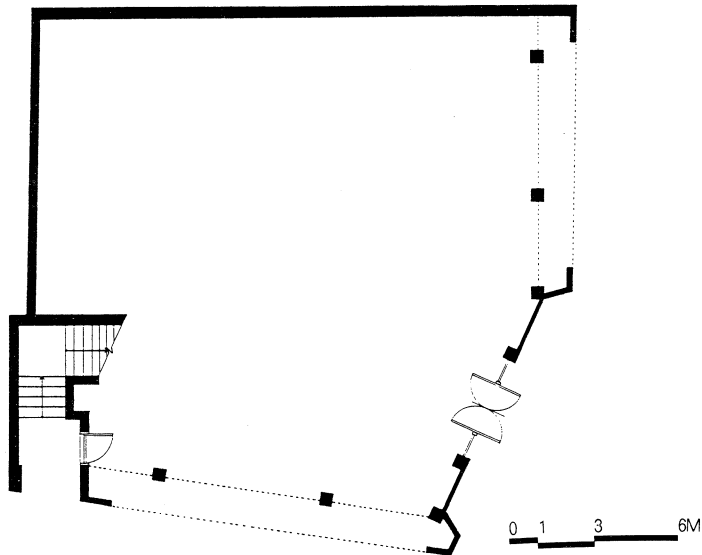


〈사진 9-207〉

이비시아 백화점 내부 계단실

이 건물의 형태구성에서 보이는 특징은 예시한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 不定形평면의 좌우측면 1층 모두를 쇼윈도우로 처리하고, 좌측면 끝에 계단실을 배치한 것과, 정면부를 曲面으로 처리하고, 정면과 좌우측면의 창 사이벽을 기둥처럼 꾸며 그 표면을 플루팅(fluting = 기둥표면에 세로로 길게 넣는 줄)으로 장식한 점, 그리고 창문 윗부분의 반원형 장식판붙임, 벽면의 흰색 타일붙임, 층간 돌림띠 등의 형태요소들

에서 근대적 감각과 더불어 정면성과 대칭성을 느끼게 하는 점이다.



〈圖 9-90〉

이비시아 백화점 1층 평면도

4) 三中井 百貨店

三中井(미나카이) 백화점은 1905년부터 大邱府 西門밖에서 잡화상을 경영해 오던 4명의 일본 상인들이 1934년 9월 북성로에 건립한 철근콘크리트조의 5층건물이다. 공동출자회사였던 미나카이 백화점은 이때부터 줄곧 대구상가를 주도하였으며, 그후 본점을 서울로 옮겨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두는 한편, 멀리 만주에까지 商圈을 확장하였다. 당시 이 건물은 동성로의 이비시아 백화점과 함께 大邱府內의 최고층 건물로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고 있어 大邱府民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위해 연일 초만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건물의 평면구성은 長方形이며, 정면 주 출입구의 좌우측에는 쇼윈도우를 설치하였고, 우측 뒷편에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을 두었다. 외관구성은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사이에 붉은벽돌을 쌓아 기둥과 함께 타일을 붙여 마감하였으며, 정면부는 돌출기둥, 석고장식판, 테라코타등으로 다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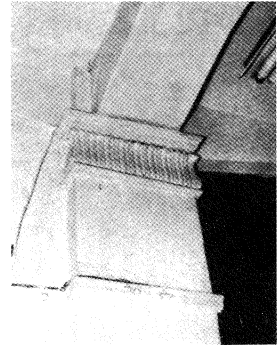


〈사진 9-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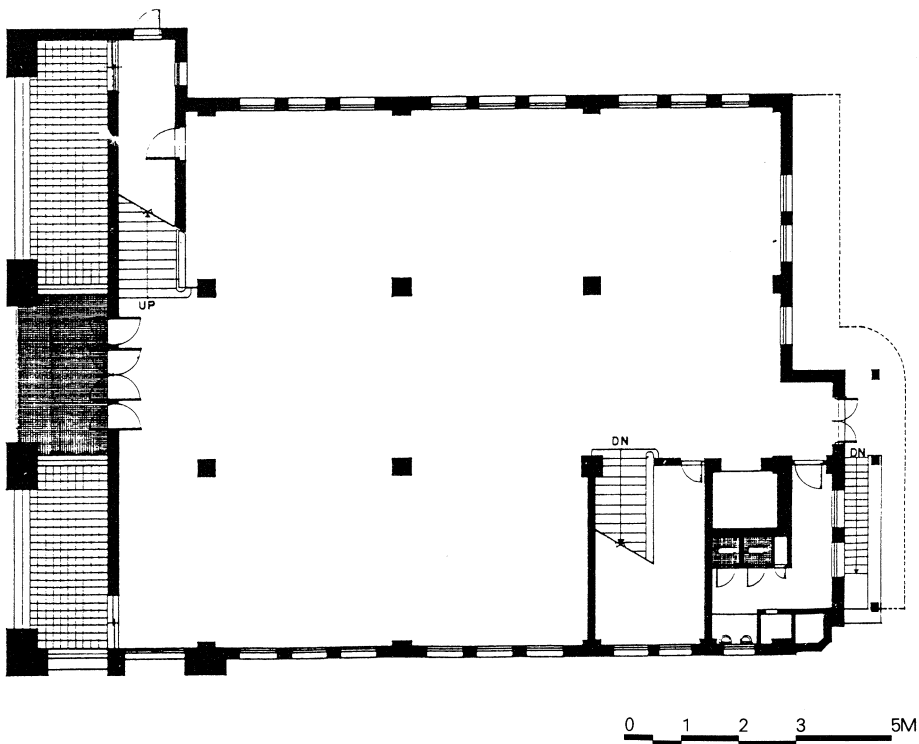
미나카이 백화점

게 장식하였다. 내부 구성은, 바닥은 인조석물갈기, 천장은 콘크리트 슬라브위 회반죽마감이었다.

이 건물은 해방후 美軍에 이어 여러 군사기관들이 사용해오다가 1969년 4월 국유재산으로 이관되어 서대구 세무서로 사용되었고, 1984년 10월 대우그룹에서 인수, 새 건물을 짓기위해 철거하였다.



〈사진 9-209〉
미나까이 백화점
내부 기둥 상세



〈圖 9-91〉 미나까이 백화점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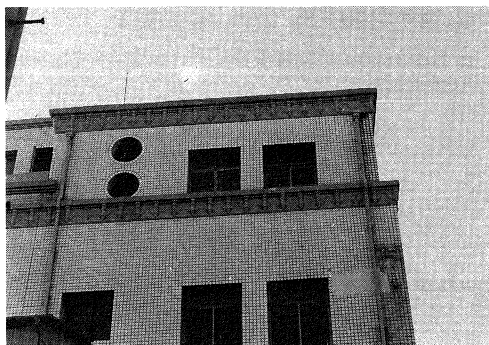
5) 茂英堂

茂英堂은 대구에 일본의 商圈이 침입해 들어오자 이에 자극을 받은 한국인 상업자본가 李根茂가 1937년 西門路邊에 한국인을 상대로하는 잡화상으로 건립한 건물이다. 이 건물이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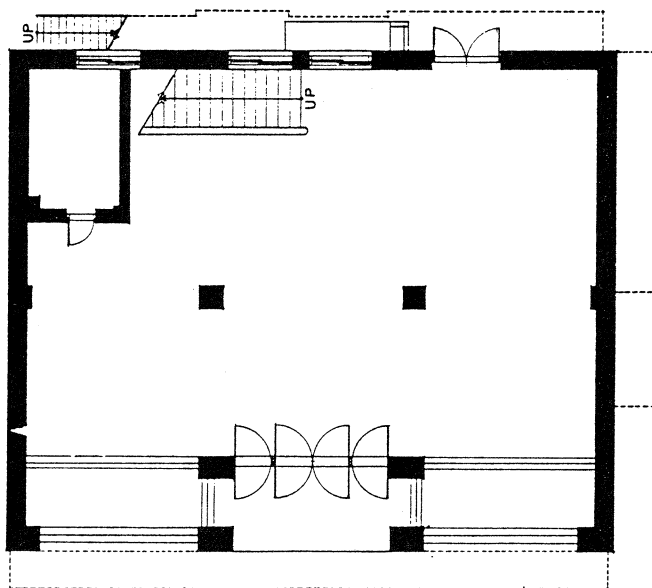
립되기전 같은 위치에 무영당 양품점이라는 잡화상이 있어서 개성 출신의 여자 종업원이 뛰어난 상술로 기존의 미나까이, 이비시아 등의 대규모 백화점들과 경쟁해서 많은 돈을 벌어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당시 茂英堂이라는 상호가 연합국이던 英國의 번영을



〈사진 9-210〉 무영당 전경



〈사진 9-211〉 무영당 치마부 상세



0 1 2 3 5M

〈圖 9-92〉

무영당 1층 평면도

뜻한다는 이유로 일본 형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³⁵²⁾

이 건물은 서문로 1가 58번지 현 금호호텔 뒷편에 북향 배치된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로 슬라브지붕을 이었다. 평면 구성은 正方形으로 정면 중앙에 주 출입구를 두고, 양쪽에는 쇼윈도우를 설치하였으며, 각 층에는 간막이벽으로 실을 구획하였다. 외벽은 철근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붉은벽돌을 쌓아 그 위에 타일을 붙여 마감하였으며, 정면의 벽은 돌출기둥, 장식화판, 圓形窓등으로 다양하게 장식하였다. 내부 벽체와 바닥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였다.

해방후 이 건물은 동흥상공주식회사에 이어 1960년에는 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이 관리하였으나 1969년부터는 부산비닐상회로 사용하고 있다.

6) 三國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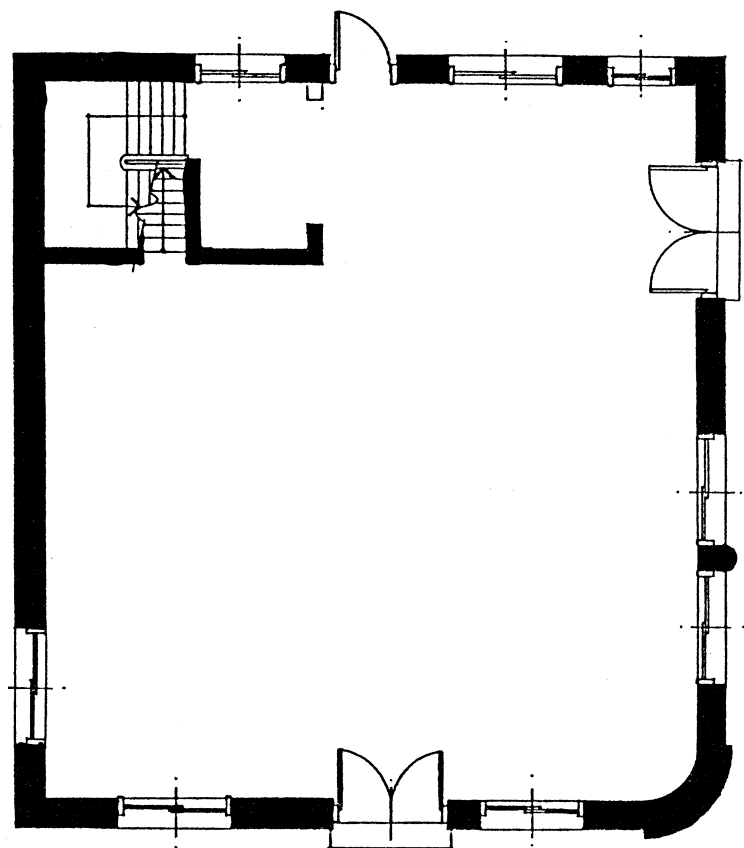
삼국상회는 1938년 일본인이 북성로 2가 27번지에 석탄 판매점으로 지은 옥탑이 있는 竹筋콘크리트조 3층 건물로 외관을 단순하게 처리한 근대적 건물이다. 평면 구성은 正方形에 가깝고, 주 출입구는 도로에 면한 2곳에 두었으며, 각 출입구의 윗부분은 처마를 약간 돌출시켜 구성하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대구에는 日本内の 상업자본이 유입되면서 대규모 백화점을 비롯한 中小常設店舖들이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日帝가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따라 민간건축에서는 철근을 구하기 어려워 철근 대신 대나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건물의 경우도 벽체에 대나무를 사용한 竹筋콘크리트로 하였으며, 벽면에는 長方形에 가까운 창을 설치하고 수직성과 장식성을 배제 하였다. 또한 정면부의 한쪽 모서리벽과 현관 상부의 돌출처마를 曲面으로 장식하고, 옥탑층에는 圓形窓을 설치하였으며, 지붕은 슬라브로 구성하였다. 현재 이 건물은 대원주유소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 9-212〉

삼국상회

352) 김일진, 앞의 책, p.231.



〈圖 9-93〉

삼국상회 1층 평면도

VIII. 住居建築

1886년 韓佛修好條約이 체결되는 것을 계기로 대구에는 천주교 본당이 설립되고 이어 개신교의 선교본부가 대구로 옮겨옴에 따라 歐美人 선교사들이 들어와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1903년 부터는 경부선 철도 부설공사가 착공되고 을사조약의 체결과 함께 대구 日本理事廳이 설립되면서 多數의 일본인들이 몰려와 식민지 기반구축을 위한 諸般 建設事業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대구에는 歐美人 선교사들의 주택이 城밖의 계산동과 동산동 일대에 형성되는 한편 일본인들의 상점과 주택들은 城밖의 대구역 부근과 南門밖 도로변을 따라 형성되었다. 그러나 대구 城壁이 철거(1909년 12월)된 이후부터 일본인들은 점차 한국인들의 거주 중심지인 城內部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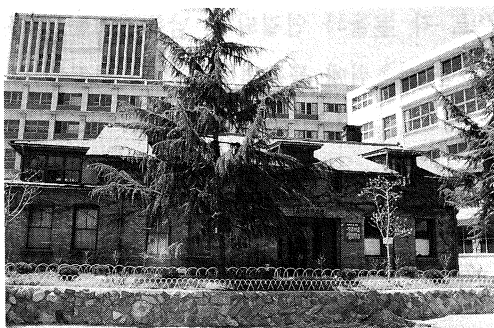
1. 근대 주거건축의 태동기(1886~1909)

이 시기는 건립주체에 따른 주거유형이 태동하는 시기다. 처음에는 종종 기존의 韓屋을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신축할 경우 건립주체에 따라서 각각 相異한 유형을 택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주택 유형은 대체로 韓·洋折衷形, 코로니얼(Colonial)樣式에 根源을 둔 방갈로(Bungalow)風, 日·洋折衷形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주택은 聖母聖堂 司祭館(1899), 존슨(Johnson)주택(1901), 어드만(Erdman)주택(1909), 맥파랜드(Mcfarland)주택(1909), 스윗즈(Switzer)주택(1909), 블레어(Blair)주택(1909), 라이너(Reiner)주택(1909)등이 있다.³⁵³⁾

1) 존슨(Johnson)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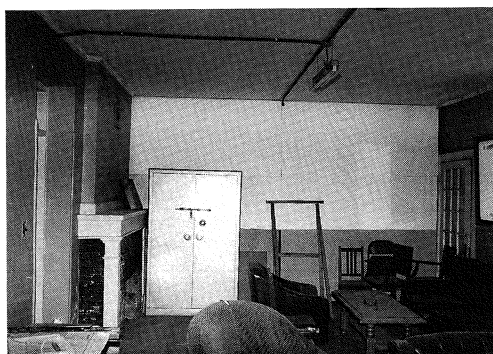
이 주택은 1901년 9월 미국인 선교사들(Adams, Johnson)이 동산 마루위에 존슨선교사의 사택으로 지은 붉은벽돌조 單層의 韓·洋折衷形 건물이었으나 1926년 2층으로 증축되었다. 평면 구성은 현관홀과 연결되는 거실을 중심으로 부엌, 식당, 침실 등을 배치하고, 건물의 좌우측과 뒷면에는 각각 외부로 통하는 부 출입구를 설치하였다. 증축된 2층에는 계단실과 연결되는 긴 중복도를 따라 4面에 각 室을 배치하고, 남쪽면에는 선룸(Sun Room)을 두었다.

벽체는 안산암 기초위에 붉은벽돌을 쌓아 구성하고, 각 층사이에는 코니스(Cornice)를 설치하였으며, 창문은 결원 아치형으로 하여 목재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다. 지붕은 박공형에 셰드(Shed)형 지붕을 설치하여 석면슬레이트를 이었다. 이 집은 미국인 선교사들의 주택에 이



〈사진 9-213〉

존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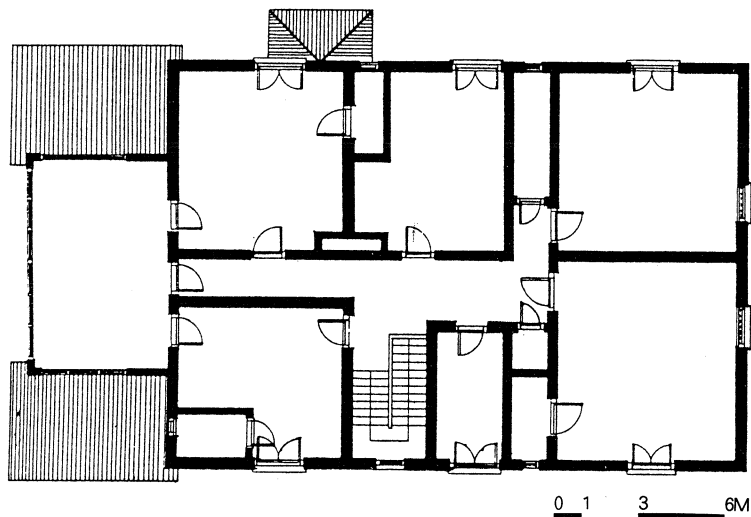


〈사진 9-214〉

존슨주택 내부

353) 윤재웅, 〈개항이후 대구지역 근대주거건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2, 한국건축역사학회, 1992, p.89.

어 1964년 10월부터는 폴라드기념관으로 개관되어 신명여자고등학교 생활관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8년 5월 철거되었다.



〈圖 9-94〉

존슨주택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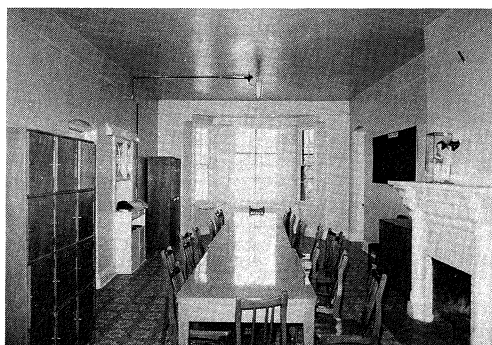
2) 어드만(Erdman)주택

어드만주택은 1909년경 미국인 선교사들이 동산 마루위에 지은 벽돌조 2층의 韓·洋折衷式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서쪽에 설치된 목조 베란다에서 현관으로 연결되고, 현관홀에서 거실, 식당, 주방 등과 연결된다. 2층은 계단홀을 중심으로 각 室들과 연결되며, 남쪽면에는 선룸(Sun Room)을 두었다. 외관은 안산암을 바른층 쌓기한 기초위에 붉은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



〈사진 9-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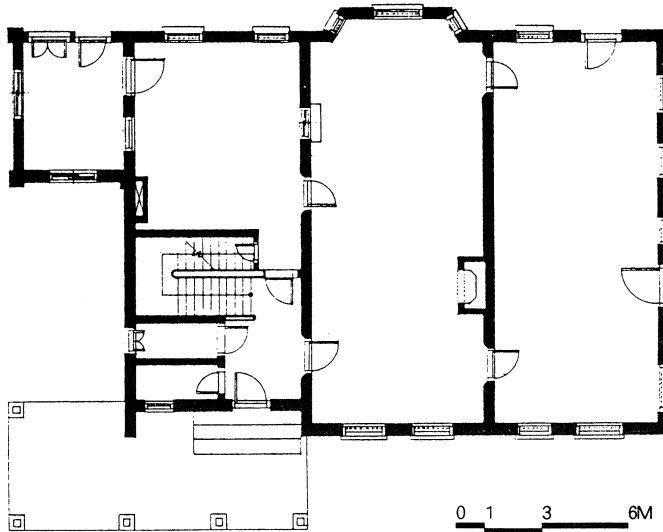
어드만 주택 전경



〈사진 9-216〉

어드만 주택 내부

성하고, 지붕은 박공형에 韓式기와를 이었다. 창문은 1층이 목재 오르내리창과 미서기창이고, 2층은 모두 미서기창이며, 1층 거실의 동쪽에는 채광량을 늘리기 위해 영국 빅토리아(Victoria)시대에 유행한 베이 윈도우(Bay Window)³⁵⁴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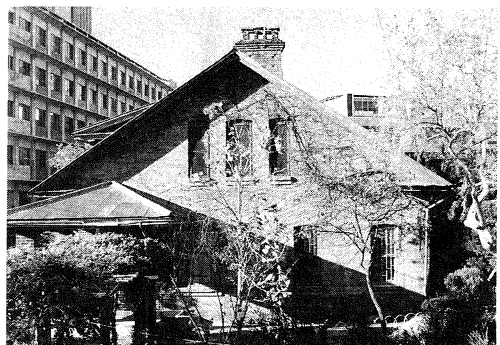
〈圖 9-95〉 어드만 주택 1층 평면도

이 집은 선교사들의 주택에 이어 신명여자중학교에서 생활관, 연혁관등으로 사용해오다가 1989년 철거하였다.

3) 맥파랜드(Mcfarland)주택

信明學校 운동장의 서쪽에 위치한 이 주택은 1909년경 미국인 선교사들이 지은 붉은벽돌조 2층집이다.

평면구성은 남쪽에 베란다를 두고, 그 뒷쪽으로 현관홀과 거실, 응접실등을 배치하였다. 거실의 서측 벽은 몰딩(Moulding)이 있는 큰 아치를 내어 옆실과 연결하고, 북쪽 구석에는 스



〈사진 9-217〉 맥파랜드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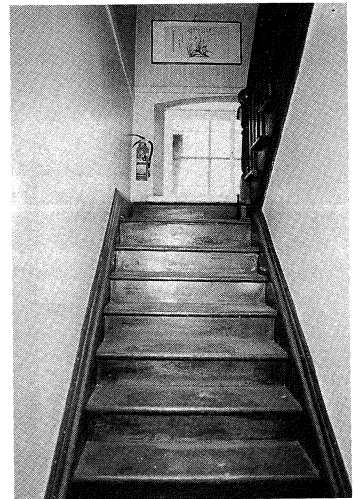
354) 외관 장식과 실내의 채광량을 늘리기 위해 벽면에서 약간 튀어나오게 설치한 창, 내민창 이라고도 함.

웨덴식 벽난로를 설치하였다. 2층에는 계단홀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각각 침실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안산암의 城돌을 바른층쌓기한 기초위에 붉은벽돌을 美式쌓기 하고, 각층 사이에는 코니스(Cornice)를 돌렸으며, 지붕은 새드(Shed)형 지붕을 부가한 박공지붕으로 골함석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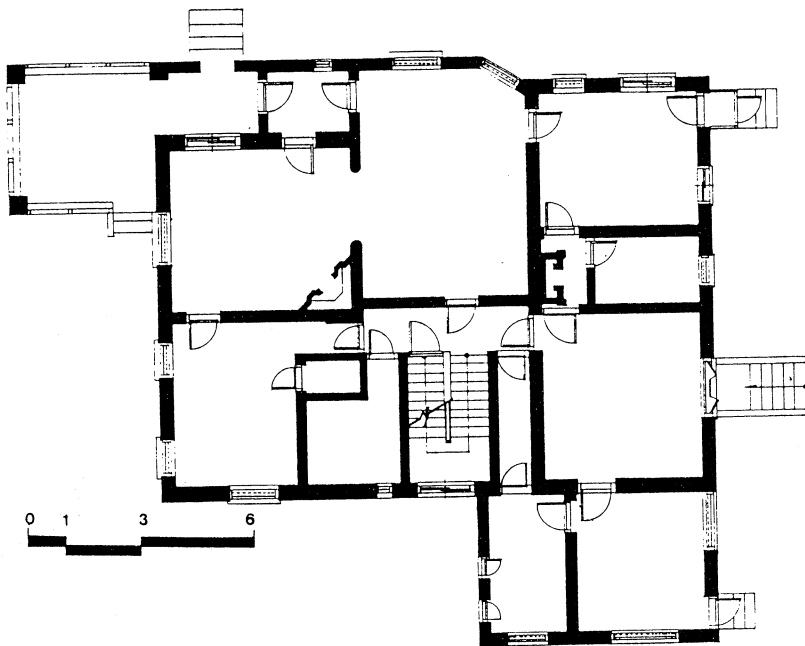
창문은 결원 아치형으로 구성하여 목재 오르내리창을 달았으며, 밑인방에는 물흘림 경사와 물끊기 홈을 두었다. 내부의 바닥은 장마루판, 천정은 대나무 줄대바탕에 회반죽 마감이며, 천정 갓돌레는 가는 나무줄대로 반자 돌림띠를 구성하였다.

이 집은 맥파랜드(Mcfarland)에 이어 라이온(Lyon), 프로보스트(Provost)등의 선교사들이 기거해 왔으나 1970년 3월 신명학교에서 인수하여 생활관으로 사용해 오다가 1989년에 철거하였다.



〈사진 9-218〉

맥파랜드 주택 내부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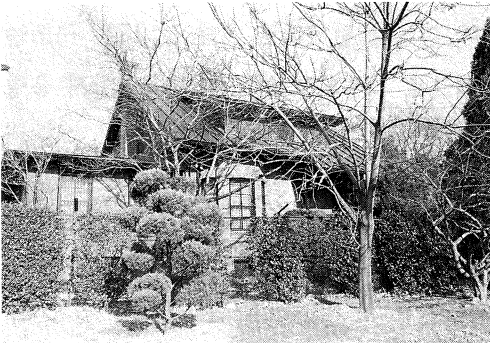


〈圖 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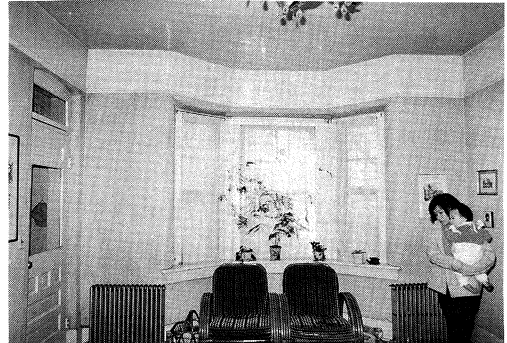
맥파랜드 주택 1층 평면도

4) 스윗즈(Switzer)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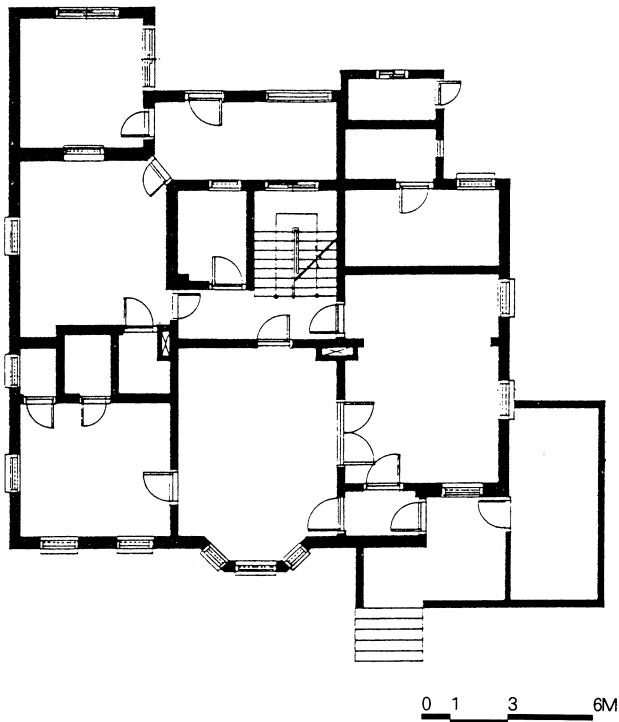
대구 市街地를 내려다 보는 동산 마루위에 붉은벽돌을 쌓아 지은 이 집은 1909년경 미국인 선교사들이 지은 주택이다.



〈사진 9-219〉 스윗즈 주택 전경



〈사진 9-220〉 스윗즈 주택 내부



〈圖 9-97〉 스윗즈 주택 1층 평면도

평면구성은 남쪽 좌측부에 현관으로 이어지는 베란다를 두고 현관홀을 통하여 거실과 응접실을 직접 연결하였으며,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계단실·욕실·부엌·식당 등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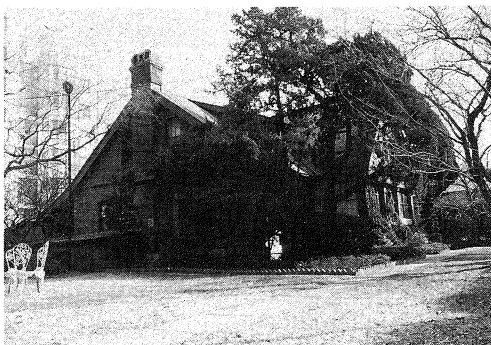
외관은 안산암의 城돌(大邱邑城 철거시 가져온 것임)을 바른층 쌓기한 기초위에 붉은벽돌을 美式쌓기하였다. 지붕은 韓式기와를 이은 박공지붕이었으나 함석으로 개조하였다. 이 집은 지붕재료와 마감재료의 일부가 改變되긴 하였으나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 및 내부 구조는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현재 동산병원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구직할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있다.

5) 블레이어(Blair)주택

이 건물은 1909년경 미국인 선교사들이 중국인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동산 마루위에 지은 집으로 블레이어선교사 등이 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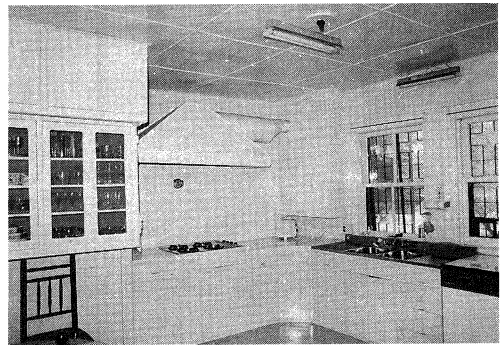
평면구성은 남북이 약간 긴 長方形으로 서쪽에 현관과 연결되는 베란다를 두고, 현관홀을 통하여 응접실·거실·계단실을 직접 연결하였으며,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부엌·식당 등을 배치하였다. 2층에는 口字形의 계단홀을 중심으로 3개의 침실과 욕실을, 현관 베란다위에는 썬룸(Sun Room)을 두었다.

외관은 기초와 지하실 부분을 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에 붉은벽돌을 美式쌓기하였다. 지붕은 박공면이 남북으로 향하는 것과 서향하는 것이 ㄱ字形으로 직교하며, 동쪽과 서쪽으로 경사진 지붕은 새드(Shed)형으로 하였다. 건물의 남쪽과 서쪽에는 목조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고, 지붕위에는 붉은벽돌을 쌓아 만든 굴뚝을 돌출시켰다. 이 집은 외관상 같은 시기 미국의 방갈로風에 가까운 洋式住居로 지금까지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사진 9-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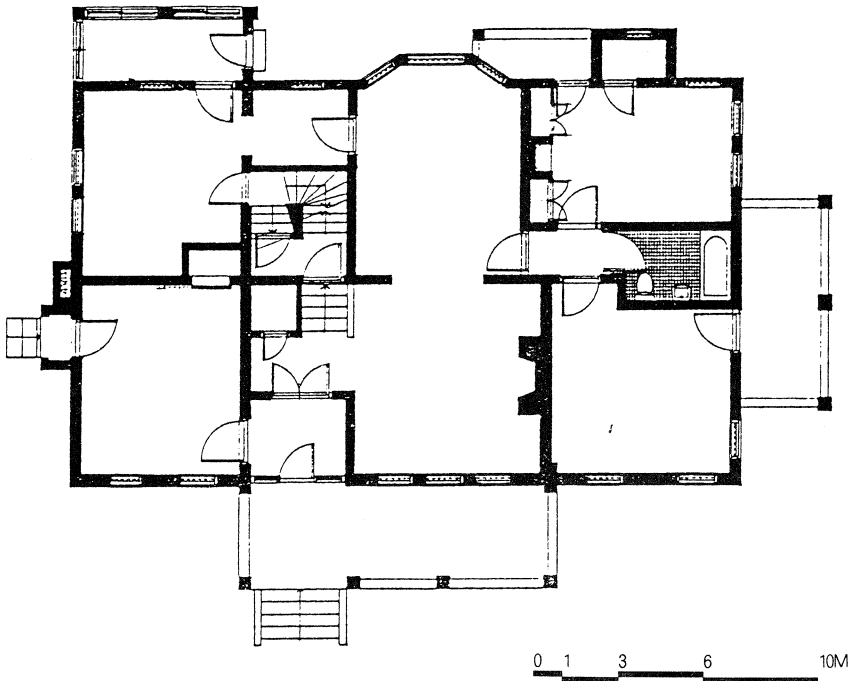
블레이어 주택



〈사진 9-222〉

블레이어 주택 부엌

현재 동산병원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구직할시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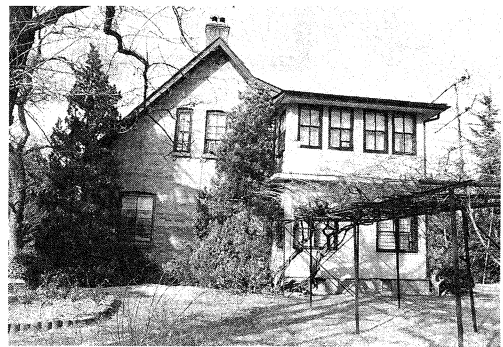
〈圖 9-98〉

블레어 주택 1층 평면도

6) 라이너(Reiner)주택

이 건물은 1909년경 미국인 선교사들이 중국인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동산 마루위에 지은 집으로 라이너, 챔니스 등이 기거하였다.

평면구성은 남북으로 약간 긴 長方形으로 서쪽 중앙에 있는 주 출입구에서 계단실이 있는 홀과 연결되고, 이 홀을 중심으로 거실·서재·부엌·식당 등이 배치되어 있다. 2층에는 계단실을 중심으로 남쪽과 서쪽에 각각 침실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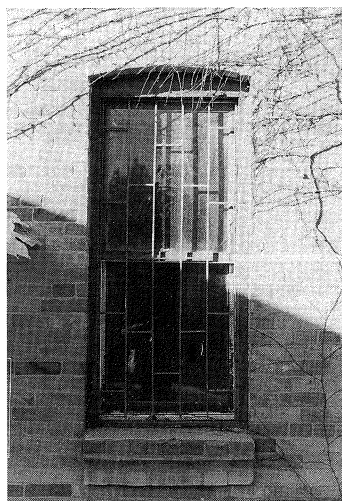
〈사진 9-223〉

라이너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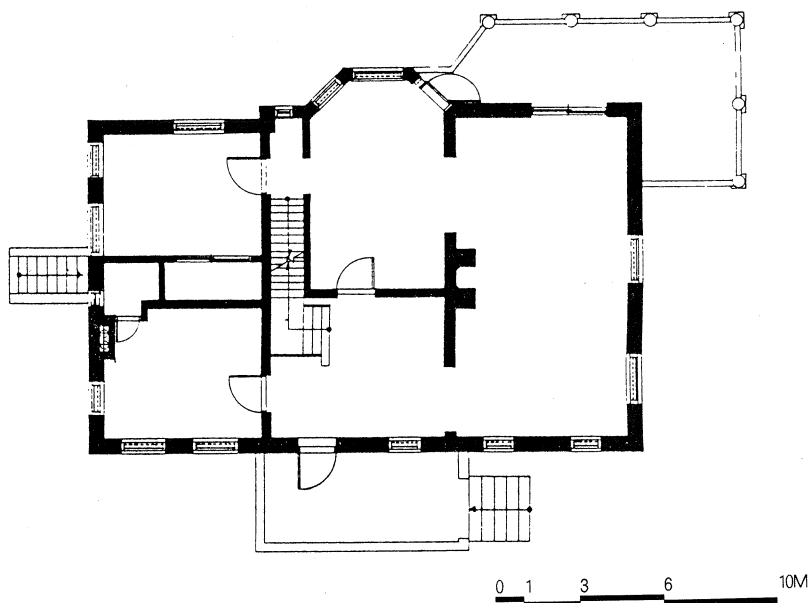
외관은 서쪽 정면 중앙부에 목조로된 현관 포

치를 두고, 동남쪽에는 목조 베란다를 설치했으며, 벽면은 콘크리트 기초위에 붉은벽돌을 美式쌓기 하였다.

이 집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洋式 住居建築과 그들의 生活樣式을 大邱府民들에게 보여 준 의미뿐만 아니라 대구의 개신교 宣敎史와 당시의 건축적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대구직할시 유형문화재 제 25호로 지정되어 있다.



〈사진 9-224〉
라이너 주택 창문상세



〈圖 9-99〉

라이너 주택 1층 평면도

2. 근대 주거건축의 형성기(1910~1929)

韓日合邦後 대구의 일본인들은 府內 幹線道路를 그들의 계획대로 정리한후 한국인들의 거주중심지인 舊 城廓 內部로 밀고들어와 관청·학교·점포·주택등을 건축해 나갔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朝鮮會社令 철폐로 일본자본의 한국진출이 활발해지고, 日帝가 식민지 경제수탈정책을 강화시켜 나감에 따라 대구역과 재래시장(서문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변에는 주거병용점포들이 많이 건축되어 일대 상가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북성로는 당시 대구의 “銀座”라 불리울만큼 중심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한편 대구의 기독교는 韓日合邦을 계기로 信者數가 증가하면서 教勢가 확장되어 갔다.³⁵⁵⁾ 朝鮮教區에서 분리된 대구 천주교는 남산동과 대구近郊의 洛山에 새로운 據點을 구축해갔으며, 개신교에서는 동산동의 시설확충과 더불어 경산에 안식교의 선교본부를 설치하였다.

이 시기 대구지역에 유입된 주거는 크게 歐美 종교인들에 의한 코로니얼(colonial)形과 조지안(Georgian)形 그리고 일본인들에 의한 日·洋折衷形, 日·洋複合形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長 屋

이 건물은 1912년경 日帝가 대구역을 건축하기 위해 外地에서 동원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집단숙소로 중구 대신동 279번지에 건립한 대구 최초의 연립주택이다.

이들 주택은 동쪽 도로에 인접하며 남북으로 길게 배치된 목조 단층의 연립형 건물로 정면과 뒷면의 구분이 없다. 평면 구성은 앞뒷면에 각각 10칸씩 20개의 방을 같은 크기로 구획하고,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 밑에 아궁이를 설치하여 난방과 취사를 겸할수 있게 했는데, 방 한칸



〈사진 9-225〉

장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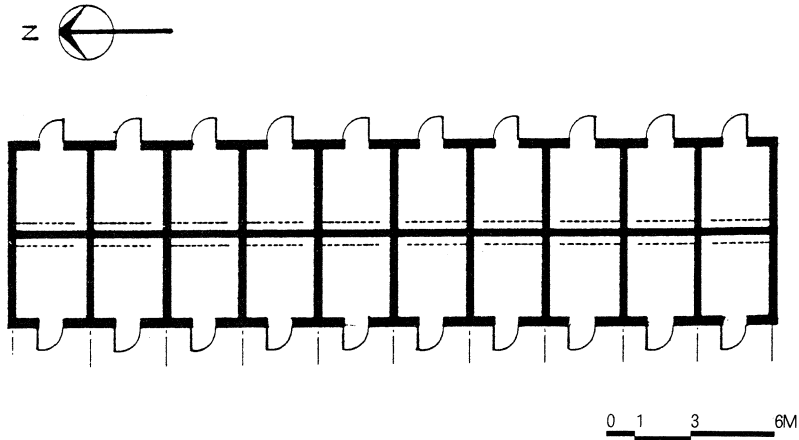
〈사진 9-226〉

장옥 내부

355) 윤재웅, 앞의 논문, p.81.

의 크기는 2m×2.5m로 구성되어 있다.

외관은 막돌쌓기 한 기단위에 주춧돌을 놓아 그 위에 角形의 나무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를 짚과 대나무로 외를 엮어 낸 다음 진흙을 발라 벽체를 구성하였다. 지붕은 목조 지붕틀을 걸고 기와를 이었으며, 지붕 위에는 5家口씩 연결된 4개의 굴뚝을 세웠다.



〈圖 9-100〉

장옥 평면도

2) 商店併用 住宅

日帝에 의해 대구 邑城이 철거(1909)되고 뒤이어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면서 중앙로와 北城路邊에는 일본인들의 상점병용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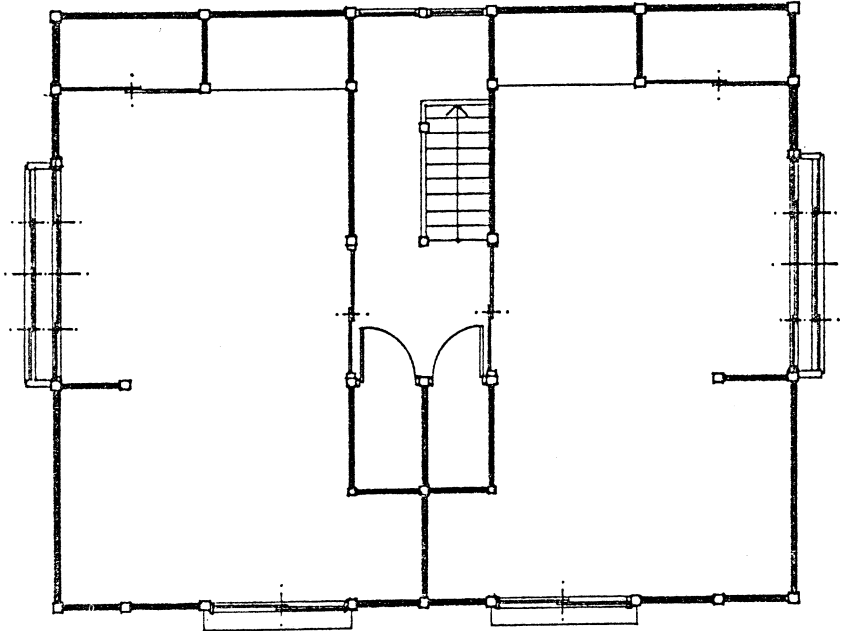
당시 일본인 영세상인들이 대구에 지은 상점 병용주택들은 1층에 점포를 두고 2층에 살림집을 마련한 것과, 도로에 면하여 앞쪽에 점포를 두고, 그 뒷쪽으로 살림집을 배치한 두가지 유형이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이들중 1층에 점포, 2층에 주거를 배치한 상점병용주택들이 대개 2-3호의 연립형으로 되어 있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日式 木造 2층으로 모임지붕에 日式기와를 이었고, 벽체는 心壁으로 구성하였다. 평면은 도로에 면한



〈사진 9-227〉

상점 병용주택

前面幅에 비하여 깊이가 깊은 長方形으로, 1층은 通間으로 구성하여 점포로 꾸미고, 2층 주거 부분은 미서기문(후스마)으로 방을 구획하였다. 이들 건물의 형태구성은 日式 木構造에 오르 내리창·수평돌림띠·불임기둥·파라펫의 구성과 벽면의 몰딩장식등 서구적 형태요소들을 도입 하였다.



〈圖 9-101〉

상점 병용주택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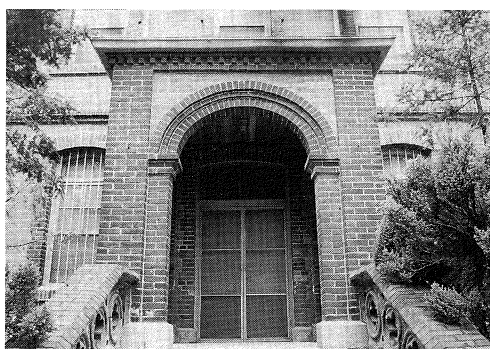
3) 샬트르 성바오로修女院 코미넛관

修女院 코미넛관은 1915년 드망즈(Dmange)주교가 신부를 보좌하면서 고아와 노인을 돌보고 의료, 교육사업을 담당할 수녀들의 숙소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남산동 교구청앞 동쪽 도로에 인접하여 동향 배치된 고딕풍(Gothic)의 붉은벽돌쌓기 2층 건물이다.지붕은 모임지붕형 아연즙이며, 지붕의 각 면에는 도머(Domer) 창이 돌출해 있다. 평면구성은 ㄷ字形으로 정면 중앙에 주 출입구를 두어 우측면의 블라인드 아케이드(Blind Arcade)로 구성한 복도와 연결하고, 이 복도를 따라 예배실, 유아실, 그리고 2층의 침실, 지하 등과 연결되는 계단실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동측 정면의 현관 포치(Porch)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며, 벽면은 모서리기둥·창인방·코니스(Cornice)·아치 등은 회색벽돌로, 나머지 벽면은 붉은벽돌로 쌓았다. 창문은 창선대를 리아스식(齒形)쌓기 한 결원 아치형으로 목재 오르내리창 또는 미서기창을 달았으며, 처마부와 각 층사이에는 흑색벽돌로 코니스(Cornice)를 장식하였다.



〈사진 9-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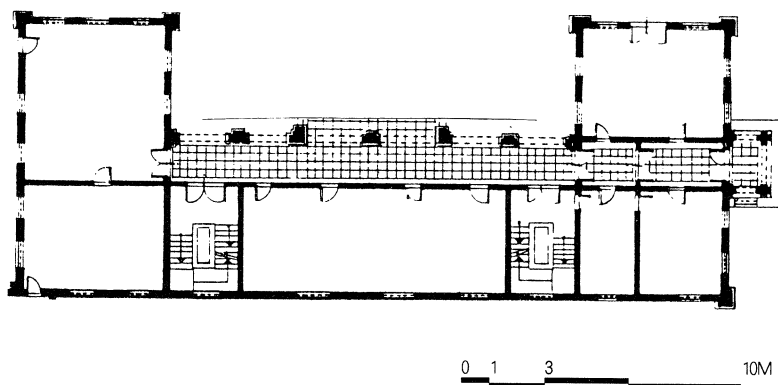
샬트르 성 바오로수녀원 코미넷관 전경



〈사진 9-229〉

샬트르 성 바오로수녀원 코미넷관 현관

이 건물은 1943년 일본 군수공장으로 징발되었으나 해방후에는 다시 수녀원으로 복귀되었으며, 현재 대구직할시 문화재자료로 제24호로 지정되어 있다.



〈圖 9-102〉

샬트르 성 바오로수녀원 코미넷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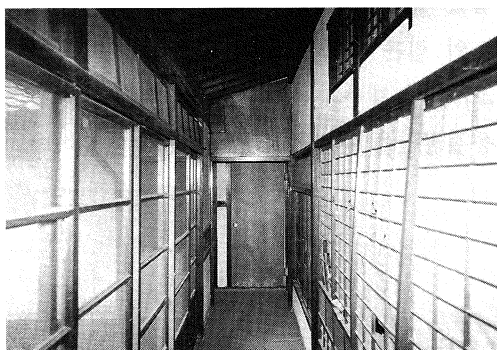
4) 慶尙北道知事 官舍

동인동2가 50-1번지 東新路邊에 있는 경상북도지사 관사는 1920년에 日帝가 경상북도지사의 공관으로 지은 日·洋折衷式의 살림집이다. 이 집은 북측 도로에 면한 대지에 연면적 415.8㎡의 木造 2층건물을 동서로 길게 배치하고 북측 대문과 연결되는 앞쪽과 뒷쪽에 각각 넓은 정원을 구성한 日本式(敷屋形)에 洋式의 응접공간을 부가한 주거다. 이 집의 공간구성은 사진과 도면에서 보는바와 같이 不定形 평면의 1層部는 회의, 접객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공적 영역과 가족생활을 위한 사적영역으로 구성하고, 사적영역과 연결되는 2層部를 通間으로된 큰

방과 수납장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벽면을 木造 平壁으로 구성하여 시멘트 몰탈, 비늘판벽으로 마감하고 오르내리창, 미서기창을 설치하고 있어 日式住居의 西歐樣式 채용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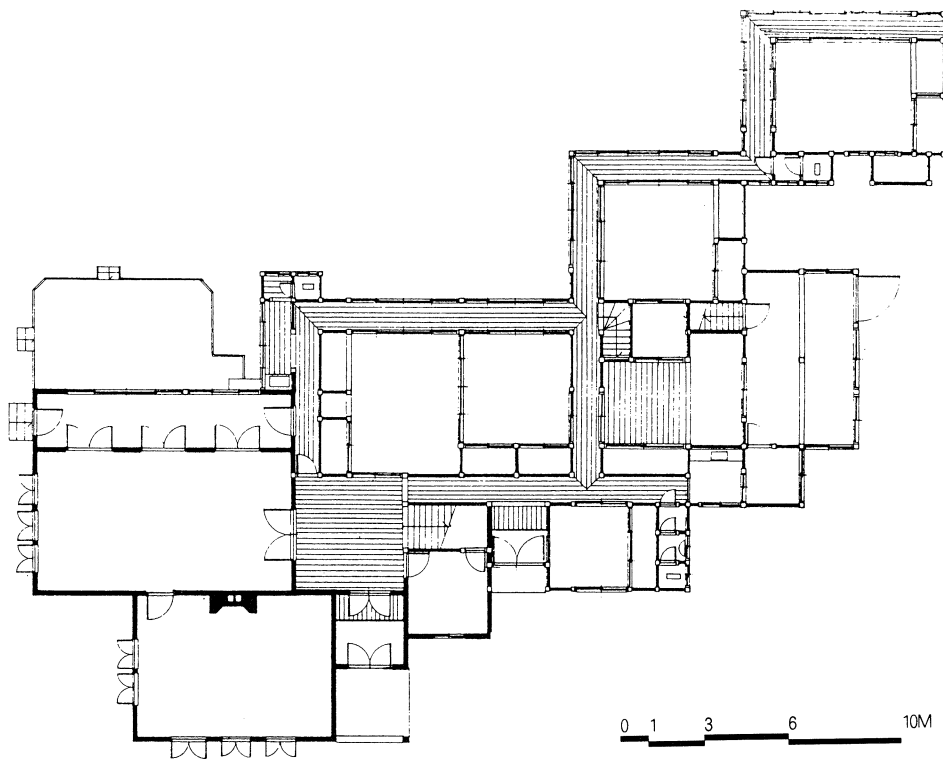


〈사진 9-230〉 경상북도지사 관사 전경



〈사진 9-231〉 경상북도지사 관사 내부

이 건물은 해방후 경상북도지사 관사에 이어 경상북도 치산사업소 사무실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5년 2월부터는 한국 청소년연맹 대구지부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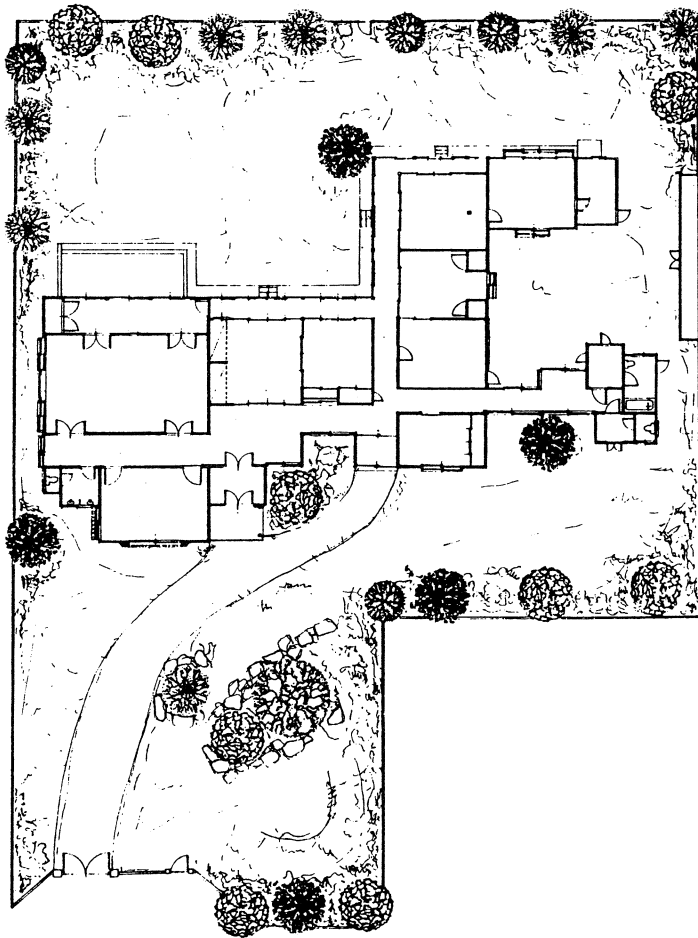
〈圖 9-103〉

경상북도지사 관사 1층 평면도

5) 大邱府尹 官舍

現 大邱市廳 맞은 편에 있던 옛 대구시장 관사는 1920년경 日帝가 大邱府尹의 사택으로 건립한 살림집이다.

이 집은 북쪽 도로에 면한 대지에 연면적 355.8㎡의 목조 단층건물로 동서로 길게 배치되고, 북쪽 대문과 이어지는 옆쪽과 뒤쪽에 각각 넓은 정원을 배치한 日式(數屋形) 住居에 洋式 응접공간을 부가한 日·洋折衷形 住宅이다.



〈圖 9-104〉

대구 부윤관사 평면도

중복도(廊下式)의 不定形 平面으로 구성된 이 집은 정면 좌측부 현관을 경계로 회의, 접객을 위한 공적부분과 가족생활을 위한 사적부분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또 각 방들이 긴 속복도와 후스마에 의해 구획, 연결되고 있다.

외관 구성면에서 공적부분은 서양식의, 사적부분은 일본 傳統樣式의 형태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1987년 10월 대구시에서 철거, 그 자리에 市廳 民願室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진 9-232〉 대구 부윤관사



〈사진 9-233〉 대구 부윤관사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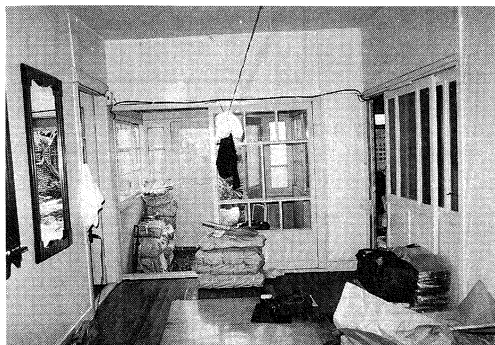
6) 姜義寬 住宅

대구에 중국인들이 언제부터 이주해 오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901년 5월에 대구 천주교본당의 초대 주임사제 로버트(A.P.Robert)신부의 요청으로 중국인 건축기술자 26명(벽돌공 9명, 석공 14명, 목수 3명)과 요리사 2명이 현 계산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왔으며, 공사가 끝난 후 이들중 일부가 대구에 남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후 1913년에는 당시 大邱敎區의 敎區長이던 드망즈(Florian Demange)주교의 주선으로 중국 山東省 출신의 건축기술자 姜義寬, 慕文錦, 隋恒錄 등이 대구에 왔다. 이들은 이때부터 남산동 교구청 근처의 韓屋에 거주하면서 주교관, 신학교, 수녀원등 다수의 종교관련 건축물들



〈사진 9-234〉 강의관 주택



〈사진 9-235〉 강의관 주택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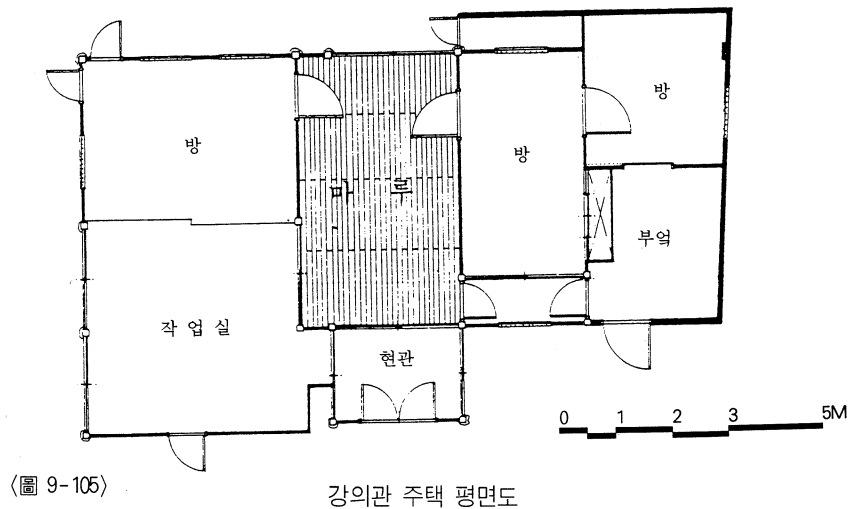
을 건축하였다.

당시 이들 중국인 건축기술자들이 대구지역에 건축한 건축물은 대부분 붉은벽돌로 지은 조적식 구조였는데, 벽돌은 남산동 벽돌공장(현 가톨릭대학 구내)에서 직접 제작하였다고 한다.

대구시 중구 남산동 232-1번지 현 장진호씨 주택은 1923년에 중국인 姜義寬이 지은 그의 살림집이다. 이 집은 서쪽 도로에 면하여 남향 배치된 연면적 61.7㎡의 목조 단층건물로 모임지붕에 기와를 이었다.

평면구성은 동서방향으로 약간 긴 長方形이며 정면 중앙부에 현관 포치를 두어 마루와 연결하고, 이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 실을 배치하였으며, 우측 前面에 복도로 연결된 부엌을 두었다. 외관은 화강석 주춧돌위에 角形의 나무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를 벽돌로 쌓아 시멘트 뿔칠로 마감하였으며, 창문은 인방부를 평아치형과 빗아치형으로 꾸며 미서기창과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집의 공간구성은 한국 재래방식의 木構造에 벽돌벽·현관포치·아치창 등의 서구적 형태요소들을 혼합한 것과 마루 앞쪽에 현관을 부설한 점 등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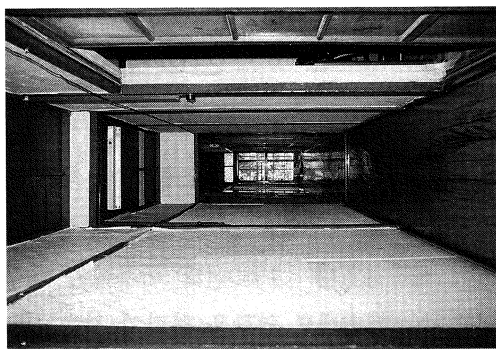
7) 大邱 地方專賣局官舎

대구에서 연초가 제조되기 시작한 것은 1909년 10월 仁川 前園商會가 동인동에 연초 제조 시설을 옮겨 오면서부터였다. 그후 1910년 3월 大石商會가 태평로에 연초 제조공장을 설립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당시 연초 제조공장의 설립은 연초 과잉생산에 허덕이는 일본인 경작자들을 구제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한국인의 연초 자급자족체계를 와해시켜 상품경제의 굴레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日帝의 이러한 의도가 한국인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됨으로써 전원상회와 대석상회는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동아연초주식회사가 이들 두 공장을 인수하였으나 경영은 부진하였다. 이후 朝鮮總督府에서는 稅收와 부실업체의 구제를 목적으로 조선연초제조령을 공포(1921.4)하여 지방 전매국을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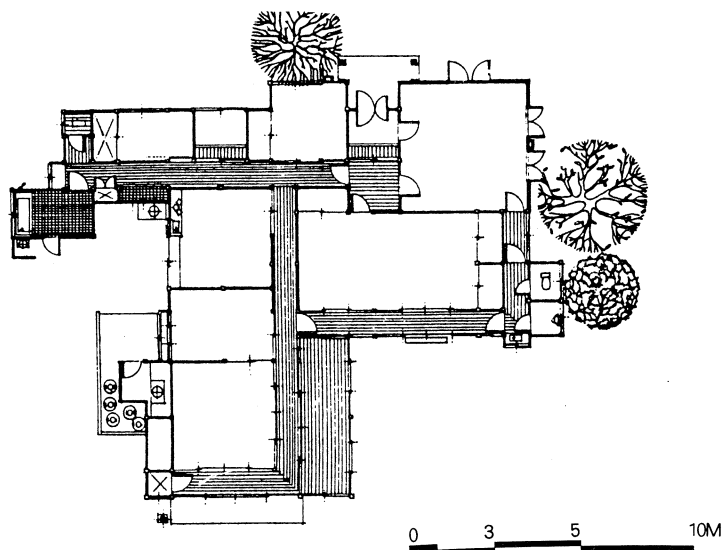


〈사진 9-236〉 대구 지방전매국 관사



〈사진 9-237〉 대구 지방전매국관사 내부

대구 지방전매국은 1921년 7월 朝鮮總督府 度支部 전매과 대구출장소와 동아연초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설립되었으며 1923년에 현재의 전매청 자리로 시설을 확충하여 이전해 왔다.



〈圖 9-106〉

대구 지방전매국 관사 평면도

동인동 대구 경찰국의 서쪽에 인접해 있던 전매국 관사는 1924년 4월에 日帝가 청장의 공관으로 지은 살림집이다. 이 집은 북쪽 도로(동신로)에 면한 대지에 연면적 176.9㎡의 단층건물을 동서로 길게 배치하고 동쪽과 남쪽에 넓은 정원을 구성하였다. 이 집의 공간구성은 舊大邱市長 館舍와 거의 동일하며 ㄱ字形的 평면과 건물규모, 내·외부의 마감상태등에서 다소 격이 떨어지는 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점이 없다. 이 건물은 1988년 철거되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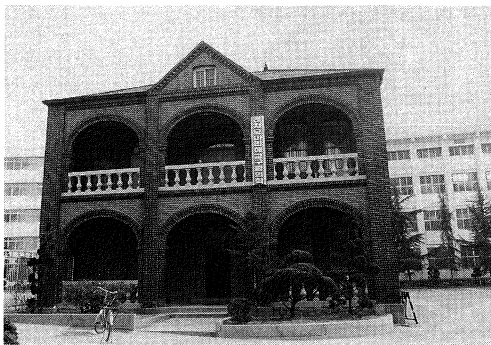
3. 근대 주거건축의 발전기(1930~1945)

1920년대 중반이후 대구에는 일본인들에게 상업자본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에 본점을 둔 각 은행과 금융조합들이 설립되고, 日本 分離派 建築運動의 여파로 빌딩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대구역과 서문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가로변에는 대규모 백화점과 점포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이후에는 대구의 商圈이 경상북도 全域으로까지 확대되어 대구 인근 中小都市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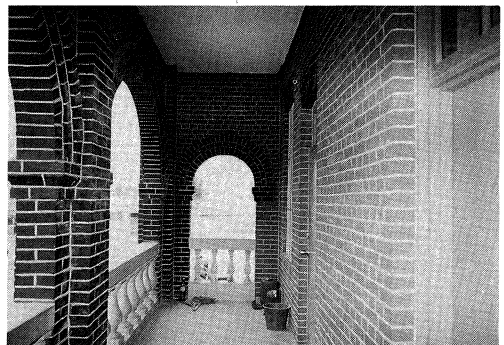
이 시기에 지어진 주택을 유입주체별로 살펴보면 歐美 선교사들에 의한 조지안(Georgian)형과 일본인의 日·洋折衷形, 근대적 주거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桂山聖堂 司祭館

중구 계산동 2가 71번지 桂山聖堂 構內에 있는 현 레지오 마리에 모임실은 1929년 계산성당의 주임신부였던 베르모렐(Vermorel)신부가 사제관으로 지은 집이다. 이 집은 聖堂建物の 남쪽편에 북향으로 배치된 조지안(Georgian)풍의 붉은벽돌쌓기 2층 건물로 지붕은 모임지붕형에 골함석을 이었으며, 지붕의 양 측면에는 도머(Domer)창과 굴뚝이 돌출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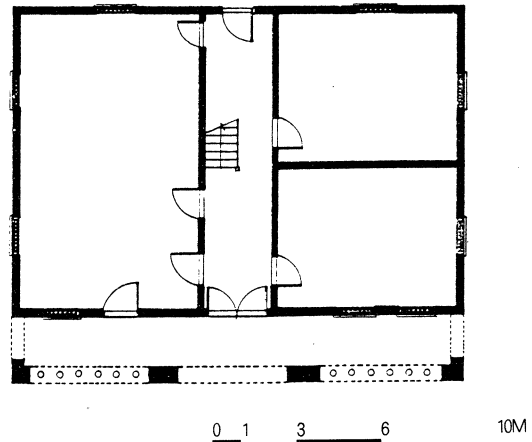
〈사진 9-238〉 계산성당 사제관 정면



〈사진 9-239〉 계산성당 사제관 정면 아케이드

평면구성은 長方形이며, 건물의 정면 중앙에 있는 주 출입구를 따라 복도와 계단실을 두고 이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방들을 배치하여 외관과 함께 대칭을 이루게 하였다. 외관은 화강석 다듬돌 위에 붉은벽돌과 흑색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였는데 정면 아케이드의 필라스터(Pilaster)와 아치 및 층간 코니스, 모서리 기둥 등은 흑색벽돌로 구성하고 나머지 벽면은 붉은벽돌로 쌓았다. 창문은 흑색벽돌로 튜더(Tudor)風の 아치를 달았으며 처마부와 층사이에는 흑색 벽돌로 코니스(Cornice)를 돌려 수평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와같이 프랑스인 신부들이 대구에 건축한 주거용 건물의 건축양식면에서의 특징은, 선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한 1890년대말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韓·洋折衷形의 주거를 건축하였으나 1900년대 이후 선교기반이 마련되면서 부터는 중세의 神學思想과 信念體系를 잘 반영하는 고딕부흥(Gothic revival)내지는 외관 장식이 생략되면서 단정함과 엄격함을 나타내는 조지안풍의 住居樣式이 추구되었다는 점이다.



〈圖 9-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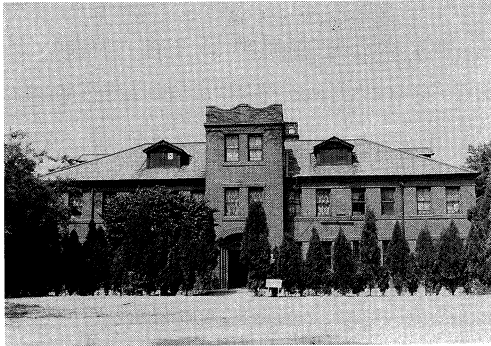
계산성당 사제관 1층 평면도

2) 東山聖書學院 女子寄宿舍

동산성경학교에서는 개교(1913) 후부터 아담스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해 왔으나 학생수의 증가로 협소해지자 1933년 東山위의 본관 西편 경사지에 연면적 891㎡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였다.

건물의 설계는 미국인 선교사 브루엔과 핸더슨이 하고 공사는 중국인 기술자들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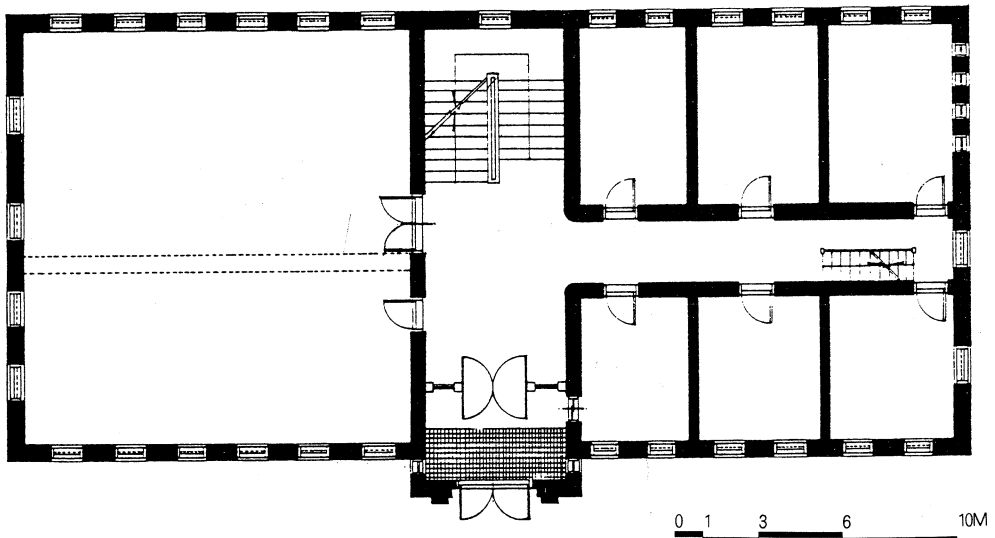
이 건물은 붉은벽돌로 지은 3층 집으로 모임지붕에 마름모꼴의 슬레이트 지붕을 이었다. 건물의 형태구성에 보이는 특징으로는 정면 중앙부에 설치한 고딕풍의 사각형탑(Pavillion), 지붕 4면의 도머창(지붕창 또는 다락창), 정면 주 출입구 튜더(Tudor)풍의 아치장식, 창문 상·하 인방을 상호 연결시켜 돌림띠처럼 구성한 것 등이다. 이 건물은 동산성경학교의 여자기숙사, 영남신학교의 강의실 및 교수 연구실 등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1년 새 건물을 짓기위해 철거하였다.



〈사진 9-240〉
동산성서학원 여자기숙사 정면



〈사진 9-241〉
동산성서학원 여자기숙사 내부



〈圖 9-108〉
동산성서학원 여자기숙사 1층 평면도

3) 徐炳國 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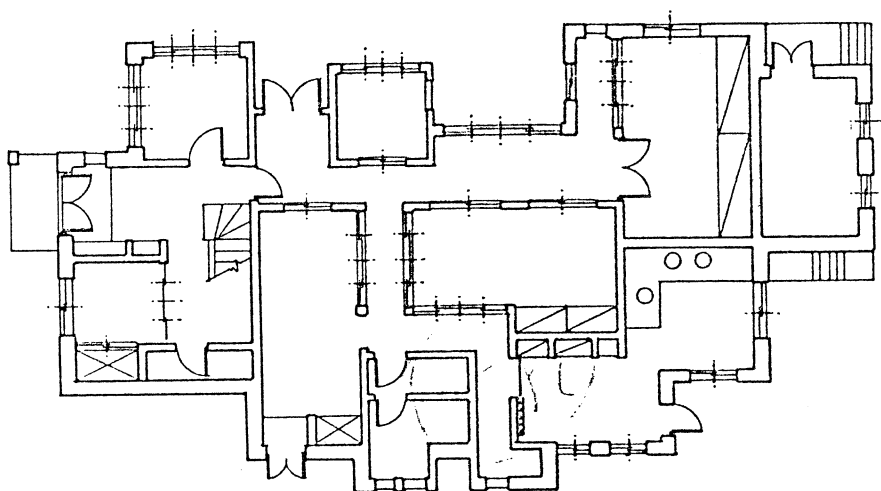
이 집은 日帝時代 大邱의 徐富者로 알려진 徐炳國이 외국 유학에서 돌아온 자녀를 위해 1937년 중구 남일동 141번지에 건립한 벽돌조 2층 건물로 현재 정소아과 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평면은 長方形에 가까운 不定形으로 1층에는 서쪽의 현관홀을 중심으로 계단실·거실·부엌·식당·욕실·변소 등의 공적공간을, 2층에는 침실, 서재 등의 사적공간을 배치하였다. 외관구성은 모임지붕형에 슬레이트를 이었으며 벽면의 각종 장식이 생략되어 단순한 형태를 보

이고 있다.

이 집은 그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내외부가 다소 개조되었으나 건물의 전체적인 윤곽과 구조 등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사진 9-242〉 서병국 주택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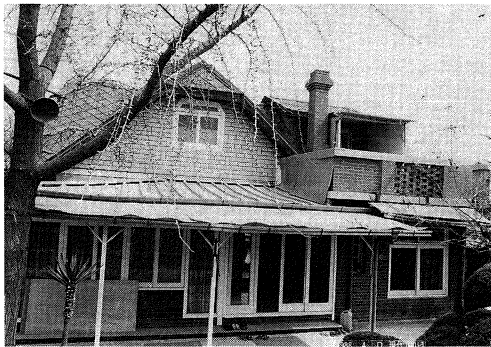
〈圖 9-109〉

서병국 주택 1층 평면도

4) 慕文錦 住宅

南門市場에서 가톨릭대학 정문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가다가 교구청 조금 못 미쳐 좌측편에 위치한 이 건물은 1937년에 중국인 慕文錦이 지은 그의 살림집이다. 慕文錦은 1912년 이후부터 姜義寬과 함께 주교관·신학교·수녀원등 주로 대구의 종교계통 건물을 시공해 오다가 1930년대 초부터 姜義寬으로부터 독립하여 雙興號라는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대구지역의 여러 건축공사에 참여하는 한편 羣芳閣(현 종로호텔 자리)이라는 중국요리집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군방각은 당시 대구에서는 이름난 요리집으로 독립운동가들의 모임이 잦았고, 이곳에서 대구의 여러 人士들로부터 독립자금을 모금하였는데, 慕文錦도 많은 자금을 회사하였다

고 한다.



〈사진 9-243〉

모문금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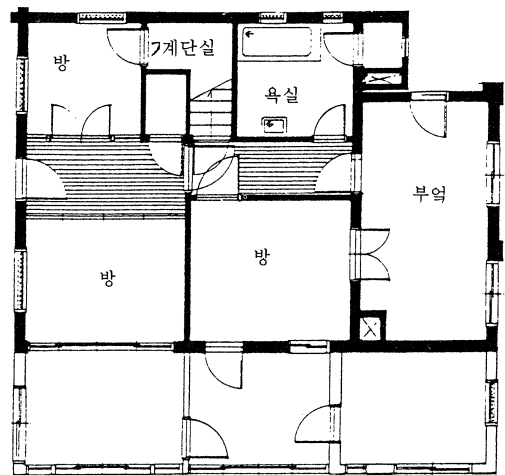


〈사진 9-244〉

모문금 주택 부엌

慕文錦住宅은 서쪽 도로에 인접하여 남향 배치된 붉은벽돌쌓기 2층 집으로 지붕은 네모난 석면슬레이트를 마름모꼴로 이었다. 평면 구성은 長方形의 서쪽 중앙부에 주 출입구를 두어 중복도와 연결하고, 이 중복도를 중심으로 응접실·욕실·변소·부엌·침실·계단실등을 배치하였으며, 2층은 十字形의 계단홀을 중심으로 3面に 각 室을 배치하였다. 외관은 콘크리트 줄기초위에 붉은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창문은 인방을 평아치형과 빗아치형으로 꾸며 목재 오르내리창과 미서기창을 달았다. 지붕은 4面に 박공면을 둔 十字形으로 구성하여 銅板을 이었으나 近年에 석면 슬레이트로 바꾸었다.

이 집은 1963년이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많은 부분이 개조되었다. 원래는 서쪽에 현관이 있었으나 남쪽으로 1칸을 증축하여, 출입구를 남쪽으로 옮겼고, 내부도 여러 차례 생활의 변화에 맞추어 개조공사를하였으나 정면부를 제외한 건물의 전체적인 윤곽과 구조등은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많이 지니고 있다.



0 1 3 6 10M

〈圖 9-110〉

모문금주택 1층 평면도

第3節 現代建築

I. 序 言

한국 현대건축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經濟開發로 경제력이 향상되고 정치·사회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60년대 후반에는 傳統繼承 문제가 건축계의 두드러진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7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외국의 先進 工法 및 作品情報가 유입되어 확산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70년대에도 한국의 建築創造理論의 형성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에 있었으며, 따라서 미국·유럽·일본의 건축조형에 대한 모방과 추종을 일삼는 無國籍 건축 조형언어의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조형언어는 60년대 보다 확실히 다양해지고 성숙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70년대는 근대건축과 현대건축적인 양상 및 전통을 수용하려는 절충적인 양상이 공존하면서 발전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80년대 초부터 국내에서 실현되기 시작한 ‘탈 현대건축’(Post Modernism)건축은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한국건축의 한 흐름으로 자리잡아 갔다. 이 시기 한국 현대건축에 나타난 또 하나의 건축경향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정보화 사회의 영향 및 신재료의 발명으로 인한 하이테크(High-Tech)건축의 출현이었다.³⁵⁶⁾

이러한 한국 건축계의 전반적인 작품경향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이후 한국의 현대건축은 國際的主義 樣式의 시도와 함께 한편으로는 地域性과 한국고유 건축문화와 결합되어가는 경향을 나타나기도 했으나, 이러한 작품경향은 한국건축계를 주도하는 흐름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지방자치 시대에는 서울 문화 일변도에서 탈피한 그 지방의 특성있는 문화(건축을 포함한)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같은 지역문화 육성은 무엇보다 지역성과 고유한 특성(풍습·관습·전통·역사)을 갖는 건축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성 표현의 기초가 될 것이 틀림없다.

건축의 현대성은 건축역사 속에서 변화된 시각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능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통성 표현에 대한 강박적 집착이나 피상적 類似·模倣을 통한 현대성 추구를 지양하고 지역적 전통성과 현대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의 인식

356) 朴漢圭, 〈韓國 現代建築의 作品性向과 建築教育〉《大韓建築學會誌》34-5, 대한건축학회, 1990, pp.56~57

과 함께 이데올로기적 제약과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해야 새로운 건축을 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 대구의 지역성과 傳統性(韓國性)을 살린 미래지향적인 참다운 대구건축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한국 현대건축의 전반적인 경향을 개관한 후 대구지역의 현대건축을 1960년대·1970년대·1980년대의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建築傾向과 作品性을 살펴 보았다. 무엇보다 대구 현대건축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 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공 문화건축·상업건축·종교건축·학교건축·호텔건축·병원건축·주거건축 등을 각 시기별로 세분하고, 거기 나타난 조형성과 공간구성·구조 등의 변화와 발전과정 및 의미를 탐색하였다.

II. 1945年 以後 韓國 現代建築의 傾向

1. 1945년 해방과 초창기 建築界(1945~1949)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의 패망은 한민족에게 해방을 가져왔고, 모든 문화면에는 창조와 의욕의 기운이 넘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신속하게 편승하여 건축계에서도 〈朝鮮建築技術團〉을 결성하고 건축에 관한 學術技藝의 연구 및 조사, 건축 기술자의 등록·배치 및 지도, 건축교육의 진흥 및 노무자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朝鮮建築技術團〉은 실질적인 사업으로 해방된 해인 1945년 11월 15일에는 벌써 〈朝鮮住宅營團〉과 〈都市計劃研究會〉의 후원을 얻어 15평형·20평형·25평형 등 3종의 國民住宅 설계안을 公募하는 활동을 보였다. 이 단체는 1947년 4월 23일 총회에서 〈朝鮮建築技術協會〉로 이름을 고치고 회원수를 늘려 조직을 개편하였는데, 회원수는 1948년 9월 지방회원까지 포함해서 700명 이상이 되었다.

〈朝鮮建築技術協會〉는 1949년 5월 會誌 《朝鮮建築》 통권 제9호로서 공식 기록은 끝내고,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자동 해산되어 계통적으로는 1955년에 발족하는 〈大韓建築學會〉에 이어졌다.

이러한 건축 전반에 걸친 연구적인 조직 외에 도급업자 단체인 〈朝鮮土建協會〉와 설계감리자 단체인 〈朝鮮建築士協會〉가 있었다. 〈朝鮮建築士協會〉는 설계 중심 단체이니 만큼 설계분야 어떤 업적이 있을 법하나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여건은 설계업 분야에 활발한 활동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설계를 순수한 업으로 하는 사람의 수도 적어 회원수도 근소하였으며, '建築士'란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지금의 〈建築士會〉와는 성격이 다른 것

이었다. 그러나 〈建築士會〉의 의욕은 남달리 커서 建築士의 지위 향상과 법적인 자격획득 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

당시의 《朝鮮建築士會》는 1945년 12월에 창립되어 새 국가의 명실상부한 建築士가 될 것을 기본목표로 하였다. 1946년 7월에는 〈朝鮮建築士 資格審査 委員會〉를 조직하였는데, 이는 국가적인 심사가 아닌 자치적인 것이었다. 〈朝鮮建築士會〉는 회지 《朝鮮建築》을 통해 ‘建築士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同協會 회장 金台植은 《朝鮮建築》(1권 3집, 1947.8)의 “建築士를 논함”이란 논설에서 建築家(建築士)의 개념을 설득력있게 밝혔다. 이 글에서 그는 “건축사의 업무는 어디까지나 전문직이요, 직업적이지 상업적인 것은 아니다. 즉 建築士는 재료를 팔고 또는 공사를 청부맡아 그것으로 이익을 바라는 상인이 아니라 마치 의사나 변호사, 혹은 계리사와 같이 위촉에 의하여 제공한 자기의 업무상 노무에 대하여 의뢰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다. …”라고 건축사의 업무와 지위에 대해 논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동업자간의 연대의식을 굳게하고 계몽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도 건축사법의 국가적 차원에서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建築士法》의 제정은 1960년대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 1950년 6.25 한국전쟁 때까지의 5년간 정치경제적 궁핍 속에서도 건축작품 활동은 소수이긴 하나 계속되었다. 국민주택 설계공모 외에 민간에서 시행하였던 현상설계 공모가 그것이다. 그것은 〈서울 만물전〉의 현상공모로 1947년 9월에 시행하였다. 이 밖에 당시 건축작품은 거의가 官廳에서 施行한 것으로 설계도 관청 자체에서 하였다.

1949년 관청 건물의 현상설계 공모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대구시청의 설계공모가 있었다. 여기에서 李天承을 리더로 한 保健社會部 建築科(당시 과장 宋旼求)팀이 1등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실시 설계는 당시 시설국장이던 김윤기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였다.³⁵⁷⁾

2. 폐허 속의 건설 10년(1950~1959)

해방후 5년간 건축계에 넘치던 意氣는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좌절되었다. 해방후와 6.25 한국 전쟁중에 군대 幕舍의 긴급 건립등에 있어서 미국식 簡易 木造構法이 기술면에서 민간 건축에 영향을 주었다.

1953년 7월 휴전으로 전쟁이 끝나자 폐허화된 대부분의 도시는 복구를 위한 建築家の 활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복구 사업과 건설은 1954년부터 비롯되었는데, 해방후 한국의 건축은

357) 윤일주, 〈건축〉《한국현대미술사》, 국립현대미술관, 1978, pp.64~80.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0년 후반 무렵은 自由黨 정권의 末期로서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과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큰 프로젝트는 없었으나 전쟁 복구를 위한 工場, 商業建築, 校舍, 劇場 등이 차례로 건축되었다. 1954년 4월에는 〈朝鮮建築技術協會〉를 계승한 〈大韓建築學會〉가 발족되어 건축의 설계, 시공, 구조등 모든 분야에 걸치는 학술 연구조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1957년 1월에는 〈韓國建築作家協會〉가 결성되었는데, 이는 건축의 개성을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와 창작가로서의 건축가 자의식에 따른 것이었다. 창작가로서의 건축을 지향하는 이 〈韓國建築作家協會〉는 1959년 〈韓國建築家協會〉로 그 명칭을 바꾸었고, 1963년 10월에는 〈國際建築家協會(U.I.A.)〉에 가입되고 會勢가 크게 확충되었다. 당시 대구의 건축가로 한국건축가협회에서 활약한 사람으로는 鄭慶雲이 있으며, 그는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대구 건축계를 이끌어 나간 대표적인 건축가였다.

한편 1954년부터 國展에 建築部가 신설됨으로서 건축학도에 대한 의욕고취, 표현수단과 방법의 향상, 대중에 대한 건축예술 계발 등을 촉진시켰다. 이 시기 작품들은 형태면에서 국제주의인 것이 그 근간이며 초기의 특징으로 루버에 의한 그리드(Grid, 格子) 패턴의 유행을 들 수 있다. 그것은 2차 대전후 50년대의 세계적인 유행이기도 하였다.

3. 국제주의 건축양식과 傳統論 擡頭 10년(1960~1969)

1961년 5.16 군사쿠테타로 시작되는 60년대는 정치적 혁신 기운, 민족주체 의식, 경제개발 계획 등으로 다시 건설의 새로운 수요는 늘고 건축가에게 부과되는 요구도 다양하였다. 갑자기 증가한 건축 수요가 이념이 굳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진 관계로 시행 착오로 인해 혼란한 점도 있었지만, 60년대는 한국의 건축이 적어도 형태상에서는 크게 발전한 시기였다고 할 것이다.

構造主義 또는 國際主義에서 벗어나려는 기운은 直線的, 幾何學的 합리성에서 탈피한 낭만성을 약간씩 띠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1950년대 후반 〈國際建築家會議(C.I.A.M.)〉의 붕괴 이후 國際主義의 樣式的 硬化에서 해방되려는 분방한 움직임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무렵부터 약간씩 나타났던 제물치장 콘크리트(Exposed Concrete)공법은 그러한 형태의 건축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르 코르뷔제(Le Corbusier)에게서 비롯된 세계적 경향이기도 했다.

그러나 60년대 전반에도 外形上으로는 國際主義 樣式이 근간을 이루었다. 특히 사무소 건축의 대부분은 국제주의 양식으로 건축되었는데, 그것은 건물의 목적과 공법에 가장 잘 부합되

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건축양식에 적합한 재료와 구조방식의 발전이 있었음은 주목할만 한데, 그것은 바로 커튼 월(Curtain Wall)의 개발이었다. 지금은 금속 및 합성수지, 콘크리트 P.C 패널(Panel)의 커튼 월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당시의 國產 금속판 커튼 월의 생산과 응용은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 특히 합리주의적인 작품활동을 주로 한 건축가들이 이 공법을 시도했다.

또한 60년대 전반기에 있어서 건축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친것은 〈建築士法〉의 제정이다. 해방이후 부터 건축가들은 그들의 가장 큰 염원인 건축사법의 제정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자 노력했으나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建築士法〉 제정은 건축가의 권익옹호 뿐만 아니라 건축 창작을 전문화하고, 그것을 法的으로 보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建築士法〉을 통해 국가적으로는 수준 이하의 작품 창작을 억제하고, 건축계로서는 창작과 여타 건축 기술의 분업으로 스스로 차원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60년대 중반까지 건축물의 行政的, 法的 規制는 日帝時인 1934년 제정된 〈朝鮮市街地令〉의 지속적인 효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거기에는 설계자의 자격조항은 없고, 설계는 누구나 할 수 있었으며, 다만 행정적인 절차를 〈行政書士法〉에 따른 건축 行政書士가 대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5.16 군사쿠테타후 法令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建築法〉이 시행되었고 이어 1963년 12월에 〈建築士法〉이 제정 공포되었다. 〈建築士法〉 제정에 따라 1965년 4월에 첫 建築士 자격시험을 치루고 1966년 말에 2차 시험을 치뤄 法的인 建築士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해 9월에는 〈建築士法〉의 규정에 따라 〈大韓建築士協會〉가 설립되었는데, 창립시의 회원은 127명이었고 1960년말 회원수는 1급 建築士 398명, 2급 建築士 255명에 이르렀다.³⁵⁸⁾

60년대 후반기에는 정치경제적 안정으로 더욱 크고 많은 건물이 건축되었다. 제물치장 콘크리트 시공의 보급과 더불어 합리적인 것에 바탕을 두면서도 감각적인 파사드(Facade)의 개성적인 표현 경향도 상반기에 이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60년대 후반의 또 하나의 경향으로 낭만적 彫塑性의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68~69년경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高層化의 경향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기능상 事務所 建築과 호텔 건축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高層化와 大形化에 수반되는 계획과 구조에 관련된 특징으로 코어 시스템(Core System)의 채용과 유닛 스페이스(Unit Space)개념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듈러 코디네이션(척도조정:Modular Coordination)보급과 응용이 점차 나타났다.

358) 윤일주, 앞의 책, pp.74~75.

이같이 60년대는 국제적인 건축경향들의 영향을 받아 건축 형태 및 표현에 다양성이 추구되던 시기였으며, 한편으로는 재료와 공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미흡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아울러 1963년 〈建築士法〉의 제정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建築士法〉 제정으로 건축가의 권익옹호 뿐만 아니라 건축 창작을 전문화하고, 그것을 法的으로 보증할 수 있게 되어 수준 이하 작품의 창작 억제가 가능하였다. 이 제도로 인해 건축계는 창작과 여타 건축 기술의 분업을 통해 스스로 차원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4. 경제성장 속의 활기찬 建築界(1970~1979)

70년대는 60년대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紀念的 公共建築의 속출, 업무 건축의 大形化, 住居建築 형식의 변모 등으로 크게 특징지워 진다. 특히 공공건축에서는 傳統 논의가 한창 무르익어 건축물에 “한국적인 형태와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주력한 시기이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전통건축의 형태를 모방하여 樓마루를 돌리고, 그 위에 列柱를 세우고 처마 끝을 치켜 올리는 등 한국적인 디테일(Detail)의 건축적 표현을 시도하였다. 또는 機能主義나 國際主義의 바탕에 한국 전통건축의 세부의장을 부분적으로 가미한 건축물이 지어지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적 配置 技法와 건축어휘·디테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임의로 접합시킨 건축들이 나타났으나 결과적으로 이같은 시도는 대개 실패하였다. 한국 전통건축의 형식과 내용상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건축에 傳統樣式을 표현하는 것은 傳統建築이 가지고 있는 형태, 배치 및 공간구성 그리고 자연과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건축가들이 익히고, 창작에 임할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70년대 한국건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업무용 건축의 大形化였다. 高層 事務所建築이 세워지면서 코어 시스템(Core System), 유닛 스페이스(Unit Space) 개념이 보편화되어 왔다. 이와 함께 資材의 대부분을 국내 조달, 새 공법의 도입, 施工精度 등이 70년대 중반을 고비로 상승되었다. 이는 정부 경제시책과 中東 붐에 힘입은 고도 경제성장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같은 設計概念과 材料와 技術의 상승이 건물의 형태에 변화가 오게 한 것은 물론이다. 또 중규모 이하의 사무소 건축에서는 아치(Arch)의 부활, 감각적 장식의 부착 등 復古調의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시기에 들어와 住居建築의 개념도 크게 달라졌다. 60년대부터 여러 사람에 의하여 한국인의 생활상과 거기에 맞는 주거의 연구와 실험이 있어 왔고, 70년대에도 진지한 모색이 있어

왔다. 機能 第一主義의 차가운 六面體로 표현되는 합리적 기능주의의 경향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한국인의 생활을 감싸줄 공간의 짜임새와 그것이 표출하는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형태로의 변모를 보였다.

이러한 한국건축 전반적인 경향속에서 大邱建築도 이같은 흐름에 발맞추어 나갔다. 다만 서울이라는 문화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건축경향의 유입과 확산에 시간적 격차가 있어 왔다. 반면 대구가 처한 자연적, 인문적 환경이 다른 도시들과 달라 오히려 지역성을 표현하기에 용이하기도 했다.

이 시기 생활의식과 환경 및 생활양식의 변모는 다양한 건축형태와 공간구성에 그대로 표현되었으며, 이 같은 60~70년대 급격한 사회·문화적인 변화속에서도 대구건축은 역사적·지역적·건축적 제특성을 확보하여 왔다. 이렇게 볼 때 근대 이후 30년간의 대구건축은 문화적·지역적 특성인 전통건축양식의 꾸준한 추구하고 국제주의 건축과의 절충과 적응을 통해 표현되어왔다고 하겠다.

5. 새로운 造形意志와 表現(1980~1993 현재)

80년대는 모더니즘(Modernism)의 국제주의 건축양식에 의한 고층 사무소건축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멀리언(Mullion)의 수직체계를 갖는 미스(Mies) 스타일의 금속 커튼월은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는 슬릭 테크(Slick-Tech)성향의 미니멀리즘(Minimalism)적인 추세로 점차 변모해 갔기 때문이다.

80년대 후반에는 다양한 修辭的인 표현과 對比가 새로운 조형표현으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입체적인 단순한 매스를 표현한 건축물들도 건물의 부분이나 요소들에 변화를 추구하는 등 순수조형에서 벗어나 변용을 시도하였다.

80년대 이후에 타일과 붉은 벽돌에만 한정되어 있던 건축의 外皮가 다양하게 변모하자, 모더니즘의 敎理에만 억매어 있던 건축의 형태도 四角의 박스(Box) 형상을 벗어나 아스팔트 싱글지붕·삼각형 천창·창문의 수직적인 형태와 정방형·원형 등의 다양한 패턴들로 나타났다. 또 외국 고전건축의 피상적인 형태 인용으로 궁륭형의 캐노피(Canopy)와 列柱 및 기둥 등의 표현도 그 동안 진부하였던 사무소건축과 소규모 상업건축의 외관을 크게 변모시켰다.³⁵⁹⁾

1980년대의 한국 현대건축에 나타난 작품성향 중의 하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정보화 사회의 영향 및 신재료의 발명으로 인한 하이테크(High-Tech)건축의 出現이었다. 건물의 기

359) 〈80年代의 照明과 90年代 建築의 道程〉《월간 플러스》, 33, 1990. pp.88~89.

능에 부합하는 전산센터의 건축을 비롯하여 공장·사무소·주택 등에도 많이 적용되었으며, 특히 80년대 말에 건축된 인텔리전트(Intelligent Building)빌딩 등에서는 그 경향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하이테크 건축은 1960년대에 건축에 대한 산업기술의 도입과 기능주의의 엄격함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과 프랑스에서 오늘날의 모습과 같은 하이테크건축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에 들어와 정보화 시대와 산업사회의 영향으로 더욱 강조된 건축경향이었다.

하이테크 건축이란 構造體 및 재료의 경량성·효율성·융통성 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재료·구조·시공분야의 첨단 공업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건물의 매끈한 표면이나 구조체의 노출에 의한 새려된 형태를 만들어 내면서 건축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경향이었다. 특히 철골 구조물의 기술적 발달과 재료의 발달로 현대건축에 하이테크 건축의 출현이 가속화 되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난 자본·기술의 축적과 건축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이테크 건축의 수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하겠다.

한편 80년대 이전 한국에서는 모더니즘의 충실한 發芽나 內的인 논리 생성의 여유를 제대로 가지지 못한채, 기존의 전통적 맥락이나 도시적 맥락과 전혀 다른 구조와 상황 속에서 건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서구의 맥락주의나 지역주의적 경향에서 파생 되는 이질적 형태들을 우리 건축에 새로운 조형으로서 바람직하게 수용하는데 무리가 따랐다.

III. 都市의 發展

대구는 조선시대 邑城址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성장·발전하면서 자연 발생적인 토지이용 패턴을 형성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진 반면에 인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도심부는 17세기말 慶尙監營의 설치되면서 형성되어온 영남지방의 중심도시로서 행정 및 상업의 중심지라는 역사적 특성이 현대에도 강력한 관리업무 및 사업의 기능으로 계승되어 왔다.

대구의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진 1966에서 1975년까지의 대도시 지역의 인구집중은 도시화를 급속히 진행시켰으며, 1964년에는 상주 인구가 80만명에 육박하였다. 이런 사정으로 도시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1963년에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자료를 조사하여 이 자료를 바탕으로 1964년에 <대구시 도시 계획안(변경안)>를 작성하고 건설부에 제출하여 1965년 2월에 <건설부 고시 제1387호>로 대구시의 도시계획 변경을 공포

했다. 이어 이해 12월에는 〈대구시 도시계획 지구계획〉을 공포하게 되었다.³⁶⁰⁾

1965년의 당시의 상업기능은 서문시장을 비롯해 15개의 시장이 각 區에 분포하고, 도매업은 서문시장을 비롯한 대신동·동산동·시장북로·서문로 등에 집중하였다. 소매업은 중앙통을 중심으로 동편에 동성로·태평로 1가·교동·완전동·화전동 그리고 서편에 태평로 2가·북성로 1,2가·향촌동·포정동 등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상업지구의 위치를 볼 때 대부분 邑城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74년에 제3차 도시 재정비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구마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신설하였다.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인구의 도시집중 억제와 공해를 방지하며 도시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984년에 실시된 도시 기본계획은 1981년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수립한 도시 기본계획의 單核 都心 集中形의 도시구조를 多核의 균형적 도시구조로 재배치한 것이다. 都市內 立地 配分에서 高密 住居地域을 都心·副都心·地域 中心商業地域의 주변 및 제2차 순환선 內·外 地域에 계획하였고, 기존에 형성되었거나 개발이 진행중인 신개발지역에 中密度 住居를 그리고 외곽의 독립 주택지와 주거 전용지역에 低密度 住居를 계획하였다.

1987년의 제5차 도시 재정비 계획에서는 都心에 인접한 공업지역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공단과 집단주택지를 주거 및 공업지역으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인 현실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외곽의 新編入 지역(경산·고산·안심·칠곡·성서·월배)의 집중 개발과 외곽의 4차 순환선과 도시 고속도로의 신설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지난 고도 성장기에 대구는 인구 집중으로 인한 量的 문제(주택난, 택지부족, 공공문화공간 부족)등을 해결하기 위한 外延的 확대에만 치중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생활 외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중앙정부 중심·전문가 중심의 획일적인 팽창 효과에 너무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구의 도시와 건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쉽게 상징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택의 양적 부족과 상하수도대책, 쓰레기·공해대책, 가로시설의 정비, 공원녹지의 확대 등 생활 환경개선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시간의 양면성(전통성과 현재성)을 고려한 역사적 도시환경의 보존과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복지와 친밀성을 지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360)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3, 1973, pp.430~431.

IV. 公共文化建築

1. 1960년대 공공문화 건축

제2차 대전 후 세계적으로 國際主義 建築樣式을 바탕으로 地域性을 강조하는 건축적 경향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건축이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면서 한국건축을 선도하게 된다. 건축형태를 보면 르 꼬르뷔제의 도미노 이론에 근거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표현한 건축물들에 큰 영향을 받아 전통건축의 형태미를 표현한 것이 많았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되찾고 經濟開發 計劃이 수립되면서 大邱地域에서는 官公署 건축이 활기를 띄기 시작한다. 1950년대의 건물로는 정경운 설계의 國稅廳(사진 9-245, 1956)이 있으며, 1965년에는 경상북도 도청사(사진 9-246, 연면적: 21,329㎡, 지하1층, 지상 4층, R.C조)가 현상공모 설계방식으로 건축되었다. 정경운이 설계한 慶尙北道 道廳舍는³⁶¹⁾ 처마 보의 골조미와 철제 프레임 창문틀이 사용된 機能主義 形式의 건물이었다.



〈사진 9-245〉

국세청 정면(정경운, 1956)

이 밖에도 윤영도 설계의 경북 공업연구소(1967)와 잠업 연구소, 이성해 설계의 위생시험소 그리고 정경운 설계의 경북 교육위원회 청사(圖 9-111, 연면적: 3,345㎡, 1967)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립되었다. 경북 교육위원회 청사는 彎曲된 노출 콘크리트

361) 一山 鄭慶雲教授 停年退任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一山 鄭慶雲教授 停年退任紀念論文集》, 1987, p.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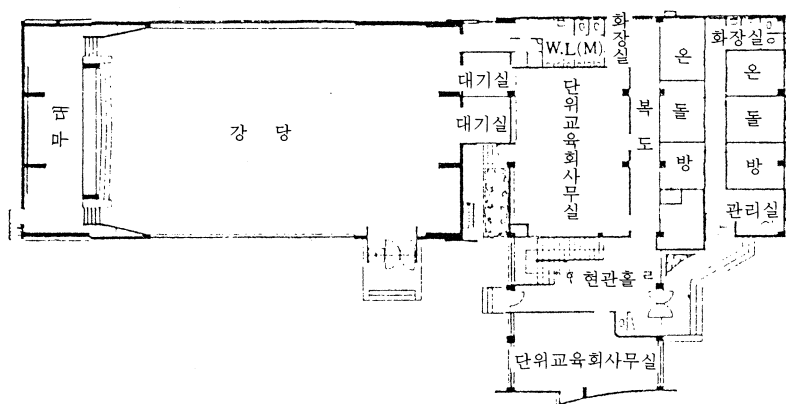
외벽에 浮彫를 넣어 마감한 개성적인 건축으로 평면형식이 르 꼬르뷔제의 스위스 학생회관의 분위기와 많이 닮아 있다. 또한 自由黨때 계획이 된 서문시장 개발계획이 民主黨때 와서 비로소 시행되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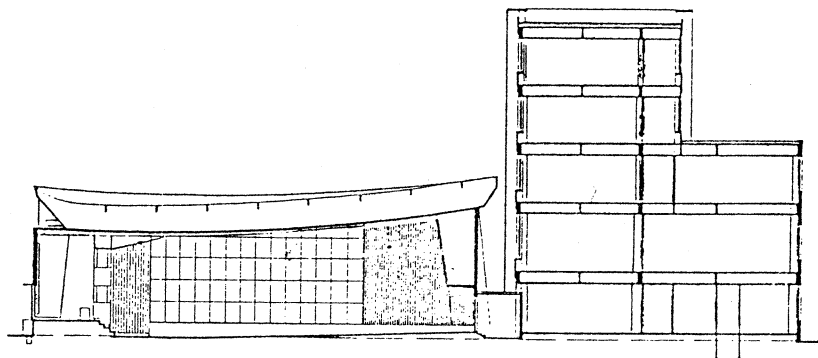
〈사진 9-246〉

경북도청 정면(정경운, 1965)

1960년대의 公共建築은 대구 현대건축의 胎動期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작품의 수는 적었으나 건축적 수준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여건으로 볼때 상당한 것이었다. 60년대 대구 건축계에서 활동한 건축가로는 정경운, 강성욱, 이수원(전매청) 그리고 舊制 대구



① 평 면 도



② 단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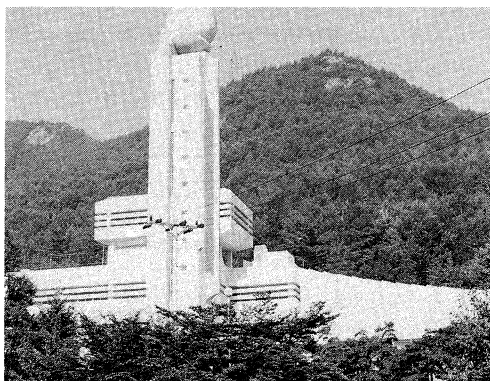
〈圖 9-111〉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청사 평면 및 단면도(① ②)

1세대로 볼 수 있는 이성해, 김안진, 이종만 그리고 정규대학 건축과 출신으로 대구건축 2세대로 볼 수 있는 윤옥, 김현산, 윤영도, 김일진 등이 있다. 이들 중 작품의 질적·양적 두 수준에서 60년대 대구 건축을 선도한 사람은 정경운이었다.

2. 1970년대 공공문화 건축

1970년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産業化가 이루어지고 국민경제가 향상된 시기였다. 經濟力의 增大와 산업화로 다양한 建築材料의 生産과 新工法이 보급되면서 건축물의 평면과 입면에서 다양한 독창성이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紀念的 공공건축이 세워지면서 건축규모도 大型化되었다. 즉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건축의 실질적 성장이 일어난 시기였다.

이 시기의 대구 공공건축은 60년대의 官廳 건축 위주에서 탈피하여 문화·스포츠·학교 등 각 부문에서 골고루 발전을 이루었다. 건물의 규모나 성격으로 비추어 보아 대구 建築史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나타났으며, 기술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던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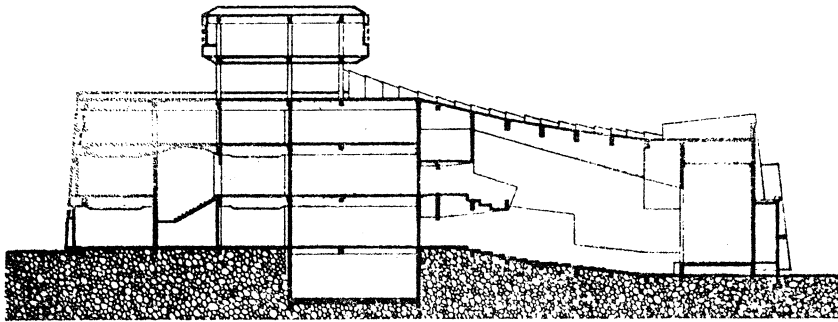


〈사진 9-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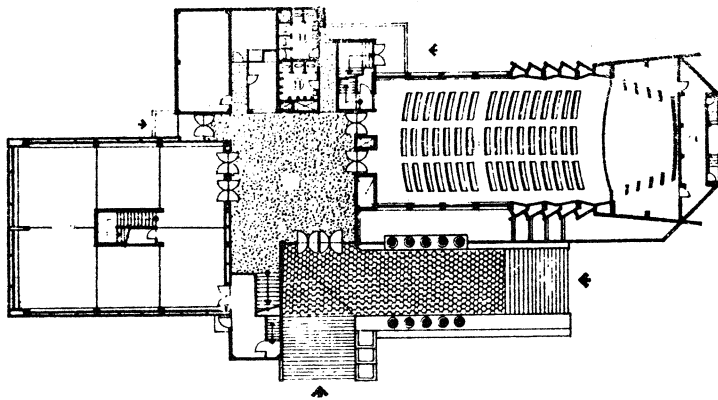
낙동강 승전기념관(김무권, 1980)

기념적 공공건물로는 1970년 懸賞公募 설계를 통해 당선된 김무권의 낙동강 승전 기념관 (사진 9-247, 圖 9-112, 연면적: 202.3㎡, R.C

조, 탑높이 39m)을 들 수 있다.³⁶²⁾ 독특한 타워(Tower)부와 그 상부의 계란형 물탱크가 주위 자연 경관과 잘 조화된 작품이다. 이 밖에 경제성장에 따른 初創期 고층 사무소의 전형적 건물이라 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연면적:7,722㎡, 1978년 증축)가 1971년 합동건축에 의해 설계되었다. 유리로 된 커튼 월(Curtain Wall)의 고층부와 필로티(Pilotis)의 저층부로 구성된 이 건물은 당시 대구 경제 발전의 상징이기도 했다. 이어서 합동건축은 1973년 세관청사(연면적: 2,141.79㎡)를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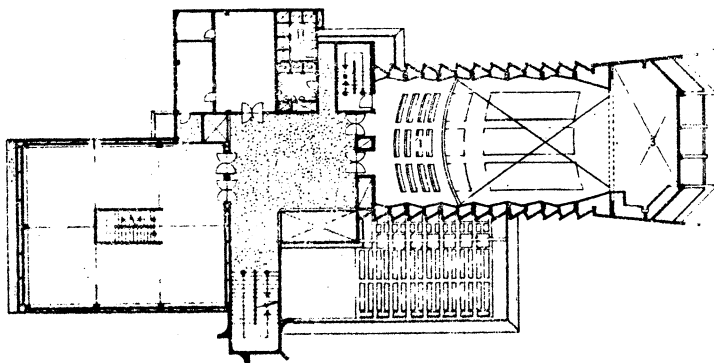


① 단 면 도



② 1층 평 면도

362) 대한건축사협회, 『82會員建築設計作品集』, 1982, pp.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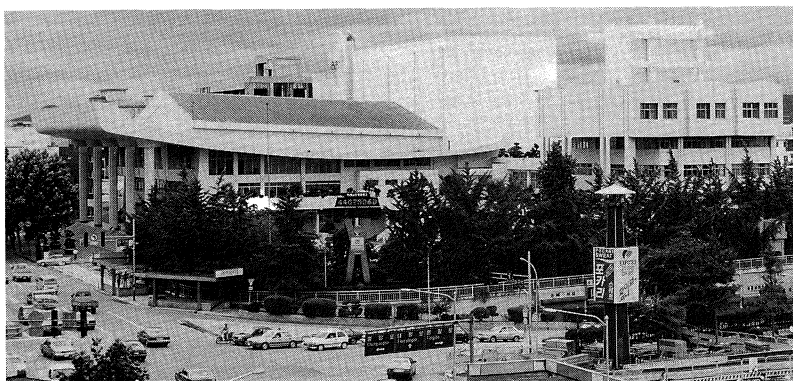


③ 2층 평면도

〈圖 9-112〉

낙동강 승전기념관 단면도와 평면도(① ② ③)

70년대가 되어 文化空間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수용인원 1,900석 규모의 대구시민회관(연면적: 9,405㎡, 지하 1층, 지상 5층)이 지어졌다. 대구시민회관 (사진 9-248)은 1971년의 현상공모 설계를 거쳐 1974년 대아건축 김인호의 당선안으로 실시 설계한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이었다.³⁶³⁾



〈사진 9-248〉

대구시민회관 정면과 우측면(김인호, 1975)

이 건물의 대강당부에서는 하늘로 쭉뻗은 십자형 기둥이 지붕을 뚫고 올라와 지붕의 원형부와 十字로 결합되면서 육중한 매스(Mass)의 지붕을 날렵하게 떠받치고 있다. 事務棟은 길게 노출된 보가 格子形으로 짜여진 것이 깊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교통 소음이 심각한 대구역

363) 厚堂金仁鎬教授紀念事業會, 《金仁鎬建築作品集》, 1991, pp.16~17.

바로 옆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무대의 음향 및 방음시설이 미비하여 시민회관으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김인호는 이 시기 대구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대표적인 건축가였다. 그는 1974년에 경북 청소년회관(김인호, 1974)을 설계했는데, 이 건물은 매우 정직하고 단순한 상자형의 기능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이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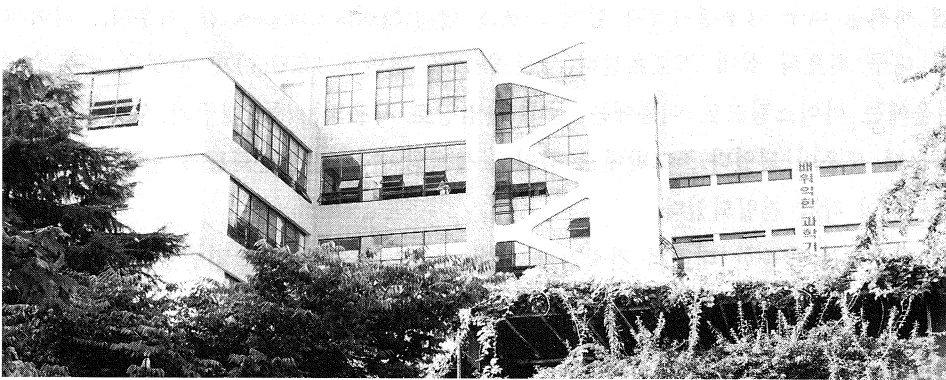
김인호는 대구동부 소방서(사진 9-249, 1975)를 설계했는데, 이 건물은 타일 마감의 低層部와 당시 유행하던 콘크리트 제물치장을 이용한 望樓가 조화된 작품이었다. 그리고 1978년에 그가 설계한 수성구 청사는 격자창으로 처리한 매스(Mass)와 주 출입구 캐노피(Canopy)를 중심으로 대칭적인 형태를 보인 작품으로 대구 관공서 건축의 典型이 되었다.



〈사진 9-249〉 대구 동부소방서 정면(김인호, 1975)

1976년에는 최병석 설계의 대구과학관(사진 9-250)이 道廳 敷地 안에 세워졌는데, 홀(Hall) 내부에 天體를 觀測하는 돔(Dome)을 施設한 독특한 기능의 건물이었다. 그리고 1977년 김영태가 설계한 유진기념관(대명동)은 서양의 古典建築의 石造 파사드(Facade)를 模倣한 것이었다. 또한 합동건축이 1979년에 설계한 경북체육회관(연면적: 2,079.3㎡)은 외벽에 당시 유행하던 외장 타일을 사용한 건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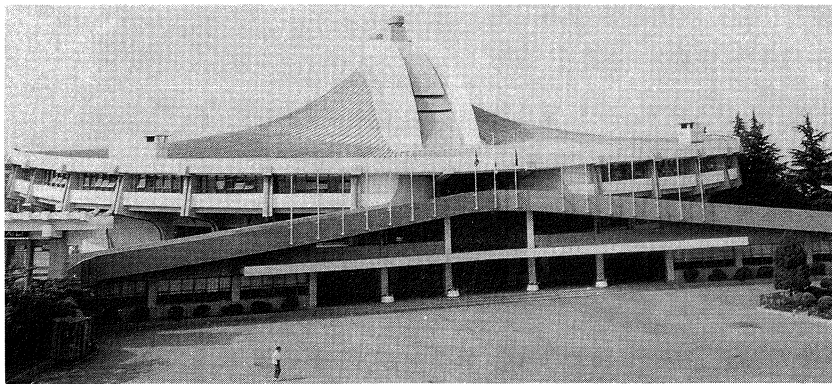
이 밖에 1970년대에는 國民 體育振興을 위한 政府施策으로 많은 운동경기 시설이 건축되었다.



〈사진 9-250〉

대구과학관 정면(최병석, 1976)

1970년대의 대구 체육시설로는 김인호 설계의 경북대학교 실내체육관(1971)과 산격동에 있는 대구 실내체육관 (사진 9-251, 연면적:15,840㎡, 지하 1층, 지상 3층, 1972)이 대표적이다.³⁶⁴⁾ 동시에 9천명을 수용하는 대구 실내체육관은 당시 全國 最大 規模의 室內體育館으로 화제를 모았던 건물로 傳統美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懸垂構造의 건물이었다. 아치(Arch)를 중심으로 빗살무늬로 처리된 지붕은 花郎의 투구에서 類推한 형태로 마감재인 알루미늄 판넬(Aluminium Panel)을 사용하여 勾配를 懸垂線으로 처리하였다. 多數의 인원을 수용하는 체육관의 동선을 고려해 건물 외부 네 곳에 출입문을 따로 두었으며, 이 출입문은 건물의 3층과



(사진 9-251)

대구 실내체육관 정면(김인호, 1972)

경사로로 연결되었다. 또 경사로 끝에 있는 외부 출입문 지붕은 전통건축의 서까래 형식으로 처리되어 3층 외부에 둘러진 보 형태의 지지대와 투구형 지붕과 함께 전통 형태미 再現의 중심을 이룬다. 이어 1973년에는 김인호 설계의 대구 스포츠 센터가 세워졌다.

1974년에는 대구에서 개최되는 全國體典에 대비하여 합동건축이 설계한 대구 시민운동장은 1975년 세워진 대구 야구경기장과 함께 스포츠 단지(Sports Complex)를 이룬다. 이어서 이성 설계의 대구 최초의 실내 스포츠센터(사진 9-252, 연면적:4,300㎡)가 수성구 파동에 건립되어, 겨울에는 아이스링크로 여름에는 실내 수영장로 사용되는 등 대구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擴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밖에도 김인호 설계의 근로 청소년회관과 합동건축의 대구 싸이클경기장이 각각 건립되었다.

당시 대구에서 활동한 대표적 건축가와 설계 사무소로는 정경운, 김인호 등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난 작가와 합동건축(권태식·윤태식·류문대·김선돌), 도시건축(윤옥·서종달 등), 협동건

364) 厚堂金仁鎬教授紀念事業會, 앞의 책, pp.28~29.



〈사진 9-252〉

대구 실내스포츠센터 정면(이성, 1975)

축(최병달·김성환) 등의 설계사무소가 있었다. 신인 건축가들로는 이성·김무권·김성환 등을 비롯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작품활동을 병행한 김일진·박두용·한윤호 및 이중우·김영태 등이 많은 작품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건축구조 분야에서는 김현산·노형주·권택진·권영환·강문명 등이 활약했다.

3. 1980년대 공공문화 건축

80년대는 고속 경제성장으로 공공건축 부문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특히 공공건축 중에서도 生活의 여유와 스포츠의 大衆化에 따른 스포츠 관제시설과 연수원, 관공서 건물이 활발히 건립되었다. 한편 건축계 내에서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 서서히 대구의 제1세대 건축가들이 물러가고 제2세대와 제3세대 건축가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건축행사들이 많아지고 모임이 활성화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量的 증가 뿐만 아니라 質의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세계적인 기능주의적 국제주의 양식의 쇠퇴 경향과 더불어 이른바 ‘탈 현대건축’(Post Modernism) 혹은 ‘후기 현대건축’(Late Modernism)으로 불리우는 외국의 새로운 建築 潮流들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대구건축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또 건축계에서는 일부 세대 교체와 함께 건축 수주량의 급속한 팽창에 힘입어 많은 건축사무소가 설립되고 규모면에서 70년대보다 대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형태는 물론 색채와 재료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며, 예전에 보지 못한 高層 建物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複合 用途의 건물이 많이 세워지게 된 것도 이 때쯤 이다. 건축형태가 다양해지고 新工法의 보

급에 따라 타일보다 돌과 붉은 벽돌을 外粧材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構造面에서는 철골 구조에 P.C Panel을 사용하는 新工法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건물의 大型化와 高層化로 지하실과 주차장의 기능이 매우 중요해졌다.

80년대 전반기에는 懸賞 設計公募에 의해 김무권이 설계한 建築士會館(사진 9-253, 연면적:2,019.6㎡)이 1982년에 준공되었다.

80년대에 들어와 도서관 이용객이 급증됨으로 도서관 시설이 많이 요구되었다. 두류공원 안에 위치한 두류 도서관(사진 9-254, 圖 9-113, 연면적:3,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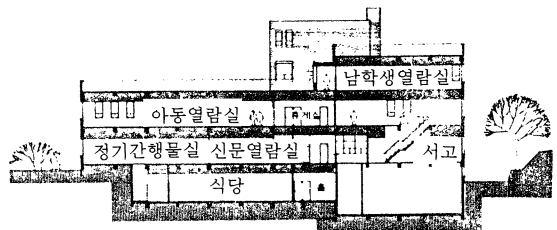


〈사진 9-253〉
대구건축사회관 정면(김무권, 1982)



〈사진 9-254〉 대구시립 두류도서관 정면(윤태식,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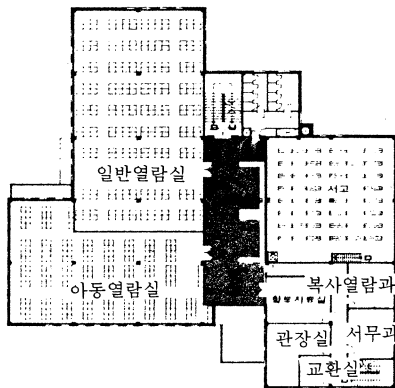
지하 1층, 지상 3층)³⁶⁵⁾은 합동건축의 설계로 1981년에 완공되었는데, 이 건물은 붉은 벽돌을 사용한 外觀에 냉난방 공기조화 설비까지 갖춘 당시로서는 최신의 도서관이었다. 시민 공원의 분위기와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조화시키기 위해 건물의 형태를 친밀감 있게 구성하고, 건물을 전면 도로에서 약 60m가량 후퇴시키고 거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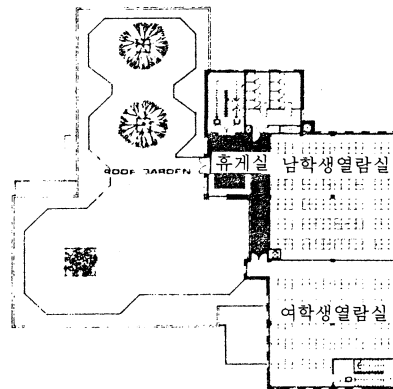
① 횡 단 면 도

365) 대한건축사협회, 《'82會員建築設計作品集》, 1982, pp.68~69

주차와 조경공간 및 옥외 휴식공간을 조성하였다.



②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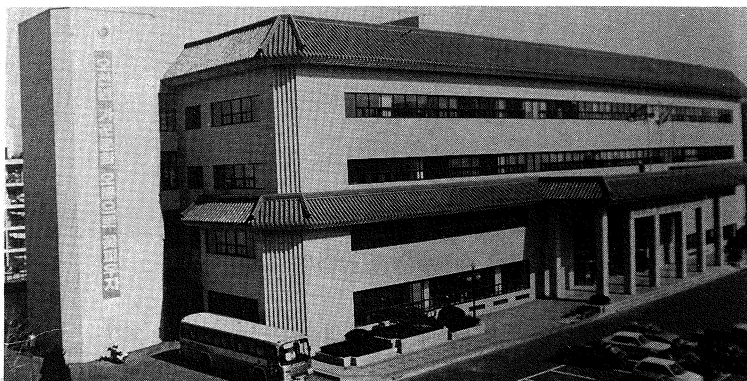


③ 3층 평면도

(圖 9-113)

대구시립 두류도서관 횡단면도와 2, 3층 평면도(① ② ③)

두류도서관에 이어 대구시 북부 도서관(연면적:4,102.5㎡)도 합동건축이 1983년 설계했다. 이 밖에 강정공 설계의 동구 종합청사와³⁶⁶⁾(사진 9-255), 황용주 설계의 성서공단 근로복지회관(사진 9-256), 장기웅 설계의 대구시 소방본부³⁶⁷⁾ 등이 건축되었다.



(사진 9-255)

동구종합청사 정면과 좌측면(강정공, 1983)

366) 대한건축사협회 대구직할시지부, 《'88大邱建築士作品集》, 1988, pp.86~87.

367) 대한건축사협회 대구직할시지부, 위의 책, pp.10~11.

이 시기에는 각종 團體의 會館 등도 많이 건축되었는데, 1983년에는 김인호와 이성이 설계한 대구시 종합 복지회관(연면적:5,115㎡, 지하 1층, 지상 3층)이 건립되었다. 이 건물은 붉은 벽돌 치장쌓기한 외벽에 처마를 짧게 내밀고 청기와를 덮은 것으로 형태에서 전통건축을 절충한 건물임을 느끼게 한다. 이 밖에도 대구시 청소년 근로자회관과, 대구시 약사회관, 윤태식 설계의 대구지역 로터리클럽 연합회 회관(중구 태평로), 정태섭 설계의 대구시 여성회관 등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1988년에는 강성옥 설계의 대구시 교육청 청사가 건립되었다.



(사진 9-256)

성서 근로자복지회관 정면과 좌측면(황용주, 1983)

80년대 대구의 스포츠 시설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고, 1988년 올림픽 게임 유치에 성공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集合住居團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내 스포츠센터가 民間 혹은 中央 및 地方自治團體의 공공사업으로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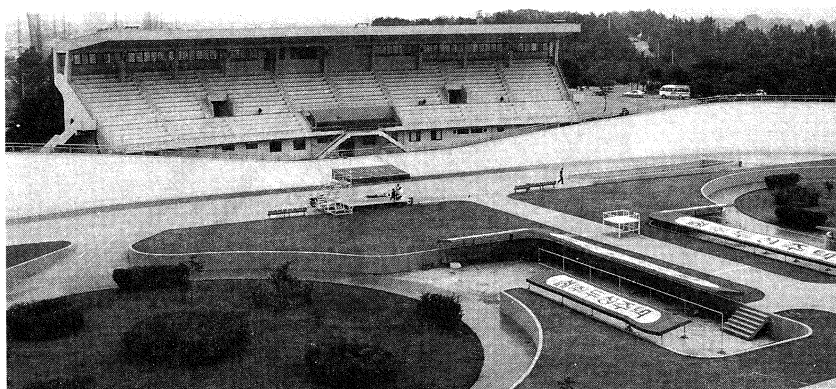


(사진 9-257)

두류 실내수영장(김인호, 1983)

건설되었다. 1983년에는 김인호 설계의 두류 실내수영장(사진 9-257, 연면적:8,550㎡, 철골 트러스 지붕)이 두류공원 안에 세워졌으며, 1984년에는 합동건축이 설계한 국제경기 수준의 싸이클 경기장이(사진 9-258, 연면적:45,622㎡) 망우공원 안에 지어졌다. 이어서 1987년에는 대구 서부지역에 위치한 대단위 고층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환경건축이 설계한 스포츠 및 商業 複合施設인 광장 코아가 건설되었다. 이 건물은 대구 최초의 近隣住區내 커뮤니티(Community)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곧 이어서 1989년에는 경남타운과 가든 하이츠 아파트 등의 수성구 황금동 集合住居 密集 地域에 사우나·수영장·볼링·헬스 클럽·슈퍼마켓 등의 복

합시설을 수용하는 선 스포츠 프라자(연면적: 10,248㎡)가 합동건축 설계로 건립되어 生活體育의 場으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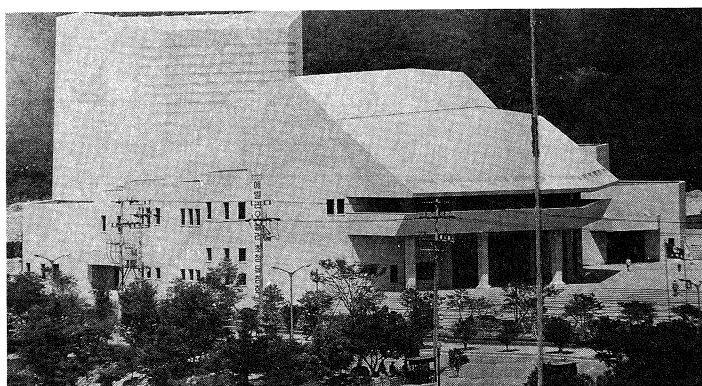


〈사진 9-258〉 대구 싸이클경기장 원경(김인호, 1984)

1980년대 활동한 대구의 건축가와 설계그룹을 살펴보면, 학교 건축 설계에서는 강성옥이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으며, 교육·스포츠 시설은 이성·김무권·임팔암 등의 신진건축가들과 합동건축(권태식·윤태식·류문대·김선돌), 도시건축(윤옥·서종달·김팔섭·홍호령) 그리고 협동건축(최병달·김성환 등)이 많이 설계했다. 이 밖에 새로운 그룹으로서 환경건축(김원·홍성규·김팔섭)과 남양건축(최병국·임봉수·이택봉·함종관)이 비교적 큰 활약을 보였으며, 이밖에 이중우, 김영태, 정의용, 이정호, 정진수, 박정우 등이 현직 건축과 교수로 작품활동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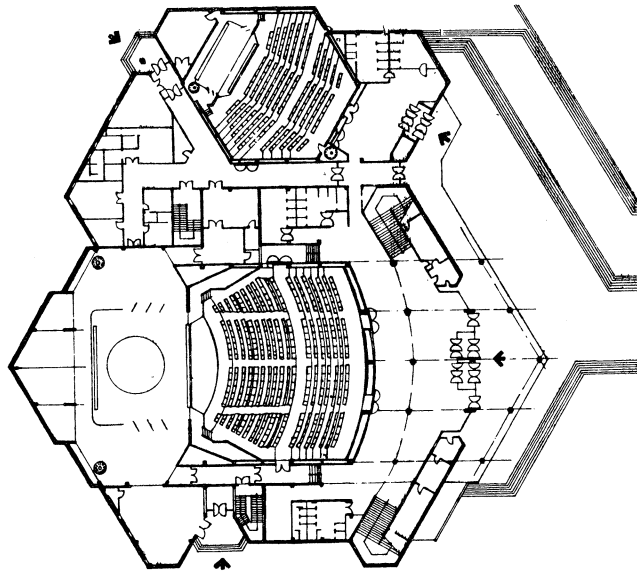
4. 1990년대 공공문화건축

90년에 들어오면 官公署 廳舍로 강성옥 설계의 대구 교원연수원(연면적: 7,241.85㎡)이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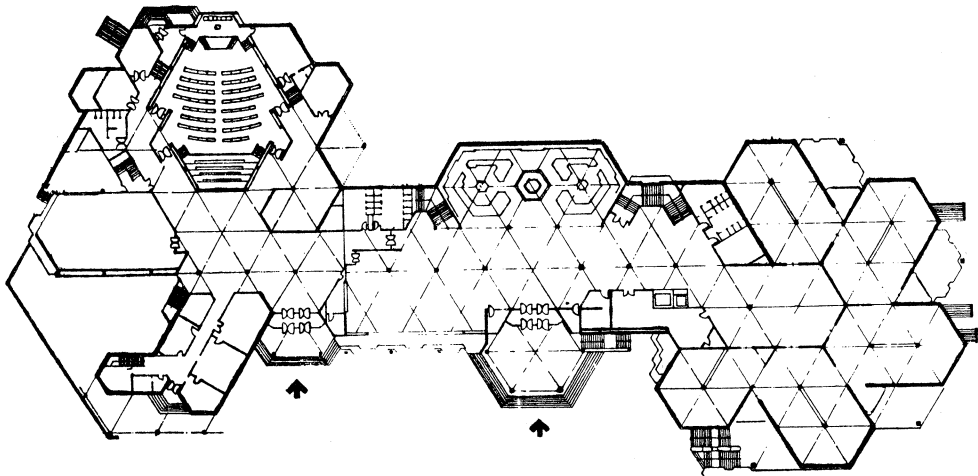


〈사진 9-259〉 대구 문화예술회관 정면과 좌측면(김인호, 1991)

립된다. 또 김인호의 遺作인 대구 문화예술회관 (사진 9-259, 圖 9-114, 연면적: 19,037.7㎡) 이 1982년 현상설계 이후 거의 10여년 만에 대구 예총 산하 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들의 성금으로 준공을 보았다.



1층 평면도



전시장 평면도

〈圖 9-114〉

대구 문화예술회관 1층 및 전시장 평면도

대구 문화예술회관은 1천석 규모의 대공연장, 350석 규모의 소공연장이 있는 공연장과 전시실 그리고 사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의 平面形은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탈피하여 대구 市花인 목련꽃 형상을 도입한 육각형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뒷 산의 곡선을 따라 건물의 스카이 라인(Sky Line)이 리듬감을 띠고 있다. 30 여개의 계단으로 크고 작은 공간으로 적절히 분절된 넓은 광장은 옥외 전시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의도되었다. 또 현관 맞은편 벽면을 유리로 처리해 자연 채광과 내부공간의 시원함을 도모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전시실에 비중을 둔 공간계획으로 공연을 위한 공간이 전체 규모에 비해 좁다.

1992년에는 김원 설계의 달서구 청사(사진 9-260, 연면적:16,887㎡, 지하 1층, 지상 8층)가 월성지구 집합주거단지 안에 김재우 설계의 경찰서(연면적:5,483.91㎡, 지하 1층, 지상 4층)와 함께 지어졌다. 이밖에도 몇 개의 區廳舍 건축과 대구 시청 증축 등이 있었다.



(사진 9-260) 달서구 청사 정면(김원, 1991)

관청 청사건축과 함께 90년대 초반에는 민간에 의해 소규모 화랑들이

많이 건축되면서 제물치장 콘크리트가 60년대 후반에 이어 새롭게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어서 80년대에 설계되어 90년대 초에 완공된 많은 스포츠 시설 중 1991년에 준공된 계명대 성서캠퍼스 내의 체육관(김무권, 연면적:11,528.59㎡)은 붉은 벽돌로 된 내부 중정을 지닌 다목적 시설이었다. 이 때 김인호가 설계한 경북대 실내 체육관도 함께 준공되었다. 이 밖에도 1992년에 대구 시민체육관(이성, 연면적:2,980㎡, 좌석 750석)이 건설되는 등 수 많은 크고 작은 볼링장과 실내 정구장이 만들어 졌으며, 뿐만 아니라 골프볼을 타고 실내 골프 연습장이 많이 지어졌으나 건축적으로 크게 고려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

그리고 1992년에는 두류공원 꼭대기에 합동건축 설계의 전망용 건축 대구타워(사진 9-261, 연면적: 24,857.25㎡, 높이 202m, 지하 1층, 지상 10층)가 세워졌다. 이는 대구 시내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 없는 대구의 象徵物로 두류산 세 봉우리의 정상(해발 220m)에 110m의 높이로 서 있다. 이 타워는 1984년 서울의 한국타워에 의해 건립이 추진됐으나, 20%의 工程에서 중단됐다가 87년 (주)우방랜드가 引受해 합동건축의 권태식의 설계로 완공을 보았다.

지상 7층 탑신과 전망 4개층으로 구성된 대구타워의 外形은 팔각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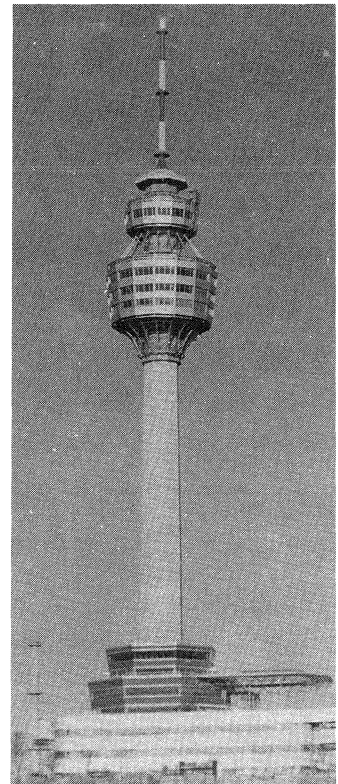
의 전통적인 팔각형이 중심개념이다. 특히 꼭대기부분은 다보탑의 형상을 그대로 본딴 것이
다. 전망 4개층은 팔각형을 변형해 십육각형으로 라운드화하고 4개층을 중첩시키고 있다.

또 基壇部·塔身部·高層部の 비례가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외
장 색채는 하늘과 조화되도록 무채색을 사용였다. 夜間에 이
무채색이 타워에 설치된 98개의 나트륨의 빛을 그대로 반사,
황금색의 변해 화려한 골드 타워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러나 기초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돼 외부
전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공문화 건축중에서 스포츠 시설이나 문
화시설은 個人 혹은 일부企業들이 철저한 市場 調査와 준비끝
에 나름대로 성격을 가지고 設計에 임했다고 할 수 있다. 반
면에 官公署의 건축은 무사 안일한 思考로 설계의 중요성이나
건축 미적 측면이 경시되어 건축적으로 큰 발전이 없었다.

사실 건축에서 변화나 발전이 없이 정체된다는 것은 停止가
아니라 곧 退步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경우 관공
서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고 건축적으로 주도해서 타 부분의
건축물의 수준을 이끌어 나가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9-261) 대구타워 전경
(합동건축, 1992)

〈表 9-2〉

대구의 공공건축 연표

건 물 명 (설계자, 건축년대)	규 모 (연면적)	위 치	비 고
국세청(정경운, 1956)	4,909㎡	중구 문화동 11-1	5층
경상북도 도청(정경운, 1965)	21,329㎡	북구 산격동 1443-5	지하 1층, 지상 4층
경북공업연구소(1967)			
잠업연구소(윤영도, 1967)			
위생시험소(1967)			
경북 교육위원회 청사(정경운, 1967)			
낙동강 승전기념관(김무권, 1970)	202.3㎡	대구 대덕산	높이 39m
상공회의소 회관(합동건축, 1971)	7,722㎡	동구 신천동	
대구 실내체육관(합동건축, 1972)	15,867.22㎡	북구 산격동	9,000석

건 물 명 (설계자, 건축년대)	규 모 (연면적)	위 치	비 고
세관청사(합동건축, 1973)			
대구 시민운동장(김인호, 1974)	12,423.2㎡	북구 침산동 61-1	전망탑 및 반원형 차고
대구 시민회관(김인호, 1975)	9,405㎡	중구 태평로	
대구 동부소방서(합동건축, 1975)	2,390.1㎡	동구 신천동 73	
대구 청소년회관(합동건축, 1975)	2,102.5㎡	동구 신천동 92	
대구 실내스포츠센터(이성, 1975)			
대구 과학관(최병석, 1976)			
유진기념관(김영태, 1977)		남구 대명동	
수성구 청사(김인호, 1978)			
경북 체육회관(합동건축, 1979)	2,079.3㎡	북구 침산동 61-1	
시립 두류도서관(합동건축, 1981)	3,600㎡	두류공원내	지하 1층, 지상 5층
대구건축사 회관(김무권, 1982)	2,019.6㎡	수성구 범어동 1-8	
대구시 북부도서관(합동건축, 1983)	4,102.5㎡	북구 침산동 447-2	
대구시 소방본부(장기웅, 1983)	3,849.82㎡	서구 평리동	지하 1층, 지상 2층
대구시 종합복지관(이성, 1983)	5,115㎡	달서구 성당동	
성서공단 근로자복지회관(황용주, 1983)			
두류 실내수영장(김인호, 1983)	8,539.9㎡	두류공원내	지하 1층, 지상 2층
동구 종합청사(강정공, 1983)			
대구지역 로타리클럽 연합회회관 (윤태식, 1983)			
대구시 여성회관(정태섭, 1983)	5,693.15㎡	북구 노원동 483	지하 1층, 지상 4층
대구 싸이클경기장(합동건축, 1984)	45,622㎡	망우공원내	
광장코아(김원, 1987)			
관덕정 순교자기념관(김영태, 1987)			지하 1층, 지상 4층
대구시 교육청사(강성욱, 1988)	6,737.28㎡	수성2가 119-2	
선 스포츠프라자(합동건축, 1989)	10,248.0㎡	수성구 범어동 332	
대구 교원연수원(강성욱, 1990)	6,083㎡	동구 신무동 41-113	본관 4층, 생활관 3층
단공갤러리(윤철준, 1990)	982.70㎡	중구 공평동 70-2	
대구타워(합동건축, 1990)	24,857.25㎡	두류공원내	
경 볼링센터(최상용, 1990)			

건 물 명 (설계자, 건축년대)	규 모 (연면적)	위 치	비 고	
대구 문화예술회관(김인호, 1991)	24,857.25㎡	두류공원	지하 1층, 지상 8층	
계명대 체육관(김무권, 1991)	11,528.59㎡	달서구 파산동		
경북대 실내체육관(김인호, 1991)	8,288.06㎡	봉덕동 1071-6		
효성코아(김원, 1991)				
대구 시민체육관(이성, 1992)	15,887.5㎡	달서구 월성동 374		
달서구 청사(김원, 1992)				
대구타워(합동건축, 1992)				

V. 商業建築(사무소·은행·백화점)

1. 1960년대 상업건축

대구의 본격적인 商業建築은 대부분 日本人 商人들이 日帝 때 이곳에 진출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1930년대에 들어와 비록 소수이긴 하나 우리의 자본에 의한 상업건축물도 하나 둘씩 건립되었다. 당시 상업건축의 대부분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 건물이었고, 그 후 점차 住居 兼用的 상점건축과 商店 專用的 일반상점이 크게 증가하였다.³⁶⁸⁾

1945년 해방후 불과 5년도 채 못되어 1950년 발생한 6.25동란으로 당시 상업 건축물을 비롯한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으나 社會的 不安定과 經濟力의 부족으로 復舊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50년대 후반부터 전쟁으로 인한 소요에서 벗어나 사회 각 분야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면서 미미하나마 건축활동이 재기되기 시작하였다. 60년대에 접어들어 정치 사회적 안정과 함께 건설 기술이 발전하고 자립 경제를 추진하면서 상업 건축부문에서도 일제때 지어진 건물을 改築하거나 소규모의 상점건물들을 속속 新築하였다. 이들 상업건축물의 건축은 도시인구의 급증과 산업의 발달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5년에 제정된 〈都市計劃法〉 및 관련법에 따른 都市開發 事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6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 본격적인 상업건축들이 大邱 商圈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368) 윤재웅, 《大邱地域의 近代建築에 관한 研究》, 嶺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1, p.151

都賣市場인 서문시장 주변과 동성로·중앙동·향촌동·북성로·대구역 등에 건립된다. 이 시기에 지어진 대표적인 상업건축으로는 김인호 설계의 경북 메리야스조합(사진 9-262, 1967)과 정경운 설계의 고려예식장(1967), 이종만 설계의 농협 대구지점(1967)이 있다. 이밖에도 김인호 설계의 세기 양장점(1968)과 김현산 설계의 루비다방(1968)등이 건립되었다. 1968년에 대구의 현대적 백화점



〈사진 9-262〉 경북 메리야스조합 정면(김인호, 1967)



〈사진 9-263〉
구 대구은행 본점 정면
(정경운, 1969)

건물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고만권 설계의 대구백화점이 세워진 것은 특기할 일이다. 1969년에는 김인호 설계의 명성사진관과 대구 칠성시장, 김현산 설계의 대한항공 대구지점, 정경운 설계의 구 대구은행 본점(사진 9-263)등이 건축되었다.

60년대 대구의 상업건축은 國際主義 建築樣式의 傾向과 傳統 建築美에 대한 관심의 高潮로 형태적으로는 다소 세련되었으나, 빈약한 建築材料와 工法의 미숙 등으로 세부적으로는 完熟되지 못했다. 이 시기 상업건축을 주도한 건축가들로는 정경운·김인호·김일진·김현산·고만권·윤영도·이성해·이종만 등이 있다.

2. 1970년대 상업건축

70년은 경제적인 고도성장과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건축도 發展과 變革을 거듭했다. 따라서 70년대는 보다 건축물들이 다양해지고 세계적인 현대 건축의 경향과 전통을 수용한 절충적인 樣相이 共存한 시기로 현대건축이 한 단계 성숙하는 발판을 마련한 시기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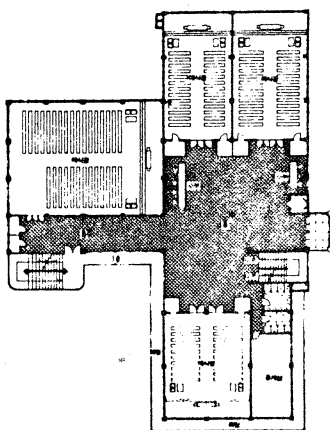
이 시기에는 사무소건물 뿐만 아니라 백화점, 전문 도·소매업을 위한 건물이 많이 세워졌

다. 70년대 초반의 건물로는 김인호가 설계한 금강빌딩(1970), 한진고속 버스터미널(1970), 청기와 주유소(1970), 대동빌딩(1970), 대구은행 동신동지점(1970), 대구은행 중앙지점(1972), 대구은행 신암동지점(1972)과 합동건축이 설계한 대구 상공회의소(1971)와 중앙상가(1972) 그리고 석용길 설계의 대구은행 본리동지점(1974) 등의 많은 건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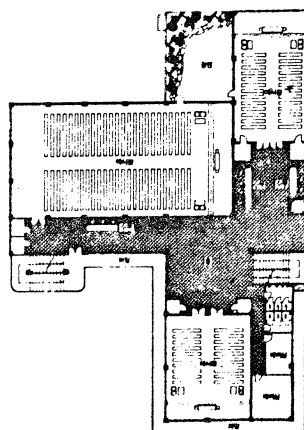
7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 김인호 설계의 경북광유 사옥(1975), 김일진 설계의 라이온스클럽 회관(1975), 이 성 설계의 대구시 의사회관(1976), 김화자 설계의 남산동빌딩(1976), 서정남 설계의 구 명성예식장(사진 9-264, 圖 9-115, 1976)이 건립된다. 또 인구증가에 따른 상권의 확장과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성향 증가되면서 70년대 후반에 전문소매업을 위한 김인호 설계



〈사진 9-264〉 구 명성예식장 정면(서정남, 1976)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圖 9-115〉

구 명성예식장 2, 3층 평면도

의 대보 백화점(1977)과 무궁화 백화점(1978)이 지어진다.

이밖에도 합동건축 설계의 경북섬유회관(사진 9-265, 1978)과 이 성 설계의 대구 매일신문사옥(사진 9-266, 1979) 등의 고층 사무소 건축이 속속 세워졌다.



〈사진 9-265〉
경북섬유회관 정면(합동건축, 1978)



〈사진 9-266〉
대구 매일신문사옥 전경(이성, 1979)

3. 1980년대 상업건축

80년에 들어오면 直轄市의 昇格에 따른 市街地 擴大와 大型 商街의 등장과 금융·보험업체의 증가, 부동산 과열에 의한 地價 昂騰으로 건물의 現物化가 두드러지면서 대구는 前 보다 상업 위주의 도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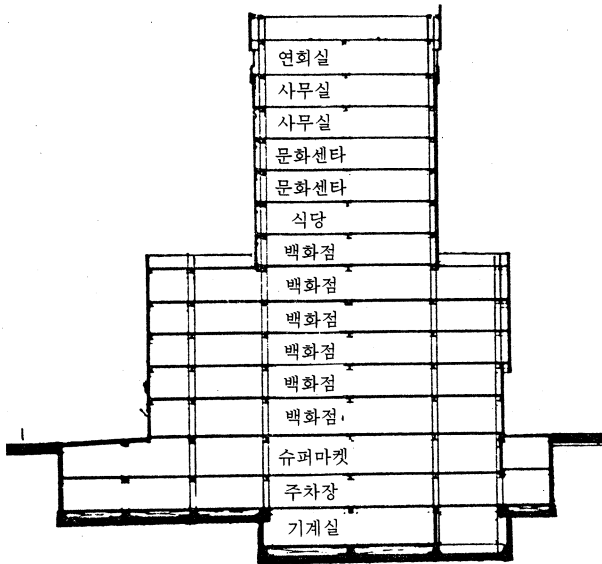
〈사진 9-267〉
미도백화점 정면과 좌측면
(합동건축, 1980)



〈사진 9-268〉
동아쇼핑센터 정면
(김인호, 1982)

변모해가게 된다.

80년대 초반의 대표적인 건물로서는 김화자 설계의 태남빌딩(1980)과 합동건축 설계의 미도백화점(사진 9-267, 1980), 서종달 설계의 국민상호신용금고(1982), 김무권 설계의 경일투자 빌딩(1982), 이 성 설계의 동아쇼핑(사진 9-268, 圖 9-116,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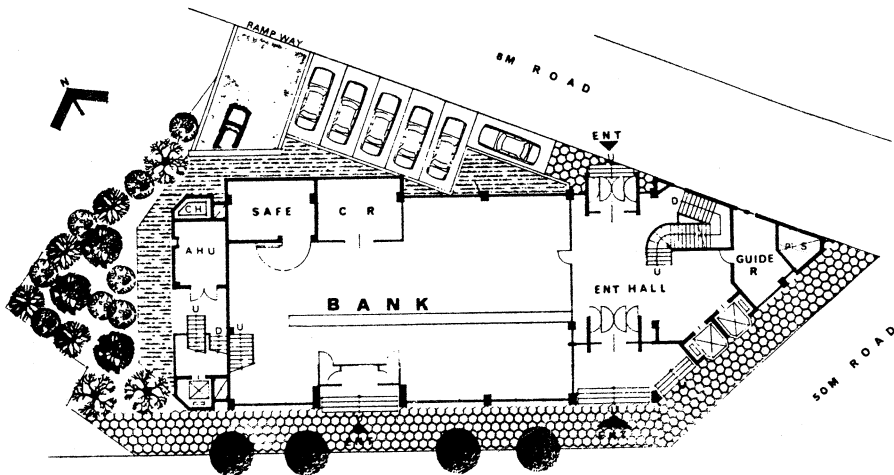


〈圖 9-116〉 동아쇼핑센터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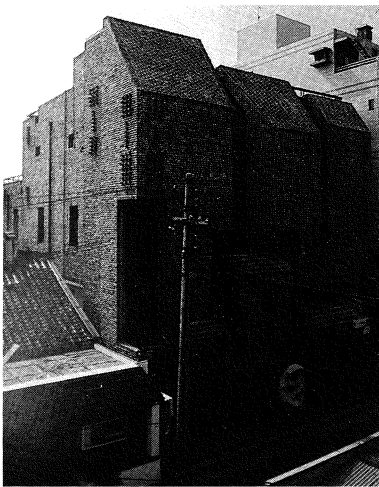
〈사진 9-269〉 덕산빌딩 정면(김성환, 1983)

합동건축이 설계한 농촌빌딩(1983), 김성환 설계의 덕산빌딩(사진 9-269, 圖 9-117, 1983), 이정호 설계의 이목화랑(사진 9-270, 圖 9-118, 1984)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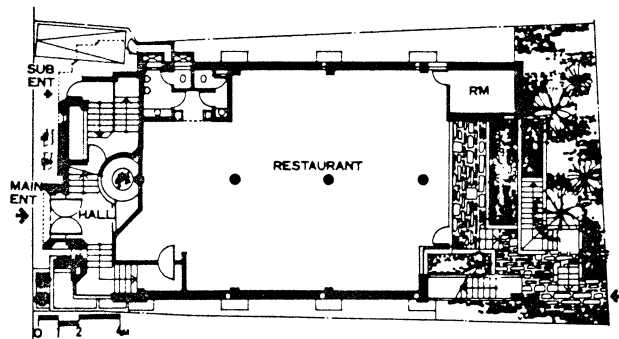


〈圖 9-117〉 덕산빌딩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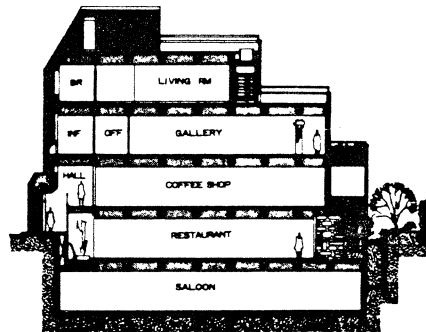
그중 이목화랑(1984)³⁶⁹⁾은 외관을 모두 건물의 해체때 나오는 붉은 벽돌로 치장한 당시로는 이색적인 건축으로 질감이 투박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있다. 또한 스킵 플로어(Skip Floor)방식으로 되어 있어 공간의 변화가 다양하며, 외관은 두 그루의 나무가 가지를 뻗어 하늘을 향하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즉 입구 양쪽 두 기둥은 나무의 줄기를, 2층의 수평·수직의 벽돌 홈의 볼륨(Volume)은 뻗어나가는 나무가지를 형상화 한 것이다. 건물 뒷면에는 선컨 가든(Sunken Garden)을 두어 半層 내려간 1층의 채광을 돕고, 건물 모서리에도 창을 두어 조각품 전시대 부분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사진 9-270〉
이목화랑 정면과 좌측면(이정호, 1984)



1층 평면도



〈圖 9-118〉 단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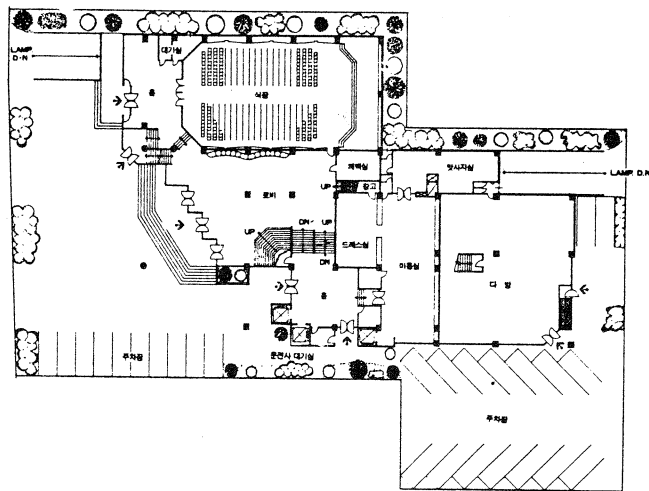
이목화랑 1층 평면도 및 단면도

369)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직할시지부, 《大邱建築》창간호, 1978, pp.74~75.

80년대 중반에는 대구은행 본점(1985), 합동건축 설계의 금성 예식장(연면적:1,212㎡, 1985), 서보광 설계의 동성건축 사옥(연면적:994.33㎡, 1985)과 서남빌딩(1987), 구정광·김상곤 설계의 귀빈예식장 (사진 9-271, 圖 9-119, 1986), 강정공 설계의 김희택 빌딩(1987), 윤철준 설계의 예성공예학원 빌딩(1987)과 센스 디자인학원(1987), 심해 빌딩(1987), 홍성규 설계의 광장코아(사진 9-272, 1987)등이 건축되었다.



〈사진 9-271〉 귀빈예식장 전경(구정광·김상곤, 1986)



〈圖 9-119〉 귀빈예식장 1층 평면도



〈사진 9-272〉 광장코아 정면과 우측면(홍성규, 1987)

이 들 건물중에서 대구은행 본점(사진 9-273)은 대구의 상업건물로는 드물게 공공성과 친근성·쾌적성·경제성을 갖춘 건물로 80년에 착공하여 5년간의 긴 공기 끝에 완공되었다. 대구은행 본점(연면적:3,614㎡ 지하 2층, 지상 18층)은 건립 당시 대구의 최고층 건물로 첨단공법인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이 채용됐다. 기둥을 중심으로 건물 각층 바닥만 형성한 후 유리외벽과 창호로 외벽을 마감하는 이 공법은 당시로서는 첨단공법이였다. 건물 내부는 상업용 건물용도에 맞게 좌우 모서리 부분의 공용면적을 줄이고 사무실 전용면적을 크게 잡아 동선의 흐름을 간결하게 하고 다용도로 쓰도록 하고 있다. 대강당 등 시민 편



〈사진 9-273〉 대구은행 본점 전경(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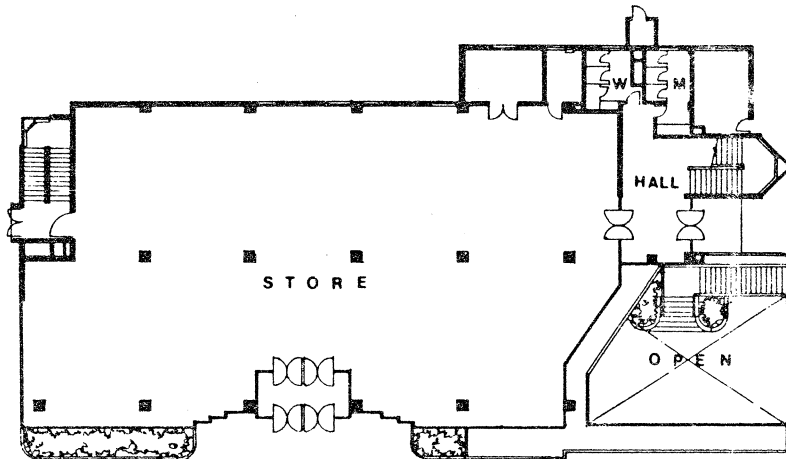


〈사진 9-274〉
청구사옥 전경(김원,1988)

의시설이 자리잡은 지하 1층 외부에는 선컨 가든(Sunken Garden)을 설치해 채광과 조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물을 人道에서 6m정도 안쪽으로 후퇴시켜 이 공간을 시민들의 소공원으로 활용되도록 했다.

80년 후반에는 합동건축 설계의 동진빌딩(1988)과 동양프로덕션 사옥(1989), 김화자 설계의 르네상스빌딩(1988)과 고려빌딩(1989), 이기혁 설계의 목화예식장(1988), 김원 설계의 청구사옥(사진 9-274, 圖 9-120, 1988), 김

팔섬의 협성 농산 사옥(1988), 이기혁 설계의 현대자동차 북대구영업소(1989)와 현대증권 대구사옥(1989), 송창섭 설계의 신라 소극장(1989), 최상용 설계의 동양리스 빌딩(1989) 등이 지어졌다.



〈圖 9-120〉

청구사옥 1층 평면도

4. 1990년 이후 최근의 상업건축

90년대초의 상업건축으로는 합동건축이 설계한 명성빌딩(1990), 윤철준 설계의 연수빌딩(1990)과 동산재개발 합동빌딩(1990)·동원빌딩(1990)·은하예식장(1990)·풍국건설 사옥(1990), 최병달 설계의 성서 농협(1990), 이정호 설계의 연홍빌딩(1990) 등이 있다.

특히 연홍빌딩³⁷⁰⁾은 格子를 基本 패턴으로한 파사드(Facade)와 매스(Mass)의 모서리를 시각적 포인트(Point)로서 후퇴시키면서 원기둥으로 연결하여 이것이 結節點인 동시에 수직적·수평적 그리고 斜線으로의 지향성을 나타내도록 했다.

최근의 건물로는 광장빌딩(합동건축, 1991), 효성코아(사진 9-275, 김원, 1991) 동산오피스(최병국, 1991),



〈사진 9-275〉

효성코아 정면과 좌측면(김원, 1991)

370)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직할시지부, 《大邱建築》3, 1992, pp.108~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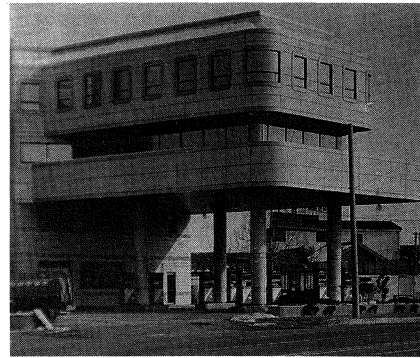
수정빌딩(임봉수, 1991), 태광빌딩(함종관, 1991), 대우빌딩(이건호, 1991), 신한은행 원대지점(이대일, 1991), 대구 투자금융사옥 (사진 9-276, 김정철, 1991), 대구은행 월배지점(석용길, 1991),



〈사진 9-276〉
대구투자금융 빌딩 전경(김정철, 1991)

신화빌딩(장기웅, 1991), 영대빌딩(이택봉, 1992), 공항주유소 (사진 9-277, 김팔섭, 1992), 경일투자금융(1992), 제주가든 (사진 9-278, 김팔섭, 1992), 만촌 H빌딩(송창섭, 1992), 삼보 코트 (정의용, 1992), 성암빌딩(이기혁, 1992), 동화빌딩 (임봉수, 1992), 한국통신 대구사업본부 (1992)등이 있다.

이택봉 설계의 영대빌딩(연면적: 998.17㎡)은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저층부와 5층, 6층의 주거부분으로 구성된



〈사진 9-277〉
공항주유소 정면(김팔섭, 1992)

複合建物로 수평 대칭 부분, 수직 대칭 부분, 단순화 부분으로 나누어 立面을 계획하여 형태상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한 건물이다. 이 건물은 通過 交通량이 많은 도로변에 위치한 대지의 특



〈사진 9-278〉 제주가든 정면(김팔섭, 1992)

성상 측면부를 날카로운 박공지붕으로 중첩시켜 독특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³⁷¹⁾

정의용 설계의 삼보코트(사진 9-279)는 外觀의 청록색 유리와 단일 건물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건물 전면부 양 모서리를 半圓의 曲面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반원은 왼쪽이 3층, 오른쪽이 4층 높이로 각각 크기가 달라 비대칭의 조화를 이룬다. 또한 외관이 시원해 보이면서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이며, 外壁을 장식한 유리의 이음새가 보이지 않으면서 유리에 반사된 映像이 일그러짐이 적은 것도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경일투자 금융 사옥(사진 9-280)은 경제성과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상업건물로 내부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한 層高를 최소화해 전체 건물 높이를 낮추어 경제적인 건물이 되도록 했다. 또 외벽을 유리와 석재로 마감해 金融機關의 社屋으로서 중후감이 돋보이도록 했다.

임봉수 설계의 동화빌딩(사진 9-281)은 대지에 비해 건물의 연면적이 넓고 건물 내부에 주차 타워(Tower)를 설치해 건축면적을 최대화하였다. 이 건물은 외관상 한 덩어리로 이뤄진



〈사진 9-279〉 삼보코트 전경(정의용, 1992)



〈사진 9-280〉 경일투자금융 사옥 정면과 좌측면 (1992)



〈사진 9-281〉 동화빌딩 정면과 우측면(임봉수, 1992)

371) 이택봉, 〈영대빌딩〉《월간 이상건축》12, 1993, pp.76~77.

박스(Box)형 건물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正面 벽에 垂直의 큰 유리창을 설치해 마치 두 건물이 한 건물을 이룬 것처럼 보이게 해 視覺적으로 자칫 무겁게 보이는 大型 建物の 外形을 가볍게 하고 있다. 또한 건물 측면에 2m 너비의 좁은 공간을 지하 1층까지 파내어 선컨(Sunken)으로 처리하여 지하공간의 채광과 조망·환기를 해결하고 있다.

한국통신 대구사업본부 건물(사진 9-282)은 대구에서 최초로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를 채택한 빌딩이다. 이 건물은 地下 中央 制御裝置를 통해 냉난방, 조명, 실내공기 환기, 화장실 급배수, 방재 설비 등이 자동으로 조절된다. 또 地下 駐車場의 차량 주차 상태가 감지기에 의해 확인되고 건물 전체가 CCTV(폐쇄회로 TV)에 의해 감시된다. 특히 건물 조명 부분은 각 사무실의 컴퓨터가 지하 중앙 제어장치와 연결돼 조명의 자동차단 등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건물 외관은 모서리를 계단식으로 중첩시켜 遠近感이 돋보이게 하고, 정면과 뒷면의 유리창은 돌출시키고 그 위에 짧은 처마를 두어 박스(Box)형 건물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고 있다.



〈사진 9-282〉
한국통신 대구사업본부 전경(1992)

또 이 건물 6층에는 옥상 정원을 만들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10층과 11층에는 건물을 돌아가며 작은 테라스를 만들어 쾌적한 공간이 되게 하였다. 건물 내부의 경우 民願室로 사용되는 1층 事務室은 動線이 짧은 원 스톱(One Stop) 窓口로 간결하게 구성하고, 공간의 70%이상을 休憩空間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全層의 사무실의 기둥과 벽을 최소화해 경량 칸막이를 이용 필요시 자유롭게 사무실 규모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9-283〉 대백프라자 전경(합동건축, 1993)

1993년에는 새로운 형식의 대규모 판매시설인 대백프라자(사진 9-283)가 건립되어 대구 백화점 건축의 규모와 설비를 일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表 9-3〉

대구의 상업 건축 연표

건 물 명 (설계자, 건축년대)	규 모 (연면적)	위 치	비 고
경북 메리야스조합(김인호, 1967) 고려예식장(정경운, 1967) 농협 대구지점(이종만, 1967) 세기양장점(김인호, 1968) 루비다방(김현산, 1968) 명성사진관(김인호, 1969) 대구칠성시장(김인호, 1969) 구 대구은행본점(정경운, 1969) KAL대구지점(김인호, 1969) 대동빌딩(김인호, 1969)		중구 전동	
금강빌딩(김인호, 1970) 한진고속버스터미널(김인호, 1970) 청기와 주유소(김인호, 1970) 대동빌딩(김인호, 1970) 대구은행 동신동지점(김인호, 1970) 대구상공회의소건물(합동건축, 1971) 대구은행 중앙지점(김인호, 1971) 중앙상가(합동건축, 1972) 대구은행 신암동지점(김인호, 1972) 경북광유사옥(김인호, 1974) 대구은행 범어동지점(석용길, 1974) 라이온스 클럽회관(김일진, 1975) 대구시 의사회관(이성, 1976) 남산동빌딩(김화자, 1976) 한국건축사옥(윤영도, 1977) 구 명성예식장(서정남, 1977) 대보백화점(김인호, 1977) 대구섬유회관(합동건축, 1978) 영대동창회관(김인호, 1978) 무궁화백화점(김인호, 1978) 매일신문사사옥(이성, 1979)	1,696.7㎡	중구 포정동 16 중구 동인동 북구 대현동 중구 남산 2동 98-3 중구 동인동 중구 계산동	지상 3층

건 물 명 (설계자, 건축년대)	규 모 (연면적)	위 치	비 고
미도백화점(합동건축, 1980)	1,060.54㎡	중구 5동 22	
태남빌딩(김화자, 1980)			
한산빌딩(최찬, 1980)			
백수탕(김화자, 1981)		북구 복현동 427-5	
국민상호신용금고(서종달, 1982)	33,721㎡		
대구은행 본리동지점(1982)			
경일투자빌딩(김무권, 1982)		중구 덕산동	
동아쇼핑센터(김인호, 1982)		중구 덕산동	
농촌빌딩(합동건축, 1983)	4,022㎡	서구 비산동 332-2	
덕산 빌딩(김성환, 1983)			
이목화랑(이정호, 1984)			
아진 상호신용금고(이성, 1983)			
금성예식장(합동건축, 1984)	994.33㎡	북구 원대동 3가 1374-6	
(주)태백신관(합동건축, 1984)		중구 동성로 2가 174	
대구은행 본점(1985)		동구 신천3동 139-3	
동성 건축사옥(서보광, 1985)		남구 대명동 137-1	
신라소극장(송창섭, 1985)			
해동빌딩(임봉수, 1986)			
서남빌딩(합동건축, 1987)	3,633.30㎡	중구 대신동 115-5	
예성공예 학원빌딩(윤철준, 1987)		중구 공평동 57-3	
센스 디자인빌딩(윤철준, 1987)		중구 삼덕1가 26-9	
심해빌딩(윤철준, 1987)		중구 공평동 42	
광장코아(홍성규, 1987)	3,872.71㎡	서구 내당동 463-34	
김희덕 빌딩(강정공, 1987)			
동진빌딩(합동건축, 1988)		동구 신암동 214-4	
르네상스(김화자, 1988)		달서구 송현동	
목화예식장(이기혁, 1988)	2,005㎡	서구 내당동 463-62	
청구사옥(김원, 홍성규, 김형모, 1988)		동구 방촌동 1093-5	
협성 농산사옥(김팔섭, 1988)		동구 신천동 315-2	
동양 프로덕션사옥(합동건축, 1989)			지하 1층, 지상 5층

건 물 명 (설계자, 건축년대)	규 모 (연면적)	위 치	비 고
고려빌딩(김화자, 1989) 동대구 약국빌딩(윤철준, 1989) 국제컴퓨터 빌딩(윤철준, 1989) 팔공 건축사 빌딩(윤철준, 1989) 경동빌딩(윤철준, 1989) 선빌딩(윤철준, 1989) 현대증권 대구사옥(이기혁, 1989) 동양리스빌딩(최상옥, 1989) 한산빌딩(최찬, 1989)		서구 내당동 465-3 북구 대현동 205-20 중구 남산동 925-2 남구 봉덕동 694-10 중구 봉산동 달서구 두류동 807-3 동구 효목동 629-1	
명성빌딩(합동건축, 1990) 성서 농업협동조합(최병달, 1990) 연수빌딩(윤철준, 1990) 동산재개발 합동빌딩(윤철준, 1990) MIT독서실 빌딩(윤철준, 1990) 동원빌딩(윤철준, 1990) 풍국건설 사옥(윤철준, 1990) 연흥빌딩(이정호, 1990) 광장빌딩(합동건축, 1991) 효성코아(합동건축, 1991) 동산오피스(최병국, 1991) 태광빌딩(함종관, 1991) 대우빌딩(이건호, 1991) 신한은행 원대지점(이대일, 1991) 대구투자금융사옥(김정철, 1991) 창성빌딩(합동건축, 1991) 제일장식(김원, 1991) 수정빌딩(임봉수, 1991) 동산 오피스(최병국, 1991) 대구은행 월배지점(석용길, 1991)	7,362㎡	서구 내당동 242-1 달서구 죽전동 278-6 중구 대봉동 122-24 중구 동산동 297 달서구 송현동 289-245 달서구 본리동 326-5 동구신천동 322-9 달서구 강삼동 6-2 서구 평리동 1097-1 수성구 황금동 541-1	지하 2층, 지상 9층

건 물 명 (설계자, 건축년대)	규 모 (연면적)	위 치	비 고
공항주유소(김팔섭, 1991)		동구 시지동 667-4	
제주가든(김팔섭, 1991)		수성구 범어동	
만촌 H빌딩(송창섭, 1991)		수성구 만촌동 1037-5	
동화빌딩(임봉수, 1991)			
삼보코트(정의용, 1991)		중구 동인2가 177-4	
성암빌딩(이기혁, 1991)		수성구 수성동	
영대빌딩(이택봉, 1992)			
삼덕빌딩(김성환, 1993)		중구 삼덕동 196-1	
대백프라자(합동건축, 1993)			

VI. 宗教建築

대구에는 불교·기독교·카톨릭 계통을 비롯한 다양한 종교 단체가 있으며, 이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회당을 건립했다.

開化期 이후의 대구에 들어온 서구 宗教建築은 프랑스인 신부들을 통한 천주교 계통의 건축과 미국인 선교사들을 통한 개신교 계통의 건축으로 나누어진다. 천주교 선교 초기의 교회용 건물은 대부분 單層이며, 일부만 2층이었다. 구조는 초기에 韓·洋 절충식과 벽돌 조적조로 건립되었다.

일제 시대의 교회는 강압적인 식민 통치에도 불구하고 신자 數의 증가와 教勢 확장에 따라 발전적인 分割을 거듭하였다. 해방 이후 종교 인구는 일반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대구의 종교 인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 경제발전, 건축기술의 발전, 전문 건축가의 활동, 근대 건축의 수용 등으로 건축계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 대구의 대표적인 교회건축으로는 내당동 성당(1960)이 있을 뿐이다. 60년대 이후 교회가 새로운 神學을 수용하면서 社會變動에 적절히 對應하였음에도 60, 70년대에 교회건축은 크게 활발하게 지어지지 못했다. 교회건축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教勢의 확장으로 本堂이 신설되고 따라서 새로운 교회건축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 이와 함께 外的이고 量的인 팽창에 대한 반성과 內的이고 質的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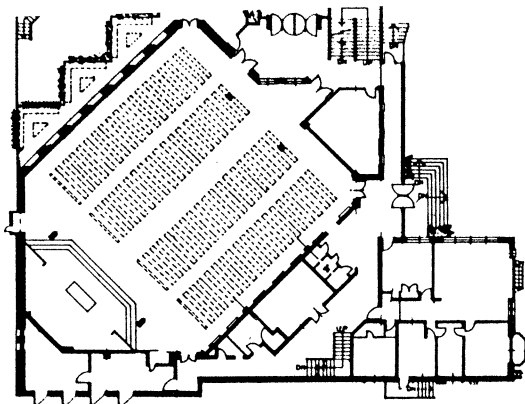
1980년대 前半期의 대표적인 교회건축으로 이기혁 설계의 수성 천주교회(1985), 서정남 외 2인 설계의 성당동 성당(1985)이 있고, 교회건축 외에 최상용 설계의 원만사 대웅전(1985)이 건립되었다. 후반기에는 김영태 설계의 관덕정 순교기념관(1986),³⁷²⁾ 서보광 설계의 성 베네딕트 수녀원(1986), 권정부 설계의 동신교회(1987), 윤철준 설계의 수석교회(1988)가 있다. 이들 교회건축 외에 백봉상 설계의 조계종 대구 금용사(1986) 장기웅 설계의 진각종 기로원(1988)이 있다.

1990년대에는 김무권 설계의 신암성당(1990), 백봉상 설계의 용천사(1990), 정진수 설계의 봉산교회(1992)가 건축되었다. 이것으로 볼때 교회 건물들이 대개 80년대 중반 이후 많이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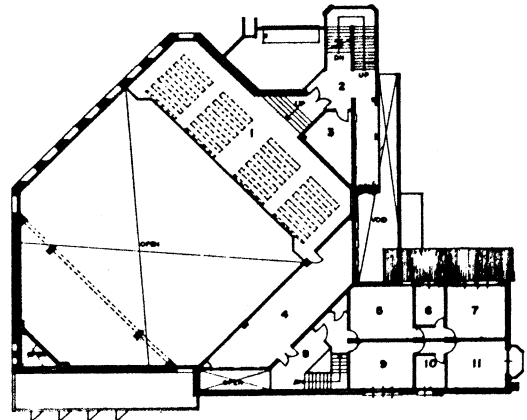
이기혁 설계의 수성 천주교회(사진 9-284, 圖 9-121, 연면적:2,269.35㎡, 1985)는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에 겹겹색 한식기와를 이은 모임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그 앞에 2단의 돌림띠로 장식된 수직의 鐘塔이 있다. 정면 출입구 위에는 제법 큰 반원형의 고정창을 두었고 출입구 우측에는 수직의 아치를 구성하고 거기에 성모상을 안치하였다. 벽돌 치장 쌓기한 외벽에는 아치창을 연속으로 배치하여 통일성을 갖게 하였다. 건물 내부는 1층에 대각선 방향으로 큰 會衆席을 두고,



〈사진 9-284〉
수성천주교회 정면(이기혁, 1985)



〈圖 9-121〉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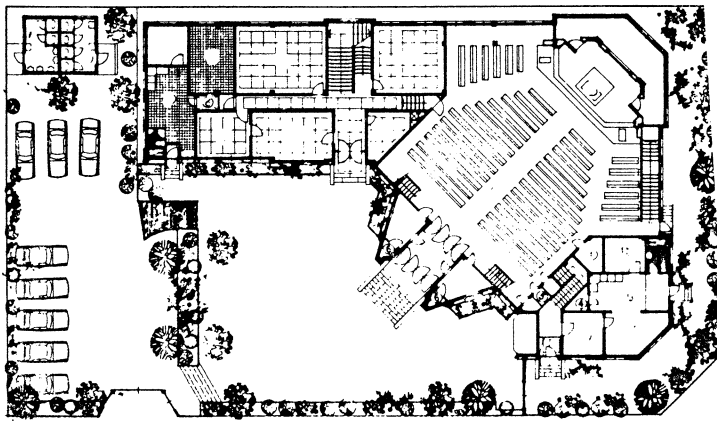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수성천주교회 1·2층 평면도

372)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직할시지부, 《大邱建築》 창간호, 1987, p.73.

그 상부를 뚫어 신도 수의 증감에 따라 會堂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층 일부에도 회중석을 두었다.

한운길·정상철·서정남 3인 공동작인 성당동 성당(圖 9-122, 연면적:1,559㎡, 1985)은 정면에 강한 이미지를 表出한 건물이다. 외관은 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에 가깝고, 크고 작은 수직의 창들과 벽면의 漸層的 구성으로 수직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 ‘ㄱ’자형 평면의 이 건물은 출입구 앞쪽에 대 회중석을 두고 그 좌우에 교회 부속실을 배치하였다. 철근콘크리트 조 구조에 철골 트러스로 지붕을 구성하였다.



〈圖 9-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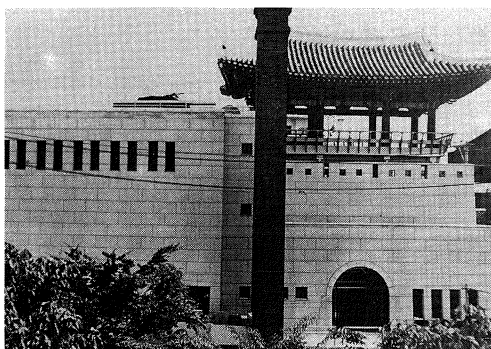
성당동 성당 평면도(서정남, 1985)

김영태 설계의 관덕정 순교기념관 (사진 9-285, 圖 9-123, 연면적:997.3㎡, 지하 1층, 지상 3층, 1986)은 역사적 사실을 건축적으로 具象化한 독특한 형태의 紀念建物이다. 이 건물은 하늘로 치솟을 듯한 지붕과 城壁같은 외벽이 인상적인 구성으로 이는 조선시대 大丘監營의 都試廳 觀德亭을 변형한 건물이다. 원래 觀德亭은 병사들의 훈련장이었으나 조선말기 천주교 탄압이 시작되자 경상도 지방의 천주교 敎人들을 참수시키는 사형장이 된 건물이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한국 천주교 2백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에 순교자 기념관으로 지은 것이다.³⁷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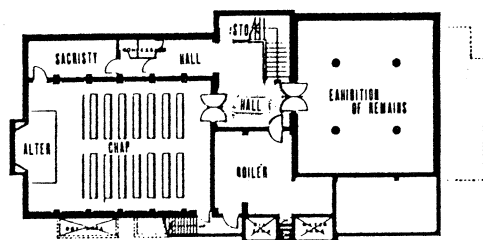
이 건물의 외관은 순교 정신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땅에서부터 하늘로 승화하는 형태의 추상적인 鐘閣과 내부 전시홀을 받치고 있는 힘찬 형태의 기둥은 순교정신을 추상화 시켰다.

373) 〈다시 보는 대구건축〉《영남일보》, 1993, 10. 28일자

여기에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城壁 外面이 사실적 형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鐘閣의 처마는 한국 전통양식으로 건립되었으나 끝 부분에 十字架와 카톨릭의 象徵文字를 새겨놓았다. 건물내부는 40여평 크기의 7개의 방을 갖추고 殉教 聖人의 유물 전시장 및 성당, 사제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1층의 현관홀은 圓形의 대형 스테인 글라스(Stained Glass)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아늑한 반면, 유물 전시관 등은 용도의 특성상 자연 채광을 제한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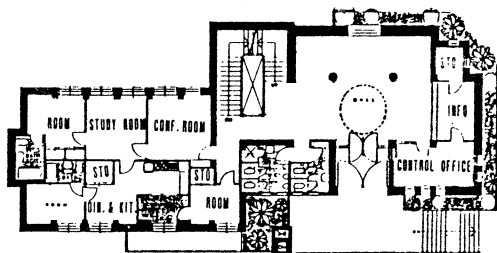


〈사진 9-285〉
관덕정 순교자기념관 정면(김영태, 1986)



(圖 9-123)

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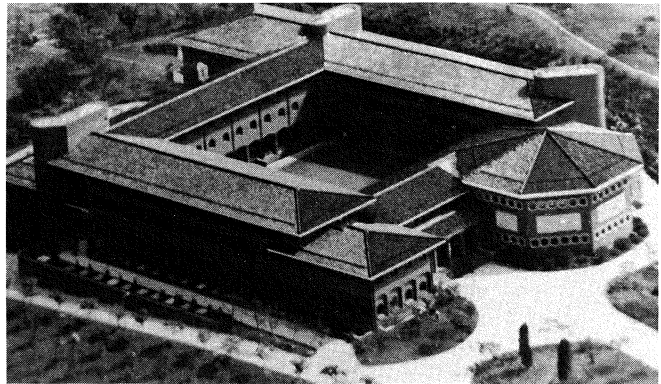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관덕정 순교자기념관 지층과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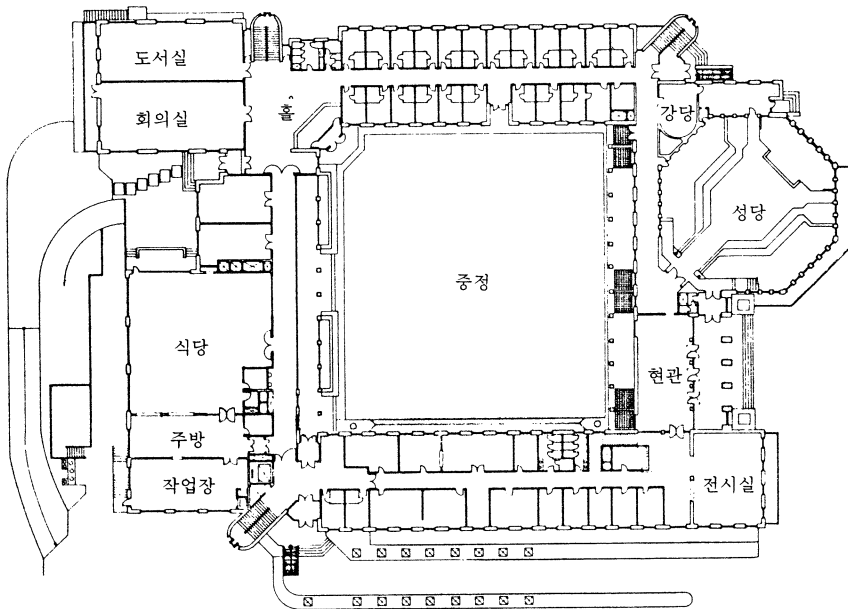
서보광 설계의 성 베네딕트 수녀원³⁷⁴⁾(사진 9-286, 圖 9-124, 연면적:10,580㎡, 1986)은 대구에서 보기 드문 현대와 고전,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어우러진 건물이다. 외벽은 모두 붉은 벽돌로 꾸며져 있고, 서양 중세건축 양식을 도입한 연속된 아치가 아케이드(Arcade)를 이루고 지붕은 한국 고유의 한식 기와를 이었다. 한국적 이미지의 흑색 골기와는 주변의 자연경관을 고려해 단 차이를 두어 원근감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 생활을 하는 수녀원의 특성상 안정감 있게 주건물을 口자형으로 배치하고 있다. 건물로 둘러 싸여 형성된 중정은 조경이 억제되어 정적인 폐쇄감과 안정감이 감돌고 있다. 입구에 자리잡은 성당은 팔각형으로 한국의 전통 정

374) 대한건축사협회 대구직할시지부, 『'88大邱建築士作品集』, 1988, pp.76~77.

자 형태를 모방했다. 성당 외벽에는 질감있는 화강석으로 수녀원의 수호 성인인 베네딕트의 일생을 조각으로 나타내 수도원의 종교적인 색채와 분위기가 밖으로 드러나게 했다. 또 기와의 처마선이 산의 원근과 중첩되어 포근함을 느끼게 한다.



〈사진 9-286〉 성 베네딕트 수녀원 원경(서보광,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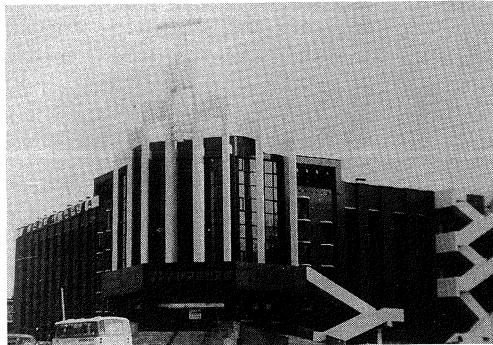


〈圖 9-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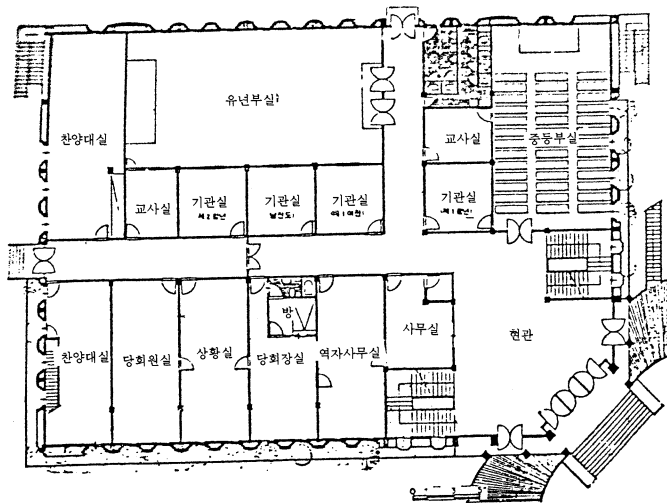
성 베네딕트 수녀원 1층 평면도

권정부 설계의 동신교회(사진 9-287, 圖 9-125, 연면적: 4,597.65㎡, 1987)는 장방형 평면의 모서리에 주 출입구를 내고, 그 위로 수직의 구조물을 만들어 세워 절대자를 향해 간구하는 인간의 종교적 심성을 표현하였다. 주 출입구 우측에는 두 곳에 2~3층으로 오르내리는 옥외 계단을 두고 있다. 또 외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돌출한 벽면의 처리는 강한 수직성을 느끼게 한다. 건물 내부는 1층에 각종 사무실과 회의실을, 2~3층에 크고 작은 예배실을 두

였으며, 지층에 식당, 도서관 등을 배치하였다. 1988년에는 이밖에도 한운길과 서정남이 설계한 동산교회가 건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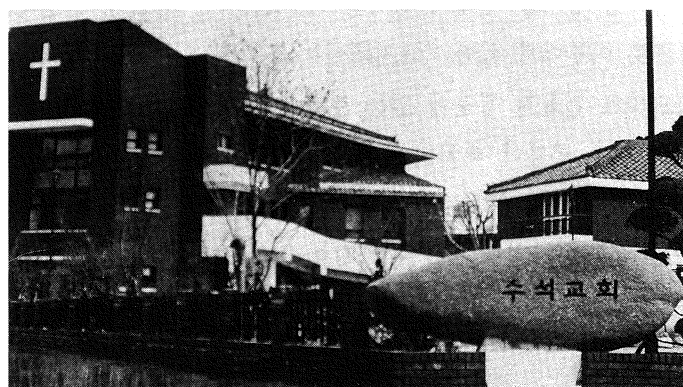
(사진 9-287)
동산교회 전경(권정부, 1987)



(圖 9-125) 동산교회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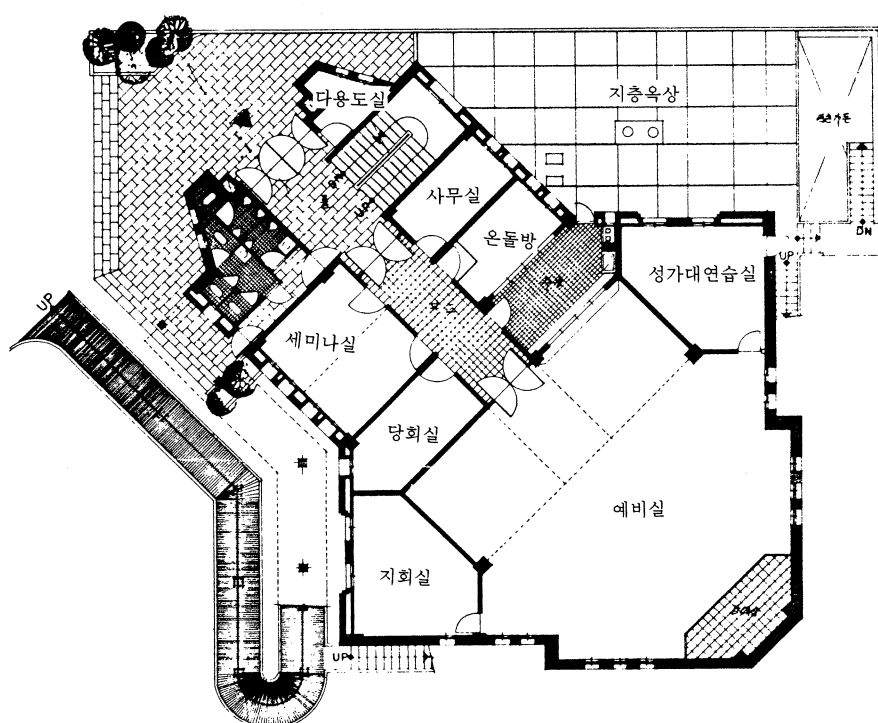
윤철준 설계의 수석교회(사진 9-288, 圖 9-126, 연면적:906.31㎡, 1988)는 사각형 평면의 다양한 조합에 의한 평면구성으로, 외벽에는 붉은 벽돌 치장쌓기를 한 건물이다. 지붕의 한식 기와는 외벽면의 붉은 벽돌과 색채의 통일성을 보인다.³⁷⁵⁾ 건물 내부는 1층에 소예배실과 부속실을, 2층에 대예배실을 두었으며 대예배실은 상부 천정을 뚫어 3층과 한 공간으로 사용토록 하였다.

375) 대한건축사협회 대구직할시지부, 『'88대구건축사 작품전』, 1988, pp.74 ~ 75.



〈사진 9-288〉

수석교회 전경(윤철준, 1988)



〈圖 9-126〉

수석교회 1층 평면도

80년대 말기에 지어진 장기웅 설계의 진각종 기로원(사진 9-289, 연면적:1,944.63㎡, 1988)은 모두 3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대지내에는 북측에 있는 관리실과 個室으로 구성된 2층 T자형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동측에 있는 보육실·보모실로 사용하는 조적조 건물, 서측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2층 법당이 배치되어 있다. 법당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목조 건축처럼 원기둥을 네 면에 돌렸으며, 지붕에는 한국 전통건축의 팔작지붕에 기와를 덮고 전통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층 난간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뚫린 圓型은 敎理를 상징한다.



〈사진 9-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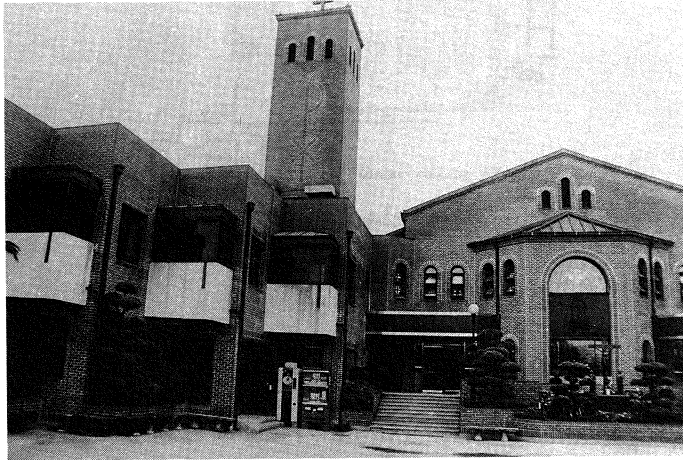
진각종 기로원 정면(장기웅, 1988)

1989년 11월에 완공된 김무권 설계의 신암성당³⁷⁶⁾(사진 9-290, 圖 9-127, 연면적:2,012.20㎡, 1989)은 91년 한국 건축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건물로 불규칙한 긴 대지를 이용해 鐘塔을 중심으로 성당과 사제관을 대칭으로 배치하였다. 주 진입로 입구에 위치한 사제관은 정면 벽을 층 단으로 돌출하도록 설계하여 채광의 효과와 함께 신자들이 들어가면서 동선을 따라 느끼는 강한 리듬감과 함께 본당을 향한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건물 외관은 붉은 벽돌로 처리하고 벽면에 아치형의 창을 두어 中世風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정면부에는 넓은 삼각형 지붕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반 육각형 亭子 모양의 돌출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공간에는 현재 1층 母子室과 2층 聖歌臺室이 들어 있어 외형상 美的인 안정감과 함께 공간 이용의 기능이 돋보인다.

그리고 建物 内部는 아치형 창이 스테인드 글라스(Stained Glass)에 투영된 부드러운 빛에 의해 차분하고 신비스러움을 자아낸다.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카톨릭의 상징인 십자가·밀·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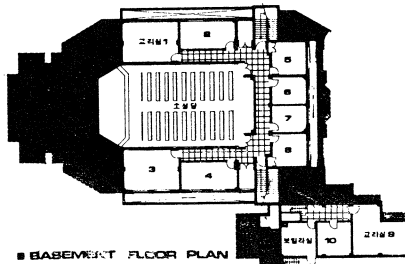
376)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직할시지부, 《大邱建築》3, 1992, pp.105~107.

고기·聖體 등이 추상적인 형태로 모자이크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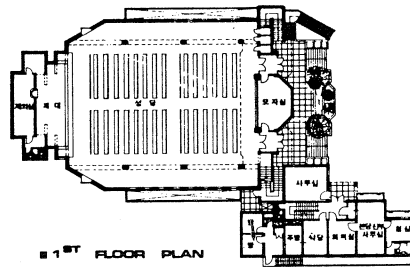


〈사진 9-290〉 신암성당 정면(김무권, 1989)

정면의祭臺는 넓은 공간에 화강암의 醴臺와 礎대 段이 靜的으로 감싸듯 놓여 있다. 벽면 2段으로 이루어진 十字架臺는 아래의 십자가 위에 예수상을 세워 놓았는데, 뒷면을 인공조명으로 처리해 은은하다. 祭臺는 전체적으로 입구에서 보았을 때 좌우가 대칭이고 祭臺 입구부분 벽면과 천장에서 부터 祭臺 끝쪽 벽면까지 증첩된 육면체 형태의 공간이 아치형을 이뤄 시선이 자연스럽게 제대 중심으로 모아지게 하고 있다. 특히 성당외부는 사제관과 종탑·성당 건물이 이어지는 스카이 라인의 조화를 위해 종탑을 아담하게 처리한 것이 뛰어나다.



① 지층 평면도



〈圖 9-127〉 ② 1층 평면도
신암성당 평면도(① ②)

89년에 완공돼 그해 〈大邱建築家協會〉 작품상을 받은 이정호 설계의 남구 대명동 베리따스의 집(사진 9-291)은 일반 교회건축은 아니지만 카톨릭 교회 피정의 집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은 명상과 침묵, 기도하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엄숙하고 격리된 느낌이 들도록 지어졌다. 우선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현관까지가 몇 걸음되지 않을 정도로 짧지만 이를 곡선으로 우회하도록 처리, 멀게 느껴지도록 하고 있다. 또 建物 外壁 외에 通路에 따로 독립된 외벽을 두고 있어 건물이 외부와 분리된 느낌을 주면서 안정감이 들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 통로 도입부에 사람



〈사진 9-291〉 베리따스의 집 전경
(이정호, 1989)

눈높이의 작은창을 두어 건물안 정원의 성모상이 언뜻 보이게 하고, 외부에서 바라본 건물 외벽에는 십자가 모양의 창과 아치형 창을 두어 宗教的인 분위기를 흠씬 풍긴다.

건물의 외벽에는 정교한 연속성과 모듈(Module)에 의한 사각형의 배치가 흥미롭다. 2층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모두 붉은 벽돌로 이뤄져 있으나, 2층의 3분의 2정도가 회칠로 되어 있다. 건물의 안정감이 들도록 黃金比로 채색의 대비를 보인 것이다. 灰칠 벽에는 날개 모양의 두 줄 붉은 벽돌띠를 둘러 벽을 3등분하고 있다. 벽면 중간 부분에는 건물을 돌아가며 정사각형의 깊이 있는 작은 창이 나있고, 이와 대비해 2층 아랫 부분 붉은 벽돌에는 흰색의 같은 크기로 정사각형이 연속적으로 받쳐주고 있다. 이같은 형식은 이 건물의 탑에서도 나타나

고 있다.

건물 내부는 導入部의 어두운 통로를 지나 로비(Lobby)에 들어서면 밝은 빛이 비추는데, 이는 1층 로비를 톱 라이트(Top Light)로 처리해 외부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이다. 또 避靜의 중심 공간인 지하의 큰방도 외부가 선컨 가든(Sunken Garden)으로 처리돼 어두운 계단을 내려오면 환한 방을 접할 수 있다. 이 선컨 가든(Sunken Garden)은 지하를 외부로 연결하는 통로로 원형의 건물 베란다를 따라 등글게 이루어진 계단으로 처리돼 이용자가 避靜 후 외부로 나올 때 다시 정신적으로 상승감을 맛보게 된다.

그리고 이우일 설계의 내당교회(1991)는 50m 도로변에 위치한 기존 건물이 있는 사다리꼴 모양의 대지를 이용한 건물이다. 대지가 사다리꼴형이라 건물의 平面을 三角形으로 구성하여 垜地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지붕의 박공면에는 격자형의 유리창을 시설하고, 右側에는 垂直 종탑을 세워 수직성을 강조하였다. 平面은 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禮拜空間·教育空間·천교행전 공간·서비스공간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원활한 동선 연결이 되도록 배치하였다. 특히 大禮拜室의 경우 예배기능 수행에 필요한 環境 및 與件造成 특히 음향·조명·색채·시선을 고려하여 실을 구성했다. 내부는 모든 사람 특히 노약자에게 모든 프로그램 참여가 용이하도록 出入 및 動線을 고려하여 경사로를 전 층에 연결하였다.

90년대 종교건축으로는 정진수 설계의 봉산교회³⁷⁷⁾(사진 9-292, 圖 9-128, 1992)가 있다. 現代美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 건물은 외부의 담장이 모두 직선의 기둥 위에 보를 얹은 상태에서 건물을 스크린(Screen) 형태로 감싸고 있다. 이 담장은 建物 壁體의 프레임(Frame)이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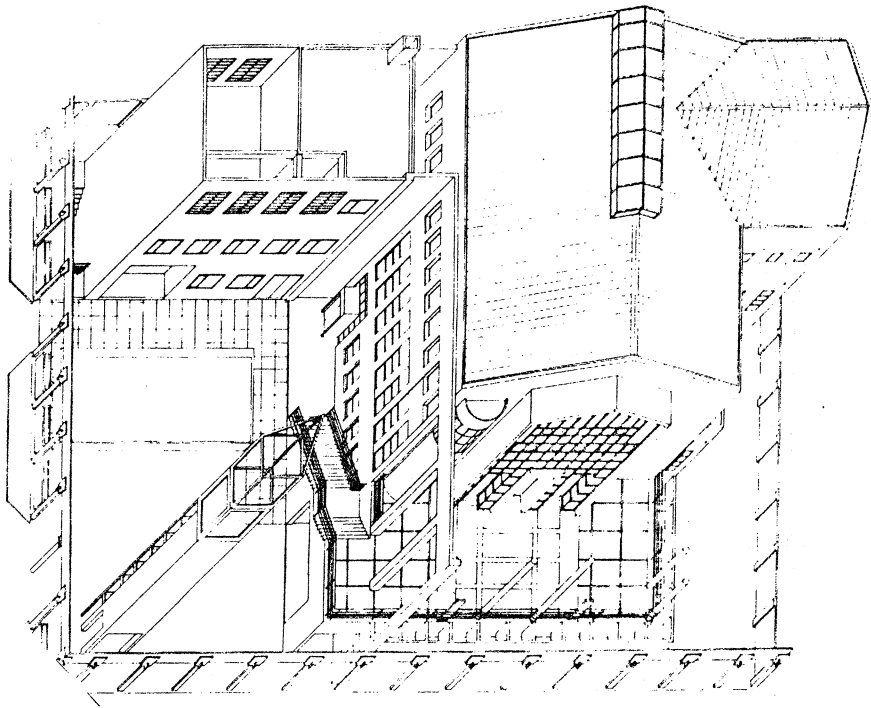


(사진 9-292)

봉산교회 전경(정진수, 1992)

377) (株)理想建築, 《月刊 理想建築》13, 1993. pp.66~71

로 뻗어, 마치 거대한 유리창의 프레임처럼 2층을 마감한 건물의 외벽과 조화를 이룬다. 따라서 北側에 廣場이 한정되게 형성되고 있다.



〈圖 9-128〉

봉산교회 투시도

外觀은 다른 교회당에 비해 다르게 혹은 현대적으로 보이나, 평면과 입면은 온전하진 않지만 지극히 전통적인 구성법을 따르고 있다. 建築物이라기 보다는 작은 構造物을 보는 듯한 건물의 외벽과 담장의 프레임은 彫刻品처럼 구성미를 자아낸다. 本堂의 西側에는 올려진 플랫폼(Platform)이 있어 아트리움(Atrium)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옥외공간을 형성하고 여기서 곧장 本堂 안으로 들어서게 된다. 다시 말해 屋外에서 本堂으로 바로 들어가게 의도되었다. 스테인레스(Stainless) 강철과 유리의 상자(입구)를 통해 본당의 聖所로 향하는 접근(Procession)軸이 형성되고 軸의 반대편 西側은 공원 부지로 숲이 있게 된다. 본당에 이르는 다른 입구는 地層의 출입구를 통해 원형 기둥이 늘어 선 복도 공간을 거쳐 2층의 본당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성직자를 위한 진입과 聖歌臺를 위한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본당의 북측 내부입면은 디자인의 근원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모티브(Motive)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부분은 화강암으로 정교하게 마감되었다.

정면의 대리석과 화강암의 벽면은 본당의 접근(Procession)이 연속되게, 심리적 상징적으로 그것이 연속되게 느껴지도록 方形의 틀 속에 3개의 문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추상적이고 합리적인 기독교적 理想郷의 이미지를 부각한다.

북측 날개 부분에 사무실·목사실·당회실·사찰·숙소 등 주로 행정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고, 저층에는 聖歌臺室을 비롯한 몇 개의 예배실 그리고 地下層에는 다소 규모가 큰 계단식의 예배실이 있다.

이와같이 80년대 이후 신축한 대구 교회건축은 건축의 질적·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교회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교회가 갖추어야 할 예배 본당·교육공간·전도 및 사회봉사 공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禮拜空間과 教育空間 정도의 空間規模만 갖추었다.

교회건축의 경우 몇몇 例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법칙에서 벗어남이 없이 천편일률적이며, 좀 더 다른 어떤 시도가 보여 지지 않지만 웅장하고 안정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적인 빈곤은 건물의 坪當 건축비와 설계비의 저렴화를 가져왔고, 그것은 바로 건축가의 습관적인 非創造的 설계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본다. 대다수의 교회가 현대인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빈 겹데기에 불과한 고딕양식을 변형하거나 혹은 입방체의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으로 단순히 양식적인 요소들을 사용함으로써 교회건물이라는 표시만 하고 있다.³⁷⁸⁾

이 밖에도 대구에는 佛敎계통의 조계종, 원불교(사진 9-293), 진언종, 진각종, 법화종 등의 각종 宗派와 사단법인 통불교 보살회를 비롯 대순진리회(사진 9-294), 천도교(사진 9-295) 등이 있다. 이들 각 종교 단체들도 자신들의 포교당이나 교육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포교당의 건축양식들



〈사진 9-293〉

원불교 교당 전경

378) 崔武革, 〈大邱의 都市와 建築에 關한 小考〉《故新 尹定燮教授華甲記念論文集 ‘韓國의 都市研究’》, 1990, p.305.

第9章 大邱의 建築

은 전통건축 형태에 현대적인 구조방식을 절충한 형식이나 현대적인 형식으로 건립되었다.



〈사진 9-294〉 대순종단 동부회관 정면



〈사진 9-295〉 천도교 교당 정면

〈表 9-4〉

대구의 종교 건축 연표

건 물 명 (설계자, 건축년대)	규 모 (연면적)	위 치	비 고
내당동 성당(1960)			
봉덕교회(이태수, 1975)		중구 봉덕2가 945-6	
평리성당(이성, 1984)	2,269.35㎡	서구 평리동	목구조, 한식기와
수성 천주교회(이기혁, 1985)		수성구 수성동	
원만사 대웅전(최상용, 1985)		중구 동산동	
성당동 성당(서정남, 1985)	1,559㎡		
성 베네딕트 수녀원(서보광, 1986)	10,580㎡	서구 성당동	
관덕정 순교기념관(김영태, 1986)		북구 사수동 135	
조계종 대구 금용사(백봉상, 1986)	326.66㎡	서구 성당동	
동명성당(김무권, 1987)			
수석교회(윤철준, 1988)	906.31㎡	수성구 중동 532-407	
동신교회(권정부, 1988)	4,597.65㎡	수성구 만촌동 856-4	
염화사(백봉상, 1988)	278.80㎡	수성구 파동 110-97	RC 및 벽돌조 철근콘크리트조
진각종 기로원(장기웅, 1988)	1,944.63㎡	서구 비산동 125-1	
베리파스의 집(이정호, 1988)			
신암성당(김무권, 1990)	2,012.20㎡	동구 신암동	목구조, 한식기와
용천사(백봉상, 1990)	66.00㎡	동구 백암동 175-1	
예수 성심 수녀원(김무권, 1992)		남구 대명동	
대구 제일교회(윤철준, 1993)		중구 동산동 234	
지산 제일교회(윤철준, 1993)		수성구 지산택지 개발 지구 14B-5	
봉산교회(정진수, 1993)	3,302㎡	달서구 본리동 145	

VII. 學校建築

교육은 국가 장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投資이고 解放以後 가장 발달한 것 중의 하나도 교육이다. 대구는 6.25동란으로 이하여 피점령 지구의 인구가 대구로 몰려들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 學校의 數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한국인의 높은 教育熱 중에서도 教育都市 대구의 교육열은 더욱 높았다. 1949년 12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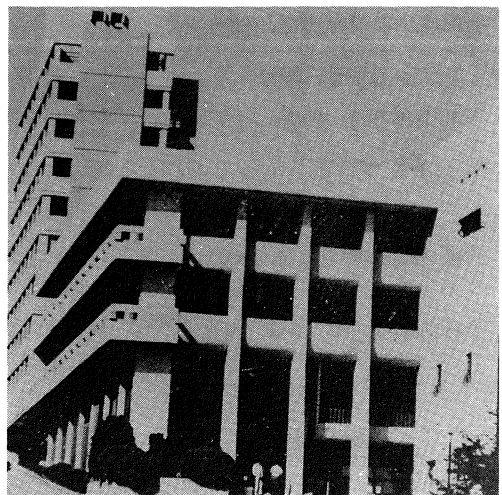
에 公布된 〈教育法〉으로 義務教育을 위한 구체적인 法的 조치가 강구되었으나 6.25동란과 1.4 후퇴 이후 많은 피난 학생들이 쇄도하여 이들의 就學問題가 큰 문제였다. 그러나 1952년에 教育自治制가 실시되면서 70%이던 就學率이 계속 상승하여 1957년도에는 100%에 이르게 되었다.³⁷⁹⁾

5.16이후 대구의 학령 아동 수는 계속 급진적으로 증가하여 학교 교실이 크게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1957년에 정경운이 설계한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가 대명동에 건립되는데 외부로 돌출한 복도와 수평성이 강조된 작품이었다.

1. 1960년대 학교건축

60년대 대구의 학교건축으로는 1964년 이성해 설계의 계성 국민학교(연면적, 16,085㎡)가 부채꼴 형식의 평면으로 준공되었다. 이듬해인 1965년에는 정경운 설계의 청구대학 교사(구 국세청, 연면적:4,909㎡, 지상 5층, R.C조)가 國際主義 樣式으로 건축되었다. 이 건물은 格子 構成의 매스(Mass)에 르 꼬르뷔제의 브레이즈 솔레유(Brise-Soleil:日照 調整을 위한 시설) 技法을 採用한 아름다운 比例의 作品으로 정면 돌출부에는 붉은 벽돌을 사용했다. 정경운은 1966년에 영남전문대학 3호관(지하 1층, 지상 12층)의 건물을 설계했는데, 간결한 격자형 외관구성이 돋보이는 이 건물은 그 이후의 학교건축과 양식적 맥락을 같이하는 표본적 건물이었다.

청구대학 교사에 이어 정경운은 1967년 일련의 구 대구대학(현 영남전문대학)건물을 설계했다. 이때의 개성있는 작품으로 영남전문대학 도서관과 현 영남대 의과대학이 있다. 현재의 영남전문대학 도서관³⁸⁰⁾(사진 9-296, 연면적:3,850㎡, 지하 1층, 지상 6층)은 필로티(Pilotis)와 상승감을 표현하는 전면 기둥 등에서 르 꼬르뷔제의 영향이 엿보이는 건물이다. 그리고 현 영남대 의과대학(구 대구대학 본관, 사진 9-297,



〈사진 9-296〉 영남전문대학 도서관 정면
(정경운, 1976)

379) 대구시사편찬위원회, 《大邱市史》 3, 1973, p.629.

380) 一山鄭慶雲教授 停年退任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一山鄭慶雲教授 停年退任紀念論文集》, 1978. pp.436 ~ 437

정경운, 지하 1층, 지상 5층)은 구조미를 표현한 수평적 흐름이 강한 건물로 옥탑층의 곡면 슬라브 지붕이 독특하다. 또한 김일진 설계의 구 대구대학 사무동은 르 꼬르뷔제의 스위스 학생회관의 필로티 방식과 유사한 개념이 도입된 작품으로 제물치장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사진 9-297〉

영남대 의과대학 본관 정면
(정경운, 1976)

1967년에는 청구대학(현 경북산업대학교 부지 내)이 김인호에 의해 설계되어 시공중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대구 건축계는 물론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Y자 형식의 4층 건물로 설계된 이 건물의 붕괴 사고는 당시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과 부실공사가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1970년대 학교건축

70년대에 들어와 학교들이 都心에서 外廓地로의 校舎를 移轉하기 시작했다. 대학의 경우 영남대학교가 경산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면서 많은 대학건물이 지어졌다. 1971년에는 영남대학의 상징인 22층의 중앙도서관이 정경운의 설계로 지어졌다. 영남대학 중앙도서관은 원래의 매스를 반으로 줄이고 대신에 높이를 두 배로 만드는 우여곡절 끝에 학교건축에 어울리지 않는 22층이나 되는 고층으로 세워진다. 그리고 1976년에는 합동건축이 설계한 경북대학교 공대 3호관(연면적:4,043㎡), 1978년에는 강성옥 설계의 효신 국민학교(연면적:5,781.55㎡, 4층), 1979년에는 대덕 국민학교(연면적:5,044.5㎡)가 건축되었다. 이어서 합동건축 설계의 대구여고 (연면적:9,057.9㎡)가 건설되는 등 80년대 학교 외곽지 이전의 전조를 알리게 된다.

3. 1980년대 학교건축

80년대에는 대학의 본격적인 外廓地 移轉과 대구시내 公·私立 中·高等學校가 住宅會社에 敷地를 賣却하면 이를 매입한 주택회사가 외곽지에 새 校舍를 건설해주는 조건으로 많은 학교가 이전 건설되었다. 이들 학교의 원래 敷地를 買入한 住宅會社는 거기에 大團地 集合住居 團地를 조성하여 분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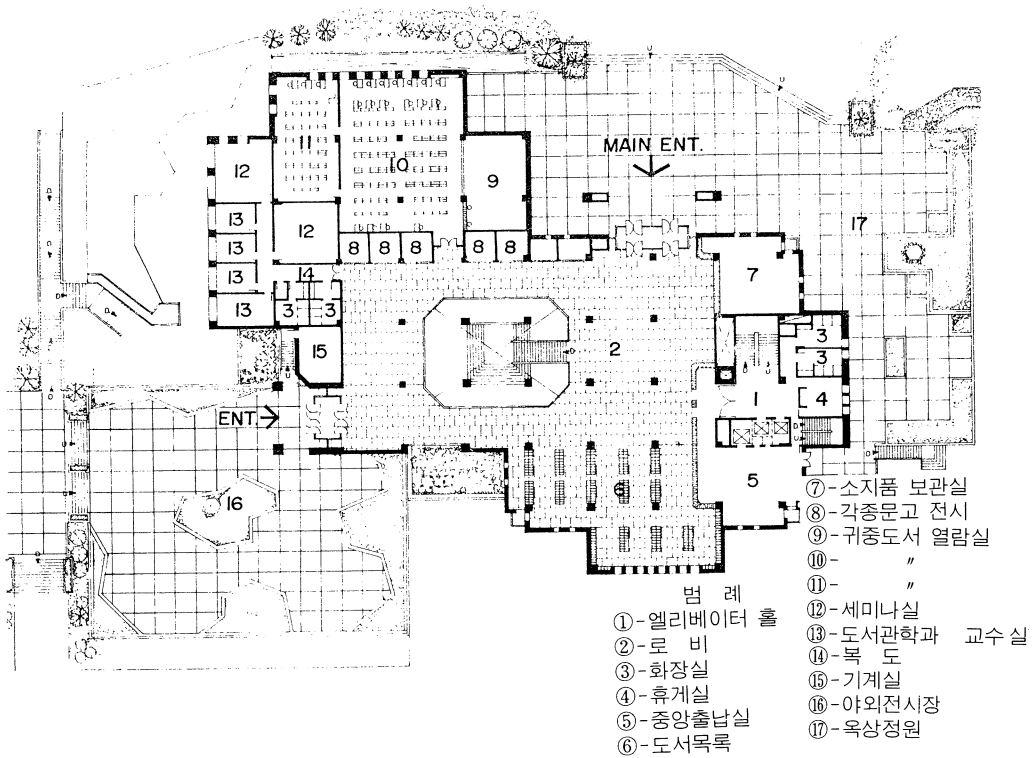
이 시기에는 入試 專門의 大型 學院들이 새로운 사업성을 가지고 도시 근교에 많이 지어지고 또 早期教育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갑자기 부각되면서 유치원이 많이 건축되었다.

80년대 초반의 학교건축의 대표적인 작품들만 소개하면 1980년 강성옥 설계의 대구 농고(연면적:20,287㎡, 4층)와 1980년의 김인호 설계의 경북대학교 대강당과 정주건축 설계의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사진 9-298, 圖 9-129)이 있다. 1981년 김무권 설계의 계명대학교 자연관(사진 9-299, 圖 9-130, 연면적:2,564.1㎡)과 합동건축 설계의 경북대 중앙도서관(사진 9-300, 연면적:14,393.5㎡)이 있다. 경북대 중앙도서관은 폐쇄형 차음벽과 중정을 둔 흥미있는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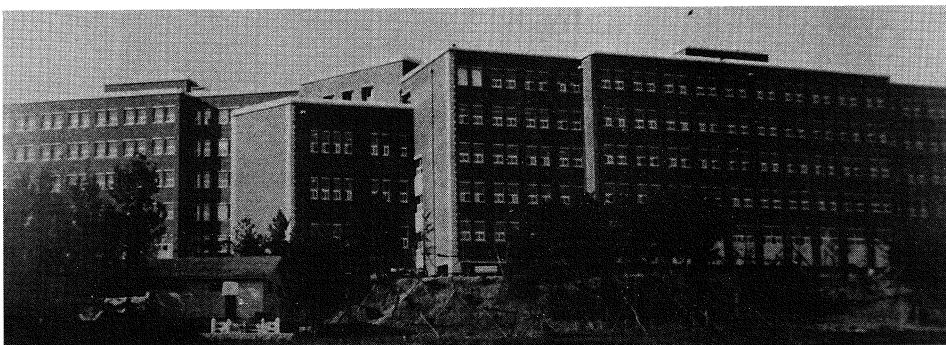
〈사진 9-298〉

계명대 중앙도서관 배면(정주건축,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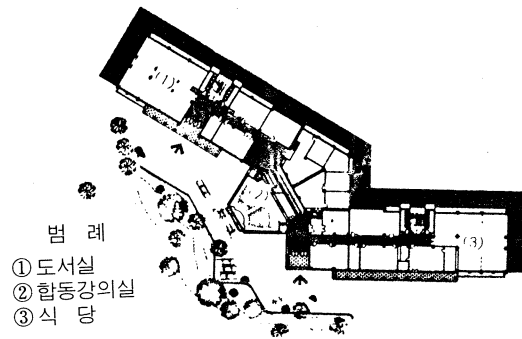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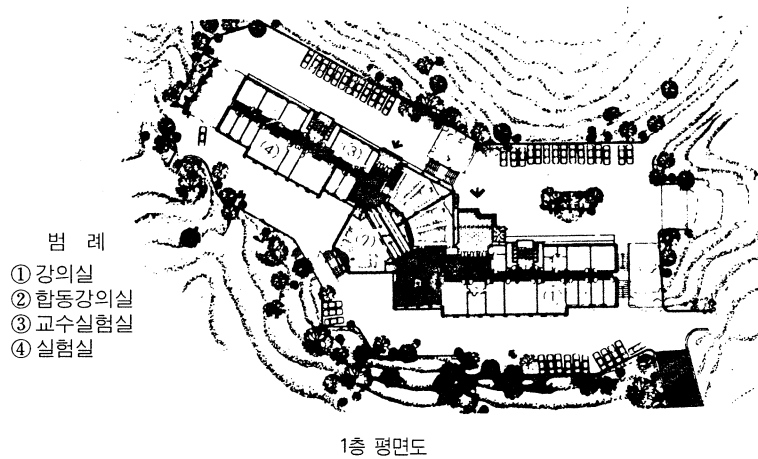
〈圖 9-129〉

계명대 중앙도서관 2층 평면도



〈사진 9-299〉

계명대 성서캠퍼스 자연관 전경(김무권, 1981)



〈圖 9-130〉

지하층 평면도

계명대 성서캠퍼스 자연관 지하층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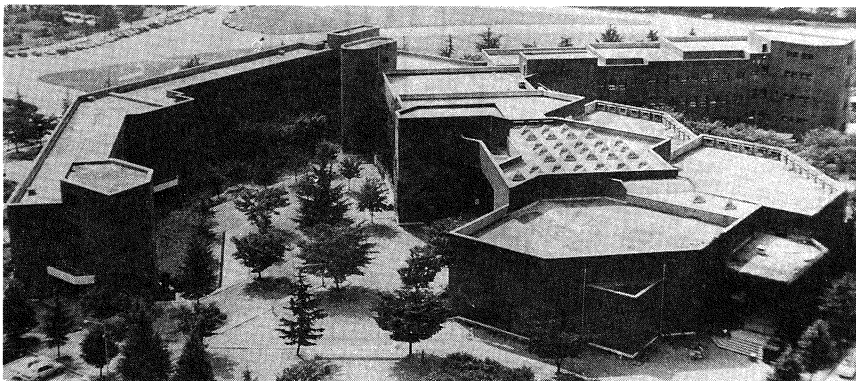
〈사진 9-300〉

경북대 중앙도서관 전경(합동건축, 1981)

이 밖에 현대적인 유치원 건물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합동건축 설계의 영희유치원(사진 9-301)이 1982년에 건축되었다. 또한 1982년 김영태가 설계한 영남대학교 사회관(사진 9-302, 圖 9-131, 연면적:13,054㎡)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붉은 벽돌로 치장한 외벽에 머리가 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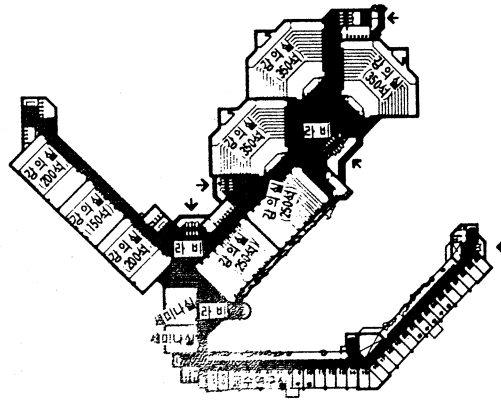


(사진 9-301) 영희유치원 정면(합동건축,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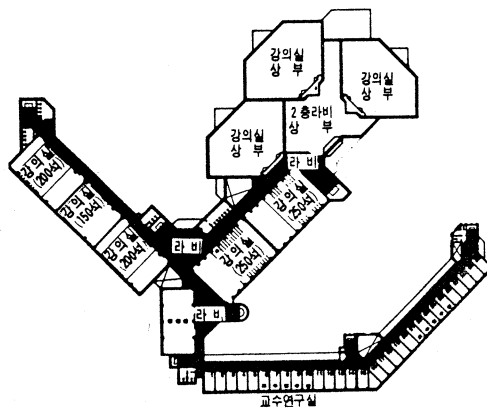


(사진 9-302) 영남대 사회관 원경(김영태, 1982)

T자형으로 이뤄진 이 건물은 대형건물의 특성상 4개의 블록으로 나뉘 건립되었다. 구분된 블록은 익스펜션 조인트라는 독특한 공법으로 연결돼 있다. 배치는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진 건물부지를 해치지 않고 바닥면을 구릉의 경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안치했다. 이에따라 이 건물의 전면부인 교수 연구실과 중형 강의실 부분은 4층이고, T자형 꼬리부분인 대형 강의실 부분은 1층이다. 건물내부 복도도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낮은 계단으로 처리했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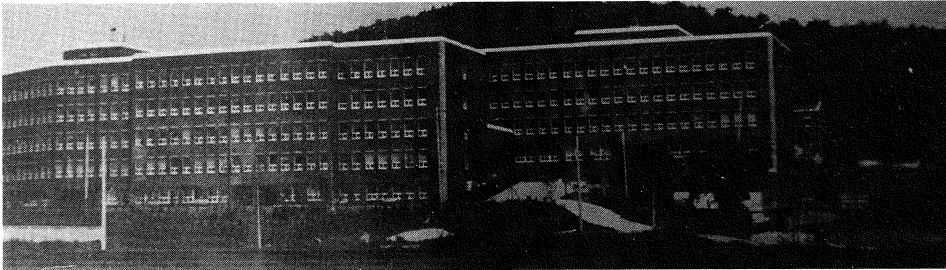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圖 9-131〉 영남대 사회관 2,3층 평면도

80년대 중반의 학교건축으로는 윤태식 설계의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에 상경대학(사진 9-303, 圖 9-132), 강정공 설계의 혜성학원, 임팔암 설계의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 학생회관³⁸¹⁾(사진 9-304, 圖 9-133, 연면적:2,837.4㎡)이 있다. 계명대학교 학생회관은 경사진 언덕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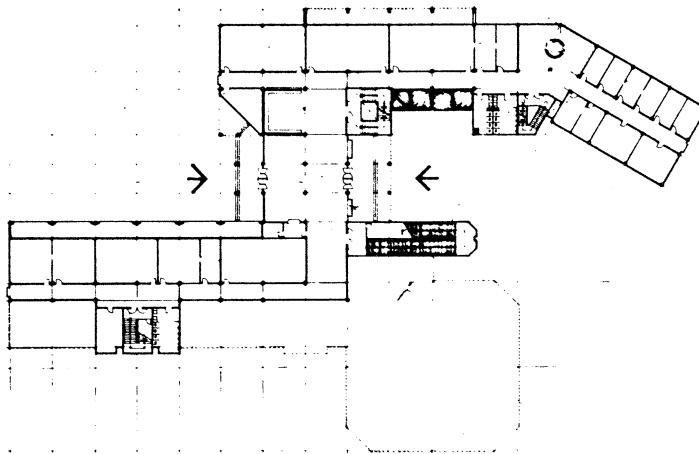
381) 月刊 建築文化社, 《月刊 建築文化》49, 1985, pp.80~83.

切土하지 않고 건물을 세워 1층에서 4층까지 건물 내부는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上層으로 갈수록 면적이 넓어진다. 또 건물의 지붕을 초가지붕 형태의 모임지붕으로 처리하여 학교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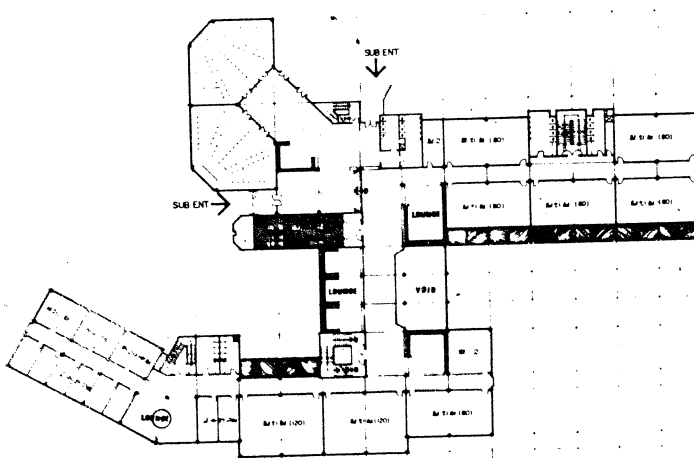


〈사진 9-303〉

계명대 성서캠퍼스 상경대학 전경(윤택식, 1984)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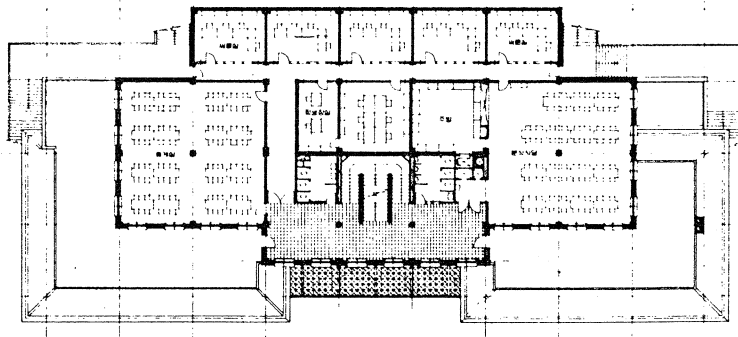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圖 9-132〉 계명대 성서캠퍼스 상경대학 1, 2층 평면도

에서 보이는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外部 休息空間을 두었으며, 이 외부 휴식공간은 건물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건물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 현관을



〈사진 9-304〉 계명대 성서캠퍼스 학생회관 전경(임팔암,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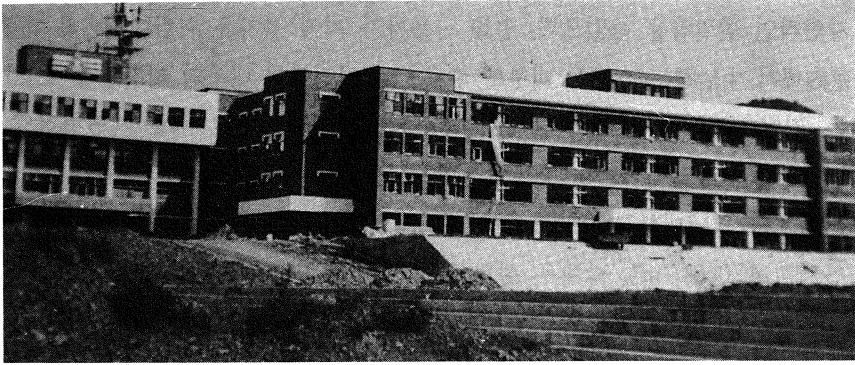


〈圖 9-133〉 계명대 성서캠퍼스 학생회관 3층 평면도

중심으로 날개를 뻗어 平行性的 調和를 이루고, 처마의 3단의 들여쌓기와 외벽의 붉은 벽돌이 지붕과 함께 浪漫的인 景觀을 표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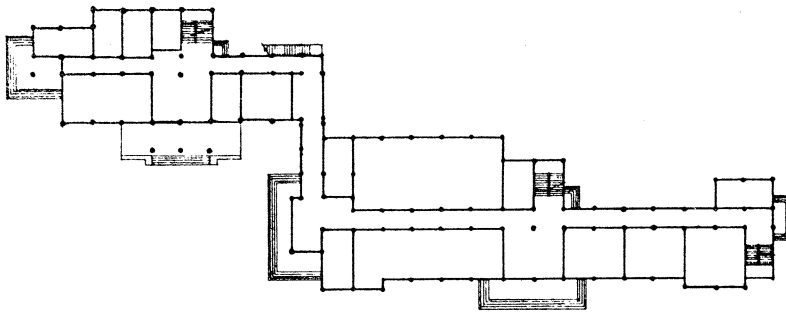
이외에도 1982년 강성옥 설계의 경덕 여고(연면적:6,153㎡) 그리고 강정공 설계의 원화여고 조양회관(연면적:4,190.853㎡)이 복합 용도를 가진 건물로 건축되었다. 1984년 강성옥 설계의 경북고등학교(사진 9-305, 圖 9-134, 연면적:21,005㎡)와 합동건축 설계의 계명대학교 제2건물(합동건축, 연면적:19,074.5㎡), 대구 상고(연면적:16,543.87㎡)가 기본종합계획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또한 이태수 설계의 제일 여상과 이성 설계의 경북대학교 다목적 강당,

정의용 설계의 영남대학교 제2도서관, 임대규 설계의 달성고등학교 다목적실, 임팔암 설계의 보육원이 준공되었다. 이 밖에 1984년 김두아 설계의 대구교육대학 예술관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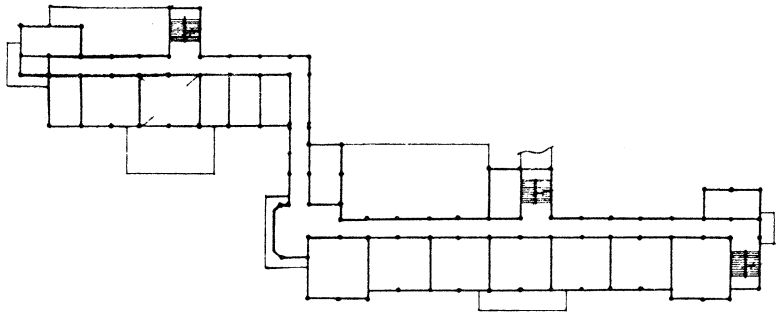


〈사진 9-305〉

경북고등학교 전경(강성욱, 1984)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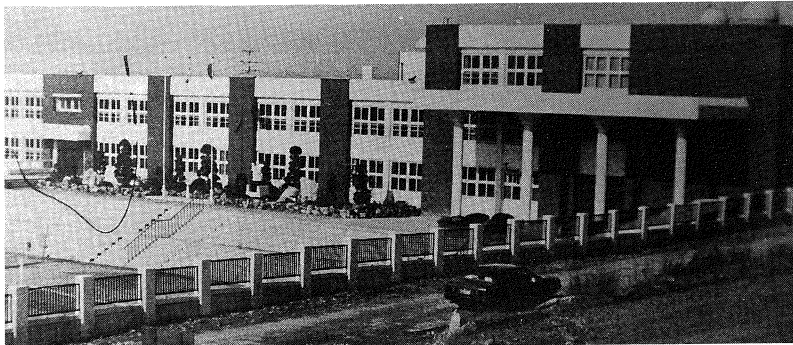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圖 9-134〉

경북고등학교 1,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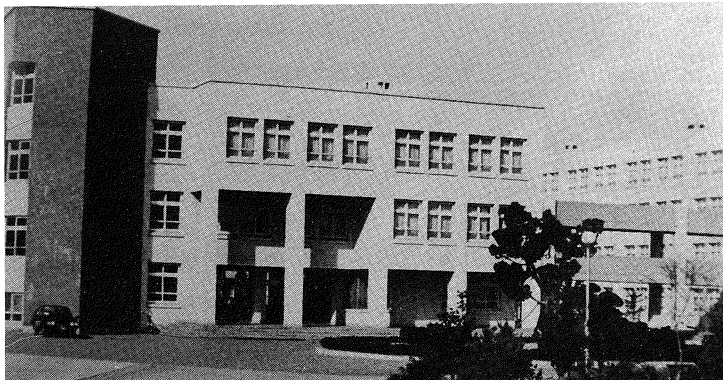
이때 지어진 김무권 설계의 요한바오르 2세 어린이 집³⁸²⁾은 韓國宣敎 2百周年을 맞아 1984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한 요한 바오르 2세 교황께서 관심을 가진 지체 부자유 어린이들을 위하여 마련된 건물이다. 건물의 외벽과 지붕은 붉은 벽돌 치장쌓기에 스페니쉬 기와 잇기로 하여 전체 형태에 자연적인 친밀감을 주었으며, 건물 사용자가 지체 부자유 어린이들이라 대부분의 하루 시간을 室內에서 生活하므로 건물 내부를 中庭으로 처리하여 내부의 쾌적함을 도모하였다.

1985년에는 김인호 설계의 수용인원 2,100석 규모의 경북대학교 예술관(연면적:7,124㎡)과 정의용 설계의 영남대 음악대학이 건축되었다. 1986년에는 이중우 설계의 계명대학교 학생기숙사와 김무권 설계의 영남대학교 미술대학(연면적:4,798.2㎡), 도시건축 설계의 경북실업전문대학 양지관(연면적:41,066.07㎡), 박재우 설계의 남양 국민학교 (사진 9-306, 연면적:5,972.0㎡)



〈사진 9-306〉

남양국민학교 전경(박재우,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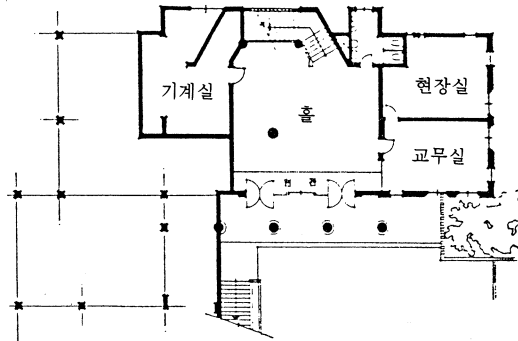


〈사진 9-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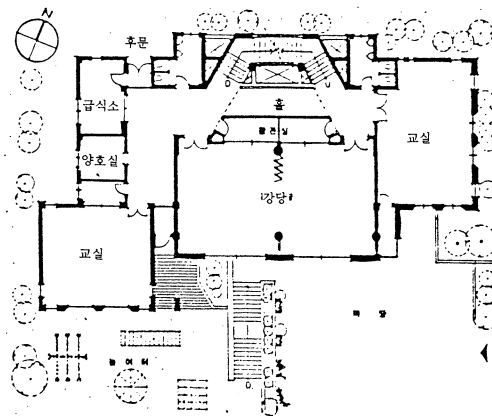
대구여중 전경(박몽룡, 1988)

382)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직할시지부, 《大邱建築》 창간호, 1987, pp.82~83.

등이 지어졌다. 또 1987년에는 김무권 설계의 계명대학교 노천강당(연면적: 729.3㎡), 최찬 설계의 경동 전문대학 호산관(연면적: 2,591.55㎡)이 건축되었으며, 1988년에는 김무권 설계의 영남대학교 제 2화학동(연면적: 7,425㎡), 윤철준 설계의 영남신학대학(연면적: 8,912.97㎡), 박몽룡 설계의 대구여중 (사진 9-307, 圖 9-135, 연면적: 14,610㎡) 등이 건립되었다.



1층 평면도



〈圖 9-135〉

2층 평면도

대구여중 1, 2층 평면도

유치원의 경우 1982년 대구의 본격적인 유치원 건물이라 할 수 있는 영희 유치원이 신축되면서 많은 유치원이 새로 지어졌다. 1986년에는 임대규 설계의 분도유치원과 최병달 설계의

제일유치원, 배태현 설계의 꿈동산 유치원 (사진 9-308), 장원열 설계의 헤림 유치원 (연면적:774.44㎡)이 지어졌다.

제일유치원은 전면 캐노피(Canopy)와 지붕에 기와를 얹고 외벽은 붉은 벽돌로 마감했다. 1988년에 지어진 이견호 설계의 가나 유치원은 ㄱ字形 평면의 건물로 교실 前面의 半圓形 베란다와 긴 수평창이 있는 外觀이 독특하다. 박승규 설계의 범어동 경남 유치원(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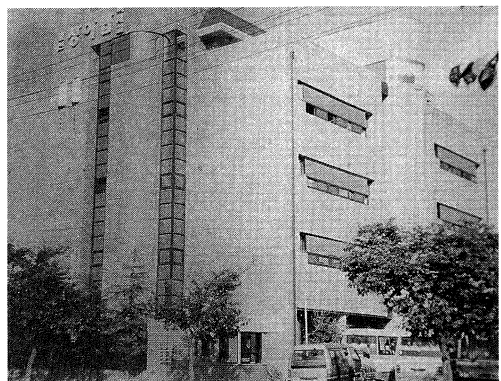
〈사진 9-308〉

꿈동산 유치원 정면(배태현, 1986)

726.65㎡)은 동화 속의 나라를 形象化한 듯한 垂直의 圓形塔에 의한 外觀 構成이 異色的으로 보이는 건물이다. 평면은 地層의 大空間을 遊戲室로 1층에 교실과 원장실·교무실을, 2층에 주방과 교실 및 작은 방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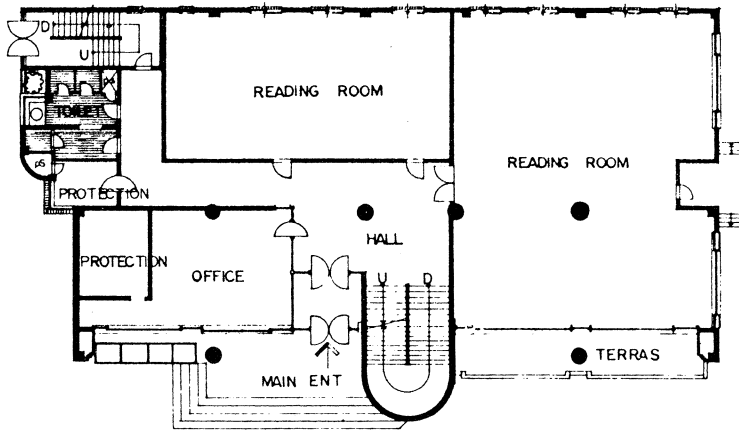
90년대 초반에도 박몽룡과 전중배 두 사람 설계의 영남 중·고등학교과 도시건축 설계의 대륜 중·고등학교(연면적:21,739.47㎡), 김원 설계의 계명대학교 공대, 이정호 설계의 대구대 농대(연면적:2,970㎡, 지하 1층, 지상 4층), 서종달 설계의 리라 유치원 (연면적:490.26㎡)과 장호 설계의 솔라 유치원이 있고, 독서실로서는 강정공 설계의 상아탑 독서실 (사진 9-309, 圖 9-136, 연면적:1,859.05㎡)과 김충삼 설계의 금자탑 독서실 (연면적:1,400㎡) 그리고 효목동의 서당골 독서실(연면적:988.98㎡) 등이 있다. 이밖에도 강성옥 설계의 율하 국민학교와 관음 여중(연면적:5,877.46㎡) 등이 건립되었다.

1992년에 건축된 계명대 성서캠퍼스 중앙도서관(사진 9-310, 연면적:21,575.4㎡)은 대구의 建築物로서는 드물게 全國 懸賞公募를 통해 當選된 作品으로 이중우·정의용·김무권 3인의 공동작이었다. 이 건물은 大學의 中心이라는 中央圖書館의 重要性을 감안, 건물 자체의 造形性和 實用性 뿐만 아니라 立地 選定과 주변 造景 등을 세심하게 고려한 작품이었다.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 외벽은 계명대 캠퍼스 특유의 분위기를 再現하기 위해 붉은 벽돌과 화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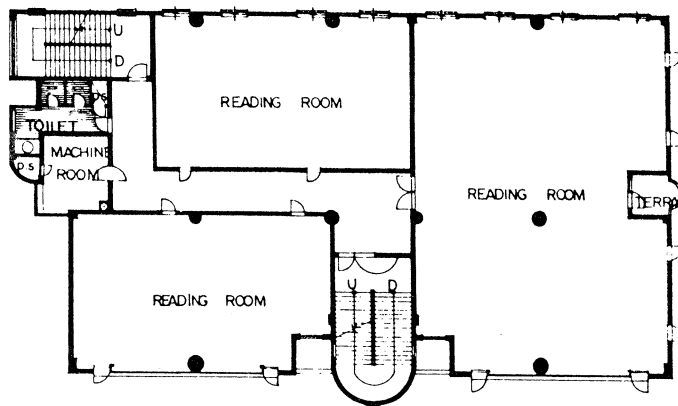


〈사진 9-309〉

상아탑 독서실 전경(강정공, 1990)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圖 9-136〉

상아탑 독서실 1,2층 평면도

석으로 마감됐다. 또 遠近感을 주어 단일 건물이면서도 외부에서 바라볼 때 重疊되는 모습을 보이도록 의도되었다. 도서관 내부는 자연 채광을 위해 2층부터 7층까지 트인 中庭을 도입하고, 건물 각층 코너에는 教授와 學生들의 研究를 위해 研究室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空間分割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의 학교건축은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많은 건물이 건



〈사진 9-310〉
계명대 성서캠퍼스 중앙도서관 전경(김무권·이중우·정의용, 1993)

축되었으나 그 중에 建築的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作品은 몇 작품에 불과하다. 무릇 대학캠퍼스나 중·고등학교 등의 학교건축은 먼저 미래 指向的인 아카데미식 플랜(Academic Plan)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學校 基本計劃이 장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작성된 후 個別建物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조급하게 지어졌다. 뿐만 아니라 특히 大團地 集合住居 地域에 新設되는 각급 학교의 경우 團地計劃의 初期段階부터 학교건축과 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선 順位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학교와 같은 公共施設이 항상 集合住居 건축 뒤에 건립되는 졸속행정을 되풀이 해 왔다. 사정이 이러하니 학교건축의 건축적 측면에서 初創期 60년대의 학교 건물에 비해 構造, 平面, 形態 등이 크게 발전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表 9-5〉

대구의 학교 건축 연표

건 물 명 (설계자, 건축년대)	규 모 (연면적)	위 치	비 고
계성국민학교(이성, 1964)	236㎡	남구 대명동 1737	지하 1층, 지상 12층
영남공업전문대학 3호관(정경운, 1966)			
청구대학 교사(구 국세청)(정경운, 1965)			
영남공업전문대학 도서관(정경운, 1967)	3,850㎡	남구 대명동 1737	지하 1층, 지상 6층
영남대 의과대학 본관(정경운, 1967)	1,129㎡	남구 대명동 317-1	지상 6층
영남대 중앙도서관(정경운, 1971)			

건 물 명 (설계자, 건축년대)	규 모 (연면적)	위 치	비 고
경북대 공대 3호관(합동건축, 1976) 효신국민학교(강성옥, 1978) 대덕국민학교(강성옥, 1979) 대구여고(합동건축, 1979)		동구 신천동	
대구농고(강성옥, 1980) 영남공업전문대 본관(합동건축, 1980) 대구 외국어학원(합동건축, 1980) 경북대 대강당(김인호, 1980) 계명대 중앙도서관(정주건축, 1980) 경북대 중앙도서관(합동건축, 1981) 계명대 자연관(김무권, 1981) 시립 두류도서관(합동건축, 1981) 경덕여고(강성옥, 1982) 영남대 사회관(김영태, 1982) 영희유치원(합동건축, 1981) 계명대 학생회관(임필암, 1983) 계명대 상경대학(윤태식) 혜성학원(강정공) 경북고등학교(강성옥, 1984) 대구상고(합동건축, 1984) 대구교육대학 예술관(김두아, 1984) 대구여중 이진공사(박몽룡, 1984) 요한 바오르2세 어린이집(김무권, 1984) 경북대 예술대학(김인호, 1985) 대구 남양국민학교(박재우, 1985) 산격여자중학교(강성옥, 1985) 경북대 다목적강당(이성, 1985)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이태수, 1985) 보육원(임필암, 1985) 해림유치원(장원열, 1985)	4,535.6㎡ 14,393.5㎡ 2,564.1㎡ 1,226.5㎡ 2,837.4㎡ 2,605㎡ 21,005㎡ 16,543.87㎡ 2,277.36㎡ 14,610.845㎡ 5,972.0㎡ 6,971㎡ 6,998.0㎡ 871.9㎡ 779.44㎡	남구 대명동 317-1 북구 산격동 산 166 달서구 파산동 산1-1 동구 신천동 321 달서구 파산동 대구 두류동 수성구 황금동 달서구 상인동 남구 대명동 북구 침산동 402-2 수성구 지산동 1022 북구 복현동 경북대내 서구 본리동 156 수성구 수성 4가 서구 본리동 292-4	

건 물 명 (설계자, 건축년대)	규 모 (연면적)	위 치	비 고
분도유치원(임대규, 1986)			
꿈동산유치원(배태현, 1986)	779.44㎡		
계명대 학생기숙사(이중우, 1986)			
제일유치원(최명달, 1986)	1,325.5㎡	수성구 수성동	
계명대 제2학생회관(김무권, 1986)	9,952.8㎡	달서구 파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영남대 미술대학(김무권, 1986)			
계명대 노천강당(김무권, 1987)	729.3㎡	달서구 파산동	수용인원 7,000명
청원학원(최찬, 1987)	4,290.36㎡	수성구 만촌동 1331-1	
경북대 화학관(배항복, 1987)	4,628㎡		
경동전문대학 호산관(최찬, 1987)			
경남유치원(박승규, 1987)	726.65㎡	수성구 범어동 산 1358	
영남대 제2 화학동(김무권, 1988)			
영남신학대학(윤철준, 1988)	8,118.87㎡		
영남공업전문대 학생회관(합동건축, 1989)			
영남중·고등학교(박몽룡, 1990)	22,427.88㎡	달서구 상인동 766-2	
대륜중·고등학교(도시건축, 1990)	21,739.47㎡	수성구 만촌동	
금자탑 독서실(김충삼, 1990)	1,400㎡	중구 동인동 4가	
상아탑 독서실(강정공, 1990)	1,859.05㎡	남구 대명동 448-2	
계명대 공과대학(김원, 1991)			
대구대 농대(이정호, 1991)			
리라유치원(서종달, 1991)	490.26㎡	남구 송현동 1969-4	지하 1층, 지상 2층
솔라유치원(장호, 1991)	1,168.12㎡	수성구 지산동 1201-5	
울하국민학교(강성옥, 1991)			
북현중학교(최원영·이원기, 1991)	5,513.14㎡	북구 북현동 300-17	
서당골 독서실(강정공, 1991)	988.98㎡	동구 효목동 627-27	지하 1층, 지상 4층
관음여자중학교(강성옥, 1991)	21,575.4㎡		
계명대 중앙도서관(김무권, 1992)		달서구 파산동	지하 2층, 지상 7층

VIII. 호텔建築

호텔(Hotel)은 旅行者의 宿泊施設로서 성질상으로는 여관, 여인숙 등과 같지만, 일반적으로 객실과 함께 자유로이 쓰이는 로비(Lobby)나 식당등의 공공 공간이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또한 설비면에서도 중앙 난방과 급탕 및 자유로운 목욕시설이 완비된 고급한 숙박시설이 호텔이다.

호텔의 종류는 그 위치와 지역별에 따라 시가지 호텔(City Hotel)과 관광지 호텔(Resort Hotel)의 2종으로 나뉘어진다. 시가지 호텔은 교통 및 상업의 중심지인 도시에 위치하여 일반 관광객 외에 상업 사무 등 각종 비즈니스를 위한 여행자에 대해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반면 관광지 호텔은 각종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숙박 대상으로 삼고, 넓은 공공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객실도 시가지 호텔에 비해 매우 넓다.

近代的인 호텔의 시작은 19세기 産業革命 以後였다. 그 始初는 1850년에 파리에 세워진 그랜드 호텔(Grand Hotel)이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호텔 시초는 인천 일본인 거류지의 대불호텔(1889)로, 그 후 서구식 호텔인 손탁호텔(1902), 조선폰텔(1914), 현 롯데호텔 자리에 반도호텔(1938) 등이 세워졌다.³⁸³⁾

1960년 이후에는 觀光地의 宿泊을 위한 호텔과 외국인을 위한 관광호텔이 성황을 이루어 온양온천호텔(1960), 제주관광호텔(1962), 해운대극동호텔(1967), 한려수도 관광호텔(1970), 프라자호텔(1976), 부산의 조선 비취호텔(1976), 경주 조선폰텔(1976) 등이 건립되었다. 1980년 이후에 각종 호텔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대구의 호텔건축은 1960년 이전까지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고, 60년대 이후에 비로소 서서히 건설되었다. 윤영도 설계의 대구 종로호텔(사진 9-311) 이 1969년에 세워졌으며, 그후 70년대에 들어와 윤영도 설계의 로얄호텔(사진 9-312, 1970), 이병일 설계의 동인호텔(연면적: 5,568.47㎡, 1978) 등이 건립되었다.

호텔건축은 1980년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때 지어진 호텔들은 주로 都心에 위치하여 비즈니스와 외국 여행자들의 편리한 숙박과 시민들의 사교를 위한 공간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1982년에 합동건축 설계의 뉴영남 호텔(연면적: 5,981.81㎡)과 동산 호텔, 김인호 설계의 국제호텔이 건립되었다.

383) 尹一柱, 〈건축〉《韓國現代美術史》, 국립현대미술관, 1978, pp.20~27.



〈사진 9-311〉
종로호텔 정면과 우측면(윤영도,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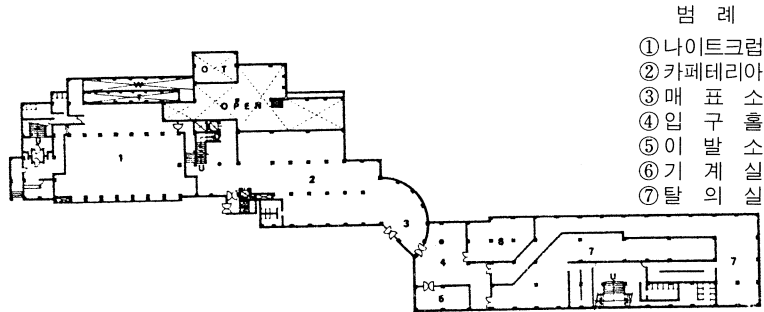
〈사진 9-312〉
로얄호텔 전경(윤영도, 1970)

또 1986년에는 협동건축이 설계한 본격적인 리조트호텔(Resort Hotel)인 대구 파크호텔 (사진 9-313, 圖 9-137 연면적:14,932.02㎡)³⁸⁴⁾이 만촌동 망우공원 안에 지어졌다. 이 호텔은 회칠한 흰색의 외벽 그리고 오렌지색 스페인식 기와, 1층 외벽의 아케이드(Arcade)식 처리 등으로 스페인풍 건축 분위기가 느껴진다. 현재는 増築 工事로 6층 건물이 되었지만 建築時에는 4층으로 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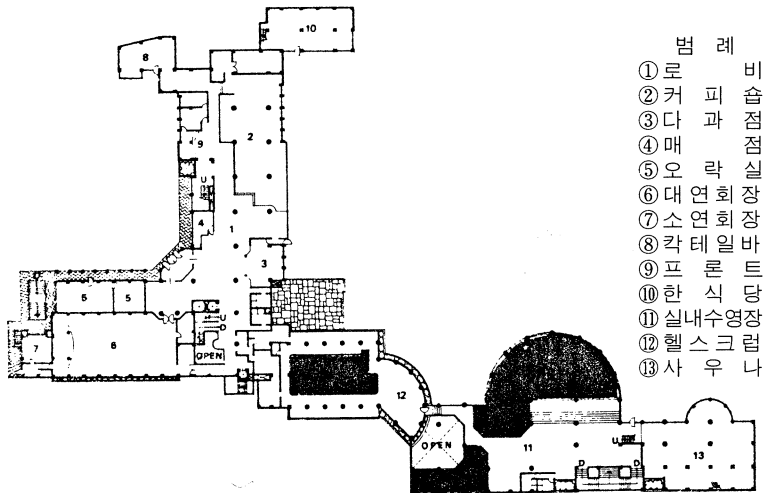


〈사진 9-313〉
대구 파크호텔 전경(김성환, 1987)

384) 月刊 建築文化社, 《月刊 建築文化》66, 1986, pp.96~103.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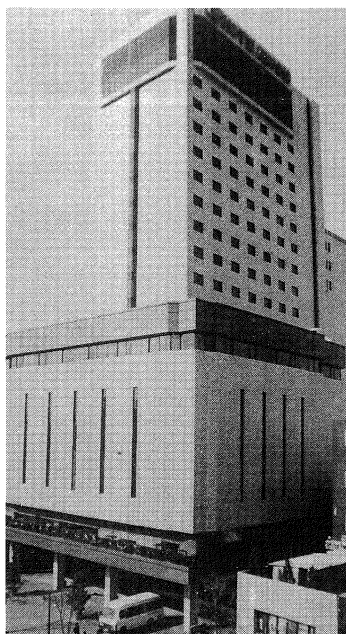
〈圖 9-137〉

대구파크호텔 1,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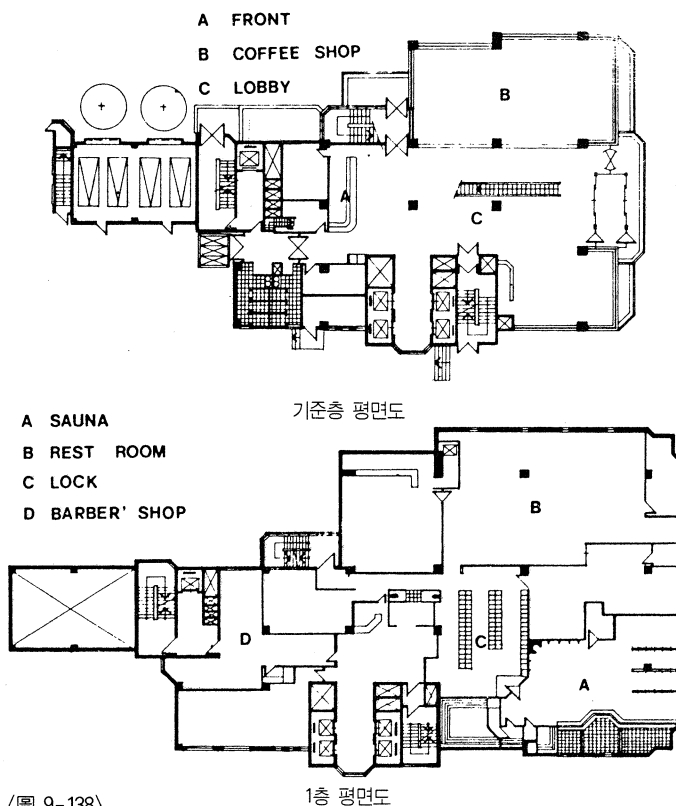
그리고 建物 全體 面積에서 宿泊施設과 레저 시설의 비율을 같게 하고, 레저시설 부분에 社會體育 關聯 施設을 많이 만든 것도 이 호텔의 또다른 特徵이다. 이에 따라 3개의 넓은 실내 수영장과 야외 수영장을 시설하였다. 또 客室 數를 최대한 줄인 반면 로비는 대형 호텔에 걸맞게 넓게 하였으며, 中庭의 대형 폭포·옥외수영장·잔디광장 등의 경관 視覺的으로 室內로 끌어들이는 배려를 하였다. 실내 수영장에서 복잡한 傳統 韓屋 형태를 흉내낸 것 등 다소의 문제점도 있다.

1987년에는 김인호 설계의 팔공산 관광호텔(1987), 이기혁 설계의 금호호텔(사진 9-314,

圖 9-138, 연면적:18,631.6㎡, 1987) 등이 지어졌고, 1988년에는 김성환 설계의 크라운 관광호텔 (1988), 1989년에 김성환씨의 아리아나호텔 (사진 9-315, 1989)과 크리스탈호텔 (사진 9-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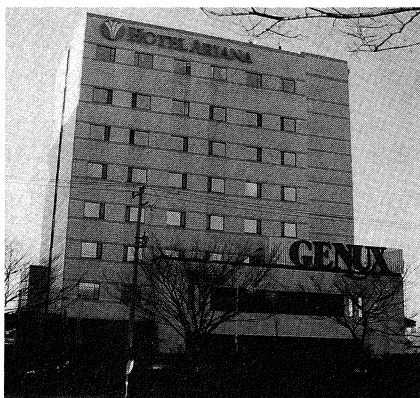


〈사진 9-314〉
금호호텔 전경(이기혁, 1987)



〈圖 9-138〉

금호호텔 기준층과 1층 평면도



〈사진 9-315〉
아리아나호텔 정면(김성환, 1989)



〈사진 9-316〉
크리스탈호텔 정면(김성환, 1989)

1989)이 각각 준공되었다. 1990년에는 이기혁 설계의 대구 가든호텔 (사진 9-317, 연면적:5,710.43㎡, 1990)을 비롯 프린스 호텔 (사진 9-318), 그랜드 호텔 (사진 9-319) 등이 건축되었다.



〈사진 9-317〉 가든호텔 전경(이기혁, 1990)



〈사진 9-318〉 프린스호텔 전경(1992)



〈사진 9-319〉 그랜드호텔 전경(1992)

〈表 9-6〉

대구의 호텔 건축 연표

건 물 명 (설계자, 건축년대)	규 모 (연면적)	위 치	비 고
대구중로호텔(윤영도, 1969)			
로얄호텔(윤영도, 1970)	18,631.6㎡	수성구 범어동 177-7 중구 동산동 36 중구 하서동 수성구 만촌동 산98-1 수성구 두산동 200-1 달서구 두류동 1196-1	
동인호텔(이병일, 1978)			
뉴영남호텔(합동건축, 1982)			
동산호텔(합동건축, 1982)			
국제호텔(김인호, 1982)			
금호호텔(이기혁, 1987)			
팔공산관광호텔(김인호, 1987)			
대구파크호텔(김성환, 1987)			
아리아나호텔(김성환, 1989)			
크리스탈호텔(김성환, 1989)			
크라온관광호텔(김성환, 1988)	5,710.43㎡		
대구가든관광호텔(이기혁, 1990)		남구 봉덕동	
프린스호텔(1992)			
그랜드호텔(1992)			

IX. 病院建築

대구에 西洋式 病院이 처음 들어온 것은 歐美 宣敎 團體들과 日本人에 의해서다. 初創期 대구에 건축된 병원으로는 改新敎 宣敎師들이 지은 동산병원(1905, 1931년신축), 日本의 官立 대구 자혜병원(1910), 天主教의 성 요셉 진료소(1931), 도립 대구의원(현 경북의대병원:1933) 등이 있었다.

이들 병원 중 먼저 지어진 舊 동산병원과 대구 자혜병원건물은 燒失되어 지금 남아 있지 않다. 당시 병원의 構造는 주로 벽돌조였고 外壁은 벽돌, 內壁은 灰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였으며 平面은 주로 一字形의 中複道式이었다.

60년대에 들어와 각급 병원·의원 등의 醫療業所가 증가하게 되면서 專門的인 個人 병원 건물이 많이 건축되었다. 이는 의사·한 의사·치과의사 등의 醫療業者의 總數가 1954년 303명에서 1967년에는 871명으로 2.9배 불어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60년대 중반 이전에는 診療

施設과 附帶施設을 機能的으로 分離시킴으로써 시설간의 相互 補完이 어려웠다. 그러나 中半 이후부터 진부한 空間概念에서 탈피하여 진료시설과 부대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병원의 기능에 적절하게 附屬하는 병원건축이 건축가 金一鎭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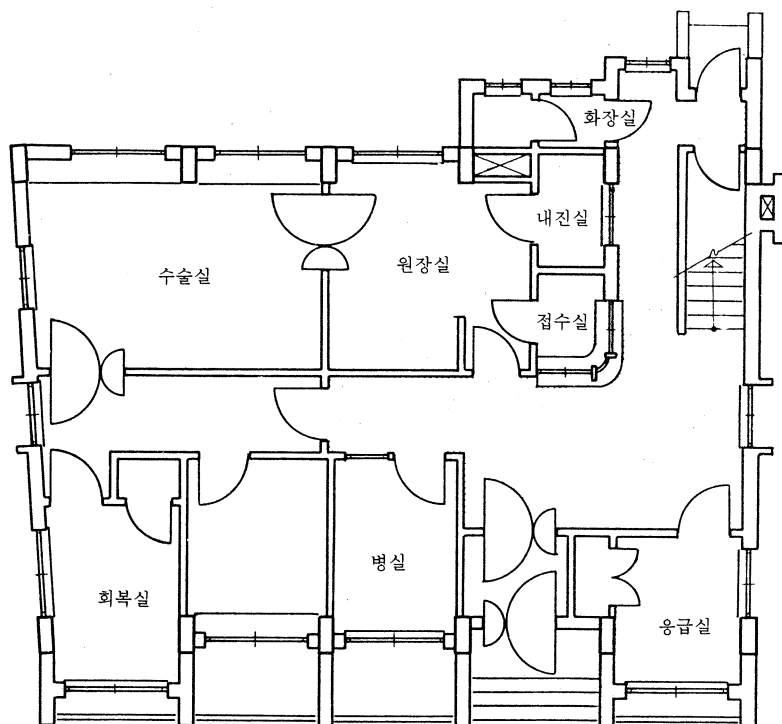
60년대 중반의 대표적인 병원 건축으로는 최성구 정형외과(김일진, 1965)와 노 이비인후과(김일진, 1966)와 황준식 외과(김일진, 1966), 김성림 내과(김일진, 1968), 차 소아과(김일진, 1968), 공 외과(김인호, 1967) 등이 있다. 이 시기 병원건축을 주도한 김일진이 설계한 병원들은 대부분 외관에 있어서 정면 현관을 중심으로 分割된 比例에 의한 단아한 建築美가 돋보이는 작품들이었다.

70년대에 들어오면 專門 醫療人 대량 배출과 함께 전문의원, 진료소, 병원이 많이 건립되었다. 당시의 주요 작품으로는 배 내과의원(윤옥, 1970), 동인 의원(윤옥, 1973), 윤수환 산부인과(사진 9-320, 圖 9-139, 박두용, 1973), 지성의원(현 광동한의원, 박두용, 1975), 자생의원(박두용, 1976), 아세아 신경외과(이성, 1975), 계명대학교 의과대학(김인호, 1979) 등이 있다.



〈사진 9-320〉 윤수환 산부인과 정면(박두용, 1973)

80년대에는 개인병원과 함께 종합병원도 많은 건립되었다. 이 시기 前半의 병원건축으로는 대구 카톨릭병원(김인호, 1980), 광 외과의원(합동건축, 1981), 이재윤 산부인과(이태수, 1981), 현대병원(합동건축, 1983), 영남대학교 의료원 (이광노·박두용, 1983), 성누가 의원(김화자, 1984) 등이 있다.



〈圖 9-139〉

윤수환 산부인과 1층 평면도

이들 병원건축 중에서 대명동 영남대학교 의료원³⁸⁵⁾(사진 9-321, 圖 9-140, 이광노·박두용, 1983)은 지하 3층, 지상 13층의 高層病院으로 現代化된 醫療 機資材의 각종 設備과 신속한 병원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垂直動線을 이용한 집중형 시스템을 채택한 초현대식 종합병원의 모델로 인정 받았다. 이 건물은 의료 기자재를 사용하는 방사선 진료부를 地下에 두고 기자재의 운반 등 서어비스 동선은 高低差를 이용하여 側面에서 직접적으로 進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外觀 구성에 있어 病棟部를 대규모 수직적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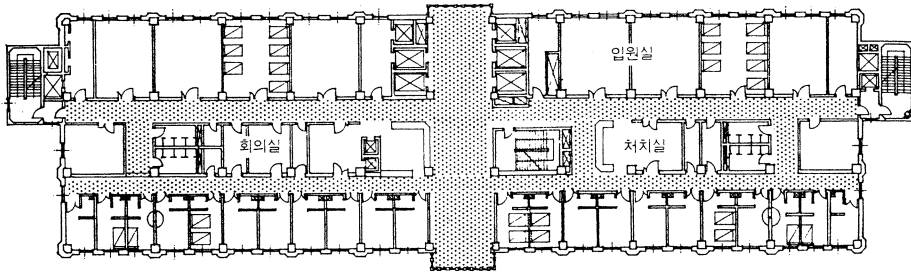


(사진 9-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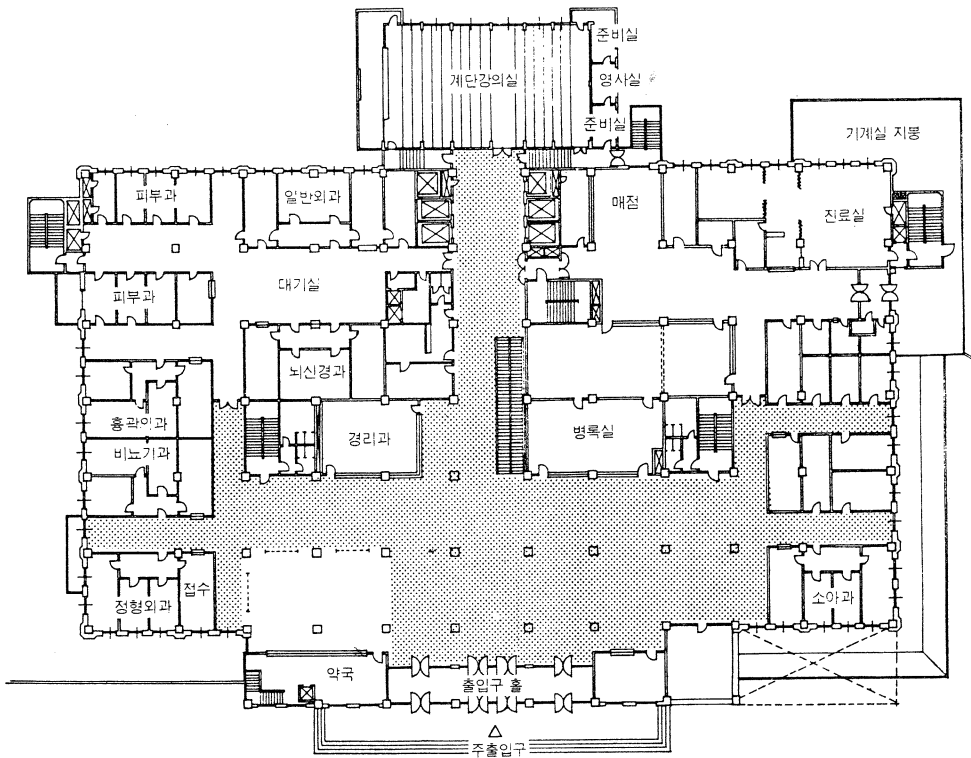
영남대 의료원 전경(박두용·이광노, 1983)

385) 雪松 朴斗涌教授 華甲紀念作品集 刊行委員會, 《雪松 朴斗涌教授 建築作品集》, 1993, pp.73~78.

스(Mass)로, 저층부를 水平的인 매스로 처리하였으며, 또한 진입하는 사람들이 心理적으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步行路와 車道를 분리하였다. 그리고 응급 동선은 건물 右側의 우회동선을 사용하도록 하여 主進入 동선과 분리시켰다. 건물 外壁面은 대규모 건물에 미리 타일이 부착된 PC패널을 외벽면에 조립하는 새로운 工法을 채택하여 전체벽면을 마감하였다.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圖 9-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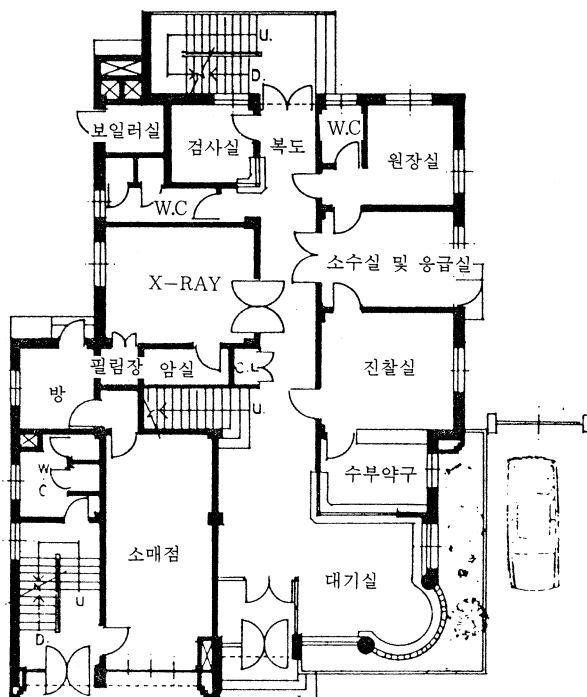
영남대 의료원 기준층 및 1층 평면도

80년대 中後半의 병원건축으로는 광재영 외과(최찬, 1985), 전의식 의원(강정공, 1986), 또 김영희 외과의원(사진 9-322, 圖 9-141, 김화자, 1986), 남재우 정형외과(서보광, 1986), 김대연 산부인과(사진 9-323, 윤철준, 1987), 동산 의료병원(윤철준, 1987), 이 선생빌딩(임봉수·최병국, 1987), 이 정형외과의원(김화자, 1987), 도영구 외과(서보광, 1988), 효성산부인과(사진 9-324, 홍성규, 1989), 조호철 신경정신과의원(석용길)등이 있다.

위 건물 중에서 김화자 설계의 이 정형외과의원은 율동적인 外觀構成과 돌출 창문이 돋보이는 건물이다. 건물의 主出入口는 도로에 면해 모서리에 나 있고, 주출입구 上部에는 같은 폭의 수직 全面 유리창이 4층까지 설치되어 있



(사진 9-322)
김영희 외과의원 전경(김화자,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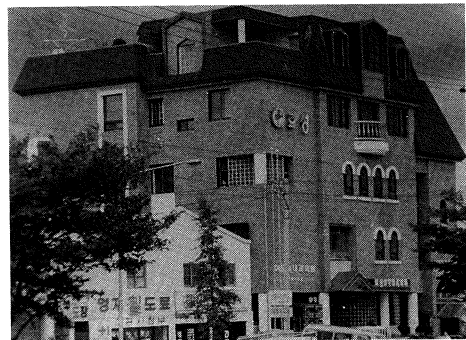


(圖 9-141) 김영희 외과의원 1층 평면도



〈사진 9-323〉
김대연 산부인과의원 정면과 좌측면
(윤철준, 1987)

또한 홍성규 설계의 효성 산부인과(사진 9-324)도 주거 및 병원 복합건물로 전체적으로 균제된 고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건물 전면에 선컨(Sunken)부를 도입하여 지하공간의 채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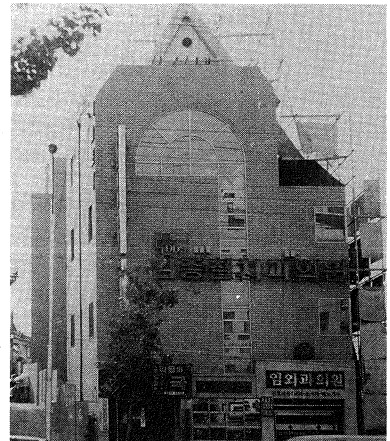


〈사진 9-324〉
효성산부인과 전경(홍성규, 1989)

이처럼 80년대는 의료 인구의 급작스런 증가로 大型 綜合病院의 건축이 늘어나 병원의 大型化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中小規模의 專門 醫院과 병원도 많이 건축되어 대구의 병원 건축이 質的, 量的 두 측면에서 모두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80년대 중반부터 정면의 독특한 구성과 벽면과 지붕면의 내민창이 시설되고, 外壁에 타일이나 벽돌을 사용하여 병원의 깨끗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정면 파사드(Facade)를 강조하기 위해 수직·수평의 층단 들여 쌓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 시기 대부분의 개인 의원이 低層에 병원을 上層에 住居를 둔 複合用途의 건물로 많이 건립된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90년대에 들어와 임외과 의원(김형모, 1990), 대영 정형외과(김팔섭, 1990), 성서 정형외과(임봉수, 1991), 제일 신경외과(이택봉, 1991) 등의 병원건축이 차례로 지어졌다. 이 중 성서 정형외과 건물은 붉은 벽돌을 사용한 彫塑的인 형태의 건물로 전체적으로 곡면에 의한 리듬감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또 이 건물은 中央에 있는 수직창으로 강력한 垂直軸이 형성되어 균제성에 의한 장중함이 느껴진다. 또 假壁으로 형성된 상층부 파라페트(Parapet)의 연속적인 원형 창이 리듬감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김형모 설계의 임외과 의원(사진 9-325, 연면적:846.90㎡, 1990)은 정면 파사드의 폭이 좁은 수직창과 큰 반원의 유리창, 간결한 박공지붕 및 도로측 측면의 테라스(3층 옥상부)가 돋보이는 건물이다. 평면은 2층을 병원으로, 3~4층을 주거로 사용하는 병원·주거 복합건물에 맞게 구성되었다.



(사진 9-325)
임외과의원 정면(김형모, 1991)

(表 9-7)

대구의 병원 건축 연표

건 물 명 (설계자, 건축년대)	규 모 (연면적)	위 치	비 고
최성구 정형외과(김일진, 1965)			
노 이비인후과(김일진, 1966)			
황준식 외과(김일진, 1966)			
공 외과(김인호, 1967)			
김성림 내과(김일진, 1968)			
차 소아과(김일진, 1968)			
김인과(김일진, 1970)			
보광의원(박두용, 1970)			
배 내과의원(윤옥, 1970)			
이 산부인과(김일진, 1971)			
유대우 안과(김일진, 1971)			
박애 산부인과(김일진, 1971)			
김 소아과(김일진, 1972)			
이동식 외과(김일진, 1972)			
이영식 이비과(김일진, 1972)			
청구 외과(김일진, 1972)			
신 피부과(김일진, 1973)			

건 물 명 (설계자, 건축년대)	규 모 (연면적)	위 치	비 고
효성 산부인과(홍성규, 1989) 성서 정형외과(김봉수, 1989) 박 내과의원(김화자, 1990) 대영 정형외과(김팔섭, 1990) 신화 치과(서보광, 1990) 제일 신경외과(이택봉, 1991) 임 외과의원(김형모, 1991)	303.12㎡ 846.90㎡	달서구 두류동 487-35 달서구 이곡동 1000-190 수성구 수성동 1가 서구 평리동 1450-1 동구 신천동 605-9	지하 1층, 지상 5층

X. 住居建築

住居는 대다수 사람들의 生活相이 具體的이고 綜合的으로 投影되는 文化的產物로 거기에는 그 時代의 生活 뿐 만아니라 社會相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주거를 통해서 그 시대 사회를 지배한 가치와 감정 및 사유체계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초 이후 近代化(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겪었다. 즉 경제적으로는 농경 위주에서 공업 위주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經濟로 전환되었으며, 이같은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價値와 制度 그리고 規範 등의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住居形態 및 住生活에도 매우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 종래의 전통적 생활방식에서 서구적인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했고, 이는 곧 住居形態의 변화로 나타났다.

70년대 초반에는 60년대의 산업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離農 現狀이 두드러지면서 都市 過密化가 표면화되었다. 이는 특히 도시에서의 주택 부족과 不良 無許可 住宅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주택 문제는 경제 개발정책의 주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주택건설의 양산 체제 유도, 주택가격의 안정, 公共部門의 서민용 소규모 주택 건설의 확대 등의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³⁸⁶⁾

그러나 주택에 대한 투기 붐이 70년대 後半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여 1978년의 8.8조치를 비

386) 鄭俊鉉, 《都市單獨住宅의 空間利用行態에 關한 研究—大邱地域의 大衆住宅을 中心으로—》啓明大學校 博士論文, 1994. p.14.

릇한 일련의 투기 억제책이 공표되는 등 주택 문제는 한층 악화되었다.

70년대의 서민住宅는 기술의 진보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平面구성 및 外部形態에 있어서 크게 변화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난방 시스템의 개발과 위생설비의 개선이었다. 난방방식은 70년 初期의 개별 연탄온돌에서 개별 연탄보일러로 바뀌었고, 後半에 들어 와서는 집중식 연탄보일러로 바뀌면서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부엌바닥은 마루나 방과 같은 높이를 유지하게 되었고, 실의 배열이 집중되면서 60년대까지 유지되어 오던 從來의 傳統的인 평면형식이 서민주택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평면형식이 定着되었다. 이와 함께 위생설비의 발달로 60년대 대문간에 위치하던 변소가 부엌에 인접하여 室内로 流入되었다.

外觀 形態面에서는 70년대에 들어와 대중화된 콘크리트 평지붕과 타일 및 화강석·콘크리트 블럭·시멘트 벽돌 등의 다양한 外裝材가 출현하여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民間部分에서 서민주거로 建設되기 시작한 아파트가 설비의 고급화와 기능적인 평면 구성으로 점차 그 선호가 높아지면서 차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는 大邱市가 1981년 直轄市로 승격되면서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와 주택 가격안정, 임대주택 제도개선, 주거수준 향상 등을 위한 長期 綜合開發計劃을 수립하였다. 이때 많은 주택이 건설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화와 택지 이용의 효율화라는 觀點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급이 늘어났다. 이는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政府次元에서 政策的으로 유도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점차 아파트의 편리한 거주성과 편의시설 등에 일반 시민들이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80년대 단독주택에서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外觀材料의 사용이다. 70년대 벽면에 많이 사용된 타일이 붉은벽돌이나 화강석 마감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또 옥상 지붕의 사용 증대와 종래의 전통 한옥 기와지붕에 대한 향수로 속칭 눈썹지붕의 형태가 도시 서민주택의 지붕에 많이 사용되었다.

1980년대에는 경제적인 수준과 生活의 質이 향상되면서 주택의 質도 다양화 고급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난 심각한 부동산 과열현상으로 주택을 사용가치보다 경제적 교환가치로 생각하는 잘못된 風土가 사회에 만연되면서 住居文化가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³⁸⁷⁾

387) 정준현, 앞의 논문, p.19.

1. 단독주택

1) 1960년대 단독주택

60년대는 韓國社會에 있어서 큰 전환점으로 초기에는 4.19와 5.16에 따른 정치 사회적 격동을 겪었으며 이후 점차 經濟成長을 통하여 社會開發이 계획적으로 誘導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해방과 6.25의 혼란한 사회를 극복한 시기이자 自立經濟를 위한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했던 시기로서, 도시의 인구집중에 의하여 주택의 量的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62년 당시 대구의 家口數는 12만7천6백99호로, 이것이 10년 후인 1971년에는 22만8천932호로 1962년에 비해 44.2%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택 數는 1962년의 7만4천1백98호에서 10년후인 1971년에는 10만7천663호로 1962년에 비해 33.1% 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따라서 住宅不足率은 1962년에는 41.9%였던 것이 1971년에는 53.0%로 높아졌다.³⁸⁸⁾

따라서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5개년 계획에서는 住宅建設 計劃을 수립하여 주택의 부족량을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인구증가에 따른 受容증가와 불량주택 개량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公營住宅 建設에 주력하였다.

또한 경제개발과 함께 급격히 증가된 도시인구에 對應하기 위해 小型住宅 건설에 역점을 두었으며 都市地域 土地利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住宅供給에 대한 金融支援을 확대하기 위해 1969년에 주택은행이 설립되었다. 주택은행의 設立 목적은 民間資本을 최대한 유치하여 민간의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아울러 정부에서는 〈주택공사〉의 설치(1962)와 〈도시계획법〉(1962), 〈건축법〉(1962), 〈토지수용법〉(1963), 〈주택자금운용법〉(1963),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 등의 법 제정을 통해 주택건설을 촉진하였다.

이 시기 대구시의 경우 1957~1966년의 10년간에 총 1만4동의 주택이 건설되었다. 그 중 1천 81동이 시립주택이고, 8백11동이 주택공사와 산업은행 용자로 지은 것이며, 8천112동이 민간 건립의 주택이었다.³⁸⁹⁾ 이 당시 民間에 의해 건설된 住宅은 대부분 재래 한옥형과 개량 한옥형이었으며, 당시의 주요 주택지는 주로 동인동 국민 주택지와 그리고 파동 국민 주택지를 중심으로 群集되어 있었다.

60년대 대구의 단독주택은 주로 도시형 한옥과 韓·洋 折衷의 개량형 1층 주택이 대부분이었다. 당시의 보편적인 민간주택이었던 도시형 한옥에서는 기존의 취사 및 난방 연료가 나무

388)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 3, 1971. pp.520~522.

389) 위의 책, p.552.

에서 연탄으로 代替되었다. 개별 연탄아궁이가 보편화되면서 부엌공간 이용패턴에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바닥 높이 등의 구조적인 형식은 재래식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부엌 上部에는 전통주택처럼 다락을 설치하고 수장공간으로 사용하였다. 都市形 한옥들은 이러한 개별 난방의 한계 때문에 종래의 一字形이나 ㄱ字形的 홀집 형태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러한 도시형 한옥의 경우 각 室은 대청을 중심으로 左右에 각각 안방과 건너방이 위치하고, 안방 아래쪽에 부엌이 連接하며 부엌의 아래쪽에 사랑방이 붙은 전통한옥의 평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내부공간에서 마루는 안방 다음으로 중요시 되는 공간으로, 주택의 中央에 위치하며 住居內 出入 및 轉移 空間의 기능을 했다.

또한 60년대 도시형 한옥에서는 전통주택에서 볼 수 있는 ‘안방’의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平面形이 ‘一’자형인 경우 안방은 대개 南向하지만 ‘ㄱ’자 ‘ㄷ’자 평면의 경우 마루가 남향하게 되고, 안방은 東向 또는 西向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방이 대문간에서 제일 안쪽에 위치하고 부엌과 직접 접해있다는 점이 전통주택의 屬性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방은 가정생활의 中心空間으로 여기서 식사·취침·휴식·취미 등의 가족간의 유대 및 응접과 접객 등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多目的 空間으로 사용되었다.

이 시기 주거내에서 마루는 마당과 방을 연결하는 轉移空間으로써 취침과 응접 등 안방기능이 여과되는 補助的인 生活空間으로 이용되었으며, 부엌은 주부의 가사활동공간으로 조리를 비롯하여 세탁이나 세면 그리고 목욕 등의 부수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다. 60년대 후반에 들어와 화장실이 室內에 설치됨에 따라 그 前까지 부엌에서 이루어지던 위생행위가 室內로 流入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극히 일부였으며 대다수 부엌은 複合用途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마당은 전통주택의 마당과 같이 住生活 領域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緩衝空間이자 외부생활의 중심이었다. 각 실은 마당을 통해 출입이 이루어졌으며, 가사작업과 가정의 儀禮行爲가 마당에서 행해졌다. 그리고 마당 한편에는 팔래터와 장독대를 두어 실내공간의 부족한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마당은 대문과 가정생활의 중심인 안방을 연결하는 매개 공간으로서 접객과 응접 그리고 가족의 주생활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부 생활공간으로 중요시 되었다.

반면에 개량형 주거들은 10~15평 안팎의 적은 평면으로서 전통적 한옥의 평면형식을 탈피하고 근대적(서구적) 생활양식을 고려한 평면형식을 취함으로써 상당한 관심과 住居選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들 개량주택들은 오늘날 내부가 상당히 改造되거나 新築등으로 헐려나가 原形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개량형 주거는 마루방을 전면에 두고 그 뒤로 작은 방을 만들어 이 방이 부엌과 연결되게 하는 평면구성으로 겹집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적극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최소공간에 계획적인 수장공간을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평면구성에는 다소 변화가 나타났으나, 부엌 및 욕실·변소는 설비기술의 미발달로 여전히 채래 주택과 같이 室外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엌은 연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채래식 부엌이 대부분이었으며, 욕실과 변소 등의 設備空間은 대문간에 별도로 설치되었다. 특히 변소의 경우 지금과 같은 수세식이 아니라 제거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일부의 주거에서 洋屋의 주거형식을 받아들이면서 부엌이 채래식에서 立式부엌으로 개조되고, 욕실과 변소가 실 내부공간으로 들어오는 등 공간이용 개념상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건축재료로 ब्ल릭 및 시멘트 유리제품이 주택시공에 적극 이용되면서 양옥과 한옥의 절충형식인 벽체와 기초는 ब्ल릭조로 하고 처마·서까래·보 등은 木造를 이용한 새로운 형식의 도시형 한옥들이 많이 지어졌다. 그러나 전통적인 목조건축을 계승한 일반 한옥의 벽체는 여전히 대나무살을 엮어 그 위에 흙을 바르고 회반죽으로 마감하였으며, 기와지붕 위에도 회반죽 바름을 했다.³⁹⁰⁾ 또한 담장과 대문은 視覺的 차단과 防犯의 目的을 가지면서 폐쇄성이 증대되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대구의 주요 住宅地는 주로 동인동·국민주택지와 만촌동 교수촌 그리고 파동 국민주택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주요 작품으로서는 윤영도가 설계한 무림제지 회장사택과 고만근이 설계한 OB맥주의 권두현 주택 및 장경일 주택 그리고 김인호 설계의 삼덕동 강사장택과 한옥양식을 콘크리트로 표현한 무림제지 이무일 주택 등이 있다. 60년대 후반의 주택으로는 현재 건들바우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김화자 설계의 주택(사진 9-326) 등이 있다.



(사진 9-326)

건들바우박물관 전경(김화자, 60년대말)

390) 김화자, 〈대구지역 주거형태의 변화〉《'88 대구건축사작품집》, 대한건축사협회 대구직할시지부, 1988, pp.141 ~ 162.

2) 1970년대 단독주택

70년대에 생활양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나 도시인구의 증대와 地價의 상승으로 주거공간이 密集化되었다. 특히 마루는 가족 공동의 장으로써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마루 앞쪽에 유리문이 시설되면서 從前에 內·外部空間의 완충적인 공간으로 사용되던 마루는 외부와 차단된 실용적인 내부공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70년대는 취사도구의 발달과 生活樣態의 변모로 부엌이 立式化되고 이와 아울러 외부에 설치하였던 화장실, 목욕탕 등이 실내로 서서히 유입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한정된 대지와 地價의 양등 등으로 마당에서 행해지던 모든 住生活 행위가 일부 실내로 유입되면서 마당의 기능과 규모가 前 시기보다 축소된 반면 庭園의 개념이 강조되었다. 또 가족 상호간의 私的행위가 강조되면서 室이 증가되고 안방에서 이루어지던 많은 생활행위가 점차 分散되었다. 따라서 안방은 부부의 私的 空間으로 단순화되는 한편 각실간에는 有機的인 평면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70년대에는 취사 연료의 변화와 부엌의 立式化 경향으로 인해 안방에서 이루어지던 식사나 응접행위가 주부만의 절대적 領域인 부엌에서 점차 가족의 영역으로 移行되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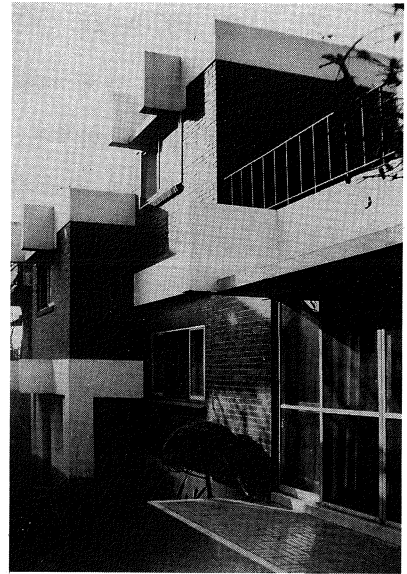
1972년에 목조건축이 금지되면서 시멘트 제품의 블럭 및 벽돌에 의한 조적조 주택이 활발히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건축재료면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는데, 즉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적극적인 채용과 함께 블럭과 벽돌·타일 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유리가 보편적인 채광재료로 채용되었다. 지붕형태는 평지붕과 경사지붕이 단순하게 절충된 양식과 경사지붕의 기울기를 달리한 비대칭 박공지붕이 성행하였으며, 일부에서는 평지붕에 옥상공간을 두고 장독대나 빨래 건조대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처마부분은 콘크리트 보와 돌출기둥·벽체 등으로 外部를 裝飾하였으며 특히 창문틀은 기존의 나무창틀에서 알루미늄 창틀로 바뀌었고, 창문 上·下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인방을 두어 하중을 받게했다. 외벽에는 화강석 견치석 쌓기, 또는 타일 마감 등으로 수평 장식 현상이 나타났다. 실내 화장실과 욕실에는 대개 바닥에만 타일을 사용하였다. 대문은 콘크리트 평지붕에 나무 대문을 달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담장 벽면에는 마름모꼴·수평장식띠 등 다양한 형식의 디자인이 선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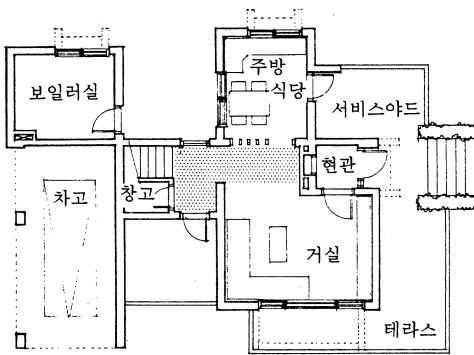
70년대 전반기의 주요 작품으로써는 박두용 설계의 대현동 진갑득 교수택(1970), 삼덕동 장씨택(1974)과 김현산 설계의 염화직물 사장택(1974), 대명동 매일신문 사장택(1974)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김화자가 설계한 삼덕동 태양열주택(1973)은 대구 최초의 태양열 주택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합동건축의 금복주 사장택과 연합건축의 윤보경 주택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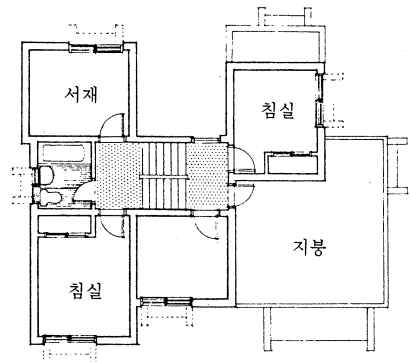
70년대 후반은 주택 수요의 증대로 대규모의 단독주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로 박두용 설계의 허교수택(1976)³⁹¹⁾(사진 9-327 圖 9-142, 1976), 이중우 설계의 대명동 문교수택(1977), 임팔암 설계의 강사장택(1979)과 대명동 K씨택이 있다. 그 외에 합동건축 설계의 경상북도 도시사 공관(1979)등이 있다.



〈사진 9-327〉
허교수택 전경(박두용, 1976)



〈圖 9-142〉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허교수택 1·2층 평면도

3) 1980년대 단독주택

70년대 後半부터 점차 層別 分化形의 주택이 건축되었고, 80년대 들어와서는 주택의 2층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층형 주택의 경우 1층에 안방·거실·부엌·식당·현관·욕실

391) 雪松 朴斗涌教授 華甲紀念作品集 刊行委員會, 《雪松 朴斗涌教授 建築作品集》, 1993, pp.44~45.

등을 두고, 2층에 자녀들의 個室을 두는 평면형이 많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가족 전용의 2층 주택 뿐만 아니라 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으로 주택 부족율이 증가하면서 2층을 임대하는 多家口形의 2층 주택도 많이 등장하였다. 다가구형의 2층주택의 경우 2층으로 통하는 전용 외부계단을 설치한 소위 집장사 주택형이 등장하면서 주거 평면계획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에 들어오면 實用性和 經濟的 意識에 근거하여 주택의 1층과 2층을 분리하여 2층을 임대하거나 1층의 剩餘房을 임대하는 음성적 임대주택이 늘어났다. 이때 화장실을 문간에 두고 外部 出入者와 共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2층에도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서 많은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現狀은 1985년 다세대 주택의 規定이 制定되어 2층 단독세대형 임대주택이 양성화됨에 따라 다원적 측면의 생활내용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거형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住宅이 2층화 경향을 보인 80년대에도 안방은 여전히 1층에 자리잡고 있었다. 서구주택의 경우 주로 2층에 다른 침실들과 함께 주인침실(Master Bed Room)이 계획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우리의 경우 안방이 침실 기능 뿐만 아니라 가족의 단란·접객 등의 기능을 複合적으로 遂行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택이 2층화 되면서도 안방은 여전히 1층에 남아 있어야 했다. 그리고 안방에 별도의 화장실(욕실)이 계획되어 夫婦圈을 확보하기도 했으나 이것이 일반화되지는 못했다.

이 시기에도 종래와 같이 다양한 생활기능이 집중된 안방은 주생활의 중심공간으로 기능하면서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다. 마루(대청)는 서구적 개념의 거실공간으로 변화하였으나, 그 기능에 있어서는 아직도 독립된 거실 기능을 수용하지 못한 채 위치 및 기능에 있어 안방의 보조적 공간으로서 본래의 생활공간 位相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의 주거건축에서 서구적 ‘거실문화’보다는 전통적인 ‘안방문화’ 중심의 주생활이 고수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80년대에는 都市內 상하수도의 정비와 주거내 設備의 발달로 외부에 시설되었던 변소가 주거공간 내로 들어오면서 평면구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무엇보다 기능성과 편의성·쾌적성이 증가한 것이다. 욕실에서 행해지던 세탁 등의 행위는 주로 다용도실로 모아졌으며, 물을 사용하는 부엌과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은 배관설비의 효율성과 관리를 위해 隣接하여 배치되었다.

이 시기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벽돌 구조였으며, 이

중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벽돌 구조가 主從을 이루었다. 외벽에는 화강석 석판을 수평 줄눈에 맞춰 붙여 수평선을 강조하거나 붉은벽돌로 치장 쌓기를 했으며, 간혹 外裝材를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제물치장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특히 1980년 후반부터 콘크리트 블록과 시멘트 벽돌을 사용한 조적조 벽체에 붉은 벽돌로 치장하는 것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다.

80년대는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건축재료의 생산과 다원적인 형태감각으로 주거형태의 다양화가 가능해졌다. 70년대에 선호되었던 평지붕은 80년대에도 계속 유지되었으나 전통 한옥 기와지붕 대한 향수로 인해 現代의 機能에 傳統的 感覺이 가미된 형태의 디자인으로 變形되기 시작하였다. 즉 평지붕의 가장자리인 난간부분의 수직면을 경사면으로 만들고 거기에 기와를 얹은 눈썹지붕의 형태가 유행하였다. 또는 이와 달리 평지붕의 가장자리를 그대로 두고 中央部에만 박공지붕을 形成하고 기와를 얹는 절충형 지붕, 그리고 순수한 모임 및 박공형태의 기와 지붕도 많이 사용되던 지붕형태였다.

이 밖에 간혹 지붕의 일부에 천장을 설치한 주택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지붕의 처마는 전통 한옥의 부연과 서까래를 단지 몇 개의 段으로 단순화시켜 형태를 강조하였으며, 처마선은 곡선 보다는 직선적인 구성이 두드러졌다. 또한 대구의 日照와 降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처마 내민길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곳에 물홈통을 설치하여 강우에 대비하였다.

70년대의 주택 창호에는 목재 창이나 흰색의 알루미늄 새시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80년대에는 창호의 意匠적인 중요성과 쾌적환경 조성 요구가 증대하면서 새롭게 발전하였다. 개성적인 창호 형태와 個人 私生活의 보호, 外部 騒音에 대한 적절한 차단을 위해 대부분의 창호를 二重窓으로 처리했다. 二重窓의 실내쪽 창은 傳統 窓戶인 살창의 형식으로 장지 대신 유리를 사용하여 內·外部 空間의 시각적인 連續性을 유도하고, 외부 창은 갈라 알루미늄 새시창이 선호되었다.

1987년 경에는 소위 집장사 주택에서 前面 大型 창에 대형 복층유리를 그리고 현관 출입문에 강화유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대문은 70년대의 단순한 출입의 개념을 가진 나무 대문이 主從을 이루었으나, 80년대에는 주로 철제 대문이 사용되었다. 특히 70년대의 단순한 평지붕 형식의 대문이 이 시기에 오면 주택 몸체 지붕형태와 같은 팔작 기와지붕 형태 등으로 바뀌어 주택지붕과 대문의 형태적 통일성이 강조되었다.

80년대에는 經濟的 水準과 生活의 質이 향상되면서 주택의 질 또한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당시 주요 주택들은 주로 수성구와 남구의 신흥 주택지를 중심으로 건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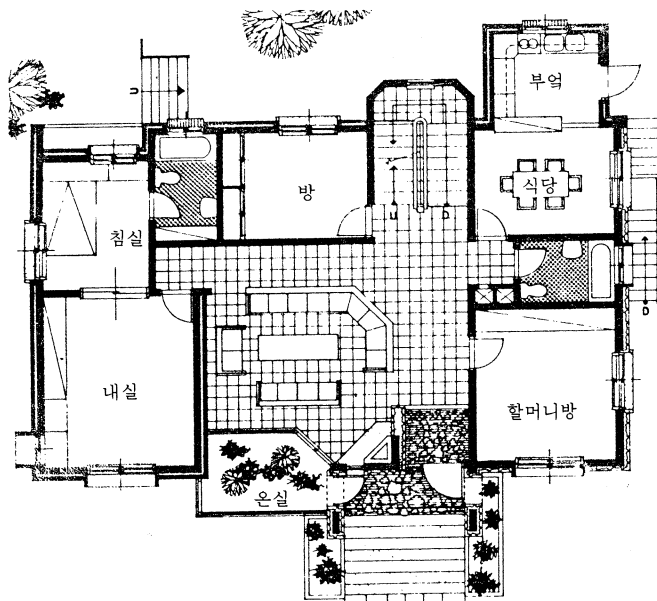
80년대 전반의 대표적인 주택으로는 박두용 설계의 대명동 이문호 교수댁 (1980)을 비롯하

여, 서보광 설계의 범어동 김사장댁(1980), 만촌동 이법원장댁(1981) 그리고 김무권 설계의 삼덕동 0씨댁(1982)과 임팔암 설계의 배사장댁 (1982)(사진 9-328, 圖 9-143), 강정공 설계의 성백희 주택(1983), 대명동 이변호사댁(1983), 합동건축의 동인동 L씨댁 (1983) (사진 9-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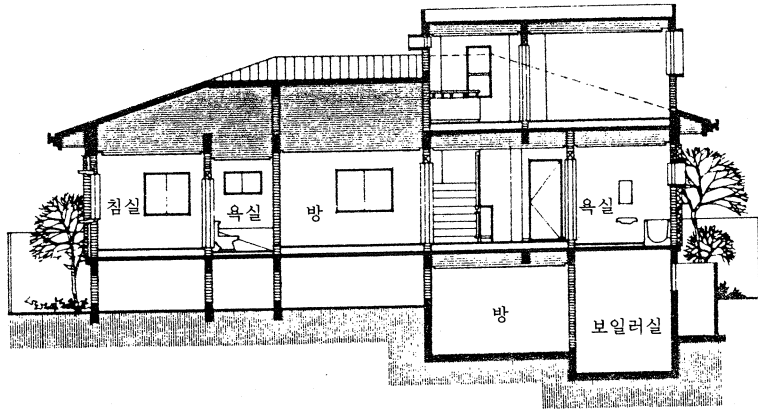


〈사진 9-328〉

배사장댁 정면(임팔암, 1982)



①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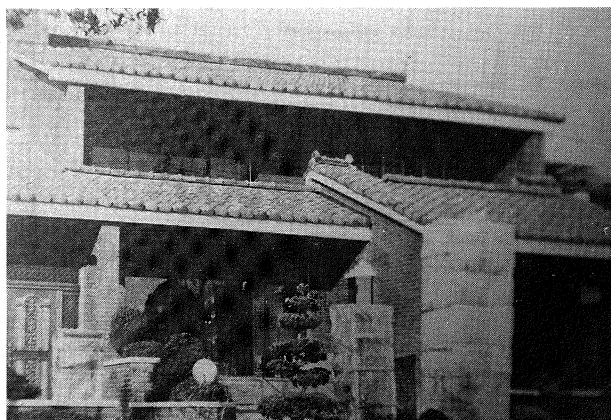
② 단 면 도

〈圖 9-143〉

배사장댁 1층 평면도 및 단면도(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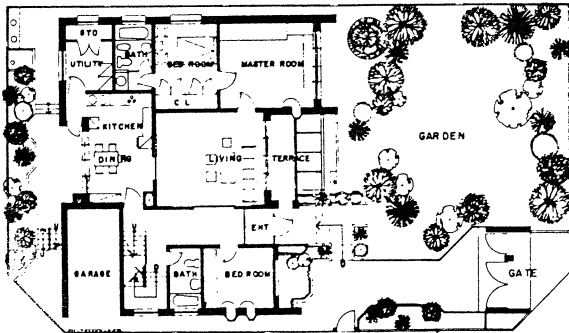
圖 9-144), 정의용 설계의 만촌동 아버님댁 (1984), 이태수 설계의 김태호 주택(1984) 등을 들 수 있다.

이 들 작품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은 모임 또는 박공형태의 단순한 기와지붕과 外裝材로 붉은 벽돌사용 그리고 주차공간을 위한 스킵 플로어(Skip Floor)형식의 공간체계 등으로 당시의 건축 情緒와 住生活 패턴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일부 주택들에서는 붉은 벽돌을 사용한 外壁에 한옥 지붕을 現代적으로 소화한 합각 및 우진각 형태의 기와지붕을 구성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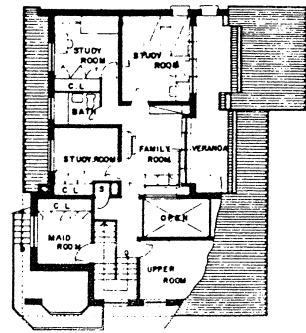
〈사진 9-329〉

동인동 L씨댁 전경(윤택식, 1985)



〈圖 9-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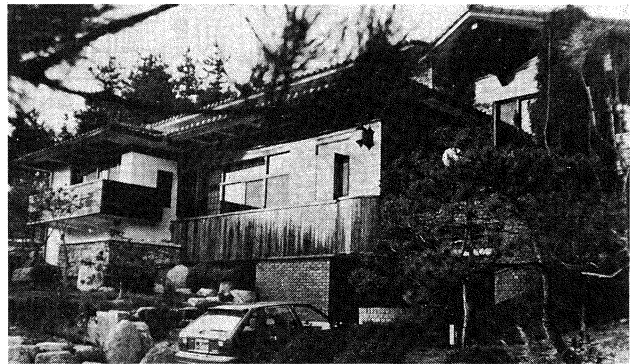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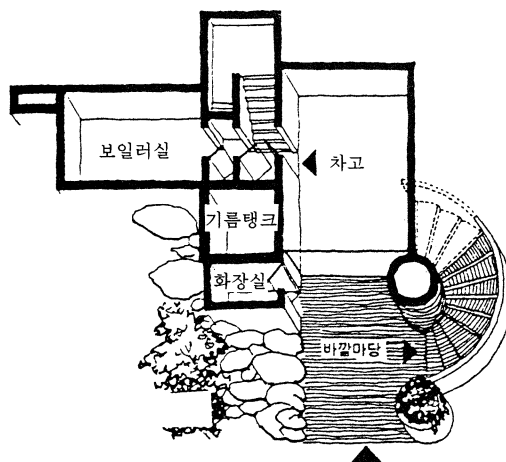
동인동 L씨댁 1.2층 평면도

80년대 후반에는 일부 주택에서 새로운 재료의 사용과 시도가 나타났는데 정의용 설계의 형님댁(사진 9-330, 圖 9-145, 1986)은 적삼목과 백색 본타일을 사용한 외관구성과 口자형 평면구성이 이채롭다. 이정호 설계의 베리따스의 집(1989)은 붉은 벽돌을 이용한 독특한 외관의 7자형 홀집형태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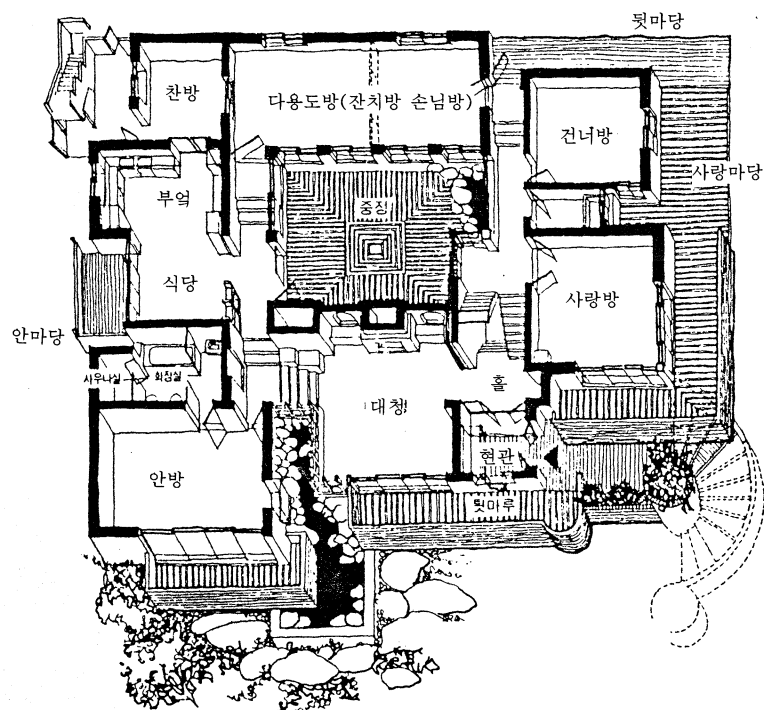


〈사진 9-330〉

형님댁 전경(정의용, 1985)



① 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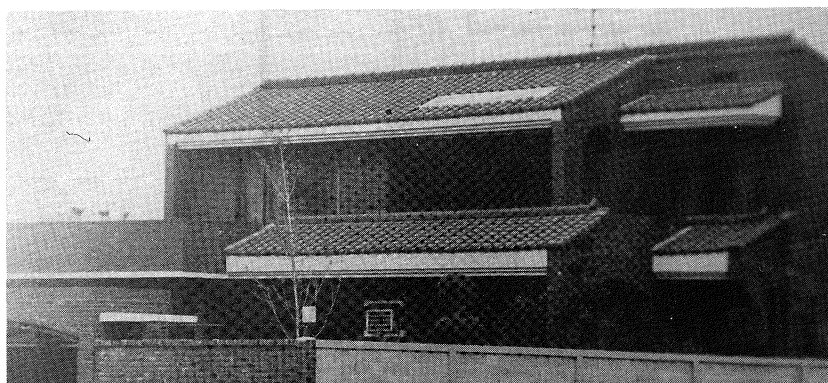


② 1층 평면도

〈圖 9-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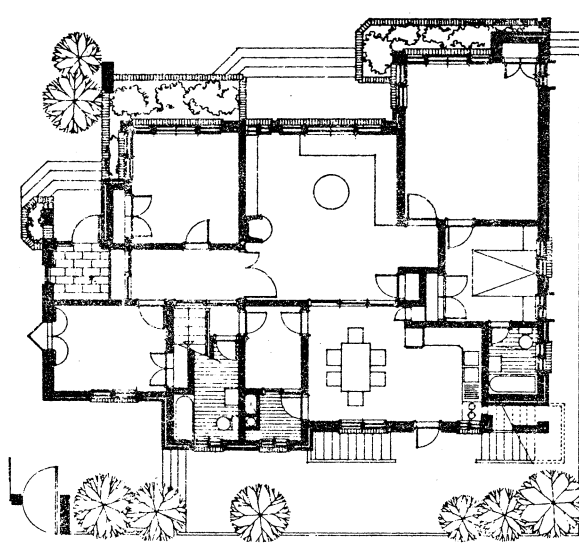
형님댁 지층 및 1층 평면도(① ②)

이 밖에도 80년대 중·후반의 주택으로 김선돌 설계의 만촌동 L씨댁, 김화자 설계의 대명동 이씨주택 (1985), 강정공 설계의 H교수댁(사진 9-331, 圖 9-146, 1985), 박정택 설계의 L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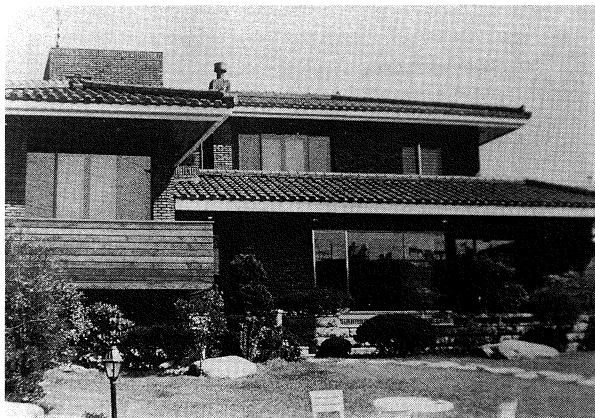
〈사진 9-331〉

H교수댁 정면(강정공,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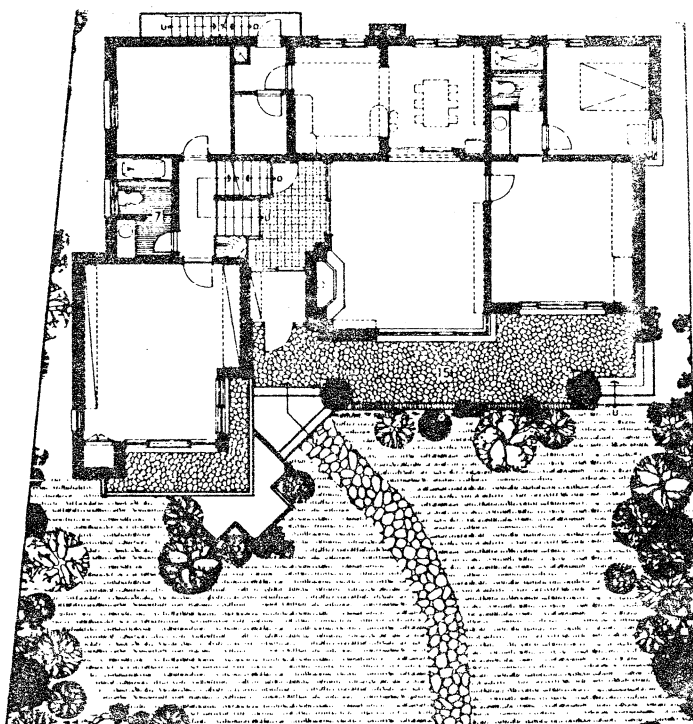


〈圖 9-146〉 H교수택 1층 평면도

주택, 임팔람 설계의 중동 최씨택(1985), 김무권 설계의 대명동 O씨택 (1987), (사진 9-332, 圖 9-147), 장기웅 설계의 K씨 주택(1987), 임선영 설계의 지묘동 박선생 주택(1987), 장기웅 설계의 집단주택(사진 9-333) 등이 있다. 도시형 임대주택으로 80년대 후반부터 많이 지어진 다세대 주택으로는 윤두현 설계의 다세대 주택, 윤영도 설계의 16평형 다세대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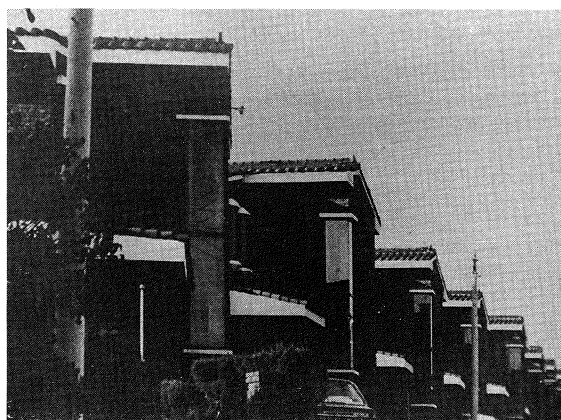


〈사진 9-332〉 대명동 O씨택 정면(김무권,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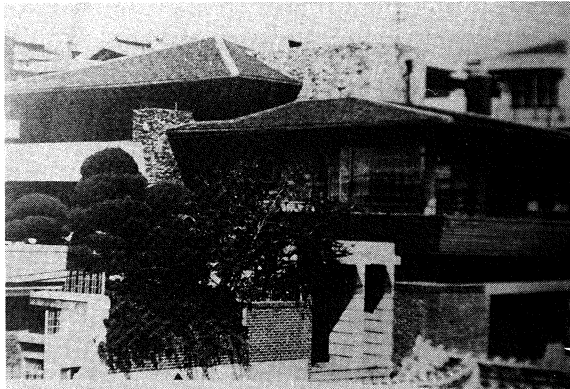
〈圖 9-147〉

대명동 O씨댁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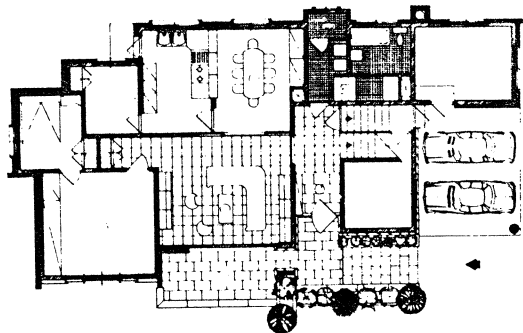


〈사진 9-333〉 집단주택 전경(강기웅, 1990)

1985)(사진 9-334, 圖 9-148))이 있다.



〈사진 9-334〉
대가족을 위한 주거공간 전경(윤영도, 1985)



〈圖 9-148〉
대가족을 위한 주거공간 1층 평면도

1990년에는 류문대 설계의 대명동 R씨 주택(사진 9-335, 圖 9-149), 윤철준 설계의 삼세대 태양열주택(1991), 서보광 설계의 상동 K씨택(1992)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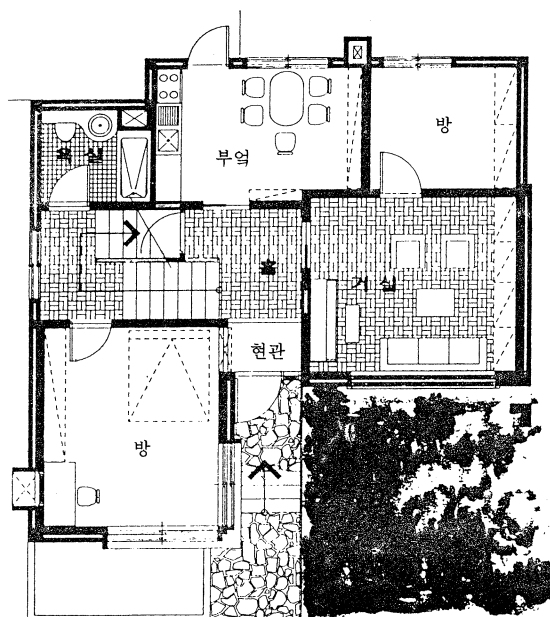
이 시기의 단독주택은 住居空間이 内部에 집중됨으로써 마당은 眺望과 休息空間의 機能이 중요시되어 庭園으로 꾸며졌고, 내부공간에 있어서도 아파트와 같이 가사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設備과 施設의 改善이 이루어 졌다. 즉 평면상으로는 아파트와 다른 없는 주거공간과 내부시설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택난이 극심해 지고 투기가 성행하게 되자 단독주택에 있어서도 주택에 대한 交換價値의 상승과 더불어 사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주거의 공간과 형태가 변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많은 賃賃를 위한 形態로 집을 짓게 되고, 法이 許容하는

한 최대의 층수와 면적을 가지려 했다. 이것이 한집에 여러가구가 살도록 계획된 ‘多世帶住宅’이라든지, ‘多家口形住宅’이라든지 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들도 등장하게 된다.



〈사진 9-335〉 대명동 R씨택 정면(류문대, 1990)



〈圖 9-149〉 대명동 R씨택 1층 평면도

전반적으로 당시의 住宅設計는 設計者의 개인적인 취향 뿐만 아니라 傳統形式에 대한 再解釋과 空間構造 및 材料 使用 그리고 形態構成에 대한 설계자 나름의 研究와 實驗的 表現의

흔적을 내포하고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와 아울러 앞으로 추구될 實驗的 作品과 새로운 建築概念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일반인들에게 波及시킴으로써 주거환경의 質的 水準을 향상시키는 역할 하였다. 그러나 大衆的으로는 부동산의 過熱現狀에 기인하여 주택의 使用價值보다 交換價值를 추구하는 편향된 住居觀이 확산됨으로서 주거문화 발전에 다소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表 9-8〉

대구의 주거건축(단독주택) 연표

건 물 명 (설계자, 건축년대)	규 모 (연면적)	위 치	비 고
무림제지 회장사택(윤영도, 1966) 장경일씨 주택(합동건축, 1966) 권두현 주택(고만권, 1966) 건들바우박물관(김화자, 1960년대말)		남구 대명2동 222-22	
진갑득 교수택(박두용, 1970) 염화직물 사장택(김현산, 1970) 매일신문 사장택(김현산, 1970) 삼덕동 태양열주택(김화자, 1973) 윤경보씨 주택(연합건축, 1973)	91.84㎡	북구 대현동 중구 삼덕동 중구 삼덕2가 149-73	지상 1층
정씨택(박두용, 1973)	231.7㎡	중구 동성로 2가	지하 1층, 지상 2층
장씨택(박두용, 1974)	203.93㎡	중구 삼덕동	지하 1층, 지상 2층
이진화씨택(박두용, 1975)	137.74㎡	서구 내당 2동	지상 2층
이상노교수택(박두용, 1976)	162.9㎡	중구 대봉동	지하 1층, 지상 2층
허교수택(박두용, 1976)	313.90㎡	중구 봉산동	지하 1층, 지상 3층
문교수택(이중우, 1977)		남구 대명동	
이재복씨택(박두용, 1977)	173.13㎡	서구 내당동	지하 1층, 지상 2층
최전무택(이중우, 1978)			
신암동주택(윤영도, 1978)		동구 신암동	
대명동 강사장택(임팔암, 1979)		남구 대명동 2131-6	
경상북도 지사공관(합동건축, 1979)		북구 산격동 1445-6	
이문호교수택(박두용, 1980)	305㎡	남구 대명동	지하 1층, 지상 2층
김사장택(서보광, 1980)		수성구 범어동 252-21	
이법원장택(서보광, 1981)		수성구 만촌동 1006-7	

건 물 명 (설계자, 건축년대)	규 모 (연면적)	위 치	비 고
삼덕동 O씨택(김무권, 1982) 이변호사택(서보광, 1983) 성백희 주택(강정공, 1983) 동인동 L씨택(합동건축, 1983) 아버님택(정의용, 1984)	312.79㎡ 187.71㎡	중구 삼덕동 남구 대명동 691-9 중구 삼덕3가 252-1 중구 동인동 수성구 만촌동	지하 1층, 지상 3층 조적조
김태호씨 주택(이태수, 1984) 만촌동 L씨택(김선돌, 1985) 대명동 이씨주택(김화자, 1985) H교수택(강정공, 1985) L씨주택(박정택, 1985) 중동 최씨택(임팔암, 1985) 봉덕동 주택(최찬, 1985) 형님택(정의용, 1986) 대명동 O씨택(김무권, 1987) K씨주택(장기웅, 1987) 지묘동 박선생주택(임선영, 1987) 집단주택(장기웅, 1987) 다세대주택(윤영도, 1987)	258.37㎡ 257.75㎡ 279.88㎡ 270.05㎡ 226㎡ 326.95㎡ 197.17㎡ 105.80㎡	서구 내당동 남구 대명동 수성구 상동 북구 대현동 수성구 중동 32-4 남구 봉덕동 738-3 남구 대명동	
ㄱ씨주택(이성, 1990) 대명동 R씨주택(류문대, 1990) 3세대 태양열 주택(윤철준, 1991) 상동 K씨주택(서보광, 1992) 서신균씨 주택(최병달, 1992)	163.637㎡ 428.50㎡	수성구 둔산동 남구 대명동 북구 읍내동 397-3 수성구 상동 383-6 달서구 진천동 251-18	

2. 공동주택

1) 1960년대 공동주택

大邱地域의 아파트 歷史는 총무처 주관으로 大韓住宅公社가 1966년에 남구 대명동에 건설한 공무원 아파트에서 비롯된다. 이 아파트는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12평 36가구와 15

평 24가구를 건립한 것으로, 각종 도시 시설이 미비했던 당시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질적으로는 서민주택 수준 이상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³⁹²⁾

〈表 9-9〉

1960년대 대구의 아파트 건립 현황

類 型 別	國 民 아 파 트	受 託 아 파 트	賃 貸 아 파 트	外 人 아 파 트
1966년 대명동 (공무원)		12평-36세대 15평-24세대		
1967년 대명동 (공무원)		10평-36세대		

당시의 아파트건설은 주로 經濟開發 5個年 計劃 事業의 하나로 전쟁 후의 인구의 급증과 도시로의 진출에 의한 막대한 住宅需要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政府가 설립한 大韓住宅公社의 再開發 事業에 의해 주도 되었다.

그러나 低層 주거에 길들여진 당시 사람으로서는 高層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마당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 게다가 設備의 미숙으로 상·하수도관에 대한 기술부족, 연탄가스의 위험성 등이 있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1968년에는 고만근 설계의 대구 最初의 시영아파트인 3층 규모의 성당 시영아파트가 건립되었다. 이는 대구 집합주택 건설의 본격적인 시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당시의 난방 및 급배수시설의 낮은 技術水準은 이와같은 시스템의 변화에 적절한 對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단독주택의 설비체계를 고층 주거에 적용함으로써 연탄가스나 환기 등의 환경적 문제, 고층주거에 대한 心理的인 불안감으로 인하여 그 선호도는 매우 낮았다.

성당 시영아파트 건축 1年後인 1969부터 대구시는 “시민아파트건립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먼저 동인동에 5棟(328세대), 신천동에 8棟(575세대)의 시민아파트가 着工되어 1970년 12월 12일에 完工을 보았다. 이어 신암동에 2棟(96세대)의 공영아파트가 着工되어 1970년 9월에 完工되었다.³⁹³⁾

392) 주식회사 청구, 《청구20년사》 3, 1993, p.62.

393) 대구시사편찬위원회, 《大邱市史》 3, 1971, pp.520~522.

당시의 평면은 서구식 스타일과 입식 생활양식에 알맞도록 계획되었으며, 계단은 공용식을 그리고 난방은 온돌난방을 채택하였다.

2) 1970년대 공동주택

대구지역의 아파트건축은 60年代 後半부터 建立되기 시작하여 70년 初半부터 활발히 추진되었는데, 1970년 신암동 112세대의 공영아파트와 466세대의 시영아파트가 건설되었고, 1971년 역시 신암동에 192세대의 공영아파트와 18세대의 시영아파트가 각각 건립되었다. 이 시기 주택공사도 많은 아파트를 건립하였다.³⁹⁴⁾

〈表 9-10〉

1970년대 대한주택공사가 대구에 건립한 아파트

類型別 年 度	國 民 아 파 트	賃 貸 아 파 트	受 託 아 파 트	借 款 아 파 트	社 債 아 파 트
1972			입석동(공군) 13평(48세대)		
1974		평리동 13평(290세대)		평리동 13평(200세대) 만촌동 15평(300세대)	
1975		내당동 13평(400세대)		내당동 13평(530세대)	
1976		효목동 13평(500세대)		효목동 13평(300세대)	
1977	효목동 13평(440세대)	효목동 13평(250세대)			
1978	평리동 13평(550세대) 중리동 13평(500세대) 15평(450세대)	평리동 13평(400세대)	두류(체신부) 13평(22세대) 성당(職訓) 17평(48세대)		

394) 대한주택공사, 《大韓住宅公社 年度別建設實積》, 1993, pp.288~409.

類型別 年 度	國 民 아 파 트	賃 貸 아 파 트	受 託 아 파 트	借 款 아 파 트	社 債 아 파 트
1979	평리동 13평형(250세대) 중리동 15평형(100세대)	평리동 13평형(280세대)			중리동 18평형(100세대) 25평형(150세대) 27평형(200세대)
1980		황금동 10평(200세대) 13평(500세대)		황금동 10평형(350세대) 13평형(1100세대) 15평형(750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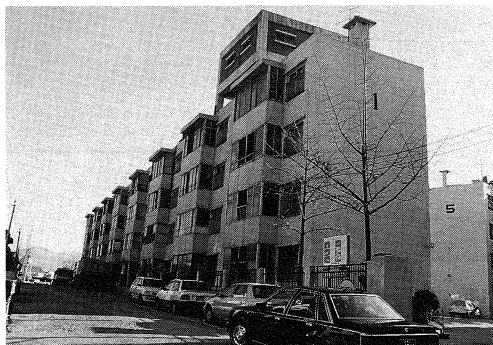
70년대에 들어오면 민간부문의 아파트 건설도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윤옥 설계의 동인아파트(사진 9-336, 1970), 동구아파트(사진 9-337, 1974)와 큰고개아파트(사진 9-338,



〈사진 9-336〉
동인 아파트 배면(윤옥, 1970)



〈사진 9-337〉
동구 아파트 배면(윤옥,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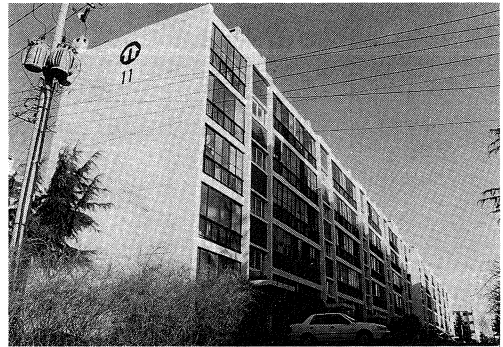
〈사진 9-338〉
큰 고개아파트 배면과 좌측면(윤옥, 1974)



〈사진 9-339〉
동신 아파트 배면(윤옥, 1975)

1974), 동신아파트(사진 9-339, 1975) 등이 이때 건설되어 주거건축의 一大 革新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큰고개아파트는 개량온돌이 施工됨으로써 재래식 온돌이 세대별 集中式 보일러 난방으로 改善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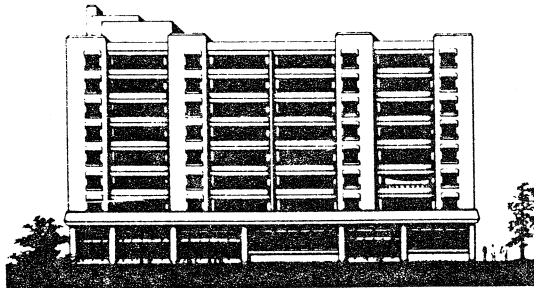
70년대 후반은 民營 建設業體가 본격적으로 아파트건설에 참여하여 아파트 건설이 더욱 활기를 띠 시기였다. 윤옥 설계의 효목 주공아파트(사진 9-340, 1977)와 김인호 설계의 한도맨션(사진 9-341, 圖 9-150, 1977)을 비롯 1978년에는 최초의 1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로 건설된 김원 설계의 대명동 청구아파트(1978)와 단위 세대별 최대의 평수(90평)를 기록한 이성설계의 대명동 정우맨션(사진 9-342, 1978), 합동건축 설계의 대명동 경일아파트(1978), 대명동 청구맨션(사진 9-343, 1978), 그리고 현대건축 설계의 대명동 동신점보맨션(1979)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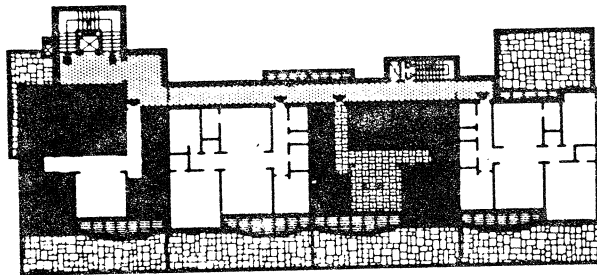
〈사진 9-340〉
효목 주공아파트 전경(윤옥,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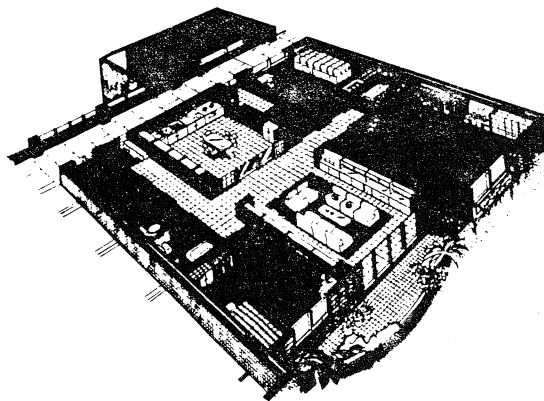
〈사진 9-341〉 한도맨션 전경(김인호, 1977)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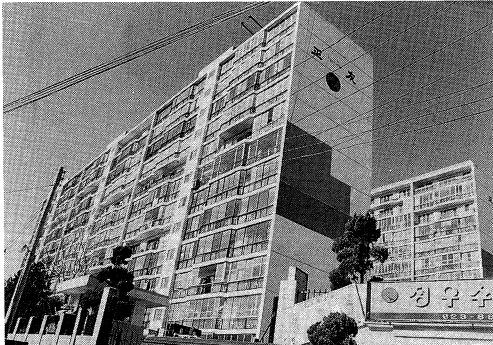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실내 투시도

〈圖 9-150〉

한도맨션 정면도·평면도 및 실내투시도



〈사진 9-342〉

정우맨션 전경(이성, 1978)



〈사진 9-343〉

대봉동 청구아파트 전경(김원, 1978)

그리고 많은 민영주택 건설업체들 중 대구 아파트 건설부문에 일찍부터 눈돌린 청구주택이 청구맨션(1978), 빌라맨션(1979)·청호맨션(1979)·골든맨션(1979)을 지었다.³⁹⁵⁾

이와같이 7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많은 試行錯誤를 거쳐 不合理한 内部空間과 設備을 改善하게 되자 市民들은 점차 아파트의 편리성을 인식 선호하게 되었다. 都市人들의 職住分離는 전통주택에서 주로 옥외생활 및 作業空間으로 필수적인 自己 所有의 마당을 절실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産業化와 함께 職場을 따라 자주 移動하게 됨으로서 大家族 制度가 解體되고 夫婦를 중심으로하는 核家族 制度가 일반화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대가족제에서 보다 작은 規模의 생활공간으로 생활이 가능해지고, 아울러 공간의 분화가 비교적 덜 필요해 진 것도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거를 가능하게 만든 원인의 하나였다.³⁹⁶⁾

그러나 70년대에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몇가지 基本形에 따라 설계되어 평면구성면에서 비슷하여 전체적으로는 획일적인 느낌을 주었다. 특히 평면구성에서 다양성이 부족한 설계로 거실의 경우 전통 한옥의 대청처럼 中央에 위치하여 動線 계획상 프라이버시(Privacy) 확보가 불리하였다.

構造面에서는 PC工法 및 고압벽돌 등의 新工法과 新資材 등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주거양식도 다양화되어 고층아파트의 경우 편복도형 뿐만아니라 塔狀型 및 계단실형 아파트 등이 건설되었다. 한편 주거규모는 점점 大型化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시기 아파트 평면형식은 홀(Hall)형이 많았다. 홀(Hall)형에서 중앙거실은 현관으로부터 침실 앞까지 이어지고, 식사공간·주방과도 연결된 일종의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의 형식

395) 주식회사 청구, 《청구20년사》, 1993, pp.449~450.

396) 姜榮煥, 《韓國 住居文化의 歷史》, 技文堂, 1991, p.182.

을 취하고 있어 거실 만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또 침실 및 욕실 등의 출입문이 가급적 거실공간의 주요부분으로 향해 있지 않고, 거실의 다른 한쪽 부분에 위치하거나 또는 거실의 한 공간을 할애하여 식탁을 놓거나 부엌이 한쪽에만 위치하는 것 등은 당시 아파트가 점차 서구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와함께 이 시기 아파트 기능에 새로운 면을 부여한 것은 바로 다용도실의 등장이다. 계단실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방과 인접한 곳에 다용도실을 두고, 또 후면에는 서어비스 발코니(Service Balcony)가 따로 설치되어 주부의 작업공간을 확대한 것은 60년대 이후 아파트의 가장 큰 평면상의 변화이다.

구조적으로는 60년대의 기둥식 구조에서 벽식구조가 도입·보편화 됨으로서, 기둥을 두고 평면을 구획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벽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새로운 방식이 채택되어 널리 사용되었다.

3) 1980년대 공동주택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인 70년대 前半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진 共同住宅은 80년대에 經濟成長에 따른 도시의 급격한 人口 集中 現狀으로 발생한 엄청난 住宅 不足率을 解消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의 大量供給政策이 중요한 하나의 문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방법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土地의 高度利用과 住宅의 大量供給을 위해 향상된 設備施設과 家事 自動化에 의한 편의시설을 갖춘 고밀화된 집합주택(중·고층 아파트)이 대규모로 지어졌다. 또한 구조적으로 高層化에 따른 구조적인 해결방법도 모색되었다.³⁹⁷⁾

한편 小規模 資本을 갖춘 주택 건설업자들은 都市內에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하기도 하였다. 이들 연립주택은 아파트가 가질 수 있는 주거생활의 편리성을 갖는 동시에, 低層이기 때문에 외부공간과 쉽게 접할수 있는 長點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 단지로 이루어져 團地로서는 아파트 만큼 인기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후 연립주택들은 대부분 中產層의 주거형식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 갔다. 그중에서도 특히 低層을 좋아하는 부유한 階層들은 個性이 있는 주택을 요구 하였고, 같은 계층과 어울려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빌라”(Villa)라는 고급 연립주택 단지가 몇 곳에 세워지게 되었다.³⁹⁸⁾

397) 강수립,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변천과정〉《월간 플러스》15, 1987, p.117.

398) 姜榮煥, 《韓國 住居文化의 歷史》, 技文堂, 1991, p.185.

80년대 전반기 대구지역에는 복현동 현대아파트(사진 9-344, 이성, 1980)를 비롯 많은 민간 건설업체에 의해 대규모 아파트가 여러 곳에 지어졌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뉴골든 맨션(청구주택, 1980), 무궁화 아파트(청구주택, 1980), 동부 우방 아파트(우방주택, 1980)³⁹⁹⁾, 동서 제일아파트(동서개발, 1980)⁴⁰⁰⁾, 동서 1.2차 아파트(동서개발(1980) 등이 지어졌다.



〈사진 9-344〉

복현동 현대아파트 전경(이성,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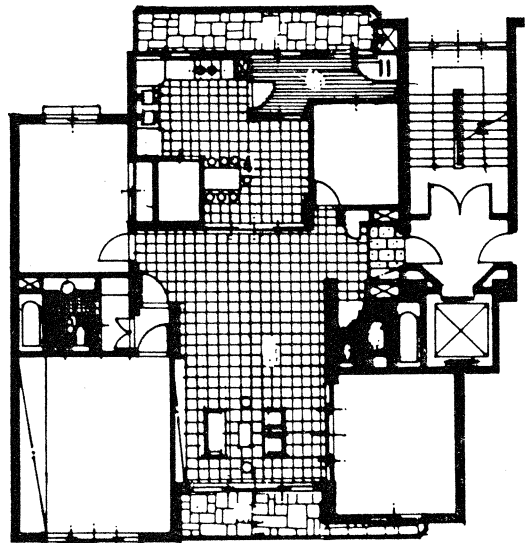
1981년에는 중동 아파트(청구주택, 1981), 꽃동네 아파트(청구주택, 1981), 코스모스 1차 아파트(우방주택, 1981), 신동아 아파트(화성산업, 1981)가 준공을 보았다. 1982년에는 로얄 하이츠(청구주택, 1982)와 크로바 아파트(우방주택, 1982), 뉴 코스모스 아파트(우방주택, 1982), 범어 1차 아파트(우방주택, 1983)등이 지어졌다. 한편 80년대 초에는 이들 민간 주택업체들 뿐만 아니라 대한주택공사도 국민 아파트와 재개발지역의 서민 아파트 및 영구 임대아파트 등을 많이 건립하였다.

1983년에는 김화자 설계의 남산 솔라맨션 (사진 9-345, 圖 9-151, 1983), 황금동의 우방 황



〈사진 9-345〉

남산 솔라맨션 전경
(김화자, 1983)



〈圖 9-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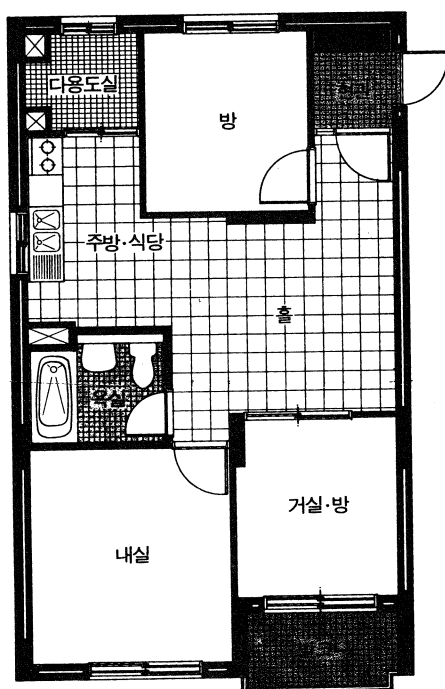
남산 솔라맨션 단위평면

399) (주)우방주택, 《사업현황》, 1994. p.102

400) (주)동서개발, 《사업현황》, 1994.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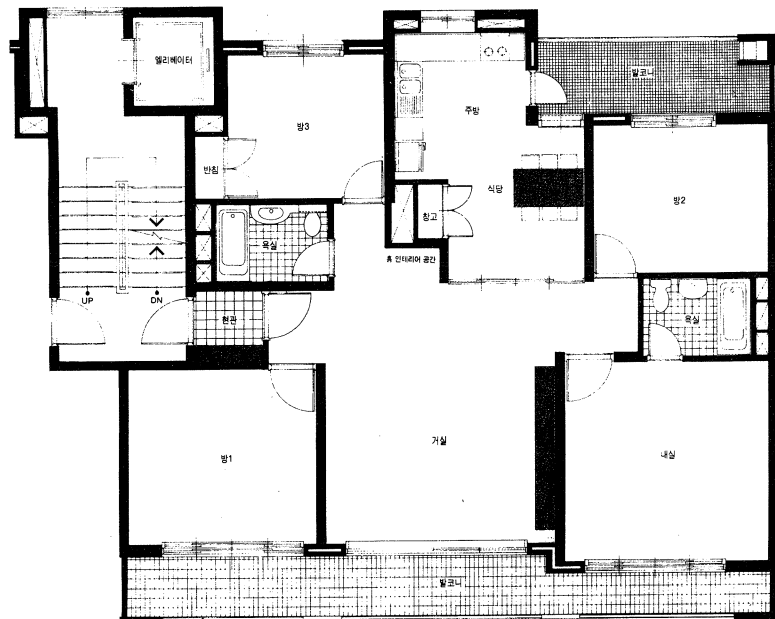
금 1차아파트(1985)와 동서개발의 동서 3차 아파트(1983), 신암 1차 아파트(1984), 대신동 동서타운 등이 건립되었다. 1985년에는 성당 우방맨션(우방주택, 1985), 수정 우방맨션(우방주택, 1985), 2차 그린맨션(청구주택, 1985), 신암 2차 동서타운(동서개발, 1985), 평리 4차 아파트(동서개발, 1985), 앞산 빌라(동서개발, 1985) 등이 각각 준공되었다.

80년대 후반기에는 청운맨션(우방주택, 1986), 수정맨션(圖 9-152, 우방주택, 1986), 금탑맨션(우방주택, 1986), 장관빌라(동서개발, 1986)가 준공을 보았다. 그 이듬해인 1987년에는 2차 광장타운(청구주택, 1987)과 명문빌라(동서개발, 1987), 청기와 아파트(동서개발, 1987), 아카시아 맨션(우방주택, 1987), 대자연 맨션(우방주택, 1987), 라일락 맨션(우방주택, 1987) 등이 지어졌다.



〈圖 9-152〉
수정맨션 30평형 평면도(우방주택, 1986)

이 밖에도 서종달 설계의 이천동 상아 아파트(1987)와 환경건축이 설계한 광장타운(1988), 효성타운(1988) 및 성화 아파트(동서개발, 1988), 궁전맨션(우방주택, 1988), 태전동 은마 아파트(제림주택, 1989), 신세계아파트 (윤옥, 1989), 수정구의 장원맨션(1989), 백작맨션(동서개발, 1989), 금강맨션(圖 9-153, 동서개발, 1989) 등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본격적인 아파트주거 시대를 맞게 되었다.



〈圖 9-153〉 금강맨션 32평형 평면도(동서개발, 1989)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입주자들에게 주거선택의 폭을 넓혀주려는 의도에서 다양한 평면형태들이 서서히 나타났다. 즉 같은 전용면적 안에서 방의 수와 욕실의 수를 달리하므로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을 만족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소형이나 중형의 기존 평면형식에서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大型 坪形으로 갈수록 公的인 공간은 거실과 식당·부엌 등으로 분리되었다. 작은 단위 坪數의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부엌과 식당이 동일 공간에 위치하는 DK(부엌 겸 식당:Dining Kitchen)의 형태를 띄게 된다. 그리고 대형 坪形 아파트의 큰방(부부침실) 주변 공간구성은 인접한 방과 연계되어 부부침실과 안방의 기능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그 연결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큰방의 연결방법으로는 첫째, 2개의 방이 직접 연결되고 침실로 설정한 방에서 강의실과 욕실 겸 화장실이 부속된 형태 둘째, 前室과 화장실 부분이 2개 방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고 셋째, 둘째 경우와 같은 방식을 취하면서 침실로 설정한 방을 침실로 사용하거나 가족의 독립된 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넷째, 큰방에 전용 욕실 및 화장실만 부속되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평면형식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공간구성 및 평면상에서의 변화로는 1988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박스(Box)형 코아(Core)의 등장이다. 박스형 코아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초고층아파

트에 엘리베이터를 2대 설치하거나 배치 조합방법에 따라 여러가지의 변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 코아형은 기존의 I자형 코아에 비하여 실의 크기 변화나 실 구성형태의 변화, 前後面 칸수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 다용도실은 평면형이나 출입방식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다. 다용도실은 복도형에서는 전면 발코니에, 계단실형에서는 부엌 옆 또는 배면 발코니에 위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화장실의 배치는 70년대 外氣에 면하여 배치되어 자연환기와 채광이 용이한 배치형식이였다. 그후 차츰 실내로 내부화되고 기계환기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80년대 후반기부터는 다시 화장실이 외기에 면하여 배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전체적인 실 배치 때문에 생기는 형태상의 변화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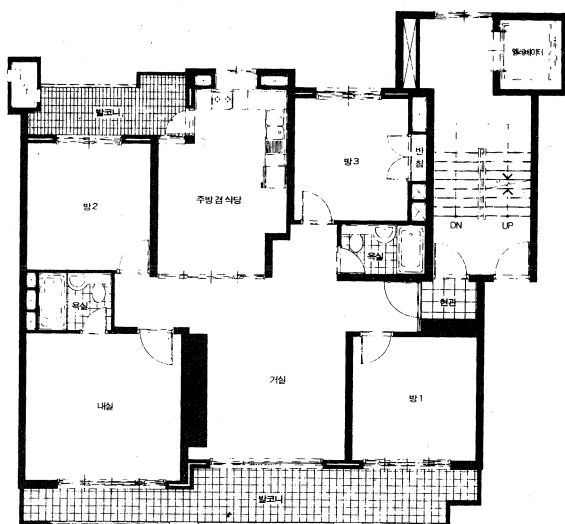
또한 각종 사용자재의 고급화 및 입주자가 재료와 설비 내부공간 구성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Option:선택사양)제도도 도입되었다. 이 옵션(Option:선택사양)제도는 아파트 건설업체 수의 증가로 상호간의 경쟁의식이 촉발되고, 구매자의 의식수준 및 주거수준 향상 등에 따라 구매자 자신들이 여러가지 자재나 각종 설비부품 등을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어 나타난 새로운 아파트 분양형식으로 주택 건설업체간의 품질과 기술 수준의 경쟁을 부추켜 대구의 아파트 건설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같은 아파트 건설업체의 호황으로 1980년 후반부터 민영 주택 건설업체 수가 많이 늘어났다. 80년 이후부터 등장한 주택 건설업체로는 보성주택, 화성산업⁴⁰¹⁾, 창신주택, 제림주택 등이 있고, 그외 군소 주택업체가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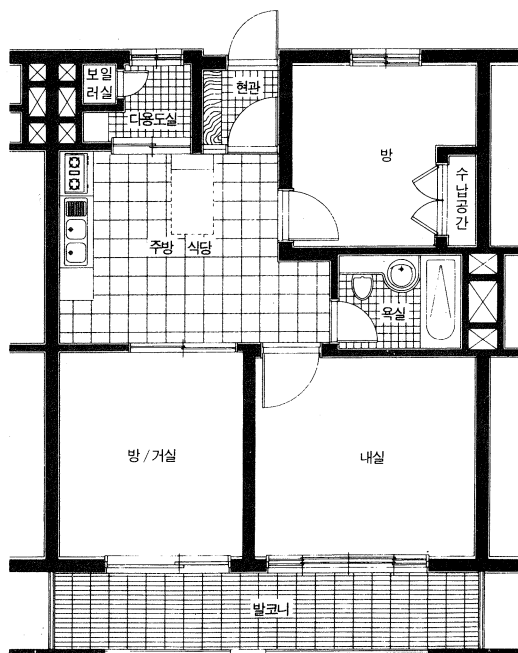
1990년에 지어진 대표적인 아파트로는 지산 동서맨션(圖 9-154, 동서개발, 1990), 월성 동서타운(동서개발, 1990), 월성 청구타운(청구주택, 1990), 호반맨션(청구주택, 1990), 지산 청구타운(청구주택, 1991), 장수빌라(제림주택, 1991), 시지 은세계타운(제림주택, 1991), 신천지 타운(우방주택, 1991), 지산 우방타운(우방주택, 1991), 월성 우방타운(우방주택, 1991), 상인동 제림타운(圖 9-155, 제림주택, 1992), 범물 청아타운(圖 9-156, 동서개발, 1991), 상인 동서타운(圖 9-157, 동서개발, 1992), 시지동 은담맨션(제림주택, 1992) 등이 있다.⁴⁰²⁾

401) 和成産業(株)東亞百貨店, 《和成産業(株)東亞百貨店 30年》, 1990. pp.3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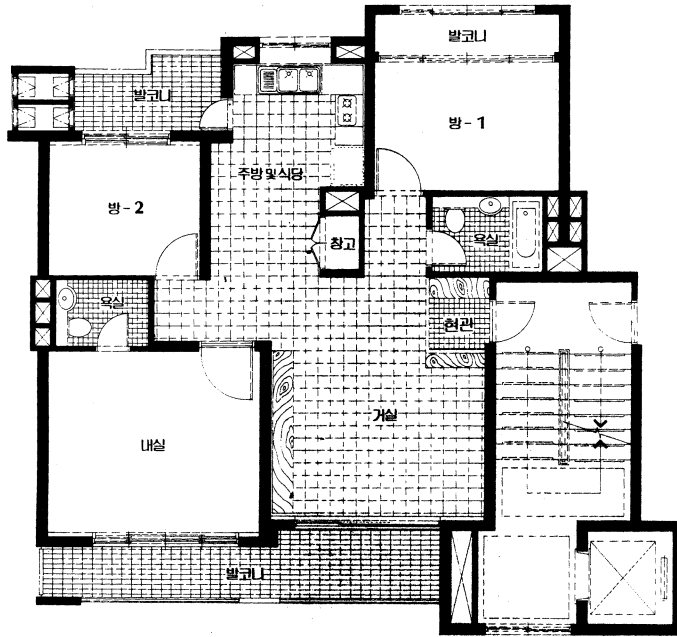
402) (주) 제림주택, 공사지명원설명서, 1993.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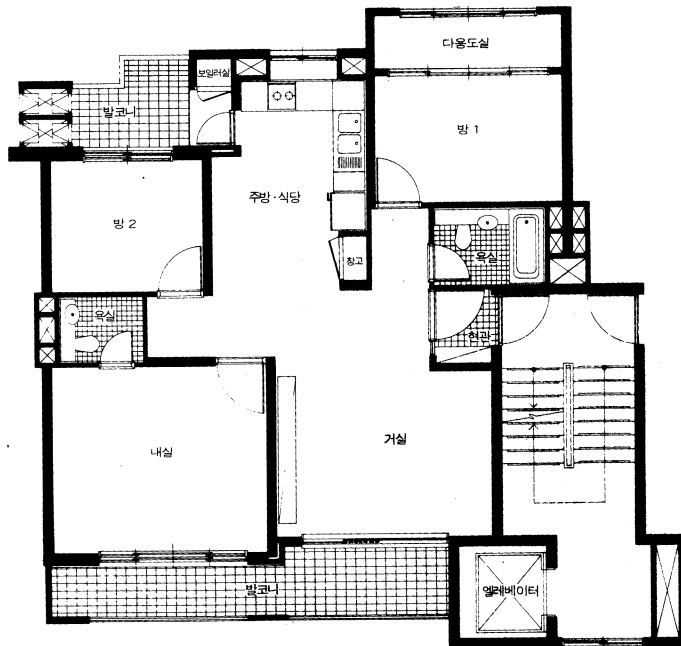
〈圖 9-154〉
지산 동서맨션 42평형 평면도(동서개발, 1990)



〈圖 9-155〉
상인동 제림타운 25평형 평면도(제림주택, 1992)



〈圖 9-156〉 범물 청아타운 31평형 평면도(우방주택, 1992)



〈圖 9-157〉 상인 동서타운 26평형 평면도(동서주택, 1992)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한 대구의 공동주택 아파트는 住宅供給物量의 充足을 위한 量的 膨脹과 住居 공간의 그 기능성만 고려된 나머지 垜地 規模의 한계나 人間的 尺度, 색채사용 등의 環境心理의面과 外部環境의 상대적 미비와 부조화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단시일 내에 건립된 아파트들의 급속한 슬럼(Slum)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아파트 주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住宅政策의 합리적인 方向設定, 住宅事業의 종합적인 計劃수립, 전문인들의 설계에 대한 깊은 研究와 嗜好度 調査 등 개성있는 집단주거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表 9-11〉

대구의 집합 주택 연표

건 물 명 (설계자, 건축년대)	규 모 (연면적)	위 치	비 고
대명동 공무원 아파트(1960)			
성당 시영아파트(고만권, 1968)		남구 대명동	
동인 시영아파트(윤옥, 1970)		중구 동인동	지상 4층
동구 아파트(1970)			
큰고개 아파트(1974)			
동신아파트(1975)			
한일맨션(김일진, 1975)		중구 대봉동	지상 5층
효목아파트(윤옥, 1977)		동구 효목동	
한도맨션(김인호, 1977)	6,157㎡	수성구 수성동	지상 10층
대봉동 청구아파트(김원, 1978)		중구 대봉동	
대명동 경일아파트(합동건축, 1978)		남구 대명동 590-80	
정우맨션(이성, 1978)		남구 대명동	
대봉동 청운맨션(1979)			
북현동 현대아파트(이성, 1980)			
남산 솔라맨션(김화자, 1983)		중구 남산2동 130-1	
우방 황금 1차 아파트(1985)			
상아아파트(서종달, 1987)		남구 이천동 650	지상 15층
광장타운(환경건축, 1988)		남구 봉덕동 1115	
효성타운(환경건축, 1988)			
신세계 아파트(윤옥, 1989)		수성구 수성1가 640-2	
범물 1단지 근로자 복지아파트 (합동건축, 1991)		수성구 범물1단지 B-2	

編輯委員會 및 執筆委員

《編輯委員會》

委員長	金英夏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副委員長
委員	尹容鎭	慶北大學校 教授
	金相榮	慶北大學校 教授
	崔龍浩	慶北大學校 教授
	朴勝偉	嶺南大學校 教授
	金宅圭	前 嶺南大學校 教授
幹事	金若秀	大邱市史編纂委員會 研究員
		(分科別順)

《執筆委員》

金漢坤	嶺南大學校 教授 (1章)
李鍾烈	慶北產業大學校 教授 (2章)
尹大植	嶺南大學校 教授 (3章)
金潤詳	嶺南大學校 教授 (4章)
白成玉	嶺南大學校 教授 (5章)
朴錫敦	慶北大學校 教授 (6章)
金奎原	慶北大學校 教授 (7章)
金宅圭	前 嶺南大學校 教授 (8章)
朴晁楠	嶺南大學校 教授 (8章)
金一鎭	嶺南大學校 教授 (9章)
尹在雄	曉星女子大學校 教授 (9章)
李鎬洙	密陽產業大學校 教授 (9章)
	(執筆順)

大邱市史 第四卷

1995年 1月 18日 印 刷

1995年 2月 20日 發 行

發 行 大 邱 廣 域 市

編 著 大 邱 市 史 編 纂 委 員 會

印 刷 大邱慶北印刷工業協同組合
